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Religion and Education in Suwon

# 수원의 종교와 교육

수원시사  
10



# 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수원시사편찬위원회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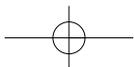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  
TheHistory  
The Suwon

수원시사 10

# 수원의 종교와 교육





## 일 | 리 | 두 | 기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제10권 수원의 종교와 교육

● 일러두기

제1부  
종교와  
신앙

제1장 수원 불교계의 동향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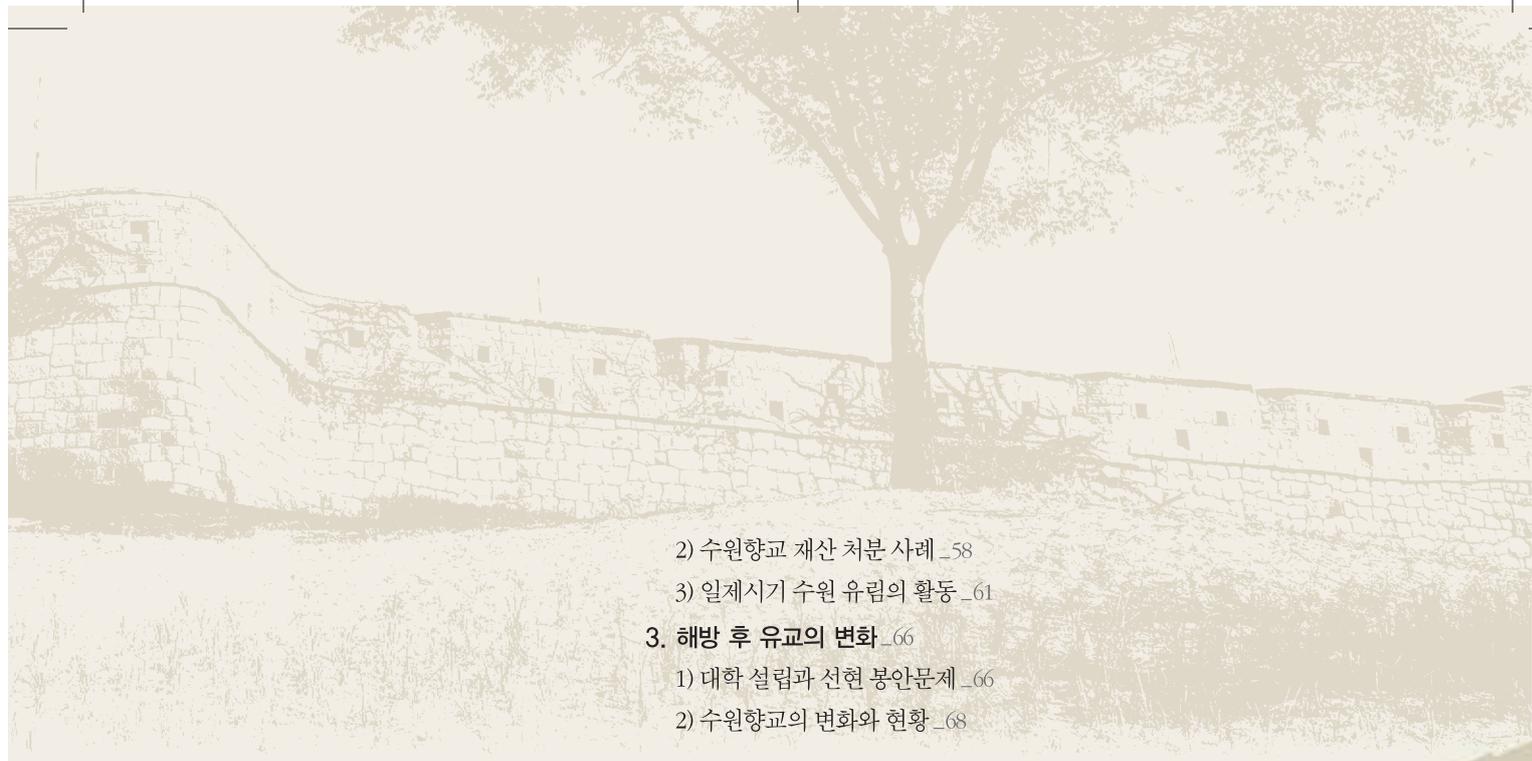
김수현

1. 고려시대 불교의 동향 \_15
  - 1) 고려 중기 지방세력과 불교계 \_16
  - 2) 조인규 가문과 수원 만의사 \_18
  - 3) 진각 국사 천희와 광교산 창성사 \_21
2. 정조의 불교 인식과 용주사 창건 \_23
3. 불교 근대화와 용주사 \_30
4. 수원의 사찰 \_35
  - 1) 비구니 강원 봉녕사 \_35
  - 2) 조계종 사찰 청련사 \_37
  - 3) 수원포교당 수원사 \_38
  - 4) 선학원 분원 팔달사 \_40
  - 5) 법화종 사찰 묘수사 \_41
  - 6) 천태종 사찰 용광사 \_42
  - 7) 진각종 사찰 유가심인당 \_42

제2장 수원 유교계의 동향과 변화

김명우

1. 조선시대 수원향교와 켈리사 \_45
  - 1) 조선시대의 향교 \_45
  - 2) 수원향교의 설립과 현황 \_47
  - 3) 공서린과 화성켈리사 \_50
2. 일제하 수원향교 재산 실태와 유림의 활동 \_55
  - 1) 일제의 향교정책 변화 \_55



- 2) 수원향교 재산 처분 사례 \_58
- 3) 일제시기 수원 유림의 활동 \_61
- 3. 해방 후 유교의 변화** \_66
  - 1) 대학 설립과 선현 봉안문제 \_66
  - 2) 수원향교의 변화와 현황 \_68

**제3장 수원의 천주교 수용과 확산** 원재연

- 1. 천주교의 수원 전래와 교우촌의 형성** \_76
  - 1) 복음의 한반도 전래와 한국인의 그리스도교 수용 \_76
  - 2) 천진암 주어사 강학과 수포교 세례식  
\_ 한국 천주교회의 탄생 \_77
  - 3) 수원 고을로 복음이 전래된 길 \_ 육로(陸路)와 해로(海路) \_78
  - 4) 박해기 수원 고을과 인근의 교우촌과 공소 \_80
- 2. 수원유수부의 천주교 박해와 순교자의 신앙고백** \_83
  - 1) 수원 고을의 성리학적 전통과 '오가자통제' \_83
  - 2) 수원유수부의 천주교 감시와 통제, 심문과 처벌 \_84
  - 3) 수원 화성의 천주교 박해 관련 사적지 \_87
- 3. 개항 이후 신앙자유 의 획득과 교세의 확장** \_88
  - 1) 개항 직후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수원 신앙공동체의 재건 \_88
  - 2) 선교사 순방활동의 보장과 왕립본당의 설립 \_91
  - 3) 경기 남부 거점 본당의 설립과 공소의 증가 \_95
  - 4) 일제강점기 수원 천주교회의 변화 \_98
  - 5) 천주교 수원교구의 설정과 수원의 새 복음화 \_101

제10권 수원의 종교와 교육

제4장 천도교 수원교구의 성립과 활동

성주현

- 1. 동학에서 천도교로 \_105
- 2. 천도교 수원교구의 설립 \_107
- 3. 3·1운동과 천도교 수원교구 \_110
- 4.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_113
- 5.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청년운동 \_115
- 6. 1930년대 이후 천도교 수원교구 \_121
- 7. 해방 이후 천도교 수원교구 \_123

제5장 수원의 개신교 수용과 성장

김권정

- 1. 개신교의 수용과 확산 \_125
  - 1) 수원의 개신교 수용 \_125
  - 2) 개신교회의 설립과 성장 \_133
    - (1) 최초로 세워진 장지내교회 \_133
    - (2) 아리살교회 \_134
    - (3) 수원 지역의 중심, 종로교회 \_135
    - (4) 성공회 기지, 수원교회 \_137
    - (5) 기독교신회 동신교회 \_139
    - (6) 일본 메도디스트교회 및 조합교회 \_141
- 2. 개신교인의 지역활동과 사회운동 \_141
  - 1) 한말 교육운동과 사회활동 \_141
  - 2) 수원 지역 기독교계와 3·1운동 \_145
  - 3) 제암리사건과 교회의 피해 \_149
  - 4) 1920년대 기독교계의 사회운동 \_154
- 3. 해방 후 개신교의 성장 \_157
  - 1) 해방 후 교회의 설립과 교세 성장 \_157

2) 해방 후 개신교계의 사회운동 \_162

## 제6장 수원의 민간신앙 전승

최자운

### 1. 공동체 의례 \_169

- 1) 무당굿 형태 마을굿 \_169
  - (1) 별말 도당굿 \_169
  - (2) 큰말 도당굿 \_171
  - (3) 영동 거북산당 도당굿 \_173
- 2) 유교식 제사 형태 마을굿 \_175
  - (1) 오목천동 곳집말 정제우물고사 \_176
  - (2) 구운동 하구운 우물고사 \_176
  - (3) 당수동 우물고사 \_177
  - (4) 연무동 산신당과 기우제 \_177
  - (5) 구운동 상구운 산신제와 우물고사 \_178
  - (6) 서둔동 서낭제와 산제 \_179
  - (7) 파장동 장승제와 산신제 \_180
  - (8) 천천동 느티나무고사 \_182
  - (9) 영통 기우제와 단오제 \_183
- 3) 치성 형태 \_185
  - (1) 호매실동 자목마을 미륵바위 치성 \_185
  - (2) 화서동 약사불 신앙 \_186

### 2. 개인 의례 \_187

- 1) 지신밟기 \_188
- 2) 시월 상달고사 \_189
- 3) 7월 칠석 의례 \_190
- 4) 삼신의례 \_190

제10권 수원의 종교와 교육

제2부  
근대교육의  
도입과 전개

제1장 한말 수원의 근대교육 도입과 학교 설립 ————— 김명우

- 1.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의 설립과 구성 \_195
- 2. 수원군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_200
- 3. 사립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_207
  - 1) 삼일학당 \_209
  - 2) 삼일여학당 \_213
  - 3) 수원상업강습소 \_216
- 4. 수원농림학교의 설립과 운영 \_219

제2장 일제하 수원의 교육과 학교 운영 ————— 한동민

- 1. 초등교육기관 \_223
- 2. 서당과 야학 \_233
- 3. 중등교육기관 \_242
- 4. 일본인 교육기관 \_244
- 5. 공공교육의 지역민 부담 \_249

제3장 해방 후 수원 교육의 성장 ————— 장덕삼

- 1. 미군정기와 1950년대 수원 교육 \_253
- 2. 1960년대 수원 교육 \_262
- 3. 1970년대 수원 교육 \_266
- 4. 1980년대 수원 교육 \_272
- 5. 1990년대 수원 교육 \_273
- 6. 2000년대 수원 교육 \_277

**부록 수원시 학교 일람표**

윤성철

- 초등학교 현황 \_ 281
- 중학교 현황 \_ 286
- 고등학교 현황 \_ 289
- 대학교 및 대학원 현황 \_ 292
- 기타 학교 현황 \_ 292

**제3부  
학교생활과  
교육 경험**

**제1장 수원의 근대 학교 풍경**

박 환

1. 교실 풍경 \_ 297
  - 1) 규율공간의 탄생 \_ 297
  - 2) 수업 내용과 교과서 \_ 303
2. 운동장 풍경 \_ 310
  - 1) 운동회 \_ 310
  - 2) 조화와 국가의례 \_ 319
  - 3) 군사훈련 \_ 321
3. 교육행사 \_ 322
  - 1) 소풍과 수학여행 \_ 322
  - 2) 학예회 \_ 326
  - 3) 신사참배 \_ 328
4.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_ 329
5. 교가 \_ 337

제10권 수원의 종교와 교육

제2장 일제하 '소국민(小國民)'의 학교생활과 직업과 교육

정혜정

1. 삼일학교와 팔달심상소학교 \_343
2. 전시체제기 「삼일학교 학적부」 기록의 형식과 내용 \_347
3. '소국민'으로서의 학교생활과 직업도야 \_352
  - 1) 근로학교체제의 '소국민' 생활과 복종의 품성도야 \_352
  - 2) 직업과 설치를 통한 '소국민'의 통합적 근로생활 \_355
  - 3) 직업교육으로서 농업 도야생활 \_361
4. '순종적인 농업노동자'의 탄생 \_364

제3장 일제하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삶 — 김명숙

1. 수원고녀의 설립 \_367
2. 수원고녀의 교육 내용 \_371
3. 수원고녀생의 구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_375
4. 수원고녀생의 성적 및 성행평가 \_381
5. 수원고녀생의 학교생활 \_389
6. 해방, 수원여고 그리고 청포도와 눈(雪) \_394

제4장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의식세계

장용경

1. 1923년 동맹휴학 \_ 조선 민족의 의사 표시 \_400
2. 1928년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
  - \_ 조선 농민혁명과 독립이라는 궁극적 목표 \_408
3. 1930년대 중반 독서회 \_ 무산혁명과 민족의식 \_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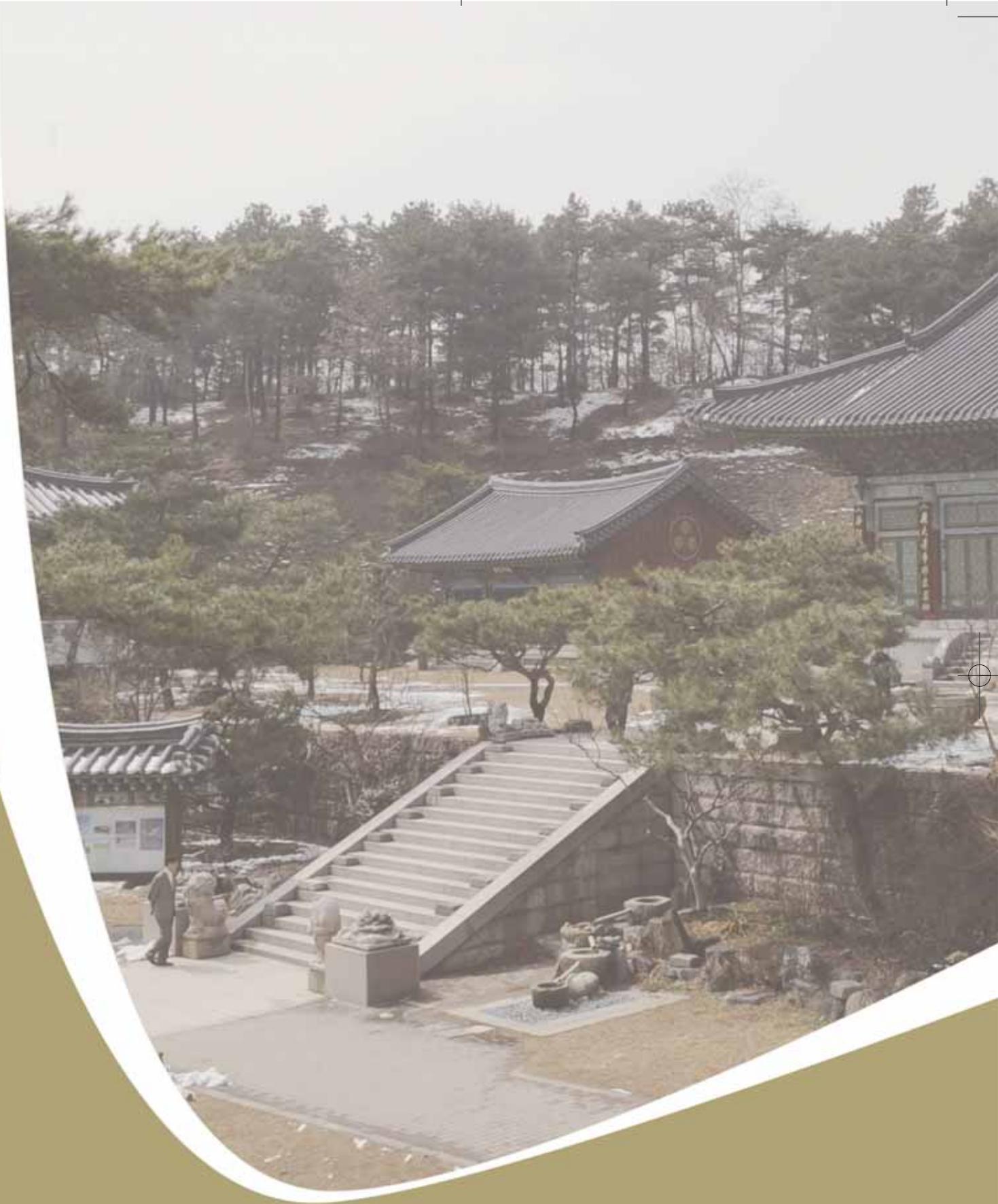
#### 4. 1930년대 말 '불온언동(不穩言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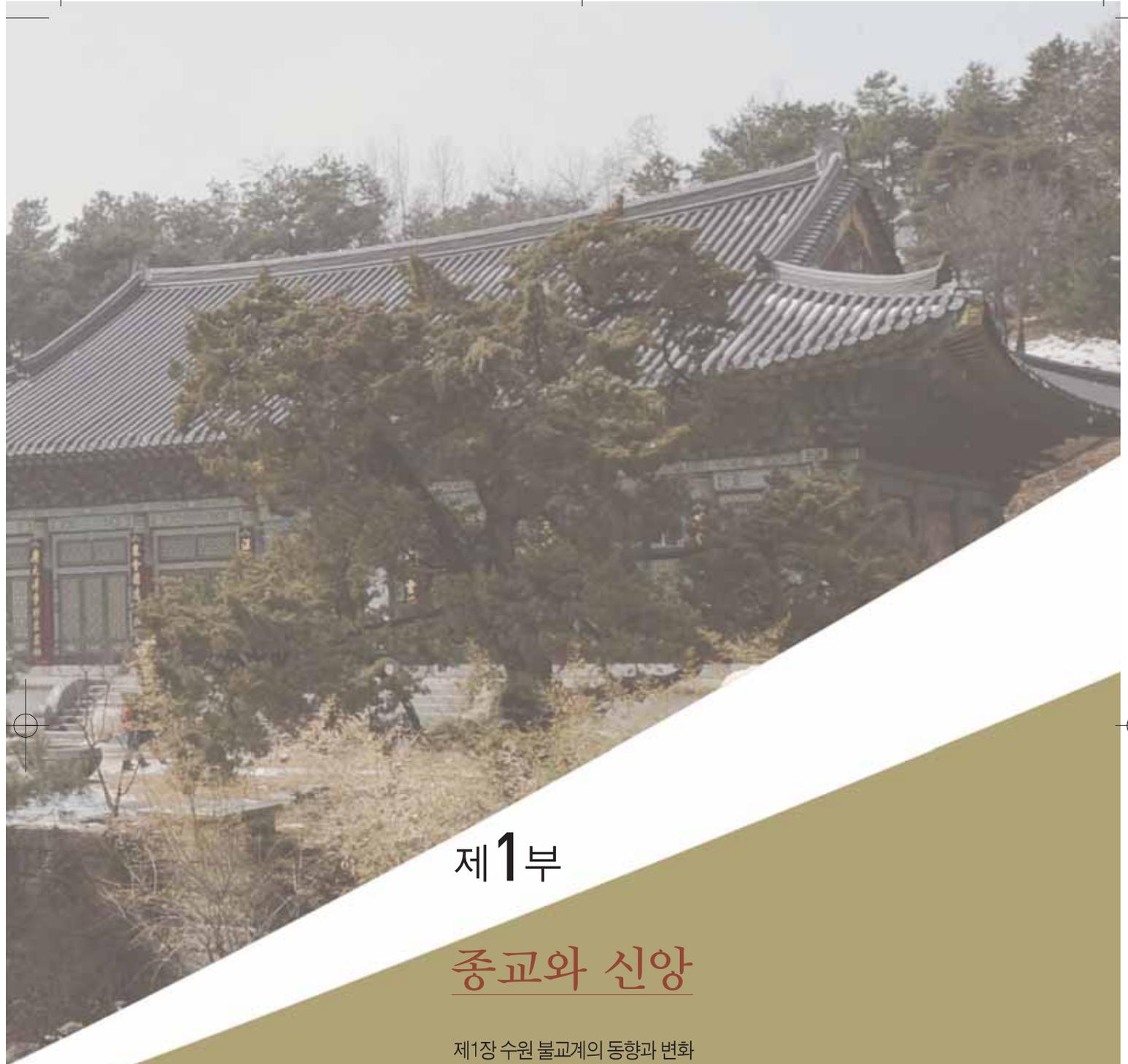
\_ 동료정신과 조선 민족의 수호 \_ 422

- 1) 동료(東寮)정신 \_ 425
- 2) 연문연구회 \_ 429
- 3) 시국(時局)인식 \_ 430

#### 5. 수원고농 학생들의 의식 변화 \_ 431

- 참고자료 \_ 432
- 찾아보기 \_ 439
- 집필위원





## 제1부

### 종교와 신앙

- 제1장 수원 불교계의 동향과 변화
- 제2장 수원 유교계의 동향과 변화
- 제3장 수원의 천주교 수용과 확산
- 제4장 천도교 수원교구의 성립과 활동
- 제5장 수원의 개신교 수용과 성장
- 제6장 수원의 민간신앙 전승



김수현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1. 고려시대 불교의 동향
2. 정조의 불교 인식과 용주사 창건
3. 불교 근대화와 용주사
4. 수원의 사찰



## 제1장

# 수원 불교계의 동향과 변화

### 1. 고려시대 불교의 동향

불교는 한반도의 고대국가 통일에서 중요한 사상적 구심 역할을 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 ?~384)의 불교 수용에 이어 백제는 384년(침류왕 원년)에 중국 동진(東晉)의 마라난타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는 이듬해 수도 근처인 한산에 9개의 사찰을 짓고 10여 명의 승려를 출가시키며 적극적으로 불교를 확장시켜 나갔다. 백제의 관할 영역에 속해 있던 수원 역시 늦어도 4세기 후반에는 불교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보적사(寶積寺)가 401년(아신왕 10)에 독산성 내 산성수호 사찰로 건립되었다는 설을 보더라도 시기상으로 맞아 떨어진다.

수원에 대한 역사적인 등장이 고려시대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수원의 불교 자료 역시 고려시대에 들어와 여러 사료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핵심적 사상토대를 제공하였던 불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국가불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태조의 열렬한 호불적(好佛的) 성향은 고려 초기부터 수많은 사찰의 건립과 불교의식의 성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개경에 여러 사원

을 세웠고, '훈요 10조'에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 등 불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당부하는 등 불교에 대한 국가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나말여초에 도입된 선종(禪宗)은 전통적 불교인 교종(敎宗)과 더불어 고려시대 불교의 한 맥을 형성하였는데, 특히 무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부합되면서 고려 후기 불교계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 전기부터 분열되기 시작한 교종과 선종 두 교단은 의천(義天 : 1055~1011) 국사의 교관겸수(敎觀兼修)나 지눌(知訥 : 1158~1120) 선사의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사상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운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 후기의 불교는 원과 결탁한 귀족세력과 연결되어 그 폐단과 모순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려시대 불교는 호국불교의 이념적 역할과 현세 기복적인 민중신앙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고, 유교와 더불어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상적 축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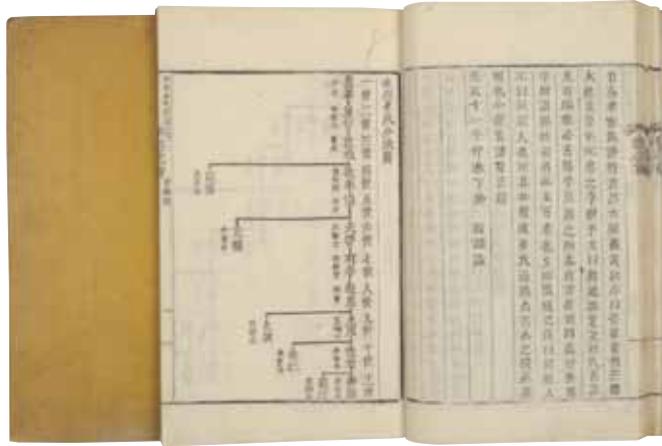
이러한 전반적인 시대적 특성과 함께 수원 지역 고려 불교의 양상은 고려 중기 수원 최씨와 수원 김씨 가문(家門)에서 배출된 승려들의 활동과 「창성사 진각국사원조탑비」, 만의사 동종이었던 팔달문 동종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1) 고려 중기 지방세력과 불교계

고려시대 수주의 부상은 신라 말 수원 김씨와 수원 최씨의 성씨집단이 지방 토착세력을 형성하고, 고려 초에 상경종사(上京從事)해 고려 중기 명문가로 떠올랐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성군의 김칠(金七)과 최승규(崔承珪)가 200여 명을 이끌고 태조에 귀순하여 공을 세움에 따라 수성군은 대읍인 수주(水州)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고려사』 기사를 통해 볼 때 김칠과 최승규는 당시 촌주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승규의 후손들에 관한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현존 묘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 최씨 가문에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은 최사위 계열의 인물들로, 최사위(崔士威)는 최서천(崔徐遷)의 증손이며 수원의 효자와 염경애의 남편으로 알려진 최루백(崔樓伯)은 최서천 장자의 후예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문에서 최계방·최함·최관오·최효사에 이르는 장자 계열을 비롯하여 최자성·최유항·최정·최우보 등은 모두 재상의 반열까지 올랐다. 최사위는 김치양(金致陽)의 찬탈 시도 때에 왕실에 보여준 충성과 거란 침입 때에 세운 공으로 발탁되었다. 현종이 보위에 오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현종 대의 국가적 중요 공사로 할 수 있는 현화사(玄化寺)·봉은사(奉恩寺)·태묘(太

廟) 건립과 같은 토목공사를 주도하였다. 특히 현화시는 현종의 아버지인 안종의 능을 이장하고 그다음 해인 1018년(현종 9)능의 근처인 영취산에 원찰로 개창한 사찰이다. 공사의 총감독을 맡은 최사위는 현화사가 준공되자 문하시중이 되었고, 그 뒤 10년간 집권하면서 현종의 측근 인물로서 중요한



『수원최씨세보』(수원박물관 소장)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그의 역할로 최사위 계열은 명문귀족으로 성장하였고, 수원 김씨계 역시 수원 최씨계와 인척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세를 키워 나갔다.

한편 귀족사회였던 고려시대에서 명문가로 성장하고 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려들을 배출하는 등 불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였다.

최씨 가문에서 배출한 승려로는 최계방(崔繼芳)의 둘째 아들 관오(觀奧 : 修理寺 주지)와 최유서(崔惟恕)의 아우 상지(尙之 : 자은종 현화사 주지), 최우보(崔祐甫)의 아들 종석(宗石 : 조계종승)을 비롯하여 최루백의 넷째 아들이 있다. 그리고 수원 김씨 가문에서 배출한 승려로는 영소(靈炤)와 김열보의 두 아들인 김종헌(金宗軒), 김유원(金惟元)이 있었고, 김영보의 외손인 진명 국사 혼원(混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아쉽게도 남아 있는 사료가 없어 이들 대부분의 행적에 관해 알 수는 없지만, 관오와 영소는 그 묘지명을 통해 대략적인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관오는 1096년(숙종 1) 최사위의 증손인 최계방과 민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자겸과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무신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158년(의종 12)에 입적한 인물로, 고려 귀족사회가 전면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에 활동한 승려였다. 12세에 그의 숙부인 현화사 승통 상지에게 출가한 관오는 1122년(예종 17) 왕명으로 인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법회에서 여름 동안 강설하는 기회를 갖는 등 왕실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총애를 받았다. 그의 형 최함 역시 인종을 가까이 모셨던 인물로, 이자겸 반란 때 국쇄를 가지고 인종의 시종을 맡았다. 관오의 왕실 진출은 이와 같은 배경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관오는 1146년(인종 24)에 법천사(法泉寺) 주지를 역임하는 등 유가종의 고

승으로 그 중심축을 이루면서 예종·인종·의종의 총애를 받게 된다.

수원 김씨 가문에서 배출한 승려 영소는 태조의 정행공신으로 좌승이었던 김지(金知)의 7대손으로, 1115년(예종 10) 김순영과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21세에 광교사(光敎寺) 주지가 된 이래 56세에 영통사(靈通寺) 주지를 할 때까지 9개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왕으로부터 가사를 받는 등 총애를 받았다. 특히 『화엄경(華嚴經)』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32년간 홍왕사 홍교원의 경학주가 되어 화엄장소(華嚴章所)를 강설하며 명종대 화엄종계를 주도한 중요 인물이다. 아울러 『화엄경』을 찬술 각판하여 유통시켰고, 유림들의 문집과 시화(詩話)를 편찬한 사원(事苑) 등을 간행하여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수원 김씨 가문 김열보의 두 아들도 모두 출가하였는데, 김열보의 외손인 혼원은 진명 국사로 수선사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최씨정권이 수선사 분원으로 세운 선원사(禪院寺)의 초대 주지를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수원 최씨와 수원 김씨 두 가문의 승려들은 무신란을 전후로 하여 다른 문벌귀족과는 달리 교종인 유가종과 화엄종에서 왕실의 최측근 승려로서 활동하였고, 선종을 비롯한 결사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고려 중후반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조인규(趙仁規) 가문과 수원 만의사(萬儀寺)

수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9호 팔달문 동종은 원래 '만의사 동종'이라 불러야 하는 유물이다. 이 종은 종신(鐘身)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108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나 1687년 경기도 수원부 만의사 대종으로 새롭게 주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주목된다.

高麗國都邑太康六年庚申二月日創建大鐘左於于後

康熙二十六年丁酉三月日京畿水原府地東面舞鳳山萬義寺大鐘改鑄重七百斤

동종은 높이가 122.7cm, 지름이 75.8cm이며, 상단에는 범자(梵字)가 새겨진 두 개의 원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보상화문(寶相華文)이 장식되어 있다. 정상부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엇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린 모습을 하고 있고, 종신의 4면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으며 4개의 유곽이 설치되어 있다. 유곽대에는 보상화문이 둘러져 있으며 9개의 유

두가 표현되었는데, 가운데 중앙의 것이 유난히  
돌출되고 나머지 8개는 화문(花文)으로 조각되  
어 있어 독특한 종 모양을 이루고 있다.

만의사는 화성시 동탄면 중2리 140번지에 위  
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본래 만의사는 현 원각  
사(圓覺寺) 자리인 화성시 동탄면 신리에 있었  
으나 1669년(현종 10)에 그곳이 비보(裨補)의  
명승지이기 때문에 송시열(宋時烈 : 1607~1689)  
의 이장지(移葬址)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의 위  
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만의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지만, 고  
려시대 1284년(충렬왕 10)을 전후로 하여 주지  
정길(貞吉)과 현묵(玄默)이 중창한 후 충선왕  
때 사세가 확장되면서 경기 지방의 대찰이 되었  
다. 특히 천태종 진구사(珍丘寺)의 주지였던 혼  
기(混其)가 1313년(충선왕 5)에 이 절로 옮겨 와  
법화도량을 열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충혜왕 때에는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을 이  
곳에서 간행함으로써 조선 초기까지 그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법화영험전』은 고려 말 승려  
요원(了圓)이 『법화경(法華經)』을 지니고 독송,  
필사함으로써 일어나는 갖가지의 영험담을 엮  
은 책으로 여말선초에 매우 성행하였다. 만의사  
에서 간행되었던 『법화영험론』의 관목은 그 뒤  
몇 차례 간행을 거듭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만의사의 뚜렷한 역사는 전해지  
지 않으나 휴정이 한때 수도하였다고 전하며, 1669년(현종 10)에 이전 신축되었다고 한  
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세가 기울면서 여러 성보(聖寶)들이 수원 화성과 인근 사찰로 흘  
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만의사 동종 역시 화성 내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만의사는 고려 말 원간섭기에 큰 세력을 지닌 사찰로 부상하였는데, 만의사와



만의사 동종(수원박물관 소장)



만의사 동종 유곽대



통탄면 중리로 이전한 만지사(화성시청 포토 갤러리 제공)

떼어놓을 수 없는 가문이 바로 조인규(趙仁規) 가문이다. 조인규(1237~1308)는 원래 유이민 후에 출신의 양인농민으로, 이 가문은 평양부(平壤府) 상원(祥原)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한미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고려와 원의 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몽골어 통역관으로 조인규가 부각되면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된 집안이다. 조인규는 원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딸은 충선왕비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재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은 조선 초대 창업공신까지 연결되어 태종의 둘째 사위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이러한 정치적 활동 외에도 불교계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4대에 걸쳐 4명의 승려가 배출되어 만의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조인규의 형인 혼기(混其), 조인규의 넷째 아들인 의선(義旋), 조인규의 둘째 아들인 조련(趙蓮)의 넷째 아들 보해(普解), 조련의 둘째 아들인 조덕유(趙德裕)의 아들 묘혜(妙慧)가 그들이다.

혼기의 출생이나 출가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조인규가 1237년에 태어났으므로 그 이전에 출생했을 것이며 출가 시기는 대략 125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혼기는 천태종 진구사(珍丘寺)의 주지였고 1313년(충선왕 5)에 만의사에 주석하며 절을 중창하였

다. 혼기의 만의사 주석은 절의 원당화(願堂化)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조인규 가문 출신의 승려가 만의사를 주관하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조인규의 넷째 아들인 의선은 1238년(충렬왕 10)에 출생하여 1348년 이후 입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묘련사(妙蓮寺)에 머물렀는데, 혼기의 뒤를 이어 만의사를 주관하면서 당시 천태종의 본산이라 할 묘련사의 별원으로 만들었다. 의선은 원 황제의 충애를 받으면서 불교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이는 조인규 가문이 원나라에 상당한 활동 근거를 갖고 있었고 그의 손자사위가 몽골인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의선 이후 보혜는 중천태교선(中天台教選)이 되었고, 묘혜는 만의사에서 『법화영험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인규 가문은 천태종을 중심으로 고려 후기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세력 이었고 그 중심에 수원 만의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진각(眞覺) 국사 천희와 광교산 창성사(彰聖寺)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방화수류정 옆 보호각에 있는 보물 제14호 「창성사(彰聖寺) 진각 국사원조탑비(眞覺國師圓照塔碑)」는 고려 말 화엄종승 천희(千熙)의 행적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려 말의 고승 진각 국사 천희(千熙: 1307~1385)의 탑비는 1386년(우왕 12)에 광교산 창성사에 세워졌다. 비문에 따르면 천희는 1307년(충렬왕 33) 5월 21일에 태어났고 흥해(興海: 지금의 경북 영일군 지역) 출신이다. 13세 때 화엄종 반룡사(盤龍寺) 주지 일비(一非) 대사를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이후 금생사(金生寺), 덕천사(德泉寺), 부인사(符仁寺), 개태사(開泰寺) 등 10여 사찰에 머무르며 수행에 힘썼다. 1364년에는 늦은 나이로 중국 유학을 떠났는데,



창성사지 원경



『창성사 진각국사원조탑비』

향주의 휴휴암(休休庵)에 머물러 있다가 2년 뒤인 1366년 성안사(聖安寺) 만봉(萬峰) 스님으로부터 가사와 선봉(禪棒)을 전해 받기도 하였다. 고려로 돌아온 이후 치악산에 머무르고 있던 천희는 1367년 공민왕으로부터 국사에 봉해지게 되었다. 그는 당대 권승이었던 신훈(辛訥)과도 친분이 깊었으며 왕사(王師) 나옹(懶翁)과 함께 등명법사(燈明法師)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경천사(敬天寺)에서 주석하던 중 왕명으로 1372년(공민왕 21) 부석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무량수전 등을 보수하였고, 그 뒤 금강산·오대산 등지에서 후학을 지도하다가 1382년 수원 광교산 창성사에서 입적하였다. 국사의 나이는 76세, 법랍 63세였다.

천희의 저서로는 『삼보일경관(三寶一鏡觀)』 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시호는 진각(眞覺)이며, 탑호가 대각원조(大覺圓照)이다. 탑비는 조선 후기 창성사가 폐사됨에 따라 방치되었던 것을 1965년 6월 9일 보호각을 짓고 매향동의 방화수류정 위 언덕으로 옮겨 왔다.

비문의 전면은 좌측과 하단이 군데군데 마모가 심하여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며, 전면 상단에 '증시진각국사비명(贈諡眞覺國師碑銘)'이라 전액을 올렸다. 비문은 이색(李穡 : 1382~1396)이 짓고, 승려인 혜잡(惠岑)이 글씨를 새겼다. 구양순체로 고려 후기 서체를 엿볼 수 있어 서예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탑비이다.

천희는 고려 후기 이래 화엄종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책봉된 화엄종계 국사였다. 원간섭기 후반 결사도량인 반룡사에 출가하여 40여 년간 전국의 화엄종계 사찰을 유력한 다음 원에 2년간 다녀왔다. 천희가 원에 있으면서 만난 고승이 화엄종승이 아니라 선승인 점은 고려 불교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당시 불교계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선교(禪敎) 문제와 아울러 불교계의 혁신을 위한 행위로 여겨진다. 천희는 귀국 후 공민왕의 환영을 받고 국사로 책봉되어 불교계를 대표하였다. 이후 당시 화엄종의 가장 중요한 사찰인 영주 부석사에서 전각을 중창하는 등 화엄종의 교세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말년에는 수원 창성사로 와서 흥법의 메카로 삼으려다 입적하였다. 이로써 한국 불교사상 화엄종 출신의 국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

었다.

선승과 화엄학승의 면모가 함께 보이는 천회의 기사는 14세기 고려 말기의 불교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인 동시에 잊힌 창성사를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2. 정조의 불교 인식과 용주사 창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불교를 ‘억불숭유’로 이해한다. 삼국시대 이래 1,000년 이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 역할을 해 왔던 불교가 유교를 표방한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그 지위를 넘겨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려 말 불교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여러 결사운동을 펼쳤으나, 결국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성리학에 기초한 숭유억불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불교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태종은 기존의 불교 종파를 7종으로 통합시켰고, 세종은 7종을 합하여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양종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흥천사(興天寺)에 선종을, 흥덕사(興德寺)에 교종을 총괄하는 기구인 도회소를 설치하고 각각 판사를 두어 관리하였다. 이후 연산군 때 선교 양종이 없어지면서 판사제도도 없어졌다가 1550년(명종 5) 문정왕후가 양종을 부활시키면서 양종의 판사제도도 부활되었다. 이때 봉은사(奉恩寺)를 선종, 봉선사(奉先寺)를 교종으로 하여 두 절의 주지가 양종의 판사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문정왕후 사후 1565년(명종 20) 다시 양종이 폐지되면서 공적인 양종 판사직 제도는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듯 조선시대 불교는 정치·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측면까지 말살된 것은 아니었다. 공적인 면에서는 유교를 숭상하였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심성까지 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들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지속되었고, 왕실 또한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불교를 여전히 신봉하였다. 태조·세조의 숭불정책과 더불어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가 집권하던 시기는 숭불의 기운이 강하였다. 사림(士林)세력이 정착하는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유교 기반은 굳건해졌지만, 양란을 거치면서 휴정(休靜 : 1520~1604)과 유정(惟政 : 1544~1610) 같은 의병승(義兵僧)들의 활약은 불교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승려들도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주체가 되었고, 도총섭

(都摠攝)이라는 직제를 받기도 하였다. 17세기 이후 전란으로 소실되었던 대다수의 사찰들이 대대적으로 중건되었다는 사실은 당대 불교계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운데 18세기 조선은 사대부 중심의 사회에 혁신이 요청되던 시대였다. 이 변화의 물결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쳐 18세기 영·정조 대에는 불교가 성리학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상적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진보적 유학자들에 의한 성리학 비판과 실학적 학풍이 조성됨에 따라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불교가 단지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닌 사회윤리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조의 불교정책과 용주사의 창건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 1) 정조의 불교 인식

정조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형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분열의 배경에는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유지되던 사회체제가 점차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자, 이념적으로 이를 고수함으로써 집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세력과 이전의 다양한 사상체제를 복원시켜 변화에 직면한 조선사회에 적용해 보려는 입장의 대립이 깔려 있다.

정조는 도교와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유교와 함께 '화속려세(化俗勵世)'하는 큰 공을 인정하였다. 왕세자 시절, 정조는 주자학과 노론학통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방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노장, 양명, 불학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사색적 사고를 가졌다. 정조의 이러한 학문적 개방성은 그의 학문이 주자학으로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 시기 실학자들 역시 불교를 이단으로 평가하면서도 포용하는 입장이었다. 남인 계열 실학자의 거두인 성호 이익(李瀾 : 1681~1763)은 불교를 '무군지교(無君之教)'로 보면서도 불교의 좋은 점은 인정하고 당시 불교계의 고통받는 현실을 개혁적인 정책으로 바꿔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교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정조가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데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역할이 컸다.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불교에 대해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교(教)라 하여 탄압을 쉽사리 하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은중경』은 효순사상(孝順思想)을 고취시킨다 하여 널리 독송되고 서사(書寫)되었다. 정조가 이 경전을 강조한 것은 효순사상이 사도 세자의 묘를 이장하고 원찰 건립의 정당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조의 『부모은중경』 강조가 곧바로 불교사상의 수용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유학자들

에 대해 불교계를 자신의 후원세력으로, 억불숭유책에 반대하는 자신의 행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불교계에서 화엄학(華嚴學)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화엄사상이 왕권 강화에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화엄학에는 왕권 강화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정조대에 화엄학 강회의 대중적 발전과 함께 화엄학의 승려들이 많이 배출되고, 화엄학 고승인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정조의 불교관은 이후 더 발전되어 갔다. 1790년(정조 14) 2월에 현릉원의 재궁(齋宮)으로 용주사를 창건하고, 5년 후에 직접 「봉불기복계(奉佛祈福偈)」를 지어 재를 올렸다. 이 「봉불기복계」에서 정조는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 게어(偈語)를 지음으로써 삼업(三業)의 공양을 드리며 은혜에 보답하는 복진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에 비석을 세우라고 명하고, 이듬해 5월 친히 비문을 내려 주었다. 이 비문에서 정조는 “불교는 삼교(三教) 중에 가장 늦게 나왔지만 그 영험함은 가장 두드러진다. 유학자는 이를 믿지 않지만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부처에게는 자비(慈悲)가 있어 지성으로 빌면 무량한 주력(呪力)을 받을 수 있다.”며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조의 불교 인식은 이 시기 불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2) 용주사 창건

정조는 1789년에 양주(楊州) 배봉산(拜峰山)에 있던 부친 사도세자의 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花山)으로 옮겨 현릉원(顯隆園)이라 하고, 이듬해 1790년(정조 14)에 현



불설부모은중경목판(용주사효행박물관 소장)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계목판(용주사효행박물관 소장)



용주사

현릉원 원찰인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하였다.

용주사의 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용주사의 전신을 854년(신라 문성왕 16)에 염거(廉居) 선사가 창건하고 950년(고려 광종 1)에 혜거(惠居) 국사가 중건한 갈양사(葛陽寺)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갈양사가 수원의 각종 읍지(邑誌)는 물론 1799년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 이름조차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불교일람표』의 「삼십일본산연혁」에 기록되면서 현재까지 사실로 굳어졌다고 보는 학계의 설도 있다. 즉 지금까지 용주사의 창건 과정을 밝혀 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연혁이 그대로 유포되면서 갈양사를 용주사의 전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용주사의 창건이 불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학자들에 의해 제대로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으나, 남겨진 사료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용주사는 현릉원 천봉 직후에 창건되었고 원찰 건립계획은 원의 천봉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것으로 본다. 현릉원의 공역이 완료된 직후인 1789년 10월 17일 원소도감당상(園所都監堂上) 이문원(李文源)은 새로운 원소의 조포사(造泡寺)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건립비용 충당을 위해 공명첩 250장을 성급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였고, 관료

와 백성들의 시주를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다.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의 용주사 시주 명단을 보면 각 도의 감사 9명, 지방관료 87명 등 96명에 달하는 관료의 관직명과 이름이 실려 있다. 3년여 만에 완공된 화성의 공사비가 87만 냥이었는데, 그 10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이 사찰 창건에 사용되고, 그것도 시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원찰 건립에 시주를 했다는 사실은 사도세자가 숭상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조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시키는 결과를 의미하기도 했다.

용주사 창건을 최종 결정한 후 불과 9일 만에 공역이 시작되었다. 실제 소요일수는 216일이었으며, 1790년 10월 6일에 공역 결과와 공역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다음 날 시상을 행함으로써 낙성을 보게 되었다. 금불(金佛)이 완성되는 날에는 정조의 명을 받들어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었다.

이때 건립된 건물은 제각, 법당, 칠성각, 향로전, 선당, 승당, 누각, 삼문과 익랑, 용가 등 9개 동 145칸, 중문 5곳 9칸, 내외의 담원(牆垣) 4곳 249칸을 건축하였고, 식수 공급을 위해 석정(石井) 50칸을 새로 뚫으며, 연못 1곳을 만들었다고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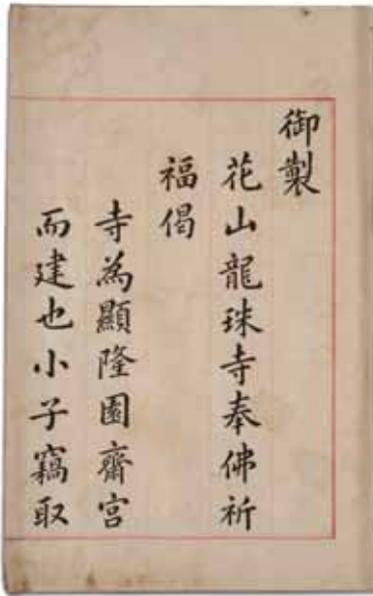
용주사 창건 1년 뒤에 편찬된 『수원부읍지』 「사찰」 용주사 항목에는 창건 초기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있다. 즉 법당 대웅보전 9칸, 제각 호성전 6칸, 향로극락전 12칸, 시방칠등각 10칸, 선당만수리실 35칸, 승당 나유타료 39칸, 천보문루 15칸 좌우익랑 양처 합 18칸, 동서중간 외삼문 제각 동서중문 칠성·향로전문 등 합 13칸이라 기록하고



용주사 상량문(용주사효행박물관 소장)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용주사 소장)



「어제화산용주사불불기복게」(용주사효행박물관 소장)

있다. 그리고 용주사 완공 후 읍지가 작성되기 전 성황당 6칸을 새로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791년에 신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조는 용주사의 사격(寺格)을 높이기 위해 당과를 불문하고 신하들에게 용주사의 상량문(上樑文)과 권선문(勸善文), 주련(柱聯) 등을 짓게 하였다. 상량문은 좌의정으로 있던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게 짓게 하였고, 권선문과 주련은 불교를 배척하였던 노론의 문신 이덕무(李德懋: 1741~1793)에게 짓게 하였다. 이런 지시는 노론과 남인, 신세대와 구세대의 화합을 내포하는 정조의 탕평기술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불불기복게」를 지어 더 이상 용주사 창건에 대해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1791년 1월 17일 현릉원 원행에 앞서 정조는 1월 9일 용주사에 매년 쌀 20석, 전 100냥, 작은 장지 20장, 백지 20권, 무명 16필, 베 4필을 수원부에서 보내 주고 형지(形止)를 경기감영에게 보고하라고 경기도관찰사와 수원부사에게 하교하였다. 이는 용주사에서 사도세자를 위한 재(齋)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용주사는 창건된 지 6년이 지난 1795년(정조 20)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 1740~1799)의 건의로 장용영(壯勇營) 외영(外營)에 승려의 일부를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화성의 축조가 원만히 진행되고 장용영의 체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사찰과 승군의 총괄처인 용주사를 장용영에 편입시켜 자신의 친위부대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처럼 용주사의 창건은 외적으로는 불교의 효순사상이라는 명분을 통하여 유생층의 반발을 막으면서 생부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 주고, 내적으로는 정조 자신의 정통성 확보라는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조는 현릉원 참배 후 직접 용주사에 행차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제작한 각종 물품을 여러 차례 하사하였다. 현존하는 중요 유물들은 정조대의 우수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기에 그 가치가 높다.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 중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

유물명	제작시기	유물지정번호	내용
화산용주사상량문 (花山龍珠寺上樑文)	179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용주사가 사도세자의 원찰로 창건된 1890년 정조의 명령으로 영의정 체제공이 짓고 쓴 상량문이다. 용주사의 창건 내용과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 복개(御製花山龍珠寺奉 佛祈福閣)	1795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정조가 용주사에 내린 기복개(부처를 받들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쓴 불교식 가사)의 필사본이다.
불설부모은중경판 (佛說父母恩重經板)	1796년	보물 제1754호	용주사에서 간행된 불설부모은중경판으로 목판본(42매), 석판(24매), 동판(7매)이 전해진다. 부모은중경에는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제시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어려움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동판의 변상도는 당시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김홍도의 작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後佛壇畫)	조선 후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호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 삼불이 그려져 있는 불화로, 화면 중앙에는 왕실을 축원하는 발문이 기록되어 있다. 전통 불화양식의 기법을 벗어나 음영법이 도입되는 등 조선 후기 새로운 화풍이 도입되어 주목되는 불화이다. 417.7×348.0cm
용주사 삼장보살도 (三藏菩薩圖)	179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5호	용주사 창건 당시 제작된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天藏菩薩),地藏보살(地藏菩薩),지지보살(持地菩薩)의 법회장면을 한 폭에 그린 불화로, 삼존의 주변에 시왕(十王) 및 수많은 권속들이 함께 등장하여 장엄한 법회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172.8×318.5cm
금동향로(金銅香爐)	조선 후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용주사에 하사한 것이라 전해지는 방형의 금동향로로 사면의 몸체에는 순금제 당초문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중국에서 제작된 향로로 추정하고 있다. 2점
청동향로(靑銅香爐)	조선 후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정조가 하사한 것이라 전해지는 청동향로로 몸체는 팔각형이며, 각 면마다 산천수목문(山川樹木紋)이 새겨져 있다. 목부분의 좁은 면 중앙에 '만세락(萬世樂)'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용주사 목조원패 (木造願牌)	조선 후기	경기도 문화재자료 151호	원패는 불보살의 명호 혹은 왕실의 안녕과 축원 등의 내용을 적은 후 불단 위에 봉안해 놓는 의식구이다. 용주사 원패는 세 마리의 용과 구름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용주사 목조소대 (木造疏臺)	조선 후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2호	소대는 발원문을 읽고 난 후 보관하는 용기로 소통(疏筒)이라고도 한다. 용주사 소대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제문(祭文)을 보관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용주사 목조감실 (木造龕室)	조선 후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위패를 봉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감실로 실제 건축물과 같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다.
용주사 병풍	조선 후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정조가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풀과 나무를 채색한 4폭 병풍으로, 제작 당시에는 8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3. 불교 근대화와 용주사

조선시대의 승유억불정책으로 불교세력은 약해졌지만, 경기도 지역의 사찰은 국가적 통제와 필요성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기도 지역은 왕릉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었기에 원찰(願刹) 기능을 담당하는 능침사찰(陵寢寺刹)이 조성되었는데, 봉선사, 신흥사, 용주사 등과 같은 대표적인 능침사찰들은 왕실의 보호와 일정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1623년(인조 원년) 이래 시행된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 조치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형전의 「금제조(禁制條)」를 살펴보면 승려가 함부로 도성에 들어오면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노비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죄에 해당되었다. 이는 승려들의 포교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선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불교 교세가 확장되는 것은 양반 사대부층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조선의 승려들은 고된 노동이었던 산성 축조와 수비에 동원되기도 하였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한지를 제조하여 공납으로 바쳐야 하는 잡역을 감당하여야 했다. 조선시대 불교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산간불교의 은둔적 성향을 보이면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불교는 개항을 맞이하였다. 1876년 개항을 전후로 하여 일본 불교의 각 종파들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포교소와 별원을 설치하면서 조선에 포교를 시작하였다. 일본 승려들은 외국인으로 도성을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승려들의 도성 출입 금지가 문제로 대두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895년(고종 32) 4월 드디어 도성해금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불교계의 커다란 사건으로 도성 안에서 불교의 공식적인 포교가 허용된 것을 의미하였다.

일본 불교세력은 개항 직후인 1877년부터 포교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1895년 사노 젠레이(佐野前勵)는 일련종(一蓮宗) 관장대리의 자격으로 조선에 건너왔다. 사노는 대원군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만나 조선의 승려들도 일본 승려처럼 자유롭게 도성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조선의 승려들을 일본 불교로 개종시켜 일련종으로 조선 불교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노의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이다. 그러나 도성해금 조치는 몇 백 년간 조선 승려들의 염원이었던 까닭에 일본인 승려 사노에 대해 고맙게 여기게 되었고, 나아가 일본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용주사 승려 상순(尙順)은 1895년 4월 29일 사노를 방문하여 감사의 편지를 전하기까지 하였다.

사노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성해금을 축하하는 ‘한일승려합동무차대법회(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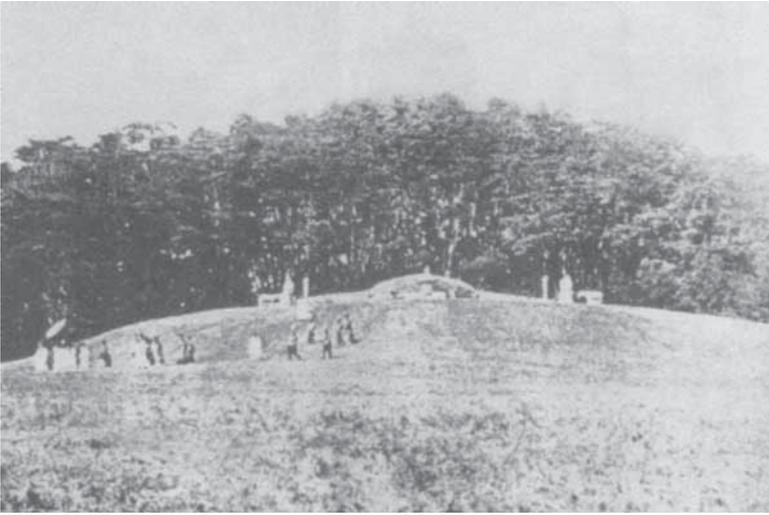
1900년대 용주사(수원박물관 소장)

日僧侶合同無遮大法會)를 5월 5일에 마련하였다. 이 법회는 3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였는데, 서울 지역의 화계사와 백련사와 더불어 용주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용주사 승려들의 도성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호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성해금 조치가 비단 사노의 건의로 성사되었다고 보기에는 편협한 면이 없지 않다. 도성해금 조치가 이루어지기 1년 전인 1894년은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한 해로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의 시행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었다. 약 3개월간 존속한 군국기무처에서는 208건의 신법령을 의결·공포하였는데, 그 법령 가운데 하나가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하는 법을 폐지할 것이었다. 비록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승려들의 도성해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02년 정부는 원흥사(元興寺)를 동대문 밖 창신동에 창건하고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를 설치하여 불교를 국가관리 대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이는 조선 불교정책에서 중대한 변화로, 승유억불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

원흥사의 설치는 불교의 대중화와 도시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1902년 7월 사사관리서에서 반포한 「국내사찰현행세칙」은 대한제국시기 불교계를 관할하는 법령으로 대한제국 불교정책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그중 제6조는 원흥사를 대법산(大法山)으로 삼고 각 도 수사찰(首寺刹) 16개 사찰을 중법산(中法山)으로 지정하여 일원적 통할을 모색



순종의 용릉 참배

함으로써 사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기도는 경기좌도에 봉은사, 경기우도에 봉선사, 그리고 경기남도에 용주사가 중법산이었다. 용주사가 중법산이 된 것은 조선 후기 지속되었던 사격(寺格)과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능침사찰인 용주사는 왕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1879년(고종 16) 11월 15일 용주사 개수를 위해 고종의 인가를 받아 공명첩 300장이 발급되었다. 고종은 할아버지 남연군이 사도세자의 아들 은언군에게 입적됨

에 따라 임금에 오를 수 있었다. 이에 1868년(고종 5) 3월 13일 현릉원과 건릉 그리고 화령전에 전배하고 화성행궁에서 재숙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장헌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면서 현릉원을 용릉(隆陵)으로 격상시켰다. 순종황제도 1913년 11월 19일 용건릉을 참배하였고, 1914년 9월 19일 또다시 용건릉에 능행하였는데 용주사 주지 강대련은 순종황제를 배알하였다. 이에 순종황제는 특별히 포도주 2병을 용주사 주지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국내사찰현행세칙」의 시행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였던 사서관리서는 소속 부처인 궁내부와 의정부 내각 사이의 갈등으로 1904년 폐지되었다. 당시 국내외 정세가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반도의 침략을 가속화하던 시기였고, 대한제국 또한 자주권을 지켜 내지 못하던 때였다. 불교 교단의 통일적 운영과 국가관리 체제가 무산되자 불교연구회(佛敎硏究會)가 전국적 단위로 조직되었다. 불교연구회는 일본 정토종의 강한 영향 아래 조직되었는데, 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불교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敎)가 설립 운영되었고, 전국 각 사찰에서도 교육기관이 설치되었다. 1906년 11월 용주사에 명화학교(明化學敎)가 창립되어 생도 50여 명을 모집하였다. 교장은 차응허(車應虛), 교감 박성행(朴性幸), 한문교사는 박지안(朴智岸), 일어교사는 기무라(木村濬泊)였다. 명화학교는 해인사의 명립학교(明立學敎), 범어사의 명정학교(明正學敎)와 더불어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913년 용주사에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1913년 이전에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위태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빚진 1,300만 원의 외채를 국민의 힘으로 보상하여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자 전개된 모금운동이었다. 2,000만 국민이 석 달만 담배를 끊어 그 돈을 모으면 1,300만 원의 국채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채보상회가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온 국민이 참여하였는데 불교계 또한 동참하였다. 불교연구회 150여 명이 결의함에 따라 용주사에서 1907년 5월 9일 승려 25명이 거출하여 12원을 의연하였다. 거주 승려들만의 의연금이었기에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시대 흐름에 용주사가 동참하고 있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1910년 일제의 강점은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총독부는 불교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1911년 6월 3일자로 「사찰령」을 공포하였다. 「사찰령」은 일본 문부성이 1898년 제국의회에 제출한 종교법안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천황제와 국가신도의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교를 통치정책에 순응시키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국가의 종교 간섭은 시대착오라는 반론에 부딪혀 1939년에 겨우 통과된 법안이었다. 「사찰령」은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 매각 등 불교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새로운 사찰의 창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일제시기에 불교계는 사찰을 창립할 수가 없었다.

「사찰령」의 시행과 함께 일제는 조선 불교를 30본산으로 나누어 통제하였다. 경기도에는 봉은사, 용주사, 봉선사, 전등사 등 4개의 본사가 정해졌다. 그중 용주사는 경기 남부의 수원군·평택군·안성군·죽산군과 용인군·안산군 및 평안북도 칠산과 의주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54개 사암을 말사로 편입하였다. 말사의 편제는 각 본산의 영향력과 오랜 역사적 관행에 따라 편성되었기에 평안북도 지방이 초창기에는 용주사에 포함되었으나, 행정적인 어려움과 지리적인 불편함 등으로 이후 평안북도의 본산 보현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1946년 조사에 따르면 용주사 관할 사암은 35개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30본산의 경비는 각 본산의 사세(寺勢)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조달되었다. 용주사는 동화사·송광사·선암사·보현사와 함께 3등지를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암과 승려 및 신도수를 지닌 봉은사가 4등지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등급 분류는 중앙 교계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찰령」 아래 1911년 11월 이후 30본산 초대 주지들이 차례로 인가되었다. 1911년 11월 17일 용주사 초대 주지로 강대련(姜大蓮 : 1875~1942)이 인가되면서 새로운 사법(寺法)을 제정하였다. 사법은 각 본산이 사찰의 본말관계·승규·법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 용주사는 전등사와 함께 1912년 9월 2일자로 사법 인

가를 받았다. 이로써 「사찰령」 아래 주지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 되었다. 각 사찰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무 및 법요 집행의 책임을 지고 사찰을 대표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찰령」 아래 본사 주지들은 친일적 성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총독부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강대련은 선진 일본의 예에 따라 사원 조직과 불교 교육제도를 근대화하여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지는 개화파의 중심인물이었다. 금강산 장안사에서 출가한 후 화재로 소실된 장안사 해은암(海恩庵)을 성공적으로 중창시키면서 해인사 대장경판 감동(監董)을 맡고 각황사 포교당 원주를 거쳐 용주사 초대 주지로 임명되었다. 용주사의 중건·중수와 중앙학림(中央學林)의 설립으로 근대적 교육기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근대불교에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친일적 행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공적(公敵) 제1호인 데라우치 추도식 참배,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을 위한 법요식 거행과 위문금 조달, 이하라 가오루(渭原馨)로 창씨개명하는 등의 친일 행적을 보였으며 1942년 입적할 때까지 9회 연임을 하면서 32년간 용주사 주지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한편 당시 불교계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강원(專門講院)을 세워 교학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용주사에서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06년 명화학교가 설치되었고, 1913년 용주사 본말사에는 선당(禪堂)이 2개, 전문강원이 3개 설치되어 있었다. 1917년 3월 30일 용주사 강원의 졸업식을 보면 사교과(四教科) 졸업생 1명, 수료생 6명, 사집과(四集科) 졸업생 1명, 수료생 5명, 사미과(沙彌科) 졸업생 1명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활발한 포교활동이 불교 발전의 중요한 열쇠로 인식하였다. 1910년 10월 27일 조선불교중앙포교당이 설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포교당이 확산되었는데, 1911년 10월 용주사도 수원포교당을 수원 읍내(신평리 356번지)에 설치하였다. 이 포교당은 1920년 2월에 남수리 92번지로 이전해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다. 1913년에는 진위군 서탄면 회화리에 용주사 포교출장소를 신축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용주사 보말사와 관련하여 승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1917년 용주사의 법계(法階)를 기록한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는 대선사(大禪師) 강대련을 비롯하여 대교사(大教師) 5명, 선사(禪師) 8명, 대덕(大德) 3명, 중덕(中德) 26명, 대선(大禪) 44명 총 87명의 이름이 보인다. 이 중 대교사 이철허(李徹虛 : 1880~?)가 금산 보석사(寶石寺)의 주지로 활동하였고, 선사 김정해(金晶海 : 1888~?)가 강대련의 배려로 일본 소토슈(曹洞宗)대학을 유학하고 돌아와 본산 전등사(傳燈寺)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중덕 신상완(申尙玩 : 1891~1951)은 3·1운동 당시 중앙학림의 학생으로 만해 한용운(韓龍雲 : 1879~1944)과 연결되어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신상완은 중앙학림의 학생대표와 유심회(唯心會) 회장으로 활동하다 한용운의 밑지를 받고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상해로 망명한 후 임시 정부에 가담하여 안창호(安昌浩 : 1878~1938)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 한편, 특파원과 선전대원을 맡아 독립운동자금과 불교비밀결사 조직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사찰령」 아래 일제시기의 불교계는 중앙권력과 타협적인 성향을 보이며 변화되어 갔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4본산 중의 하나였던 용주사는 중앙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졌고, 그 결과 주지 강대련은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신상완의 경우처럼 시대적 요청에 새롭게 부응하는 인물 또한 배출되고 있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4. 수원외 사찰

이러한 배경 아래 해방 후 수원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사찰은 비구니 강원인 봉녕사이다. 이 외에도 청련사, 용화사, 수원포교당 수원사, 반야사 등이 용주사 말사로서 조계종의 맥을 이어 오고 있으며, 팔달선원(팔달사), 개심선원, 범성선원 등이 선학원의 소속분원으로 있다. 또한 천태종 사찰인 용광사도 1988년에 세워졌으며, 진각종 사찰인 유가심인당, 관음종인 태보사 등 다양한 종파의 사찰도 존재한다. 현대 불교에서 사찰의 역할은 단순히 수행도량으로서만 아니라 변화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복지 및 교육, 전통문화의 전승 등과 같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대중 교화의 방법을 통해 생활불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수원시에는 5개 전통사찰과 56개 소 일반사찰이 존재하는데, 아쉽게도 전통사찰인 묘수사가 그 교세가 많이 약해져 2013년 전통사찰 지정 해지가 진행되고 있다.

##### 1) 비구니 강원 봉녕사

봉녕사(奉寧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인 용주사의 말사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의 연원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1208년(고려 희종 4) 원각 국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봉녕사 삼존석불(三尊石佛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은 1구의 좌상(本尊)과 2구의 입상(挾侍佛)으로 구성된 불상인데, 마모가 심하여 그 형상을 뚜렷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고려 중기 이후의 지방 양식을



봉녕사 삼존석불



봉녕사 전경

보여 주는 일례로 파악된다. 창건 당시에는 성창사라 불리었으나 1469년 혜각 국사가 중수를 하면서 봉녕사로 개칭되었다.

이후 뚜렷한 연혁은 나타나지 않지만 1878년에 「칠성탱화(七星幀畵)」와 「현왕탱화(現王幀畵)」(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가 제작되었고, 1884년에 「약사여래후불탱화(藥師如來後佛幀畵)」가, 1891년 「신중탱화(神衆幀畵)」(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가 조성된 것을 보면 19세기 말기에 활발한 불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가람을 갖추게 된 것은 1970년대 비구니 묘엄(妙嚴 : 1931~2012)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결과였다.

묘엄은 1931년 경남 진주시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불교정화운동을 이끌고 두 번의 총무원장과 종정을 지낸 청담 스님이었다. 1945년 경북 대승사에서 월혜 스님을 은사로 득도,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였다. 성철·자운 스님 밑에서 수학하였고, 한국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인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학인들을 가르쳤다. 운문사 강원 강주를 역임한 후, 봉녕사에서 강원 개원 후 강주로 취임한 데 이어 1979년 봉녕사 주지로 취임하였다. 약사전과 요사채 한 동박에 없었던 가람을 승가대학인 육화당, 도서관 소요삼장, 대적광전, 종각, 중무소와 선원을 갖춘 대가람으로 변모시켰다. 1999년 6월 비구니 사원으로는 처음으로 금강율원을 개원하여 수행도량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게 되었다.

동학사, 운문사와 함께 한국 비구니 위상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2009년부터 ‘사찰 음식 대향연’이라는 문화축제를 열어 불교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 내에서 가장 큰 사찰로 부각되면서 현대 수원 불교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 2) 조계종 사찰 청련사

청련사(靑蓮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인 용주사의 말사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74-1번지 광교산 남쪽에 자리 잡은 사찰이다. 사찰의 연원은 1777년(정조 1)에 비구니 청련이 심낙서(沈樂瑞) 등의 시주를 얻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문헌은 찾아볼 수 없고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19세기 말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1호)와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6호)를 비롯하여 「신중도」, 「독성도」, 「산신도」, 「칠성도」 등이 19세기 말 제작되어 현존한다. 1902년(광무 6)에 영친왕 이은(李垕 : 1897~1970)의 생모인 엄비(嚴妃)가 중창하면서 사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1955년 비구니 영선(永善)이 요사 2동을 신



청련사 큰법당 내부

축하고 1980년 주지 상용(常湧)이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청련사는 수행도량의 역할과 함께 부설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수원포교당 수원사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번지에 위치한 수원사(水原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직할 사찰로 신풍리에 있던 포교당을 1920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 것이다.

수원포교당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이 전람회를 개최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나혜석은 1927년 6월에서 1929년 3월까지 2년여 동안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결과를 동아일보사 수원지국과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의 도움으로 1929년 9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초대 주지 강대련이 설립한 후, 여러 포교사와 스님들의 노력으로 중수와 정비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불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1982년 2월



일제시기 수원포교당(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사(수원사 홈페이지)

부터는 학생회와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수원불교』라는 간행물을 발행하여 청소년 불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1987년 4월 수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남성들로 구성된 '청신사' 거사회를 창립하여 여성 불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모임과 차별성을 두려고 했다. 포교전문지인 『월간법보』 발행과 불교강좌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 선학원 분원 팔달사

팔달사(八達寺)는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3가 116번지에 위치한 재단법인 선학원(禪學院) 소속 사찰이다. 1895년(고종 32) 비구니 윤흥자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과 1920년대에 처음으로 절을 지었다는 설이 전해지나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팔달사의 연혁은 1934년 12월 15일 선학원에 등록되면서부터이다. 선학원은 한국 불교의 일본화를 막고 불법의 정통인 '선(禪)'을 탐구함으로써 선풍(禪風)의 맥락으로 불교의 중흥을 이루고자 여러 대덕 고승들이 중심이 되어 1921년에 설립된 사찰이다. 일제의 「사찰령」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사(寺)·암(庵)이라 사용하지 않고 선학원이라 표기하였던 것이다. 선학원



팔달사 창건주 윤흥자 보살(팔달사 소장)



1936년 팔달암 화엄법회 기념(팔달사 소장)

은 항일의식의 발로였던 만큼,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34년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12년 현재 전국에 363개소의 분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원을 지닌 선학원 소속 사찰 팔달사는 1986년 이범행 스님의 중창으로 오늘날과 같은 가람을 갖추게 되었고 수원 도심 속에 위치하면서 지역 사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5) 법화종 사찰 묘수사

묘수사(妙壽寺)는 1920년대 건립된 한국불교 법화종계의 사찰로서 장안구 북수동 72번지에 위치해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장안문 근처의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에 새벽 4시의 목탁소리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뚝딱질’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사찰 내 「운대종사기념비」를 통해 혜운(惠雲 : 1889~1947) 스님이 묘수사를 건립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혜운 스님은 1918년 용주사에서 수계 득도하여, 1922년 10월 북수동에 묘수사를 창건, 해방 후 대승불교법화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1947년 세수 50세, 법랍 30세



1980년대 묘수사

로 입적한 인물이다. 이 기념비는 제자 혜신(惠信) 스님이 입적 30주기를 기념하여 1977년에 세운 것이다.

법화종은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묘수사의 중심 법당도 대웅전이 아닌 영산보전(靈山寶殿)으로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있다.

건립 초기에는 50명의 제자가 수도한 만큼 큰 절이었지만 90여 년이 지난 현재 교세가 많이 쇠하여, 안타깝게도 수원의 5대 전통사찰이었으나 현재 지정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 6) 천태종 사찰 용광사

수원에 있는 유일한 천태종 사찰인 용광사(龍光寺)는 1976년 수원 지역 천태종 불자들의 모임이 발전하여 1988년 수원시 장안구 과장동 373번지 현재의 위치에 불교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만들어진 사찰이다.

천태종은 본래 594년 수나라의 지자(智者 : 538~597) 대사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만든 종파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대각 국사 의천(義天 : 1055~1011)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종파 통합으로 사라졌다가 근대에 들어 상월원각(上月圓覺) 대조사(大祖師 : 1911~1974)가 다시 개창하였다. 총본산은 단양에 있는 구인사이다.

오늘날 용광사의 가람은 1997년 부임된 정월중 주지의 발원으로 2000년에 완성되었다. 경기도 내 천태종 사찰은 2012년 현재 총 18개가 있는데, 용광사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천태종 사찰이다. 이 사찰은 현대에 지어진 만큼 기존의 조계종 사찰과는 다르게 다층으로 된 현대식 분위기의 가람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 7) 진각종 사찰 유가심인당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위치한 유가심인당(瑜伽心印堂)은 1969년 10월에 개설된 진각종계 사찰이다. 대한불교 진각종은 신라 선덕여왕 때 명랑 법사에 의해 만들어진 밀교의 종파 신인종에 연원을 두면서 1953년 한국에서 성립된 밀교종단이다. 이후 진언종과 총지종이 진각종에서 분종하여 현재 3대 밀교종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신 대일여래를 중시하며, 『대일경』·『금강정경』·『대승장엄보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다. 종단의 승려는 남녀 모두 머리를 깎지 않는 반승반속(半僧半俗)의 형태로 남자 교화자는 정사(正師)로, 여자 교화자는 전수(傳授)라고 부른다.

폭넓은 대중교화에 힘쓰고 있는 유가심인당은 2005년에는 화흥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명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 책임연구원

1. 조선시대 수원향교와 꺾리사
2. 일제하 수원향교 재산 실태와 유림의 활동
3. 해방 후 유교의 변화



## 제2장

# 수원 유교계의 동향과 변화

### 1. 조선시대 수원향교와 궐리사

#### 1) 조선시대의 향교

우리나라 학교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고구려에서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시킨 것이 역사상 관학(官學)의 시초라 할 수 있다.<sup>1</sup> 태학은 도읍에 설치된 학교로 소수 특권 귀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당(扁堂)은 지방에 설치된 학교로서 서민 교육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국의 각 지방에 학교가 설립·운영된 것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고려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127년(인종 5) 3월에 조서를 내려 주(州)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의 길을 넓히라고 한 것을 향교의 기원으로 본다.<sup>2</sup>

<sup>1</sup>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향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에 제향을 지내는 기능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후 향교 설립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고려시대에 세워진 향교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무신 집권과 몽골·왜의 침략으로 향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고려 말에 지방관과 유림들의 노력으로 그 기능을 회복해 갔다.

이와 같이 고려조에 설립되기 시작한 향교는 조선시대 들어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으로 전국적으로 세워졌다. 이는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한 성리학을 일반 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한 조선왕조의 필요성에 기인한 결과였다. 일찍이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으며,<sup>3</sup> 태종은 학교의 흥폐 여부를 수령의 고과기준으로 삼는 등 향교 교육을 중요시하였다.<sup>4</sup> 또한 각 향교에 토지와 노비를 지원함은 물론, 유교적 이념을 갖춘 관인을 중앙에서 파견함으로써 교육 진흥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향교 건물은 크게 배향공간(대성전과 동서무)과 교육공간(명륜당과 동서재)으로 나뉘는데, 배향공간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도 평지에서는 배향공간을 앞에 두고 교육공간을 뒤에 배치하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형태를 취하고, 경사진 곳에서는 배향공간을 뒤에 뒹으로써 시각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게 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다. 또한 향교는 건물의 양식에서도 위계적 질서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대성전은 대궐을 뜻하는 전(殿)의 개념을 사용하고, 동·서무에는 행랑을 뜻하는 무(廡)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지면으로부터 높낮이도 차등을 두어 우선 시각적으로 위계질서를 나타냈으며, 건물의 기둥도 대성전에는 둥근 기둥을 사용한 반면 동·서무에는 네모난 기둥을 사용하였다. 공포(楹包) 또한 대성전이 익공(翼拱)양식인 데 비해 동·서무는 일반주택과 같은 민도리양식을 취하고 있다.

각 향교에서 모시는 선현 위패의 수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대설위(大設位)·중설위(中設位)·소설위(小設位)로 구분하였다. 대설위는 대성전에 공자를 비롯하여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 등 사성(四聖), 공자의 수제자 10명을 가리키는 10철(十哲),<sup>5</sup>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주희(朱熹)

2 한편 고려 태조 왕건이 930년에 서경(西京)을 방문하여 세운 '학원(學院)'을 고려조에 건립된 최초의 향교로 이해하기도 한다 (강대민, 『한국의 향교』,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16쪽). 그러나 이것은 태조의 서경 중시사상에서 비롯된 특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3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4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0일.

5 10철은 민손(閔損), 염경(冉耕), 염옹(冉雍), 제여(宰予),端木사(端木賜), 염구(冉求), 증유(仲由), 언언(言偃), 복상(卜商), 진손

등 송나라 학자 6명(宋朝 六賢)의 위패를 모시고, 동·서무에 공자의 문하 72현, 한당송원(漢唐宋元) 22현,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는 것인데, 관찰사가 머무는 큰 읍에만 설치하였다. 중설위는 대성전에 공자와 4성·10철·송조 6현을, 동·서무에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며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 등 고을이 이에 해당하였다. 또 소설위는 공자와 4성 및 송조 4현(주돈이·정호·정이·주희)을 대성전에 모시고, 동·서무에 우리나라 18현을 배향하는 형태를 취하며 군(郡)·현(縣) 등 작은 읍에 설치하였다. 대성전과 동·서무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기 때문에 건물 안이 보통 통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륜당(明倫堂)과 동재(東齋)·서재(西齋)는 교육을 행하는 공간이다. 명륜(明倫)은 인륜을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명륜당은 교육장소인 동시에 교관의 숙소였기 때문에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는 형태를 취하였다. 동재와 서재는 교생들의 기숙사이며 명륜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청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평민 이상의 신분이 향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양반 교생은 동재에 머물고 평민들은 서재를 사용하는 등 건물 사용에도 신분상 구별이 존재하였다. 동·서재는 건물 전체가 방이거나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기도 한다.

교생의 정원도 행정구역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90명, 도호부(都護府) 70명, 군(郡) 50명, 현(縣)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sup>6</sup> 교생의 입학연령은 지역에 따라 15~20세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교육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체로 40세까지는 학생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다. 교생은 입학과 동시에 군역이 면제되었으며,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 2) 수원향교의 설립과 현황

수원향교는 1291년(고려 충렬왕 17)에 건립되었다. 위치는 당시 수원 구읍치였던 곳으로 지금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이며, 수원부(水原府)의 서쪽 3리 되는 지점이었다. 그 뒤 향교는 1661년(현종 2)에 부(府) 남쪽 2리 되는 독완산(秃岾山)으로 옮겨졌다가<sup>7</sup> 지금의

사(繼孫師)를 말한다.

<sup>6</sup> 『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

<sup>7</sup> 『여지도서』 보유편, 「수원부읍지」 문묘.



구읍처 시절 도고산 아래 위치한 수원향교(『광여도』, 「수원부」)



신읍처 조성 후 팔달산 아래 위치한 수원향교(『1872년 지방도』, 「수원부지도」)

건릉(乾陵) 자리로 다시 옮겨졌지만 언제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sup>8</sup>

정조가 사도세자의 원침을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옮길 때 향교도 읍의 남쪽 3리 되는 지점(지금의 수원시 팔달구 교동 43번지)으로 옮겨 짓게 되었다. 즉 1789년(정조 13) 9월 13일에 새로운 향교 건물이 낙성되었다.<sup>9</sup> 그러나 급작스럽게 향교를 옮겨 짓는 과정에서 재목은 목은 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뜯은 좁고 습기가 차서 축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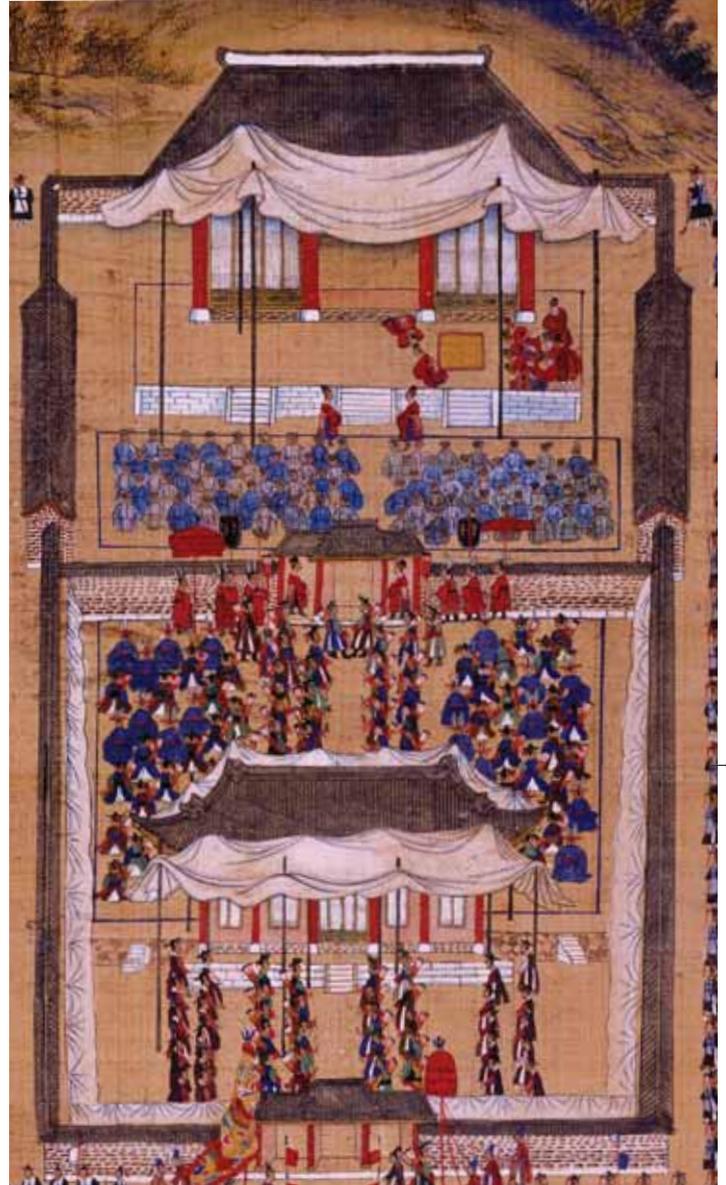
그리하여 1795년(정조 19) 봄에 기둥이 썩어 내려앉게 되자 건물을 다시 짓게 하였다. 먼저 위패를 옮겨 놓은 후 명륜당을 제외한 옛 건물을 헐고 터를 넓게 닦은 다음 월대(月臺)를 2층으로 쌓았다. 대성전은 맨 위쪽에 남향으로 자리하였고, 대성전의 안과 밖은 모두 네모난 벽돌을 깔았다. 대성전 앞쪽 양 옆으로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세우고 그 앞 10척쯤에 내삼문과 담장을 설치하였다. 널찍한 뜰을 사이에 두고 옛 구조물인 명륜당이 있고, 좌우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두었다. 동재 앞으로 네모난

8 1821년(순조 21) 정조비 효의황후(孝懿皇后)가 승하하자 기존의 정조의 능을 옮겨 효의황후와 합장한 것이 지금의 건릉이다. 이때 수원의 옛날 향교 터가 능 자리로 결정된 것이다(『순조실록』 권23, 순조 21년 4월 4일; 『순조실록』 권23, 순조 21년 4월 10일; 『순조실록』 권23, 순조 21년 4월 21일).  
 9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9월 13일.

연못을 설치하고, 뒤편으로는 전사청(典祀廳)을 수리하여 세웠다. 한편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바깥 담장을 두르고, 외삼문 남쪽으로 14보 되는 곳에 홍살문을 설치하였다.<sup>10</sup> 대성전은 7개의 대들보에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였으며, 동·서무 각 4칸 반, 내삼문·외삼문 각 3칸, 동·서재 각 9칸, 전사청 18칸으로 새로 지은 것이 모두 71칸이었다. 이처럼 향교를 일신하는 데 들어간 자재비와 온갖 공임은 총 7,599냥 9전 5푼이었고,<sup>11</sup> 소요된 기간은 3개월이었다.<sup>12</sup>

수원향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설립 당시 대성전에 공자를 비롯하여 4성, 10철, 송조 6현, 우리나라의 유학자 15명<sup>13</sup>을 배향하였다.

명륜당은 10칸의 건물이 실(室) 구분 없이 통칸 형식이며, 동·서재는 각각 중앙 1칸은 마루이고 좌우 2칸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명륜당이 외삼문을 뒤로한 채 대성전을 향해 있고, 그 앞으로 양쪽에 동·서재를 둔 전당후재(前堂後齋)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교육공간 건물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배향공간을 신성시키는 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는 반



정조의 수원향교 전배(『화성능행도명』, 『화성성묘전배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0 『화성성역의궤』 부편 1, 단묘 문선왕묘.

11 『화성성역의궤』 부편 3, 재용 문선왕묘.

12 1795년 5월 6일에 공사를 위해 위패를 옮겼다가 건물이 완성된 후 제자리에 모셔 온 것이 8월 9일이었다(『화성성역의궤』 부편 2, 고유문).

13 현재 향교에는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지만 당시는 김인후(金麟厚 : 1796년 배향), 조헌(趙憲 : 1883년 배향), 김집(金集 : 1883년 배향)의 위패가 봉안되기 전이다.

면, 공간 이용에는 유리한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외는 반대로 명륜당이 대성전을 뒤로 하고 동·서재를 외삼문 쪽으로 배치하는 전재후당(前齋後堂)의 형태는 건물의 독립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신 대성전에 가려면 명륜당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한편 읍의 크기에 따라 각 향교의 교생 정원을 차등 있게 규정함에 따라 수원향교 교생은 부(府)의 고을에 해당하는 90명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수원향교가 세워지는 조선 후기에는 이미 사학(私學)으로서 서원(書院)이 대거 등장하여 관학인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던 시기였다. 더욱이 19세기 말 신식학교의 등장과 신학제 실시에 따라 전국 향교와 마찬가지로 수원향교의 교육기능도 거의 상실하였다. 이후 매년 봄·가을에 행하는 석전제(釋奠祭)와 매월 초하루·보름의 분향 등 선현에 대한 제향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수원향교는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3) 공서린과 화성컬리사

공서린(孔瑞麟 : 1483~154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자는 희성(希聖)·응성(應聖)이며, 호는 휴암(休巖)이다. 공자의 64세손으로 아버지는 공의달(孔義達)이며, 어머니는 박원인(朴元仁)의 딸이다. 오산에서 태어나 김굉필(金宏弼)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조광조(趙光祖)·김정국(金正國) 등과 각별한 친분을 맺었다.

1507년(중종 2) 생원시를 거쳐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09년 좌랑(佐郎)으로 있으면서 정전(正殿)에서 베푸는 예연(禮宴)에 여악(女樂)을 쓰지 말 것을 청하였고,<sup>14</sup> 이어 소격서(昭格署)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5</sup> 사간원 정언,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노산군(魯山君 : 단종)과 연산군의 후손을 세우는 문체와 언로(言路) 확장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기묘사화(1519년) 때는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며, 1522년(중종 23) 이후 양양부사(壤陽府使)·영해부사(寧海府使)·진주목사(晉州牧使)·과주목사(坡州牧使)·성천부사(成川府使)·경주부윤(慶州府尹) 등 주로 지방 수령직을 거쳤다. 그 뒤 황해도관찰사·대사헌·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중종실록』에서 공서린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는 자상한 사람으로 성품이 온아하고

14 『중종실록』 권10, 중종 4년 11월 11일.

15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6월 24일.

선(善)을 좋아했다. 관청에 나가거나 집에 있거나 항상 검소했지만 특별히 남다르게 빼어난 절조는 없었다. 일찍이 기묘년에 시종신(侍從臣)으로 있다가 승지로 승급되었고 사화(士禍)가 발생한 뒤에 파직은 당하지 않았으나 심정(沈貞)과 허항(許沆)에게 미움을 받아 조정에 용납되지 못했다. 그 뒤 김안로(金安老)와 채무택(蔡無擇)이 집권했을 때 배척을 당해 외직(外職)에 나갔다. 정유년에 다시 들어와 부제학에 제수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대사헌이 되었지만 심질(心疾) 때문에 결



공서린 묘역(디지털 용인문화대전 제공)

국 해놓은 일 없이 세상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6</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단아하고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묘년에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임금의 구언(求言)에 논한 바가 간절하고 정직하였다고 평하기도 하였다.<sup>17</sup> 공서린은 관직생활을 통해 오로지 절약과 검소를 실천하였고, 뒤에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며, 묘소와 신도비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공서린이 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와 강당을 세우고 제자를 가르쳤던 곳이 지금의 오산시 켄동이다. 당시 지명은 화성부 중구면(中逵面) 구정촌(九井村)으로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2대 켄리사(關里祠) 중 하나인 화성켄리사(華城關里祠: 경기도기념물 제147호)가 있다.<sup>18</sup>

정조가 현릉원에 행차할 때 남쪽으로 까마귀떼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정조는 은행나무에 얽힌 공서린의 사연<sup>19</sup>을 듣고, 경기감사와 화성유수에게 공자의 성묘(聖廟)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특히 공자가 살던 중국 노나라의 켄리를 따서 사당 이름을 켄리사라 하고, 주변의 지명도 켄리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으며 손수 편액(編

16 『중종실록』 권94, 중종 36년 1월 3일.

17 『중종실록』 권58, 중종 22년 1월 5일.

18 한편 다른 하나의 켄리사는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소재한 노성켄리사(魯城關里祠)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19 『켄리지』에 기록된 공서린과 은행나무의 사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서린이 이곳에 서재(書齋)를 짓고 뜰 앞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으며, 나무가 자라자 북을 달아 놓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권하는 신호로 사용하였다. 공서린이 세상을 떠나자 은행나무도 말라죽었는데, 1792년(정조 16)에 홀연히 그 자리에서 은행나무가 자라는지라 사람들이 장차 공씨 가문에 큰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額)을 써서 내려주기도 하였다. 율리사는 1792년(정조 16) 10월에 착공하여 다음 해 5월 12일에 완공되었는데, 소요된 비용은 조정에서 지원해 주었다.<sup>20</sup> 이어 이문원(摛文院)에 보관하고 있던 공자의 영정을 율리사에 옮겨 모시게 하고, 제품(祭品)의 규모와 향사(享祀) 의식에 대한 문제까지 정해 주었다.<sup>21</sup> 그뿐만 아니라 정조는 율리사 제문(祭文)도 지어 보냈다.

「율리사에 정경(正卿)을 보내어 잔을 올리는 글」  
공자의 사당이 천하에 두루 퍼져 있는데  
이제 화성에다 세우게 되었으니 어찌 까닭이 없으리오.  
공자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이곳에 집터를 정하고 살았는데  
땅에 물이 두루 통함과 같으니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원침을 받들면서부터 상제도 오히려 공경했거늘  
하물며 궁장이 선성에 매우 가까움에랴.  
괴시(槐市)와 행단(杏壇)에서 향금과 기슬을 들으니  
나의 옷매무새가 가지런하고 나의 패옥(佩玉)이 정결하네.  
자궁(慈宮)의 행차가 이른 곳이 신평의 관도이니  
빈조를 드리는 예를 이루고 은혜는 양로연에 미치네.  
예림(藝林)과 확포(豐圃)에 문무의 일이 갖추어졌으니  
여러 백성들을 이르게 하여 또한 음식을 나누어 주네.  
효경에서는 아버지를 드러냄을 말했고 논어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지척의 밝은 가르침을 마치 순순하게 듣는 듯하네.  
이때 이곳에서 어찌 정성을 펼치지 않으리오.  
이에 제기를 깨끗하게 갖추었으니 제문이 함에 담겨 있나이다.<sup>22</sup>

이후 율리사에는 봄·가을 제향 때마다 향과 축문을 내려 보내고, 고위 관직인 정경대부(正卿大夫)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sup>23</sup> 또한 철종 때에는 율리사의 공자 영정이 오래 되어 바래고 해지게 되자 완본(完本)인 강릉본을 가져와서 봉안하게 하였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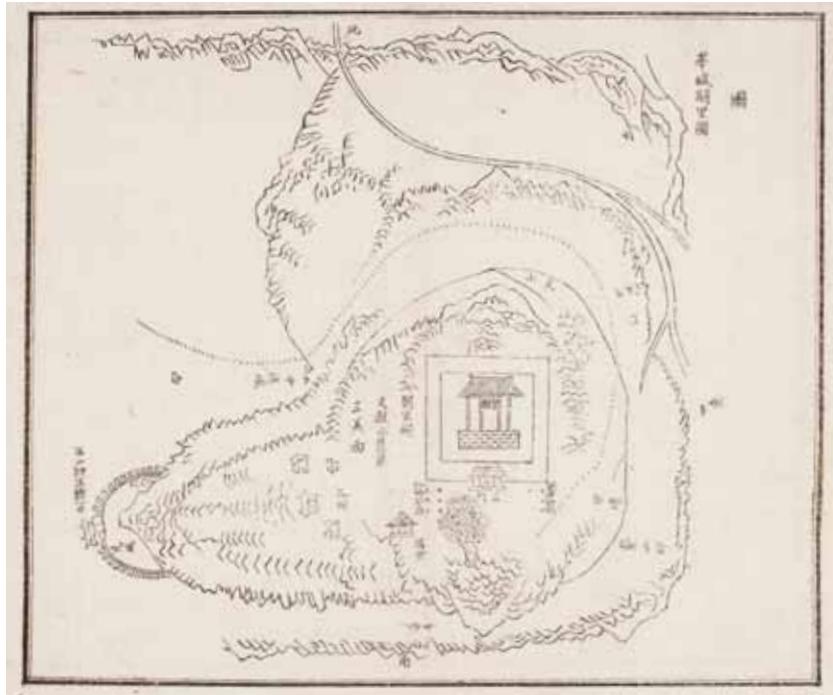
20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0월 3일;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5월 12일.

21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6월 24일;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7월 24일.

22 『홍재전서』 권23, 제문 5. “夫子之祠 遍於天下 義起華城 豈無以也. 雲仍東來 于茲爰宅 在地如水 捨而奚適. 自奉園寢 桑梓猶敬 矧乎宮墻 密邇宣聖. 市槐壇杏 巷琴沂瑟 我衣之振 我佩之潔. 慈駕來臨 新豐官道 禮成薦藻 恩暨養老. 藝林豐圃 文事武備 徠汝赤子 亦授之食. 孝經顯親 魯論愛民 咫尺明訓 若聆諄諄. 是時是境 曷不展忱 載錫鏹豆 有文在函.”

23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9월 2일; 『순조실록』 권6, 순조 4년 9월 1일; 『고종실록』 권5, 고종 5년 3월 14일.

24 『철종실록』 권3, 철종 2년 8월 25일; 『철종실록』 권3, 철종 2년 9월 20일.



「화성궐리도」(수원박물관 소장)



궐리사(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2호 「성적도」 목판(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그러나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정책에 따라 화성궐리사도 훼손되었고, 모시고 있던 영정은 수원향교로 옮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4년부터 궐리사의 제사를 복구하도록 청하는 유생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며,<sup>25</sup> 1894년부터 유럽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봄·가을에 제향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1900년

에 성묘를 중건하였고, 1904년에는 공자의 76세손인 공재헌(孔在憲)이 조병식(趙秉式)·송병산(宋秉璿) 등과 함께 중국 산둥성에 있는 「성적도(聖蹟圖)」를 들여와 다시 제작하였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된 「성적도」는 모두 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자의 일생 중 중요한 행적과 가르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재료는 파나무이며, 가로 70cm, 세로 32cm, 두께 1.5~2.0cm로 양쪽에 나무를 깎아서 판목(板木)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글자의 크기는 1cm 정도인데, 글씨는 정교하지 못하지만 목판에 조각된 공자의 「성적도」는 비교적 섬세하다.

또한 1993년 7월에는 경제문화교류 사절단으로 한국에 온 중국 취푸(曲阜)시의 시장이 공자 석상(石像)을 헌납하여 궐리사에 안치하게 되었다. 석상을 모신 기단은 오행(五行)과 오륜(五倫)을 상징하여 5층으로 만들었고, 공자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공자가 태어날 때 상서로운 동물이 신선의 글을 전해 주는 장면, 두 마리의 용이 집을 에워싸는 장면, 하늘이 성인의 탄생에 감동한 내용 등을 새겨 넣었다. 공자상의 주위에는 안자·증자·자사·맹자 등 4성이 시립(侍立)하여 공자를 모시고 서 있는 구조로 조성되었다. 화성궐리사에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 첫 정일(丁日)에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25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2월 4일;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2월 13일;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4월 7일;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4월 12일;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5월 2일; 『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윤5월 1일.

## 2. 일제하 수원향교 재산 실태와 유림의 활동

### 1) 일제의 향교정책 변화

조선시대 향교의 기본적인 재산은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와 노비가 주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토지는 제향을 위한 위전(位田)과 생도 교육비에 쓰이는 늪전(廩田)으로 구분되었는데, 고을의 대소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향교의 교육기능이 쇠퇴한 조선 후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각 향교가 보유한 토지의 양은 지방관의 지원이나 유림의 기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향교 재산은 원칙적으로 향교가 관학(官學)이기 때문에 수령의 책임 아래 유지되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유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는 향교 재산을 엄연한 공공재산(公共財産)으로 인식하였고, 각 도의 향교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각 향교 소유 토지를 실측하였다. 그들은 1908년 7월,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든 유림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것이든 향교 재산을 모두 정부 소관으로 이속시켰다.<sup>26</sup> 이어 1910년 4월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鄕校財産管理規程)」을 공포하여 향교 재산은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윤이나 군수가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향교 재산을 방매·양도·교환할 수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며, 향교 예산 수립, 수입의 보관 및 출납도 부윤·군수가 하도록 하였고, 관찰사와 학부대신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향교 수입은 향교가 소재한 군내 공립학교 혹은 해당 지역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sup>27</sup>

그리하여 1910년대를 통하여 향교 재산수입은 향사(享祀) 등 향교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이 보통학교의 설립비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향교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통학교 운영비로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제는 향교 건물에 관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하고 제대로 된 수리도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향교 재산수입에서 학교 경비로 지원된 금액은 공립보통학교의 전체 세입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을까. 1915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경학원(經學院)

26 『관보』, 1908년 7월 27일.

27 『관보』, 1910년 4월 28일.

〈표 1〉 1910년대 전국 향교 재산 세출 예산<sup>28</sup>

(단위 : 원)

연도	학교경비(%)	향사비	수리비	잡급 잡비	관리비	공과	예비비	기타	계
1911	60,674(60.1)	9,472						30,918	100,962
1912	92,932(61.7)	5,368	6,977	11,769	4,308	7,979	9,396	11,941	150,670
1913	115,036(62.5)	4,179	7,116	14,946	5,476	15,227	11,740	10,414	184,134
1914	127,288(65.1)	3,955	5,981	13,018	3,847	24,084	5,177	12,160	195,510
1915	114,805(64.9)	3,308	4,464	9,203	5,190	28,044	4,333	7,547	176,894
1916	107,904(65.4)	3,287	5,733	8,958	1,300	29,964	2,913	4,529	164,588
1917	104,302(60.5)	3,185	10,222	8,891	2,926	30,193	3,352	9,275	172,346
1918	126,935(63.2)	3,522	13,544	8,778	2,965	31,435	4,034	9,654	200,867
1919	177,402(66.7)	4,552	18,989	11,154	2,028	34,076	5,190	12,731	266,122

에서 조선 교육의 근황을 설명한 것을 보면 “보통학교는 400교에 생도가 6만이고 경비는 약 110만 원인데, 내역은 지방비 48만 원, 임시 은사금 이자 30만 원, 향교 재산수입 12만 원, 수업료 3만 5,000원, 인민 직접 부담 약 5만 원”이라 하였다.<sup>29</sup> 이 경우 향교 재산에서 보통학교에 전용된 경비는 공립보통학교 총예산의 10.9%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시 공립보통학교 예산은 경상부(經常部)와 임시부(臨時部)로 이루어져 있었다. 경상부에는 기본 재산수입, 기타 재산수입, 수업료, 은사금 이자, 향교 재산수입, 잡수입, 호세(戶稅), 가옥세(家屋稅)·토지세(土地稅) 등이 속하였고, 임시부에는 조월금(繰越金),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기부금 등이 해당되었는데, 1910년대를 통해 임시부가 총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경상부만 계상했을 때 향교 재산수입에서 공립보통학교에 전용된 경비의 비중은 훨씬 높게 나타난다.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세입예산액 중 경상부 총액에서 향교 재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6%였다.<sup>30</sup>

이와 같이 일제가 향교 재산을 보통학교 경비로 전용하는 등 보통교육을 중시한 것은 현병경찰통치기에 보통학교를 거점으로 한 동화정책(同化政策)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총독부 입장에서 공립보통학교는 “사회를 교화하는 적극적 행동의 중심지”였고, 향교는 재산 전용을 통한 보통학교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교화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1</sup>

28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1919. 1911년에는 향사비와 수리비가 ‘향사 및 수리비’로 통합 처리되었고, 잡급 잡비·관리비·공과·예비비 항목은 설정되지 않고 기타에 포함되었으며, 1912년부터 항목을 구분하였다.

29 『경학원잡지』 제7호, 1915, 54~61쪽.

30 『공립보통학교세입예산』,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판.

31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95~96쪽.

한편 3·1운동 이후 일제는 기존의 「향교재산관리규정」을 폐지하고 「향교재산관리규칙(鄕校財産管理規則)」을 발표하였다.<sup>32</sup> 이와 함께 1920년대 일제가 시행한 향교정책의 변화는 장의제(掌議制) 실시라 할 수 있다. 향교에 장의라는 직책을 두고, 장의회 의결을 통해 향교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윤·군수가 가지고 있던 향교 재산 관리권을 돌려 달라는 조선 유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가장(假裝)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장의회의 의장을 해당 지역의 부윤·군수가 장악한 것이나, 장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장의의 임명·해임을 부윤·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장의회 구성에서 이미 수령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향교재산관리규칙」에서는 종래 향교 재산수입 중 군내 보통학교나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향교의 수입을 ‘지방교화비(地方教化費)’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교화비는 효자·절부·자선사업가 등에 대한 표창비, 시찰보조비, 도서관 건립비, 도서·신문·잡지 구입비, 학자금 보조 및 자제 교양비, 강연·강습비, 백일장 행사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자 표창은 미풍양속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시찰 보조는 일본의 근대 선진문화의 우수성을 선전함으로써 조선인을 감복시켜 식민통치에 순응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의 관습 타파와 신지식 습득이라는 미명하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신문·잡지 등을 구입하여 열람케 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도서관에서 구입·비치한 것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나 친일 유림이 발행하는 잡지 등이었다. 보통학교가 널리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령 초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거나 학자금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수원향교의 교화비 지출도 다른 지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세 가지 항목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표창비(100원)를 책정하여 모범자 2명에게 각기 은배(銀杯)를 수여하였으며, 자제 교양비(170원)는 잡지 『유도(儒道)』를 구입하여 장의 10명, 직원 2명, 21개 면에 1921년(대정 10) 5월부터 1922년 3월에 걸쳐 매월 1부씩 배부하려는 취지에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강연 및 강회비(200원)는 양반과 유생을 회동시켜 사회개량 및 유도(儒道)에 관한 사항을 청강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sup>33</sup> 이와 함께 수원 지역 내에서도 국내 및 일본 산업시설에 관한 시찰단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1921년 7월 수원군 각 면장으로 조직된 서선(西鮮) 시찰단 일행 18명이

32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6월 29일.

33 조선총독부, 『향교 재산관계(1)』, 1921, 1070쪽.

황해도 황주군, 겸이포(兼二浦) 시내 및 미쓰비시(三菱)제철공장, 평양 각 방면 등을 시찰하였고,<sup>34</sup> 1935년에는 수원군 각 면의 면장과 면서기 등으로 조직된 일본 시찰단 24명이 도쿄(東京)·오사카(大阪) 등지를 돌아보기 위해 수원역을 출발하였다.<sup>35</sup>

결국 이러한 지방교회사업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고자 획책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 2) 수원향교 재산 처분 사례

1795년(정조 13) 수원향교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워질 당시 향교 소유 토지는 대지 1,300평, 임야 4,500평이었다. 그리고 300석을 추수할 수 있는 전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수원향교의 재산 변화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1925년에 이르러서야 향교 재산 현황이 파악된다. 즉 1925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군 내에 있는 향교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답(畓) 9만 6,300평, 전(田) 1만 500평, 대(垓) 898평, 잡지(雜地) 171평 등 모두 10만 7,869평이고, 건물 72평을 포함한 재산의 가격 합계가 1만 5,792원이며, 이로부터 취하는 한해 수익금이 2,224원으로 나타난다.<sup>36</sup>

**水原에 在 韓 鄉 校 財 產 調 查 한 즉**  
郡 內 在 韓 鄉 校 財 產 調 查 한 즉  
如 左 하 다 고 (水 原)

計 雜 地	計 田	計 大	計 雜 地
一〇七、八〇〇 坪	一、五〇〇 坪	八、九八 坪	一七、一 坪
計 建 物	計 答	計 大	計 雜 地
一、〇七、八〇〇 坪	一、五〇〇 坪	八、九八 坪	一七、一 坪
計 收 益 金	計 答	計 大	計 雜 地
一、〇七、八〇〇 坪	一、五〇〇 坪	八、九八 坪	一七、一 坪

수원향교 재산에 관한 기사(『동아일보』, 1925년 3월 20일)

일반적으로 일제시기를 통틀어 향교 재산은 학교비 전용, 도로부지에 기부, 수리조합이나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매각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 중 향교 재산을 도로부지에 기부하는 데 근거가 된 것은 1911년 4월 17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이었다. 이 법령은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는 본령에 의해 그 사업에 요하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34 『동아일보』, 1921년 7월 13일.

35 『조선중앙일보』, 1935년 7월 5일.

36 「수원에 향교 재산」, 『동아일보』, 1925년 3월 20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국방, 기타 군사에 관한 사업, ② 관청 또는 공선(共善) 건설 등에 관한 사업, ③ 교육·학술 또는 자선에 관한 사업, ④ 철도·궤도(軌道)·도로·교량·하천·제방·사방(砂防)·운하·수로(水路)·유지(溜池)·구거(溝渠)·항만·부두·수도(水道)·하수·전기·와사(瓦斯) 또는 화장로장(火葬路場)에 관한 사업, ⑤ 위생·측후(測候)·항로표지(航路標識)·방풍(防風)·방화(放火)·수해예방, 기타 공용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설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37</sup> 이는 일제가 이른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였다. 이때 전국의 향교 소유 토지도 도로 조성사업에 상당부분 편입되었으며, ‘기부’·‘무상양여’라는 형식을 띠고 강제 수용되었다. 이에 대해 지방 유림들의 저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은 국가나 지방단체의 도로 조성이 공공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공공단체의 토지는 무상 기부하는 것이 관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수리조합이나 철도 건설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 제철·방직·금광·염색·전력·화학·무연탄 관련 회사 등 산업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교 재산(토지)이 기부가 아닌 유상(有償) 형태로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지 매각대금은 주변 토지의 거래시세를 감안하거나 토지대장의 등급에 따른 철도용지매상표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다.

일제시기 수원향교 재산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전술한 대로 조선총독부는 해당 지역 부윤·군수에게 향교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후 인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향교 관련 자료는 1910~1938년에 부윤·군수가 향교 재산의 구입·매각·기부·교환 등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고 인가받은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 수원향교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자료로는 「향교 재산 토지 무상양여 처분 인가의 건」<sup>38</sup>과 「수원군향교 재산 토지매각 처분에 관한 건」<sup>39</sup>이 있을 뿐이다.

「향교 재산 토지 무상양여 처분 인가의 건」은 1933년 2월 27일 수원향교의 재산관리자인 수원군수가 향교 소유 토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 인가받은

37 『매일신보』, 1911년 4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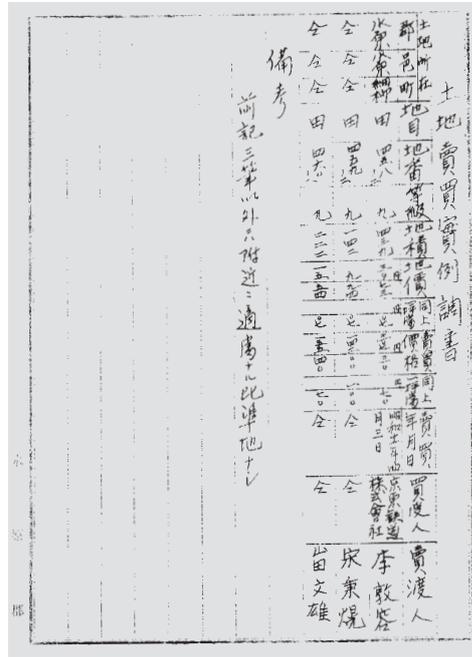
38 조선총독부, 『향교 재산 처분관계철』, 193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2).

39 조선총독부, 『향교 재산 처분관계철』, 1937(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36).



고 있다. 즉 경동철도회사에서 사들인 458-2번지와 460-2번지의 밭 가격이 0.70원이었고, 459-2번지 밭은 1원이었음을 들어 '평당 가격 0.80원은 적당한 가격'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는 6월 25일자로 인가공문을 발송하였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향교 재산은 관(官)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비교적 순조롭게 수용되거나 매각되었다. 향교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장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였다. 장의회의는 주로 군청이나 공립학교에서 부윤·군수의 주재로 열렸고, 회의는 의장인 부윤·군수가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의가 없는 사람은 기립하거나 거수하여 의결을 결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장의회의 의결은 향교 재산 처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지만, 인적 구성이나 회의 진행·절차 등으로 미루어 형식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토지매매실례조서』(『향교 재산 처분관계철』, 1937, 국가기록원 소장)

### 3) 일제시기 수원 유림의 활동

조선시대를 통해 유교는 한 나라의 정치·사회·문화 이데올로기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유림들은 중앙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계층이자 향촌사회의 지도자로서 사실상 조선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세력이었다. 일제가 한반도 병합을 전후하여 다른 종교인보다 유림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제는 조선 유교가 상하 간에 수직적인 지배와 복종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선 유교의 원리를 식민 지배 논리로 전환시켜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유교정책은 조선의 유교를 파괴하기보다는 일본화된 유교로 유도하고 아울러 유림계를 친일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40</sup> 그들은 조선이 망한 것은 유교 때문임을 강조함으

40 오영섭, 「유교의 항일민족운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37-38쪽.

로써 조선민의 유교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유림세력의 분열을 조장하여 원천적으로 향일의식을 말살하고자 획책했던 것이다. 일찍이 일제는 1907년 3월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친일 관료를 동원하여 대동학회(大東學會)를 조직하였고, 1909년 10월에는 이를 공자교(孔子敎)로 개칭하여 친일 유림을 끌어들이었다.<sup>41</sup> 또한 '병합' 직후 조선 유생 1만 2,115명에게 상치은금(尙齒恩金) 명목으로 30만 원을 내려 줌으로써 유림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 유림의 근거지인 성균관과 향교를 친일 유림들의 사회교화단체로 만들어 버렸다. 즉 1911년 6월 15일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sup>42</sup>한 뒤 친일 유림을 직원·강사로 고용하여 각종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일제의 선전도구로 삼았고, 향교 또한 일제 통치에 순응하는 유림들로 채워 나갔다. 또한 1910년 4월 13일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여 그동안 유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 오던 향교 재산을 정부기관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향교 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박탈당한 유림들을 회유하고자 일제는 임시은사금을 분배하였다. 병합 후 첫 번째 천장절(天長節)인 1910년 11월 3일에 60~109세의 유림 3,150명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15원에서 200원의 은사금을 수여한 것이다.<sup>43</sup> 대상자는 경기 1,153명, 강원 406명, 충북 1,450명, 충남 2,638명, 전북 395명, 전남 803명, 경북 1,195명, 경남 573명, 황해 442명, 평남 12명, 평북 238명, 함남 143명, 함북 74명 등 총 9,721명이었는데, 이 중 경기 이남이 8,000명 이상으로 은사금 배분은 주로 유림 세력이 강한 남부 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전술한 대로 조선 후기 이후 향교의 기능이 크게 침체되기는 하였지만, 향촌사회에서 향교나 유림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다. 즉 일제시기에든 향교 직원과 장의는 지역 유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향교 운영에 참여한 직원이나 장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수원향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수원향교의 「역대 도유사·직원·전교록」을 보면 유태희(柳宅熙 : 1897년 도유사), 이용규(李容奎 : 1915년 11월), 박회양(朴晦陽 : 1926년 3월), 윤태중(尹泰重 : 1936년 4월), 이필상(李弼商 : 1940년 5월, 이상 직원), 이창근(李昌根 : 1956년 전교) 등이 일제의 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향교의 도유사·직원·전교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명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재임기간을 각기 4~16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sup>45</sup> 이는 전쟁

4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25~28쪽 및 193쪽.

42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6월 15일.

43 조선총독부, 『시정 25년사』, 1935, 22쪽.

44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47쪽.



일제시기 수원향교(수원박물관 소장)

으로 자료가 소실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수원향교 직원의 명단과 임면 일시는 『관보(官報)』와 『경기도보(京畿道報)』를 통해 일부 복원할 수 있다.

〈표 2〉 일제시기 수원향교 직원(直員) 명단<sup>46</sup>

직 원	임면 일시	직 원	임면 일시
윤태익(尹泰翊)	1909. 3.30~1911.12.16.	이병철(李炳哲)	1923. 3.10~1923. 8.30.
이순구(李純九)	1911.12.16~?	이종익(李鍾翼)	1923. 8.30~?
이용규(李容奎)	?~1916. 4.10.	박회양(朴晦陽)	1926. 3.~?
박회양(朴晦陽)	1916. 4.10~1916.10. 7.	김진수(金振洙)	?~1933. 1.31.
이병운(李秉雲)	1916.10. 7~?	구연필(具然弼)	1933. 1.31~?
이병구(李秉九)	?~1919. 2.25.	윤대중(尹泰重)	1936. 4.~?
이휘래(李徽來)	1919. 2.25~?	이필상(李弼商)	1940. 5.~?
정기형(鄭基亨)	?~1921. 2.28.	이근호(李近浩)	?~1940.12. 5.
이금래(李肯來)	1921. 2.28~1921. 8. 4.	김광안수(金光顔洙)	1940.12. 5~1941. 7.14.
이기래(李驍來)	1921. 8. 4~?	권동중학(權東重赫)	1941. 7.14~1942. 7.31.
유기은(柳基殷)	?~1923. 3.10.	여이필상(麗李弼商)	1942. 7.31~?

45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487~488쪽.

46 윤태익의 임명 기록(『관보』, 1909년 4월 17일)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보』에서 발췌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보』도 부분적으로 자료의 결본(缺本)이 있는 상태이므로 향교 직원의 임면 기사가 누락되어 정확한 직원의 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1920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신청한 「장의에 관한 규정의 건」을 보면 각 군의 장의 정원은 개성 12인, 수원 10인, 연천·포천·안성·강화 8인, 광주·양주·양평·여주·이천·용인·진위·시흥·부천·김포·과주·장단 6인, 고양·가평 4인이었다. 이때 장의의 정원을 정하는 데는 해당 향교의 재산수입과 유림의 다과(多寡) 등이 참작되었다. 향교 재산수입 500원 미만은 4인, 500~1,000원은 6인, 1,000~2,000원은 8인, 2,000~5,000원은 10인, 5,000원 이상은 12인으로 정한 다음, 여기에 종래 문묘의 자격, 유림의 수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수원향교의 장의가 10명으로 정해진 것으로 미루어 향교 재산의 연수입이 2,000원을 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7</sup> 또한 장의는 유림이 선출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였다.

〈표 3〉 1930년대 수원향교 장의 명단

연도	장 의	비 고
1933	한명수(韓明洙), 유기덕(柳基德), 최희원(崔熙元), 이종우(李鍾宇), 홍태후(洪泰厚), 홍승은(洪承殷), 한상봉(韓相鳳), 홍순경(洪淳慶), 한봉교(韓鳳敎), 송인만(宋仁萬)	『향교 재산 처분관계철』 (조선총독부, 1933)
1937	이철주(李喆周), 조재승(趙載承), 김안수(金顔朱), 한성교(韓馨敎), 김영식(金榮植), 홍달삼(洪達三), 이승락(李承樂), 홍길유(洪吉裕), 홍종태(洪鍾台), 안덕승(安德承)	『향교 재산 처분관계철』 (조선총독부, 1937)
1938	김헌주(金憲周), 이창복(李昌福), 홍종후(洪宗厚), 박용기(朴容基), 정이섭(鄭理燮), 조재승(趙載承), 한성교(韓馨敎), 김종철(金鍾喆), 김안수(金顔朱), 이근화(李根華)	『매일신보』 (1938년 3월 12일)

『수원향교지』(수원향교, 2001)에는 1963년 이전에 장의를 역임한 296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만 임면 시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전반적인 자료 부족으로 수원향교에 관여했던 직원이나 장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대체로 일제시기 향교 직원과 장의는 일제의 지배정책에 순응하거나 동조한 친일부류로 일반화되고 있는데, 향후 수원향교의 직원과 장의를 역임한 인물의 친일 여부 및 행적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3·1운동 이후 일제의 민족분열정책은 본격화되었는데, 일제에 순응하는 유림 중심으로 친일 유림단체를 결성하도록 지원하였다. 1920~1930년대 조직된 친일 유림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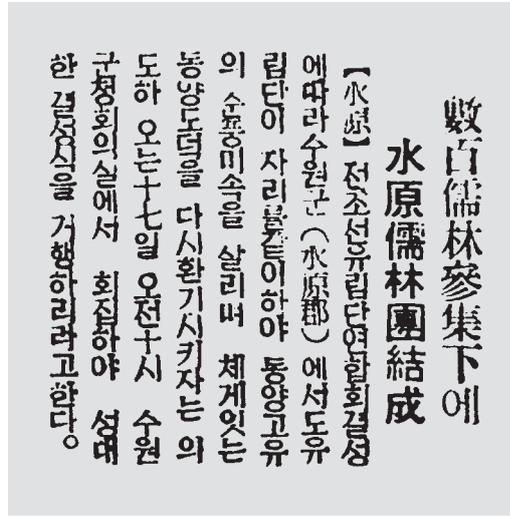
47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자료이긴 하지만 1925년 수원향교의 연수입이 2,224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1925년 3월 20일).

로는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공자교(孔子教)·조선유교회(朝鮮儒教會)·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 등이 있는데, 이 중 전국적 규모이면서 대표적인 친일단체로 조선유도연합회를 들 수 있다.

조선유도연합회의 출발은 1935년 11월 1일 평양문묘 낙성식을 거행한 후 개최된 전선유림대회(全鮮儒林大會)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郡)에 유림회(儒林會)를 두고, 도(道)에는 유림연합회(儒林聯合會)를 두며, 경성에

는 유림총연합회(儒林總聯合會)를 설치하는 등 유림 간 연락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조선 유림단체를 총괄하려는 움직임은 1939년 10월 16일 경성 부민관 강당에서 개최된 전선유림대회에서 구체화되었다.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관계자와 유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① 경학원을 중심으로 한 통일 있는 단체를 조직, 황도정신(皇道精神)에 기하여 유도의 진흥을 도모함, ②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에 따라 충효·도의의 신념을 함양함으로써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단결을 굳게 함, ③ 동아(東亞) 신질서 건설의 국시에 따라 동양문화의 진수를 천명함으로써 일본(日本)·지나(支那)·만주(滿洲)의 영구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조선유림대선언문(朝鮮儒林大宣言文)」을 채택하였다.<sup>48</sup>

전선유림대회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유도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조선유도연합회의 총재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추대되었고, 각 도(道) 연합회는 도지사가 회장이 되었으며, 부(府)·군(郡)·도(島) 유도회는 부윤·군수·도사(島司)가 각각 회장을 맡았다. 이렇듯 지역별로 전조선유림단연합회가 결성됨에 따라 수원에서도 ‘수원유림단(水原儒林團)’이 조직되었다. 즉 1939년 12월 17일 수원군청 회의실에 모인 수백 명의 유림은 “동양고유의 순풍미속을 살리며 체계 있는 동양도덕을 다시 환기시키자.”는 의도에서 수원유림단 결성식을 거행하였다.<sup>49</sup>



수원유림단 결성(『동아일보』, 1939년 12월 8일)

48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205쪽.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반도는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변하였고, 국방헌금(國防獻金)·황군위문금(皇軍慰問金)·공출(供出) 등의 이름으로 물질 수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지방 유림과 향교 역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에 따른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선현 제향에 필요한 제기(祭器)마저 무기 제작을 위해 헌납해야 하였고, 향교 직원(直員)은 유림들에게 각종 물자의 공출을 강요하거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등 일제 식민 통치에 철저히 복속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일간신문에는 국방헌금이나 위로금을 납부한 수원 지역 인사들의 명단도 게재되고 있는데,<sup>50</sup> 중일전쟁 이후 수원군 내 각 면의 국방헌금 헌납액 총액은 2만 1,969원 31전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1</sup>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유림의 친일화는 전국에 걸쳐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sup>52</sup> 수원도 예외일 수 없었다.

### 3. 해방 후 유교의 변화

#### 1) 대학 설립과 선현 봉안문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유림을 자처하는 부류들이 성균관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성균관과 유림조직을 정치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여겼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너 개 단체가 유혈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그해 11월 30일 전국유림대회가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렸다. 유림대회는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일 동안 개최되었는데, 한국독립당 정치위원장인 김성규(金成圭)가 임시의장이 되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과 향상, 성균관 대학 설치를 위한 재단 설립 등을 결의하였고, 임원으로는 고문에 김구(金九)·이승만(李承晩), 위원장에 김창숙(金昌淑), 부위원장에 김성규·이기완(李基完), 총무위원에 최중철(崔重哲)·이우세(李佑世)·서성달(徐成達)이 선출되었다. 이듬해 3월 13일에는 전국 유림대표자대회를 열어 유도회(儒道會) 조직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도

49 『동아일보』, 1939년 12월 8일.

50 『동아일보』, 1937년 8월 1일; 『동아일보』, 1937년 9월 2일; 『동아일보』, 1937년 9월 3일; 『동아일보』, 1937년 9월 24일.

51 『동아일보』, 1940년 1월 19일.

52 일제시기 유림들의 민족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영섭의 「유교의 항일민족운동」(『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이 참고된다.

회총본부가 김창숙을 중심으로 결속하였다.<sup>53</sup>

유도회총본부 위원장과 성균관장을 겸하게 된 김창숙은 대학 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기존의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의 재정으로는 대학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 김창숙은 1910년 당시 「향교재산관리규정」 공포로 관에 귀속되었던 향교 재산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김구와 같이 미군정청 문교부장 유억겸(兪億兼)을 만난 자리에서 각 도별로 향교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성균관에서 통할 감독하여 교육문화사업을 일으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1946년 6월 28일에는 성균관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학 설립을 결의한 지 6개월 만이었다. 초대 기성회장에는 유도회 총재와 고문으로 있던 김구가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때 향교 재산을 성균관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의 유도회·향교가 행동의 일치를 보인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반발과 진통이 있었다. 즉 울산에서는 향교 재산 환원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춘천에서는 유림들이 유도회 춘천지부를 결성한 뒤 향교 재산관리회를 조직하여 성균관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운영을 결의하였다. 개성에서는 성균관과 문교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재단법인 설립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출연함으로써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석구가 출연한 재산은 주로 충남 보령·아산 일대의 논 52만 9,254평과 밭 6,165평으로 1년 추수가 1,000석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농지였다.<sup>54</sup> 이에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와 학린사를 병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구성하게 되었고,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 설립인가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철정과(哲政科)와 경사과(經史科) 1~2학년생을 모집·선발하였고, 마침내 9월 25일 개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어 1948년 5월 17일에는 미군정 법령 제194호로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각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향교 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것과,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비용은 제7조에서 “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성균관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여 해당 재단에 납부해야 한다.”라

53 유도회총본부는 1945년 10월에 창립하였으나 유림의 분규로 유명무실하였으며, 1964년 전국유림대표자대회에서 유도회를 재건하지는 결의에 따라 유도회수습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때 전국의 각 향교 단위로 유도회지부(儒道會支部)가 설립되었다. 한편 현재 유도회 조직을 보면 총본부(서울 종로구 명륜동) 산하에 본부(특별시·광역시·도) - 지부(시·군·구·향교) - 지회(읍·면·동)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680·1023쪽).

54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600년사』, 1998, 315쪽.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향교재단의 부담금은 성균관대학의 유지·경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1950년대 초반의 자료에 따르면 향교재단의 부담금은 재단법인 성균관대학 기본수입의 20배에 달하였다.

성균관대학의 설립과 함께 해방 이후 유교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대성전과 동무·서무에 봉안하는 선현의 위패를 대폭 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창숙을 비롯한 유림들은 유학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국자감(國子監)과 향교에 대한 보존 관리가 허술하다는 데 논란 반면, 우리나라의 향교는 지나치게 허식적이며 사대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위패 봉안에 관한 문제였다. 종래 대성전에는 공자와 4성, 10철, 송조 6현의 위패를 모시고, 동무와 서무에는 공문 72현, 한당송원(漢唐宋元) 22현,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9년에 개최된 유도회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72현과 22현의 위패까지 봉안하는 것은 사대주의의 표현이라 하여 이들의 위패를 땅에 묻기로 결의하였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전까지 동무·서무에 봉안하던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도 대성전으로 올려 배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수원향교는 성균관의 결정에 따라 대성전에 공자와 4성, 정호·주희 등 송조 2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sup>55</sup> 매월 1일과 15일에 분향(焚香)을 하고 2월과 8월의 첫 번째 정일(丁日)에 석전제를 거행하고 있다.

## 2) 수원향교의 변화와 현황

일제시기 수원 지역은 오늘날 수원시 외에 화성시와 오산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원의 유림 관련 시설로는 수원향교(水原鄕校), 남양향교(南陽鄕校), 화성궐리사(華城關里祠), 안곡서원(安谷書院), 매곡서원(梅谷書院), 명고서원(明臯書院) 등이 있었다.<sup>56</sup> 그런데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고, 나머지 수원군 지역이 화성군으로 개칭되면서 수원의 유림 관련 기관은 수원향교만 남게 되었다.

수원향교는 일제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야만 하였다. 1925년 3월 현재 수원향교 소유 토지가 논 9만 6,300평, 밭 1만 500평, 대지 898평, 잡지(雜地) 171평 등 모두 10만 7,869평이었으나, 해방 이후 농지개혁으로 모두 분배되었다.

<sup>55</sup>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399·441쪽.

<sup>56</sup> 이 중 매곡서원(화성시 매송면 천천리)과 명고서원(화성시 매송면 원리)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정책으로 훼손되어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농지 분배로 받은 지가증권(地價證券)마저 콩기름공장에 투자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경영 부실로 탕진되고 말았다. 지금은 논 2,316㎡(700평), 대지 148㎡(45평), 임야 6,970㎡(2,112평)이 있을 뿐이며, 최근에는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도비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7</sup>

향교 건물의 수난도 이어졌다. 대성전이 해방 이후 중수되었으나 전쟁 중에 군부대가 주둔하는가 하면 폭격으로 향교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기도 하였다. 이후 1957년에 이르러 수원 의 성냥공장을 비롯하여 대한방적주식회사·대한전선·대한제당 등을 경영하던 기업가 설경동(薛卿東 : 1903~1976)이 거금을 내어 향교 전체를 중수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하였다. 또한 1990년 6월에는 서재가, 1996년 9월에는 동재가 각각 뜻하지 않은 화재로 소실된 후 도비·시비·자비 등으로 복원되기도 하였다.<sup>58</sup> 해방 이후 수원향교의 주요 보수 및 수리 현황은 <표 4>와 같다.

향교의 현대식 부속건물로는 유림회관(儒林會館)을 들 수 있다. 향교 동쪽 편에 자리 잡은 유림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사무실과 충효교육장으로 활



한국전쟁 후 수원향교(수원시, 『수원사전대관』, 1956)



수원향교 중수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인송 설경동 향교중수기념비」와 「금당 이천우 전교 공적비」

57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447~448쪽 및 429쪽.

58 이와 관련하여 수원향교 외삼문 밖 왼쪽에는 「인송설경동향교중수기념비(仁松薛卿東鄉校重修記念碑)」(1988년)와 「금당이천우전교공적비(錦堂李千雨典校功績碑)」(1991년)가 있다.



수원향교 명륜당과 동재 ·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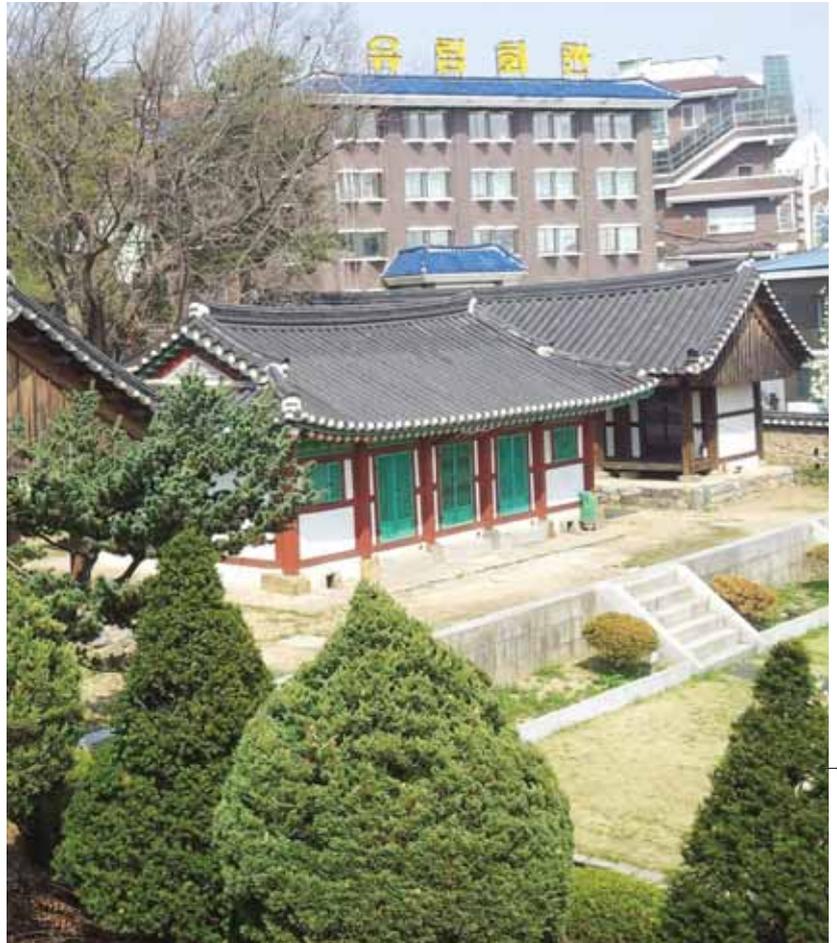
〈표 4〉 해방 이후 수원향교 일원 보수 현황

시 기	내 용
1949	대성전 중수
1958	대성전 · 명륜당 보수
1975	향교 일원 보수
1976	담장 축조
1977	대성전 · 외삼문 보수
1979	사무실 및 관리인 사택 신축
1980	담장 보수
1981	주변 철책공사 시공
1983	유림회관 증축(2층)
1985	대성전 · 동무 · 서무 · 내삼문 · 외삼문 · 담장 보수, 일곽 단청
1986	명륜당 보수, 대성전 석축 보수
1990	서재,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 동재 보수
1992	대성전 보수
1993	유림회관 증축(4층)
1993	명륜당 · 동무 · 서무 · 내삼문 · 외삼문 지붕 보수
1997	동재,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 내삼문 앞 계단 보수, 무인경비시스템 장치 시설, 보안등 설치, 화장실 개축
1998	진입로 확장, 묘정비 건립

용되고 있다. 건물 일부는 전통 혼인예식장·일반혼인예식장·식당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서민층을 위해 회갑연을 베풀 수 있는 연회장도 갖추고 있다. 유림회관은 유도정신(儒道精神)에 입각하여 수원이 효원(孝園)의 도시로서 도의(道義) 천명과 윤리 부식(扶植)을 실천하고 유도 진흥과 경로효친사상을 선양하며 사회질서를 순화하고자 건립하였다.

오늘날 수원향교에서는 유교 대중화와 향교의 교육기능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0년 4월 명륜대학(明倫大學)을 설립하였는데, 충효교육을 통해 미풍양속 및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함으로써 유교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자본

금으로는 향교 뒤편의 도로부지 보상금 1억 500만 원, 전교·지부장·장의와 유지(有志) 84명의 성금 1,660만 원 등 1억 2,000여만 원을 조성하였다. 본래 대학운영계획을 보면 1년을 수업기간으로 하여 대학부(현재 유림반으로 개칭) 70명, 한문반 70명, 서예반 40명, 한글반 40명 등 4개 학과에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59</sup> 1990년에 출범한 명륜대학은 2012년에 23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는데, 유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도량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수원향교와 유림회관

59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444~446쪽. 학과 정원은 때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며, 2011년부터 다도반(茶道班)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명륜대학 입학식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내에 소재한 서원·향교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발전시킴으로써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닫힌 공간’으로 인식되던 서원·향교를 도민들이 자유롭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서원·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원향교와 수원유도회 등 수원 지역 유림단체가 출선수범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원향교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수원 시민을 위한 한시 교실’을 운영하여 고시(古詩) 낭독 및 감상, 시작(詩作) 강의·연습 등을 교육하였다. 그리하여 매회 3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성현의 학문하는 전통을 통해 인격 수양과 취미생활의 기회를 경험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8일에는 제48회 화성문화제(華城文化祭)<sup>60</sup>를 기념하여 전국 한시 백일장

<sup>60</sup> 1964년 처음 시행된 수원시민의 날 행사는 화홍문화제(華虹文化祭)로 바뀌었다가 1997년부터 화성문화제로 변경되었다. 수원향교에서는 수원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한시 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1984년까지 출시된 한시를 모아 한시집(漢詩集)을 발간한 바 있다(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560쪽).

을 개최하였다. 화성행궁 낙남헌(洛南軒)에서 열린 백일장에는 200여 명이 응시생과 400여 명의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행사 결과 40명이 상을 받았다. 수원유도회에서는 ‘참다운 어른 되는 의식행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성인식, 즉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를 행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성년을 맞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워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전통과 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원재연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1. 천주교의 수원 전래와 교우촌의 형성
2. 수원유수부의 천주교 박해와 순교자의 신앙고백
3. 개항 이후 신앙자유의 획득과 교세의 확장



### 제3장

## 수원의 천주교 수용과 확산

천주교 수원교구(水原教區)는 1963년 10월 7일 서울대교구로부터 분리, 설정되어 2013년에 50주년을 맞았다. 2011년 12월 현재, 수원교구는 주로 북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을 그 관할로 하는데,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수원시를 중심으로 과천, 의왕, 군포, 안양, 광주, 성남,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광명 등 15개 시(市) 전 지역, 시흥시와 안산시의 일부 지역,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시와 양평군까지 포함하여 모두 19개 시(군)의 5,371km<sup>2</sup>에 198개의 본당, 78만 7,000여 명의 신자(지역 복음화율 10.4%)가 속해 있는 한국 천주교 제2의 교세를 지닌 장년(壯年)의 교구이다.<sup>1</sup> 이러한 외형적 교세 외에도 수원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이자 순교자와 성지(聖地)의 교구라고 불리면서, 약 230년 한국 천주교회사와 동일한 역사를 지내 오는 동안 100년간의 온갖 박해를 극복해 내며 풍요로운 순교신심과 열정적 선교역량을 갖춘 하느님 백성의 모임으로 성장해 왔다. 이 글은 수원교구의 230년 역사를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으로 하되, 주로 현재의 수원시와 그 인근 지역에 해당되는 수원권역 천주교회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sup>1</sup>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2011.12.31. 현재)』, 2012.

## 1. 천주교의 수원 전래와 교우촌의 형성

### 1) 복음의 한반도 전래와 한국인의 그리스도교 수용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때가 언제이며,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가 된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회사학계에서는 통일된 연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sup>2</sup>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서 문명 교류사(交流史)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sup>3</sup> 중국의 한(漢) 왕조는 1~2세기부터 육상과 해상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통하여 로마제국과 교류하였다고 한다.<sup>4</sup> 4세기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 공인을 계기로,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팽창과 함께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널리 전파되었다. 19세기 중반의 조선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 1788~1856)은 그의 저술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해, 이미 한(漢) 나라 때부터 ‘천주(天主)’라는 명칭이 불리어졌으며, 삼국시대 손오(孫吳)의 땅에서는 십자철(十字鐵)이 발견되었고, 당(唐)에는 현사(祆祠), 파사사(波斯寺), 대진사(大秦寺) 등으로 불리던 그리스도교의 일파인 경교(景敎)가 성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5</sup> 한반도 복음 전래의 시기는 이 같은 동서 문명 교류사의 시각에서 볼 때, 늦어도 통일신라와 발해가 각각 경쟁적으로 당(唐)에 유학생과 상인들을 보내 당에서 유행하던 국제적 문물을 수용한 7~8세기 남북국시대(南北國時代)로 추정된다.<sup>6</sup>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신라와 발해에 대한 역사서들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복음의 한반도 전래는 남북국시대를 통합한 고려왕조에 들어와서 다시 그 가능성이 추찰되고 있으니, 고려가 원(元) 제국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13세기 이후 베이징(北京)과 취안저우(泉州)에 설치된 가톨릭교구의 존재와 원 조정에서 고려 사신과 로마교황 사신의 만남 등을 계기로 복음(천주교)이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어떤 선교지역으로

2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상반된 연구사적 성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1, 2009를 참고할 수 있다.

3 馮承鈞, 『中國南洋交通史』, 臺灣商務印書館, 1937.

4 『후한서(後漢書)』 권118, 166년(환제 연희 9) 대진(로마)왕 안토니오(安敦)가 사신을 보내 일남(日南 : 베트남 북부 해안)의 격외에 이르러 상아(象牙)와 물소뿔, 대모(玳瑁 : 서옥) 등을 바치면서 비로소 한 번 통하였다.

5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53, 「척사교변증설(斥邪教辨證說)」; 원재연,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의 대외관과 천주교 조선전래사 인식」, 『교회사연구』, 1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138~142쪽.

6 이 같은 추정의 근거로 십자가를 목에 건 발해의 불상들과 경주박물관에서 발견된 돌십자가의 존재 등 고고학적 유물을 들 수 있다.

7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정략과 수교이전의 한리교섭(1861년 이전)」, 『한로관계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박태근, 「중국에서 만난 조선문명과 제삼문명(러시아문명)」, 『국제한국학연구』,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복음이 전파되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선교지역 주민들이 복음을 수용하였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즉 복음을 전해 듣는 것과 그 전해 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복음의 전래가 비록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7세기 말 남북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오랜 기간 복음을 그저 단순한 해외토픽이나 외래문화의 일종으로 이해하였을 뿐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서에도 그리스도교의 전래나 수용과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반도 복음의 전래는 명말청초에 예수회의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유럽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베이징에 선교의 근거지인 천주당(天主堂: 北堂)을 세우고 『천주실의(天主實義)』, 『칠극(七克)』 등 한문(漢文)으로 된 각종 교리서적(敎理書籍)과 자연과학서적을 편역(編譯), 저술(著述)하여 간행 보급하던 시점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점의 복음 전래는 이전과는 달리,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한문서적을 통하여 체계적 전래가 가능해졌다. 평생 한문을 습득하여 성리학적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도모하던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들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나마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복음의 부분적 수용이 시작될 수 있었다.<sup>8</sup> 1614년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과 동시대의 저작인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 등에 실린 천주교 관련 기사는 천주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한반도 복음 전래의 직접적인 증거이자<sup>9</sup> 조선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제 막 부분적으로 긍정(수용)하면서 동시에 부정(배척)하기도 하는 등 한반도 복음 수용(受容)의 단초가 열리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 2) 천진암 주어사 강학과 수표교 세례식 \_ 한국 천주교회의 탄생

복음의 최초 전래 시점으로부터 약 1,100년 후인 18세기 후반, 마침내 한반도의 우리 조상들은 복음의 학문적 수용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 최초의 가톨릭 신앙공동체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770년대 즈음부터 성호(星湖) 이익

8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1986; 최소자, 『동서문화교류사연구』, 삼영사, 1987 참고.

9 원제연,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44~54쪽.

(李灝 : 1681~1763)의 제자인 녹암(鹿菴) 권철신(權哲身 : 1736~1801)과 그의 문하생들이 정약전, 김원성, 권상익, 이충익 등 녹암계 남인 사대부들이 녹암의 거주지 양근 감호에서 가까운 주어사(走魚寺)와 주어사 너머에 있는 천진암(天真菴) 등지에서 오경(五經) 등 유교의 옛 경전들을 연구하면서 천주교 서적을 포함한 서양의 과학기술 및 인문지리, 종교사상 등을 폭넓게 토론하였다. 그 결과 뒤늦게 강학에 참여한 광암 이벽(李穡 : 1754~1801)이 공동체 조직과 선교활동을 주도하고, 베이징 천주당에서 선교사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온 이승훈(李承薰 : 1756~1801)이 한국 최초의 집단세례식을 1784년 초겨울 서울 수표교 이벽의 집에서 거행하였다.<sup>10</sup> 이 세례식을 통하여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이벽(세자요한),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약용(요한) 등이 한국 천주교회의 제1세대 신자가 되어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sup>11</sup>

### 3) 수원 고을로 복음이 전래된 길 \_ 육로(陸路)와 해로(海路)

1784년 서울 수표교에서 탄생한 한국 천주교회는 불과 수년 내에 교세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한강의 수로를 타고 서울 인근의 광주, 양근, 여주, 이천 등지로 전파되었으며,<sup>12</sup> 곧 이어 권일신의 제자 이존창(李存昌 : 1752~1801)과 유항검(柳恒儉 : 1756~1801) 등에 의해 각각 충청도 내포와 전라도에도 전래되어 신앙공동체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수원시와 화성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시점에 대해서 기존의 한 연구는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동시대 신자들의 몇몇 증언을 토대로 대략 1820년대 전후로 추정하였다.<sup>13</sup> 그러나 늦어도 1801년 신유박해 무렵에는 천주교 서적을 열람할 것을 권장할 사람이 수원 고을에 살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sup>14</sup> 수원 고을에 천주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분명 1801년 박해 이전, 즉 18세기 후반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10 이와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자로 일컬어지는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중 등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한국 천주교회 창설지역의 천주신앙-창설지역의 순교와 그 평판』, 2010 참고.

1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1, 2009, 244~247쪽에 의하면 1784년 초겨울 이벽의 수표교 셋집에서 이승훈에게 한국 최초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약 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2 초기 한국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경기도의 한강 주변 고을인 이른바 여리양광(驪利楊廣 : 여주, 이천, 양근, 광주) 지역에 전파되어 가던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는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44~50쪽; 조광, 「천주교 신앙 전래 초기의 광주 구산」, 『구산천주교회의 역사』, 천주교 구산성당, 2004, 29~44쪽 참고.

13 정종득, 「천주교」, 『화성시사』 III,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14 『사학정의(邪學懲義)』 권2, 「형방질(刑房秩)」, 이지번(李枝蕃)(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977, 194쪽). “…… 저의 처부(妻父 : 장인) 이지성(李之盛)은 천주교 신자인데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축년(1793년, 정조 17)에 천주교 서적 한 권을 제게 건네 주면서 천주교에 입교할 것을 권했습니다矣身妻父李之盛 以邪學之徒 居生於水原 癸丑年 給邪書一卷於矣身 勸爲邪學”

또한 수원 고을(수원유수부)의 '감탕개(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라는 곳에서 1817년(순조 17) 수원 지역 교회사상 최초로 가문박해(家門迫害)에 의한 첫 순교자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면 당시 수원 고을 감탕개에는 순교를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가 살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가정(家庭)을 단위로 한 가톨릭 신앙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소의 신앙생활(수계생활)은 물론이고 일정한 전교활동(傳敎活動)까지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난다.<sup>16</sup>

이처럼 조선 후기 수원 고을에서 이지성이나 이용빈과 같이 자신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전교하는 신자들이 이미 1801년 전후부터 1810년대까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18세기 후반에 서울, 광주, 양근, 이천, 여주 등 초기 교회의 근거지로부터 수원 고을에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1801년 신유박해를 거치면서는 초기 교회의 신자들 중 다수가 수원 고을로 피신해 들어오면서, 이들 피난 신자들로 구성된 1~2개의 가족 단위 소규모 신앙공동체가 여러 곳에 형성되었을 것임을 말해 준다. 수원 고을에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살펴보면 1801년 신유박해 때 서울에서 도주하여 수원과 남양 고을 등지로 피신했던 제관득(諸寬得)의 경우에서 보듯이,<sup>17</sup> 육로를 통해 복음이 남하(南下)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외는 다른 경우도 있다. 이미 교회 창설 직후인 1780년대 중반부터 복음이 전해져 신앙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던 충청도 내포(內浦) 지방으로부터 내륙과 해상의 다양한 수로나 육로를 타고 복음이 북상(北上)하여 수원 고을 남쪽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용빈의 순교 예화를 통해 드러난 감탕개의 이용빈 부부와 그 처가 식구들로 구성된 소규모 신앙공동체는, 충청도 내포로부터 복음이 북상하여

15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46쪽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의 관관, 사관 기록을 망라하여 신자들의 출신지역과 성별, 신분 등을 통계 자료화한 조광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신유박해 당시 경기 지방에서 신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양근이었고, 그다음으로 여주와 광주에도 적지않은 신도들이 거주했으며, 이 밖에도 포천, 고양, 수원, 양성, 연천 등지에도 소수의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6 샤를르 달레 원저, 최석우·안용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중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99-100쪽. 이에 의하면, 수원 고을 감탕개에 살고 있던 이용빈은 '조한지'라는 교우의 딸에게 장가들어 천주교에 입교한 후, 부부가 함께 천주교 신자의 본분을 지키는 수계생활(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아내가 죽고 난 후 사촌 등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친척들의 반발을 야기하여 친척들이 그를 배교시키고자 노력하다가 소용없자, 마침내 이용빈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국가나 지방통치기구 차원의 공적인 박해와 달리 사적인 박해에 속하는 것으로, 이용빈은 수원 고을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에 해당된다.

17 『사학정의』 권2, 「작배죄인질(作配罪人秩)」, 제관득(諸寬得)(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977, 311~313쪽). 이에 의하면, 제관득은 신유박해 당시까지 서울 아현에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보좌하고 전교활동을 지도하던 황사영 알렉시오의 집에 왕래하던 신자였는데, 신유년 음력 1월, 박해의 소문을 듣고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사촌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남양의 구포(鳩浦) 조카 집으로 갔다. 그 후 신병치료차 온양온천으로 갔으며 수원 고을의 하가(河哥)에게 들렀다가 당시 수원 고을은 오가작통제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남양의 구포로 돌아왔으나 이내 관가에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천주교 수원교구 서신성당, 『서신본당 15년사』, 2011, 47~51쪽과 천주교 수원교구 남양본당, 『남양본당 50년사』, 2012, 60~66쪽 참고.

수원 고을에 정착을 시도한 예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18</sup> 19세기 초반 경기 남부에 거주하던 신자 중 타도에서 이주해 온 신자들의 분포를 검토한 논문에 의하면, 경기 남부로 이주한 신자 중 충청도에서 이주해 온 신자가 전체의 70%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충청도 내포 등지에서 발원하여 경기 남부 지방으로 이동한 북음의 북상설(北上說)을 잘 뒷받침해 준다.<sup>19</sup>

#### 4) 박해기 수원 고을과 인근의 교우촌과 공소

이상에서 수원유수부와 그 인근 고을에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게 된 것은 늦어도 18세기 후반이었고, 이윽고 19세기 초반(1800~1810년대)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신앙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고립된 신자들과 달리, 적어도 여러 가호(家戶)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마을 단위의 이른바 본격적인 ‘교우촌(敎友村)’을 형성한 것은 1820년대 이후로 알려진다.<sup>20</sup> 수원 고을과 그 인근 지역 교우촌의 존재는 1830년대 이후 조선에 들어와서 잡행 활동(순방사목)을 하던 선교사들과 관련된 신자들의 증언이나, 관가에 체포되어 심문당할 때 진술한 신자들의 발언을 통하여 종종 드러난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직접 남긴 사목활동 보고서나 서한(편지) 등을 통해서는 교우촌, 공소와 관련된 지명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만일의 경우 그들이 쓴 기록이 관가에 넘겨졌을 때 신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19세기 초중반 수원유수부 관내에 존재했던 교우촌, 공소에 관한 기록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sup>21</sup>

18 이러한 추정과 관련하여 충청도 내포 지방에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마을 단위의 대규모 교우촌이 설립되었던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충청도 북부 내포에 속한 결매리, 밀두리 마을 등은 조선 후기 수원유수부 관할에 속해 있었기에, 조세 수납 등 행정업무 때문에 120리 이상이나 떨어진 화성(華城)의 치소(治所)와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밀양 박씨 가문은 18세기 후반부터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1866년 병인박해를 전후하여 수원 포졸들에게 집단적으로 체포되어 수원유수부 치소(화성)에서 수십 명이 순교하였다(하성래, 『무명 순교자의 뿌리를 찾아서-결매리 밀양 박씨 순교자 연구』, 가톨릭출판사, 1995 참고).

19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70쪽. 한편 방상근 박사는 19세기 중반 경기 남부 지방의 신자 중 약 84%의 신자가 토착민으로 추정되므로, 토착민에 의해서 경기 남부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71쪽).

20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71쪽. 이에 의하면, 경기도 남부 지방의 교우촌은 기록상 1820~1830년대에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이형이 양지로 이주하고, 김대건, 최양업 신부의 가족이 용인과 수리산으로 이주한 것이 1820~1830년대이며, 이여진이 양지 옥이(은이)에서 사망한 것이 1830년이며, 앵베르 주교가 1839년 수원 갖등이 공소에서 기해박해 소식을 접했을 때 과천의 군포에 ‘주씨’ 성을 가진 과부 신자가 살았다는 등의 예를 제시한다.

21 천주교 수원교구 고등동성당, 『고등동본당 50년사』, 2010, 55~59쪽; 차기진, 「박해기 수원 지역에서 활동한 성직자와 그 활동 무대」, 『교회사학』 제2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05, 136~158쪽 참고.

〈표 1〉 박해시기 수원유수부 관내의 교우촌, 공소 관련기록 일람표<sup>22</sup>

현재 지명	공동체명	순방 선교사	거주 및 활동 신자	전거자료				
동탄면	돌모루 (석우리, 동탄1동)	다블뤼, 베르뇌	김치공(1871년 서울 순교)의 집	좌포(1871년 3월 28일)				
			다블뤼에게 조명오, 입학수 등 영세, 베르뇌에게 임치선 영세	치명 22권, 130~131쪽				
			임치선 베드로(1871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30쪽				
		산척동	오메트르	김성첨 요셉(오메트르, 보레)	우포(1872년 4월 26일)			
			김덕지 안드레아(임원식 집에서 오메트르 만남)	우포(1872년 4월 26일)				
봉담읍	갯등이(왕림리)	앵베르	판공성사	달레(중), 388쪽				
			최 야고보(1867년 해미 순교)	치명 3권, 66쪽				
			한 안드레아(1871년 서울 순교)	치명 21권, 32쪽				
			최 빈첸시오	치명 21권, 81쪽				
			성(聖) 민국가(훈장)	기병 3권, 회차 71, 75				
화성시	느리지(오당리)	모방	성 장주기(1826년 입교) 회장	달레(하), 432쪽				
			김정인(영세, 모방 신부)	좌포(1870년 2월 27일)				
	양감면	샘골, 생이(신왕리)	모방, 앵베르, 오메트르	오 바실리오(1839년)	기병 3권, 회차 69			
				권양수 · 권동(父子)	치명 22권, 129쪽			
		양간, 용수말 (용소리)	모방, 앵베르, 다블뤼, 베르뇌	오 파트리치오(성사, 모방, 앵베르)	기병 3권, 회차 70			
				흥기현 베드로(영세, 베르뇌, 서울 순교)	좌포(1871년 3월 28일) 치명 6권, 61쪽 치명 22권, 133쪽			
				임 베드로(은이 교우들과 순교)	치명 21권, 88쪽			
				조명오 베드로(1872년 서울 순교) 및 정화경	치명 6권, 61쪽 기병 3권, 회차 62, 69			
				손경서(1866년 서울 순교)	달레(중), 423쪽			
				김 도로테아(고해, 앵베르)	기병 3권, 회차 62			
				지 다테오(1869년 순교)	기병 3권, 회차 62			
				홍원여 가롤로(베드로, 1871년 서울 순교)	치명 21권, 48쪽 치명 22권, 133쪽			
				성 한이형(양간에 왕래)	기병 3권, 회차 62			
				성 정하상(양간공소로 주교 수행)	기병 3권, 회차 69			
				향남읍	환도골(백토리)	모방	김 도로테아(1838년 영세)	기병 3권, 회차 62
				평택시	고덕면	동청이(동청리)	지 다테오(1869년 순교, 아들 지 시몬)	치명 21권, 48쪽
장 프란치스코(1868년 순교)	치명 23권, 91쪽							
청북면	건이, 건의(현곡리)		권동 요한(훈장)		치명 22권, 129쪽			
			이원일(1871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29쪽			
			임치선 베드로(1871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30쪽			
			임 서방(1870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30쪽			
현덕면	인광(인광리)		지 다테오(1869년 순교)		치명 21권, 48쪽			
	화양궁리(화양동)		이경민 회장(1868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37쪽			
포승면	마장(흥원, 흥원리)		이경민 회장(1868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37쪽				

22 ① 약칭된 전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병은 『기해병오순교자 시복재판록』, 절두산순교자박물관 소장; 치명은 『병인치명사적』; 달레는 달레 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좌포는 『좌포도청등록』; 우포는 『우포도청등록』이다. ② 순교지역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분은 수원유수부(화성)에서 순교한 것이다.

현재 지명	공동체명	순방 선교사	거주 및 활동 신자	전거자료	
오산시	초평, 최평 (초평동)		이진학(1866년 서울 순교)	치명 22권, 132쪽	
			황 요한(1866년 순교)	치명 24권, 102쪽	
			황 빈첸시오(1867년 서울 순교)	치명 24권, 103쪽	
야 산 시	인주면	결매리	폐룡	박덕여 집(김장복)	우포(1867년 1월 29일)
				김 바오로(순교)	치명 23권, 31쪽
				김장복(1867년 서울 순교)	치명 24권, 16쪽
				김씨(1867년 순교)	치명 24권, 16쪽
	새원여(밀두리)		김지득(1867년 순교)	치명 24권, 11쪽	

〈표 1〉을 통하여, 조선 후기 수원유수부에 속한 지역으로 현재의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에 속한 지역에는 박해시기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원시 지역에는 교우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수원시 지역이 수원유수부의 치소였던 화성(華城)이 위치한 지역으로, 천주교 박해의 본거지였던 곳이므로 교우들이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원유수가 거쳐하던 화성은 수원 고을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들로부터 체포되어 온 천주교 신자들까지 심문하고 처벌하던 박해의 중심지였다. 〈표 1〉을 통해서 보면, 박해시대 수원 고을 내에는 대략 16곳 내외의 교우촌이 있었고, 그중 8곳은 선교사가 순방하여 성사를 집행했던 공소(公所)였음을 알 수 있다. 1836년 초 유방제 신부가 모방 신부에게 보고한 바<sup>23</sup>에 의하면, 당시 수원 고을에는 천주교 신자가 대략 130~140명가량이 있었다고 한다.<sup>24</sup> 그런데 1836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할 당시 4,000명에 불과하던 신자가 1839년 기해박해 직전에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증가되었고, 1866년 병인박해 직전에는 약 2만 3,000명에 이르렀으므로, 박해시기 수원 고을의 신자수도 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고 추정해 보면 최대 700~800명 정도에 이르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3 「모방 신부가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36년 4월 4일자 서한」, A-MEP(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 vol.1260, f.83; 조현범, 「모방 신부의 구산 전교」, 『구산 천주교회의 역사』, 천주교 구산성당, 2004.

24 조현범, 「모방 신부의 구산 전교」, 『구산 천주교회의 역사』, 천주교 구산성당, 2004, 57쪽. '1836년 무렵의 교우촌 현황'에 의하면, 당시 전국적으로 약 29곳의 교우촌, 공소 또는 지역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만 대략 16곳 정도의 관련 지명이 나온다. 그중에 'souan(수원)'에는 모두 130~140명의 신자가 있으며, 구 교우, 예비신자, 비신자(외교인) 등이 혼거하고 있었다.

## 2. 수원유수부의 천주교 박해와 순교자의 신앙고백

### 1) 수원 고을의 성리학적 전통과 ‘오가작통제’

조선 후기 수원은 가부장적(家父長的), 수직적 위계질서(位階秩序)를 중시하는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했던 고장이다.<sup>25</sup> 정조는 이곳 수원에 화성을 쌓아, 종3품 아문인 도호부(都護府)에 불과했던 수원을 1793년 정2품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키고, 1800년 서거할 때까지 매년 그 생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인 현릉원(顯隆園)에 참배하러 화성에 거동함으로써, 국왕의 효심(孝心)이 이곳 수원 고을 백성들의 충효정신을 더욱 고양(高揚),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수원 고을에 당시 위정자(爲政者)들에 의해 ‘아비도 임금도 몰라보는(無父無君) 사교(邪教 : 사악한 종교)로 낙인찍힌 천주교가 전파되어 정착되기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1801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천주교 단속 시스템인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는 지역마다 실행 과정에서 강온의 차이가 있었는데, 수원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실시되어 앞서 언급한 제관득의 경우에서 보듯이 서울 쪽에서 도피한 천주교 신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1817년 감탕개 이용빈의 순교 사례에서 보듯이 천주교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반응은 가문이 앞장서서 그 가문에 속한 천주교 신자들을 단속하고 회유하다가 마침내 살해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수원 고을에서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고 확산되기는 다른 고을에 비해 더욱 어려웠을 것이며, 만약 천주교 신자들이 관가나 향촌 사회에 적발되면 엄중하게 심문을 당하고 철저히 배교를 강요당했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반천주교적(反天主教的) 사상통제와 엄중한 처벌의 위협 속에서도 수원 고을에서는 이미 1820년대에 이르면 곳곳에 소규모의 신앙공동체들이 생겨나서 병인박해기에는 대략 16곳 정도의 교우촌에 총 700~800명의 신자들이 관가(官家)와 향촌사회 척사유림(斥邪儒林)들의 눈을 피해서 천주교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결과 박해기 수원 고을에서는 인근의 다른 어느 고을보다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치소(화성)에 끌려와서 모진 심문을 당했으며, 배교를 거부할 때는 가차없이 처형되거나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sup>25</sup> 원재연, 「수원유수부내(水原留守府內) 천주교 박해(迫害)의 전개과정」, 『교회사학』 제2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05, 48-49쪽. 이하에서 수원 고을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서술은 원재연의 이 논문을 요약, 보완하고 재정리한 것이다.

## 2) 수원유수부의 천주교 감시와 통제, 심문과 처벌

수원유수부에서 최초로 천주교 박해가 가해진 것은 1817년 감탕개의 이용빈 친척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실제 천주교 신자를 감시하고 그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은 정조가 수원성(화성)을 쌓고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외영(壯勇外營)을 화성의 행궁 내(남북군영 자리)에 주둔시키면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잠행하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기 위한 특별임무를 장용외영에 맡긴<sup>26</sup> 1790년대 후반부터였다. 당시 정조의 천주교 통제 정책은 비록 비밀리에 행해졌지만, 천주교 조직의 핵심인 사제(신부)를 제거하여 조직을 와해시키고자 한 의도는 “사람(천주교 신자)은 인간적으로 대접하되, 그 책(천주교 서적)은 불살라 없앤대(人其人 火其書)”는 방침을 내걸고 정약용, 이가환, 권철신 등 남인 관료나 사대부 출신의 천주교 신자들을 회유하여 천주교를 포기하도록 한 방침과도 그대로 부합되는 치밀하고도 신중한 반천주교정책이었다.<sup>27</sup>

정조 사후에도 수원에서 천주교에 대한 반감은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1811년 3월, 이미 1801년의 신유박해가 종식된 지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수원유수 박윤수(朴崙壽 : 재임 1810년 11월~1812년 2월)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반천주교 장계를 올려서, “천주교 신자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여 조정에서 이를 계기로 전국에 천주교 신자 단속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sup>28</sup> 이처럼 다른 고을에 앞장서서 천주교 단속을 주장하던 수원 고을의 반천주교적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오가작통제로 1801년 서울 신자 제관득이 수원 경내로 잠입하였다가 바로 체포되었고, 1817년 고을 내(감탕개)에서 열성적인 신자인 이용빈이 친척들에 의해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견되기 시작한 1830년대 이후 1839년 기해박해 때나 1846년 병오박해 때, 심지어 1866년 병인박해 때가 되어도 수원 고을에서 조정에 보고하는 유수의 장계에는, “관관이나 중군 등이 경내의 천주교 신자들을 잘 감시하고 있다.”는 식의 보고만을 되풀이할 뿐, 천주교 신자의 처형(사형)과 관련된 보고는 거의 없었다.<sup>29</sup> 이러한 보고 행태와는 달리, 실제로 수원 고을에서 병인대박해(1866~1873년) 때에 약 77명의 신자가 수원

26 이만재, 『벽위편』 권4, 무기양년호서치사(戊己兩年湖西治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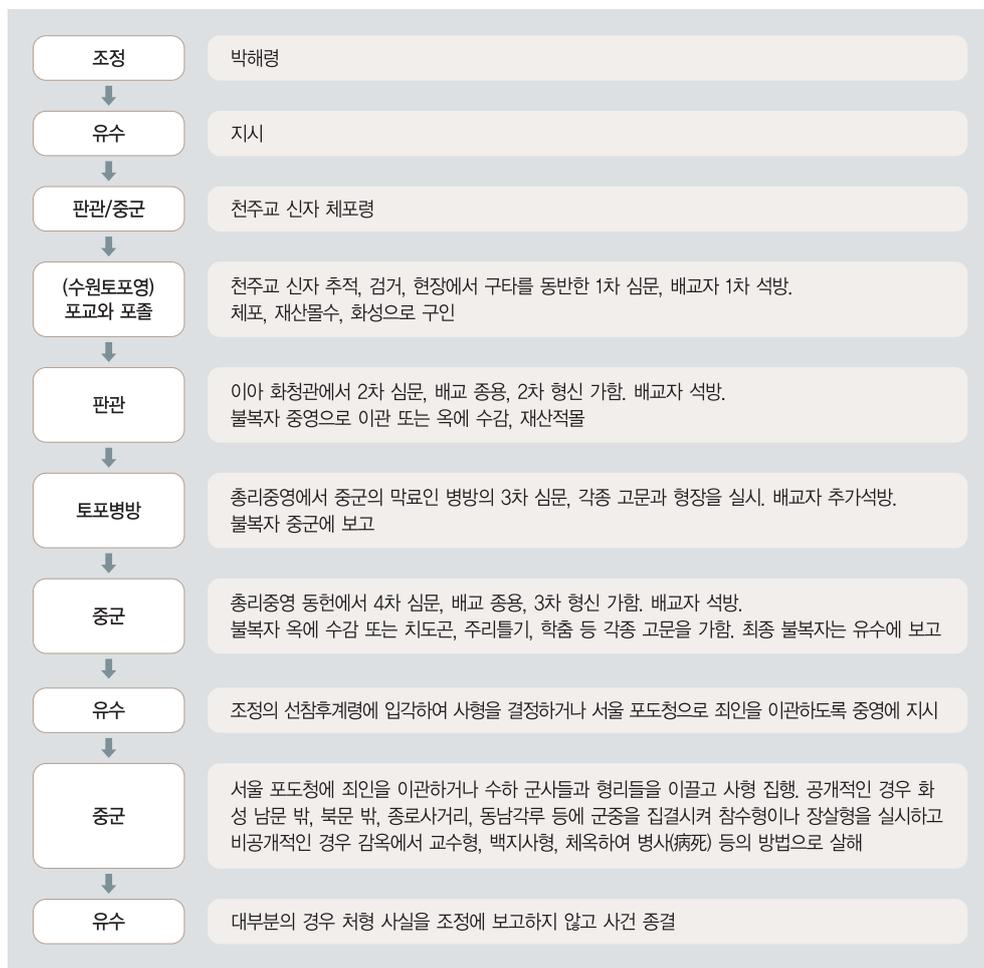
27 원재연, 「정조대 서학과 천주교 보급」,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8 『사학정의』 권1, 「각도죄인작배질(各道罪人作配秩)」(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977, 192쪽). “…… 辛未三月初四日 以水原留守朴崙壽邪學無乎事狀啓 ……”

29 『수원부유영장계등록(水原府留營狀啓騰錄)』 제2책, 무진 6월 21일(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417쪽). 1868년 4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미수사건(덕산굴총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와 관련된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충청 수영에서 효수경중(梟首警衆)한 것을 보고한 것이 거의 유일한 예에 속한다(원재연, 「수원유수부내(水原留守府內) 천주교 박해(迫害)의 전개과정」, 『교회사학』 제2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05).

(화성)에서 순교하였다는 교회 측 기록을 보면, 당시 수원 고을 관장들이 병인박해기에 거듭 하달된 대원군의 선참후계령(先斬後啓令 : 먼저 목을 베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지시)을 빌미로 실제로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후에 거의 대부분 조정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행정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수원 고을에서 조정의 지시(追害令)에 따라 천주교 신자들을 단속, 추포(追捕)하고 심문, 처벌하던 절차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sup>31</sup>



수원 지역 천주교 신자의 단속·추포·심문·처벌 절차

30 원재연, 『조선 후기 천주교도에 적용된 적도율(賊盜律)과 선참후계령(先斬後啓令)의 검토』, 『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 한울출판사, 2003, 201~226쪽 참고.

31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절두산 박물관에 보관 중인 『병인치명사적』 제13권, 원 프란치스코의 순교 행적을 참고할 만하다.

이상의 행형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의 천주교 박해령을 집행한 수원 고을 최고의 책임자는 물론 유수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고 처벌을 내리던 실무자는 주로 현장에 출동하던 포교와 포졸 및 이들을 조종하던 관관과 중군임을 알 수 있다. 관관은 비록 종5품직에 불과하지만 고을 행정에 관련된 수원유수의 전권(全權)을 대리하던 실무자였다는 점에서 그가 집행하던 관청을 ‘이아(貳衙 : 유수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관아)’로 불렀고, 화성으로 끌려온 천주교 신자들을 석방하거나 계속 심문, 처벌하는 1차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관내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난다.<sup>32</sup>

한편 혹독한 심문과 형벌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은 모두가 중군의 치소인 총리중영 동헌에서 치도곤을 비롯하여 주리틀기, 압술, 학춤 등 비법적인 심문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다가 다시 불러 나와서 심문받기를 되풀이했으며, 결국에는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먼저 중군의 막료인 토포병방(討捕兵房)의 심문을 받은 다음 종3품 무관직인 총리영(總理營) 중군(中軍)의 최종 고복(考覆 : 천주교 배교 거부 확인)을 거쳐야 하였다. 대원군집정기 수원 고을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담당자인 유수·중군·관관들의 명단과 그 재임기간, 1866~1873년간 연도별 수원 고을에서 처형된 순교자의 숫자와 주요 사건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수원유수부에서 병인박해기에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것은 대부분 박해 초기인 1866~1868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당시 박해의 책임자로는 유수 이경하, 중군 윤희수, 관관 정기명 등이 대표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경하는 대원군의 심복이자 조대비의 인척으로서, 수원유수 외에도 포도대장·금위대장·형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무장이며, 병인양요 때에는 도성을 방어하는 순무사(巡撫使)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그가 얼마나 천주교 신자들을 거칠게 다루었는지는 그의 별명이 ‘낙동의 염라대왕’이라고 붙여진 데서도 알 수 있다. 서울 낙동은 이경하의 사택이 있던 곳인데, 여기 사택에 붙어 있던 사관청에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서 심문을 받았던 데서 유래하는 말이다. 한편 중군 윤희수는 수원유수 이경하의 보고에 따르면, “중군 윤희수가 천주교도를 다스리자 천주교 신자의 자취가 (경내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에 중요한 실무를 담당한 이른바 ‘박해전문가’로서, 결국 이경하의 건의

32 1869년 5월 23일(음력) 수원 화성 북문 밖에서 장살형을 공개적으로 당하여 순교한 ‘지 다두’의 경우, 그 후손들은 당시 관관 정기명이 안중의 대부호였던 자신들의 집안 재산(사방 십여 리에 걸친 전답)을 모조리 빼앗아 착복한 사실을 대대로 가전(家傳)으로 전승해 오고 있다(지석봉 구술(2001), 「지 타대오 순교자 가전자료」, 『교회사학』 제2집, 2005년 12월, 295~316쪽).

〈표 2〉 병인박해기 수원유수부의 천주교 박해 담당자와 연도별 순교자<sup>33</sup>

시기	수원유수(留守)	중군(中軍)	판관(判官)	연도별 순교자				주요 사건
				공개	비공개	부지(不知)	합계	
1866	조헌영 (~1866.10.)	이승준 (1867. 1.)	유승근 (1865. 3.~1867.12.)	6	4	7	17	병인양요 (1866. 8.~10.)
1867	이경하 (1866.10.~1869. 2.)	원세정 (1867. 2.~3.)		1	6	10	17	
1868		윤희수 (1867. 4.~1869. 1.)	정기명 (1867.12.~1871. 7.)		10	10	20	덕산골총사건 (1868. 4.)
1869	이재원 (1869. 2.~1871. 1.)			1	1		2	
1870					1		1	
1871	신석희 (1871. 1.~1872.11.)	기록 누락 (1869. 2.~1873.12.)			1	2	3	신미양요 (1871. 4.)
1872	민승호 (1872.11.~1873. 9.)		정광시 (1871. 7.~1874. 5.)					
1873						2	2	2
1866~ 1873	연도 미상(병인박해기 순교자 총 77명 중)				13	2	15	

에 따라 조정에서는 임기를 마친 그에게 다시 한 번 수원중군직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sup>34</sup> 정기명은 원래 광주판관으로 있다가 병인박해기에 수원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삼정이정(三政釐整)에 능숙한 재질을 발휘하였다고 하여 유수 이경하의 요청으로 판관 임기를 두 번씩이나 연임했는데,<sup>35</sup> 고을의 재정 관리에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재산 적몰 등에도 관여하여 신자들의 원성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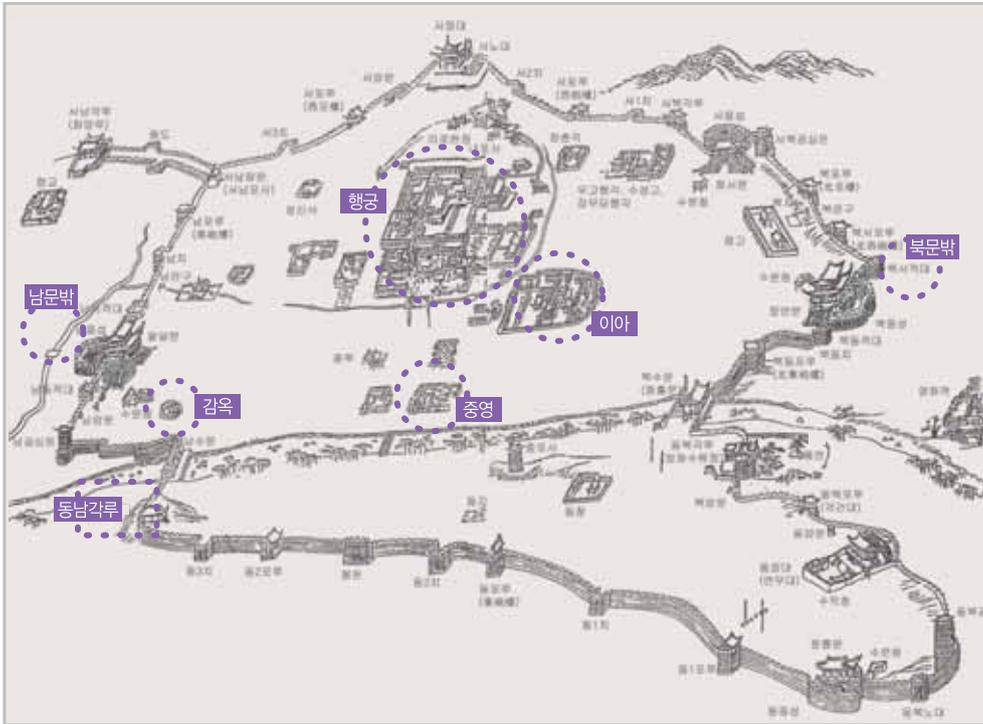
### 3) 수원 화성의 천주교 박해 관련 사적지

병인박해기 수원 고을과 인근 고을 등지에서 수원 화성으로 끌려온 천주교 신자들을 취조, 심문하고 형신(刑訊)을 가하며 때로 사형을 집행하던 일에 관여된 박해 관련 관아들

33 ① 연도는 음력 기준이다. ② 출처는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규 10702), 「유수선생」과 「판관선생」; 『수원부유영장계등록(水原府留營狀啓騰錄)』(「각사등록」 제5권).

34 『일성록』, 고종 5년(1868년) 12월 4일.

35 『일성록』, 고종 7년(1870년) 1월 15일.



수원 화성의 천주교 박해 관련 사적지<sup>36</sup>

과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던 장소들은 천주교회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고백(信仰告白)의 장소’로서 또 ‘순교사적지(殉敎史蹟址)’로서 기념하게 된다.

### 3. 개항 이후 신앙자유 의 획득과 교세의 확장

#### 1) 개항 직후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수원 신앙공동체의 재건

1873년 흥선대원군의 은퇴와 고종의 친정 선언으로, 천주교 박해가 확연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양이(洋夷)와 화해(和解)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賣國)이라.”는 고립주의 대

<sup>36</sup> 타원의 동그라미 속에 표기된 박해기관 내지 장소 고증 및 해당 관아의 세부 건물 구조 등에 대해서는 원재연, 「수원유수부내(水原留守府內) 천주교 박해(迫害)의 전개과정」, 『교회사학』 제2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05; 원재연, 「수원 화성의 천주교 사적지 제조명-형옥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제7집, 수원학연구소, 2010 등을 참고하기 바람.

외정책이 폐기됨과 동시에 조선왕조의 점진적 개방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sup>37</sup> 제1단계 개방정책의 산물인 1876년 개항(강화도조약)은 비록 일본과의 '구왜속호(舊倭續好 :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속개한다는 뜻)'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한 일본과 조선왕조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에도 본격적인 서양문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곧이어 청(淸)의 권유와 중재로 1882년부터 조선왕조가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열강과 차례로 국교를 수립하면서, 근대화정책을 이끌던 개화파들을 중심으로 서양에 대한 종전의 적대적인 감정과 배외주의 사상을 떨쳐 버리고 문명개화(文明開化)를 위해 점차 서양문물 중에서도 서양의 종교와 사상까지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그 결과 비록 국왕과 그 주위의 개화파 위정자들에게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등 두 차례 서양과의 전쟁으로 천주교 및 천주교 신자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묵은 감정까지도 서서히 떨쳐 버리고 관용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계기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병인박해 초기에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만주로 피신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개항 직후인 1876년부터 다시 조선에 재입국하기 시작했고, 리델 주교와 드게트 신부 등 입국 후 곧 조정에 체포된 선교사들은 북경에 주재하던 프랑스공사관과 청의 개입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청으로 추방되는 데 그쳤다. 한편 입국 후 체포를 면한 블랑, 로베르, 뫼텔, 두세 신부 등은 조선왕조에서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교회를 재건하는 데 나섰으며, 조정에서는 더 이상 박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다.<sup>38</sup>

국면의 전환은 조정의 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은 일부 지방관들에 의해서도 촉진되었다. 블랑 신부가 1880년 2월 27일자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혔던 신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등의 배교 형식을 취하지 않고 석방되었다.”<sup>39</sup>고 한다. 구체적으로 의주에서 체포된 천주교의 밀사들이 음력 12월에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왔고, 공주감옥에 수감되었던 남녀 교우들과 어린 이들도 2월 10일에 각각 석방되었는데, 관장이 신자들을 향해서, “평안히 가시오. 가는 도중 혹시 누가 괴롭히면 내게 돌아와 고해 주시오. 내가 처리해 주겠소.”라고 신자들의 신

37 이하 조선왕조의 대외 개방정책과 서양문물의 유입 및 서양인식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서는 원재연, 「조선 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을 참고.

38 명동천주교회(역편), 『서울교구 연보(1)』, 1984, 10~11쪽. 그러나 리델 주교와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 감옥에 수감되었던 신자들은 여전히 고통과 학대로 신음하다가 옥사하였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교우들을 수색, 체포하는 일이 확대되지 않고 사건이 수습되었다.

39 명동천주교회(역편), 『서울교구 연보(1)』, 1984, 15쪽.

변을 보장해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정과 일부 지방관들의 이 같은 관용정책과는 상관없이, 다수의 지방관들과 포졸들은 예전대로 교우촌을 습격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천주교에 대한 묵인 내지 관용과 박해가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해도 지방을 순방하던 리우빌 신부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으나, “감영에 가서 선교사를 체포해도 좋은지 허락을 받아 오라.”는 항의를 했고, 황해감사는 신부를 석방시켰다.<sup>40</sup> 하지만 개방정책과 천주교 관용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던 척사유림들의 상소(上疏)로 고종은 엄포에 불과하지만 ‘척사령(斥邪令)’을 반포하고, “유교의 가르침을 더 강력하게 실천하면, 사교의 오류는 자멸할 것이다.”고 하여 과거 정조의 온건한 천주교 정책을 되풀이하였다.<sup>41</sup> 1883년 7월 조선대목구 보좌주교로 성성된 블랑 주교는 “현재까지 겨우 옛날 신자수의 절반밖에 찾지 못하였다.”고 하여,<sup>42</sup> 당시 한국교회의 신자수가 병인박해 직전의 2만 5,000명의 절반에 해당되는 1만 2,000명을 넘어섰음을 알렸다. 개항(1876년) 직후에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은 신자들의 수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는 보고에 비해 볼 때, 확연한 시대 변화를 느끼게 할 정도로 천주교회는 종교관용정책에 편승하여 착실히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수원교구가 관할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기도 남부에서도 블랑 주교를 위시하여, 뫼텔, 푸아넬 신부 등이 매년 정기적인 순방활동을 통하여 병인박해 때 파괴된 몇몇 교우촌에 외지로 피난했던 신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교우촌이 형성되기도 하여 선교사의 방문 때 성사(聖事)를 받고 천주교 신앙생활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블랑 주교는 1885년도 보고서에서 “특히 수원 고을에서 현저한 개종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비자들을 모아 가르칠 열성적인 회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당시 교세통계표<sup>43</sup>에 의하면 수원 고을에서는 갓등이공소(162명), 건의공소(76명), 양간공소(40명)가 형성되었는데, 특히 갓등이공소의 신자수가 전년도(102명)에 비해 월등하게 증가되었고, 예비신자도 몇 배로 급증하였다(1884년 21명, 1885년 102명). 이 같은 현상은 곧 갓등이를 중심으로 하는 수원 고을에 장차 전담 선교사가 파견되어 본당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수원 고을 외에도 경기 남부 지역의 여러 곳에서는 공소와 신

40 명동천주교회(역편), 「1881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21쪽.

41 명동천주교회(역편), 『서울교구 연보(1)』, 1984, 24쪽. 1882년 임오군란 때는 서울에서 폭도들이 천주교 신자 1명을 공개적으로 처형하였다(명동천주교회(역편), 『서울교구 연보(1)』, 1984, 28쪽).

42 명동천주교회(역편), 「1883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33쪽.

43 『본당별 교세통계표(서울·경기지역)』, 「1884~1885 뫼텔 보고서」.

자수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뮌헨 신부에 이어 이 지역을 담당했던 푸아넬 신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인의 담당지역에서 계속(교세의)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의 고해자(告解者)의 수는 전년에 비해 2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먼 타지방 교우들이 종교의 자유를 기대하면서 서울 근교에 자리 잡으려고 이동해 오기 때문이고, 둘째는 작년에 많은 영세자가 나왔던 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1866년 박해 후 포기했던 성사생활을 재개한 구 교우들의 회두(回頭)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잃었던 불쌍한 구교우들 50여 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진리와 평화를 다시 찾아 기쁨에 젖은 이 교우들은 다른 이들도(교회로) 이끌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주교로의 개종은 박해기 교우촌이 밀집했던 양성(陽城)과 용인(龍仁)에서 더욱 현저했는데, 양성에는 아직 냉담자가 많지만 용인에는 중앙(서울)에서 온 신자들이 20년 전인 1860년대에 한창 번성했던 12개 공소의 중심지였던 뒷골 골짜기에 다시 정착했습니다.<sup>44</sup>

앞의 인용을 통하여 1880년대 초반 경기도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천주교에 관용적인 조정과 지방 관리들의 보호를 받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안정성을 보장받았으며, 선교사의 순방으로 성사를 받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타지에서 신자들이 이주해 왔을 뿐 아니라, 병인박해로 신앙을 포기했던 교우들이 선교사들을 집단적으로 찾아왔기에 매년 신자수와 공소수가 급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8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어, 이미 1880년대 초반부터 교세표에 등장했던 수원, 양성, 용인, 광주, 양지, 과천, 남양, 안성 고을 외에도 양근, 여주, 이천 등 경기 남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수원교구에 해당되는 전 지역에서 공소가 설정되고 신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강원도 쪽에 가까운 양근, 여주, 이천 지역에 교세가 새롭게 형성되었던 것은 1885년 여주 부흥골에 예수성심신학교가 설립되면서 인근에 자연스럽게 본당이 형성되었던 점, 1886년에 체결된 한불조약(韓佛條約)으로 선교사 순방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점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선교사 순방활동의 보장과 왕림본당의 설립

현재의 수원교구에 해당되는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본당(本堂)은 1888년 7월 당시 수

<sup>44</sup> 명동천주교회(역편), 「1886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47쪽.



갯등이본당의 두 번째 성당(천주교 왕림교회, 『천주교 왕림(갯등이) 교회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집(1)』, 1990)

원 고을 내에 설립된 왕림본당이였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던 선교사는 1년에 1~2회 피정과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본당 사제관에 상주하면서 관할 신자들의 사목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경기도 각 지역을 순방한 후 곧바로 다시 서울로 상경하였던 것에 비해, 지역 교회사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 된 것은 1886년 5월에 체결된 한불조약(韓佛條約) 덕분이다. 조선의 김만식(金晩植)과 프랑스 공사 코고르당 사이에 체결되어 6월 4일 조인(調印)된 한불조약의 제4관 6항에는 호조(護照 : 통행증)를 가진 프랑스 국민은 조선 각지로 유력(遊歷 : 왕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불조약 제9관 2항에는 프랑스 국민이 조선에 나와서 언어문자(語音文字), 격물치지(格物致知), 법률제도(法律制度), 기술예능[技術技藝] 등을 배우거나 가르쳐서 양국 간의 우의(友誼)를 두텁게 한다고 되어 있다.<sup>45</sup> 이 조약에 의하면 조선정부는 프랑스 공사가 발급한 통행증(호조)을 가진 가톨릭 선교사들의 지방 왕래를 보장하며, 또한 왕래하는 중에 조선 백성인 천주교 신자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베풀 수 있다고 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에게는 거의 완전한 선교활동의 보장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조약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천주교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조약은 매우 불완전한 형태의 부분적인 신앙자유를 허락(묵인)해 준 셈이다.<sup>46</sup> 보다 완전한 형태의 종교자유는 1901년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신축교난(辛丑教難)을 겪고 난 후,

45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 문제」, 『교회사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63~96쪽 참고.

46 명동천주교회(역편), 「1889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74쪽. 이에 의하면 “지난 해(1888년)에는 전반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 여기저기서 성가시게 구는 일은 있었고 교우들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약탈을 당하고 하는 등의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 종교의 자유가 아직 조선 법률에 기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1904년 6월 프랑스 공사와 조선 외무대신 사이에 선교조약(宣敎條約)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허용되기 시작하였다.<sup>47</sup>

조선 천주교회의 불량 주교가 한불조약이 체결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수원에 이 지역 선교사의 거점 본당인 갯등이본당을 설립하게 된 것은 당시 선교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한불조약의 내용과 조정의 선교허락 방침을 지방에 따라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곳이 많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초대 갯등이본당 신부로 파견된 앙드레(安學古) 신부가 사목활동을 펼치면서 이 지역의 척사유림들과 일정한 갈등[法國安姓人事件]을 유발하여 1개월간 서울로 호출되었던 데서도 확인된다.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앙드레 신부는 친화력과 사교성이 뛰어나 자신의 관할구역 공소들을 순방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열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앙드레 신부가 왕림본당 최초의 본당 신부로서 관내 공소 신자들을 순방한 사실은 <표 3>과 같다.

<표 3> 왕림본당 소속의 공소와 신자수(1888년 7월~1889년 5월)

(단위: 명)

번호	공소명	신자수	번호	공소명	신자수	번호	공소명	신자수	번호	공소명	신자수
1	백학	60	7	양간	117	13	검은정어	33	19	진말	105
2	호련이	35	8	신아리	24	14	더우골1	76	20	무산	25
3	가마리	52	9	바울	70	15	더우골2	74	21	머내	66
4	독정어	73	10	청룡	120	16	배마실	63	22	하우개	33
5	왕림	69	11	미리내1	85	17	소티	34	23	산밀	179
6	정송	88	12	미리내2	80	18	먹방이	58	24	수리산	131

다음 지도에서 순방코스는 매년 조금씩 선교사나 교우촌의 사정에 따라서 변한다. 왕림본당 신부가 관내 공소 순방을 시작하는 기점이자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종점이 되는 곳은 선교사가 거처하는 본당의 사제관이 있는 왕림으로, 이 지도에서는 십자가 표시가 달린 정사각형 지역이다. 그런데 이 왕림 지역은 교우들이 많기에 3개의 자연촌으로 나뉘어 공소를 세 곳에서 본다. 즉 왕림(⑤) 외에도 가마리(③), 독정리(④)가 각각 하나의 독립된 공소인 것이다. 초대 왕림본당 신부인 앙드레 신부는 '왕림' 마을이 서울에서 하룻길에 위치하며 거의 교우들만이 사는 동네로, 그곳에 사제관을 겸한 조그마한 경당을 짓고

47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의 문제」, 『교회사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참고.



앙드레 신부의 왕림본당 관할 공소 순방도(1888년 7월~1889년 5월)

살았다고 한다. 앙드레 신부의 사제관 부근에는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집 주모는 우연히 들른 교우가 소재(小齋)를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물으니 천주교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여인도 천주교 신자로서, 병인박해 때 남편과 함께 체포되었으나 남편은 처형되고 자신은 어느 군인에 의해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로부터 약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교우를 만나서 조선에 다시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왔고 교우들이 성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감격의 회심을 하게 되었으며, 군인인 새 남편까지 천주교에 입교시킬 수 있었다.<sup>48</sup> 이처럼 왕림은 서울 도성에서 경기도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주막이 있었고, 외부인의 왕래도 빈번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3개나 되는 큰 교우촌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1880년 조선에 입국한 후 얼마 안 되어 사제(신부)로서 왕림 교우촌을 비밀

48 명동천주교회(역편), 「1889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75-76쪽.

리에 방문했던 뫼텔 주교는 그로부터 10여 년 만인 1891년 다시 왕림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리에 조선대목구장 주교의 신분으로서 견진성사를 집전하기 위해 들렀다. 뫼텔 주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다음 구역은 우리를 서울의 문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 구역에는 경기도의 남쪽 부분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우가 거의 2,000명이 되고 그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중심지는 4분의 3이 교우로 이루어진 큰 부락인 '갯등이'인데 알릭스 신부가 이곳에 주재합니다. 세상을 떠난 그의 선임자 앙드레 신부가 그곳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지었습니다. .... 이 첫 번 주교 순시에서 나는 다른 위안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성사를 주기 위하여 갯등이에 불려 간 처음 선교사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때 교우들에게 나를 (그곳에) 받아들일 결정을 하게 하느라고 오랫동안 (외교인들과)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밤에, 굉장히 조심하는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그 첫 번 순회 때에 나는 겨우 50명쯤 되는 교우들에게 성사를 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인근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같은 인근 지역이 교우 천 명은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순시할 때 교우들은 우리들의 첫 번째 만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기뻐했습니다.<sup>49</sup>

이 인용문을 통하여 뫼텔 주교가 1881년에, 곧 개항 이후 최초로 갯등이 마을을 순방한 선교사였음을 알 수 있고, 갯등이본당의 뿌리가 된 갯등이공소는 이미 1881년에 병인박해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공소 역할을 재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881년경 왕림에는 마을로 사제를 하룻밤 초빙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마을의 외교인들과 협상을 해야 할 만큼 신자들이 많지 않았거나 세력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1891년 당시 갯등이에는 주민의 약 75% 정도인 신자들이 그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비신자와 혼거하는 교우촌을 이루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 3) 경기 남부 거점 본당의 설립과 공소의 증가

1888년 왕림본당의 설립 이후, 현재의 수원교구에 해당되는 경기 남부의 각 지역에는 잇달아 새로운 본당이 설립되었다. 1896년 미리내본당이, 1900년 하우현본당이 각각 설립되어 기존의 왕림본당 관할에 속하던 안성·용인 일대 지역 및 광주·과천 지역의 공소와 이에 속한 신자들을 분할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또 충청도 서북부와 경기 남쪽의 평

49 명동천주교회(역편), 「1891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111~112쪽.

택 일부까지 담당하던 공세리본당에서 1901년 안성본당이 분가되어, 평택과 진위 등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내포 쪽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 원주에 가까운 여주, 양평, 이천 등지의 공소들은 1885년 여주 부흥골 신학교의 설립 이후 10년간 부영골본당에 속하였다가, 잠시 원주본당으로 이관되었으나 1908년부터 신설된 용문본당에 속하게 되었다. 개항기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경기 남부 각 지역의 본당 및 공소, 이에 속한 신자들과 예비자의 숫자 변화 등 교세 변화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개항기 수원교구 해당지역 교세 변화(1882년 5월~1910년 4월)<sup>50</sup>

기간 (연월)	명동본당	약현본당	왕림본당	미리내본당	하우현본당	안성본당	용문본당
1882.5.~ 1883.4.	판독불가	(서울)명동본당 관할(~1890년)	(서울)명동본당 관할(~1887년)	(서울)명동본당 관할(~1887년)	(서울)명동본당 관할(~1887년)	(서울)명동본당 관할(~1887년)	(서울)명동본당 관할(~1887년)
1883.5.~ 1884.4.	594 5   10						
1884.5.~ 1885.4.	811 8   16						
1885.5.~ 1886.4.	1,147 9   16						
1886.5.~ 1887.4.	1,514 11   23						
1887.5.~ 1888.4.			(1888년 설립)				
1888.5.~ 1889.4.	기록 없음		1,750   95 9   24	왕림본당 관할 (~1895년)	왕림본당 관할 (~1897년)		(여주)부영골본 당과 (황성)홍 수원본당 등에 부분적으로 관 할됨.
1889.5.~ 1890.4.			1,952   142 10   31				
1890.5.~ 1891.4.	18 1   1	(1891년 설립)	1,970   70 9   27				

50 ① 현재 서울대교구에 소속된 명동본당, 약현본당의 경우 예비자수 통계를 생략하고, 이들 본당이 현재의 수원교구에 속하는 경기도 일대의 고을이나 공소 및 신자를 관할(사목)한 숫자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명동본당과 약현본당의 매년 전체 신자수 및 고을, 공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일부분(현 수원교구 해당지역 관할 숫자)에 해당된다. 이들 본당은 수원교구 해당 지역(고을) 외에도 현재의 서울교구와 의정부교구, 춘천교구(일부) 해당 지역의 신자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② 안성본당의 경우 경기도에 속한 안성 고을의 공소와 그 신자수만을 계산하였고, 충청도 쪽의 공소와 신자는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③ 양평 능발(용문)본당의 경우, 현 수원교구에 속하는 양평 고을의 공소와 신자들만 계산하고 그 외 가평, 포천, 양주 등의 고을에 속한 공소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본당		○○본당 (○○○○ 설립)	
신자수		신자수	예비자수
고을수	공소수	고을수	공소수

기간 (연월)	명동본당	약현본당	왕림본당	미리내본당	하우현본당	안성본당	용문본당						
1891.5~ 1892.4.		기록 없음.	2,356 8	105 34									
1892.5~ 1893.4.		512 2 6	2,098 8	93 34									
1893.5~ 1894.4.		476 2 4	2,268 7	149 38									
1894.5~ 1895.4.		510 2 4	2,774 8	136 42									
1895.5~ 1896.4.		495 2 4	2,931 9	272 53	(1896년 설립)								
1896.5~ 1897.4.	수원교구 해당 지역 공소를 왕 림본당과 약현 본당에 이관	493 3 5	1,466 5	290 30	1,779 7	60 35	(원주)원동본당 관할(~1907년)						
1897.5~ 1898.4.		497 2 6	2,277 6	552 36	1,962 7	173 37							
1898.5~ 1899.4.		416 3 6	2,204 8	324 39	2,160 5	133 35		미리내본당 관 할(~1899년)					
1899.5~ 1900.4.		386 2 4	2,145 6	173 40	2,309 7	108 36		(1900년 설립)					
1900.5~ 1901.4.		284 2 4	1,234 4	119 28	2,230 7	102 36		1,105 2	55 16	(1907년 설립)			
1901.5~ 1902.4.		338 2 4	1,231 5	51 29	2,682 6	104 34		1,007 2	83 17	281 1	45 6		
1902.5~ 1903.4.		365 3 5	1,141 5	21 24	2,403 6	75 31		1,006 2	65 17	488 2	46 10		
1903.5~ 1904.4.		396 3 6	1,002 4	39 22	2,607 6	60 35		973 2	32 15	516 3	21 9		
1904.5~ 1909.4.		교세 통계표 누락(不傳)										(1908년 설립)	
1909.5~ 1910.4.			173 2 3	1,301 3	296 28	2,378 6		59 27	2,396 4	121 39	667 4	52 11	673 1

한편 현재의 수원교구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도 서울(도성)에 가까운 광주, 과천 등의 일부 지역은 개항 초기에는 서울 명동본당의 소속으로 있다가, 1893년 문밖본당(약현본당)의 설립으로 약현본당에 이관되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그대로 있었으며, 1963년 북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을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수원교구의 설정과 함께 비로소 수원교구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일제강점기 수원 천주교회의 변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수원 시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박해시대 신자들의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곳이 화성을 중심으로 수원 고을 천주교 박해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개항이 되어 차츰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왕림본당 신부의 활동영역은 마침내 수원 읍내(화성)까지 미치게 되었다. 1897년 당시 수원 읍내를 관할하던 왕림본당의 알릭스 신부는 수원 읍내 화성 안에, 곧 현재의 복수동성당 터를 매입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인은 수원 읍내에 집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비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소위 8부자라는 자들의 집 중의 하나인 이 거처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 임금이 명을 내려 8도를 대표하는 여덟 사람이 같은 설계로 같은 길가에다 여덟 채의 집을 짓게 하였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산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보존된 집입니다.<sup>51</sup>

이른바 수원 팔부자집 중에서도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와집을 알릭스 신부가 매입



알릭스 신부(천주교 왕림교회, 『천주교 왕림(갓등이) 교회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집(1)』, 1990)

하였던 사실은 천주교가 마침내 박해의 근거지였던 수원 읍내 한복판까지 진출했던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팔부자 기와집을 매입한 지 2년 만에 수원 읍내에도 신자들이 생겨났다. 알릭스 신부에 이어 제3대 왕림본당 주임으로 부임했던 페네 신부는 1899~1900년 왕림본당 교세보고서에서 수원 읍내에 신자 14명, 예비신자 7명, 사규고해와 사규영성체자 각각 8명이라는 전교의 성과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sup>52</sup> 이후 대한제국기 10여 년간 수원 읍내의 신자수는 11~15명에서 정체되는 듯하다가, 1908년 왕림본당 신부가 본당인 왕림을 떠나 수원 읍내 공소로 임시 거처를 옮기면서<sup>53</sup> 이곳 신자수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

51 명동천주교회(역편), 『1897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1)』, 1984, 222쪽.

52 『본당별 교세통계표(서울·경기지역)』, 『1899~1900 페네 신부의 보고서』.

53 1908년 2월 갓등이 교우들이 해주 출신의 이 베드로와 방아다리의 노요한 등 두 명의 교우 출신 강도를 잡아서 직접 처단했는데, 당시 경찰서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고, 갓등이 외교인들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지만, 알릭스 신부는 이 사건이 교우로서의 십계명 의무를 어긴 중대 범죄로 보고, 그들에게 성무집행 정지령을 내리고 갓등이 교우들 전체에게 경각심을 일깨



1915년 견진 기념사진(복수동성당 소장)



폴리 신부(복수동성당 소장)



폴리 신부가 사용하던 십자가

위 주기 위해서 갓등이를 떠나 수원 읍내로 거처를 옮겼던 것이다(천주교 왕림교회, 『알릭스 신부의 제44신』(1908년 3월 17일, 수원에서), 『천주교 왕림(갓등이)교회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집(1)』, 1990, 212-215쪽).



1932년 건축된 수원 최초의 고딕성당(복수동성당 소장)

였다. 1909~1910년 알릭스 신부의 교세보고서에 의하면 수원 읍내 교우는 59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규고해와 사규영성체자는 각각 52명과 4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4~1909년 교세통계표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간 교세 변화의 세부적인 사항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1904년에 비해 무려 4~5배 정도로 교우수가 급증한 것은 수원 읍내 공소가 크게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일제 초기 10년간 대략 70~93명을 등록하였는데 3·1운동 직후엔 50여 명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회복하여 1923년 마침내 수원 읍내 본당이 왕림본당에서 독립하여 분리, 설립되었을 때 초대 본당 르메르 신부의 보고에 의하면, 교우수는 읍내 교우 106명에, 병점 공소와 기타(200명)를 합계

하여 306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된다.<sup>54</sup> 이후 수원 읍내 본당은 수원본당 또는 수원 북수리본당 등으로 불렸으며, 르메르 신부에 이어 제2대 크램프 신부, 제3대 박일규 신부를 거쳐, 제4대 폴리 신부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였다.

1931년 5월 대전에서 북수동본당으로 부임한 폴리 신부는 1948년까지 약 17년간 수원 본당에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보태 주신 재산으로 성 미카엘 성당을 짓고, 명도회(明道會)를 조직하여 가호마다 전교(傳敎)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비신자의 개종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제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한글 교리서를 신자들에게 가르

54 『본당별 교세통계표(서울·경기지역)』, 「1923~1924 르메르 신부의 보고서」.

치고, 일제의 형사들이 찾아와서 한글 사용 금지를 강요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성당 종을 공출하려고 하자, 읍장을 찾아가 설복함으로써 좌절시켜 광복 이후 곧바로 기쁨과 자유의 종을 칠 수 있게 하였다.<sup>55</sup>

일제강점기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화기에 설립된 왕림본당(1888년), 미리내본당(1896년), 하우현본당(1900년), 안성본당(1901년), 용문본당(1908년) 외에, 계속해서 압고지본당(1913년), 수원 북수동본당(1923년), 양지본당(1927년), 평택본당

(1928년), 서정리본당(1938년), 이천본당(1941년), 양평본당(1943년)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압고지본당은 1930년에 폐지되고, 하우현본당과 미리내본당 등도 일시 폐지되어 공소로 전락하였다가 다시 본당으로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담당 선교사(사제)의 부족과 신자들의 집단 이주에 따른 감소 등이 그 변화의 주된 요인이었다.<sup>56</sup>



복수동성당(복수동성당 소장)

### 5) 천주교 수원교구의 설정과 수원의 새 복음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에도 현재의 수원교구 지역에는 본당이 계속 증설되어 1963년 10월 7일 교황 바오로 6세가 ‘최고 목자(Summi Pastoris)’라는 칙서를 반포하여 윤공희(빅토리노 : 재임 1963년 10월~1973년 11월) 주교를 초대 교구장으로 하는 수원교구를 서울교구로부터 독립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수원교구의 신자수는 4만 2,000명

55 폴리 신부는 1948년 대전교구로 이임하였다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공산군에 의해 학살당하였다. 수원본당 재임 중 폴리 신부의 업적은 천주교 수원교구 복수동성당, 『복수동성당 70년사』, 1994, 85~126쪽 참고.

56 일제강점기 수원교구에 해당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본당 및 공소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이석원, 「미리내본당의 변모와 역사적 의미-본당교세 및 관할 공소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5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235~282쪽 참고.



윤공희 주교(복수동성당 소장)



2012년 천주교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기념미사(천주교 수원교구 소장)

으로 전체 수원교구 해당 지역 주민 132만 6,000명의 약 3.2%에 불과했고, 본당은 모두 24개, 공소는 205개였다.

윤공희 주교는 1973년 광주대교구장으로 이임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수원교구에 재임하면서 평신도 양육을 통한 자립교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대 김남수(안젤로 : 재임 1974년 10월~1997년 3월) 주교는 도시화에 따른 본당 증설과 공소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였으며, 한국에서 네 번째로 설립된 가톨릭 대신학교(大神學校)인 수원가톨릭대학교를 설립하여 사제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천진암성지를 개발하여 수원교구가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임을 알렸고 남양순교성지를 개발하여 한국 최초로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한국교회 최초의 성모성지가 되게 하였다. 제3대 최덕기(바오로 : 재임 1997년 3월~2009년 3월) 주교는 2000년 대회를 전후하여 수원교구 최초의 시노두스(Synodus)를 개최하여 구역·반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라는 2대 사목목표를 수립하고, 6개 대리구(代理區)를 설치하여 사제들의 성화(聖化)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교회활동을 이끌어 냈다. 현재는 제4대 이용훈(마티아 : 재임 2009년 3

월~) 주교가 교구장에 재임하여 새복음화, 재복음화, 사회복음화를 통한 교구공동체의 쇄신을 기하여 교구설정 50주년을 뜻 깊게 맞이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할 발판을 마

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수원교구는 통합적인 청소년 사목 체계의 확립을 통해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의 바탕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수원교구는 200여 개 본당에 지역복음화율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

1. 동학에서 천도교로
2. 천도교 수원교구의 설립
3. 3·1운동과 천도교 수원교구
4.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5.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청년운동
6. 1930년대 이후 천도교 수원교구
7. 해방 이후 천도교 수원교구



## 제4장

# 천도교 수원교구의 성립과 활동

### 1. 동학에서 천도교로

동학교단은 1904년 8월 진보회를 조직하고 흑의단발(黑衣斷髮)을 통해 근대문명의 수용과 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용구의 배교적 행위, 즉 진보회와 일진회의 통합으로 동학교단은 오히려 부일세력으로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았다. 더욱이 을미의병이 전개되면서 동학교인은 의병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탄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병희는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손병희는 동학혁명 이후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교단을 재건한 상황에서 또다시 교단을 비밀스럽게 그리고 은둔하면서 운영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근대문명을 이미 경험한 손병희는 결단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손병희는 그동안 ‘동학’이라고 불리던 교단을 ‘천도교’라는 근대적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를 ‘대고천하(大告天下)’라고 한다. 『본교역사』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포덕 46(1905)년 을사에 성사 동학 이름을 고쳐 천도교라 하니라. 원래 동학이란 이름이 서학 아닌

것을 밝히고자 함이요 실상 이름은 아닌 고로 동경대전에 이른바 '도인즉 천도요 학인즉 동학'이라는 뜻을 취하여 천도교라 고치니라.

‘대고천하’를 알리는 ‘천도교 선포’는 당시 발행되었던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대대적으로 광고되었다. 『제국신문』은 1905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는 19일까지 각각 15회에 걸쳐 동학이 천도교임을 선포하였다. 광고의 내용은, “무릇 우리 교는 천도의 큰 근원으로서 이름 하여 천도교라. 우리 교의 창명은 지금 46년에 신봉하는 교인이 광대히 많다. 교당 건축을 서두루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말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이니라. 오늘날 근대문명이 열리어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이 만국의 일반적인 사례이며 교당의 자유스러운 건축도 역시 잇따라 이루어지는 사례이니 우리 교의 교회당을 크게 세우는 것이 역시 하늘에 응하고 인류에 따르는 것이 표준이라.”고 하였는데, 이 광고에서 처음으로 ‘천도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를 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동학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정부는 동학을 ‘혹세무민’이라고 하여 여전히 탄압하였기에 동학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더욱이 동학이라는 명칭으로 정부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근대종교로의 전환이었다. 전근대적 동학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근대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의단발을 전개한 상황에서 굳이 전근대적 동학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서학의 경우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며, 기독교 역시 신앙이 자유로운 상태였던 것이다. 셋째는 부일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략이었다. 이용구가 진보회를 일진회와 통합하자 동학교단은 부일세력으로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인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근대문명의 수용과 위기 상황에서 손병희는 일반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근대적 종교의 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여겼다. 이에 손병희는 동학이 아닌 천도교라는 이름을 신문을 통해 널리 알렸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1898년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한 후 1906년 2월 귀국하였다. 귀국 후 손병희는 천도교의 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최우선으로 설치하였다. 즉 교당의 건축과 종무행정을 담당할 중앙총부의 설치였다. 이에 손병희는 민영철의 집을 매입하여 교당 겸 임시사무소로 정하고, 중앙총부 설립에 이어 서울에 7개의 전도실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교구를 설치하였다.

## 2. 천도교 수원교구의 설립

천도교는 서울에 중앙총부를 설립한 후 지방에 있던 기존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그 결과 1906년 3월 6일자로 전국에 72개의 대교구를 조직하였다. 수원 지역에는 제59대 교구가 조직되었고, 교구장대리로 교령 이종석(李鍾奭)이 선임되었으며,<sup>1</sup> 12월 6일 수원대 교장에 이종석, 교구장대리에 정도영(鄭道永)을 각각 임명하였다.<sup>2</sup> 그리고 팔달문 밖 영화리에 초가 10여 칸의 교당을 마련하였다.<sup>3</sup> 이어 구낙서(具洛書)와 정도영이 교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 8월경에는 이봉구(李鳳九)가 교구장, 전교구장이었던 정도영이 경기도 순회위원에 선임되었다.<sup>4</sup> 이후 1910년대 수원교구 임원진<sup>5</sup>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191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임원진

시기	임원	출처(『천도교회월보』 호수와 쪽수)
1910년 9월경	금융원에 고계원(高桂元), 순회교사 3인, 전교사 1인 선임	2호, 58쪽
1910년 10월경	전교사 4인 선임	3호, 51쪽
1911년 1월경	전교사 12인(부인 8인) 선임	6호, 56쪽
1911년 2월경	전교사 2인 선임	7호, 51쪽
1911년 4월경	공선원 겸 전제원에 이정서(李正緒), 전교사 3인을 선임	9호, 51~52, 54쪽
1911년 4월경	전제원에 이정서 선임	10호, 54쪽
1911년 8월경	교구장 이봉구 해임	13호, 71쪽
1911년 10월경	공선원에 최혁래(崔赫來), 금융원에 고계원, 순회교사 2인, 전교사 6인을 선임	15호, 67쪽
1911년 12월경	강도원에 최혁래, 진시영(陳始永), 이필우(李弼右)를 선임	17호, 69쪽
1912년 2월경	전교사 5인(부인 4인)을 선임	19호, 66쪽
1912년 5월경	금융원 고계원 의면, 강도원 이필우·최혁래 의면, 진시영 선임	22호, 47쪽
1912년 6월경	공선원에 나천강, 전교사 3인을 선임	23호, 45쪽
1912년 7월경	금융원에 나천강 선임	24호, 37쪽
1912년 8월경	교구장 공병태(孔炳台) 의면	25호, 44쪽
1913년 1월경	전교사 3인을 선임	30호, 46쪽
1913년 2월경	순회교사 2인, 전교사 10인을 선임	31호, 42쪽
1913년 9월경	교구장 이민도 의면, 나천강 선임, 금융원 진시영 의면, 최형희(崔亨喜) 선임	38호, 37쪽
1913년 10월경	공선원 김명식(金命植), 강도원 안정옥(安政玉) 선임, 순회교사 6인(부인 1인) 선임	39호, 32~33쪽
1914년 1월경	순회교사 1인 선임	42호, 30쪽

1 『공함』 제10호, 1906년 3월 6일.

2 『종령』 호외, 1906년 12월 3일.

3 이병헌, 「수원교구 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호, 1936년 12월, 36쪽.

4 『천도교회월보』 1호, 1910년 8월, 55쪽.

5 지방교구의 임원진은 교구장, 전제원, 금융원, 공선원, 이문원, 강도원, 순회교사, 전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기	임원	출처(『천도교회월보』 호수와 쪽수)
1914년 2월경	순회교사 2인, 전교사 2인 선임	43호, 36쪽.
1914년 7월경	교구장 나천강 해임, 이종석 선임, 나천강 금용원 선임	48호, 47~48쪽.
1914년 8월경	교구장 이종석 해임, 정도영(鄭道永) 선임, 전제원 이정서 해임, 이회신(李會信) 선임, 강도원에 정도영, 공선원에 진시영, 전교사 15인, 순회교사 1인을 선임	49호, 41~42쪽.
1914년 9월경	금용원 나천강 의면, 김인태(金仁泰) 선임, 나천강 총인원 의면 선출, 순회교사 2인 선임	50호, 38~39쪽.
1919년 10월경	전교사 1인 선임	51호, 38쪽.
1914년 11월경	강도원 정도영(鄭道永) 의면, 전교사 1인 선임	52호, 39쪽.
1915년 2월경	순회교사 2인 선임	55호, 35쪽.
1915년 3월경	전교사 1인 선임	56호, 42쪽.
1915년 4월경	전교사 1인 선임	57호, 43쪽.
1915년 5월경	전교사 장기환(張起煥), 김학교(金學敎), 이병헌(李炳憲) 선임	58호, 43쪽.
1915년 6월경	전교사 이남희(李南熙) 선임	59호, 46쪽.
1915년 9월경	의사원 이성구(李星九) 선임	62호, 46쪽.
1915년 10월경	강도원 나천강(羅天綱) 선임	63호, 42쪽.
1915년 11월경	전교사 김두병(金斗秉) 선임	64호, 35쪽.
1916년 1월경	전교사 김유경(金有卿) 선임	66호, 34쪽.
1916년 3월경	금용원 김인태(金仁泰) 의면	68호, 37쪽.
1916년 9월경	교구장 정도영(鄭道永) 해임, 이봉구(李鳳九) 선임, 금용원 김인태(金仁泰) 의면, 의사원 정도영(鄭道永) 선임	74호, 38쪽.
1916년 10월경	전제원 이회신(李會信) 의면, 금용원 김인태(金仁泰) 선임	75호, 40쪽.
1916년 11월경	공선원 이병헌(李炳憲) 선임, 전교사 이인숙(李寅肅) 선임, 순회교사 이종환(李鍾煥) 선임, 전제원 최영희(崔永喜) 선임	76호, 36쪽.
1917년 1월경	전교사 이정우(李正雨), 김춘경(金春京), 강인회(姜仁會), 이교달(李敎達) 선임	78호, 41쪽.
1917년 3월경	금용원 김인태(金仁泰) 의면	80호, 38쪽.
1917년 5월경	교구장 이봉구(李鳳九) 해임, 김인태(金仁泰) 선임, 공선원 이영서(李榮緒) 선임, 전교사 최덕환(崔德煥) 선임, 강도원 최영희(崔永喜) 선임, 금용원 김학습 선임, 전제원 최영희 의면, 이병헌 선임	82호, 42~44쪽.
1917년 6월경	순회교사 안종린(安鍾麟) 선임, 전교사 홍종각(洪鍾珪) 선임	83호, 42쪽.
1917년 7월경	전교사 안재규(安在奎) 선임	84호, 42쪽.
1917년 9월경	전교사 김상근(金相根) 선임, 순회교사 박영래(朴榮來) 선임	86호, 39쪽.
1918년 1월경	금용원 김학습 의면, 이병헌 선임	90호, 43쪽.
1918년 2월경	강도원 최영희(崔永喜) 의면	91호, 49쪽.
1918년 3월경	강도원 나천강 선임	92호, 53쪽.
1918년 5월경	강도원 나천강 의면, 전교사 안종환(安鍾煥) 선임	94호, 53쪽 및 57쪽.
1918년 9월경	전교사 홍종각(洪鍾珪) 의면, 유진철(俞鎭哲) 선임	97호, 55쪽.
1919년 2월경	전교사 김명기(金明基) 선임, 전제원 이병헌 의면, 김정담(金正淡) 선임, 공선원 안정옥(安政玉) 선임, 전교사 김춘경 의면, 최의열(崔義烈) 선임	102호, 64쪽; 103호, 53쪽.

한편 천도교는 근대적 종교의 틀을 갖춘 이후 교육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는 1910년대 들어 교리강습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를 한 후 사범교리강습소를 설립하였다.<sup>6</sup> 이어 1911년 3월 7일 “오교의 강습은 금일의 급무”라고 하여 강습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각 교구에 강습소를 설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에서도 제309강습소, 제310강습소, 제544강습소, 제634강습소 등 4개의 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제309강습소는 수원군 율북면 불정리, 제310강습소는 수원군 공향면 제암리,<sup>7</sup> 제634강습소는 수원군 오성면 세교리<sup>8</sup>에 각각 설치되었다.<sup>9</sup> 그러나 제544강습소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각 강습소에서 수업한 학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2〉 천도교 사범교리강습소 학생

강습소	학생
제544강습소	최민학(崔敏學), 박재순(朴在舜), 윤태익(尹泰翼), 김유식(金俞植), 정기영(鄭基永), 신달수(辛達洙), 천윤근(千潤根), 임영환(林永煥), 박영호(朴永昊), 이상구(李星九), 고계원(高桂元), 김유경(金有卿), 서상덕(徐相德), 윤준구(尹俊求), 박준식(朴準植), 박건중(朴健鍾), 오상근(吳詳根), 권기창(權奇昌), 구영서(具靈書), 이종환(李鍾煥), 장재건(張載健), 이정서(李正緒), 박하원(朴夏遠), 이병헌(李炳憲), 윤태오(尹泰五), 진덕희(陳德義), 기봉규(奇鳳奎), 최학래(崔赫來), 현운환(玄雲煥), 이경순(李京淳), 박규병(朴奎秉), 박병수(朴炳秀), 진병식(陳秉執), 오태영(吳泰泳), 진시영(陳始泳), 권백옥(權伯玉), 이필우(李弼右), 최영희(崔永喜), 임형래(林衡來), 김영규(金英圭), 이원상(李元常), 안희순(安熙淳), 최태균(崔泰均), 심영진(沈英鎭), 박재찬(朴在瓚), 오진영(吳眞泳) <sup>10</sup>
제310강습소	안흥순(安興淳), 임정식(林鼎執), 김영선(金永先), 김용천(金容天), 안상규(安相奎), 안종환(安鍾煥) <sup>11</sup>
제634강습소	이연숙(李演勳), 홍중국(洪鍾國), 김인환(金仁煥), 박규병(朴奎秉), 김용묵(金容默), 임덕래(林德來), 박창호(朴昌鎬), 임봉래(林奉來), 김인식(金寅植), 이필세(李弼世), <sup>12</sup> 이연숙(李演勳), 홍중국(洪鍾國), 형관식(邢權植), 박원병(朴元秉), 안희순(安熙淳), 임봉래(林奉來), 김영희(金永會), 김용묵(金容默), 김인식(金寅植), 이필세(李弼世), 최순화(崔淳和), 정승환(鄭承煥), 사용석(徐容錫), 이종렬(李鍾烈), 고성희(高星熙), 이주헌(李周憲), 이병찬(李丙瓚) <sup>13</sup>

수원교구는 1906년 설립 당시 팔달문 밖 영화리에 있었으나 1910년에는 교구장 이봉구를 비롯하여 정도영, 고주원, 이회신, 이덕유, 이종철, 진시영, 진종구의 주선으로 팔달문 안 장안동에 초가 30칸 규모의 교당을 마련하였다. 2년 후인 1912년 이민도 교구장 등 주

6 『종령』 제5호, 1909년 1월 30일;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총령존안』, 모시는사람들, 2005, 145쪽. 사범강습소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연령 25세 이상, ② 국한문에 능숙한 자, ③ 신체 건강인, ④ 학비 : 매월 7월, ⑤ 학과 : 교서, 내외국지지, 내외국역사, 산술, 법학통론, 경제학, 물리학, 생리학, 작문, 체조, ⑥ 수업기간 : 1년 속성.

7 『천도교회월보』 23호, 1912년 6월, 46쪽.

8 『천도교회월보』 29호, 1912년 12월,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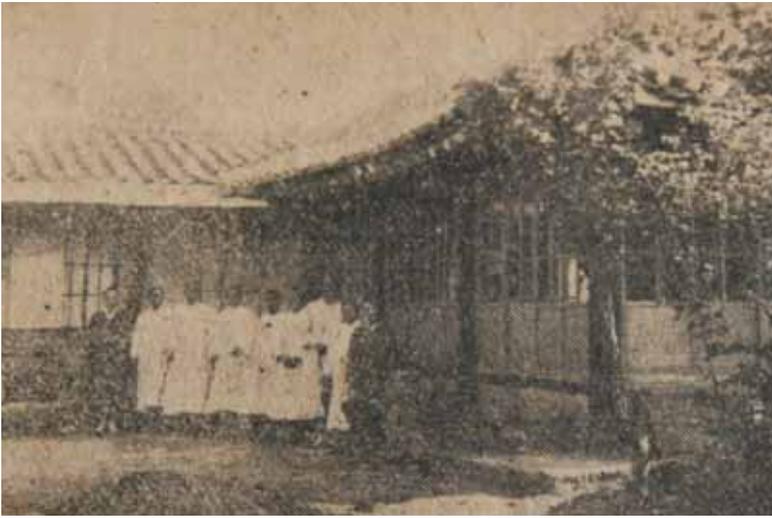
9 그러나 「수원군중리원연혁」에는 1908년 교리전문강습소를 설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 『천도교회월보』 12호, 1911년 7월, 65쪽.

11 『천도교회월보』 20호, 1912년 3월, 48쪽.

12 『천도교회월보』 29호, 1912년 12월, 49쪽. 이들은 진급자 명단이다.

13 『천도교회월보』 37호, 1913년 8월, 45쪽. 1912년과 중복되는 학생도 다시 기재하였다.



복수리로 이전한 천도교 수원교구(『천도교회월보』)

요 임원들의 노력으로 복수리 와가 40여 칸을 매입하여 교당을 이전하였다.<sup>14</sup> 와가 4칸 정도의 교당은 팔부잣집의 하나였다.<sup>15</sup> 그리고 1914년 전국 의 교구 조직을 조정하여 36개 대교구제로 전환할 때 수원교구는 진위군교구, 시흥군교구, 부천군교구, 인천부교구, 강화군교구, 용인군교구, 안성군교구, 광주군교구, 남양군교구를 관할하는 대교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sup>16</sup>

### 3. 3·1운동과 천도교 수원교구



이병헌

수원 3·1운동의 특성은 초기에 천도교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도교가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즉, 초기에는 감리교 신자인 김세환이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를 책임지면서 운동을 독려하였고, 이와 동시에 천도교에서는 서울에서 이병헌<sup>17</sup>이 복수동 수원교구에 내려와 만세운동을 논의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수원교구에 내려온 이병헌은 서울에서의 상황을 설명

14 「수원군종리원 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년 2월, 191쪽.

15 이병헌, 「수원교회 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호, 1936년 12월, 36쪽.

16 『종령』 제106호, 1914년 7월 1일;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 종령존안』, 203쪽.

17 이병헌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1913년 수원교구장을 역임한 이민도(李敏道)의 장남이다. 수원교구에서 전교사·강도원·전제원·금용원 등을 역임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한 후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2월 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신숙(申肅)·인종익(印鍾益)과 함께 이종일(李鍾一)의 집으로 운반하였으며, 3월 1일 당일에는 손병희를 따라 민족대표 33인 모여 있던 대화관에서 이규갑(李奎甲)과 같이 탑골공원과의 연락책으로 활동하였고 남대문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검거령이 내리자 이병헌은 이를 피해 수원교구로 피신하였다(성주현, 「신앙보국의 화신 이병헌」, 『신인간』 575호, 1998년 7월, 81쪽;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64-67쪽;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 통권2호, 1946년 3월, 72쪽).

하고 수원에서도 교인을 모두 동원,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월 16일 시내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이날 밤 이병헌과 교구장 김인태, 이문원 안정옥, 전제원 김정담, 강도원 나천강, 순회교사 이성구·안종린, 전교사 홍종각·안중환 등 주요 교역자들이 북수리 수원교구에서 모여 만세시위와 독립운동비 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sup>18</sup> 그리고 이에 앞서 수원교구의 교인들은 천도교의 교조인 손병희가 독립운동의 주모자로 일경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5일 서울로 올라가 구출하려는 비밀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sup>19</sup>

수원교구에서 만세시위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정탐한 일제 측의 소방대와 일본인은 소방용 갈고리와 팽이를 들고 교구를 난입하여 교인을 구타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정담·김정모·안중환·안종린·홍종각·김상근·이병헌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sup>20</sup> 그 후 수원 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은 수원의 외곽인 남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남양 지역에 처음으로 천도교인이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은 동탄면 구오산리였다. 구오산리 만세운동은 박두병,<sup>21</sup> 김재천,<sup>22</sup> 김진성<sup>23</sup> 등이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인근 촌락의 유지 및 기독교인과 연락을 취하면서 게릴라식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오산 장날을 이용하여 밤늦게까지 횃불을 들고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한 뒤 천도교 전교실 앞에서 해산하였다. 이 때문에 천도교 간부와 교인들이 용인수비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으며 전교실은 폐쇄되었다.<sup>24</sup>

두 번째의 만세운동은 성호면(오산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서울과 수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산 주민들은 천도교인과 3월 14일 시위를 전개하려 했으나 일제의 경계와 준비의 미흡으로 연기되었다.<sup>25</sup> 그러나 이때 준비하였던 만세운동은 열흘 정도 늦은 3월 25일 천도교인과 보통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금융조합과 일본인 가옥을 파괴하였다.<sup>26</sup> 이어 3월 29일 장날을 기해 유진홍, 이성구, 김정윤, 안낙순, 모영철의 주도로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관공서를 습격하였다.<sup>27</sup>

18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1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 민족주의운동편』, 원서방, 1967, 349쪽.

20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21 박두병은 수원교구 동탄면전교사로 활동하였다(『천도교회월보』 191호, 31쪽).

22 김재천은 수원교구 동탄면전교사로 활동하였다(『천도교회월보』 191호, 31쪽).

23 김진성은 수원교구 건립 당시 10원을 의연하였다(『천도교회월보』 64호, 37~38쪽).

24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2쪽; 최홍규,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 271쪽.

25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회도서관, 1977, 362쪽.

26 『한국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68, 263쪽.



우정·장안면의 3·1운동과 천도교의 분포

세 번째로 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은 발안리였다. 발안리의 만세운동은 3월 31일<sup>28</sup>과 4월 15일 두 차례 전개되었다. 먼저 3월 31일 만세운동은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되었다. 안정옥과 김홍렬, 팔탄면 가재리의 유학자 이정근이 중심이 된 이날 시위는 천도교인과 기독교

27 이용락, 『3·1운동실록』, 삼일동지회, 1969, 375~377쪽. 이성구는 수원교구에서 교구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안낙순과 김정윤은 1915년 수원교구 건립의연금으로 15원과 1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그리고 모영철은 모영찬, 유진홍은 유진철의 오기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한다.  
 28 발안리의 만세시위 일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탄운 이정근의사전기』에는 3월 30일, 일본 측 정보기록에는 3월 31일, 김선진의 증언록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에는 4월 5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제 측의 정보 기록인 3월 31일로 인용하고자 한다.

교인, 이정근의 제자들, 그리고 장날에 모인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세를 불렀으며 일경은 이를 제지하고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만세를 부르던 군중들은 이에 저항하고 계속 시위를 하자 일경은 시위행렬을 향해 발포하여 2~3명이 희생되고 해산하였다.<sup>29</sup> 두 번째 4월 15일도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측 기록에 따르면 발안장에서 이날 오후 2시에 400여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날 일본군의 진압 과정에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32명이 희생되었다.<sup>30</sup>

네 번째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은 수원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였던 4월 3일의 우정면과 장안면의 만세운동이다. 이날 수촌리의 백낙열은 이봉구·정순영·홍수광과 같이 집집마다 돌면서 교인과 주민들을 모아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방화하였다. 이어 화수리주재소를 포위하고 방화하였으며, 주재소 안에서 총격을 하던 가와바타(川端豊太郎) 순사를 폭행하여 마침내 참살하였다.<sup>31</sup>

그 밖에 음덕면과 마도면, 비봉면에서도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연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sup>32</sup> 특히 박하원<sup>33</sup>과 정대성<sup>34</sup>이 일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 4.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일제는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천도교의 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견제, 회유로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교구장이 회유를 당하여 교회 활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다. 당시 일부 지방의 천도교에 대한 사회인식 또는 일제의 회유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북 벽동군(碧潼郡) 지방에서는 소요가 일어나서 시장거리에 영향이 불소하여 천도교도에 대한 미운 생각이 날로 더하여 천도교도는 사회의 대죄인인 즉 토지와 갖힌 것도 그 자들에는 쇼작치 못하게 하고 또 소와 말 갖힌 것도 빌너주지 안으며 또 교도중 소요에 참가하여 귀중한 생명을 일

29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0쪽; 최홍규,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 272쪽.

30 강덕상, 『3·1운동』(1), 국학자료원(복각), 1967, 207쪽.

31 『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3, 681~687쪽.

32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2쪽.

33 박하원은 수원교구에서 설립한 교리강습소를 수료하였다(『천도교회월보』 12호, 65쪽).

34 정대성은 교직을 맡은 적은 없으나 1924년 수운탄신100주년기념사업으로 1원을 의연하였다(『대신사백년기념사업회원명부』).

아바리는 것은 텃밭이라 하고 자연히 교제를 피하는 모양인데 이갓흔 사위의 압박을 못견대어 건너편 지나 디방으로 도망하야 가는 자가 만흐며 교도의 유력한 자도 일절 텃도교와 관계를 끈갓다 하고 일반 문서와 밋 레비에 쓰는 기구를 태여 바리고 일반의 신용을 회복하라고 매우 야단인 모양이라더라.<sup>35</sup>

소요 사건이 발한 이래 텃도교는 일반 도선인의 원망의 중심이 되야 교를 배반하난 자가 비상히 만흐며 대구 텃도교 교구장 황주일(黃宙一)이난 이러한 종교를 밋는 것은 리익이 업다고 깨닷고 이번에 교구장을 내여 노코 탈교를 하얏으며 기타 교인도 불과 팔명 밋게 아니 되며 전 교회가 절멸이 된 상태이더라.<sup>36</sup>

이와 같은 천도교에 대한 일반 민중의 인식은 경기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 지역은 3월 1일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조선 독립은 조선 민족을 위해 이익이라고 호감을 가졌으나 만세시위가 진정됨에 따라 천도교에 대한 호의가 반감으로 바뀌었다.<sup>37</sup> 또한 일부 천도교인은 관헌의 의심이 두려워 천도교인이 아니라고 사칭하거나<sup>38</sup> 퇴교하는 자도 속출하였다.<sup>39</sup>

그러나 3·1만세시위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천도교단은 1921년 신유년을 맞아 대대적인 포교운동을 전개하였다.<sup>40</sup> 3·1운동 직후 천도교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민중과 퇴교하였던 사람 등 상당수가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21년 2월 남양군 46명, 진위군 13명,<sup>41</sup> 3월 남양군 32인, 수원군 180명,<sup>42</sup> 4월 수원군 39명,<sup>43</sup> 수원군 22명, 용인군 29명,<sup>44</sup> 9월 수원군 28명, 남양군 10명<sup>45</sup>이 입교하였다. 이들 지역은 수원대교구 관할로서 수원교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교세 확장으로 수원군 동탄면 전교실이 새로 조직되었다.<sup>46</sup> 한

35 『매일신보』, 1919년 5월 3일.

36 『매일신보』, 1919년 5월 22일.

37 「조선소요사건상황」, 『독립운동사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696쪽.

38 「조선소요사건상황」, 『독립운동사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696쪽.

39 「조선소요사건상황」, 『독립운동사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945쪽.

40 천도교는 수운 최재우에 의해 경신년(1860)에 창도되었으나 포교를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 신유년(1861)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교단에서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41 「회보-신유포덕상황」,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년 5월, 113쪽.

42 「회보-신유포덕상황」, 『천도교회월보』 118호, 1920년 6월, 101쪽.

43 「회보-신유포덕상황」, 『천도교회월보』 119호, 1920년 7월, 100쪽.

44 「회보-신유포덕상황」, 『천도교회월보』 120호, 1920년 8월, 109쪽.

45 「회보-신유포덕상황」, 『천도교회월보』 134호, 1921년 10월, 105쪽.

46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 120호, 1920년 8월, 111~112쪽. “수원군 동탄면 방교리 일반 교인은 전교실이 없음을 유감으로 이든 바 포덕 57년에 전교사 장기남 씨의 발기로 김진성 김재천 김영근 김현근 최의열 박두명 최경열 박처양 최신열 최풍내 양명삼 이종승 임용진 박승직 심상운 김경화 최공열 김기성 최두모 씨 이외의 일반 교우는 자기 성력을 따라 혹은 재력 혹은 피력을 다하여 아홉 칸 전교실을 새로이 건축하였는데 장래 교황이 날로 확장할 희망이 있다더라.”

편 1925년 중앙에서 신과·구과로 분류를 겪게 되자 수원교구는 구과에 속하게 되었다. 1920년대 수원교구 임직원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임직원

시기	임직원	출처(『천도교회월보』 호수와 쪽수)
1920년 12월경	교구장 김인태(金仁泰) 사면, 이성구(李星九), 전제원 김정담(金正淡) 사면, 이종환(李鍾煥) 선임, 금용원 이병헌(李炳憲) 의면, 장기환(張基煥) 선임, 순회교사 김유경(金有卿), 전교사 이선좌(李善佐), 최의열(崔義烈), 김명운(金明云)	124호, 109~110쪽.
1921년 2월경	전교사 김영근(金泳根) 선임	126호, 111쪽.
1921년 4월경	공선원 유희준(俞熙濬), 순회교사 이연숙(李演濬) 선임	128호, 113쪽.
1921년 5월경	전교사 엄운보(嚴雲輔) 선임	129호, 104쪽.
1921년 7월경	공선원 이연숙, 강도원 진중구 선임	131호, 105~106쪽.
1921년 11월경	전교사 최진협(崔鎭協) 선임	135호, 111쪽.
1922년 1월경	순회교사 박영래(朴榮來), 전교사 이정우(李正禹), 최기련(崔基連) 선임	137호, 119~120쪽.
1922년 11월경	종리사 이성구 선임	146호, 80쪽.
1922년 12월경	종법사 유희준 선임	147호, 85쪽.
1923년 1월경	포덕원 박영래, 서무원 이인숙, 경리원 김상근(金相根)	148호, 79쪽.
1923년 7월경	주임종리사 나천강, 종리사 김유경, 장연수(張鍊秀) 선임	154호, 50쪽.
1923년 8월경	각면 종리사 최재순(崔在順), 홍종각, 김영근, 김기덕(金基德), 김정우, 최기련, 임승팔(林承八), 이종수, 장덕수(張德秀), 이선좌 선임	155호, 72쪽.
1924년 2월경	면종리사 이종환 선임	161호, 25쪽.
1924년 5월경	면종리사 김상근 선임	164호, 28쪽.
1925년 4월경	주임종리사 나천강 선임	175호, 33쪽.
1925년 6월경	서무종리사 이연숙 의면, 이종환 선임, 경리종리사 장연수 의면, 이재우(李在雨) 선임	177호, 27쪽.
1926년 2월경	위원 이종환·이정우, 감사원 김정담 선임	182호, 29쪽.
1930년 2월경	포덕과대표위원 홍종각, 서무과대표위원 곽금석(郭鎰錫), 경리과대표위원 윤교충(尹敎忠), 감사위원 이종환·김상근 선임	230호, 42쪽.

## 5. 192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청년운동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의 주요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삶의 터전을 등지고 타지로 숨어 지내게 되었다. 또한 일제 당국은 천도교 재산을 압류하거나 지방교구와 전교실을 폐쇄하기도 하였다.<sup>47</sup> 또한 천도교세력을 분열하기 위하여 청림교(靑林敎), 제우교(濟愚敎), 삼성무극교(三聖無極敎) 등 친일적 사이비 종교단체를 급조하였다.<sup>48</sup> 이러한 상황은

47 김정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19쪽.

교단 운영에 적지 않은 위기를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 일제는 한일합방 후 유지하여 오던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정책상 변경하였다. 문화정치는 한국인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것이며 일제의 식민통치의 근본 목표인 동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문화정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언론·출판·교육·결사·산업·문예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교단의 내적 위기와 사회 상황의 변화에 교단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9월 2일 정도준·손재기·박달성·박용회·황경주·김옥빈·박래홍·최혁 등의 발기<sup>48</sup>와 교단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리의 연구 및 선전, 조선의 문화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天道敎靑年敎理講研部)를 발족시켰다.<sup>50</sup> 강연부는 지방 교구를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sup>51</sup>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20년 4월 25일 천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로 명칭을 개정하였다.<sup>52</sup>

이에 따라 수원교구에서도 청년회 지부를 조직하였다. 청년회 수원지회는 강연부가 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한 직후인 1920년 4월경 이병헌·홍종각·이연숙·김유경의 발기로 설립하고 이병헌을 초대 지회장으로 선임하였다.<sup>53</sup> 수원지회는 설립 후 첫 사업으로 5월 17일 본회의 박용회·이돈화·박사직을 초청하여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500~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sup>54</sup> 이어 동년 11월에는 본회의 협조와 강사 유희준(兪熙濬)의 열성으로 교리강습회를 설치하였다.<sup>55</sup> 그 외에도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순회강연, 특별대강연회, 강습회 등을 가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작년 2월 7일 본군 지방 각처에 순회강연을 행함.
- 一. 작년 4월 15일 본 대교구 내에 특별대강연회를 개함.

48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4, 391쪽. 청림교는 한일합방 무렵부터 천도교를 약화시키기 위해 친일분자 김상설을 시켜 천도교인 일부를 끌어내어 1920년 7월에 창립토록 하였다. 삼성무극교는 청림교와 같은 시기에 이근호를 시켜 창립케 하였으며, 제우교는 일진회의 잔당에게 창립시켜 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격발하는 데 이용하였다.

49 민영순, 『천도교육 61년 연보』, 『천도교회월보』 116호, 1920년 4월, 32쪽.

50 조기간, 『천도교청년당일람표』, 1928.

51 강연부 지부는 지방교구가 조직된 곳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1919년 11월까지 진남포, 진주, 정평, 박천, 청주, 강동, 삼등 등 10개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부원 500여 명에 달하였다(『천도교회월보』 112호, 1919년 12월, 41쪽).

52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의 名義改定』,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년 5월, 114쪽.

53 『水原郡宗理院沿革』,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6년 11월, 30쪽.

54 『中央總部彙報』, 『천도교회월보』 118호, 1920년 6월, 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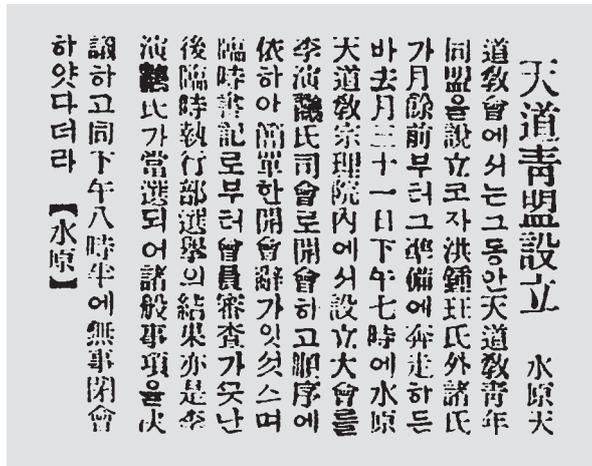
55 『水原郡宗理院沿革』,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6년 11월, 30쪽.

- 一. 작년 8월 5일 본군 지방 각처에 순회강연을 행함.
- 一. 금년 1월 4일 본지회에서 강습회를 개최함.
- 一. 동년 3월 31일 강습회 종료되는 수여식을 거행하니 회원 총수 25인.<sup>56</sup>

한편 1921년 12월 훈춘사건(琿春事件)을 계기로 동아일보사는 해외동포위문회를 발족하였고, 1922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환등영사대강연회(幻燈映寫大講演會)를 개최하자 수원 지역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였다.<sup>57</sup> 훈춘사건은 국내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해외동포에 대한 민족일체감과 동정심을 유발하였다. 송진우 등 위문강연단(慰問講演團) 일행은 대전에 이어 7월 12일 수원에 도착, 화홍문에서 성황리에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가 끝난 후 청년 유지들은 해외동포위문회에 대한 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는데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비롯하여 청년구락부, 엽뽕청년회, 여보호회(女保護會), 학생친목회, 진명구락부 등 6개 단체가 참여하였다.<sup>58</sup>

1925년 교단이 신파와 구파로 내분을 겪게 되자 청년회도 양분되었다. 신파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는 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으로, 구파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는 천도교청년동맹(天道敎靑年同盟)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파에 속해 있던 수원교구는 청년동맹 지방부가 동맹원 13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규약에 따라 홍종각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1928년 7월부터 수원동맹을 조직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이해 7월 31일 오후 7시 수원군 종리원에서 설립대회를 갖고<sup>59</sup> 대표위원에 이연숙, 상무위원에 김찬기, 집행위원에



천도교 수원청년동맹 설립 기사(『동아일보』, 1928년 8월 5일)

56 「各支會의 狀況一覽」, 『천도교청년회회보』 제3호, 1921년 12월, 16쪽(『한국사상』 제16집, 한국사상연구회, 1978).

57 『동아일보』, 1922년 3월 3일. 동아일보사에서 전개한 해외동포위문회는 전국을 3차례 순회하면서 환등영사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제1차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제2차는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을, 제3차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순회하였다.

58 『동아일보』, 1922년 7월 14일.

59 『동아일보』, 1928년 8월 3일. 『천도교회월보』 212호에서는 8월 1일에 설립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상근·이병찬·이종환·박규희·임덕래·임형래, 검찰위원에 홍종각, 고문에 나천강을 선임하였다.<sup>60</sup> 그리고 수원교구 관할하에 있던 교구에서도 청년동맹을 조직하였는데, 시흥청년동맹(始興靑年同盟)은 1929년 4월 29일 최재원의 사회로 설립대회를 갖고 대표위원에 유재준, 상무위원에 신경호·이흥수, 집행위원에 신경호·이흥수·임인수·이용필·권덕용, 검찰위원에 이병수·김점봉을 선임하였다.<sup>61</sup> 그리고 용인청년동맹(龍仁靑年同盟)은 1929년 9월 31일 오후 4시 용인군 종리원에서 박종건의 사회로 설립대회를 갖고 대표위원에 송재문, 상무위원에 심인경, 집행위원에 박영찬·박영시·장기준·김의배, 검찰위원에 이상우·안동순, 고문에 송재은·장한순·이회신을 각각 선정하였다.<sup>62</sup> 남양동맹은 설립대회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1930년 2월 28일 정기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1년 전인 1929년 4월경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sup>63</sup> 수원교구의 관할하에 있는 청년동맹 설립은 <표 4>와 같다.

<표 4> 천도교 수원교구 관할 천도교청년동맹의 설립

동맹명	대표위원	상무위원	집행위원	검찰위원	고문	설립일
수원동맹	이연숙	김찬기	김상근, 이병찬, 이종환, 박규희, 임덕래, 임형래, 박만근, 나창세, 이용현, 광금석(이상 9월 증선)	홍종각, 노병규	나천강	1928. 7. 31.
시흥동맹	유재준	신경호, 이흥수	신경호, 이흥수, 임인수, 이용필, 권덕용	이병수, 김점봉		1929. 4. 29.
용인동맹	송재문	심인경	박영찬, 박영시, 장기준, 김의배	이상우, 안동순	송재은, 장한순, 이회신	1929. 9. 23.
남양동맹	지영태	박상훈, 윤영흠, 정태봉	박상기, 배재무, 송영수, 김영배, 최병익, 김익배			1931. 2. 28. (정기대회)

수원동맹은 1928년 7월 31일 설립 후 1개월 뒤 9월 1일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집행위원으로 박만근·나창세·광금석·이용현 등으로 증선하고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개의 반을 조직하여 임덕래·광금석·이병찬·유진철·박만근을 반대표로 선임

60 『천도교회월보』 212호, 42~43쪽.

61 『천도교회월보』 221호, 33쪽.

62 『천도교회월보』 226호, 31쪽.

63 『천도교회월보』 231호, 39쪽. 당시 천도교청년동맹의 정기대회는 대체로 창도기념일인 4월 5일 이전인 4월 3일 또는 4일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지방부의 정기대회는 중앙의 정기대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해야 함으로 대체적으로 2월 말경 또는 3월 중에 개최하였다.

하였다.<sup>64</sup> 그 외에 관내 지역의 순회강연,<sup>65</sup> 기념강좌<sup>66</sup>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수원교구와 남양교구가 1930년 8월에 통합함에 따라 남양청년동맹은 8월 12일 오전 9시 해체하고, 이날 오후 9시에 수원청년동맹과 합동대회를 갖는 한편 새로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sup>67</sup>

대표위원: 홍종각

집행위원: 임덕래(상무), 박상훈(상무), 지역대, 정태봉, 임형래, 박상기, 장재건

한편 수원청년동맹은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간회의 참여이다. 신간회가 창립될 무렵인 1927년 수원 지역에는 사회단체로 수원청년회, 의법청년회(懿法靑年會), 수원구제회(水原救濟會), 사-ㄴ청년동맹, 인쇄직공친목회(印刷職工親睦會), 혁성단(革成團), 수원형평사(水原衡平社) 등이 있었다.<sup>68</sup> 이들 사회단체는 천도교, 성공회, 기독교 등 청년단체와 상호 협력하면서 신간회 수원지회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 단체 중 사회주의 계열로는 혁성단<sup>69</sup>과 공석정(孔錫政)이 주도하는 사-ㄴ청년동맹<sup>70</sup>이 있었다. 수원지회는 홍종각의 천도교청년회(天道教), 김노적의 진명구락부(성공회), 김병호의 의법청년회(감리교) 등 민족주의 세력과 공석정의 사-ㄴ청년회, 최신복·우성규의 수원청년회 등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으로 설립되었다.

천도교 수원청년동맹(이하 천청)은 천도교청년동맹 본부가 신간회 창립과 경성지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자 수원에서도 지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천청의 수원지회 설립의 참여는 이병헌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병헌은 평택군 현덕면에서 출생하였지만 교회활동은 수원에서 주로 하였다. 그는 수원교구장을 역임한 이민도의 독자로 일찍부터 천도교의 종교적 수양을 쌓았다. 1911년 수원군교구에서 운영하는 제544강습소를 수료하였으며<sup>71</sup>, 3·1운동 직전까지 수원교구에서 전교사,<sup>72</sup> 공선원,<sup>73</sup> 전제원<sup>74</sup>으로 활

64 『천도교회월보』 213호, 29쪽.

65 『천도교회월보』 218호, 32쪽.

66 『천도교회월보』 234호, 40쪽.

67 『천도교회월보』 237호, 35쪽.

68 『동아일보』, 1927년 1월 19일;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69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70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0, 255~256쪽.

71 『천도교회월보』 12호, 65쪽.

72 『천도교회월보』 58호, 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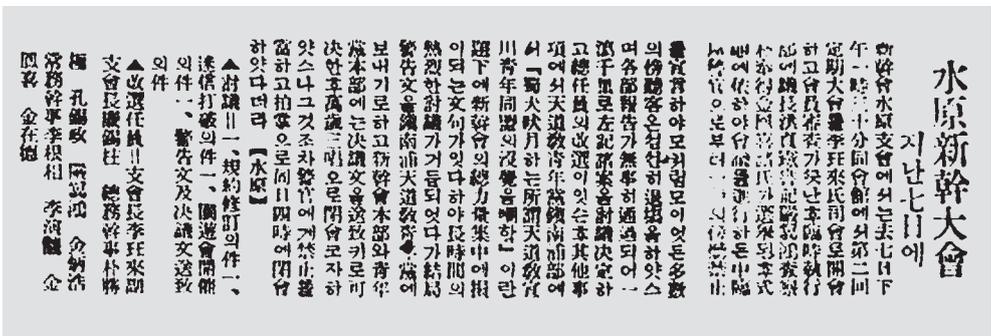
73 『천도교회월보』 76호, 36쪽.

74 『천도교회월보』 102호, 64쪽.

동하였다. 3·1운동 때에는 보성전문학교 학생으로 탑골공원과 태화관의 상황을 연락하였으며,<sup>75</sup> 수원과 남양 제암리에서 3·1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sup>76</sup> 1920년대에는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창립하고 초대 지회장으로, 천도교중앙총부에서는 경리과 과원, 경리과 종리사, 포덕과 종리사<sup>77</sup>로 활동하였다. 교단이 신과와 구과로 분류를 겪게 되자 구과 측 중앙총부에서 계속 활동하였다.<sup>78</sup>

이병헌은 천도교청년동맹이 신간회 결성에 참여함에 따라 적극 가담하였다. 그는 경성 북부지회 설립준비위원,<sup>79</sup> 경성지회 간사,<sup>80</sup> 경성지회 서무부 상무간사<sup>81</sup>로 경성지회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그의 신간회 활동은 교회적 인간적 교류를 맺고 있던 수원 청년동맹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홍종각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원지회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sup>82</sup>

이병헌과 자주 연락을 가지며 정세를 교환하던 홍종각은 같은 천청의 이연숙·김현조와 신간회 지회<sup>83</sup>를 설립키로 논의하였다. 또한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진명구락부의 김노적, 의법청년회의 김병호,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공석정·최신복 등 지역 청년 유지들과도 신간회 지회 설립을 논의하였다. 이어 1927년 10월 9일 오후 2시 천도교수원군종리원에서 제1회 준비회를 열고 지회 설립을 결의하였다.<sup>84</sup> 신간회 본부와 당국으로부터 설



신간회 수원지회에 참여한 천도교 수원청년동맹(『동아일보』, 1929년 4월 10일)

75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 통권2호, 1946년 3월, 65-67쪽.  
 76 『천도교회월보』 191호, 30쪽.  
 77 『천도교중앙총부직원록』.  
 78 『천도교회월보』.  
 79 『동아일보』, 1927년 5월 27일; 『조선일보』, 1927년 6월 3일.  
 80 『동아일보』, 1927년 6월 12일; 『조선일보』, 1927년 6월 12일.  
 81 『조선일보』, 1927년 6월 18일자.  
 82 이병헌, 『산동아』, 207쪽.  
 83 신간회 지회의 결성은 지회규정 제1조에 의하면 “1구(區) 내에 거주하는 회원이 30인 이상에 달할 시 설립함을 득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수원청년동맹의 동맹원은 3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립 승인을 받은 후 준비위원들은 10월 14일 오후 4시 역시 천도교총리원에서 제2회 준비 회를 개최하고 설립대회 준비를 마무리하였다.<sup>85</sup> 수원지회 설립대회는 1927년 10월 17일 오후 2시 천도교총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준비위원 김노적의 사회로 임시집 행부 구성, 회원심사, 중앙본부에서 파견된 이관구의 취지설명의 순으로 진행하고 임원 선출과 활동 방침을 결정하였다.<sup>86</sup> 그리고 사무소를 천도교총리원에 두었다.<sup>87</sup> 이후 천청 은 신간회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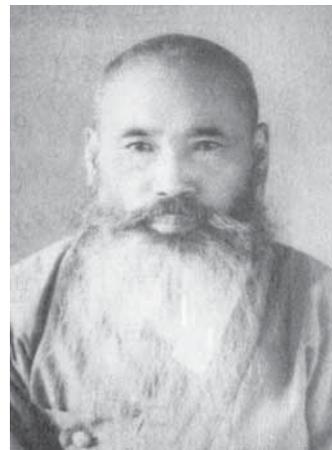
## 6. 1930년대 이후 천도교 수원교구

1930년대 들어 식민지 조선사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1931년 7월 시작된 만주사변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전시체제로 치달았다. 전시체제가 형성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종교적 활동 역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천도교는 순수한 종교단체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원 교구도 자연스럽게 신앙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원교구는 조직과 유지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1930년대는 교단의 분규로 양분되었던 신파와 구 파가 1차 합동을 통해 새롭게 천도교단을 구성하였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분규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수원교구 는 다시 구파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40년대 초반 에 이르러 신파와 구파가 다시 합동을 하고 교단을 새로 정비하자 이에 합류하였다.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을 맞을 때까지 수원교구의 임 직원 변동사항은 <표 5>와 같다.

1930년대 수원교구의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 다. 다만 1936년 부인강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것이 유 일하다. 당시 천도교단(구파)은 부인강좌를 개최할 것을



1932년 신구 2차 분규 시 감사원에 선임된 윤공 총(임승자 제공)

84 『조선일보』, 1927년 10월 16일.

85 『조선일보』, 1927년 10월 16일.

86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표 5〉 1930년대 천도교 수원교구 임직원

시기	임직원
1931년 4월경 (신구 합동 시)	종리사 신명옥(申明玉), 배재무(裴在務)·박상기(朴尙基)·윤영흠(尹英欽)·송영수(宋榮秀)·김종윤(金鍾潤)·최영순(崔英淳)·최기연·유진철(俞鎭哲)·지영태(池泳泰)·이인수(李麟秀) 선임, <sup>88</sup> 종리원장 임승팔 의면, 윤준흠 선임, 성도집 윤준흠 의면, 이종환 선임, 신도집 이연숙 의면, 박상호(朴尙浩) 선임, 지도집 박상호 의면, 이연숙 선임, 감사원 홍종각 선임 <sup>89</sup>
1932년 6월경 (신구 2차 분규 시)	종리원장 홍종각, 성도집 윤준흠, 경도집 박상호, 신도집 이연숙, 법도집 김상근, 지도집 정태봉(丁泰奉), 감사원 윤교충(尹敎忠) 선임 <sup>90</sup>
1934년 5월경	교장 윤준흠, 현기원 이종환, 공선원 윤교충, 금용원 이종우, 전제원 박상호, 심계원 홍종각, 전교사 윤교충·오영구, 주관 윤교충·유진철·오영구·정재건·정한수·김종윤·이종우·윤준흠·김교필·정태봉·박상훈 선임 <sup>91</sup>
1937년 6월경	전제원 이강년, 감사원 배재무 선임 <sup>92</sup>
1941년 5월경	교구장 이종환 선임 <sup>93</sup>
1941년 8월경	교회원 박상호, 교무원 이강년, 경리원 정태봉, 감사원 배재무, 순회교사 윤준흠·홍종각, 전교사 최진성·오영구·박상기·정태홍·김봉희 선임 <sup>94</sup>
1942년 4월경	교구장 이종환 선임 <sup>95</sup>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에 수원교구는 진위교구와 시흥교구와 연합하여 이해 2월 29일부터 준비를 한 후 3월 12일부터 3일간 부인강좌를 개최하였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준화의 사회로 이춘화의 개강사, 이연숙의 취지 설명, 홍종각의 권사가 개강식을 갖고 김정함의 강연으로 강좌가 시작되었다.<sup>96</sup>

그리고 1937년 청년동맹이 해산된 후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청년동맹이 언제 해산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937년 4월부터 청년회가 조직되는 것으로 보아 1937년 4월 해체하는 동시에 청년회로 조직체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교구 청년회는 이해 4월 30일 대회를 개최하고 지회장 이연용, 총무 이강년, 상무 정태봉, 간사 김금산·윤교영·박상기, 감사위원 윤준흠을 선임하였다.<sup>97</sup> 이처럼 수원교구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87 『조선일보』, 1928년 2월 5일;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 회의장소를 『조선일보』는 '성내 복수리 신간지회회관'으로, 『동아일보』는 '수원 성내 천도교종리원'으로 보도하고 있다.

88 『천도교회월보』 244호, 1931년 4월, 45쪽.

89 『천도교회월보』 245호, 1931년 5월, 44쪽.

90 『천도교회월보』 257호, 1932년 6월, 51쪽.

91 『천도교회월보』 269호, 1934년 5월, 42쪽.

92 『천도교회월보』 296호, 1937년 5월, 28쪽.

93 『신인간』 141호, 1940년 12월, 42쪽.

94 『신인간』 158호, 1941년 8월, 32쪽.

95 『신인간』 165호, 1942년 4월, 표지(전면).

96 이병현, 「수원교구부인강좌」, 『천도교회월보』 284호, 1936년 5월, 17-18쪽.

97 『천도교회월보』 295호, 1937년 5월, 45-46쪽.

회를 조직하였지만 이후 수원교구의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수원교구의 활동은 침체에 들었으며, 1945년 8월 해방을 맞았다.

## 7. 해방 이후 천도교 수원교구

해방을 맞은 천도교는 중앙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한편 지방에서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속 정비되었다. 하지만 수원교구에 대해서는 확인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활동을 추적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에는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1962년 수원교구가 설립되었다. 기존의 천도교인도 함께 참여 활동하였으나 수원 출신의 천도교인들은 수원권선교구를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수원교구의 교구장은 오용삼, 최성린, 김학순, 김치근 등이, 그리고 수원권선교구의 교구장은 박상익, 이강년, 김인선, 김건영, 치동규, 박제운 등이 역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원교구와 수원권선교구는 수원교구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9년 봉황각 연성에 참여한 천도교 수원교구 교인들(임승자 제공)



김권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1. 개신교의 수용과 확산
2. 개신교인의 지역활동과 사회운동
3. 해방 후 개신교의 성장



## 제5장

# 수원의 개신교 수용과 성장

### 1. 개신교의 수용과 확산

#### 1) 수원의 개신교 수용

천주교가 들어온 지 1세기 이후인 19세기 말 한국에서 개신교<sup>1)</sup>가 수용되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지배세력인 양반층의 통치이념인 유교로 사회체제와 질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서구 제국의 거센 물결을 타고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19세기 말 한국사회는 대내외적 충격으로 강력한 유교적 질서에도 틈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내적으로는 봉건사회의 모순으로 신분적 유교질서가 와해되었고, 사회경제적 궁핍화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sup>1)</sup> 일반적으로 개신교(프로테스탄트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계기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하여 성립된 다양한 그리스도교의 분파를 총칭하는 말이다. 로마가톨릭교회 및 동방정교회(東方正教會)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3대 교파를 이룬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protest)에서 기원했는데, 이 말은 1529년 2월 21일에 열린 독일 슈파이어국회에서 루터계 제후(諸侯)와 도시들이 황제 카를 5세 등 로마가톨릭세력의 억압에 항거한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이 글에서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혼란이 계속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서구 제국의 압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자주적인 독립권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 틈을 비집고 개신교가 한국에 전해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다.

물론 그 출발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처음에 선교할 목적으로 한국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은 입국하지 못하거나 들어왔다가 사망하였다. 1832년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는 배를 타고 충청도 서해안에 도착한 귀츨라프(Karl August Fredrich Gützlafz : 1803~1851)는 기독교 선교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던 조선의 국내사정으로 돌아갔다.<sup>2</sup> 또 1866년(고종 3)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던 토마스(Robert Jeremin Thomas : 1840~1866) 목사는 체포되어 순교당하였다.<sup>3</sup>

한국사회의 지배층이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던 가운데 조선정부는 1882년 미국과 수교를 맺어 서구열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다.<sup>4</sup>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교회는 한국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사를 직접 한국에 파견한 최초의 서구 교회가 되었다. 1882년 6월에 재일(在日)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매클레이(R. S. Maclay)는 해외선교본부의 요청을 받고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당시 개화파 인사였던 김옥균(金玉均)의 도움을 받아 고종에게 “의료와 학교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고종으로부터 ‘의료’와 ‘교육’에 한정하여 외국인이 입국하여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sup>5</sup> 이에 따라 국내에 외국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북장로회가 한국에 가장 먼저 선교사를 입국시켰다. 고종의 윤허를 받은 이후, 1884년 9월 미 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H. N. Allen)은 제물포에 도착, 서울에 정착하여 한국에 상주하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다. 이듬해 4월 5일에는 미 북장로회의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미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당시 병원과 학교 사업 이외의 선교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지만<sup>6</sup>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 사업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의료와 교육 사업에서 선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자, 개신교의 각 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889년 10월 호주 장로회의 데이비스(Davies) 남매가 들어와 부산을 중

2 허호익, 『귀츨라프의 생애와 조선선교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54쪽.

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73, 48쪽.

4 이광린, 『한국사강좌(V)』, 일조각, 1981, 98-112쪽.

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132쪽.

6 초기 국내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선교사(Missionary)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책은 교사나 의사였다.

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영국성공회의 경우 1890년 코프(C.J. Corfe) 주교가 들어와 1891년 9월 제물포에 최초의 성공회 교회당을 건립하였다. 미국 남장로회에서는 1892년 테이트(L.B. Tate), 레이놀즈(W.S. Reynolds), 전킨(W.N. Junkin) 등을 파견하여 선교를 시작하였다. 미국 침례교는 1889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기독교



미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



수원 지역 선교에 공헌한 스크랜턴 대부인

청년회에서 파견한 펜윅(M.C. Fenwick)을 파견하였고, 미국 남감리회는 1896년 리드(C. F. Reid)를 파견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다. 캐나다 장로회는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던 매켄지(W. J. McKenzie)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1887년 한국에 대한 선교를 결정하고 이듬해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함경도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sup>7</sup> 이렇게 선교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체계를 갖춘 외국 선교회가 입국하게 되자 이는 한국 기독교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국내 활동이 자연스럽게 교육 및 의료 기관 등을 거점으로 전개함에 따라, 학교와 병원은 초기 직접적인 선교활동과 교회 설립의 모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한국인의 신앙공동체로 교회가 설립된 것은 1883년 소래교회가 최초였으나, 본격적으로 조직된 것은 장로교의 경우 1887년 9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새문안교회였고, 감리교의 경우 1887년 10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정동교회였다.<sup>8</sup>

초기 한국 기독교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삼위일체(三位一體)' 선교방식이었다.<sup>9</sup> 교회가 한국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장소라면, 병원은 질병을 통해 고통당하는 한국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장소였으며, 학교는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의 정신과 사회를 개혁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장소였다.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연결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터전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당대의 사회적·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 준다. 해외의

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137~142쪽.

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197~204쪽.

9 김권정, 「한국사회와 기독교 수용」, 『11명의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독교』, 겹보기, 2001, 22~26쪽.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의 입국은 기독교 선교 확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지역은 서울과 함께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초기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교파의 선교회가 선교함에 따라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선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선교회 간에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교계예양(敎界禮讓)'으로 불리는 선교지역 분할협정이었다. 이는 1892년 북감리회와 북장로회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되었는데, 인구 5,000명 이상의 대도시나 개항장은 공동으로 점유하되 그 이하의 도시와 지방은 그 당시 선교회의 지휘를 받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밖에 미개척지역은 새로 들어오는 선교회로 하여금 개척한다는 원칙도 세웠다.<sup>10</sup>

이 협정은 감리교선교회 사이에서도 맺어졌는데, 북감리회보다 늦게 한국에 진출한 남감리회는 서울·개성·원산을 중심으로 선교사업을 하다가 북감리회와 협정을 맺고 1901년 북감리회로부터 원산 지역을 양도받았다. 개성은 처음부터 남감리회가 개척한 곳 이었고, 서울은 공동 점유가 가능한 대도시여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어 1905년에는 북감리회와 북장로회, 1907년에는 북감리회와 남장로회, 1909년에는 북감리회와 북장로회가 선교지역 분할협정을 맺었다.

북감리회는 인천·수원·안산·남양·교동·강화·부평·여주·광주(일부)·이천·음죽·양근(일부)·양천 등의 지역을 맡았다.<sup>11</sup> 그 후 1906년부터 1908년 사이 선교구역이 조정되자, 용인 지방은 캐나다 장로회로 이관되었고, 대신 충북의 제천·청주가 수원 지역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수원 지역 최초의 교회인 장지리교회는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이관되었고 용인군 내의 감리교회들도 장로교회로 교파를 옮기게 되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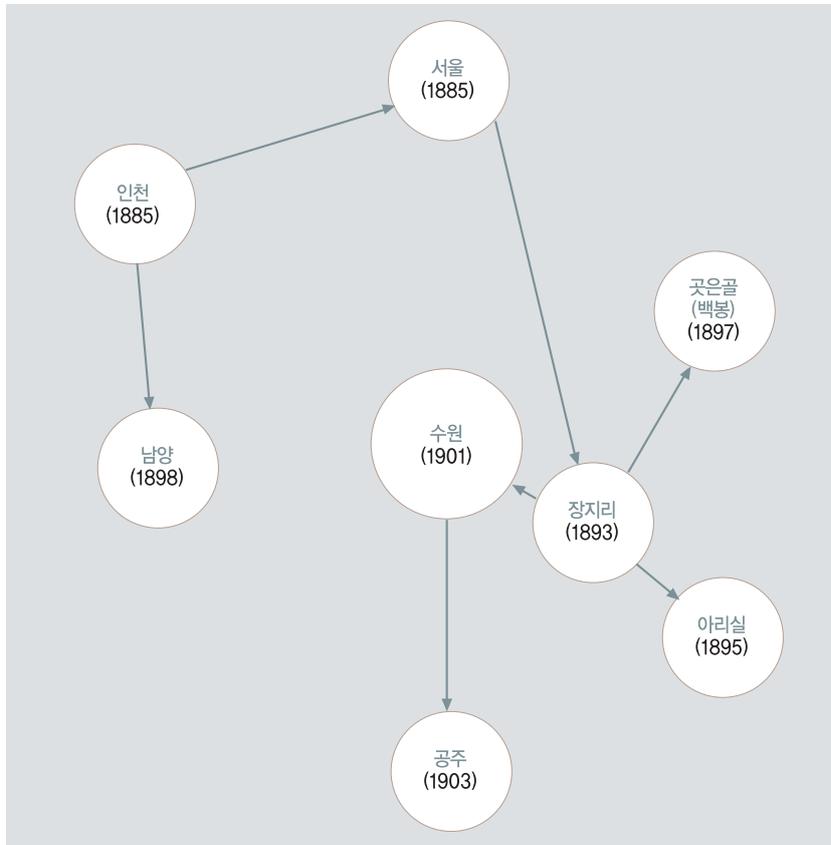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 수원 지역<sup>13</sup>은 북감리회 선교구역이 되었다. 수원 지역의 선교는 북감리회 초기 선교사인 스크랜턴 대부인이 시작하였다. 1893년 기록에 따르면 한국선교회의 관리자였던 그녀는 수원과 공주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의료선교사인 아들 스크랜턴과 함께 내한하여 1886년 이화학당을 창립하고, 6년간 초대 학당장으로 있다가 1897년 로드 와일러에게 당장직(堂長職)을 맡긴 후, 선교사업에 전념하였다. 그녀가 순회활동을 한 곳은 수원, 장지내, 독고개, 오천, 택선, 여주, 이천 등지로 멀리로는 평

10 한규무, 2001, 「감리교의 항일민족문화운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175쪽.

1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168-173쪽.

12 홍석창, 「개신교」, 『수원시사』 하, 수원시, 1997, 663쪽.

13 당시 수원 지역은 수원시·화성·평택·용인·안성 등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151쪽).



수원과 주변 지역 감리교 수용 경로

양까지였다.<sup>14</sup> 이후 1898년 스웨어러(W.C. Swearer)가 수원과 공주구역장으로 선교의 책임을 맡았다. 1901년부터는 수원구역이 독립하였고, 1903년 5월부터는 버딕(G.M. Burdick)이 수원구역장으로 활약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원 근방을 다니며 전도하였고, 장지리를 시작으로 하여 용인 일대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수원 시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뚝 솟은 수원 성곽이 말해 주듯이 수원 시내 사람들은 여전히 서양종교를 ‘오랑캐’의 것으로 인식하여 배척하고 적대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선교의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수원 외곽지대를 전도하

14 홍석창, 『수원지방의 발자취』, 수원동지방회, 1978, 81쪽.

였다. 1893년 수원부 어탄면 장지동에 수원 지역 최초의 교회인 장지내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1896년에는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아리실)와 용인군 남사면 전궁동에, 1897년에는 용인군 백암면 백봉에 교회가 세워졌다.<sup>15</sup> 그다음은 수원 읍내였지만, 1898년까지 수원 읍내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16</sup>

수원 읍내에 대한 선교는 존스(G.H. Jones : 趙元時, 1867~1919) 선교사가 서리 감리사로 파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처음 존스는 선교를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선교의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다른 지방처럼 거두어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1899년에는 수원 읍내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몇 명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시켜 선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수원 순회구역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당시 수원 감옥에는 수원 남쪽의 한 선교구역 소속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금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변 인물들을 감화시켜 개종자가 나오기도 하였다고<sup>17</sup>한다.

이와 같이 수원 지역 선교가 어려웠으나, 1900년에 들어서 수원 읍내를 제외한 수원 순회구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수원구역장이었던 스웨어러 선교사는 이런 선교 확장을 기뻐하면서 이들 지역의 선교를 총괄할 수 있는 선교기지를 수원에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01년 가을 선교부는 수원에 가까운 안산군 무지내에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김동현을 보내 수원 시내에 작은 집이 딸린 부지를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문제에 봉착하였는데 그것은 김동현이 구입한 부지가 화령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구입한 것을 안 수원유수가 김동현을 체포한 것이었다. 수원유수 입장에서는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유교의 근본적 가르침을 숭상하기 위해 세운 화령전 옆에 이교(異教)인 기독교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그야말로 신성모독 행위였다. 결국 부지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나서야, 김동현은 석방될 수 있었다.<sup>18</sup>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땅의 계약을 취소하면 수원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허락한다는 수원유수의 타협적인 태도를 끌어냈기

15 『조선그리스도인회보』 제1권 8호, 1897년 3월 24일.

16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28쪽.

17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56~57쪽.

18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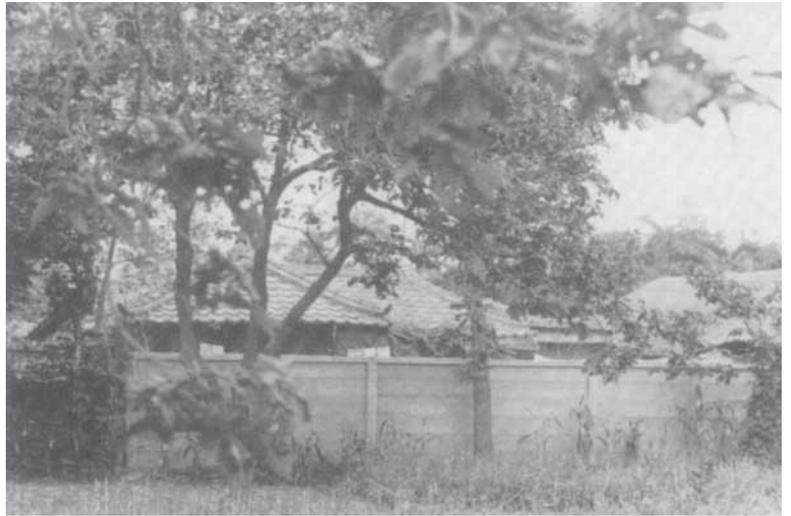
때문이다.<sup>19</sup> 선교부는 수원유수의 승인을 받고 당당하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유수가 이를 허락한 이상 보수적인 양반들이라도 드러내 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웠다.

1901년 12월 스웨어러 선교사는 김동현 대신 이명숙을 수원에 파견하였다. 이명숙은 북문 안 보시동(普施洞)에 13평짜리 초가집을 구입하고 가족과 살면서 수원 성내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였다.<sup>20</sup> 김동현 사건을 고비로 수원 선교의 족쇄가 풀리면서 수원 성내 기독교 선교가 비로소 전개되었다.

한편, 미 북감리회에 이어 수원 지역에 들어온 성공회는 성공회와 성결교였다. 이들 선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가 주도한 선교지역 분할협정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sup>21</sup>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는 1887년 중국과 일본의 성공회 주교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선교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890년에 내한한 초대 코프 주교는 서울 정동에 정립성당을 세우고 12월 첫 미사를 집전하였고, 인천에 내동성당을 세웠다. 이처럼 성공회는 선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서울과 인천에 선교기지를 마련하였고, 1893년에는 강화도에 선교기지를 개척하였다.<sup>22</sup>

수원 지역에 대한 성공회의 전도는 1904년 시작하였다. 초대 관할사제인 브라이들(G.A. Bridle) 신부의 일기에 의하면, 1904년 서울에 온 송 전도사가 상류천(上柳川)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sup>23</sup> 상류천은 수원천의 하류인 버드내가 흐르는 지역으로 현재의 매교동과 세류동 일대이다. 처음으로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 장소는 장지리의 일



1902년 5월 최초의 예배당이 세워졌던 자리인 보시동 116번지(수원장로교회, 『수원장로교회사』, 2000)

19 수원장로교회, 『수원장로교회사 1899-1950』, 2000, 74쪽.

20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56쪽.

21 김권정, 『성공회·성결교의 전래와 활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231쪽.

22 이재정, 『대한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32~44쪽.

23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 100년사』, 2004, 28쪽.

반 가정집으로, 김씨와 장씨 그리고 임씨 집안사람들이 모였다.

성공회의 초대 주교인 코프가 1904년 7월 서한을 통해 사임의사를 밝히자 2대 주교로 터너(A.B. Turner)가 임명되었다. 이미 터너 주교는 코프 주교와 7년간 함께 선교활동을 담당할 경험이 있었다. 제2대 주교에 취임한 터너 주교는 서울, 인천, 강화에 이어 네 번째 중요한 선교지역인 수원에 브라이들 신부를 파견하였다. 인천에서 전임한 브라이들 신부는 수원에 작은 집 한 채를 구입하고 1905년부터 수원에서 전도활동을 개시하였다. 1905년 성탄절에 수원 임시성당이 문을 열었다.<sup>24</sup> 이로써 성공회는 수원 읍내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선교기지를 구축하였는데, 이때 개척된 수원교회는 이후 한국성교회 선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결교도 수원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에 설립되었던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 : OMS)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출발한 성결교는 일본에서 성결교리를 체험하여 확신을 갖게 된 정빈과 김상준이 카우만 부부 및 길보른과 동행하여 국내에 들어왔다. 따라서 성결교의 한국 선교는 1907년 정빈과 김상준이 설립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에서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이 전도관을 중심으로 성결의 복음을 외치며 한국의 성결교를 창립하였다.<sup>25</sup> 초기 전도자들의 열정으로 복음전도관이 건립되었고, 여기에 초기부터 교역자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성서학원의 설립은 성결교가 한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sup>26</sup> 이 성서학원의 활동은 수원 지역 선교활동으로 이어졌다.

1910년대 초 수원에서 경성 성서학원 수련생들은 60여 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25일 동안 머물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부흥시켰다. 일찍부터 수원에서 선교를 시작한 감리교인들은 성서학원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때마침 그 교회의 죽어 가던 어린 환자가 2일 동안 기도한 결과 완쾌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27</sup> 이후 1928년 평택교회 오명환, 독립문교회 유익옥, 동경교회 손문준, 인천교회 이종문 등이 수원으로 이주하였고, 이에 교단에서는 이성봉을 파견하여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비로소 수원 시내에서 성결교가 자리 잡게 되었다.<sup>28</sup>

24 김권정, 「성교회 · 성결교의 전래와 활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233쪽.

25 안수훈, 『한국성결교 성장사』, 기독교미주성결교회출판부, 1981, 87~88쪽.

26 이천영, 『성결교회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70, 29쪽.

27 박명수, 「경성성서학원의 초기역사(1907~1921)」, 『한국기독교와 역사』 1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0, 195~196쪽.

28 이명지, 『朝鮮耶蘇教東洋宣教會聖潔教會略史』, 동양선교회성결교회출판부, 1929, 133~134쪽.

## 2) 개신교회의 설립과 성장

### (1) 최초로 세워진 장지내교회

1892년 미국 감리회에서는 한국 주요 도시에 선교 거점을 마련코자 하였다. 개항지였던 제물포와 원산, 북부 지방의 중심지인 평양에 각각 한 사람의 주재선교사를 파견하였다. 남부 지방에도 선교사를 파견하려 하였으나 선교사가 부족하자 마땅한 선교사가 올 때까지 감리사인 스크랜턴이 선교를 맡았다. 스크랜턴은 믿음직한 한국인 사역자 한 사람을 보내어 남부 지방의 선교를 맡겼다. 이 사람이 유치겸이다. 유치겸은 한국감리교회 최초로 1888년 주재전도사(Local Preacher) 직함을 받은 신실한 일꾼이었다.<sup>29</sup>

유치겸을 파견한 때는 1892년 스크랜턴이 감리사가 된 직후로 보인다. 유치겸은 1년여 동안 책을 팔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두 개의 마을에서 작성한 11명의 구도자 이름을 적어 보냈다. 보고를 받은 스크랜턴은 선교의 결실을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당시 수만 명의 동학교도가 보은에서 집회를 갖는 등 서양배척운동이 고조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랜턴은 선교지로 내려와 세례를 주었다. 스크랜턴은 1896년 시흥과 과천, 용인과 수원 아래의 장지내에 감리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장지내의 입교인수가 10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무렵 스크랜턴은 정동에 위치한 시병원을 상동으로 옮기고, 버스티드(J.B. Busted) 선교사에게 병원 일을 맡긴 다음, 자신은 감리사로서 선교구역 순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는 주재선교사가 없는 남부 지방을 주로 선교 여행하였는데, 어머니인 스크랜턴 대부인과 동행하면서 여성교회의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장지내교회를 방문한 스크랜턴 대부인은 1900년 선교 경험이 풍부한 김사라 전도부인과 그 딸인 메리(Mary)를 장지내교회로 파견하였다. 김 부인은 이곳에서 살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



수원 지역 감리교 선교에 큰 공헌을 한 전도부인 김사라와 딸 메리(채부인, FIFTY YEARS OF LIGHT, 미감리교회부인선교부, 1938)

<sup>29</sup> 김진형, 「장지내교회」, 『기독교타임즈』, 2002. 6. 21.

여 마을의 부인 20~30명을 개종시키기도 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하였고, 김 부인의 딸 메리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sup>30</sup> 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매일학교를 세워 운영하던 감리교회 선교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박홍성은 1894년 자비를 들여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였다.<sup>31</sup> 이 교회의 발전에는 스크랜턴 대부인과 박홍성·이춘원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지 못하였다. 1905년 김사라와 메리는 수원 읍내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던 중 1910년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박홍성과 이춘원이 죽자 교회가 크게 흔들렸지만 박홍성의 부인이 열심히 헌신하여서 곧 어려움을 이겨냈다. 장지내교회의 초기 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장지내교회 초기 교회 현황

연도	입교인	학습인	합계
1886	17	0	17
1901	14	45	59
1902	22	22	44



아리살교회 설립 내용이 실려 있는 『아리살교회 당회록』(아리살교회 소장)

## (2) 아리살교회

장지내교회에서 처음으로 분가한 교회는 아리살(牙谷)교회로 1896년 9월 17일에 설립되었다. 선교사 스크랜턴이 창립하였고, 오인선과 서광선이 도왔다. 1899년까지는 스크랜턴과 이은승 전도사가, 1900년부터 1904년까지는 스웨어러 선교와 한국인 김상배와 김현태 전도사가 일하였다. 1904년 8월 교회당 대지를 샀고, 안성·수원·서울·양주·광주·이천·여주 등 경기도 일원과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 헌금을 모아 교회당을 건축하였다.<sup>32</sup>

1909년 아리살교회는 선교구역 분할협정에

30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44·154쪽.

31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47쪽.

32 홍석창, 『개신교』, 『수원시사』 하, 수원시, 1997, 666쪽.

따른 선교구역 조정으로 장로교회로 이관되었다. 이 교회에는 영국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파견된 김익회가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열심히 전도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30명을 개종시키고 600여 권의 성경을 팔았다. 또 교인들은 1898년 관청의 박해를 받아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1903년이 되어서야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옥중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15명의 죄수에게 전도를 하였다. 1902년 교인수를 보면, 입교인 24명, 학습인 12명, 원입인 8명, 총 44명이었다.<sup>33</sup>

### (3) 수원 지역의 중심, 종로교회

종로교회는 1901년 이경숙이 땅과 집을 사고 전도를 시작하여 이듬해 2월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등록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지방관리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스웨어리(W.C. Swearer)와 김동현·이명숙이 전도활동을 한 결과 수원 지역에는 장지내와 아리실의 교회를 포함한 수원계삭회, 무지내와 독고개 및 삼막골의 교회를 포함한 시흥계삭회, 남양읍과 양철리·덕방리를 포함한 남양계삭회가 조직되었다.

비록 지역의 핍박으로 수원 지역에서 비교적 늦게 전도가 시작되었으나 종로교회는 수원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수의 상류층 교인도 있었다. 또 스웨어리 선교사가 15명의 소년들을 모아 남녀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그 후 수원 지역의 중심교회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종로교회는 2년 만에 크게 성장하여 교인수가 160명이 되었고, 22명이 출석하는 남자 매일학교와 15명이 출석하는 여자 매일학



선교 초창기 수원종로교회에서 사용하던 성경(수원종로교회 소장)

<sup>33</sup>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57쪽.



1911년 수원 개신교 가족(노르베르트 베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 한국에 대한 기행문』, 세이넬 출판사, 1915)



1933년에 신축한 예배당(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2000)

교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sup>34</sup>

1910년 교인의 수는 입교인 52명, 학습인 321명으로 총 373명이었고, 1912년에는 입교인 156명, 세례인 36명, 세례아동 9명, 학습인 383명, 원입인 616명으로 총 1,200명이 되었으며,<sup>35</sup> 수원을 중심으로 하여 시흥·남양·이천·용인 지역에서도 교세가 커졌다.

1902년에는 수원구역에서 시흥구역이 분리되어 독립교구가 되었으며, 1904년에는 인천지방 소속이던 남양구역을 수원구역으로 흡수하였다. 그 후 1930년 남·북감리회가 통합되어 조선감리회가 창립되면서 수원 지역의 감리교회는 독립교회인 조선감리교회의 관할로 들어갔다.

1930년대 종로교회는 예배당의 건축을 통해 더욱 발전하였다. 수원은 서울 이남의 대표적인 감리교 선교지역으로 감리교회 선교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예배당이 필요하였다. 선교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교인들도 예배당 건축을 위해 준비하였으나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감리교 선교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1933년 종로교

34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102~110쪽.  
35 홍석창, 『수원지방의 발자취』, 수원동지방회, 1978, 79~81쪽.

회는 드디어 교인들의 헌금과 선교회 보조 등으로 새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 건물에 기숙사를 마련하여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193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수원 읍내에서만 남녀 사경회가 8차례나 열려 교회의 교세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계몽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 (4) 성공회 기지, 수원교회

수원교회는 1890년 12월 서울 정동의 장림성당, 1891년 인천의 인천성당 및 성누가병원, 1900년 강화읍성당 등 한국성공회가 설립된 이후 네 번째 세워진 성당이다. 1905년 수



1908년 수원성공회(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일제시기 수원성공회(조선총독부, 『생활상대조사-수원군』, 1929)



성공회 수원교회 수녀들(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진명학교 운동회 단체사진(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뒤로 수원교회 건물이 보인다.

원에 집 한 채를 구입하여 임시 성당을 마련하고 성탄절에 인천의 브라이들 신부가 전임하여 미사를 드리면서 출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아산의 산직말·신흥포, 진위의 새말·백석포, 천안의 부대리, 평택의 용두리, 용인의 공세리 등에 교회의 성당이 건축되었다.<sup>36</sup>

1908년 5월에는 수녀원 지부 건물을 지어 강화에 거주하던 수녀들이 옮겨와 거주하게 하였고, 80명의 학생으로 남·녀 공학의 진명학교(進明學校)를 개교하였다.<sup>37</sup> 진명학교는



1926년 수원교회 소녀 보육원(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서양식 운동회를 처음으로 열었고, 축구부와 수영부 등 각종 운동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어 1908년 7월에는 새로운 성당을 건축하고, 성스데반성당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수원교회는 1893년 정동에서 수녀들이 시작했던 고아원을 1913년 수원으로 옮겨와 성피득보육원으로 발전시켜 1973년 문을 닫을 때까지 1,000여 명의 고아를 양육하였다.<sup>38</sup> 1923년에는 여자 야학원을 설립하여 주간에 공부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야간과정을 운영하였고, 1925년 2월 20일에는 여자신학원을 개원하여 17명의 학생이 공부하였다. 1920년대 말 수원 읍내에 초등학교 과정의 학교가 여러 곳에 설립되자, 수원교회는 진명학교를 영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으로 변경하였다.<sup>39</sup>

감리교선교사들이 수원을 가리켜 ‘성공회 기지’로 부를 정도로 성공회의 수원교회는 서울 이남 지역의 개신교 중심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남녀학교, 고아원, 수녀원 등을 운영하여 한국 성공회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 (5) 기독교동신회 동신교회

동신교회는 일본에서 선교를 시작한 플리머드 형제단에 동참한 일본인 노리마츠 마사

36 이재정, 『대한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32-72쪽.

37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 100년사』, 2004, 29쪽.

38 이재정, 『대한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372·386쪽.

39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 100년사』, 2004, 35-36쪽.



1910년대 동신교회(수원박물관 소장)



동신교회 내에 세워진 노리마츠기념비

야스(乘松雅休)가 수원시 매향동 116번지에 설립한 교회이다. 노리마츠는 1896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선 선교를 결심하고, 그해 12월 23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서울로 가서 조덕성이란 청년에게 한국어를 배운 후 전도활동을 하였다.<sup>40</sup>

그 후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내한한 브랜드가 서울 지역 전도를 맡게 되자, 노리마츠는 1900년 8월 9일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이어 1900년 9월 성안 북수동(장안동)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이 집을 '성서강론소(聖書講論所)'로 삼아 선교활동을 펼쳤다. 1909년 8월 김태정이 수원 화홍문 천변의 토지를 기부하자 신자들의 헌

40 김수진, 『한일교회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1989, 45쪽.

금과 협력으로 한옥 집회소를 세워 '수원 성서강당'이라 이름하였다. 1917년에는 일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기독교동신회(基督同信會)'라는 이름의 종교단체로 등록하였다.<sup>41</sup>

노리마츠는 수원 부근에서 시작하여 충북 충주, 경북 경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충북 음성, 황해도 연백, 개성, 부평 등지에 38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자 귀국하여 1921년 2월 조선에 뼈를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일본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922년 동신교회 교인들은 일본에서 그의 유골을 가져와 교회 뜰에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건립하였다.<sup>42</sup>

### (6) 일본 메도디스트교회 및 조합교회

일본 개신교 3대 교파의 하나인 일본 메도디스트교회는 1904년 4월 조선 전도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서울에 교회를 세우고 일본인만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였다. 경부철도 개통에 따라 수원에는 일본인 거주지가 생겼고, 일본 메도디스트교파 수원교회가 수원시 매산리에 세워졌다.<sup>43</sup>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중교회 성격인 일본 조합교회도 세워졌다. 1913년 7월 수원교회가 설립되었고, 1916년 7월 팔탄교회가, 1916년 10월 남양교회가, 1917년 2월에 활초리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운영 자금은 교인이 아닌 일본의 유수한 정계와 재계 실력자들이 제공하였고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적극 지원하는 '친일적' 교회의 성격이 강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조선회중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sup>44</sup>

## 2. 개신교인의 지역활동과 사회운동

### 1) 한말 교육운동과 사회활동

1900년 전후 수원에 수용된 개신교는 지역민의 가치관과 현실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으

41 이진호, 「기독교동신회, 송승, 조덕환, 김태희의 선교활동」, 『기진문화』 제10집,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92, 61~65쪽.

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 한국기독교 유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270쪽.

43 홍석창, 「개신교」, 『수원시사』 하, 수원시, 1997, 670쪽.

44 한석희 저, 김승태 옮김,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83~150쪽; 서정민, 『한일기독교관계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169~196쪽.

며 단순한 종교적 학습 차원을 넘어 시대 변화를 일깨우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종교적 차원을 벗어나 일상적 삶의 변화라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었는데, 신분제 질곡에 신음하는 민중에게 위안을 주거나 안식처를 제공하였고, 특히 소외받던 여성에게는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수원 중심지에 설립된 종로교회는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 지역을 포함하는 선교거점지의 역할을 하였다.<sup>45</sup> 초기 기독교인들의 전도활동도 수원 시내 중심에서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교회’ 옆에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 수원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수용되면서 근대적 교육운동도 출발하였다. 기독교 수용과 함께 1902년 삼일여학당이 설립되었다. 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선교사·전도사·교인이었다. 삼일여학교 교사 김메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시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격수양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강연회 개최를 통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학부모들에게 강조하였다. 교사이자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교사 김메레에 대한 존경심은 학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sup>46</sup>

남자학교로 삼일학교(三一學校)도 출발하였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의 고양과 국권 회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내세우며 ‘사립삼일학교설립촉성회(私立三一學校設立促成會)’가 세워졌다. 주요 발기인은 삼일여학당 설립을 주도한 이하영·임면수·나중석·차유순·김제구·이성의 등이었다.<sup>47</sup> 1903년 5월에는 수원종로교회 예배당 안에서 삼일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삼일학교 발기인들 대부분은 이후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원으로 애국계몽운동에 가담하는 인물들이다.<sup>48</sup>

삼일학교는 1908년 학교의 경영권이 북감리회 선교부로 이양되면서 종교계 학교로 발전하였다.<sup>49</sup> 학교 운영권이 북감리회 선교부로 이양된 것은 일제 통감부의 「사립학교령」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 즉 선교사들에게 학교의 경영을 맡김으로써 민족교육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학교운영권의 감리교회 이관은 「사립학교령」 시행에 따른 탄압을 모면하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1900년대 말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던 삼일학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면서 민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립 직후 곧바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1906

45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44~59쪽.

46 김형목, 「한말수원 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22~23쪽.

47 김세환,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34~37쪽.

48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민족교육의 성장과 실시」, 『수원문화사연구』 3, 1999, 211~213쪽.

49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민족교육의 성장과 실시」, 『수원문화사연구』 3, 1999, 214쪽.

년 5월 부호 강석호가 거금을 의연하는 한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장학금'을 회사하였다.<sup>50</sup> 나중석도 부지 900여 평을 기증하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수원 전 주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져 삼일학교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다.

1906년 9월 1일 심상과와 고등과로의 개편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이었다. 1년 과정인 심상과 교과목은 성경·국어·역사·한문·산술·영어·체조 등이었다. 3년인 고등과는 성경·한문·국어·수신·생리·광물·문리·산술·본국역사·본국지리·만국역사·만국지리·작문·도화·체조 등이었다. 교과과정 정비는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체조는 매우 중시된 교과목 중 하나였다. 군사훈련을 버금가는 군대식 체조와 행군은 학생들에게 상무정신을 고취시켰다. 담당교사는 구한 국군 출신인 강건식에 이어 송세호였다.<sup>51</sup> 이에 부응하여 교장 임면수도 관내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등 교육가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삼일학교는 수원을 대표하는 근대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09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학생이 400여 명에 달하여 경기 일대에 교육계에서 소리를 칠 만큼 융성하였고, 지금의 수원의 중진인물은 거의 다 동교 출신"<sup>52</sup>이라고 할 만큼, 삼일학교는 수원 지역의 근대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당시 15세인 삼일학교생 이대순(李大舜)은 1907년 가을 자기 집에 야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국문을 깨우친 수료생 8명에게 수료증서를 발급하였고, 보통과정 개설을 계획하였는데 학생이었던 차석우도 동참하였고, 서울에 사는 윤창렬은 의연금을 회사하였다.<sup>53</sup>

한편 수원 지역 기독교인들은 한말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일본이 한국정부에 빌려준 차관을 빌미로 침략을 가속화하자, 이에 국민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었다.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등의 발의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 등의 대대적인 보도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병엽·윤홍섭·박규순 등 60여 명은 「국채보상포고문」을 발표하였고 국채보상 중앙의무사, 대한매일신보사는 각각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각지에서는 국채보상 의연금 모금을 위한 취지서를 발표하고 관련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1907년 8월까지 조

50 「姜氏助校」,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 잡보; 「光武十一年六月日水原三一學校贊成金額」,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광고.

51 김세한,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65-73쪽.

52 「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53 「寄附三校」,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6일 잡보.

직된 단체는 최소한 100여 개소 이상에 달할 정도였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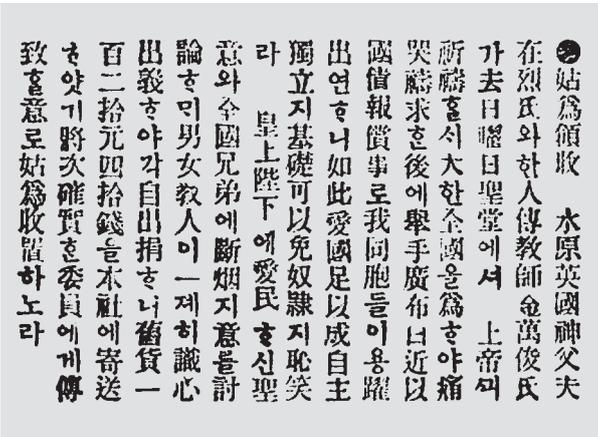
수원 지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의연금을 모금하였고, 기독교인들이 이를 주도하였다.<sup>55</sup> 종로교회 교인이었던 김재구·이하영·임면수 등이 발표한 「국채보상 취지서」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취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국민의무는 애국에 있으며, 정성스러운 애국은 오로지 보국안민과 관련됨을 일일이 논할 필요조차 없다. 1,300만 원 외채에 관한 여러 풍설이 나라 안에 전파된 이후로 유지한 선비와 백성이 서로 돌아보며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상불 분발하여 창론함에 이거역의 외채를 갚을 계획이다. 다행히 충의와 뜨거운 정성이 먼저 영남의 신성한 땅에서 일어난 단연동맹이 우리 2천만 동포의 뇌리를 고동(鼓動)하여 마을의 우부차부(愚夫痴婦)와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 병든 걸인까지 힘을 다해 의연하는 자가 구름같이 모여들고 물 솟듯하는지라…… 충의가 격동함에 선후를 헤아리지 아니하여 이에 한 조직을 만들고 감히 취지서를 공포합니다. 기내(畿內) 동포여, (금액의) 다소를 불구하고 힘껏 의연하여 외채를 보상함으로써, 우리 삼천리 강토를 보전하고 우리 2천만 생명을 보존하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sup>56</sup>

이들은 국한문으로 된 취지서 수백 매를 자비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재물을 가볍게 여긴다.”는 취지로 거리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가 애국’임을 강조하고, 국채보상운동의 참여를 호소하는 취지서를 경기도 각 군에 배포하여 20일 만에 500여 원의 의연금을 모았다.<sup>57</sup> 특히 성공회 수원교회 브라이들 신부의 참여는 교인들의 각성과 동참을 촉진시키는 큰 기폭제가 되었다.<sup>58</sup>

이렇게 수원 지역 기독교계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수원성공회(『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7일)

54 김형목, 「한말 수원 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4-15쪽.  
55 「兩氏愛國」,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잡보.  
56 대구상공회의소, 『대구단연국채보상발기90주년기념 국채보상운동사』, 1997, 117-118쪽.  
57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197쪽.  
58 「姑爲領水」,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1일, 잡보; 「국채보상의연금수입」,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5일, 광고; 「국채보상의연금수입액」,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9일, 광고.

일제의 탄압 아래서도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인물을 배출하고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앞장섰다. 그중 1900년대 삼일학당과 수원엠티(懿法)청년회는 수원 지역에서 계몽활동가를 양성·결집시키는 기반이 되어 개신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sup>59</sup>

이 외에도 한말에는 수원 지역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사는 안중후와 홍원식은 1905년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의 권유로 개신교에 입교하여



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사목했던 사제들(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가운데가 브라이들 신부이다.

제암리에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활동을 펼쳤다. 동시에 항일사상을 고취시키고 동지를 규합하여 민지계발을 위한 계몽활동에 앞장섰다. 천도교인과 함께 ‘애국동지회’를 결성하고 일본 헌병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sup>60</sup> 또한 이들은 제암리교회 안에 한글강습소(서재)를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처럼 한말 수원 지역의 기독교계는 교회라는 종교조직과 함께 학교기관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근대적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 2) 수원 지역 기독교계와 3·1운동

1910년대 기독교에 대한 일제 탄압은 오히려 기독교계의 반일 의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회가 곧 정치집단은 아니지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식민지 통치권력에 의해 완전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종교 공동체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조직이었다. 이런 조직은 식민지 현실에서 독립의 가능성을 찾는 수많은 민족인사들에게 모임의 공간이며 의사통로의 매개로 기능하였다.

이런 이유로 수원 지역에서 천도교와 함께 기독교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정치·사회 조

59 김세한,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34~39쪽.

60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655쪽.

직망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주일예배·수요예배, 각종 특별기도회와 부흥회, 사경회, 그리고 성경공부 등은 정치·사회적 활동이 금지된 한국인들과 기독교세력에게 합법적인 매체의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수원 지역 기독교계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과 연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초기부터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았다.

또 수원 지역은 한국의 중심부이며 남북으로 철도와 도로가 관통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서울의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개되던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게다가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의 각종 민족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런 수원 지역의 사회·지리적 환경으로 기독교세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혁명·독립 및 국제변화의 조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울의 기독교세력과 직접 연결되었기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수원 지역 기독교인에게는 민족의식과 결합된 기독교적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사람이자 수원 지역의 3·1운동의 핵심인물인 김세환은 “아무리 세계대세 때문에 병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있어,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초목에서 흐르는 이슬도 눈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정정당당히 조선 사람은 권리를 찾고 일본 사람은 권리를 반환할 시기가 돌아올 줄 알았다.”<sup>61</sup>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즉 3·1운동을 단순히 민족 자유와 독립을 되찾는 것이라 보지 않았고 기독교적 이념에서 민족이 자주적 독립과 자유를 되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소명이라고 인식하였다. 이 외에도 남양구역의 담임 교역자로 제암리교회와 수춘교회를 맡아 활동했던 김교철이나 동석기 목사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배양하는 데 힘썼다.

수원 지역 기독교계의 3·1운동은 경기도 지역에서 여러 명을 민족대표로 참여시키는 역할을 한 김세환의 활동을 통해 준비되었다.<sup>62</sup> 수원종로교회 교인으로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던 김세환은 1910년대 수원상업강습소 소장과 삼일학교 교사를 역임하였고 3·1운동 직전에는 삼일학교 학감이 되어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다.<sup>63</sup>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세환은 미국 감리회 전도사이자 서울 YMCA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61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295쪽.

62 김세환에 대해서는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기독교민족운동」, 『승실사학』 18, 승실사학회, 2005를 참조.

63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133쪽.

박희도와 친밀하게 지냈다. 그는 1919년 2월 10일경 박희도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의 계획을 전해 듣고 2월 21일 이갑성의 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서 수원과 충청 지역의 운동을 준비하는 '순회위원'이란 책임을 맡게 되었다.<sup>64</sup>

그는 해미읍 감리교회에서 열린 사경회를 인도하러 온 홍성교회의 김병제 목사에게 운동계획을 설명하고 민족대표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고, 수원으로 돌아와서는 남양교회의 동석기 목사를 만나 운동계획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다. 당시 남양구역의 책임자로 평소 사강·비봉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며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던 동석기 목사는 일찍이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까닭에 영국과 미국의 외교관과 친분이 있었고 따라서 당시 세계정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쉽게 승낙했던 것이다.<sup>65</sup>

다음 날 김세환은 이천교회 이강백 목사를 만나 승낙을 받았고, 이후 오산교회의 김광식 목사를 만났으며, 마지막으로 본 교회의 임응순 전도사를 만나 승낙을 받았다.<sup>66</sup> 그러나 40여 명의 동조자를 얻어 민족대표로 서명하고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김세환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독립선언서의 기명이 끝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는 독립선언서에 기명하지 못하였다.

김세환은 1919년 2월 말 전국적인 만세시위에 동참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수원상업강습소에서 개최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 수원상업강습소 소장을 역임하였던 김세환은 당시 자신의 학생이었던 김노적을 수원면 만세시위 인원 동원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박선태, 임순남, 최문순, 김석호, 김병갑, 이희경, 이선경 등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상업강습소와 삼일여학교 출신으로, 김세환이 가르친 제자들이었다.<sup>67</sup>

김세환은 서울에서 진행되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설명하고, 수원에서 서울과 같이 3월 1일 정오에 삼일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미리 감지했다는 정보가 있자, 이날 거사는 3월 1일 저녁 햇불시위로 대체되었다. 3월 1일 저녁 수원 북문 용두각에 수백 명이 모였고, 화성 동쪽의 봉수대에 햇불이 밝혀지자 이를 신호로 독립만세시위가 펼쳐졌으며, 팔

64 김양선, 「3·1운동과 기독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249~251쪽.

65 김익진, 「동석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221~223쪽.

66 민족대표로 김세환에 승낙했던 수원종로교회의 임응순 전도사는 3·1운동 이후 책임을 지고 종로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67 이제재, 「수원지방 독립운동 선구자 김노적 선생」, 『수원의 옛 문화』, 효원문화인쇄, 1995, 154~155쪽.



김세환의 수형기록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달산 서장대를 비롯한 20여 곳의 성곽에서도 일제히 봉화가 타올랐다. 이때 남문 밖 객주에 묶고 있다가 만세시위에 참여한 시골 상인을 통해 시위는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다.<sup>68</sup>

그러나 이날 이후 수원면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만세시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고 3월 16일까지 수원면에서 이렇다 할 만한 만세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학생들이 수원의 야간 횃불만세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세환은 서울에서 3·1운동 계획한 48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밝혀져 서울로 압송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다. 특히 김노적도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개머리관으로 맞아 머리 한쪽이 함몰되었고 왼쪽 손목은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sup>69</sup>

수원 만세시위를 준비한 지도자급 인물들이 연행됨으로써 지도자 공백상태에 빠진 만세시위는 다시 3월 16일 장날 수백 명이 참여하여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연무대에서 각각 수백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종로를 향해 몰려들

68 이병헌, 『3·1운동 비사(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69 김권경,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 교육』 11, 역사와교육학회, 2010, 66-67쪽.

었다.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아마도 이날의 시위는 청년·학생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주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일제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천도교구에 난입하여 천도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폭행한 점과, 김세환이 학감으로 있던 삼일여학교에도 습격하여 사무실을 파괴한 점으로 알 수 있다.<sup>70</sup> 천도교구와 삼일여학교에 대한 난입은 일제가 만세시위운동을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한 데서 나타난 대응방식이었다.

3월 중순부터 수원 시내를 중심으로 불붙듯이 일어난 만세운동은 3월 25일 장날을 맞아 더욱 거세게 전개되었다. 특히 청년·학생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는데, 29일에는 300여 명의 기독교인·학생·일반인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시위를 펼쳐 관공서 및 민가 여섯 채가 파괴되기도 하였다.<sup>71</sup>

### 3) 제암리사건과 교회의 피해

수원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는 수원 밖에서 더욱 적극 전개되었다. 장안면·우정면·향남면의 기독교인들은 천도교인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였다.<sup>72</sup> 우정면과 장안면은 일찍이 동학이 전파되어 1910년에는 8개의 전교실이 있을 정도로 천도교 교세와 활동이 활발한 곳이지만, 1905년을 전후로 개신교가 전파되면서 수촌리·장안리·제암리에 교회가 설립되고 전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온 향남면 제암리교회 안중후 권사는 천도교 남양교구 순회전도사인 백낙열, 팔탄면의 김성열과 함께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4월 1일 개죽산의 봉화를 시작으로 모든 봉우리에서 봉화가 오르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발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수비대가 총을 쏘며 쫓아왔다. 하지만 다음 날도 동리마다 산마루에 불을 피우면서 밤새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3일에 장안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 김현묵에게 시위에 동참할 것과 시위의 선두에 설 것을 종용하여 면장에게 태극기를 들게 하였다. 일부는 쌍봉산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면사무소를 부수고 면사무소의 집기와 서류를 꺼내와 불태웠으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2,000여 명의 시위 참석자들은 화수리주재소로 향해 행진했는데, 주재소에 있던 일본인 순사 가와바타(川端豊太郎)가 군중들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시

70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7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10년대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292쪽.



위자 중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 군중들은 주재소를 습격하여 가와바타 순사를 처단하고 주재소를 불태웠다.

이에 일제는 다음 날 수비대 1개 소대 병력을 동원해 화수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총을 난사하였다. 아직 피하지 못한 화수리 주민들은 일본 수비대에게 참혹한 보복을 당했다. 거의 모든 집들이 불태워졌고, 만세시위를 이끌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수촌리의 수촌교회도 수비대에 의해 불태워졌다. 이 과정에서 수촌리에 거주하며 수촌교회에 다니던 교인인 차인범, 김응식, 김덕삼, 김종학, 김명우, 김교철, 박경모가 체포되었다. 그중 18살의 나이였음에도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10년 형을 받았던 차인범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국하였다.<sup>73</sup>

또한 김교철은 당시 수촌교회와 제암리교회를 담당한 전도사로, 수촌리에 상주하면서 제암리교회까지 목회를 하고 있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제암리 이장인 안중후 권사와 홍원식 권사에게 제암리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수촌리 교인과 동민을 지휘하여 장안·우정면 만세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74</sup>

한편 향남면 제암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천도교인들과 함께 3월 31일 발안에 장이 서는 날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후 지속적인 시위 방법으로 야간 횃불시위를 준비하여 4월 2일 지내산에 올라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발안 장날 시위와 야간 횃불시위에 적극 참여한 제암리 교인들에 대한 정보가 제암리 출신 순사보 조희창(趙熙章)을 통해 일본 경찰에 보고되었다.<sup>75</sup>

발안에서의 시위가 대규모로 격렬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모자 검거에 실패한 아리타 도시오(有田後夫) 중위는 행동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3·1운동 중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제암리학살사건’의 시작이었다.



수감된 김교철 전도사

72 우정·장안면 3·1운동의 일반사적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9, 독립기념관, 1997을 참조.

7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 1994, 282~286쪽.

74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196~197쪽.

75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51~53쪽.



파괴된 제암리교회

보병 11명과 발안주재소 순사 1명, 순사보인 조희창을 대동하고 제암리에 도착한 아리타 중위는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교회 안에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일본군은 문을 잠근 뒤에 석유를 뿌리고 교회에 불을 질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다시 인근 팔탄면 고주리의 천도교인 6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웠다. 제암리교회 안팎과 고주리에서 죽은 사람이 총 29명이었다. 고주리에서 희생된 천도

교인 6명을 제외하면 제암리교회에서 희생된 사람은 23명으로 천도교인 11명, 감리교인 12명이었다. 결국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은 천도교와 기독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이 사건은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외교관과 외신기자, 선교사들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선교사들 가운데 언더우드와 스코필드는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와 난민 구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영국의 대리영사와 노블을 비롯한 감리교 선교사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보내어 세계 여론과 세계 교회에 그 진상을 알렸다.<sup>77</sup>

이 밖에도 의왕면 고천리에서 800여 명의 기독교인·천도교인·농민이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군중들은 지리대고개에서 횃불을 높이 들어 수원 읍내까지 비치도록 하고 만세를 부르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했다가, 일본 수비대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이날 체포된 46명은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받았다. 반월면에서도 600명의 기독교인·천도교인·농민이 평화시위를 벌였으며, 동탄면에서는 천도교인 박두병·김재천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게릴라식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sup>78</sup>

76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61~66쪽.

77 김승태,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104~114쪽.

7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6, 315~316쪽.

당시 제암리사건과 관련해서 수원 지역 감리사였던 선교사 노블은 그해의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암교회에서 일경에게 피살된 이가 23인이나 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참배하는 이들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구역 내의 교인 334명 중 173인은 살해되었거나 옥에 갇혔고 또는 도망하였습니다. 제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이런 예측치 못한 일을 당하여 악형과 총검의 위협을 보았으나 신앙심을 더욱 돈독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죽음은 언제든지 올 것이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예배당에 가지 말라 일병이 또 올까 두렵다고 항상 말하니 이것이 어렵습니다.<sup>79</sup>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3·1운동 참여는 일제의 엄청난 물리적 탄압을 받았고, 그 때문에 수원 지역 기독교인들의 피해상황은 컸다. 그만큼 이 지역의 만세운동이 격렬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수원 지역 감리교 선교책임자인 노블 선교사가 수원 지역의 피해를 연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목사 5인과 인도자 13인이 수감되었고 교인 13인이 일경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52인이 없어졌습니다. 목사 3인은 풀려나고 1인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남양과 제암과 오산구역에 7개 교당이 일경에게 파괴를 당하였고, 그 근방에 329채의 가옥이 불타 1,600 명이 거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근방의 참사자의 수를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믿을 만한 소식에 의하면 신자와 불신자를 합하여 82명이라 합니다. 파괴된 회당 3개 처는 재건축되었고, 기타 3개 처는 건축 중입니다.<sup>80</sup>

수원 지역의 기독교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상자와 교회 및 가옥 피해 등이 컸던 것은 제암리교회의 집단학살사건처럼 일제의 물리적 보복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수원 지역은 감리교회 선교구역으로 감리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석했으며, 이에 따라 일제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복도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79 미감리회연회, 「수원지방 감리사 보고」, 『미감리회 제12회 연회록』, 1919.

80 미감리회연회, 「수원지방 감리사 보고」, 『미감리회 제12회 연회록』, 1919.

#### 4) 1920년대 기독교계의 사회운동

3·1운동에서 일제의 탄압으로 수원 지역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은 항일의식을 갖고 일제에 저항적인 사람들을 한순간에 공포에 몰아넣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이후 수원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은 일제의 강화된 탄압을 피해 비밀결사형태로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실력양성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수원 지역에서 일제의 감시를 뚫고 가장 먼저 조직되었던 것은 비밀결사단체인 혈복단(血復團)이었다. 이 단체는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비밀결사로 활동하던 대한독립애국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인으로 서울에서 기독교계 학교에서 교사로 있던 신현구(申鉉九)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애국단은, 임시정부의 선전·통신 연락, 자금 수합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조직원의 상당수가 일제의 체포되자 다시 혈복단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 단체는 조선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독립을 위한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sup>81</sup>

혈복단이 수원에 지부를 둔 경위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경성기독교 청년회관 학생으로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학하던 기독교 청년 이득수(일명 이종상)와 박선태의 만남이 수원 혈복단 결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중에 체포되어 20일 동안 구류를 살 정도로 항일의식이 철저했던 이득수는 자신의 한문교사이자, 당시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발간 및 배포에 관여하던 차관호를 통해 임시정부와 연계되었다. 그는 삼일여학교 여교사 차인재와 함께 수원면 내의 조선인 각 집에 『독립신문』을 배포하던 중 서울로 통학하고 있던 기독교인 박선태를 만났다. 당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생각하던 박선태는 수원을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해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득수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결국 1919년 말 수원 혈복단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sup>82</sup>

혈복단을 조직한 박선태와 이득수는 1920년 6월경 수원 지역에 『독립신문』 배포와 적십자회원 모집을 위해 여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차인재의 알선으로 당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인 임순남과 최문순, 경성여자고등학교 3년생인 이선경을

81 장석홍, 「대한독립애국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1987, 182-192쪽.

82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경기사학』 2, 1998, 170-171쪽.

가입시켰다. 이들은 모두 수원에 거주하며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로 수원종로교회의 교사로 활동하던 기독교청년들이었다.<sup>83</sup>

이들은 1920년 6월 20일 혈복단을 구국민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일합방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다.<sup>84</sup> 『독립신문』의 입수와 배포에 적극 나섰던 구국민단은 조직 확대를 위해 수원에 거주하는 김노적, 김석호, 김병갑, 이회경 등에 대해 동지가 될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김세환과 함께 3월 1일 수원면 햇불만세시위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 조직을 이끌던 박선대, 이득수, 임순남, 이선경이 1920년 8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음에 따라 사실상 구국민단의 존재도 끝나게 되었다.<sup>85</sup>

비밀결사체인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활동은 3·1운동 이후 수원 지역 기독교계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것은 이 단체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수원 종로교회와 삼일학교가 이들의 활동 중심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박선대는 성공회의 진명구락부에서 운동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원군에 있던 주요 청년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임순남은 감리교회에서 조직한 여성청년단체인 여보호회에서 총무로 활동하는 등 이들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종교단체를 활용하여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였다.<sup>86</sup>

한편 혈복단과 구국민단 이후 수원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교육·사회·종교·문화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27년 민족협동전선으로 창립된 신간회에도 적극 참여하였다.<sup>87</sup> 신간회가 창립될 당시 수원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적극 참여하던 사회단체로 김노적의 진명구락부(성공회)와 김병호의 엽윗청년회(감리교)가 있었다. 이들 단체는 천도교와 함께 민족주의세력으로, 사회주의 계열과 협동전선을 펼치며 신간회 수원지회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88</sup>

특히 김노적과 김병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수원상업강습소 출신인 김노적은 3·1운

83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경기사학』 2, 1998,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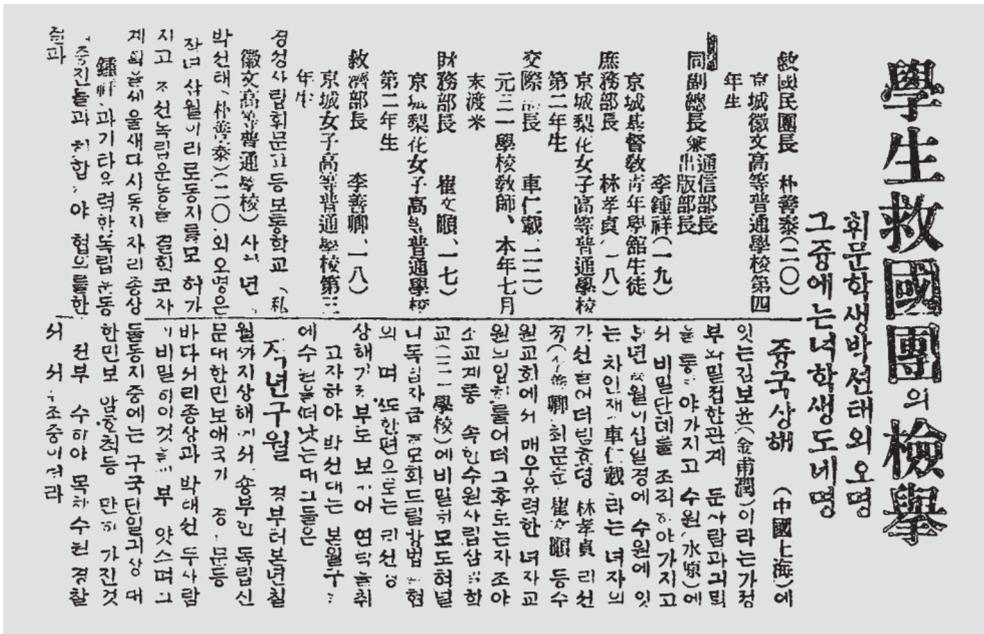
8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8쪽.

85 구국민단에 적극 참여했던 이선경은 일제의 심한 고문으로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오자마자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86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 교육』 11, 역사와교육학회, 2010, 75-76쪽.

87 신간회 수원지회 전반에 대해서는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의 신간회운동」, 『실학사상연구』 15·16, 모악실학회, 2000을 참조.

88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 활동」, 『경기사학』 4, 경기사학회, 2000, 135-136쪽.



구국민단 검거기사(『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동 과정에서 일제의 고문으로 거의 죽었다가 성공회 신부의 도움으로 살아난 뒤 성공회 신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성공회의 진명구락부를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수원구제회의 발기인, 수원소년군 대장 등을 역임하며 192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또 수원종로교회의 교인이었던 김병호는 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1927년에 엽잇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1920년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계 사회운동가로 신간회 수원지회에 참여하였다.<sup>89</sup> 김노적과 김병호가 회장과 총무간사 및 집행위원장을 맡아 대표적인 민족주의세력으로 신간회 수원지회를 이끌어 나갔다.

교세가 강했던 천도교나 사회주의세력이 아닌 기독교계 인사가 수원지회 회장과 총무간사 및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세력이 강했음을 의미하여 이를 맡은 기독교인들이 수원 지역에서 사회적 명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89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 교육』 11, 역사와교육학회, 2010, 66-67쪽.

### 3. 해방 후 개신교의 성장

#### 1) 해방 후 교회의 설립과 교세 성장

8·15해방과 함께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각각 분할 진주하자 한반도는 분단되는 비극적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소련이 진주한 북한에서 사회주의세력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자, 사회주의적 정책에 핍박을 받는 이들이 남하(南下)하였다.<sup>90</sup>

사상과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남하한 사람들 중 수원에 정착한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당시 기독교 교파가 분립이 되어 지역에 따라 특정 교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선교 상황에서 좁은 지역에 다양한 교파의 선교회가 거의 동시에 진출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선교지역 분할협정'을 선교회 간에 맺고 있었다. 이 협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례적으로 지역에 따른 교단 분할로 이어졌다. 초기 수원 지역은 감리교 선교지역으로 분할되었고, 따라서 1945년 해방 당시 수원 일대 개신교회는 성공회와 성결교를 제외하곤 감리교회뿐이었다.

북한에서 남하한 장로교파 교인들은 수원에서 다닐 교회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낯선 수원에서 적응하기도 힘든 처지에 교회마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인 지라 선뜻 교회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남하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문제로 고민하였고 이들 가운데 수원에 장로교회를 설립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도 나타났다. 북한에 거주하다 남편을 따라 남한으로 내려온 수원경찰서장 광수림의 아내 김갑희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46년 11월 27일 김갑희 집에서 장로교 임춘성 목사와 장순덕 전도사, 그리고 당시 서울농대 교수인 현신규, 이태현을 비롯한 장로교회 교인들이 모여 첫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 수원교회의 출발이었다.<sup>91</sup>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속에서 수원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수원 지역에 자리를 잡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3년 개최된 제38회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되자 수원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다. 분열의 원인은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대의원과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대의원의 대립이었다. 총회에서 자유주의 신앙을 주장하

90 김양진,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62~70쪽.

91 수원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2008, 42~49쪽.



돌집교회라 불리는 수원교회

는 김재준 목사를 파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sup>92</sup> 장로교는 ‘예수교장로회’와 ‘기독교장로회’로 분열되었고, 수원교회는 ‘기독교장로회’에 속하게 되었다.<sup>93</sup>

이 과정에서 수원제일교회가 설립되었다. 수원교회에서 자유주의 신앙을 비판하며 보수주의 신앙의 기치 아래 모인 교인들이 1953년 4월 지금의 수원시민회관 자리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예배당 건축 공사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사현 목사를 초빙하여 다음 달 5월 교회 이름을 ‘수원제일교회’로 정하였으며,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 예배당 부지와 목사 사택을 매입하였다. 수원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장로교회인<sup>94</sup> 수원제일교회는 한국전쟁으로 피난 온 교인들을 수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교회가 분리되는 현실에서 보수주의 신앙의 교회를 세우야 한다는 필요에서 비롯되었다.<sup>95</sup>

9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86-89쪽.

93 수원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2008, 83-88쪽.

94 수원제일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제일교회 50년사(1953-2003)』,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제일교회, 2008, 157-162쪽.

95 수원제일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제일교회 50년사(1953-2003)』,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제일교회, 2008, 145쪽.



이태현 장로의 사가를 개축한 농천교회(농천교회, 『농천교회 60년사』, 2010)



농천교회 졸업생 송별기념(농천교회, 『농천교회 60년사』, 2010)

1950년 4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인 이태현 교수의 집에서 농천교회(農泉教會)가 시작되었다.<sup>96</sup>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서울대 농대와 관련 있는 인물들로, 기독교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 “농촌, 농민 속으로 들어가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알의 썩은 밀알로 살자.”는 의미에서 ‘농천’이라 하였다. 예배 장소는 신안공사 소유의 목조건물이었으며, 학생들은 서로 위로하며 헌신하였는데, 교회 예배당 정면에는 교회 이름에 버금가게 ‘서울농대 기독교학생회’라는 간판을 걸었다. 때마침 서울대 농대 기독교학생회의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스코트는 농천교회의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여 주기도 하였다.

1950년대 초 농천교회에서도 ‘김재준사건’에 따른 장로교의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1953년 9월 농천교회에서 서둔교회가 분립하여 나아갔다.<sup>97</sup> 이것은 농천교회에 큰 시련을 주었고, 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와 합치는 문제까지 대두할 정도였다. 그러나 1966년 이봉빈 장로가 장립(將立)하고 백형기 목사가 부임하면서 조직교회로서 자리 잡았다. 1972년 5월 고등동 268번지에 교회건물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교동에서 이순호 장로 개척으로 시작된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최성업 목사의

96 농천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농천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농천교회, 2010, 89~96쪽.

97 농천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농천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농천교회, 2010, 101~104쪽.



수원중앙침례교회(1976년)

뒤를 이어 김장환 목사가 부임하면서 성장하였다. 그 후 1955년 수원 순복음교회가 세워졌고, 1957년 7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수원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58년 수원 구세군교회가 세워졌다.<sup>98</sup>

1964년 4월 수원시 영화동 1번지 국립보훈원 강당에서 창훈대교회가 설립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상이군경과 전쟁미망인, 그리고 유자녀 등이 한명수 전도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출발하였다. 당시 상이군인으로 재할원주택에 거주하던 권오은 집사와 이순희 집사 내외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보훈원 강당을 예배소로 사용하면서 함께 사역할 교역자를 구하던 중 한명수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해 7월 예배당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연무동 229-27번지에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조직교회로서 발전하였다.<sup>99</sup>



창훈대교회(창훈대교회, 『창훈대 40년사』, 2004)

한편, 감리교 수원종로교회도 해방 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였다. 당시 정등운 목사는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1949년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원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수원종로교회 재건을 위

98 홍석창, 「개신교」, 『수원시사』 하, 수원시, 1997, 671쪽.

99 창훈대 40년사 편찬위원회, 『창훈대 40년사(1964-2004)』, 대한예수교장로회 창훈대교회, 2004, 2-4쪽.





성공회 수원교회

해 15만 원 상당의 재원을 헌금하기도 하였는데, 헌금자 중에는 수원종로교회 교인이 아닌 수원 지역의 비신자인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00</sup> 이는 종로교회가 단순한 개체교회 의미를 넘어 수원을 대표하는 개신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의 경기도 전 지역을 대표하는 감리교회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해방 이후에도 종로교회는 수원 지역 감리교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8·15해방 이후 성공회 수원교회는 추방되었던 쿠퍼 주교가 국내에 귀환하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10월 쿠퍼 신부의 후임으로 수원교회 제3대 관할사제가 된 김인순 신부가 1956년 은퇴할 때까지

시무하였다. 1948년 5월 수원교회에 부설된 성피득보육원의 신임원장으로 조정자가 부임하였는데, 그는 청주교회의 전도부인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다.<sup>101</sup> 1982년 9월에는 새로운 성당이 건축되었는데,<sup>102</sup> 유서 깊은 성피득보육원 자리에 현대적으로 건축되었다. 이 성당은, 서울교구의 자립기반을 위한 성공회회관 건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교회의 대지 일부를 매각한 데에 따른 보상이었다.

## 2) 해방 후 개신교계의 사회운동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으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실시되었다. 남한은 미군정 아래 무려 40여 개 이상의 정당들이 난무하며 좌우익의 집회와 테

100 수원종로교회사,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190~191쪽.  
 101 이재정, 『대한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 출판부, 1990, 220쪽.  
 102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100년사』, 2004, 46쪽.

모 그리고 폭력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우익세력을 지지하였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남하하여 공산정권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에 맞서 교회가 일치해 싸워 줄 것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산주의 단체에 맞서 싸운 독립축성회의 각 면의 책임자가 대부분 기독교 목사 아니면 장로였다.<sup>103</sup>

이런 가운데에서도 좌우익의 대립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교회 내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 중의 하나가 수원종로교회였다. 해방 후 담임목사가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세력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원로목사는 좌익 계열로 우익세력과 대립하였다. 한 교회 공간 안에서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가 이념적으로 대립하였던 것이다.<sup>104</sup>

한편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가 사회 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을 몰락시킨 4·19혁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는 국가권력이 독재화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언자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치권력과 유착된 모습을 보인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 교회 내 각종 이단의 출몰과 교단의 분열현상도 이를 가속화시켰다.<sup>105</sup> 수원 지역의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였는데, 4·19혁명이 수원농업고등학교와 서울대 농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sup>106</sup> 기독교계의 조직적 참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삼신개헌과 1970년대 유신체제에 맞선 진보적인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sup>107</sup> 수원 지역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와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이 펼쳐졌다. 두 교회는 비록 정치사회단체가 아닌 신앙적 종교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수원 지역 민주화 인사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고, 이 두 교회를 담당하던 담임교역자들은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성공회는 1960년대 중반부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고, 자립의 소극적 단계를 넘어 사회참여의 선교적 사명을 지향하게 되었다. 1972년 이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발동과 함께 진행된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특

103 홍석창, 『개신교』, 『수원시사』 하, 수원시, 1997, 673-674쪽.

104 이에 대해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187-189쪽 참조.

105 서광일, 『4·19혁명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8년 4월, 145쪽.

106 윤상진, 『수원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129-150쪽 참조.

107 1970년대 한국교회 민주화운동 논리에 대해 김권정, 『197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숭실사학』 13, 숭실사학회, 1999를 참조할 것.

히 서울교구는 '사회정의와 교회의 현실참여'라는 교구의 실천 목표를 설정하였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고자 하였다.<sup>108</sup>

성공회 서울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성공회 수원교회는 이런 교단과 서울교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1970년대 후반 관할사제였던 박윤구(로렌스) 신부는 학생회와 청년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청년학생들과 잘 어울렸다.<sup>109</sup> 그는 수원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수원 지역의 교회 간 일치와 화해의 연합활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수원교회 공간을 민주화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여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에 많은 헌신을 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70년대 독재정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신앙과 양심의 수호를 위해 3·1민주구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정부와의 잦은 마찰로 한국신학대학의 학생과 교수, 교역자들이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육정책과 지침서」(1970), 「사회선언지침」(1971), 「신앙고백선언서」(1972), 「선교정책」(1973) 등 교단의 기본신학과 선교방향을 제시한 문서 등을 남겼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수원교회도 1970년대 유신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교회의 담임이었던 윤기석 목사는 유신정권 아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 설교를 하였다. 설교할 때마다 사모에게 수의를 준비해 놓으라고 말할 정도로 단단한 각오로 매번 설교 강단에 섰다. 경찰들이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여서 윤 목사의 설교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였고,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교인 몇몇은 과격한 설교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윤 목사는 교회에서 집회가 금지된 강연을 개최하여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sup>110</sup>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수원 지역의 청년학생들은 수원YMCA를 통한 탈춤반·기타반 등의 동아리모임을 결성하고 발표회를 통해 교회 청년과 학생들의 사회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각 교단 청년연합회가 결성되어 각종 기도회, 발표회 등 연대모임을 통해 군부독재의 실상과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며 점차 조직을 확대시켰다. YWCA를 중심으로 한 청년여성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여성운동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1984년 5월 17일 기독교청년들이 독재정권에 기습적인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조직이 확대되어 1984년 7월 15일 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수원EYC(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08 이재정, 『대한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 출판부, 1990, 281~290쪽.

109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100년사』, 2004,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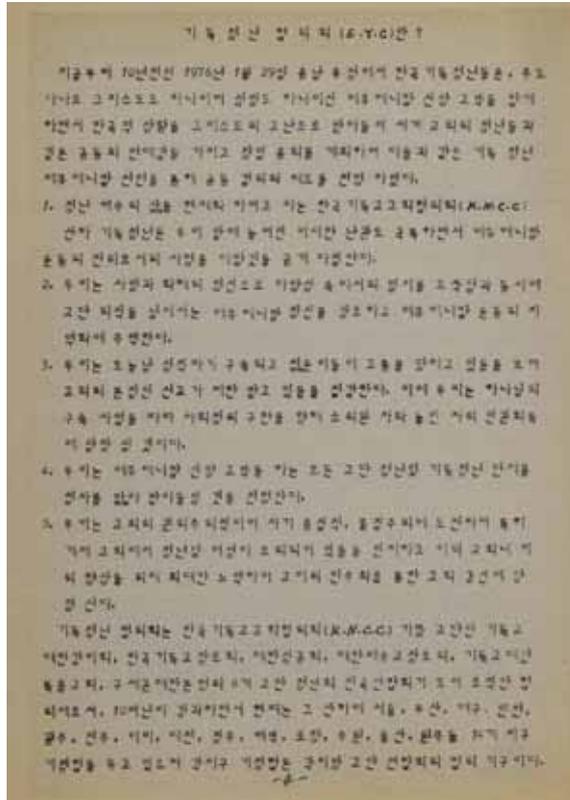
110 수원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2008, 271~278쪽.

수원지부)가 창립되었다.<sup>111</sup> 이 단체는 이후 수원 지역 기독교청년의 사회운동에 주요 거점이 되었다.

1980년대 수원 지역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은 1985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수원지역인권위원회가 창립되어 각종 인권예배, 기도회 개최 등 지역 내의 인권운동과 아울러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직접적 저항도 전개해 나갔다.

수원 지역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은 1987년 6월항쟁에서 그 두각을 드러냈다.<sup>112</sup> 1987년 1월 26일 수원 지역인권위원회와 수원EYC는 ‘고박종철군 추모기도회’를 공동주최하였고, ‘4·13호헌조치’에 맞서 수원 지역 목회자들은 삭발과 단식을 행하여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수원 지역 6월항쟁은 6월 3일 성공회 수원교회에서 경기 지역 단체 대표들이 모여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경기지구 평화대행진 준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6월 10일 평화대행진,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6월 2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평화대행진 등 6월 항쟁에서 수원 지역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기독교계는 통일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수적 교단에 소속된 창훈대교회는 한명수 담임목사와 더불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69년 교단 차원에서 ‘삼선개헌 지지성명’을 광고하고 했는데, 한 목사는 동의도 하지 않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비를 들여 일간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도



수원기독교청년협의회에서 발간한 EYC 결성에 관련한 유인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111 구본주, 「수원 지역의 6월항쟁」, 『6월항쟁을 기록하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2007, 243쪽.

112 구본주, 「수원 지역의 6월항쟁」, 『6월항쟁을 기록하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2007, 246-253쪽.



1987년 6월 18일 시위에 참여한 수원EYC 회원들(한규준 제공) 앞줄 왼쪽부터 김진춘 목사(안경), 한규준 목사, 백도기 목사, 김관수 목사, 박영모 목사, 이종철 목사, EYC 회장



1987년 6월 동수원감리교회 앞 시위(강석우 제공)

하였다. 이후 한 목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1990년대 이후 여러 번 방북하였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초대 총무로 북한 쌀보내기운동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0년 6·15선언 이후에는 '6·15선언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의 상임대표로 활동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sup>113</sup> 보수적 교단 소속 담임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교인들의 전폭적 신뢰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수원 지역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많은 개신교 교회가 설립되었고, 지역사회의 정치·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수원 지역 교회들은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신앙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수원제일교회는 지역 홀몸노인을 위한 푸드뱅크와 노인대학, 중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위한 치과 의료 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수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원중앙복지재단과 스완슨기념관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sup>114</sup>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버드내 노인복지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중앙보호센터, 수원 굿 월 등을 관할 운영하고, 이 외에도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sup>115</sup>

113 박명철, 「목회현장을 찾아서-창훈대학교회」, 『기독교사상』 통권605호, 기독교사상사, 2009, 181-184쪽.

114 「다시 빛과 소금으로(22) 수원제일교회」, 『동아일보』, 2011년 12월 23일.

115 「다시 빛과 소금으로(24) 수원중앙침례교회」, 『동아일보』, 2012년 1월 13일.



최지운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1. 공동체 의례
2. 개인 의례



## 제6장

# 수원의 민간신앙 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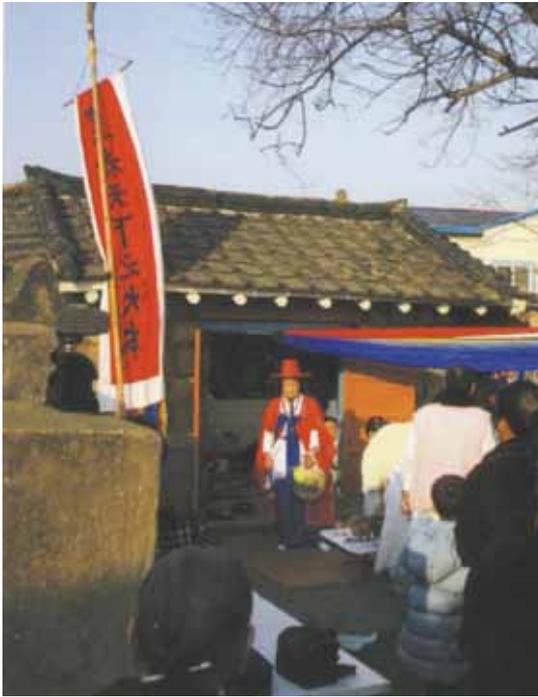
### 1. 공동체 의례

민간신앙에서 공동체 의례란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진행되는 의례로, 마을굿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마을굿은 수원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수원 지역 마을굿은 제의 형태에 따라 크게 무당굿 형태와 유교식 제사 형태 그리고 치성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무당굿 형태 마을굿

##### (1) 벌말 도당굿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의 대표적 무속 공동체 의례 중 하나인 도당굿은 마을 대동잔치로, 굿 날짜 정하기부터 굿 비용 마련, 제물 준비, 무당 초청 등을 모두 마을 사람들이 담당했다. 평동에는 2개의 도당이 있는데, 하나는 평동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벌말 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고색초등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말 도당이다. 두 당 모두 당



평동 별말의 당집(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굿』, 2006)



평동 별말 당집에 모셔진 신격(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굿』, 2006)

할아버지와 당할머니 내외분을 모시고 있는데, 주민들은 두 당에 모신 신격이 김부대왕 내외라고 한다. 별말 도당은 1월에, 큰말 도당은 10월에 당굿을 한다.

권선구 평동 별말에서는 정월 초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굿을 할 날짜를 정하고, 가정 내에 무탈한 사람을 당주로 뽑았다. 당주로 선출되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에게 올릴 제수를 준비했다. 이때 소용되는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추렴으로 모았는데, 집집마다 추렴을 다니는 것은 마을 부녀자들이 맡았다.

별말 도당굿은 크게 당주굿과 당굿으로 구성된다. 먼저, 당주굿은 선경직물 사장이었던 최종건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이때 대청마루에서 안당고사를 지내고 장독대 옆 터줏가리 앞에서 텃고사와 천룡고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대감항아리 앞에서 대감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다. 당굿은 부정굿부터 시작하여 돌돌이, 제석굿, 대감굿 등을 거쳐 뒷진으로 끝이 난다. 각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부정굿: 이 거리는 도당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굿판을 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돌돌이: 원래는 무당 일행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 하지만, 도당굿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여서, 현재는 당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 도당바래기: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의례 장소로 모셔서 즐겁게 해 주는 거리이다.
- 제석굿: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제석신을 위한 거리로, 이때 무당은 당공수를 하고, 만수받이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바라에 시주를 받는다.
- 신장굿: 이 거리에서 굿판에 모인 사람들은 올해 일 년간 자신의 운수를 보기 위해 신장기를 뽑는다. 무당은 돌돌 말은 다섯 색깔의 신장기 중 하나를 주민들로 하여금 뽑게 하고, 뽑은 깃발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일 년 운수를 일일이 봐 준다.
- 대감놀이: 무당은 이 거리에서 신장과 동일한 복장에 부채를 들고 대감타령을 하며 논다. 신장 굿에 이어 이때에도 무당은 굿판에 온 사람들에게 공수를 준다.
- 군웅굿: 군웅굿은 전체 도당굿 중 가장 중요한 거리 중 하나이다. 이 거리의 초반부 때 무당은 부정놀이 장단에 춤을 추다가 도살풀이로 군웅청배를 한다. 그 뒤 군웅님을 맞기 위해 애를 쓴 소임들의 거동과 준비과정을 말하고, 군웅님이 강남에서 나오시는 과정을 언급한 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군웅상을 싸고 네 방향에서 부정놀이 춤을 춘다. 돼지머리와 북어 두 마리를 들고 같은 춤을 추고는 징을 들고 치며 천근을 하고 잔잡이 후 방수밧이로 군웅굿을 끝낸다.
- 대동소지 올리기: 제물 마련을 위해 추렴을 다닐 때 돈이나 쌀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그 사람들의 소지를 올린다.
- 서낭굿: 화랭이는 서낭목 앞으로 가서 축원을 하고 떡을 떼어 주변에 뿌리고, 서낭목에 붙이기도 한다. 오색 베를 묶은 북어를 서낭목 가지 사이에 끼워 두고 상 위 막걸리를 주변에 뿌리고 굿을 마무리 짓는다.
- 대잡이: 대잡이에서는 서낭님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를 알아보고 대동의 한해 평안을 기원한다.
- 뒷전: 뒷전 때 무당은 뒷전상 앞으로 가서 북어 두 마리를 들고 자진굿거리에 맞추어 수비영산과 같은 잡신을 풀어먹인다.

## (2) 큰말 도당굿

도당굿은 3년마다 한 번씩 짝수 해에만 하고, 홀수 해에는 유교식 제사만 지냈다고 한다. 당제는 10월에 지내므로 9월에 마을 사람 중 가정 내에 무탈한 사람을 뽑아서 제관으로 선출한다. 제관으로 뽑히게 되면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도당굿을 지낼 때까지 부정한 것을 가리고 부인과 합방도 하지 않는다.

고색동 큰말에서는 마을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줄다리기, 풍물놀이, 당제, 도당굿 등을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제일 먼저, 당집에서 당제사를 지내는데, 당제사를 통해 당집에 좌정한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께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줄다리기를 한다는 사실을 고한다. 당집에서 당제사를 마치고 농악대가 마을을 돌며, 길놀이를 하고, 줄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그러면 제관이 용줄에 술을 붓고 용줄 고사를 지낸다.

여러 마을의 농악대가 연합하여 풍물놀이를 한바탕 벌인 후 줄다리기 장소로 이동하고,



큰말 당에서 유교식으로 올리는 당제(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굿』, 2006)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신명나는 농악판을 벌인 후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여성과 젊은이들이 한패가 되어 암줄을 당기고, 장년과 노년의 남성들은 한패가 되어 숫줄을 당긴다. 암줄과 숫줄 위에는 각각 처녀와 총각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올라타서 줄다리를 지휘한다. 줄다리는 처녀 분장을 한 이가 올라탄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는 언제나 여성과 젊은이들의 것이다. 줄다리가 끝난 후에는 줄다리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뒷풀이를 벌인다.

음력 7월 7일이 되면 당집에서 고사를 지냈다. 제관을 정하여 당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께 칠석맞이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칠석맞이 고사는 그 전승이 끊어졌다. 지금은 음력 시월 초순에 당집에서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께 제사를 지내는 것과 대규모의 도당굿만이 남아 있다. 10월에 벌어지는 마을 공동 제의는 유교

식 제사를 중심으로 한 ‘당제’와 무당굿 형태의 ‘도당굿’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행해져 왔다. 유교식 제사 형태인 당제 순서는 영신,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소지 올리기, 송신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사 중간에 축문도 읽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큰말 도당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초부정(거리부정): 대문 앞에 부정상을 차려 놓고 솔가지에 부정물을 찍어 사방에 뿌리면서 향 후 시작될 굿판을 정화한다.
- 수살맥이: 줄다리기에 사용될 창고에서 수살맥이를 하면서 안녕과 풍농을 기원한다. 이곳에서 수살맥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 장승 기능이 있던 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살을 막는 의식을 하고 당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 돌돌이: 무당들이 마을을 돌며 도당굿이 시작됨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당으로 오르는 절차이다.
- 부정굿: 이 거리는 화랭이가 굿판을 정화하는 의례이다.
- 도당 모셔들이기: 전국 명산에 계시는 산신을 청배해서 도당을 모셔 들이는 의식이다.
- 시루굿: 이 거리에서는 대동시루를 굿상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한다.
- 꽃반 축원: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온 쌀과 명주 꾸러미 등으로 이루어진 꽃반을 앞에서 각 가정을 축원하고 공수를 주는 거리이다.
- 제석 청배: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제석신을 영접하는 거리이다.
- 제석굿: 이 거리는 군웅굿과 함께 도당굿의 대표적 거리로, 무당은 바라를 팔면서 굿판에 모인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명과 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 손굿: 손굿은 천연두나 마마 같은 병을 주관하는 손님신을 잘 대우하여 그와 같은 병을 앓지 않기 위해 하는 굿거리이다.
- 대감굿: 대감굿은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대감신을 잘 대접하여 명과 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 군웅굿: 도당굿 중 가장 주요한 거리 중 하나로, 무당이 사방에 있는 잡귀잡신을 막기 위해 사방에 화살을 쏘는 등의 의례가 이루어진다.
- 서낭굿: 마을에 있는 모든 우환, 근심, 걱정을 몰아다가 소멸시키는 거리이다.
- 마당굿: 굿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면서 굿판에서 대접받지 못한 각종 잡귀잡신을 잘 대우해서 풀어 먹이는 거리이다.

### (3) 영동 거북산당 도당굿

현재 영동 거북산당에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보존회에 소속된 무당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음력 10월 7일에 도당굿을 지내고 있다. 거북산당 도당 할머니에게는 매월 초하루, 보름에 제를 올리고, 이와 함께 칠월칠석날과 음력 시월 초이



영동거북산당의 신격과 도당굿(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굿』, 2006)

례에는 당고사를 지낸다. 이곳 역시 앞서 살핀 벌말 도당굿, 큰말 도당굿과 같이 유교식의례와 무당굿 형태가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음력 시월 초이례에 행하는 당고사는 인근 영동시장 사람들의 마을굿으로, 지금은 많이 간략화되었다. 현재는 생활환경과 사고방식 등의 변화 때문에 시장 번영회의 제의 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도당굿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굿에 참여하고 있다.

거북산당 당고사의 첫 번째 의례는 당고사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 ‘당주굿’이다. 이 고사는 당주(堂主) 혹은 주무(主巫)가 집에서 떡시루를 찌서 자신이 위하고 있는 신들에게 미리 올리는 의례이다.

다음 날 당고사 날이 되면 고사상에 소머리나 돼지머리를 올리고 떡시루, 과일 등 각종 제물을 차려 놓고 아침부터 굿을 한다. 당굿은 주무의 신을 청하고, 치성을 드린 후 시장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린다. 치성할 손님이 오는 대로 제를 올려 주고 공수도 내려준다.

치성은 당고사 때나 보통 때의 개별 치성을 올릴 때와 비교할 때 순서나 형식 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굿을 하는 주무가 있는 경우 치성을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공수를 내려준다. 치성하는 사람이 오면 먼저 도당할머니(당주)가 당 내부의 왼쪽에 마주 놓여 있는 북과 종을 친다. 다음에 치성자가 가져온 초에 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치성을 드리러 온 사람들은 원래 떡시루를 해서 제물로 가져오지만 요즈음 지폐를 제단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거북산당 도당굿은 가장 먼저 대왕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도당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 오른쪽의 칠성신을 비롯한 신격을 모신 후, 군웅에 상을 차려 놓는다. 다음에 건물 밖으로 나가 팔달산신과 광교산신을 청하여 마당에 있는 단에 상을 차려 놓고, 서낭을 위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2) 유교식 제사 형태 마을굿

우리나라 공동체의례는 조선시대 송유억불(崇儒抑佛)정책 등으로 무당굿 형태보다 유교식 제사 형태가 더 많은데 이러한 양상은 수원도 마찬가지로이다. 유교식 제사 형태 중 제의 대상은 우물·나무와 같은 자연물, 산신·서낭과 같은 인격신이 있다. 각 마을에서는 의례 대상물에게 각각의 개별 의례를 행하기도 하고, 한 자리에서 동시에 행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시기상 인격신에 앞선다고 여겨지는 자연 대상 신앙물 의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오목천동 곳집말 정지고사를 지내는 우물과 제물받침대(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곳』, 2006)

#### (1) 오목천동 곳집말 정제우물고사

권선구 오목천동 마을 앞산인 고금산 중턱에 정제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다. 이 우물고사는 7월 초하룻날 지내는데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정제 잡순다.”고 표현한다. 제를 올리기 1주일 전에 마을에서 가정 내 무탈한 사람 중 제관, 축관, 그리고 제물을 구입할 사람 등을 뽑는다. 아울러, 우물고사 전날 청년회원들은 우물물을 퍼내고 우물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추렴하여 미리 사다 놓은 소를 새벽에 잡고 다시 한 번 연못을 깨끗이 청소한 후, 소고기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낸 뒤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

#### (2) 구운동 하구운 우물고사

구운동 하구운 우물고사 역시 오목천동 곳집말 우물고사와 순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물이나 제사를 지내는 날짜 등이 다르다. 이곳 우물고사는 매년 칠월 칠석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우물은 모두 4개이고, 제관은 한 명만 선출하였다. 우물고사 순서는 우물이 조성된 순서에 따라 제물을 다르게 한다. 첫 번째 우물에는 소머리를, 두 번째 우물에는 갈비를, 세 번째 우물에는 앞다리를, 그리고 네 번째 우물에는 뒷다리를 사용한다.

제의 당일 아침에 우물 청소를 하는데, 마을 청년들을 4조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한다. 우물 청소를 마친 뒤에는 우물 둘레에 금줄을 치고, 우물 양편에 황토를 뿌려 잡귀를 물린

다. 그런 뒤 제관이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 형태로 고사를 지낸다.

### (3) 당수동 우물고사

권선구 당수동에서는 구운동처럼 매년 7월에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이 마을에서도 앞선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고사를 지내기 전에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런 뒤 제물로 준비한 소머리를 진설하고 우물고사를 지낸다. 이 우물고사는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처럼 마을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고사를 진행하였다.

제물은 소머리와 막걸리를 사용하는데, 다른 곳과는 달리, 떡은 준비하지 않았다. 수원 우시장에서 고사 하루 전날에 소를 사와서 고사 날 즉 7월 초하룻날 새벽 4~5시에 도살장에서 소를 잡았다. 당수동 우물고사는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백중 즈음에 개최하면서, 마을 대동잔치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 마을의 우물고사 때에는 고사 때 금줄을 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물고사 때 잡는 소고기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 마을에도 좋고 생각하여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였다. 제물 비용은 마을 호수가 100가구가 넘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 (4) 연무동 산신당과 기우제

장안구 연무동에서는 시월 보름에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제물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 장만하였다. 제관 및 제주는 노인회에서 마을 노인들 중 생년월일이 그해에 맞고, 가내 무탈한 사람 중에 뽑았다. 제관으로 정해진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 곳 출입을 자제하고 부부생활도 금했는데, 이는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였다. 제주는 산신제를 지내는 날에 맞춰서 조라술을 담그고, 음식을 장만하였다.

산신제를 지내는 날이 되면 제관과 제주는 산신당 아래에 있는 우물에서 목욕재개를 하고 산신당으로 가서 제를 지냈다. 제는 밤 12시에 시작하는데, 여자들은 혹시 모를 부정을 막기 위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산신제가 끝나고 제물은 마을회관으로 가지고 내려가 마을 사람들끼리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

연무동의 산신당에는 산신령을 모셨는데, 경기대학교 기숙사 아래에 있었다. 1970년대 연무동 일대에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산신당이 헐리게 되고, 외지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산신제도 지내지 않게 되었다. 정초에 하던 우물고사와 지신밟기도 산신제가 없어지면서 같이 사라졌다.

보훈원 안쪽에 있는 언덕은 하광교와 연무동의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사직당(社稷堂)이 있었다. 사직당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평평한 돌로 만들어진 2층 제단이 가운데 있고 주위로는 돌담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그리고 울타리 사방 동서 남북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었다. 이 제단은 예로부터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수원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다. 제일 먼저 기우제를 지내는 곳은 수원 화성 용두각 아래에 있는 용지(龍池)였다. 용지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연무동에 있는 사직당으로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 사직당에서 지낸 기우제도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광교산 문암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러면 꼭 비가 왔다고 한다.

#### (5) 구운동 상구운 산신제와 우물고사

앞선 마을들이 우물고사나 산신제 등 하나의 의례만 지냈다면, 앞으로 살필 마을들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의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운동의 산신제와 우물고사는 모두 음력 7월 초하루에 지내는데,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다음으로 우물고사를 지낸다. 구운동



구운동 상구운 산신제 터(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곳』, 2006)

산신제는 일월저수지 옆에 위치한 산 정상의 평평한 곳에서 마을 남성 중심으로 오전 10시 정도에 지낸다.

마을 사람 중 일부가 산신제를 지내러 가면 마을 젊은이들은 우물고사를 지내기 위해 우물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산신제를 마치고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다시 우물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고사를 지낸다. 이 마을 산신제는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에 속하면서 가정 내에 부정이 없는 남자들이 제를 드렸고, 우물고사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이 주로 참여했다. 젊은 여자들은 혹시 모를 부정을 피하기 위해 우물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야 왔다. 이처럼 각 의례에 따라 제의 담당층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 마을 공동체 의례의 특징이다.

산신제와 우물고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물은 소이다. 소는 그 당시 동네에서 소를 키우는 집에서 구하기도 했고, 여의치 않으면 수원 우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했다. 제물로 사용된 소머리는 고사를 마치고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었다.

#### (6) 서둔동 서낭제와 산제

권선구 서둔동 공동체 의례는 정월의 서낭제와 우물고사, 그리고 10월 산제가 있었다. 서낭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숙사 자리에 있었던 소나무를 대상으로 정월 14일 정도에 지냈다.

본래 서낭당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밖에 있었다. 그 뒤 학교 부지가 확장되면서 서낭당이 학교 구내에 포함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낭당으로 출입하는 길도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낭당 자리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서낭나무를 베어 버리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에 있었던 서낭나무가 사라진 뒤 마을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서낭을 학교 밖으로 모셔 오는 제의를 행했다. 동네 사



1960년대 후반에 베어진 서둔말 산제나무(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서울·경기권), 1995, 213쪽)

람이 대를 잡고, 무당을 불러서 서호노인정 오른편 야산에 나무가 많은 곳으로 서낭신을 모셔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그쪽으로 도로가 나고 개발되면서 곧 사라지고 말았다.

서둔동 서낭제는 10월의 산제와 달리, 풍물패가 따르고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면서 우물고사와 지신밟기를 같이 하는 개방적인 형태의 마을 제의였다. 제물은 생선 같은 비린 것은 쓰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떡과 술, 북어, 과일 정도를 사용하였다. 서낭제를 지낸 다음, 우물고사를 지내고, 동네 각 집을 돌면서 지신(地神)을 밟으며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서둔동 산제는 지금 서둔동성당 자리에 있던 600여 년 된 참나무를 신체(神體)로 행해졌다. 산제는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10월 중에서 날을 잡아서 행해졌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관과 축관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제의 열흘 전쯤에 마을회의를 거쳐 마을 노인들 가운데서 정하였다. 제물은 소머리와 조라술을 준비하였다. 조라술은 제주의 집에서 제사 일주일 전쯤에 쌀로 담가 방에서 익혔다. 제의는 밤 12시에 시작되는데, 이는 제물을 장만해 먼저 산신에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7) 파장동 장승제와 산신제

파장동에서는 장승제를 지낸 뒤 산신제를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10월 1일 이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그해 제의를 주관할 사람들을 뽑는다. 마을 회의는 보통 제사 일주일 정도 전에 열리는데, 회의에서는 제의 음식을 준비하는 당주,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 제관, 그리고 축문을 읽는 축관을 정한다. 마을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해지면, 이들은 부정을 피하기 위해 가정 내외에서 엄격히 금기를 지킨다. 혹시라도 이들이 부정을 타면 마을을 보살피 주는 신이 노하여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승제와 산신제에 사용될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제의 비용은 마을 유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쌀과 돈을 걷는다. 제물은 삶은 돼지고기, 북어, 떡, 밤, 대추, 조라술 등이 쓰이는데 당주 부부를 비롯한 마을 남자들이 주로 담당한다.

마을 공동 제의를 지내는 음력 10월 1일 아침이 되면 마을 남자들이 미륵당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승을 만들 나무를 베어 온다. 장승을 만드는 데는 보통 오리나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 나무가 마르지 않았을 때는 연장을 사용하기 수월하지만, 일단 마르게 되면 못도 안 들어갈 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남방축귀천하대장군(南方逐鬼天下大將軍)



파장동 미륵당

과 북방축귀천하대장군(北方逐鬼天下大將軍), 남방축귀지하여장군(南方逐鬼地下女將軍)과 북방축귀지하여장군(北方逐鬼地下女將軍) 등 장승 4기를 만들면, 이 장승들은 오후 4시 전후에 시작되는 장승 제사 때까지 당주 집에서 보관한다.

예로부터 파장동에서는 마을 입구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귀나 부정을 막기 위해 장승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이 장승을 세우기 위해 마을 입구로 이동을 할 때는 풍물을 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인다. 마을 남쪽 입구에 남방축귀천하대장군을, 맞은편에 남방축귀지하여장군을 세운다. 장승 세우기가 끝나면 비로소 장승제가 시작된다. 장승제는 한 번에 지내지 않고, 길 오른쪽에 세워진 남방축귀천하대장군부터 시작하여 그다음에 남방축귀지하여장군에게 지낸다.

장승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장승 앞에 제물을 차려 놓는데, 이때 제물로는 시루에 담긴 떡, 북어, 돼지 내장, 술, 밤, 대추 등이 쓰였다.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주가 장승 앞에서 절을 하고 나서 차려진 제물들을 약간씩 뜯어 창호지로 싼 후 장승 머리에다 동여매는 것이다. 이는 장승이 그 제물들을 받아먹었음을 의미한다.

장승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에 사용할 제물을 훑어지고 저녁 6시쯤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당집 옆에 있는 서낭나무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산신제가 시작된다. 서낭나무 제사 때는 떡시루, 돼지머리, 목살, 과일(사과, 감, 밤, 대추), 막걸리 등이 사용된다.

서낭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난 후, 당집에서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사람들은 제물을 차려 놓은 다음 제관들이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 순서로 산신 제사가 진행된다. 저녁 8시 전후에 산신제사가 끝나면, 당주 집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사에 올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 (8) 천천동 느티나무고사

앞선 살핀 구운동, 서둔동, 과장동 등의 공동체 의례가 적어도 몇 백 년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 여기서 살펴볼 천천동 느티나무고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최근에 만들어진 의례이다. 천천동 느티나무고사는 1991년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취임한 서용석이 아파트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발의하였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서대표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아파트 내 노인회와 부녀회 등 여러 주민조직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1992년에 첫 번째 나무고사가 시작되었고, 날짜 선정은 매년 10월 중 주민들이 가



천천동느티나무 고사를 지낼 당시 나무를 배경으로 선 제관들(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곳, 2006』)

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였다. 고사는 대개 일요일에 지낼 때가 많았다.

느티나무고사는 유교식 제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고사의 제일 첫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농악대가 맡았다. 농악대는 유가를 들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고사가 시작됨을 알린다. 유가를 도는 동안 의례 장소에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고사에 모인 사람들이 일동 배례하고, 초헌관이 헌작을 한 뒤 축문을 낭독한다. 다음으로 아헌관과 종헌관이 각각 헌작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잔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아파트 각 세대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올리면서 고사가 끝난다. 고사를 다 지낸 뒤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주민들이 참가하는 노래자랑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진행된 느티나무고사는 10여 년을 지내 오다가 2001년 느티나무가 말라 죽게 되면서 수원시 지정 보호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나무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천천동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이제는 이 의례를 기억하는 이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요컨대, 천천동 느티나무고사는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라는 목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의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9) 영통 기우제와 단오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개발되기 이전 영통리는 1리와 2리를 합쳐 약 80호 정도 되었는데, 경주 김씨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해주 오씨와 청주 한씨가 많이 살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 바람을 타기 전 이곳은 수원 변두리 중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 간의 정은 어느 마을 못지않게 돈독했다.

영통리가 개발되기 전에는 청명산 8부 능선에 샘이 하나 있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샘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에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도포를 입고 그곳에 가서 비가 오게 해 달라고 고사를 지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비가 와서 무사히 모를 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정초에 마을의 안녕과 한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남녀가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도 하였다. 음력 5월이 되면 단오를 지내고, 7월 칠석날에는 현재 영통과 출소 뒤에 있는 수령 700년 된 느티나무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제사를 지냈다. 특히 영통1리에서는 단오와 7월 칠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토박이들이 감소하고 전래 마을의 전통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자, 이곳 토박이들은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영통 청명 단오



영통 단오제와 당산제를 지내는 느티나무(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곳』, 2006)

제'를 개최하였다. 이곳 단오제는 산신제, 당산제와 같은 의례 행사와 민속놀이마당 등의 놀이 행사로 구성되었다.

2005년에 거행된 단오제는 청명산에서 산신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7시에 현관과 감찰, 집사, 제수 및 단체장들이 모여 청명산 중턱 약수터에서 8시부터 8시 20분까지 20여 분에 걸쳐 산신제를 거행하였다. 산신제를 마치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당산제가 청명마을 건영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 뒤 단오제는 강신례를 시작으로 참신례, 초헌례, 축문 읽기,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를 하고 소지 올리기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에는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제물을 음복하였고 뒤이어 여러 가지의 민속놀이 마당이 이어졌다.

### 3) 치성 형태

#### (1) 호매실동 자목마을 미륵바위 치성

호매실동 자목마을 미륵바위는 이 마을에서 살았던 이씨 할머니가 맨땅에 이영을 둘러 놓고 석 달 열흘 동안 쌀을 한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솔잎만 먹고 기도하였는데, 석 달 열흘



용화사 석불입상 자목마을에서 돌미륵으로 모시던 것을 옮겨 온 것이다.

만에 이상한 꿈을 꾸어 다시 그 자리에 가 보니 지금처럼 땅 위로 돌미륵이 솟아 있었다고 한다. 그 뒤 이 바위는 사람들의 신앙물로 이용되었고, 용화사로 흡수된 것은 1965년경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재 미륵바위 치성은 명칭과 현재 위치 등을 볼 때 전통적인 바위 신앙에서 시작되어 불교 신앙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바위 치성은 다른 마을의 경우처럼 제물 준비, 비용의 분담, 제관이나 당주의 선정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체 의례라기보다는 각 가정을 단위로 하여 미륵바위를 찾아가 치성을 드렸기 때문이다.

자목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정월 한 달간,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그리고 백중날과 가을 추수기에 미륵바위에 치성을 드렸다. 이러한 제의시기를 볼 때 미륵바위 치성은 자목마을 사람들의 1년 동안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례 방식은 마을 사람들이 쌀과 돈 등을 가지고 미륵바위를 찾아가면, 이씨 할머니가 징을 치면서 축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 (2) 화서동 약사불 신앙

화서동 약사불 신앙은 마을신앙이 개인신앙으로 바뀐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수원박물관 야외전시장에 모셔져 있는 약사불은 원래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학교를 세우면서 화서동 동래 정씨 선산 밑으로 옮겼다가 개발로 다시 현재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이 마을은 동래 정씨의 세거지이다. 450~500년 전부터 동래 정씨가 집단으로 거주했는데 조선 건국 이후 중시조인 청절공이 이 땅을 하사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현재 모셔진 약사불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마을에서 모시던 마을 신앙물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의 약사불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당까지 참가할 규모의 큰 곳이 있었지만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지금은 동래 정씨 일가의 부인들이 주도하는 집안 행사로 바뀌었다.

동래 정씨 일가 부인들은 매월 초하루에 약사불 치성을 드리기 위해 모이는데 이는 일종의 계라고 할 만하다. 매월 초하루 오전 10시면 아홉 집의 부인네들이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모여 간단하게 치성을 드리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약사불 양쪽에 촛불을 켜고, 청수 2그릇, 백설기, 과일 3접시를 바치고 치성을 드린다. 백설기는 예전에는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다.

약사불을 모시는 절집 왼편에 산신단이 있다. 현재 이곳은 대리석으로 만든 높이 15cm 정도의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과거에는 산신을 모시는 마을신앙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



약사불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굿』, 2006)

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동래 정씨 일가 부인들이 매월 초하루에 올라오면 먼저 산신님께 옥수를 바친다. 제물은 바치지 않는 않으며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번 씩 절을 한다. 그런 다음 약사불 앞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 음식으로는 과일 몇 가지와 떡, 막걸리 등을 준비한다. 모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대개 시장에서 구입해서 마련한다. 10여 명의 일가 부인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의 순서나 제물을 그리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는다.

## 2. 개인 의례

수원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안 곳곳에 성주, 터주, 제석과 같은 가신(家神)을 위하였고, 각각의 신에 따른 대감항아리, 터줏가리, 제석주머니 등과 같은 신앙물을 만들어 모셨다. 이러한 가신의례는 주로 세시풍속(歲時風俗)과 연관이 있는데,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와 추수를 마치고 나서 풍작(豊作)에 대한 감사의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았다. 조상 대대로 이루어지던 가신의례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변화할 때까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었다.

## 1) 지신밟기

정월(正月)은 태음력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에게 시간적 의미로서의 시작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는 의미도 가졌다. 따라서 이때에는 마을 단위의 세시의례인 마을굿과 가정 단위의 세시의례인 지신밟기, 안택 등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한 해 동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마을 농악대는 마을굿이 끝난 뒤 쇠, 징, 장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서낭신의 은혜가 각 가정에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낭기에 서낭신을 받아 그 기를 앞세우고 집들이를 하였다. 집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는 지신밟기를 하는데, 이 의례는 집안 곳곳을 돌면서 한 해 동안 쌓인 액을 막거나 풀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집안이 평안하게 지내기를 기원하기 위해 행해진다.

수원에서 정초에 농악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신밟기는 화성이나 오산·안양 등 인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굿에서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문굿을 치고 집안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순서는 정해진 순서 없이 마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신밟기의 순서가 다양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각각의 가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고사소리는 그 장소에 좌정하고 있는 가신의 성격에 따라 소리의 양상이 정해진다. 그런 이유로 가옥 최고신인 성주신을 위한 순서에서 불리는 성주굿 고사소리는 다른 장소의 굿에서 불리는 소리들에 비해 내용이나 구성의 면에서 풍부하고 다양하다.

성주굿 고사소리의 내용 구성은 마을에 따라 순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산세(山勢)풀이, 여러 가지의 액(厄)막이타령, 그리고 가정 축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정 축원 때 불린 소리는 다음과 같다.

제일에는 진광두대왕 이대왕께 매인 주생이 경오신미 임신계유 갑술을해 매입시구 나 나 나무아미타불 금일 망령을랑 극락세계로 가옵소서 아 해 / 제 이에는 초강두대왕 이대왕께 매인 중생 무 자기축 경인신묘 매입시구 나 나 나무아미타불 금일 망령을랑 극락세계로 가옵소서 아 해 / 제 삼에는 송제두대왕 매인 중생 갑신을유 매입시구 나무아미타불 망령을랑 가옵소서 ..... <「수원지방」, 『한국민요집』 II, 25~252쪽>

위 인용문은 저승 시왕에 대한 축원과 함께 불교 관련 후렴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불교적 성격이 강하고, 각 구절에 후렴이 노래되는 것을 볼 때 수원 역시 남사당패 등 고사 소리 전문가 집단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시월 상달고사

시월 상달고사는 추수를 마치고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주체가 되어 한 해 동안의 농사가 잘 된 것을 집안의 여러 신(神)들에게 감사하며 지내는 의례이다. 고사(告祀)를 지내는 날짜는 보통 손이 없는 날로 했는데, 음력으로 1일·11일·21일과 2일·12일, 22일이면 동쪽, 3일·13일·23일과 4일·14일·24일이면 남쪽, 5일·15일·25일과 6일·16일·26일이면 서쪽, 7일·17일·27일과 8일·18일·28일이면 북쪽에 손이 있고, 9일·19일·29일과 10일·20일·30일은 손이 없는 날이므로 날짜의 끝이 9와 10으로 끝나는 날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상달고사를 지냈다.

제보자에 따르면 고사를 지내기에 앞서 부정을 막기 위해 그릇에다 냉수를 한 사발을 뜨고 아궁이 아래에 있는 깨끗한 재를 긁어서 재를 넣은 물그릇을 대문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집 앞에 재를 담은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은 재 자체가 부정한 기운을 막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집에 상달고사를 지내니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했다.

시월 상달고사 지내는 것을 다른 말로, “가을 떡 만든다.”고도 하는데, 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햅쌀을 절구에 빻아서 그것으로 떡을 찌서 의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가을 떡은 빨간 팥으로 시루에 찐다. 시루떡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대청마루에 좌정하고 있는 성주에게 올렸다.

대청 위에 시루채 떡을 두고 그 앞에 청수 한 그릇과 촛불을 켜 놓고 시루 양 쪽 옆으로 마른 북어를 세웠다. 그리고는 대주를 비롯하여 집안사람들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절을 했다. 이렇게 성주에게 제일 먼저 의례를 올리는 것은 그 신이 집안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기 때문이다.

대청마루에서 시루채 성주를 위한 기도가 끝난 뒤 시루떡을 썰어서 작은 접시나 종지에 나누어 담았다. 그 접시들 중 하나를 가지고 주로, 집 뒤꼍 장독대 앞에 있는 터줏가리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두었다. 터줏가리는 일종의 종자 보관소의 역할을 했는데, 그 안에는 뚜껑이 있는 질그릇 속에 일정량의 찰벼를 넣어 두었다. 터줏가리의 짚은 매년 새로 갈아 주었다.

그리고는 썰어 나누어 담은 떡을 제석주머니, 우물, 대감항아리, 외양간, 곳간, 변소 등에 두었다. 이렇게 집안 곳곳에 떡을 두는 것은 집이 잘되길 기원하는 의미이다. 그렇게 시월 상달고사를 지내고 나면 집안의 아이들은 그 떡을 이웃집에 돌리는 심부름을 하였다.

### 3) 7월 칠석 의례

가을에 추수한 햅쌀을 서너 되 정도 형짚이나 창호지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서 안방 아랫목에 매달아 두었는데 이것을 제석주머니라 하였다. 주머니 위에 먼지가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위에 흰색 고깔을 씌우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제석주머니 안의 쌀로 7월 칠석날 아침에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고, 호박전을 부쳐서 먹었다. 이날에는 비린 반찬은 먹지 않았다. 이때에는 가정주부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들을 대청 마루에 놓고 집안이 잘되길 빌기도 하였다.

제석주머니의 쌀을 굳이 7월 칠석날에 먹는 의례적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음력 7월 칠석 때가 가장 곤궁한 때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하여 제석주머니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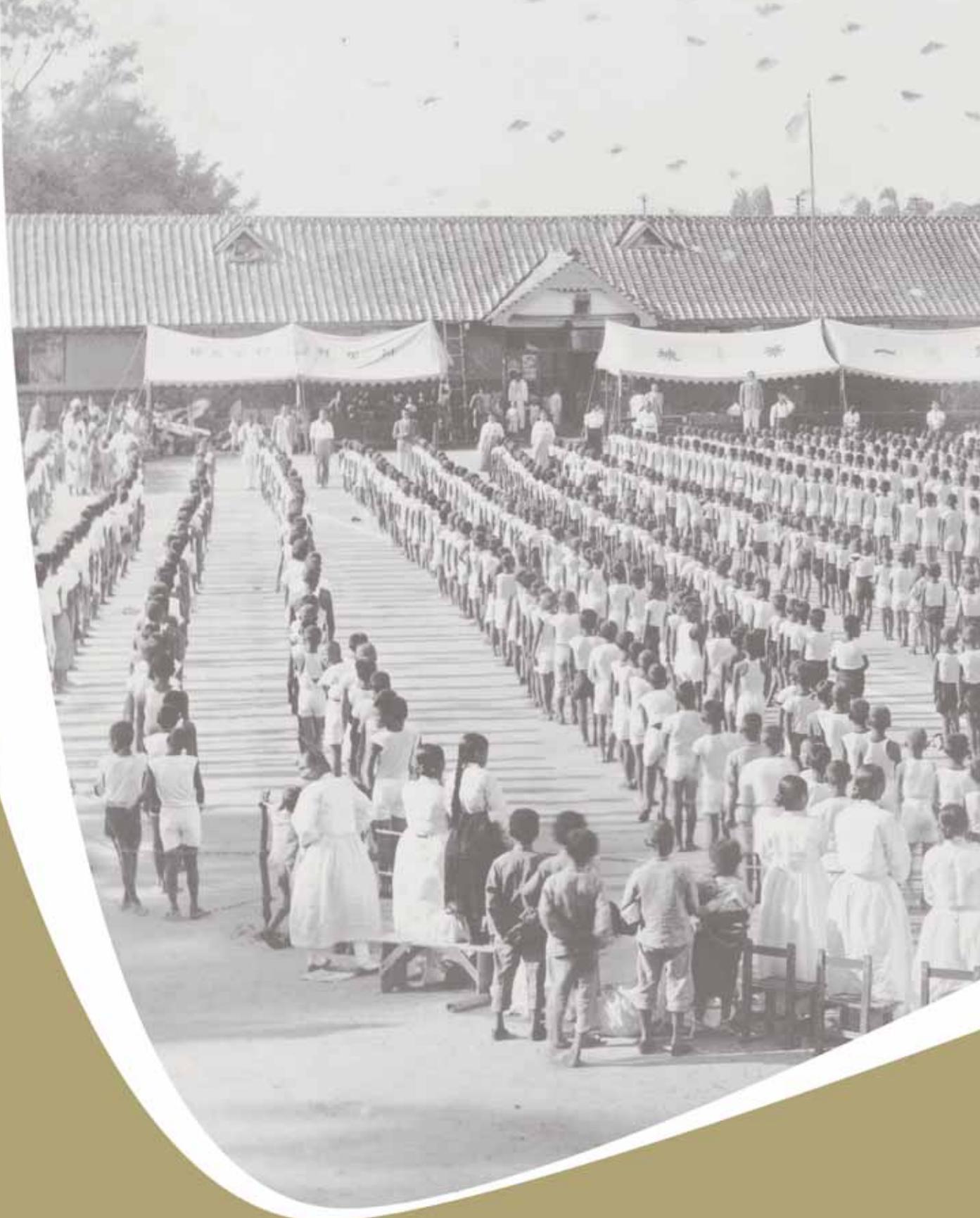
### 4) 삼신의례[産神儀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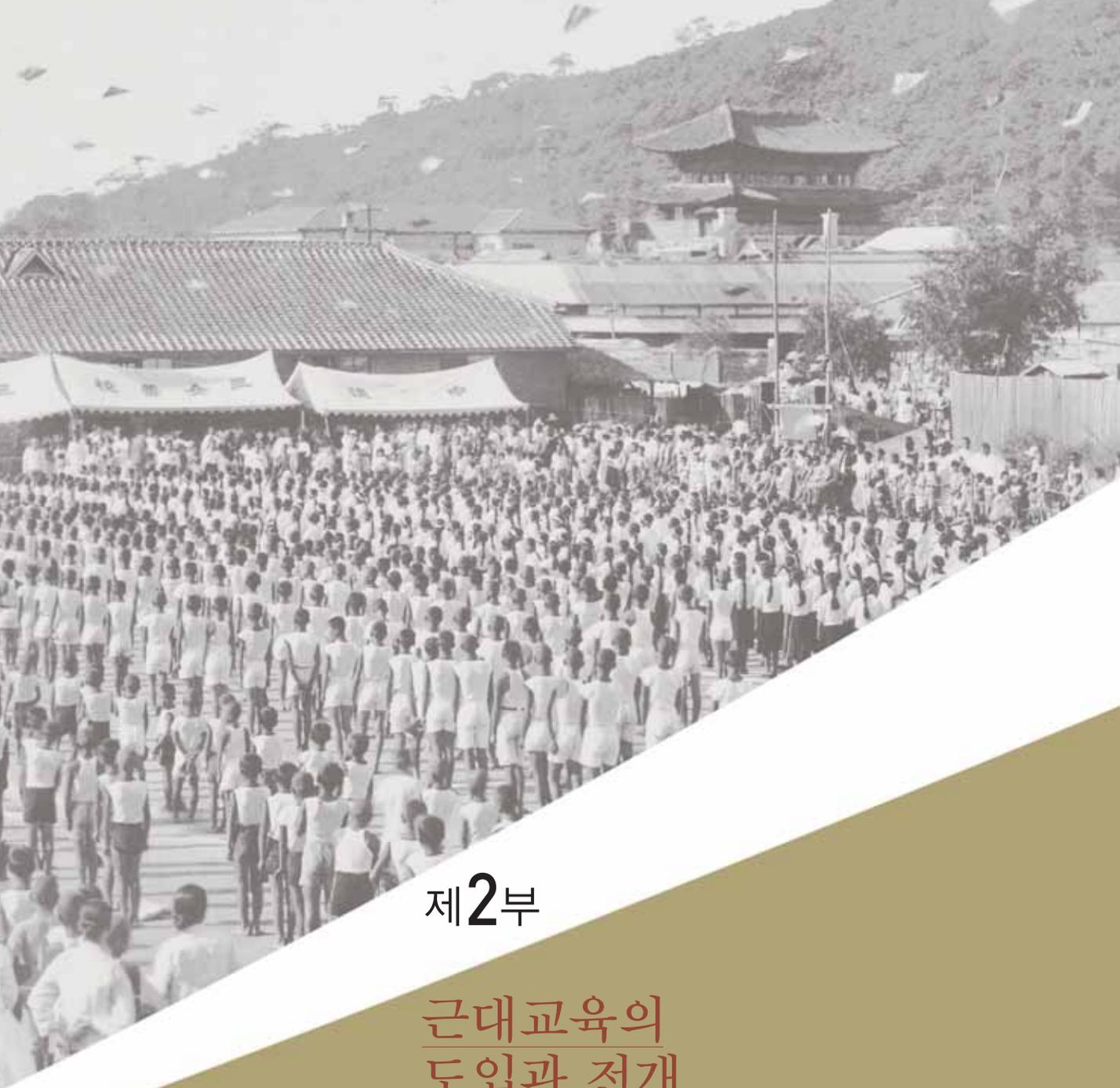
제보자에 따라 제석주머니의 쌀을 칠월 칠석날 먹지 않고, 이후 삼신할머니를 위할 때가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삼신은 아이들의 출생 및 성장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예나 지금이나 아기를 낳는 일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 음식을 삼신의례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혼례를 치른 지 꽤 되었는데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삼신 할머니 혹은 조왕신에게 백일 정성 등을 들여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제보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삼신의례는 보통 '삼신 위하기'라고도 하는데, 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삼신 위하기를 할 때는 삼신에게 올리는 밥 아래에 끼는 짚인 삼짚을 준비하고, 그 위에 삼밥, 미역국 등을 올렸다. 그 뒤 21일 동안 미역국과 쌀밥을 지어 삼신에게 올리고 난 뒤 산모가 먹었다.

삼신에 대한 의례는 백일잔치 때도 이루어졌다. 백일잔치는 아이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자란 것을 감사하기 위한 의례이다. 이때는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백설기와 고기를 넣지 않은 미역국과 삼밥을 준비하고는 삼신할머니에게 아기가 앞으로  
도 잘 크게 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여기서 삼밥이란 삼신을 위한 밥으로, 미역국과 삼밥을  
한 그릇만 준비하는 집도 있고 세 그릇을 준비하는 집도 있었다.





## 제2부

# 근대교육의 도입과 전개

제1장 한말 수원의 근대교육 도입과 학교 설립

제2장 일제하 수원의 교육과 학교 운영

제3장 해방 후 수원 교육의 성장

부록 : 수원시 학교 일람표



김명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 책임연구원

---

1.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의 설립과 구성
2. 수원군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3. 사립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4. 수원농림학교의 설립과 운영



## 제1장

# 한말 수원의 근대교육 도입과 학교 설립

### 1.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의 설립과 구성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은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층 고조되었다. 이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구체화되자 국권 회복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국권회복운동은 크게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의병전쟁은 무장투쟁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위정척사사상에 의거한 유생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애국계몽운동은 민족의 역량을 길러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방식으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세력은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강(自強)이 중요하며, 자강의 실현은 교육과 문화에 역점을 두고 신교육·신문화를 계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근대적 국가로 체제를 개혁하고 실력을 배양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애국계몽운동은 교육·산업의 발달을 통한 실력 양성이 주를 이루었는데, 각종 단체의 조직과 운영, 신문·잡지의 출간,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운동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때 조직된 계몽단체와 학회로는 헌정연구회(憲政研究會)·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서우학회(西友學會)·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호남학회(湖南學會)·교남교육회(嶠南教育會)·관동학회(關東學會)·대동학회(大同學會) 등이 있다. 이어 대한협회(大韓協會)가 대한자강회 후신으로 발족하였고,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는 서북학회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계몽단체와 학회 설립운동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학회는 표면상으로 학술·문화·교육의 보급을 내세웠는데, 이는 일제의 탄압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실상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호흥학회도 이러한 전국적인 학회·계몽단체 설립운동에 호응하여 창립되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학회로는 서우학회·호남학회의 뒤를 이어 세 번째이며, 앞선 두 학회의 조직과 활동에 자극을 받아 창립된 것이다. 1908년 1월 19일 보성소학교(普成小學校)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표 1>과 같다.<sup>1</sup>

<표 1> 기호흥학회 창립 임원진

직책	이름
회장	이용직(李容植)
부회장	지석영(池錫永)
총무	정영택(鄭永澤)
평의원	유성준(俞星濬), 석진형(石鎭衡), 이상재(李尙在), 윤효정(尹孝定), 장헌식(張憲植), 정교(鄭喬), 장도(張燾), 유근(柳瑾), 유일선(柳一宣), 안중화(安鍾和)
규칙검정위원	이종일(李鍾一), 유근(柳瑾), 이기찬(李基燦)

이 중 평의원은 학회의 중요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총 20명의 평의원 가운데 10인을 우선 선정한 것이다. 1월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유성준·석진형·유일선의 청원으로 이들을 교체하고, 이면우(李冕宇)·이용중(李膺鐘)·오세창(吳世昌)·이종일(李鍾一)·심의성(沈宜性)·홍필주(洪弼周)·박정동(朴晶東)·김중환(金重煥)·서병길(徐丙吉)·유병필(劉秉秘)·서상호(徐相浩)·이원생(李源生)·김용진(金容鎭)을 추가로 평의원에 선임하였다. 이어 23일의 특별총회에서는 남궁억(南宮億)·윤치오(尹致昨)·여규형(呂圭亨)·이우규(李禹珪)·어용선(魚瑤善)이 추가로 선임되었다. 4월 12일에는 안중화, 정교 대신 박치상(朴稚祥), 이우영(李宇榮)으로, 5월 10일에는 이상재, 여규형, 유근 대신 조완구(趙琬九), 이재익(李載益), 김봉진(金鳳鎭)으로 교체

<sup>1</sup> 「본회기사, 회사일람」,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1908.

畿湖興學會趣旨書

惟我畿湖之東精實北之稱이라國家之所倚重也人民之所標準이니滿惟厥初人物之盛이燦然可觀이로다論道經邦을아編綴皇箴者도下是爲出也며提阿經箴을아穆式世道者도下是爲舉也니由是而國有座那有序을아家以絃戶以誦을아號稱士翁之國이良有以也라舊是以往을아進化不已면必無今日之現狀이어날積久生變에馴有此事을아究其原因을아誰任其咎을아不數不商을아고坐視困倚을아顧을아珍寶探策을아고田園이遍八城을아非畿湖人歟을아不學無術을아歷金門玉堂을아還君臣獲財을아고入非畿湖人歟을아而而唐臣獲財을아고入而歌君弄權을아非畿湖人歟을아近而黨比擬을아고遠而下待邊方을아非畿湖人歟을아倚藉勢力을아武斷曲曲을아非畿湖人歟을아不致子弟을아傳人文筆을아非畿湖人歟을아六洲之位置如何을아且實辨論을아고自國之距離廣狹을아茫然不知其方向을아고萬國之歷史如何을아且實勿論을아고自國之開闢元年을아雖然不記其甲子을아며辰亥을아手稿主徵을아하여는一任主愚至極之氓을아不加研究을아며工業은

勤之弊之後後의可進이어날一語時急奇巧之製을아면乃反誅求無已을아商業은是融之通(然後)에可旺이어날以實貨貨物之富을아富家을아有文字을아고譯者以外上을아고皆畿湖人之罪也라靜思之에始焉惘然가中焉悚然이오終焉奮然이로라吾人之罪도吾人이當之오吾人之惡은吾人이改之日安有別人之罪當其罪을아改其惡者를아嗚呼兄弟여盟天誓地을아悔改既往之罪惡나改之何如을아曰奮發也외革新也나繼日今으로愛國家爲命脉을아愛同胞如肢體을아知有公益을아고下如有私利을아以道德으로爲可賞을아고財產으로爲可輕을아香籍을아可廢播立學校을아可廣設이로實業을아可興이로知識을아可開이로新精神으로發新思想을아愛國特性이打成一團을아면會朋淵天大罪을아以免以贖을아報答我全國同胞을아지니惟我畿湖人은踴躍起說이다猛賢成이다歐人은感教育에有一學하면即有一會을아야學校가振之於彼을아學習가成之於此을아나所以文明進步에雄飛大陸이라今夫我韓에有關家思想者一莫不痛恨於海陸軍의無以禦侮의鐵路流車의無以利用을아金銀錢의無以厚生이나孰如其所總無者와最可憂者가惟學問一事이로苟有是也면白工技藝가自可就緒을아網羅自放을아고迎刃破竹이라吾東風氣에西北兩道가最先進立學校을아고派遣遊學을아其當務也設願은所共認知라近復期爲學會을아設立學校을아고其勇進이如大刀闊斧을아

切盼至願을아李萬圭 李載益等

기호흥학회취지서, 『황성신문』, 1908년 1월 18일

되었다. 또한 2월 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교육부장에 유길준(兪吉濬), 재정부장에 민영휘(閔泳徽)가 피임되었는데, 2월 23일 열린 특별총회에서 각각 윤치호(尹致昊)와 이도재(李道宰)로 교체되었다. 이렇듯 기호흥학회는 창립 초기단계에서 임원의 선임에 비교적 부침이 많았지만 한말의 유력 인사가 망라되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기호흥학회는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의 흥학(興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회 설립 취지서를 보면 국가의 흥망이 정치활동보다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일, 인재를 각지에 파견하여 전국의 청년을 교육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즉 기호흥학회는 기호 지방이 문화의 중심이자 뛰어난 선비의 고향으로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므로 학문 진흥과 학교 설립을 통해 청년교육에 노력함으로써 국권 회복과 민족 부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sup>3</sup>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학업을 권장하고 회보(會報)를 발행하여 일반 인사의 지식을 주입(注入)하며,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각 군(郡)의 교육 발전을 목표로 규정하였다.<sup>4</sup>

2 기호흥학회의 회원 자격은 ① 대한제국 남자로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내에 본적이나 거주지가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 ② 품행이 단정한 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매월 10전을 납부하는 통상회원(通常會員), 60~300원의 재산을 기부하는 특별회원(特別會員), 300원 이상 재산 기부자인 특별찬성회원(特別贊成會員)으로 구분되었다(『회중기사, 본회규칙, 『기호흥학회월보』 제6호). 기호흥학회 회원은 본회 230여 명, 지회 950여 명 등 총 1,200여 명에 달하였다.

3 『본회취지서』,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4 『회중기사, 본회규칙(제2조와 제3조)』, 『기호흥학회월보』 제6호.

이에 따라 기호흥학회는 1908년 6월 1일 특별총회에서 기호학교(畿湖學校) 설립을 가결하고, 같은 달 20일에 한성 북부 소격동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설립 취지는 교사(教師)가 부족하여 지방교육 발전이 아득하므로 기호학교에서 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초창기 사범학과와 학과목은 수신(修身), 교육(教育), 학교관리법(學校管理法), 지문(地文) 및 지지(地誌), 역사(歷史), 물리(物理), 화학(化學), 박물(博物), 산술(算術), 어학(語學), 경제(經濟), 법학(法學), 농학대요(農學大要), 도서(圖書), 음악(音樂), 체조(體操) 등으로 하였다.<sup>5</sup>

이와 함께 기호흥학회는 1908년 8월부터 기관지인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를 발간하였다.<sup>6</sup> 월보 발간의 목적은 표면적으로 교육 진흥에 두었으나, 근본 취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데 있었다.<sup>7</sup> 그리하여 회보에서는 새로운 사조(思潮)를 소개하거나 민중에게 교육이념이나 교육활동을 소개하는 등 민중 계몽에 주력하였다. 또한 각지에서 전개되는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소개하면서 기호 지방 유지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기호흥학회는 본회 조직을 정비한 후 교육운동 및 계몽운동을 확산하고자 지회 설립에 노력하였다. 본회의 설립 취지와 활동 방향 등을 각지에 발송하였으며, 지방 인사들에게 학교 설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학교 설립을 통한 근대교육의 실시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기호흥학회 설립 이후 1909년 7월까지 인가된 지회는 경기 7개, 충북 3개, 충남 8개 등 모두 18개소였다.<sup>8</sup> 이들 지회 중 처음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지회는 1908년 4월에 인가된 광주군지회(廣州郡支會)였다. 또 같은 해 6월 14일에 열린 통상총회에서는 수원군지회의 설립이 가결되었다. 수원군의 최성대(崔成大) 등 39인이 제출한 지회 설립 청원에 대하여 재정부장 이순하(李舜夏)의 동의와 수원군 권유위원인 김가진(金嘉鎭)·조완구(趙琬九)의 시찰보고에 따른 것이다. 수원군지회의 임원과 회원 명단은 <표 2>와 같다.<sup>9</sup> 지회장·부회장·총무·서기·회계·간사·교육부장·재정부장·평의원 및 회원 명단은 총 72

5 「본회기사, 본회에서 기호학교를 설립한 기사」,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회이교접(會移校接)」,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7일 잡보.

6 『기호흥학회월보』는 매월 25일에 발행되었으며, 학회가 재정난에 빠지게 되자 1909년 7월 발행된 제12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학회는 일제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7 월보의 표지 이면에 게재된 특별 광고문은 다음과 같다. “特別廣告- 本月報는 大韓帝國의 獨立基礎와 二千萬人の 自由精神과 畿湖三省의 興學主義로써 國民的의 腦髓를 滋養하는 神經元素요 教育界의 學理를 發明하는 羅盤金針이다. 愛國思想이 有한 一般同胞는 不可不 講覽하실 義務를 是思하여 家家案頭에 遂號不離하심을 至盼.”

8 18개의 지회는 광주·수원·양근·장단·교하·강화·풍덕(이상 경기)·청주·충주·제천(이상 충북)·서산·공주·해미·목천·연산·당진·홍주·청양(이상 충남)이다.

9 「본회기사, 지회 임원급회원 명부(수원군)」, 『기호흥학회월보』 제2호.

〈표 2〉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 임원과 회원

직책	성명
회장(1)	김중한(金宗漢)
부회장(1)	이계환(李啓煥)
총무(1)	최동필(崔東弼)
서기(1)	이하영(李夏榮)
회계(1)	이용희(李容熙)
간사(3)	지히영(池可永), 최중순(崔鍾淳), 최송(崔松)
교육부장(1)	박기양(朴箕陽)
재정부장(1)	오철선(吳喆善)
평의원(15)	이중익(李鍾岳), 조영호(趙榮鎬), 김영서(金永瑞), 송영빈(宋榮彬), 윤원성(尹元成), 홍건섭(洪健燮), 송세호(宋世浩), 차유순(車裕舜), 나성규(羅聖圭), 이용묵(李容默), 최익환(崔益煥), 이성의(李聖儀), 임면수(林勉朱), 이하영(李夏榮), 김용호(金用鎬)
회원(47)	최성대(崔聖大), 최동필(崔東弼), 이성의(李聖儀), 한상봉(韓相鳳), 용운희(龍雲禧), 차효순(車孝舜), 김희경(金喜景), 최익환(崔益煥), 임흥수(林興洙), 이흥회(李興會), 이중익(李鍾岳), 차유순(車裕舜), 송영빈(宋榮彬), 홍건섭(洪健燮), 윤원성(尹元成), 김용호(金用鎬), 오덕영(吳惠泳), 홍유영(洪裕永), 박문회(朴文會), 김영서(金永瑞), 나중석(羅重錫), 김언식(金彦植), 차한규(車漢圭), 이하영(李夏榮), 임면수(林勉朱), 진시영(陳始泳), 조연교(趙燕教), 김석우(金錫祐), 김한중(金漢宗), 최완희(崔完喜), 윤태은(尹泰殷), 조영호(趙榮鎬), 최중순(崔鍾淳), 이용묵(李容默), 이성우(李成雨), 홍사훈(洪思勳), 김여태(金與泰), 홍형표(洪衡杓), 김중환(金宗煥), 정용진(鄭溶鎭), 황태연(黃台淵), 전광현(田光鉉), 이궁구(李愷九), 송세호(宋世浩), 김정식(金鎭植), 이운구(李雲九), 차석호(車錫祐)

명이지만 중복되는 인물을 정리하면 지회원은 55인이었다.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 임원 및 회원 상당수는 삼일학교(三一學校),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의 임원이거나 설립자로서 이들은 수원 지역의 교육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하영·임면수·나중석·차유순·최익환·이성의는 삼일학교의 발기인이고, 김용호와 송세호는 교사로 활동하였다. 특히 이하영은 한학을 수학한 교육자이자 북감리교 목사로서 삼일학교 설립자 겸 교사였으며, 초대 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 밖에 홍형표·정용진·차석호·조연교는 삼일학교 제1회 졸업생(1909년)이며, 황태연은 제2회 졸업생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羅蕙錫)의 사촌오빠인 나중석은 경기도관찰부의 주사를 역임한 관료 출신이며, 최익환은 상무사(商務社) 도중(都中)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조관서와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던 김중한은 명륜학교(明倫學校)를 설립하였고,<sup>11</sup> 조영호(趙榮鎬)는 노동야학회 수원읍내지회를 설립하여 야학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고종황제 즉위기념 경축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자주의식을 일깨우

10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39쪽.

11 『학계회보(學界集聞)』, 『기호흥학회월보』 제6호.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 회원(이하영, 임면수, 나중석)

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계몽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하영과 임면수는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 솔선함으로써 인민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하였고, 국한문으로 된 취지서를 스스로 발간·보급하여 분발심을 촉구하였다.<sup>12</sup> 또한 지회장 김종한은 한규설(韓圭晲)과 함께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國債報償支援金總合所)를 설립하여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전국적 규모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다.<sup>13</sup> 이 밖에 나성규·차유순 등은 수원부 국채보상회 재무원(財務員)으로서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은 결과 주민들한테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를 이끈 임원과 회원은 구학문을 습득한 학자와 관료 출신자가 많았으며, 한말 수원 지역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수원군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1876년 병자수호조규(丙子修護條規) 체결을 시작으로 문호를 개방한 조선에서는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문화를 이룩하려는 개화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개화와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 열강에 맞서 자주적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

12 「분발의기(奮發意氣)」,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9일 잡보.

13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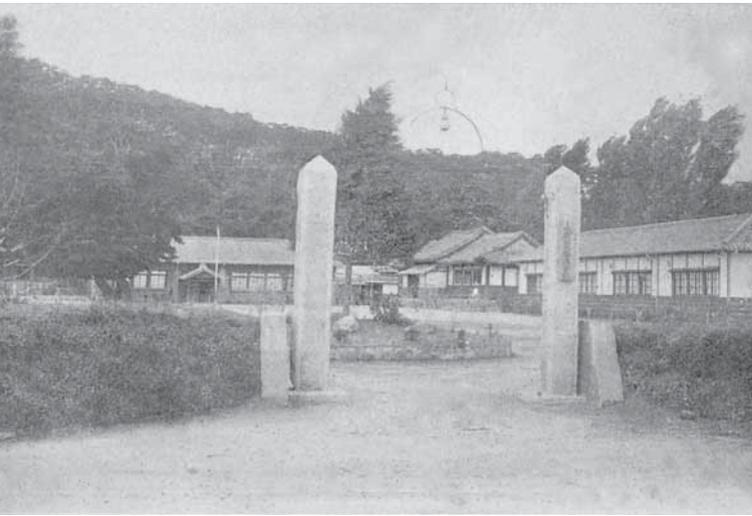
해서는 신교육을 실시하는 근대식 학교가 강력히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사회의 전통적 교육체제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원산학교(元山學校 : 1883), 동문학(同文學 : 1883), 육영공원(育英公院 : 1886) 등 새로운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때를 같이하여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선교사들은 선교 수단으로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광혜원(廣惠院 : 1885), 배재학당(培材學堂 : 1886), 이화학당(梨花學堂 : 1886) 등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전국에 8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1895년 1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가 선포되었는데 제 11조에서 서구의 근대교육과 기술에 대한 수입 필요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 즉 “나라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건습하게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어 고종은 ‘교육입국(教育立國)’의 뜻을 밝힌 교육조서를 반포하였는데, 이로써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제(學制)가 마련되었다. 이 조서는 교육이 국가 보존의 근본이고, 과학적 지식과 실용을 추구하며,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육(德育)·지육(智育)·체육(體育)을 들고,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중흥과 국가 보존에 직결된다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sup>14</sup> 곧바로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법규인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관제」를 시작으로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 관제」, 「소학교령(小學校令)」, 「성균관(成均館) 관제」, 「의학교(醫學校) 관제」, 「중학교(中學校) 관제」, 「상공학교 관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관제」를 차례로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양성기관인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영어학교, 일어학교, 법어(法語 : 프랑스어)학교, 덕어(德語 : 독일어)학교, 한어(漢語 : 중국어)학교 등 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소학교령(小學校令)」을 잇따라 공포하였는데, 여기에 “각 부군은 관내의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공립소학교를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 공공단체의 교육 의무화를 확고히 하였다. 소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관립·공립·사립으로 나뉘었는데, 관립은 국가, 공립은 부군(府郡), 사립은 개인이 각각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7월 19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의 장동·정동·계동·주동 등에 소학교가 설립되었고, 이어 각 도의 관찰부가 소재한 지역인 수원·공주·충주·광주·전주·진주·대구·춘천·평양·영변·해주·함흥·경성(鏡城)에 1개교씩 공립심상소학교가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1896년 2월 10일에 수원군공립소학교(水原郡公立小學校 : 현 신평초등학교

14 『관보』, 개국 504년(1895) 2월 2일.



화성유수부 객사였던 우화관 터에 세운 수원공립보통학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교)<sup>15</sup>가 개교하였는데, 이는 수원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당시 수원군공립소학교는 수원향교 부근 채 상공(채제공으로 추정됨)의 유택을 빌려 개교하였다.<sup>16</sup> 이때 개교를 위한 최고 책임자는 수원군수였던 서행순(徐沔淳)이었고, 정부에서는 1896년 2월 10일자로 이필구(李弼求)를 첫 교원으로 발령하였다.<sup>17</sup>

학령은 8세부터 14세까지였고, 신분상의 제한은 없었다. 수업료는 면제되었으며,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는

빌려주었다. 수업연한은 심상과(尋常科) 3년이며, 교과목은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체조로 하되 상황에 따라 체조 대신 본국지리·본국역사·도화(圖畵)·외국어 중 1개 혹은 여러 개로 채우고, 여학생에게는 재봉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수업연한을 마친 아동은 성적을 평가받고,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1896년 8월 4일 전국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道制)를 실시하면서 수원이 경기도관찰부 소재지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군공립소학교는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京畿觀察府公立小學校)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sup>18</sup> 그러나 당시 지방제도와 관제가 바뀌었을 뿐 교육목적·입학자격·교과서 등 교육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는 1902년 12월 화성행궁의 전 남영(南營), 즉 신평루 왼쪽의 건물인 남군영(南軍營)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가 없는 건물로 이전하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05년 11월 24일 남군영에 일본의 수원헌병분대가 자리하게 되면서 또다시 신평동의 화성유수부 객사였던 우화관(于華館)으로 이전하였다.

15 학교 이름이 '수원군' 공립소학교가 된 것은 1895년 지방제도 개편 때 전국을 23부로 나누면서 수원부(水原附)가 군(郡)으로 강등되어 인천부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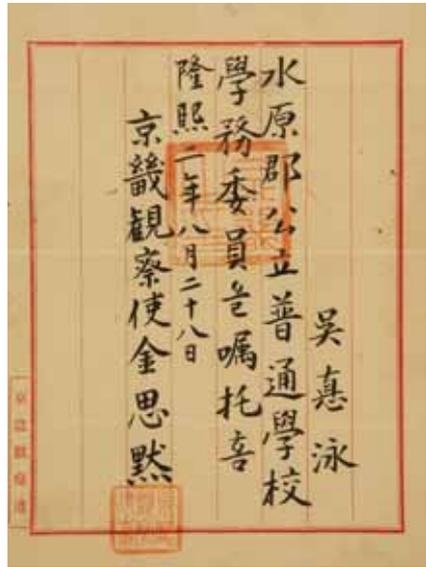
16 『수원교보(水原校報)』, 『황성신문』, 1901년 2월 2일.

17 『관보』 제241호, 1896년 2월 6일.

18 『관보』 제433호, 1896년 9월 19일.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이듬해 통감부는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소학교를 보통학교(普通學校)로 개칭하고, 수업연한도 4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매주 6시간씩 할당함으로써 한국민 우민화와 동화정책(同化政策)을 획책하였다. 이 「보통학교령」에 따라 1906년 9월 1일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는 수원공립보통학교(水原公立普通學校)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sup>19</sup>

수원군공립소학교부터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를 거쳐 수원공립보통학교에 이르는 동안 초창기 학교 운영과 교육을 담당한 교원을 보면 첫 교원 이필구(李弼求 : 1896년 2월~1898년 6월)를 시작으로 황한동(黃漢東 : 1896년 9월~1897년 4



1908년 수원군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축탁증(수원박물관 소장)

월), 윤보영(尹輔榮 : 1898년 4월~1900년 10월), 김규원(金奎元 : 1900년 10월~1903년 12월), 김경연(金慶淵 : 1903년 12월~1905년 1월), 신병균(申秉均 : 1904년 2월~?), 신현정(申鉉鼎 : ?~1903년 2월), 박치훈(朴治勳 : 1905년 10월~1907년 4월), 김병천(金炳天 : 1905년 11월~1906년 9월), 이승화(李承和 : 1905년 10월~1907년 2월), 이규영(李逵榮 : 1906년 9월~1908년 9월), 최혁래(崔赫來 : 1907년 6월~1909년 6월), 신재남(申在喃 : 1908년 4월~?), 사이토(齋藤角治 : ?~1908년 5월), 박성근(朴晟根 : 1908년 9월~?), 야마자키(山崎三郎 : 1908년 5월~1909년 4월), 김봉진(金鳳鎭 : 1909년 4월~1909년 12월), 이원규(李元圭 : 1909년 6월~?), 도요다(豊田長智 : 1909년 8월~?), 김관현(金寬鉉 : 1909년 12월) 등이었다.<sup>20</sup> 특히 김병천은 1906년 9월 26일부로 교사로서 학교장을 겸임하였고,<sup>21</sup> 1909년 4월에는 김봉진이 교사 겸 교장을 역임하였다.<sup>22</sup> 또한 1909년 12월에는 수원군수인 김관현이 학교장을

19 『관보』 제3561호, 1906년 9월 18일. 한편 신풍초등학교는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설립된 1896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1996년에 『신풍백년사』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2012년 2월에 치러진 졸업식은 제103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1906년 보통학교령을 발표하면서 공립수원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때 입학생들이 졸업한 1909년도를 제1회 졸업식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수원군공립소학교 시대와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시대를 합친 10년(1896~1906)의 학교 역사가 일제에 의해 삭제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신풍초등학교, 「5. 빼앗긴 교사(校史)」, 『신풍백년사』, 1996, 287쪽).

20 신풍초등학교, 『신풍백년사』, 1996, 96~116쪽.

21 『관보』 제3570호, 1906년 9월 28일.

22 『관보』 제4374호, 1909년 5월 12일.



『광무5년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회계대장』(수원박물관 소장)

겸하게 되었다.<sup>23</sup>

한편 초창기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운영은 국가나 지방관청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1896년도 정부의 세입세출 총예산 계획을 보면 세출 총액 631만 6,831원 중 학부(學部) 소관은 12만 6,752원이었고, 이 중 학교비는 3만 1,219원으로 한성시범학교와 부속 소학교비 1만 2,221원, 관립 소학교비 5,568원, 성균관비 7,986원, 일어학교비 2,042원, 영어학교비 2,558원, 법어학교비 844원이었다. 또한 지방학교 보조비는 1만 6,200원으로 한성부 공립소학교 보조비 600원, 인천항 일어학교 보조비 1,800원, 각 신설공립소학교 보조비 1만 3,800원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서 각 지방의 공립소학교 보조비 1만 3,800원으로 한 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매월 수십 원에 해당되었다.<sup>24</sup>

실제로 1901년 6월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보면 교원 월봉 15원, 부교원 봉급 7원, 청사(廳使) 월급 3원, 방학 때 부교원 수교비(守校費) 2원, 유치금 3원 등 총 30원이었다. 겨울철에는 특별히 난방비가 필요하여 시유탄비(柴油炭費) 5~6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학년을 마치게 되는 12월에는 시상비(2원)가 배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방관의 지원도 공립소학교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01년 9월에 경기관찰사 조중묵(趙重穆)이 300냥, 수원군수 김용진(金容鎭) 100냥, 영장(營長) 신좌균(申佐均) 100냥, 사계(射契) 50냥 등 550냥을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수리 보조금으로 내놓고

23 『관보』 제4577호, 1910년 1월 15일.

24 『관보』 제226호, 1896년 1월 20일 부록.

있다.<sup>25</sup> 또한 1900년에 학부(學部)는 각 군의 공전(公錢)에서 지방학교 보조비를 지급하라는 훈령을 내려 전국의 12부(府) 관하 각 군 공립소학교에 월 30원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래개성학교(東萊開城學校)와 인천일어학교(仁川日語學校) 등에는 특별금을 지급하고 있어 당시 이들 지역에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sup>26</sup>

1910년대 들어 보통학교는 해당지역 향교의 재산수입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가 반포한 「향교재산관리규정(鄕校財産管理規程)」과 「공립보통학교비용령(公立普通學校費用令)」, 「실업보습학교규정(實業補習學校規程)」을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1910년 4월 23일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였는데,<sup>27</sup> 향교 재산이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림들이 전통적으로 사유(私有)로 생각한 나머지 함부로 방매하거나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sup>28</sup> 「향교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향교 재산은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윤(府尹)이나 군수(郡守)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교 재산은 방매·양도·전당(典當)·교환·소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고, 향교 재산의 예산 수립, 수입의 보관이나 출납 권한도 부윤·군수의 몫이었으며, 관찰사를 통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sup>29</sup> 그리고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향교 재산에서 생긴 수입을 향교가 소재한 군내 공립학교의 경비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점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이어 총독부에서는 1911년 10월 제령(制令) 제12호로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공포하였다. 여기서 보통학교 설립·유지에 관한 비용은 임시은사금(臨時恩賜金)의 이자, 향교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금으로 지변(支辨)하고, 이 외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설립구역 내 조선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sup>31</sup> 또한 일제는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 재산, 기타 수입 등으로 전국에 100개의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수립하였다.<sup>32</sup> 이렇듯 총독부 당국은 「향교재산관리규정」과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발표하여 시행함으로써 향교 재산을 보통학교 경비로 전용하기 위한 법적

25 『광무5년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회계대장』(수원박물관 소장).

26 「지방학교 경비」, 『황성신문』, 1900년 2월 14일.

27 『관보』 제4664호, 1910년 4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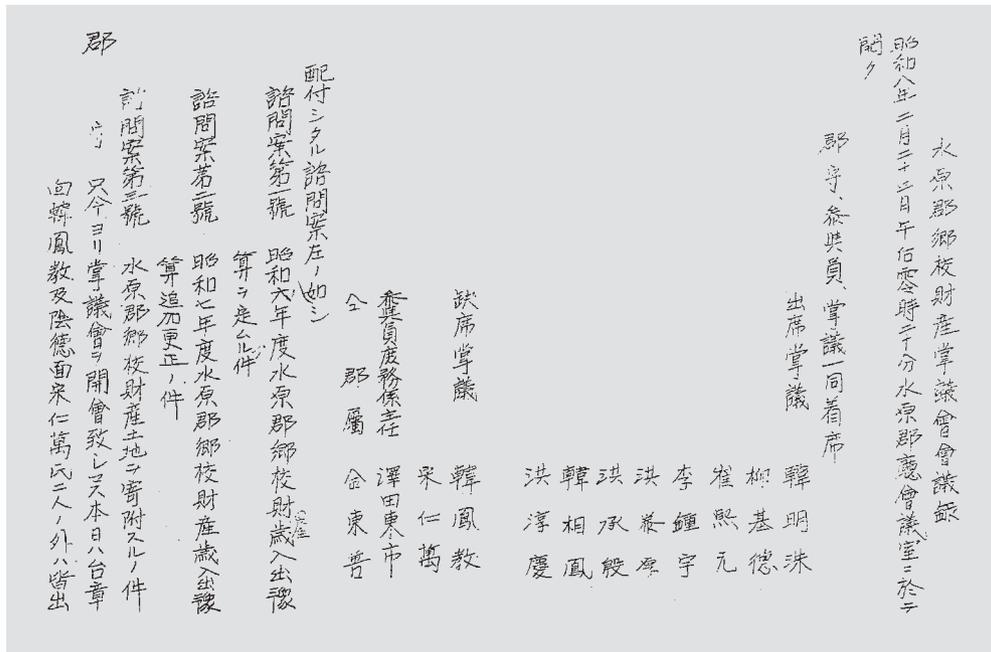
28 「향교재산관리규정 반포의 취의(趣意)」, 『관보』, 1910년 4월 28일.

29 「향교재산관리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30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

31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8일.

32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2월 28일.



수원향교재산 관련 장의회 회의록(『향교 재산 처분관계첩』, 1933, 국가기록원 소장)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0년대 향교 재산수입이 학교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경상비로서 학교비에 전용되는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충당되었다. 즉 향교 건물 일부가 보통학교 교사(校舍)로 활용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교사 수리를 위해 향교 소유 삼림을 벌채하는가 하면 허물어진 향교 건물의 부재를 보통학교 교사나 기숙사 수리에 사용하기도 하였다.<sup>33</sup>

향교 건물이 보통학교 교사로 사용된 사례는 수원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제는 조선 강점 직전인 1910년 4월 1일 학부령 제1호로 「실업보습학교규정」을 공포하였다. 목적은 “간단한 방법으로 실업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었다. 즉 일제가 향후 조선에서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순응하는 하급 근로자 양성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교과목은 수신·국어, 한문·일어·산술, 농업·상업·공업 등 실업에 관한 과목 중에서 적당히 정하도록 하였다.<sup>34</sup> 이어 1911년 7월 1일에는 「공립학교에 공립실업보습학교 부설(附設)의 건」이 공포되었고, 수

33 김명우, 「일제 식민지시기 향교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94-95쪽.

34 『관보』 제4643호, 1910년 4월 4일.

원공립보통학교에는 6월 7일에 인가받은 공립명륜실업보습학교(公立明倫實業補習學校)가 부설되었다.<sup>35</sup> 이때 수원향교가 수원공립보통학교의 분교실(分校室)로 사용되어 보습학교 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이다.<sup>36</sup>

### 3. 사립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설치된 통감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민족교육을 억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소학교를 보통학교(普通學校)로 바꾸고 수업연한도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우리의 역사와 지리과목은 축소하였다. 또한 기존의 학교는 물론 신설학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부(學部)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는가 하면 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학회 활동도 규제하였다.

이 같은 일제의 교육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었다. 기울어 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이라고 판단한 계몽운동가와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학교 설립운동을 계속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학교 설립을 선도한 것은 각 지역의 학회였다. 이들 학회는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이 국권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신교육의 발전과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언론매체에서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적극적인 학교 설립을 당부하였으며, 1906년 3월 26일 각 부군(府郡)에 학교 설립을 강조한 「광학조칙(廣學詔勅)」이 반포되자 지방의 군수와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설립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08년 당시 사립학교는 1908년 현재 관공립학교를 포함하여 5,000여 교에 달하였으며, 학생수도 20만 명에 달하였다. 특히 「사립학교령」 발표 이후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7월 1일 학부에서 조사한 사립학교 수는 총 2,082개교에 달해 전국에 확대된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sup>37</sup>

계몽운동기 학교 설립운동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에도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1910년 7월 현재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각종 학교 139개, 종교 학교 44개로 총 183

35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7월 1일.

36 酒井政之助, 「孔子廟」, 『發展せる水原』,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61-62쪽.

37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11, 역사교육학회, 1987, 133쪽.

○水原水北面柏峯須成學校을徐相  
天氏와徐相競氏와本郡參事官金漢  
睦氏와갓치教育의난中의校長에徐  
相天氏난資本金을特出을야教育上  
의熱心을기로不勝感荷을야茲에廣  
佈홍  
小原須成學校 告白

수성학교 관련 기사(『황성신문』, 1907년 1월 28일)

개교였다. 이는 전국의 2,082개교 중 평남(417교), 평북(367교), 황해(251교), 함남(189교)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종교학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설립된 사립학교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경기도 지역 사립학교 설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897년 1개교, 1898년 1개교, 1899년 6개교, 1900년 5개교, 1901년 4개교, 1903년 4개교, 1905년 13개교, 1906년 21개교, 1907년 33개교, 1908년 84개교, 1909년 38개로 나타난다. 당시 경기도 내 37개 군(郡) 가운데 30개 군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sup>39</sup>

이처럼 교육열의 고조에 따라 수원과 인근 지역에서도 여러 사립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즉 수원군 남곡면

근동(勤洞)에 보명학교(普明學校)가 설립되어 교감 강필중(姜弼中), 총무 서진하(徐辰河), 학감 김동호(金東鎬) 등이 청년자제를 열심히 권면하고 있었다. 남문 밖에 사는 이선익(李善益)은 학업을 장려하고자 금액을 전담하여 화양(華陽)·삼일(三一) 두 여학교의 연합동회를 상류천(上流川) 아래에서 개최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sup>40</sup> 또한 수원 수북면 백봉(柏峰)에 사는 전(前) 참봉 서상천(徐相天)이 자본금 5,000원을 내어 인근의 청년 자제를 교육하였다. 학교 이름은 수성학교(須成學校)이고, 교장에 서상천, 찬성장(贊成長)에 수원군수 이완용(李完鎔), 교감에 전(前) 주사 서상공(徐相兢), 일어교사 변영헌(卞榮獻), 한문교사 서상춘(徐相春) 등이며, 학생은 53명인데 입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sup>41</sup> 한편 남양의 보흥(普興)학교는 남양군 상동에 사는 홍익선(洪益善)이 자기 집을 학교로 만들고 인근의 연소한 자제를 소집하여 독서·습자·작문을 가르쳤는데, 학도가 30인에 달하였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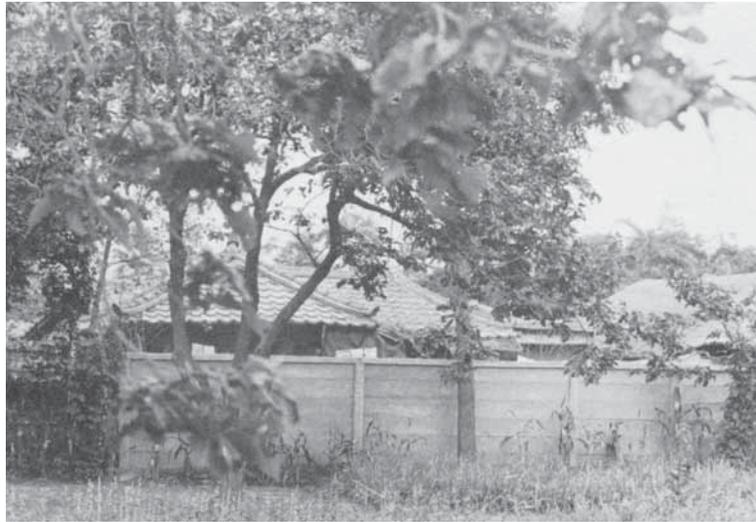
이처럼 당시 사립학교 설립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탄압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가운데 당시 수원 지역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학교로는 삼일학

38 김상기, 「한말 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구국운동」, 『청계사학』 1, 청계사학회, 1984.  
39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11, 역사교육학회, 1987, 134쪽.  
40 「학계취문(學界彙聞)」, 『기호학회월보』 제11호.  
41 『황성신문』 1907년 2월 4일.  
42 『황성신문』, 1906년 6월 5일.

당 · 삼일여학당 · 수원상업강습소 등이 있다.<sup>43</sup>

## 1) 삼일학당

삼일학당은 당시 수원군 북부면 보시동(普施洞 : 북수동)에 있는 북감리교회(현 수원종로교회)<sup>44</sup>의 부속학교로 출발하였다. 교사(校舍)로 쓰인 곳은 교회 소유의 초가집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였다. 1903년 5월 7일 교회 안에서 이하영(李夏榮), 임면수(林勉洙), 나중석(羅重錫), 차유순(車裕舜), 최익환(崔翼煥), 홍건표(洪建杓), 이성희(李聖儀), 김제구(金濟九) 등이 주축이 되어 학당(學堂) 설립을 추진하였고, 교회 선교부로부터 교회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sup>45</sup> 이때 삼일(三一)이라는 이름은 삼일학당의 초대 학당장이며 한문교사였던 이하영이 지은 이름이다. 삼일은 기독교의 성부(聖父) · 성자(聖子) · 성령(聖靈)이 일체가 된다는 뜻으로, 삼일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이다.<sup>46</sup>



삼일학교 설립 당시 자리(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2000)

43 이 밖에 1900년에 이미 화성학교(華城學校)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본래 조선인 유지의 자제들에게 한문 · 일어를 가르치던 서당을 1902년에 일본인의 이름을 빌어 화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 학교는 일본인 교사가 운영하며 조선인에게 일어와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906년 9월 일본인 학생으로 별도의 학급을 편성하면서 '수원거류민립소학교'로 개교하였다. 신흥동에서 시작한 거류민립소학교는 1908년 지금의 매산초등학교 자리에 새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으며, 수원심상고등소학교 · 수원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가 일제의 패망과 함께 폐교되었다.

44 1901년 미 북감리회 선교사 스웨어러(W. C. Swearer)가 이명숙(李明淑)을 수원에 파송하여 선교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보시동에 교회당과 선교사 숙소 등을 신설함으로써 종로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수원 종로교회 역사』(<http://www.jongro.or.kr>).

45 김세한, 『삼일학원 팔십년사』, 학교법인 삼일학원, 1983, 69쪽. 『삼일학원 팔십년사』에서는 삼일학교의 개교를 1903년 5월 7일로 기록한 반면, 『매향 100년사』에서는 1902년 4월 24일 이전에 삼일학교가 개교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즉 『삼일학원 팔십년사』에서는 1903년 북감리교회 초가집에서 여학생 3명, 남학생 11명을 데리고 교육한 것을 학교의 시작으로 보고, 『매향 100년사』에서는 “1902년 2월 17일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북감리교회에 등록하였고, 4월 24일에는 19명이 되었다. 이 즈음에 이미 남자 15명을 대상으로 선교 목적의 부속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는 선교사 스웨어러(W. C. Swearer)의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46 김세한,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41쪽. 이와 관련하여 삼일학교의 교가에도 기독교 정신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수사 이룩한 동산/ 반석 위 굳게 다져 세워진 학원/ 그 이름 삼일정신 물려받으니/ 자랑도 유서 깊은 삼일학원/ 아아 삼일학원 삼일학원/ 하나님 은총 베풀 우리의 학원.”



1908년 진기춘의 수원 삼일학교 측량과 수업증서(수원박물관 소장)

학당 설립 초기에는 초가 온돌방에서 책상도 없이 방바닥에 앉아 석필(石筆)로 지식판(紙石板)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였고, 한문시간에만 붓으로 창호지에 글씨 공부를 하였다. 개교 첫해에는 한문과 국문만 가르치다가 이듬해 서울에서 채성식(蔡聖植)이 내려와 영어와 산술(算術)을 가르쳤다.

삼일학당은 설립된 후 4년 동안 학년이나 반(班)의 구별이 없었으며, 교육방식도 서당처럼 주로 배운 것을 외우고 교사가 물으면 대답하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1906년 9월 1일 정식으로 학제(學制)를 마련하였

다. 즉 종래 소학교 정도의 교육을 심상과(尋常科)라 하여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였으며,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고등과(高等科)라 하여 연한을 3년으로 하였다. 따라서 삼일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였다. 심상과는 고등과로 진학하는 입문과정으로 설치한 것이 때문에 별도로 졸업이라는 게 없었다. 심상과의 교과목은 성서·국어·역사·한문·산술·영어·지지(地誌)·체조였으며, 고등과의 교과목은 성서·국어·작문·수신·생리·광물·문리·산술·본국역사·본국지지·만국역사·만국지지·도화(圖)·체조 등이였다. 또한 1908년 6월에는 토지조사사업 시행으로 인력 수요가 늘자 특별히 측량과를 설치하여 토지 측량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sup>47</sup>

삼일학당은 설립 후 3년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때 설립자의 한 사람인 나중석이 매향동의 땅 900평을 내놓아 운동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재산가인 강석호(姜錫鎬)를 설득하여 자금 8만 냥을 기부받았다. 그동안 북문 안 가까이 있었던 교회가 1906년 2월 종로에 목조 함석집을 짓고 이사함에 따라 삼일학당도 옮겨 오게 되었다. 이때 삼일여학당은 화서문 안 장안동 95번지로 옮겨 독립하였다. 1908년 들어 또다시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자 교회 선교부로 넘기자는 주장과, 재산가의 원조를 받아 유지하

47 김세한, 『삼일학원 팔십년사』, 학교법인 삼일학원, 1983, 92-93쪽.

○光武十一年六月日水原三一學校  
 贊成金頤  
 知事姜錫鎬四百四拾圓 前水原親  
 察使崔錫敏一百圓 主事崔熾煥八  
 十圓 主事羅聖奎七十圓 同崔東  
 弼 同羅基貞 同李聖義 車珩麟  
 金永壽 金哲煥各六十圓 主事李  
 敬儀五十圓 李桂根四十圓 主事  
 車裕舜 車喜均 金致善各三十圓  
 洪建燮 梁聖寬各二十五圓 前郡  
 守李完鎔 池性源 知事李李淡  
 支斗鎮 同知韓基潤各二十圓 度  
 部次官柳正秀 金元基 崔性云  
 李重億 鄭春日 車慶麟 林勉洙  
 金濟九 金孝根 崔峻燮 主事李  
 在弘 朴斗允 鄭得寬 沈用九  
 正仁甫 李昌順 金柱根 金東恒  
 趙炳烈各拾圓 命使鄭基連 金德  
 基 林興洙各六圓 宋秉斗 洪鳳  
 裕 沈相奎 崔鍾淳 金永化 安  
 熙德 姜性九 安致福 徐敬化  
 李順益 李鍾益 羅星權 黃益周  
 各五圓 金永奎 宋德根各四圓  
 洪春燁 金永善各三圓 車元回  
 申春元 申起元 金台鎮 洪壽萬  
 文春植 徐子星 金澤壽 金性會  
 各二圓 韓應奎 金東煥 陳起春  
 金性道 金顯俊 金俊基各一圓  
 果川郡守金東鎰 都事 李承銀各  
 五圓  
 華城女學校 水原府私立三一學校  
 各一拾圓  
 水原東晟園農務社長下園埜

삼일학교 천조금 모금 기사(『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지는 주장이 맞서게 되었다. 결국 선교부로 이관하지는 중론에 따라 1908년 9월 1일 학교 경영권을 북감리회 선교부에 이양하게 되었다.

한편 초창기 삼일학교가 설립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한 인사 중 학교장을 역임한 인물은 <표 3>과 같다.

<표 3> 한말 삼일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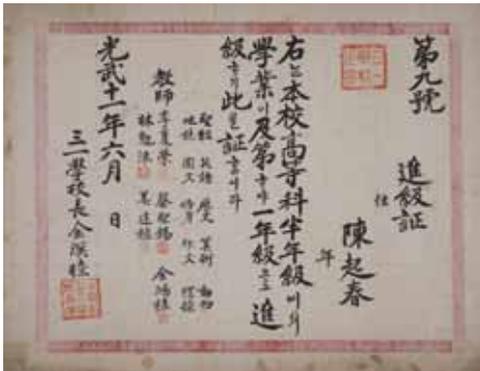
대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	이하영(李夏榮)	1903~1906
2대	김한목(金漢睦)	1906~1907
3대	이하영(李夏榮)	1907~1908
4대	이범창(李範昌)	1908~1909
5대	이지성(李枝盛)	1909~1910

초대 교장과 3대 교장을 지낸 이하영은 학교 설립 당시 첫 교사로서 한문교육을 담당하였으며, 학당장을 겸하였다. 그는 술선하여 상투머리를 삭발하는 등 개화의 물결을 앞장 서서 받아들였으며, 기독교 신앙에도 열중하였다. 1906년 여학당이 분리 독립한 후에도 종로교회와 장안동을 오가며 남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08년 학당 경영을 선교부로 이양한 후 서울로 떠났다.

1907년 6월경 삼일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김한목이 추대되었다. 그는 시흥군수, 경기도 참서관, 경기도관찰사 서리 등을 역임하는 등 명망이 높은 인사로 정치인으로서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칭송을 받던 터였다. 삼일학교 설립 초기에는 학제를



삼일학교 남녀 학생들(독립기념관 소장)



1907년 삼일학교 진기춘의 진급증(수원박물관 소장)



삼일학교 1회 졸업생 진기춘의 졸업증서(수원박물관 소장)

갖추지 못하고 전통식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장이 없었으나 1907년에 이르러 학과목이 증대되고 교사가 증원되면서 학교장을 추대하고 수료증도 발급하였던 것이다. 특히 학교의 경영권을 교회 선교부에 이양한 1908년 이후에도 삼일학교의 교장이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당시 비교적 일제의 통제와 탄압을 받지 않았던 선교사들의 명의를 앞세웠던 것이며, 학교를 운영했던 실무자는 한국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48 1903~1910년 삼일학교에서 활동한 교사와 각 담당 과목은 다음과 같다. 이하영(李夏榮) : 성경·한문, 채성석(蔡聖錫) : 영

1908년 8월 학부에서 「사립학교령」과 「사립학교 인정 규정」을 공포하자 삼일학교도 1909년 4월 23일자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에는 제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고, 1910년 6월에도 제2회 졸업생 19명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이 되면서 삼일학교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교회를 도와 학교를 이끌어 오던 유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학교를 떠남에 따라 교회 단독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등교육을 목표로 설치한 고등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종래 수업연한 1년의 심상과를 4년제 보통과로 변경함으로써 보통학교 체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sup>49</sup>

## 2) 삼일여학당

삼일여학당은 삼일학당과 마찬가지로 당시 수원군 북부면 보시동의 북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2월 17일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4월 24일에는 19명이 되었다. 이즈음에 이미 남자 15명을 대상으로 선교 목적의 부속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sup>50</sup> 반면 여학생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여학당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된 듯하다. 처음에 선교사들은 학교를 “매일 낮에만 다닌다.”는 의미로 ‘Day School’이라 불렀는데, 북감리교회의 부속학교를 ‘수원남자매일학교’, ‘수원여자매일학교’라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가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하영 등 한국인은 삼일학당·삼일여학당이라 불렀다.

삼일여학당이 개교한 것은 1902년 6월경으로 나타난다. 여학당의 후신인 수원매향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한 밀러(L. A. Miller)의 회고에 따르면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턴(Mary Fletcher Scranton : 1834-1909) 여사가 초가집에서 어린 소녀 3명을 모아 가르친 것이 학교의 시작이었다.<sup>51</sup>

어·산술, 김홍식(金鴻植) : 한문·지리·국문, 임면수(林勉洙) : 한문·지리·국문, 강건식(姜建植) : 체조 및 훈련, 강태용(姜泰庸) : 수신·역사·산술, 김용호(金用鎬) : 한문·수신·역사, 김전(金銓) : 영어·산술, 박상훈(朴相勳) : 역사·작문·한문, 최진협(崔鎭協) : 국문·영어, 오기영(吳琪泳) : 측량·산술, 남명식(南明植) : 한문·수신·역사·도화, 송세호(宋世鎬) : 체조 및 훈련, 이지성(李枝盛) : 성경·창가, 정준화(鄭駿和) : 생리·광물·물리(김세한, 『삼일학원 팔십년사』, 학교법인 삼일학원, 1983, 115~116쪽).

49 삼일학교는 이후 삼일보통학교, 팔달심상소학교(1938), 수원팔달국민학교(1941)로 이름이 바뀌었다. 해방 후 수원삼일중학교(1946)와 수원삼일상업고등학교(1955)로 인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는 1968년에 수원삼일실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가 1988년에 삼일상고와 삼일공고로 분리되었다.

50 W. C. Swearer, “Suwon, Ichon and Kongju Circuits”, MAMMECS, 1902. 학교법인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에서 재인용.  
51 1937년 삼일여학교 35주년 기념행사를 6월 3일로 정하여 치렀으며, 『매향 80년사』와 『매향 100년사』에서도 학교의 설립시기를 1902년 6월 3일로 기록하고 있다.



1906년 삼일여학당 초기 교사(채부인, *FIFTY YEARS OF LIGHT*, 미감리교회부 인선교부, 1938)

스크랜턴은 1885년 미감리회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와 24년간 선교 활동과 의료봉사에 힘썼으며, 특히 오늘날 이화여고·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梨花學堂)을 설립하여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는 선교 초기에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힘쓰다가 페인(J. O. Paine), 로드와일러(L. C. Rothweiler), 프레이(L. E. Frey) 등 여선교사들이 들어오자, 1894년 이후 서울 이남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사업에 열중하였다. 수원·용인·과천·시흥을 순회

하면서 여성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본격적인 선교를 준비하는 등 미감리교 여선교회의 실질적인 대모(代母) 역할을 하고 있었다.

1898년에는 스크랜턴의 뒤를 이어 스웨어리(W. C. Sweaer : 한국명 徐元補)가 서울 이남 지역 선교사업에 투입되었다. 1899년 보고서에는 수원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901년 12월에는 북문 안에 초가집을 구입하여 선교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스크랜턴이 수원을 방문하여 소녀 3명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삼일여학당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1903년 미감리교 여선교회는 수원 지역의 여성 선교와 여학교 활성화를 위해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경숙(李卿淑 : 1851~1930)을 파송하였다. 이경숙은 스크랜턴의 수양딸이자 이화학당 한국인 최초의 교사로서 스크랜턴을 도와 전도사업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경숙이 부임할 당시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여학생도 2명밖에 없었는데, 1년 만에 교우 70명에 여학생은 20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1904년 미감리회 한국선교부에서 수원·이천 지역에 전담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수원 선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경부선이 개통하여 서울과 철도로 이어지면서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고, 종로교회도 교인수 160명에 부녀자가 60~7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스크랜턴은 교사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한 끝에 장안동 95번지의 초가집과 부지를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2월 북문 근처에 있던 교회가 종로로 이사할 때 남자



삼일여학교 학생들(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1909년 삼일여학교 학생들(독립기념관 소장)

학당은 교회를 따라 옳긴 반면, 여자학당은 장안동 새 부지로 독립하게 되었다.

수원부 내에 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교사는 김메레 씨이고 학도는 48명, 학과는 국문·한문·영어·산술·체조인데, 교사의 열심 권학과 학도의 일진월보(日進月步)함을 찬상(讚賞)한다.<sup>52</sup>

여기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는 표현은 복수동의 남녀학당 체제에서 비로소 여자학당이 독립·이전하여 새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문에 여학당 설립 기사가 게재되고, 이어 수원군수가 학당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일여학당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삼일여학당이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여학교로 인정받게 되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졌다.<sup>53</sup>

학당 운영에 필요한 선교비와 운영비는 미감리회 여선교회에서 부담하였는데, 1907년에는 밀러(L. A. Miller)가 부임하여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미감리회 여선교회장인 스크랜턴의 지원에 힘입어 수원 시내 중심가에 남녀학당과 교회 건물, 선교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도 구입하였다. 이곳은 현재 매향중학교가 위치하고 있

52 『황성신문』, 1906년 9월 1일.

53 1907년 7월 6일 거행된 삼일학교의 방학식 때 학생 현황을 보면 남학당 105명, 여학당 50명이었다(학교법인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 94-95쪽).

는 자리이다. 이처럼 삼일여학교는 점차 수원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편 1909년 일제는 「보통학교령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조선의 사립학교 교육을 더욱 억압하는 동시에 일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보통학교의 설립 목적은 “학도의 신체 발육에 유의하고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베풀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예(技藝)를 주는 것”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4년에 매년 200일 이상 수업하도록 하였다. 설립 주체에 따라 관립·공립·사립으로 나뉘었으며, 공립·사립 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 삼일여학교는 1909년 4월 28일 학부의 인가를 받은 후 정식 학교의 면모를 갖추고자 교가도 제정하였다.<sup>54</sup> 교과목으로는 국문·한문·영어·산술·체조·성경·음악·재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5</sup>

1910년 3월 23일 삼일여학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졸업생은 다섯 명으로 차우르다, 나혜석, 홍보배, 박충애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나혜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신여성(新女性)으로서 여권 신장과 남녀평등을 주장한 선각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1921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와 제국미술원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하였다.

### 3) 수원상업강습소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서구 열강의 침입이 고조되고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수원 지역에서도 사립학교를 설립하지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제의 경제적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수원에도 일본인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자, 수원의 토착민들은 시장을 개설하여 일제와 맞서는 한편 근대적 상업을 진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08년 4월 15일 홍건섭(洪建燮), 홍민섭(洪敏燮), 김흥선(金興善), 양성관(梁聖寬), 신준희(申駿熙) 등이 중심이 되어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에서 수원상업회의소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수원상업회의소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는데, 상업회의소 설립을

54 작곡자가 알려지지 않은 삼일여학교의 교가는 다음과 같다. 산도 높고 물도 고운 반도 강산에/우리 학교 우리 위치 널리 빛나니/활발한 기상으로 앞서 나가세/삼일여학교 만세/만세 만세 삼일여학교/만세 만세 삼일여학교/백절불굴하여 용기 있게 나가세/삼일여학교 만세(학교법인 매향학교, 『매향 100년사』, 2006, 117쪽).

55 삼일여학교는 1926년에 삼일여자보통학교가 되었고,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매향여자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 시행으로 수원여자매향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해방 후 매향여자중학교(1951), 매향여자가정고등학교(1958)로 인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는 매향여자실업고등학교(1963)→매향여자상업고등학교(1972)→매향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1996)로 교명을 바꾸었다.

주도한 인사는 양성관이였다. 양성관은 수원명륜학교(水原明倫學校)를 졸업하고 수원상업회의소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1908년 8월에 실시된 수원상업회의소 초대 의원 선거 및 임원 선출에서 부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sup>56</sup>



1924년 수원상업강습소의 졸업증서(수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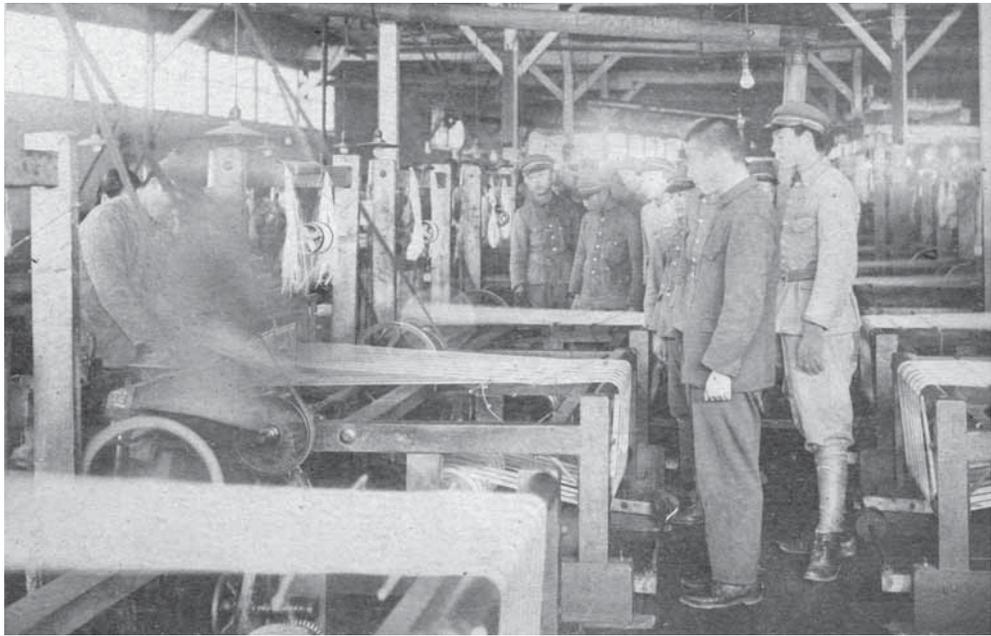
수원상업회의소는 1899년에 제정된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 제8조 규정에 따라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1909년 2월 2일<sup>57</sup>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를 부설하기에 이르렀다.<sup>58</sup> 이 같은 강습소 설립은 후진들에게 상업부기·영어·한문 등 상무(商務)에 관한 일을 가르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학문과 지식 보급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교육구국운동의 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원상업강습소가 설립되면서 내세운 건학이념의 근본은 애국애족에 기초하고 있는데, 무산 아동과 서민들을 계몽하여 개화에 동참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큰 뜻과 조국의 주권 회복이라는 명분을 교육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수원상업강습소는 수원상업회의소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주간·야간 두 개의 과를 설치하고, 주간 보통과 30명, 야간 보통과 80명을 모집하였는데, 보통학교 졸업 이상자에 한하여 입학 을 허가하였다.

한편 1916년 7월 일제는 「조선상업회의소령(朝鮮商業會議所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

56 수원상업회의소 창립 발기인이나 총회 개최장소, 초대 회장의 이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백년사』, 2008, 200쪽). 한편 1915년에 이르러 수원상업회의소의 의원 23명, 특별의원 3명, 예산 1,380원 등 현황을 살필 수 있다(『상업회의소 표』,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7월 6일).

5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하, 1997, 588쪽. 한편 현재 수원중·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도 2월 2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아일보』에서는 학교 설립일을 1910년 6월로 기록하고 있어 개교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수원성 내 상업강습소는 율회 4년(1910) 6월 전(前) 수원상업회의소에서 상업에 관한 지식기능의 강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던바……”(『상업강습소 개원』,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경영해 나가는 오직 하나뿐인 교육기관…… 율회 4년(1910) 6월에 당시 상업회의소의 경영으로 창립되어……”(『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 대오할 우리』,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58 1938년에 화성학원을 졸업한 사업가이자 화가 윤한홍(尹漢弘: 1923~)의 증언에 따르면 수원강습소가 있던 자리는 당시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260번지 일대(지금의 남수동 68)로 확인되고 있다(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2, 2002, 255~312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 2009).



수원상업학교 직조공장 견학(1944년 수원상업학교 졸업앨범)

다. 이는 종래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설립한 상업회의소를 통합하고, 총독부에 순응하지 않는 조선 상공인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감시·감독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우선 행정구역상 부(府)에 한하여 상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군(郡)·면(面)에 설립되어 있던 상업회의소는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한 개의 상업회의소만 인정하였으며,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정관을 만들고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총독의 인가를 얻을 것을 규정하였다. 이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액의 영업세를 부담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대다수 조선인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조선상업회의소령」은 조선인 상공업자들을 배제하고 일본인 위주로 상업회의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를 장악함은 물론 상업회의소가 일제의 경제정책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수원상업회의소는 이 법령에 따른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916년 4월 해산하였다. 상업회의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상업강습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지만,<sup>60</sup> 이후 강습

59 전성현,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 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84-86쪽.  
60 「상업회의소 기부」, 『매일신보』, 1916년 3월 29일.

소에 대한 지원이 끊어짐에 따라 강습소는 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몇몇 유지들이 힘을 모아 강습소를 화성학원(華城學院)이라 개칭하고 주학(晝學)으로 보통과(普通科)·중등과(中等科)·고등과(高等科)를 두고, 야학(夜學)에는 초등과(初等科)·전수과(專修科)를 두어 16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되었다.<sup>61</sup>

#### 4. 수원농림학교의 설립과 운영

수원농림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상공학교(商工學校)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후 상공학교는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농업 부문이 증설되면서 1904년 9월 1일 관립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1906년 9월 10일에는 다시 농과가 독립하여 농상공부가 관할하는 농림학교로 변경되었다.

한편 학교가 위치한 한성부 수진동이 농업 교육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개교한 지 4개월 만인 1907년 1월 8일에 수원의 서둔동으로 이전하면서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1908년 5월에는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지금의 수원시 서둔동)에 교사·기숙사·관사 등 건물 523평에 대한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sup>62</sup> 당시 농림학교의 운영체제와 교육과정, 학생 정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농림학교의 근황을 들은 즉, 해당 학교는 농학(農學)·임학(林學)·수의학(獸醫學)을 교수하기 위하여 재작년 9월에 병설한 것이니 목하 본과·연구과·속성과 3과를 두고 본과는 농학·임학을 교수



수원농림학교의 후신 수원고등농림학교(수원박물관 소장)

61 「상업강습소 개혁」,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한편 수원상업강습소는 1916년에 화성학원으로 개편된 이후 수원상업전문학교(1941)와 6년제 수원중학교(1946) 체제를 거쳐 수원중·고등학교(1951)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won.hs.kr>) '개교 100년 역사관'.

62 「광고」, 『관보』 제4066호, 1908년 5월 6일.

하고, 연구과는 본과의 졸업생을 수용하여 농학 혹은 임학을 교수하고, 속성과는 농·임·수의 3과로 나누어 속성으로 교수하되 수업연한은 본과 2년, 연구과 1년, 속성과 1년이요, 직원은 교장 혼다(本田) 박사 이하 5인, 농상공부 기사 3명, 모범장에 있는 본과 2년생 20명, 1년생 30명, 속성과 중 입학과 7명이고, 2년생 및 속성과는 이달 말에 졸업하고 본과 졸업생은 모범장 및 각 기술원으로 채용하고 속성과 졸업생은 산림국 기사로 채용할 터이라더라.<sup>63</sup>

속성과는 수업연한 1년 과정으로 당장 필요한 농업 관계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운영되었으며, 1907년 4월 입학 속성과 12명을 배출하였다. 본과는 중등농업 교육과정으로 농업 전반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1906년 당시 본과의 교과목과 주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sup>64</sup>

1학년 : 수산(1), 일어(6), 수학(3), 물리·화학·기상(3), 농학대의(農學大意 : 2), 작물(2), 양잠(1), 임학대의(林學大意 : 3), 실습(無定時間)

2학년 : 수산(1), 일어(4), 수학(3), 농학대의(1), 토양 및 비료(2), 작물(2), 축산(1), 양잠(1), 농산제조(1), 임학대요(1), 조림학(3), 수의학대의(獸醫學大意 : 3), 경제 및 법규(1), 실습(無定時間)

2년 과정의 본과 수업연한은 1909년 6월 「농상공부령」에 의한 교칙 개정에 따라 3년으로 바뀌었다. 또한 1908년의 학생 모집 광고를 보면 본과 40명, 수의 속성과 20명을 정원

으로 하고 있으며, 입학 지원자는 ① 만 15세 이상 30세 이하 ②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③ 재학 중 가사(家事)에 관계가 없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응시과목은 수학·한문·일어·신체검사였다.<sup>65</sup>

1908년 4월 15일에는 수원농림학교의 본과 제1회 졸업증서, 입학 속성과 제2회 수업증서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때 졸업생은 본과 26명과 속성과 7명인데, 취업 현황을 보면 본과 졸업생은 목포·함흥·진주·군산·한창·평

### 農林學校 學員募集廣告

本校京畿道水原農林學校에서本科學員四十名과獸醫速成科學員二十名을現將募集한다. 入學志願者는來三月三十一日(陰曆二月二十九日)內로入學願書及履歷書를本校에提出書事

入學志願者는左記의資格이有者者是也

- 一 滿十五歲以上三十歲以下者
- 二 身體強健하고品行이端正한者
- 三 在學中家事에關係가無한者

入學試驗科目

日語 數學 漢文 身體檢査

試驗期日

自四月一日午前十時 數學 漢文

自四月二日午前十時 日語 身體檢査

試驗處所

漢城外兩語學校(中學校洞)

試驗受令者는紙筆墨를携帶率本校의規則을詳知한다. 志願者는農商工部農務局又는本校에來問或委函을請

수원농림학교 학생 모집 공고(『황성신문』, 1908년 3월 24일)

63 『황성신문』, 1908년 3월 14일.

64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일람』, 1931, 24-25쪽.

65 『황성신문』, 1908년 3월 24일.

양·해주·영변·공주에 각 1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 2인, 농림학교에 1인, 농공상부 산림국에 1인이 배치되었고, 속성과 졸업생은 평양에 3인, 대구에 3인, 경성에 1인이 배치되었다.<sup>66</sup>

한편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후 수원농림학교는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개칭되었고,<sup>67</sup> 권업모범장에 부속되면서 모범장장이 교장을 겸하게 되었다. 이때 입학자격은 보통학교 졸업자로 제한하였으며, 졸업생에게는 관립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주었다. 이들은 대체로 농림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산업회사 등에 취업하였다.

---

66 『황성신문』, 1908년 4월 14일; 『황성신문』, 1908년 4월 28일.

67 이후 농림학교는 수원농림전문학교(1918), 수원고등농림학교(1922), 수원농림전문학교(1944) 등으로 교명이 바뀌었으며, 해방 후 대구농림전문학교를 병합하였다가 분리된 뒤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편입되었다.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1. 초등교육기관
2. 서당과 야학
3. 중등교육기관
4. 일본인 교육기관
5. 공공교육의 지역민 부담



## 제2장

# 일제하 수원의 교육과 학교 운영<sup>1)</sup>

### 1. 초등교육기관

일제는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1911년 8월 식민지 교육방침과 제도를 규정하는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과 10월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교는 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고, 공립보통학교 교장에는 일본인들이 임명되어 이들은 식민지 교육을 위해 개교 직후부터 일본어 보급에 앞장섰다.

1910년대 수원 지역의 초등교육기관은 1896년에 개교한 수원공립보통학교를 비롯하여 남양공립보통학교(1898년), 오산공립보통학교(1913년)와 일본인을 위한 수원면 매산리 수원공립심상소학교(1906년)와 안릉면 안녕공립심상소학교(1913년), 향남면 발안공립심상소학교(1916년) 등이 있었다.

일제는 식민 통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지표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근대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꼽았다. 이에 따라 1919년 교육정책과 목표는 3개 면(面)에 1개 공

1 매산백년사편찬위원회, 『매산백년사』, 매산초등학교·매산초등학교동문회, 2007, 226~273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표 1〉 1913년 수원군 조선인 교육기관과 학생수<sup>2</sup>

명칭	남	여	계
수원공립보통학교	285	80	365
오산공립보통학교	147	0	147
사립 진명학교	42	0	42
사립 삼일학교	53	0	53
사립 삼일여학교	0	60	60
수원공립간이학교	25	0	25
계	552	140	692

〈표 2〉 1922년 수원군 교육기관과 학생수<sup>3</sup>

구분	공립	사립	계	학급수	교원	아동		
						남	여	계
소학교	4	0	4	14	18	320	185	505
보통학교	6	0	6	34	37	1,642	308	1,950
간이실업학교	1	0	1	1	2	22	0	22
종교학교	0	3	3	13	13	107	164	271
계	11	3	14	62	70	2,091	657	2,748

립보통학교를 설치하는 3면 1교제였다.

그러나 1925년 당시 수원군에서 중도 퇴학한 학생은 672명이었다. 퇴학 사유로 169명은 전학 또는 질병 등이고 대부분은 가정 빈곤과 생활난 때문이었다. 이들은 처음 주위의 자극 또는 교육열의 향상에 따라 입학은 하였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중도 퇴학한 경우이다. 따라서 수업료 체납도 많아서 1928년 체납자는 443명, 체납액은 모두 252원 10전에 달하고 있다.<sup>4</sup> 이는 1920년대 말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4,000여 명의 공립보통학교 학생 가운데 500여 명이 생활난으로 중도 퇴학을 하고 있다. 학생 8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인 보통학교는 사회의 진보에 따라 향학열이 높았지만 중류 이하의 가정은 교육비 부담에 곤란을 느껴 수업료와 학용품 값으로 매달 1원 내외의 지출을 힘들어 하는 상태였다.

일본인은 대체로 교육비 부담 같은 곤란이 없었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 농업 이민을 온 일본인 농민 중에는 농촌에서 매년 1호당 평균 21~22원 내외의 부과금과 매월 아동 학자

2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7~18쪽.

3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6쪽.

4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109~110쪽.

금 지출에 곤란을 겪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들을 중도 퇴학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당시 수원군의 보통학교는 12개 학교로 공립 11개교, 사립 1개교이다. 수원공립 보통학교는 1927년에 19개 학급(남학생 13학급, 여학생 6학급)에 1,263명(남학생 910명, 여학생 353명)이 재학 중이었다. 1학년 3학급, 2학년 2학급, 3학년 4학급, 4학년 3학급, 5학년 3학급, 6학년 4학급으로 총 19학급이었고, 여학생은 학년마다 1학급씩 편성되어 있었다. 6년제였던 공립보통학교는 수원을 비롯한 오산·남양·팔탄공립학교 등 4개 보통학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공립학교는 4년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4년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6년제 학교로 다시 진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태장공립보통학교는 4개 학급에 200명(남학생 165명, 여학생 35명), 안룡공립보통학교는 4개 학급에 283명(남학생 244명, 여학생 39명)이 재학 중이었다. 따라서 1927년 수원 지역의 12개 초등교육기관에는 모두 73학급 총 4,036명이 재학 중이었고,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는 4개가 있었다.

〈표 3〉 1927년 수원군 교육기관<sup>5</sup>

구분	일본인교육		조선인교육				합계	
	소학교	보통학교	간이실업학교	종교학교	유치원	서당		
학교수	공립	4	11	1			16	
	사립		1		2	1	199	
	계	4	12	1	2	1	199	
학급수	14	73	2	11	1		101	
교원수	16	76	3	9	1	204	309	
이동수	남	299	3,224	25	262	20	1,942	5,772
	여	185	812			20	42	1,059
	계	484	4,036	25	262	40	1,984	6,831
졸업자수	81	518	10	18			627	
경비	31,035	106,739	5,662	6,098	528	28,905	178,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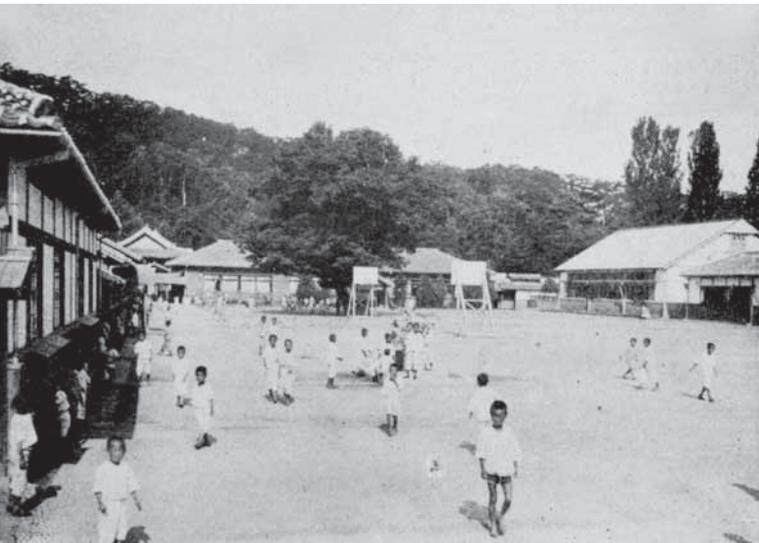
1928년 수원군에는 오산공립농업보습학교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조선인 초등교육기관(공립보통학교)이 있었다. 이들 학교에는 73개 학급에 총 4,27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인 1927년과 비교할 때, 학급수는 같으나 학생수는 234명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5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표 4〉 1928년 수원군 공립보통학교 경비조서

구분	학급수	학생수	경비내용						
			합계	여비	잡급	수용비	수선비	잡비	시설비
농업보습	2	40							
수원	19	1,216	4,409	304	9	3,130	360	315	391
오산	10	665	2,359	184	7	1,795	200	88	85
남양	8	461	1,984	164	6	1,563	100	72	79
팔탄	6	321	1,770	139	6	1,268	80	63	214
송산	4	203	1,936	138	4	1,062	450	51	231
태장	4	179	1,401	91	4	952	100	50	204
삼괴	4	215	1,371	98	4	975	150	53	91
반월	4	237	1,290	91	4	967	100	50	78
동탄	4	261	1,337	91	4	1,002	90	53	97
안릉	4	214	1,436	90	4	1,017	80	51	194
향남	4	258	1,346	93	4	1,132	50	53	64
총계	73	4,270	20,639	1,483	56	14,863	1,760	899	1,728

일제의 교육정책은 1면 1교(校) 정책으로 진전되었다. 즉 제2차 「조선교육령」(1922년 2월 4일)에 따라, 3개 면에 1개 공립보통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1927년 1면 1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1929년부터 1936년까지 매년 130여 개교씩 총 1,074개 학교를 세워 각 면마다 공립보통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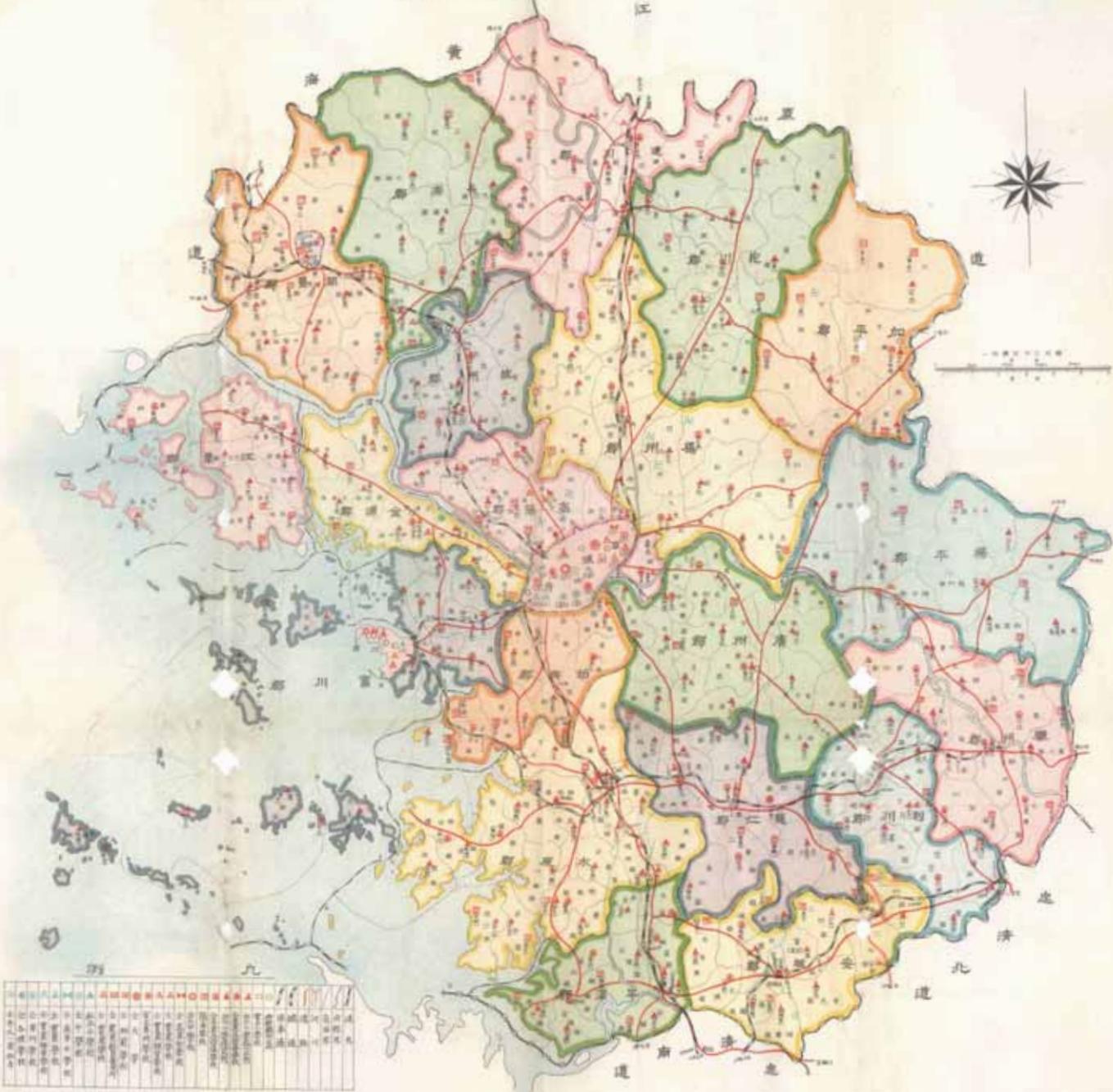
일제시기 수원공립보통학교 전경(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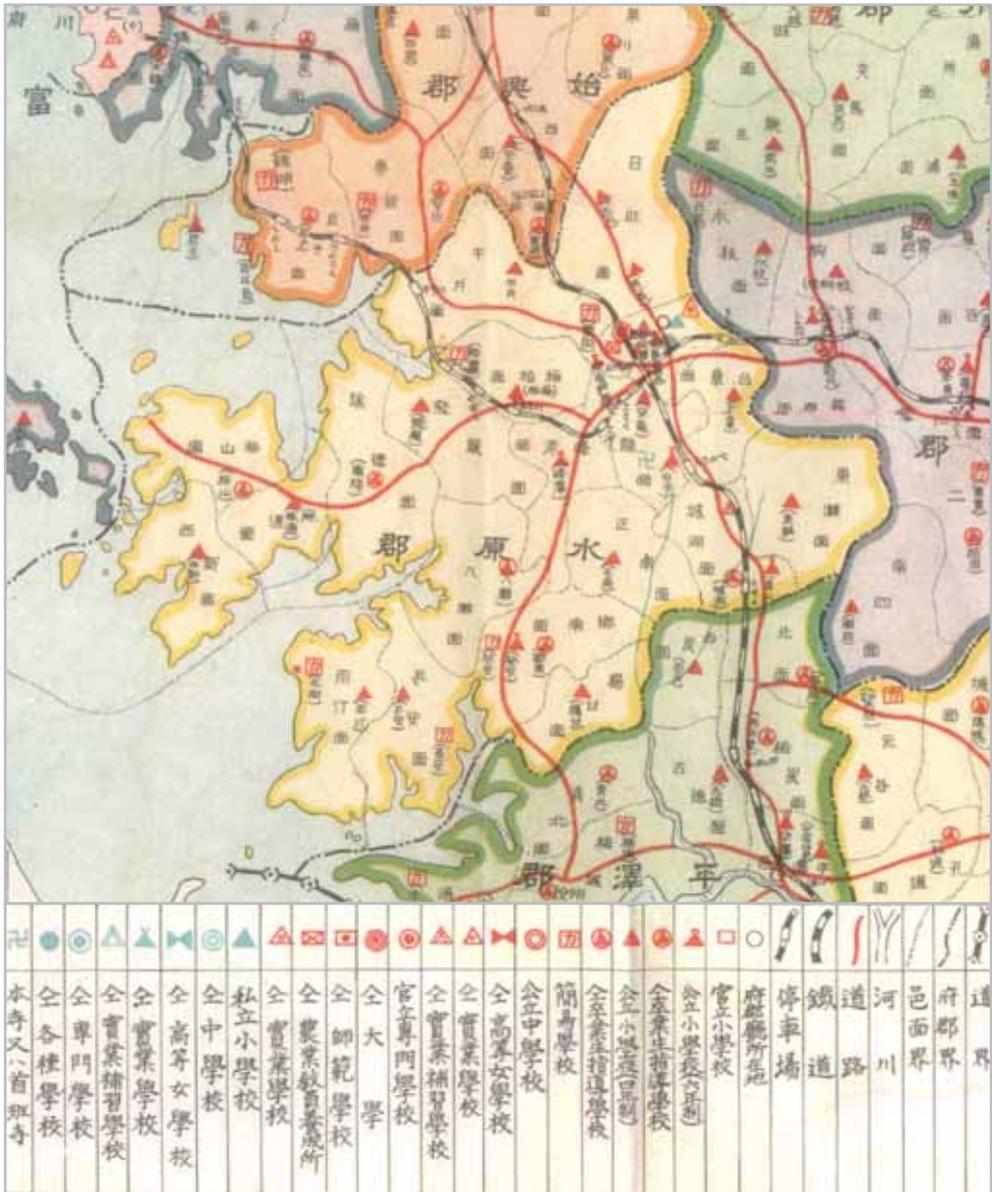
일제시기 수원공립보통학교 성적표(신동준등학교 소장)

# 京畿道內諸學校分布圖

昭和三十三年五月末日現在



1930년대 경기도 관내 학교 분포(경기도, 『경기도의 교육과 종교』, 1934)



1930년대 수원군 관내 학교 분포(경기도, 『경기도의 교육과 종교』, 1934)

이러한 1면 1교제를 실시함에 따라 수원군은 각 면 단위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기존의 수원공립보통학교(1896년), 남양공립보통학교(1898년), 오산공립보통학교(1913년) 외에 1919년 이후 송산공립보통학교(1920년), 팔탄공립보통학교·태장공립보통학교

(1922년)와 반월공립보통학교·삼괴공립보통학교·동탄공립보통학교(1923년), 안룡공립보통학교(1924년), 향남공립보통학교(1926년) 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1927년 1면 1교 정책에 따라 정남공립보통학교(1930년), 비봉공립보통학교·양감공립보통학교(1931년), 서신공립보통학교(1932년), 봉담공립보통학교·매송공립보통학교(1933년), 마도공립보통학교(1935년), 우정공립보통학교·고천공립보통학교(1936년) 등이 건립되면서 수원군은 20개 공립보통학교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수원군은 1931년 승격된 수원읍과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1936년 일왕면 고천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자 일제는 수원군에서 1면 1교 정책이 완성되었다고 선전하였다. 1937년 수원군은 <표 5>와 같이 공립보통학교가 21개 학교에 학생은 7,263명이었고 100학급에 교원은 12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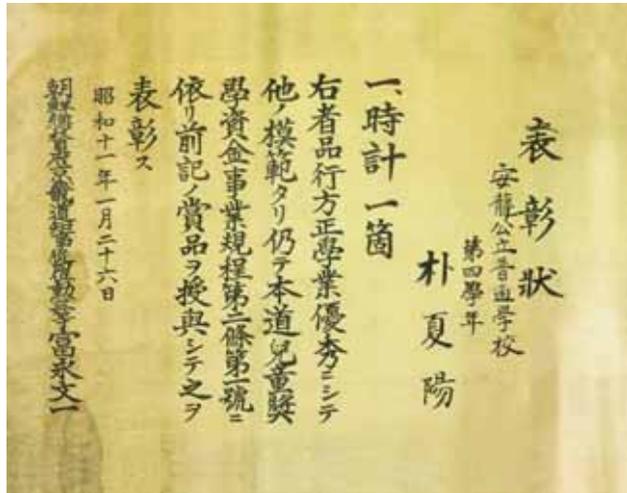
<표 5> 1937년 5월 수원군 공립보통학교<sup>6</sup>

학교명	위치	설립시기	수업연한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수원	수원읍 신봉정	1906. 8.	6	23	27	1,643
남양	음덕면 남양리	1909. 7.	6	8	8	591
오산	성호면 오산리	1913. 4.	6	11	11	882
송산	송탄면 사강리	1920. 5.	4	4	11	301
팔탄	팔탄면 구장리	1922. 4.	6	6	7	453
태장	태장면 신리	1922. 4.	4	4	5	292
반월	반월면 건건리	1923. 5.	4	4	5	285
삼괴	장안면 어은리	1923. 6.	4	4	4	285
동탄	동탄면 오산리	1923.10.	4	4	5	281
안룡	안룡면 대항교리	1924.10.	4	4	5	287
향남	향남면 백토리	1926. 8.	4	4	5	316
정남	정남면 발산리	1930. 1.	4	3	3	207
비봉	비봉면 삼화리	1931. 4.	4	3	4	198
양감	양감면 신왕리	1931. 4.	4	3	3	206
서신	서신면 매화리	1932.12.	4	3	4	194
봉담	봉담면 상리	1933. 5.	4	2	2	161
매송	매송면 원평리	1933.11.	4	2	2	162
마도	마도면 석교리	1935. 4.	4	2	2	152
우정	우정면 조암리	1936.11.	4	2	2	125
고천	일왕면 고천리	1936.11.	4	2	3	125
파장	일왕면 파장리	1937. 1.	4	2	2	117
계(21개)				100	120	7,263

6 경기도, 『京畿道の教育と宗教』, 1937, 24~25쪽.



안룡공립보통학교 조회(안룡초등학교 소장)



안룡공립보통학교 표창장(안룡초등학교 소장) 4학년생 박하양이 경기도지사에게 받은 표창장이다.

1938년 4월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 학교 이름인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이름을 바꾸었고, 학교에서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였다. 이와 함께 신평동에 위치한 수원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 학교인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게 이름을 빼앗기고 신평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심상소학교는 다시 1941년 4월 1일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공립국민학교(公立國民學校)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학제가 4년제였던 학교들도 6년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심상소학교 이름으로 졸업생이 배출되었다가 다시 ○○공립국민학교 이름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면서 2년간 졸업생이 없는 학교도 생겼다.

일제는 보통학교 확장과 더불어 실업교육기관으로 각종 실업학교를 설립하였다. 1911년 7월 공립수원보통학교 부설 명륜실업보습학교(明倫實業補習學校)가 설치되었다. 이후 수원명륜간이상업학교로 바뀌었는데 1912년 6월 생도 모집 정원 50명 가운데 25명을 모집하였다. 그 가운데 보통학교 졸업자는 8명, 미졸업자는 17명이었다. 입학자 연령은 12세 이상 1명, 15세 이상 14명, 18세 이상 9명, 20세 이상 1명이었다. 또한 입학자 학부형 신분을 살펴보면 귀족 자제는 없고, 양반 5명, 상민 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수원명륜공립간이농업학교(明倫公立簡易農業學校)로 바뀌었다가 1913년 1월 6일 수원공립간이농업학교(水原公立簡易農業學校)로 개칭되었다. 수원공립간이농업학교는 1918년 3월 31일 폐교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보통학교 부설로 간이학교를 운영하였다. 1912년 7월 29일 남양공립보통학교 부설로 남양공립간이농업학교(南陽公立簡易農業學校)가 세워



수원공립보통학교 부설 명륜간이상업학교 전경(김인기 제공)

졌다.<sup>7</sup> 마찬가지로 1915년 7월 17일 수원군 오산공립보통학교 부설로 오산공립간이농업학교를 인가하였다. 이후 1922년 4월 1일 오산공립간이농업학교는 오산공립농업보습학교(烏山公立農業補習學校)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지되었다. 2년제인 오산공립농업보습학교는 1927년 당시 각 학년 1학급 30명씩 총 60명의 학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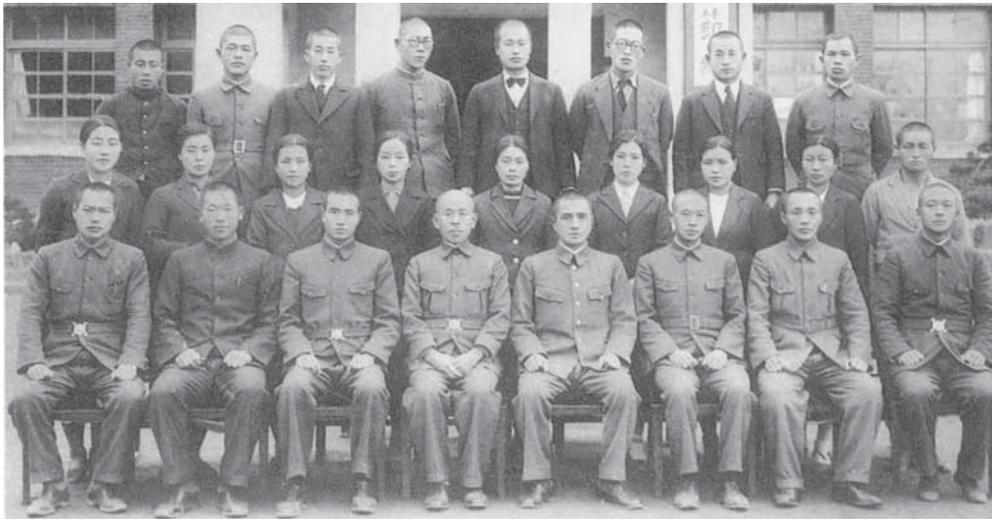
1937년 수원 지역에는 5개의 간이학교가 있었다. 또한 1944년 4월 1일 기존의 간이학교를 국민학교로 승격시켰다. 장안간이학교는 장명국민학교, 발안간이학교는 발안국민학교, 송라간이학교는 송라국민학교, 화수간이학교는 화수국민학교로 각각 승격되었다.

〈표 6〉 1937년 5월 수원군 간이학교<sup>8</sup>

학교명	위치	설립연도	교원수	학생수
파장공립보통학교 부설 율전간이학교	일왕면 율전리	1934. 4.	1	61
우정공립보통학교 부설 화수간이학교	우정면 화수리	1934. 4.	1	67
향남공립보통학교 부설 발안간이학교	향남면 발안리	1935. 5.	1	75
매송공립보통학교 부설 송라간이학교	매송면 송라리	1936. 4.	1	73
삼괴공립보통학교 부설 장안간이학교	장안면 장안리	1936. 4.	1	74

7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8월 1일.

8 경기도, 『京畿道の教育と宗教』, 1937, 37~38쪽.



1940년대 신흥국민학교 교직원(신흥초등학교 소장)



세류국민학교 교직원(제1회 세류공립국민학교 졸업앨범)

한편 1943년 당시 수원의 일본인 교사는 수원고등농림학교 34명, 수원공립농업학교 12명, 고등여학교 7명, 수원국민학교 8명, 신흥국민학교 8명, 세류국민학교 5명, 삼일학교에서 이름을 바꾼 팔달국민학교 1명 등이었다. 모두 75명으로 상당한 수의 일본인 교사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비해 조선인 교사는 고등농림학교 8명, 수원농업학교 1명, 화성학원(華城學院) 4명, 상업전수학교(商業專修學校) 3명, 신흥국민학교 6명, 세류국민학교 7명, 팔달국민학교 3명, 수원공립고등여학교 6명 등이었다. 수원 지역 조선인 교사는 35명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인 학교였던 수원국민학교에는 조선인 교사가 1명도 없었다.

## 2. 서당과 야학

1910년대에 민족관이 투철했던 조선인들은 단발령을 따르지 않고 일본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기 때문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기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민족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보통학교는 학생들을 억지로 동원하기도 했다. 1910년 이후 총독부의 탄압으로 사립학교의 숫자는 줄었지만 이에 반비례하여 서당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강점 초기에 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낙후되고 수구적인 서당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서당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은 조선인 자제들과 빈곤 가정의 자제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교육기관인 서당으로 모였다. 이에 서당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점차 증가하여 교육내용도 기존의 한문교육에 더하여 보통학교의 교과목을 가르쳤고 전국적으로 700개에 이르게 되었다. 서당 자체는 전근대적인 사숙이며 교재나 교원도 근대 학교와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서당에서는 한국어가 상용되었고 애국적 지식인을 찬미하는 반일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일제는 서당을 방치하는 태도에서 탄압정책으로 바꾸었다.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書堂規則)」을 발표하고 서당의 인원이 30명이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보다 많은 공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1면 1교제는 한 면에 한 학교, 곧 각 면마다 보통학교 하나를 두는 제도이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교육시설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과 사립학교를 없애고 대신 공립보통학교를 세워 일본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1913년 당시 수원군의 서당은 150개에, 학생수는 1,144명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여학생은 1명도 없었다. 그 후 1922년에는 238개로 더욱 늘었고 이에 따라 서당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2,355명으로 1913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표 7〉 1913년과 1922년 수원군 서당<sup>9</sup>

구분	서당수(개소)	남	여	합 계
1913	150	1,144	0	1,144
1922	238	2,353	2	2,355

보통학교에서 월사금을 낼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둔 가난한 아동은 서당이나 야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서당은 1923년 238개 2,355명에서 1927년 199개 1,983명으로 줄었다. 서당이 보통학교에 수위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초등교육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었다.

태장면의 경우 인가를 받은 서당으로 지리(地理 : 현재의 지동)에 신온서당(新溫書堂)·벽천서당(碧千書堂)이 있었고, 무인가 서당으로 능리(陵里)에 문명서당(文明書堂)·송곡서당(松谷書堂)이 있었다. 신온서당은 1928년 4월 5일 설립되었는데, 설립자는 배성순(裴聖淳)이었고 교사는 장규한(張奎翰)이었다. 아동은 7명이었으며, 매달 월사금으로 1원씩 냈다. 벽천서당은 1918년 1월 30일 설립되었고 설립자는 김정익(金正翊)이었다. 교사는 김사원(金士元)으로 아동은 8명이었다. 월사금은 1개월당 70전으로 신온서당의 1원보다 적었다. 문명서당은 1930년 12월 30일에 설립되었고 설립자는 임명규(林明圭)였다. 교사는 채규학(蔡奎鶴)으로 아동은 10명으로 월사금은 1개월에 50전이였다. 송곡서당은 1882년 1월 15일 설립되었는데 설립자 김재구(金在龜)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동은 20명으로 월사금은 1인당 봄에는 보리 2말 반 되, 가을에는 벼 5말씩을 받았다.<sup>10</sup> 수원의 농촌지역 서당들은 이렇게 봄·가을로 보리와 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각성된 조선인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과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이는 일제의 문화정치와 맞물리면서 교육 제일주의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일제의 무단통치로 조선의 교육 현실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화성학원과 국민학당, 진명여자야학 등 무산아동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동수가 격증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어려운 생활 등 시대적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산아동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난한 아동들을 위한 야학이 설립되어 이 시기 초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제시기 수원 지역의 대표적 무산아동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9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7~18쪽;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6쪽.

10 박성근, 『태장향토사』, 태장공립보통학교, 1932, 35~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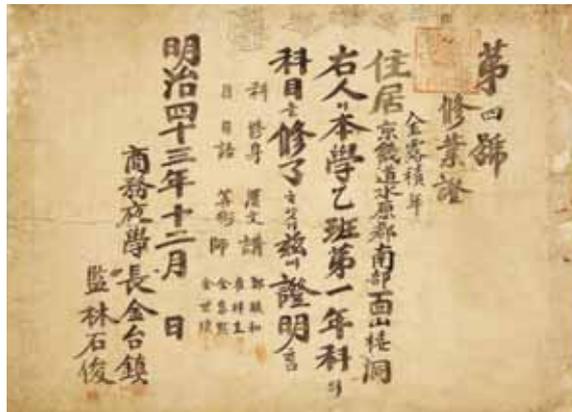
〈표 8〉 수원군 강습소 및 야학

학교명	설립연도	설립자	설립 시 학생수	학생수/교원수	소재지
보신강습소(普新講習所)	1923. 4. 1.	김용목(金容木)	45	48/2	양감면 사창리
삼미의숙(三美義塾)	1923. 4.	윤학영(尹學榮)	85	78/3	성호면 외삼미리
광명의숙	1923년 이전				장안면 사곡리
양명의숙	1923년 이전				장안면 사랑리
마도(麻道)야학부	1924. 4.	장연금(張練鎭)	22	28/1	마도면
대성강습소	1925. 3.29.				장남면
광성학원	1925. 4.28.				성호면 세교리
민국학당(民國學堂)	1925년경	고야산(高野山)		280/	수원면
화성학원 야학부	1926. 7.20.	신준희(申駿熙)	82	106/3	수원면
장안강습소	1927. 4. 1.				장안면 장안리
화산(花山)야학부	1927. 8.10.	신진갑(申眞甲)	38	22/3	
정문(正文)야학회	1927. 9.15.	조인행(趙仁行)	118	148/8	
동리(東里)청년야학부	1927.10.15.	양부성(梁富成)	68	52/2	일형면 동리
서둔(西屯)야학원	1908년	유정렬(劉政烈)		80/4	일형면 서둔리
서둔리(西屯里)야학부	1927.11.10.	송인철(宋寅哲)	85	35/4	
화북(華北)야학강습원	1928. 4. 1.				
오산(烏山)부인야학	1928. 6.28.	오산공립학교 부설	48	31/3	성호면 오산리
영통(靈通)야학회	1928. 7. 1.	한운택(韓雲澤)	38	25/2	태장면 영통리
안녕리(安寧里)야학회	1928.10. 1.	백홍기(白弘基)	38	25/2	안릉면 안녕리
안녕리아학	1929. 4.	이중찬(李重讚)		20/1	
솔대소년야학부	1929.10.	김인봉(金仁鳳)		30/4	
용소의숙(龍沼義塾)	1929.11. 1.	최성석(崔成錫)		63/3	양감면 용소리
매산(梅山)야학당	1929.12.				
포당(蒲塘)야학원	1929.12.	이기동(李基東)		25/2	양감면 포당동
서천(西天)야학원	1930. 1.	한창수(韓淸洙)		20/2	양감면 정문리
양명학원	1931. 3. 1.				우정면 화수리
정신학술강습소	1933. 4. 1.			23/	장남면 망월리

### ① 화성학원 야학부

화성학원(華城學院)은 수원상업회의소가 설치한 상업강습소의 후신이다. 수원의 조선인 상업인들이 주도한 수원상업회의소는 1908년 4월 15일 수원 남수동에서 설립되었다. 수원상업회의소의 상업강습소는 처음 야학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15년 일제는 「상업회



1910년 김노적의 상무야학 수료증(수원박물관 소장) 상업강습소는 야학으로 시작하였는데 설립 초기에 상무야학이라 불렀다.



1927년 화성야학회 수료기념(수원고등학교 소장)

의소령」을 발표하여 기존의 상업회의소에 대한 견제를 하였다. 이에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체되면서 강습소는 폐쇄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교원 윤용희(尹龍熙) 등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상업강습소를 주학(書學)으로 증설하였다. 주학에는 보통과·중등과·고등과를 두었고, 야학에는 초등과·전수과(專修科)를 두었다. 그 후 1926년 5월 화성학원으로 인가를 얻어 1927년 1월 현재 야학생 240명, 주학생 190명에 달하는 수원을 대표하는 사립 교육기관이 되었다. 화성학원은 이후 수원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 ② 용소의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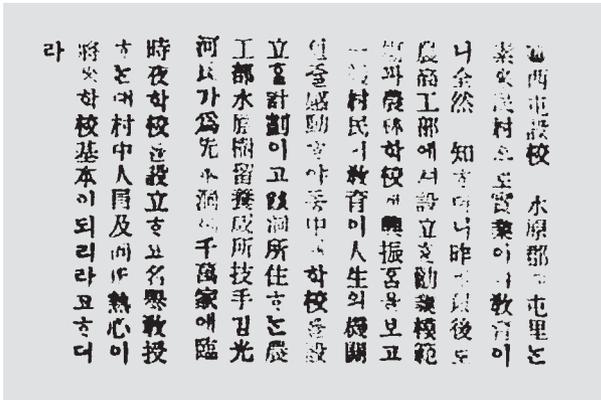
양감면 용소리에서는 마을의 청년들이 학원기성회(學院期成會)를 조직하여 가난한 아동들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에 1929년 11월 1일부터 야학원(夜學院)을 설치하였고 거둬들여 발전하여 주학까지 실시하여 번듯한 용소의숙(龍沼義塾)이 되었다. 1930년 5월 현재 학생수는 63명(남 46, 여 17)으로 갑·을·병 3학급으로 편성되어 한글·산술·한문 등의 학과를 배우고 있다. 임원으로는 의숙장 최성석(崔性錫), 학감 송인기(宋寅基), 교사 구직회(具直會)·장주문(張柱文)·최해택(崔海澤) 등이었고 학교경비는 교사들이 부담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양감장학계(楊甘獎學契)의 기부로 교사(校舍)가 완공되었다는 점이다.

## ③ 서천야학원

양감면 정문리의 서천야학원(西天夜學院)은 1930년 1월 개설되었다. 정문리는 박승극의 고향으로 소년동맹 양감지부가 있었다. 소년동맹의 청년들과 마을 유지들의 노력으로 야학원이 설립되었다. 1930년 5월 현재 20여 명의 학생들이 갑·을·병 3반으로 나누어 한글·한문·산술 등을 배우고 있다. 책임자는 한창수(韓彰洙)이고, 교사는 한병희(韓丙熙)·한공수(韓兢洙) 등이고 학교 운영비는 마을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양감장학계에서 기부한 교사를 포당야학(浦塘夜學)과 공동으로 건축하였다.

## ④ 포당야학원

포당야학원(浦塘夜學院)이 위치한 양감면 포당동은 가구수가 20여 호에 불과한 궁벽한 벽촌이었다. 더욱이 소작인 마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교육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29년 12월 무산계급도 배워야 한다는 각성에 따라 야학을 설치하였다. 가난한 주민들이 주머니를 털고 미약한 힘을 모아 학용품을 사고 설비도 갖추어 집집마다 남녀 자제를 막론하고 취학하게 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학생 25명을 갑·을 2반으로 나누어 한글·한문·산술 등을 가르쳤다. 임원은 원장 이기동(李基東), 원감 박묘양(朴卯陽)·장제석(張濟奭)·박도양(朴道陽), 교사는 한중석(韓重錫)·장윤광(張潤光) 등이었다. 원감은 매일 밤마다 교실에 가서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며 수업이 과할 때까지 노력하였다. 특기할 바는 이곳 야학 소년들이 대개 수원소년동맹에 가입하여 독서를 열심히 하였고, 소년잡지를 발간하는 별나라사 양감지사와 새벗사 수남지사(水南支社)가 있어서 신문화의 우량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전파하였다는 점이다.



서둔야학교(『황성신문』, 1908년 1월 14일)

### ⑤ 서둔야학교

서둔야학교(西屯夜學校)는 일형면 서둔리(현 서둔동)에 설치된 야학으로, 서둔리는 90여 호가 거주하는 마을이었다. 서둔야학교는 1907년 농공부 수원수류양성소(水原樹留養成所) 기사 김광하가 서둔 동민인 유천만(유정렬)의 집에 야학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둔리는 북쪽으로 권업모범장이 있

고, 남쪽으로 수원농림학교가 위치해 있어, 일찍부터 야학이 설립되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영재들이 배출되었다. 1927년 수원고농 학생인 김성원과 김찬도 등이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남학생 106명이 재학하였다. 당시 야학 교사(校舍)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이종웅, 송인천, 유천준, 이성일, 이영산 등 지역 유지들이 주선하여 와가 18평과 사무실 공사비 400여 환을 마련하여 야학교사를 신축하여 12월 3일 낙성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⑥ 보신강습소

보신강습소(普新講習所)는 양감면 사창리에 있었다. 1919년 이후 일반의 향학열이 팽배하여 마을마다 강습소와 학원 등이 설치되었다. 보신강습소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23년 봄 마을의 광산 김씨들이 서당을 폐지하고 보신강습소를 세워 신진 자제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그 후 1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사회에 내보냈으며, 1928년 여름 당국이 양감청년회 주최의 ‘하기무산아동강습소’를 금지함에 따라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1931년 4월 21일에는 보신강습소 교우회(校友會)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원 선거 후에 경영난에 빠진 모교 유지방침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교우회원이 매년 의무금을 지출할 것과 곡초대금을 경비에 편입할 것, 양감장학계 계금을 보통학교 건축비로 기부하지 말고 보신강습소에 보조하는 것을 결의하고 400원을 청구하여 교사를 개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교섭위원까지 선거하였다. 임원은 회장 김시중(金時中), 부회장 박승극(朴勝極), 위원 한창수(韓彰洙)·김용찬(金容贊)·장윤수(張潤秀) 등이었다.<sup>1)</sup>

### ⑦ 솔대소년야학부

일형면 송죽리(현 송죽동)에 있는 솔대 소년야학부는 유망한 마을 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경영하는 특색이 있었다. 1929년 10월 설립되어 현재 학생은 30명이고, 학감은 김인봉(金仁鳳), 교사는 용영만(龍永萬)·김인봉·용정식(龍貞植) 등이다. 마을의 소년들은 수원소년동맹에 가입하고 수원소년동맹 송죽지부(松竹支部)까지 설치하였다.

### ⑧ 안녕리아학

1927년 안릉면 안녕리의 유지들은 안녕상우회(安寧相友會)를 조직하고 상우회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상우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하였고 회관도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었다. 이에 이중찬(李重讚)은 회관을 이용하여 1929년 4월부터 무산아동 50여 명을 모아 가르쳤다. 한편 1928년 10월 1일 백홍기(白弘基)가 안녕리아학회를 만들어 학생 38명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계승한 것인지 별도의 야학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안녕리아학은 1930년 4월 27일 춘계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안녕상우회에서는 5월 3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중찬에게 재사용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5월 6일 회장과 임원 일동의 명의로 부결 '통고문'을 발송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는 회관을 사용하면서도 안녕상우회 임원들을 운동회에 초청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감정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에 신간회 오산분회 및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에서는 상우회에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 ⑨ 오산야학당

오산야학당(烏山夜學堂)은 성호면 오산리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1929년 8월 조선일보사 오산분국장 변기재(邊基在)의 제창으로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반'으로 시작되었다. 연희전문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성모(李星模)와 실업전수학교 2학년 황경후(黃慶厚)가 교사로 참여하여 문맹 아동 약 50명을 민가에 모아서 '한글강습'을 하였다. 그 후 9월 변기재가 조선일보사 지국 경영의 한글문자보급반을 계승하면서 이름을 '노동야학(勞動夜學)'으로 고치고 교육방침도 단순한 문자보급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형태를 취하였다. 이듬해 1930년 3월 노동야학은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의 부속사업으로 경영되어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으로 이전하였고, 이름을 '노농학원(勞農學院)'으로 고쳤다. 이 당시 학생수는 남녀 80여 명으로 4개 반이었다. 경비는 청년동맹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운영되었다. 1931년에는 아동이 점차 늘어 110여 명이 넘었다. 교사는 조명재(趙明載)·이원식

11 「교우들이 의무급」, 『동아일보』, 1931년 4월 26일.

(李元植)·박정오(朴正吳)·이수경(李秀經)·박부산(朴富山) 등 단체 간부가 교사로 활동하였다. 노농학원은 1931년 8월 무허가 학원과 계급사상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sup>12</sup>

#### ⑩ 화북야학강습원

화북야학강습원(華北夜學講習院)은 일형면 영화리(현 영화동)에 있었고, 수원의 상설 야학원 가운데 가장 충실하다고 알려졌다. 1928년 4월 1일 개설되었는데 원사(院舍)는 마을 유지들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건축되었다. 교사는 김의영(金義榮)·전범용(田凡容)·박광원(朴光圓) 등이고, 신임 원장으로 이용화(李容和)가 부임하여 헌신하였다. 경비는 후원회(後援會)에서 지원하였으며, 1930년 1월(음력)부터 부인야학부(婦人夜學部)까지 증설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 ⑪ 동리아학원

동리아학원(東里夜學院)은 일형면 동리(현 화서동 동말)청년회에서 경영하는 기관이다. 이미 동리에는 25년 전 수원 권업모범장의 일본인 기수(技手)가 소작인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야학을 개설한 적이 있었다.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1926년 11월 동리 청년회(東里靑年會)가 창립됨에 따라 동리 청년야학부라는 이름으로 야학이 설치되었다. 교사는 청년회실이며 학생은 남녀 70여 명이었다. 학급수는 3학급인데 학과는 조선어·국어(일본어)·한문·산술·간독(簡牘) 등이다. 청년회에서 운영했으며 야학부 책임자는 청년회 야학부장 양부성(梁富成)이고, 교사는 유무종(劉武鍾)·유영학(劉永學)·이강렬(李康烈) 등이다. 경비는 청년회에서 전액 부담하였고, 동리청년회는 수원청년동맹에 가맹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 ⑫ 매산야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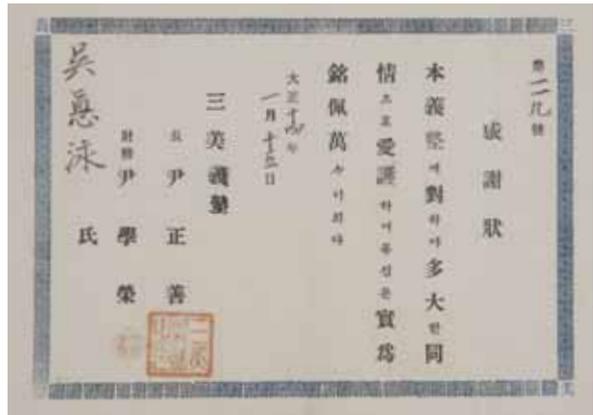
매산야학당(梅山夜學堂)은 수원면 매산리(현 매산로)에 설립된 야학당이었다. 매산야학당의 특징은 18~20세가 된 노동청년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집을 짓는 수고를 거듭한 끝에 건축한 교육장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낮에는 공장과 길거리, 농장 등에서 일하고 밤에는 피로한 몸을 쉴 틈도 없이 책보를 끼고 야학당으로 모여들었다. 매산야학당은 1929년 12월 중순에 설립되었다. 학생은 20여 명의 일하는 청소년들로 학급은 2개

12 경고비 제5746호, 「勞農學院赤化事件檢舉二關スル件」, 1932년 9월 14일.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경비는 학생 각자가 냈으며 야학 책임자는 홍흥석(洪興錫)이고, 교사는 김웅배(金雄培)·박대용(朴大鎔) 등이었다. 한동안 경동철도(京東鐵道)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던 관계로 잠시 휴교를 하기도 하였다.

### ⑬ 삼미의숙

성호면 외삼미리에 있었던 삼미의숙(三美義塾)은 1922년 4월에 윤씨 종중에서 설립한 것으로, 윤씨 종계(宗契) 적립금을 출자하여 양철로 된 교사까지 건축하였다. 원장은 윤학영(尹學榮), 교사는 윤주영(尹周榮)·윤만영(尹萬榮)·류기면(柳基冕) 등이었다. 학생은 60여 명으로 4개 학급이었다. 경비는 후원회비와 학생들의 월사금 및 윤씨 문중의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특이한 점은 무산아동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취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형에게 소작지(小作地)를 얻어 주어 그 수확으로 학비를 충당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적 배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녀교육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었다.



삼미의숙 후원에 대한 감사장(수원박물관 소장)

### ⑭ 진명여야학원

진명여야학원(進明女夜學院)은 수원 남문 밖 산루리(현 팔달로·중동·구천동 일대)에 위치하였다. 1924년 10월에 영국 성공회에서 몇몇 유지들의 발기로 창립되었다. 학생수는 40여 명으로 학과는 수신·조선어·산술·습자 등이고 교사는 이대현(李大鉉)·권봉옥(權鳳玉)·장명옥(張明玉) 등이었다. 처음에는 가정주부들의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3~4년간 운영하였다가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

### 3. 중등교육기관

1924년 5월 26일 오후 3시에 수원군수 다나카(田中弘吉)와 수원면장 곤도(近藤虎之助)가 수원공회당(水原公會堂)에 지역의 유지들을 초대하여 수원의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즉 몇 년 전 수해로 파괴된 화홍문 복구와 시가지 정비, 공설운동장 설치와 더불어 중등학교 설립 등 4개 주요 현안이었다.<sup>13</sup> 당시 중등학교 설립은 수원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공립보통학교 등 10여 개가 넘는 상황이었지만 중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중등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원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일반적인 교육현실이기도 했다. 즉 초등교육기관도 그렇지만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조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던 것이다.

1930년 당시 공립으로 운영되는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은 대구·경성·평양·함흥 4곳에 고등보통학교가 있었고, 경성에 여자고등보통학교가 1개 있었을 뿐이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학교인 의학전문·법학전문·고등공업·고등농림학교 등 4개가 있었다. 공립보통학교는 전국적으로 460여 개교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일본의 경우 중학교만 600여 개가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열악한 교육환경인지 알 수 있다. 조선 내 일본인 거주 마을에는 대부분 소학교가 하나씩 있었고 조금 큰 도시에는 어김없이 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가 있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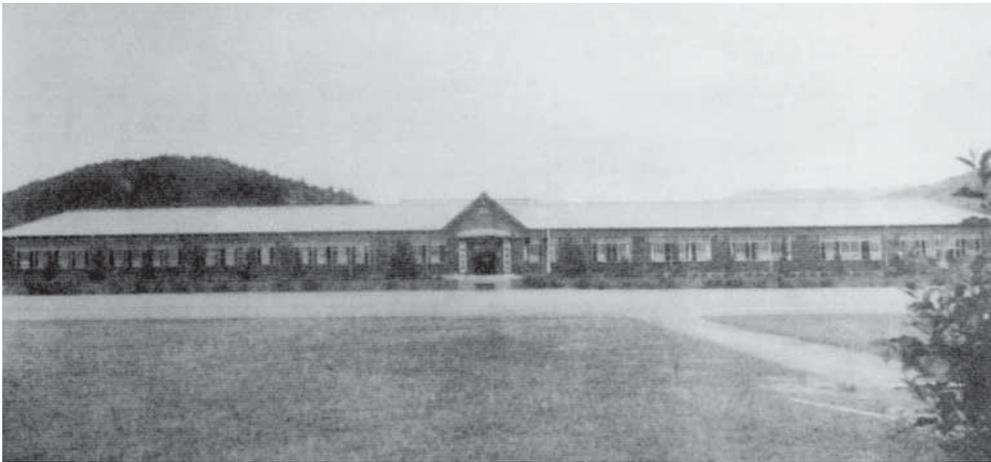
이에 수원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수원 지역의 중등학교 설립운동이 펼쳐져 ‘수원중학기성회(水原中學期成會)’가 조직되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양성관(梁聖寬)이 3만 원, 차유순이 2만 원, 차태익이 1만 원, 윤태정(尹泰貞)이 1만 원, 용운희(龍雲禧)가 3,000원, 안영태(安永台)가 3,000원, 김순묵(金順默)이 1,000원, 차재윤(車載潤)이 1,000원 등을 기부하여,<sup>15</sup> 총 7만 8,000원 상당의 금액을 모금하였다.

〈표 9〉 수원공립농업학교 설립 비용

내역	비용(원)	내역	비용(원)
경상비	39,135	건축비 기타	131,808
임시비	150,000	설비비	15,192
용지비(부지는 도유지 및 현물 기부에 의함)	3,000	계	339,135

13 「관민회의 4항」, 『동아일보』, 1924년 5월 30일.

14 정대현, 「교육계 십년, 십년간 조선의 변천」, 『별건곤』 25, 1930년 1월, 2-3쪽.



수원공립농업학교 전경(제1회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당시 경기도 중등학교 10개 교 가운데 농업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교육내용의 특성상 설비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여 사설 경영이 어려웠다. 경기도 주민의 60% 이상이 농업 종사자이지만 농업 관련 중등교육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증설이 필요하지만 경비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수원



수원공립농업학교 농업실습(제1회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읍에서 경기도립중등학교의 설립을 위해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부금 모집을 시작하였다. 기부금을 임시비 재원으로 하여 수업연한 5년의 5학급인 농업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sup>15</sup>

한편 수원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수원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이에 수원중등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모집활동을 펼쳐서 12만 원

15 『동아일보』, 1937년 7월 5일.

16 경기도, 『경기도세계요』, 298쪽.

기금을 달성하였다. 기존의 단순한 중등학교기성회로 각 방면에서 교섭하여 오다가 12일 오후 2시 회관에서 임원회를 개최하고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어 회장 이하 3~4인이 관계 당국과 교섭하였다.

이러한 수원 유지들의 활동에 힘입어 1936년 기부금 15만 원으로 수원공립농업학교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1936년 7월 1일 수원군 일형면 영화리에 5년제 수원공립농업학교가 개교되었다.<sup>17</sup> 수원공립농업학교는 창립 초부터 입학난이 심각하였다. 모집인원이 55명인데 응모자는 700여 명에 달하여 당시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잘 보여 주었다.

#### 4. 일본인 교육기관

일제시기에 수원은 일본인들에게 일본의 나라(奈良)에 비유되었다. 즉 지세로 보아 경성(서울)은 일본의 교토(京都)로, 수원은 나라로 표현되었다.<sup>18</sup> 일본인사회가 수원에 형성된 것은 1900년 기독교 선교사 노리마츠(乘松) 부부가 영주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어 1910년 말 수원군의 일본인은 1,237명으로 수원군 전체 인구 7만 6,274명에 대해 1.6%의 비율을 보였다.<sup>19</sup> 당시 주요 도시의 일본인수는 한성 2만 9,563명, 부산 2만 1,955명, 인천 1만 2,369명, 평양 9,646명, 마산 5,554명, 군산 5,591명, 목포 4,527명, 대구 4,523명, 신의주 4,119명, 진남포 2,661명이었다. 조선의 일본인 총수인 17만 1,543명에 비하면 수원의 일본인은 0.7%로 미미한 숫자라 할 수 있다.

수원군의 일본인은 수원면에 많이 거주했는데, 1912년 12월 말 수원군 거주 일본인은 1,866명이고, 그중 수원면 거주 일본인은 791명이었다. 수원면의 일본인은 수원면 전체 인구 가운데 7.4%였다. 그 후 1936년 말이 되면 수원읍의 인구는 2만 4,153명이고, 그중 일본인은 2,406명으로 약 10%, 즉 10명 중 1명꼴이었다. 수원의 중심지에 근거를 둔 일본인사회가 꾸준히 성장 발전하였음을 보여 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일본인 자제에 대한 교육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전에는 일어 화성학교(華城學校)의 일부를 빌려

17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 6월 10일.

18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6쪽.

1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 60쪽.

일본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1906년 9월 수원거류민립소학교(水原居留民立小學校)로 창립되어 10월 8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당시 1학년 7명에 불과하였다. 이듬해 20명으로 늘어났고 1908년 1월 팔달산 남쪽 매산리에 교사(건평 52평)를 새로 지어 이전하였다. 4월 1일 심상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고등과를 2개년으로 하면서 심상과 1학년(41명), 고등과 1학년(6명)을 설치하였다. 1909년 3월 26일 수원거류민립소학교 이름으로 1회 졸업생 심상과(4명), 고등과(4명) 총 8명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1910년 2월 다시 교실 50평, 사택 17평, 부속건물 13평 등의 교사를 증축하였다. 4월 심상과 2학년, 고등과 1학년 등 3학급으로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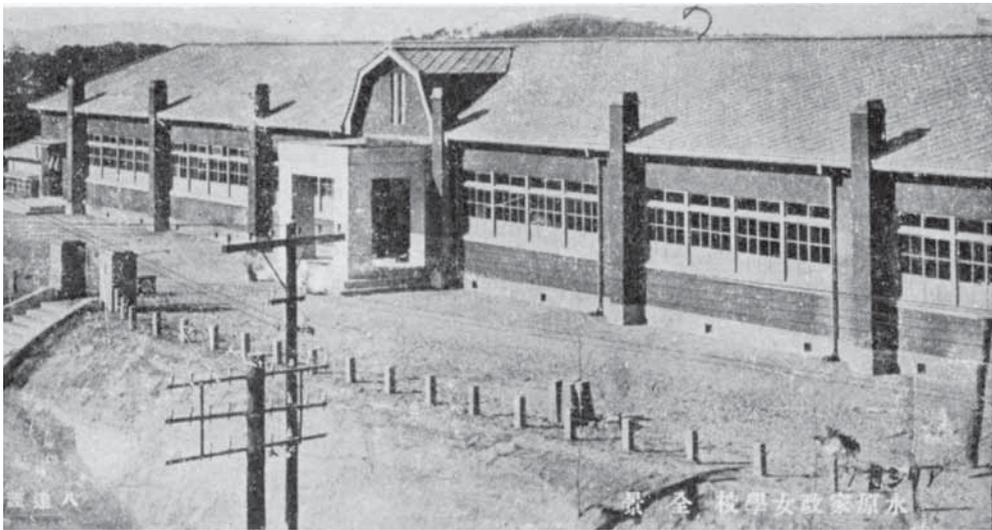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910년 5월 수원학교조합립(水原學校組合立)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水原公立尋常高等小學校)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12년 4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 1915년 5개 학급(심상과 4, 고등과 1)에서 1916년 6개 학급(심상과 5, 고등과 1), 1918년 7개 학급(심상과 6, 고등과 1)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29년 강당 겸 체조장을 신축하였고, 1931년 12월 연와 2층의 교사(156평)를 신축하였다.

1941년 4월 수원공립국민학교(水原公立國民學校)로 다시 개칭되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의 총동원체제에서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변경되었고, 학생들은 전쟁에 동원되었다. 비행기 연료를 위하여 소나무 뿌리를 캐거나 방공호를 파는 일에 동원되었고, 솔방울을 따는 등의 근로봉사를 강요받았다. 이는 조선인 국민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국민학생들에게도 강요되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수원공립국민학교 학생들은 전원 임시 등교하여 교사에게서 정오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귀가하였다. 패전 소식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이후 등교하지 않고 일본으로 귀국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36년 수원공립가정여학교(水原公立家政女學校)가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교사의 일부를 빌려 개설되었다. 즉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1936년 3월 설립 인가를 받았고 동년 4월 15일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교실을 빌려 2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개교하였다.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수업을 시작한 수원공립가정여학교의 당시 학생수는 55명이



수원공림가정여학교 전경(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었다. 졸업 당시에는 일본인 28명, 한국인 25명으로 모두 53명이었다. 일본인 여자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기에 일본인을 우선적으로 입학시켰다.

1937년에는 1개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새로이 교사를 신축하였다. 이는 수인선(水仁線) 철도의 개통과 공장의 기공(起工) 등에 따른 입학생수의 증가를 예상한 조치였다. 신축 교사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부지에 인접한 학교림과 실습지의 일부에 목조건물 1동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직원실 1개, 보통교실 3개, 특별교실 3개, 요리실 겸 세탁실, 재봉실 겸 작법실(作法室)을 만들고, 부속건물로서 숙직실, 휴양실 겸 소변실·변소·복도 등을 건축하려고 하였다. 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총액은 3만 2,744.26원으로, 도비(道費) 보조 6,500원, 적립금 1,100원, 특별기부금 300원, 일반경비 844원 26전, 기채(起債) 2만 4,000원으로 총당할 예정이었다. 기채 2만 4,000원은 연 4푼 6리 이내의 이율로 하여 1938년부터 1953년까지 15년간 반년부 원리균등(元利均等) 상환할 예정이었으며, 매년도 상환액(2,232원 60전)은 일반경비에서 총당하기로 하였던 것이다.<sup>20</sup> 이에 1937년 12월 28일 수원공립심상소학교 내에 따로 교사를 새롭게 짓고 별관에서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신축 교사는 교실 7개로 직원실 1개, 가사실 1개, 양재실 1개, 꽃꽂이 및 다도실(茶道室) 1개, 1~3학년 교실 각 1개씩이었다.

20 「수원학교조합 기채의 건」, 『학교조합기채인가서(CJA0003282)』, 1937년 4월 30일.



수원가정여학교의 다도수업(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수원가정여학교의 재봉수업(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당시 초대 교장은 일본인 아카쓰 모토(赤津基)로 1936년 3월 26일부터 1937년 3월 30일까지 1년간 재직하였다. 2대 교장은 이케다 요시타비(池田義種)로 1937년 3월 31일 부임하여 1940년 3월 30일까지 3년 동안 재직하였다. 3대 교장인 시마다(嶋田清)는 1940년 3월 31일부터 1년간 재임하였다.

1941년 3월 31일자로 학교 명칭을 수원공립가정여학교에서 수원공립고등여학교(水原公立高等女學校)로 개칭하면서 수업연한도 3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되었다.<sup>21</sup> 따라서 학급수도 3학급에서 4학급으로 늘었다. 같은 해 4월 4일 4대 교장으로 이나즈 히데오(稻津

21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 4월 9일.

英夫)가 1943년 3월 30일까지 재임하였다. 다시 5대 교장으로 1943년 3월 31일 부임한 하라다(原田武雄)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1941년 9월 8일 현 위치인 고등동에 부지 1만 533평을 사들여 교사 469.3평을 새로 짓고, 1943년 12월 13일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 이전해 갔다. 이는 1943년 5월 15일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설립기성회(設立期成會) 회장 양성관(梁聖寬)이 부지 1만 440평을 경기도지사에게 기부하고 1945년 교사증축기성회(校舍增築期成會)를 조직하였다. 회장 양성관, 부회장 2명, 평의원 60명, 간사 25명, 고문 9명을 두었고, 공사 비용으로 110만 2,378원을 마련하여 일반교실 8동, 변소 포함 2만 5,366평을 1946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공사 하려고 하였다.

1936년 3월 24일 3학년 3년제로 인가를 받아 수원공립가정여학교 이름으로 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1941년 3월 31일부로 4년제 수원공립고등여학교로 승격되었다. 수원공립가정여학교 1~3회 졸업식은 수원공립고등여학교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표 10〉 일제하 수원공립가정여학교와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현황<sup>22</sup>

학제	입학시기	졸업시기	교장취임일	시설 확충	졸업생수	졸업횟수	비고
수원공립 가정여학교	1936. 4.15.	1939. 3.15.	아카쓰(赤津基) 1936. 3.26.	소학교 별관 가교사	43	가정 1회	3년제
	1937. 4.	1940. 3.15.	이케다(池田義種) 1937. 3.31.		27	가정 2회	3년제
	1938. 4.	1941. 3.15.	시마다(嶋田靑) 1940. 3.31.	교사신축 이전 (소학교)	43	가정 3회	3년제
수원공립 고등여학교	3년 편입	1943. 3.21.	이나즈(稻津英夫) 1941. 4. 4.	고등동 이전 (1943.12.13)	53	고녀 1회	4년제

1945년 3월 31일 일제는 여학교에 소정의 간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간호부 자격을 인정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전시에 필요한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수원공립고등여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22개 고등여학교가 그 대상이었다.<sup>23</sup>

22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66쪽.

23 『조선총독부관보』, 1945년 3월 12일.

## 5. 공공교육의 지역민 부담

일제시기에는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일본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구분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은 수원심상소학교를 다녔고 그 밖의 학교가 조선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였다. 이같이 초등학교를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의 학교로 구분 지은 것은 조선인의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 기초 교육만을 받도록 한 우민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교과목이 창가(음악), 도화(미술), 산술(수학), 이과(과학) 등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심도 깊은 학업보다 단순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한 학급의 학생수는 보통 60여 명으로, 매월 1~4학년은 40전, 5~6학년은 60전(대략 쌀 1말)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했다.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교육과 달리 연령이 다양했고 평균 2~3살 많은 나이에 보통학교를 입학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1면 1교’의 조선총독부 교육방침에 따라 수원 지역에도 많은 공립보통학교가 신설되었다. 각각의 공립보통학교 신설자금은 약 8,000원이 소요되었는데, 도 보조비 4,800원과 기부금 3,200원으로 충당되었다. 즉 기부금 3,200원(혹은 4,000원)을 면민들에게 호별(戶別) 소득으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였다. 이는 공공자금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셈이다.

예를 들면 1930년도에 신설될 비봉공립보통학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원군수는 기부금 2,900여 원의 모집 승인을 총독부에 요청하였다. 이미 비봉공립보통학교의 신설비 총 4,000원 중 1,917원은 1928년 기성회를 통해 모집한 상황이었다. 즉 1930년 비봉공립학교 신설계획에 따라 비봉면 유지들이 기성회를 조직하여 1928년 1월부터 기부금 1,917원을 모집하였다. 이에 학교임시비 재원으로 잔액 2,903원의 모집을 인정하고 기부금 4,000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총독부에 승인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비봉면 지역 140호(戶)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액에 따라 1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 11>처럼 251원부터 10원까지 차등을 두어 부과하였다. 조사된 비봉면 유지들은 기부금을 1호의 예외도 없이 140호 전원이 내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면민들의 성원도 있었겠지만 역시 관권이 동원된 강제적 기부금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학교 유치와 설립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과 동시에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는 자제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교 설립이 지역민의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표 11〉 비봉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금 현황

등급	연소득액(원)	호수	1호당 기부금액	기부호수	기부금 총액
1	4,500	1	251	1	251
2	4,000	1	217	1	217
3	3,500	1	192	1	192
4	3,200	1	171	1	171
5	3,000	1	154	1	154
6	2,800	2	138	2	276
7	2,600	1	125	1	125
8	2,300	1	108	1	108
9	1,800	1	84	1	84
10	1,600	2	70	2	140
11	1,400	2	58	2	116
12	1,200	4	45	4	180
13	1,000	7	37	7	259
14	900	4	32	4	128
15	800	8	27	8	216
16	700	13	22	13	286
17	600	17	17	17	289
18	500	26	13	26	338
19	400	47	10	47	470
계		140		140	4,000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1년 수원군 학교비 특별부과금은 수원군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 1만 6,277명에게 총 4만 2,850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는 수원군의 읍·면에 소재하고 있던 공립국민학교의 증축비(增築費)·설비비(設備費)와 부채의 상환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민에게 공립국민학교 관련 예산을 ‘부가금(附加金)’이라는 명목으로 부과시켰던 것이다.

특별부과금은 읍·면별 조선인의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었다. 수원읍을 비롯한 각 면민의 1호당 납부액은 0.34~6.59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특별부과금의 납세의 무자 범위도 연액 13~65전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수에 따른 차이로 공립보통학교의 증축비·설비비 및 부채가 거의 일정한 비용이므로 인구수에 따라 1호당 납부액과 납세의무자 범위도 차이가 있었다. 즉 인구수가 많은 읍·면일수록 1호당 납부액이 적어지고 납세의무자도 고액의 납부자로 범위가 좁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읍의 경우 수원·신평·세류 등 3개 학교에 대하여 1941~1946년 매년 8,808원씩 부과할 예정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일제의 ‘1면 1교’ 학교 설립이라는 정책은 실상

〈표 12〉 1941년 수원군 학교비 특별부과금 부과계획서

부과목적	부과지역	부과기간	매년도 부과액(원)	부과예상 인원(명)	1호당 부과액(원)	납세의무자
수원·신평·세류공립	수원읍	1941~1946	8,808	3,046	2.89	수원을 거주 연액 65전 이상
고천·파장공립	일왕면	1941~1942	4,342	920	4.72	일왕면 거주 연액 60전 이상
매송공립	매송면	1941~1942	2,830	789	3.59	매송면 거주 연액 25전 이상
봉담공립	봉담면	1941~1944	2,540	547	4.64	봉담면 거주 연액 65전 이상
비봉공립	비봉면	1941~1942	214	622	0.34	비봉면 거주 연액 50전 이상
마도공립	마도면	1941	2,172	746	2.91	마도면 거주 연액 25전 이상
송산공립	송산면	1941~1944	3,196	1,396	2.29	송산면 거주 연액 23전 이상
서신공립	서신면	1941~1942	691	766	0.90	서신면 거주 연액 50전 이상
장안공립	장안면	1941~1942	5,075	770	6.59	장안면 거주 연액 50전 이상
우정공립	우정면	1941	2,278	1,286	1.77	우정면 거주 연액 50전 이상
향남공립	향남면	1941~1944	3,498	1,098	3.18	향남면 거주 연액 30전 이상
양감공립	양감면	1941~1942	710	676	1.05	양감면 거주 연액 30전 이상
정남공립	정남면	1941~1942	3,162	926	3.41	정남면 거주 연액 50전 이상
성호공립	성호면	1941~1943	4,974	1,181	4.21	성호면 거주 연액 50전 이상
태장공립	태장면	1941~1942	3,300	656	5.03	태장면 거주 연액 13전 이상
안룡공립	안룡면	1941~1942	2,980	802	3.72	안룡면 거주 연액 15전 이상
총계			50,770	16,227		

〈표 13〉 수원군의 학교비별 일람<sup>24</sup>

구분	읍·면수	국민학교수	초등학교 학급수	국민학교 아동수	예산액	호당 부과금	국민학교 경비(학급당)
경기도(A)	232	244	1,486	107,823	3,890,094	3.39	1,553
수원군(B)	20	22	164	12,115	376,163	5.57	1,511
B/A(%)	8.6	9.0	11.0	11.2	9.7	164.3	97.2

조선인들에게는 준세금에 가까운 ‘기부금’과 ‘부과금’으로 유지·운영하였던 셈이다.

수원 군민의 남다른 교육열과 ‘근대적’ 열망은 바로 국민학교 학교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수, 국민학교수, 아동수, 예산액 모든 면에서 경기도 내 다른 군에 비해 단연 수위를 보이고 있다. 즉 읍·면수와 국민학교수는 8.6~9.0%인데 학급수와 아동수는 11.0~11.2%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은 학급수와 아동수 비중에 따르지 못하여 호당 부과금이 5원 57전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무려 1.18전이 높다. 이는 그만큼 수원 인구가 팽창한 것에 비해 총독부의 교육비 지원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부담은 조선인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였다.

24 「각도 학교비별일람표」, 『조선지방재정요람』, 1941, 101쪽.



장덕삼 전 원광대학교 교수

---

1. 미군정기와 1950년대 수원 교육
2. 1960년대 수원 교육
3. 1970년대 수원 교육
4. 1980년대 수원 교육
5. 1990년대 수원 교육
6. 2000년대 수원 교육



## 제3장

# 해방 후 수원 교육의 성장

### 1. 미군정기와 1950년대 수원 교육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 조선은 해방되었으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조선총독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9일에는 중앙행정기구조직에 착수하였다. 이때 교육부문 담당관인 대위 락카아드(E.L. Lockard)는 휴교상태에 있는 학교의 문을 열고, 일본인 직원을 한국인으로 대체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9월 24일을 기점으로 공립국민학교의 문을 열고 수업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사학은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김원규(金元圭)가 경기도 교육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중등계 시학에 이덕봉(李德鳳), 초등계 시학에 박철규(朴哲圭)가 부임하여 장학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들은 각급 학교장을 임명할 절차를 마련하여 9월 30일자로 발령하였다.

경기교육의 시책은 미군정의 문교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었다. 첫째 교수용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일, 둘째 일제 잔재인 황국사상을 불식하는 일, 셋째 민주교육이념의 보급을

위한 교원제 교육을 실시하는 일, 넷째 교육제도를 민주화시키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일, 다섯째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원 교육의 지표도 위의 시책을 구현하는 데 진력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약 3년간 이어졌다. 이 시기에 수원군에는 국민학교 4개교와 국민학교 분교장 8개교가 설립되었다. 이 중 현 수원시에 해당하는 학교는 고색국민학교이다.

〈표 1〉 미군정기 수원군 신설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내용
고색국민학교	수원읍 고색리	1946년 9월 1일 개교
삼미국민학교	오산읍 외삼미리	1945년 9월 24일 개교
오산국민학교	오산읍 별음리	1945년 10월 1일 개교
화산국민학교	태장면 송산리	1946년 3월 31일 개교
양감국민학교 사창분교장	양감면 사창리	1946년 4월 1일 개교 1948년 9월 1일 사창국민학교로 승격
삼미국민학교 세교분교장	오산읍 세교리	1946년 6월 30일 개교 1949년 5월 5일 광성국민학교로 승격
서신국민학교 제부분교장	서신면 제부리	1946년 9월 1일 개교 1967년 12월 13일 제부국민학교로 승격 1982년 3월 1일 제부분교장으로 격하
송산국민학교 관현분교장	송산면 마산리	1946년 12월 11일 개교 1949년 9월 27일 관현국민학교로 승격 1957년 10월 10일 마산국민학교로 개칭
비봉국민학교 청룡분교장	비봉면 청요리	1946년 12월 11일 개교 1949년 9월 27일 청룡국민학교로 승격
정남국민학교 망월분교장	정남면 망월리	1946년 12월 11일 개교 1948년 2월 2일 정림분교장으로 개칭 1950년 6월 1일 정림국민학교로 승격
팔탄국민학교 월문분교장	팔탄면 월문리	1947년 9월 9일 개교 1953년 4월 12일 월문국민학교로 승격
우정국민학교 석천분교장	우정면 석천리	1948년 3월 27일 개교 1952년 9월 4일 석천국민학교로 승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이 「교육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초대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이 제창한 일민주의(一民主義) 교육이념을 더하여, 민주주의와 인간주의 사상에 입각한 민족주의 교육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제는 복선형 제도에서 6-3-3-4제의 단선



수원시교육위원회 건물(수원시, 『수원사건대관』, 1956)



수원시교육위원회 회의(수원시, 『수원사건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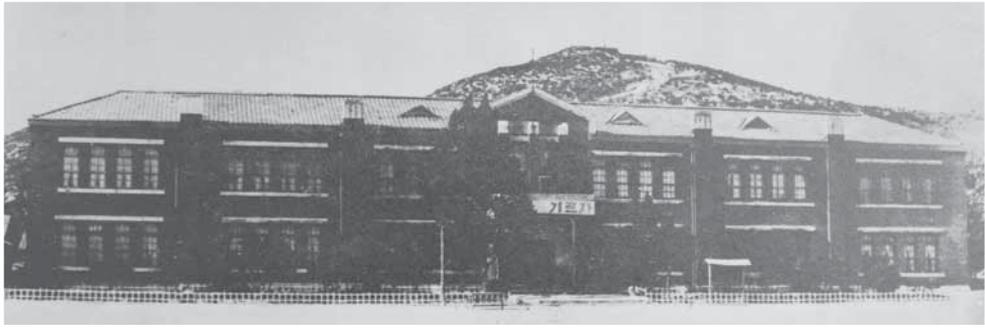
제로 정해졌다.

미군정기 교육행정기구는 경기도 내무국 소속의 학무과가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10월 23일 도 학무국이 교육국으로 개칭되고, 1950년 4월 8일 교육국과 사회국이 통합되어 문교사회국이 되었다. 한편 시·군의 교육행정은 미군정기와 같이 시장 또는 군수의 책임에 있었으며, 내무과에 학무계를 두고 학무계장이 교육자치체가 실시될 때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시·군의 교육은 경기도의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있었는데, 첫째 의무교육의 추진, 둘째 1인 1기 교육, 셋째 교원의 자질 향상, 넷째 학원의 안정과 반공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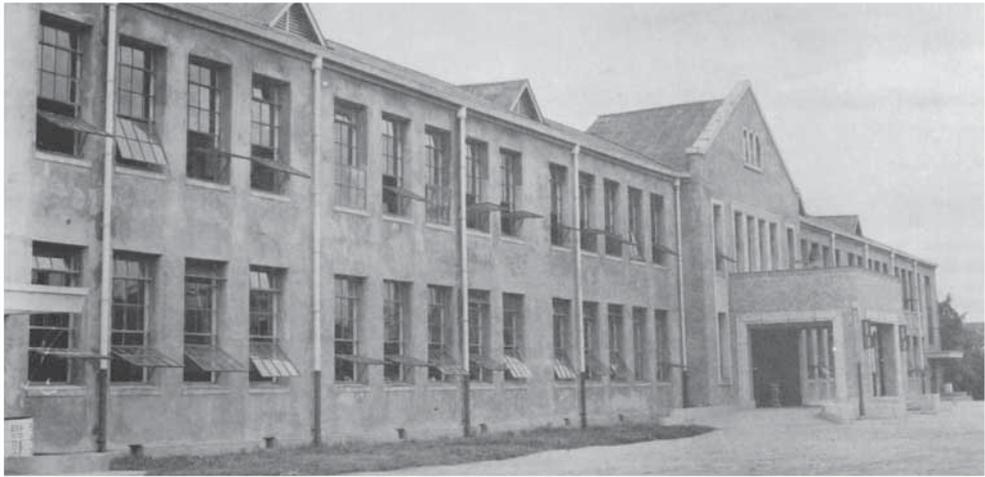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교육자치제도 일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체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구와 시의 교육위원 선거일을 같은 해 5월 24일로 정하여 시·읍·면의회의원이 시·구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에서는 10명, 화성군에서는 19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었고, 초대 교육감으로 수원시에서는 임의준(任宜準), 화성군은 정형모(鄭亨模)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수원시교육위원회와 화성군교육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관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으며, 관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 위한 국민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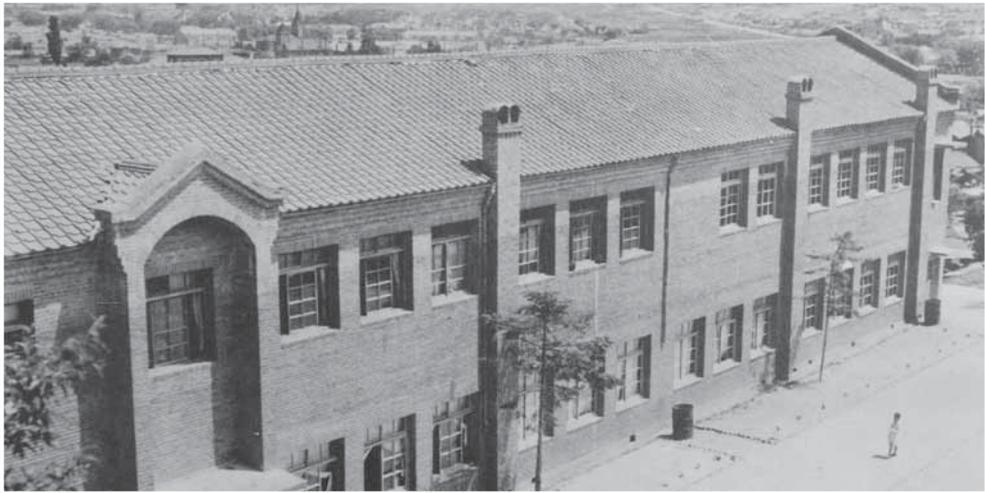
사진으로 본 1950년대 수원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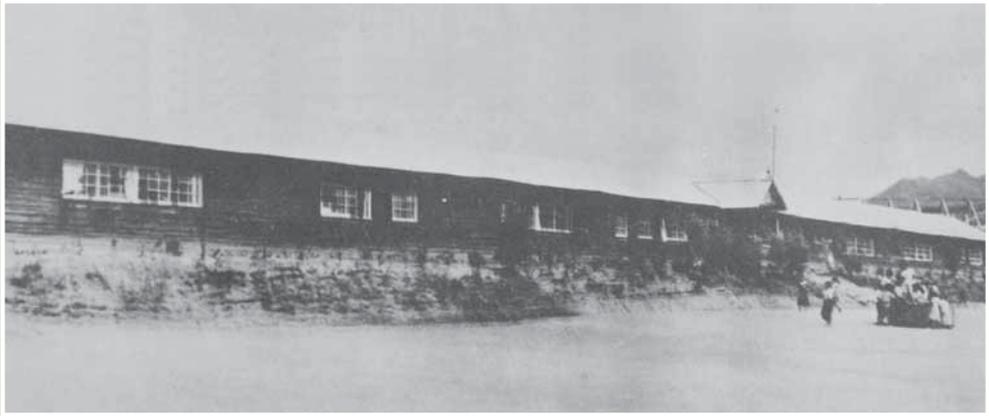
매산국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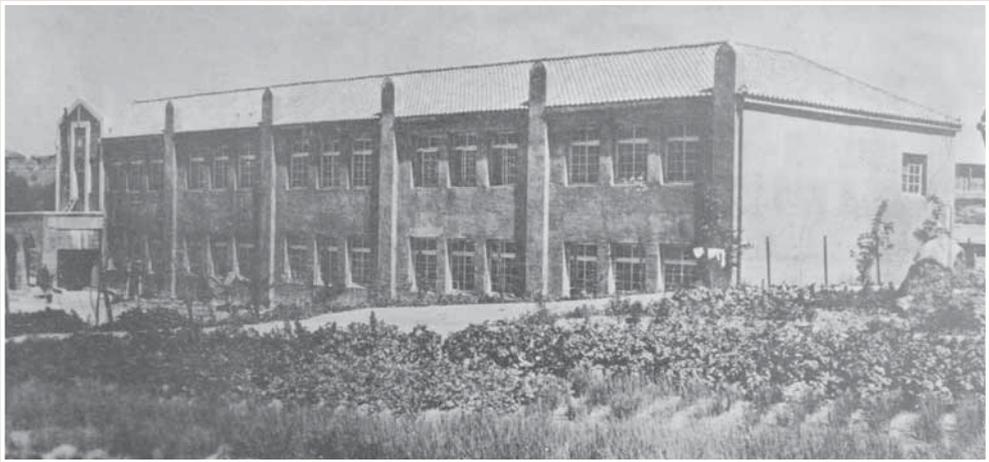
신평국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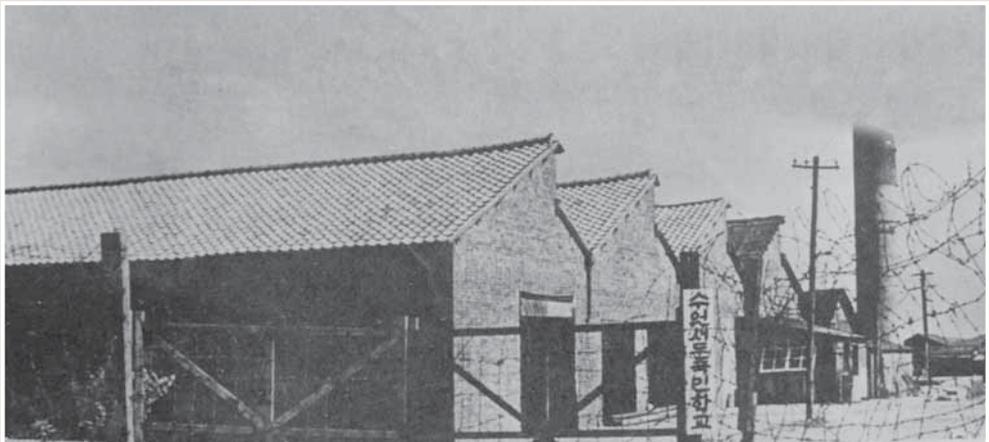
남창국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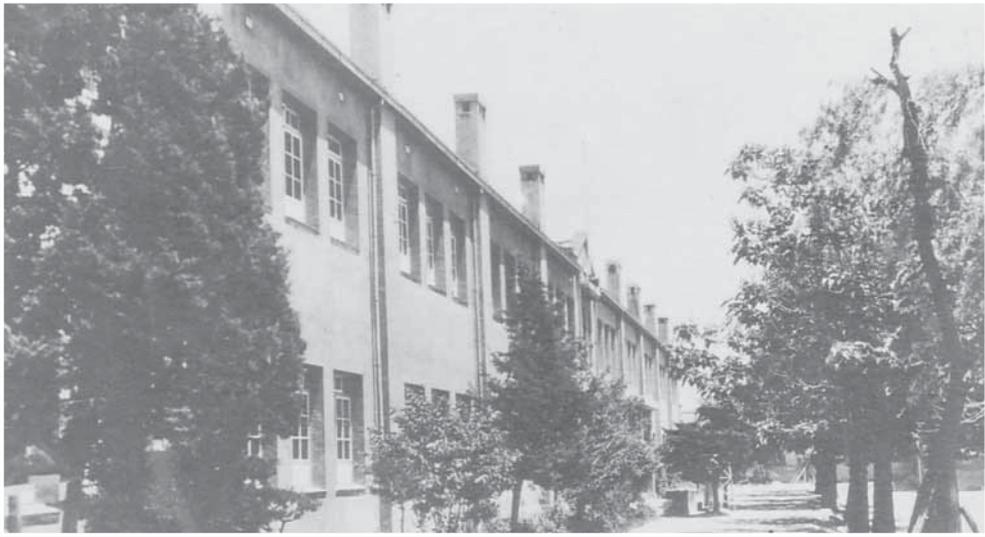
영화국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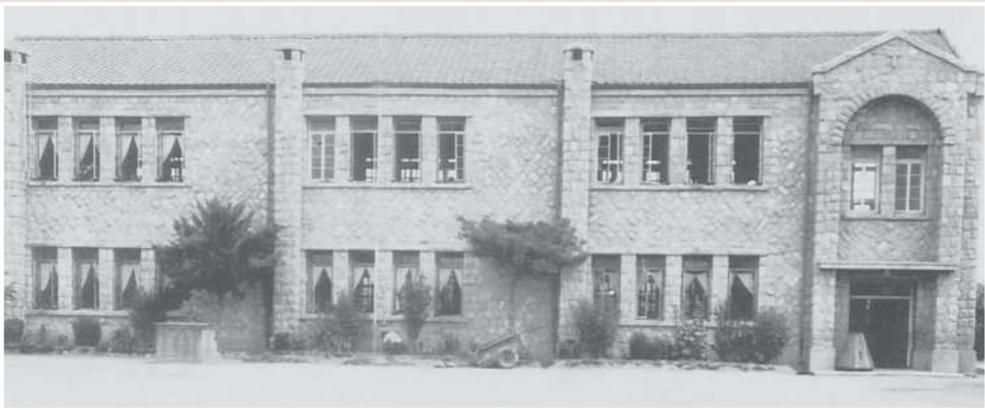
지동국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서둔국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서둔국민학교 개교는 수원시교육위원회의 6개년 사업 가운데 첫 사업이었으나 1955년 개교 당시 교사가 없어서 방직공장 일부를 교사로 사용하였다. 1962년에 서호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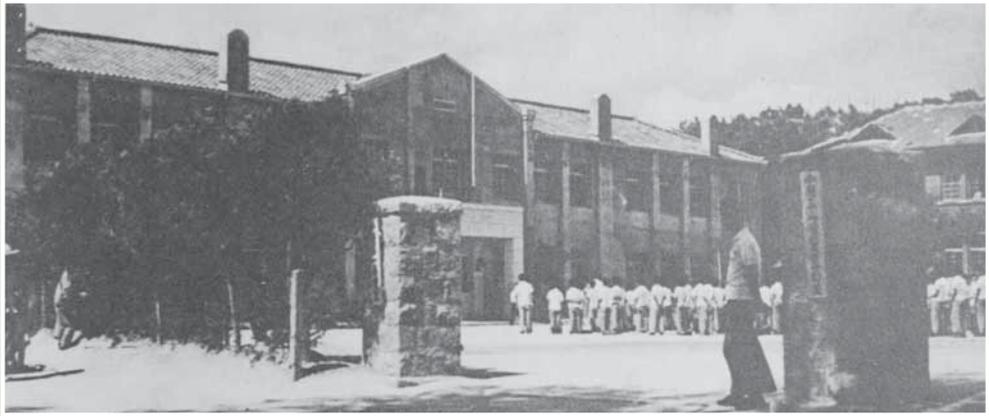
세류국민학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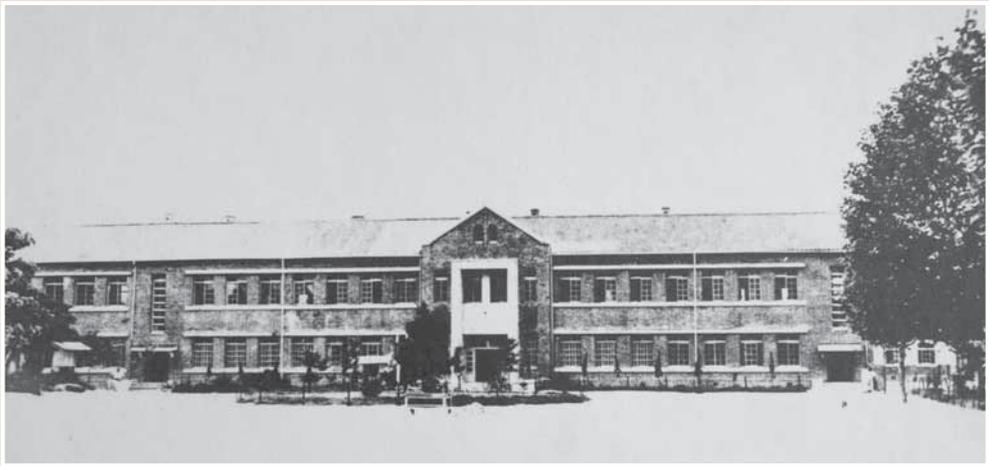
소화국민학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수원북중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삼일중학교와 삼일상업고등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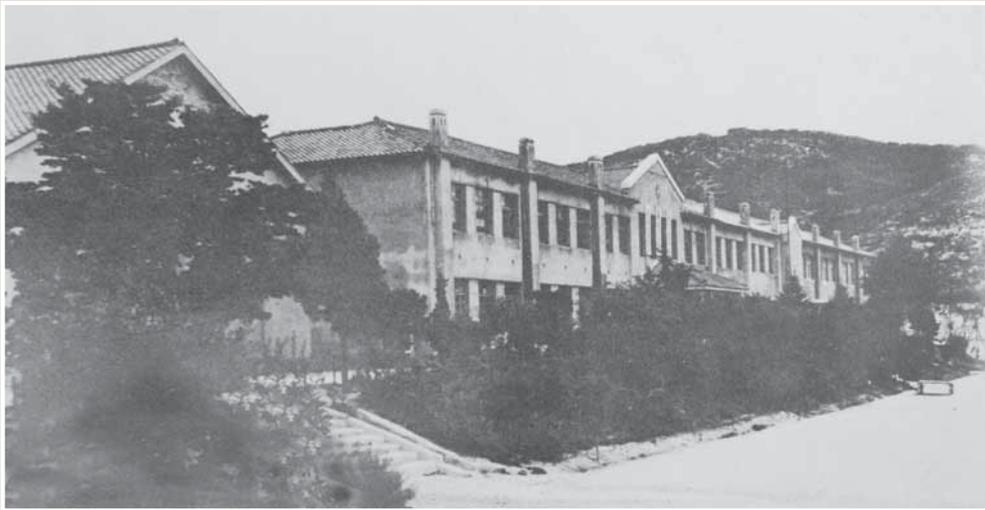
수원중고등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전쟁 후 천막교사 시절의 수성중고등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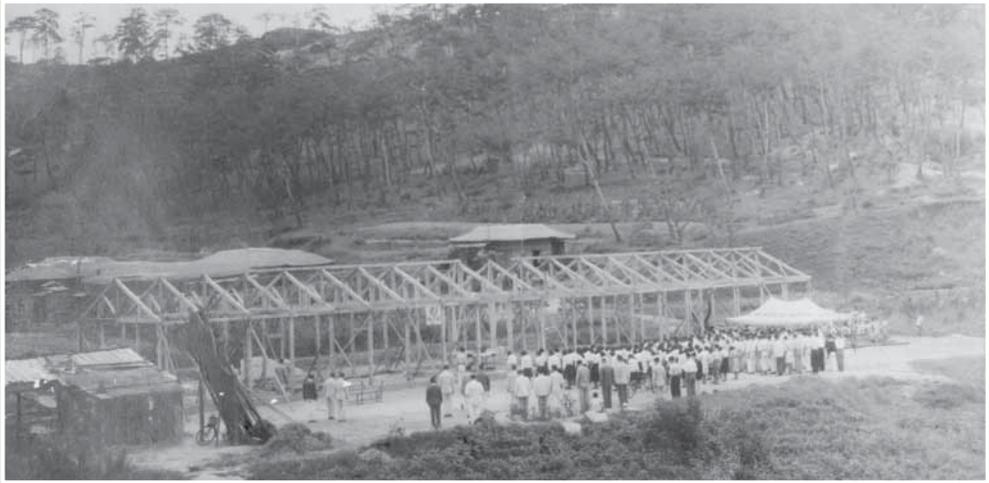
수원농림고등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현재 교명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이다.



수원여자중고등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매항여자중고등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광명고등공민학교 신축교사 상량식(김순태 제공)



사제 협동 작업(김순태 제공)



경기도청 자리에 있었던 광명고등공민학교(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고등공민학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 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설치된 교육기관이다.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이며 교과는 중학교에 준한다.

다. 반면 중등교육은 도지사 관할의 문교사회국에서 관장하였다.

따라서 1950년 3월 16일 경기도에서는 학령아동 실태를 조사하고 대상아동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뒤 같은 해 6월 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경기도 초등교육의 시책은 ① 의무교육 ② 1인 1기 교육 ③ 현직 교육의 활성화 ④ 학원의 안정과 반공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시 수원의 교육은 이러한 경기도 교육시책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문교부는 1952년 6월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을 공포하고,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에 착수하여 1954년 4월 문교부령 제35호로 「교과과정시간 배당 기준령」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하였다.

1949년 8월 15일을 기해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었고 종래의 수원군은 화성군이 되었다. 현 수원시 관할지역 학교 중 1949년 9월 이후 신설된 학교와 제1공화국시대에 신설된 학교는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표 2>와 같다.

<표 2> 1949~1950년대 신설 학교 현황

학교	구분	소재지	개교일
칠보국민학교	공립	수원시 금곡동	1949. 9.15.
남창국민학교	공립	수원시 남창동	1954. 4. 1.
지동국민학교	공립	수원시 지동	1954. 4. 7.
영화국민학교	공립	수원시 영화동	1954. 9.20.
서호국민학교	공립	수원시 서둔동	1954.11. 9.
산의국민학교	공립	수원시 이의동	1959. 6. 1.
수원북중학교	공립	수원시 영화동	1951. 8.31.
수성중학교	공립	수원시 조원동	1954. 7. 7.
영신중학교	사립	수원시 오목천동	1956. 1.14.
수성고등학교	공립	수원시 조원동	1954. 7. 7.
삼일상업고등학교	사립	수원시 매향동	1955. 3. 3.

## 2. 1960년대 수원 교육

1960년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시기였다. 1960년과 1961년에는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4·19혁명은 학생들의 민주적 역량을 과시한 것이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제2공화국의 문교장관인 오천석(吳天錫)은 교육의 민주화,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문교정책을 삼았다. 군사정부는 1961



수원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의 복문 앞 시위(『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년 9월 1일 국민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행정 또는 학교법인에 관한 특례를 목적으로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1961년 8월 교육법을 개정하여 학년은 2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정하였다.

한편 1962년 1월 15일 군사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에 따라 종래의 시·군을 단위로 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군의 교육행정은 시·군청에 통합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3 공화국 시기인 1964년 1월 1일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군정으로 중단되었던 교육자치제는 도를 단위로 하여 실시되어, 그해 2월 6일 홍낙선(洪樂善)이 경기도 초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산하기관으로 1964년 1월 1일 수원시교육청이 발족하여 1월 4일 수원시 신평동 110번지에 청사를 개청하였으며, 4월 20일 박용석(朴龍錫)이 수원 초대 교육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때 경기교육의 이념적 지표는 향토학교의 추진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주적인 국민정신의 고취로 자립성을 강조하고,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1960년대 매산국민학교 3학년 교실 청소(이영계 제공)

연구 및 추진으로 생산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합리화를 장학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경기교육에 임하는 교직자의 기본자세로 인화단결, 언행일치, 지도성 발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선포는 국민교육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1970학년도에 하달된 문교부의 국민교육헌장 실천지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학교의 교육내용과 활동이 타율적으로 전환하게 되자, 경기교육의 기본이념이었던 향토학교 운동은 차츰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0년과 1965년의 수원 지역 학교에 관한 통계를 비교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제의 변화가 있었으며, 전체 학생수도 1만여 명의 증가를 보인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주민들이 수원에 정착하고, 1963년에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가 유입한 결과로 추정된다. 1960년과 1965년 수원 지역 학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1960년 학교 현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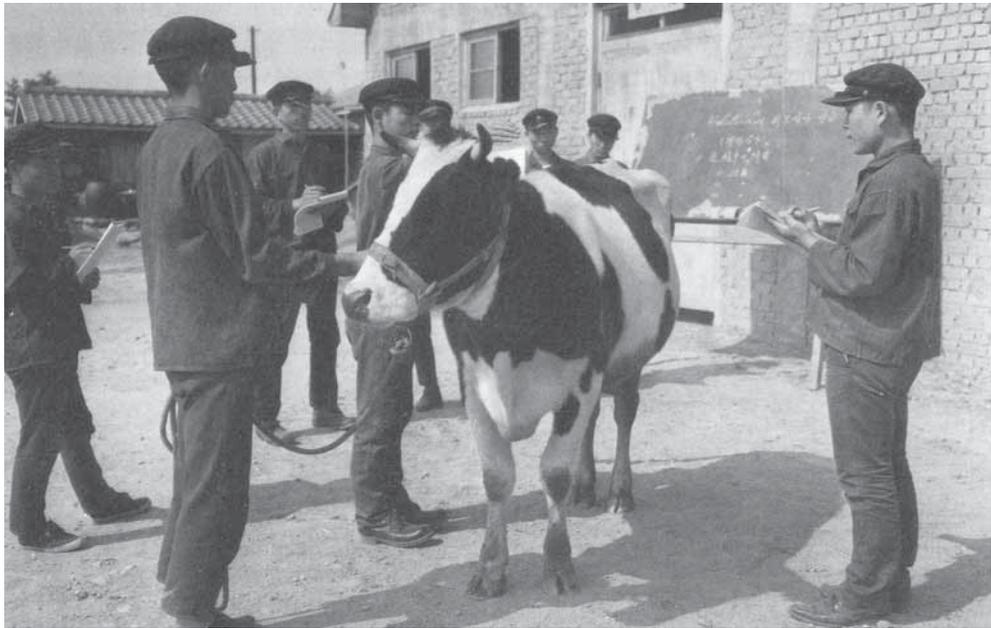
구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국민학교	공립	7	185	196	12,790
	사립	1	6	8	468
공민학교	공립				
	사립	1	5	4	172
고등공민학교	공립				
	사립	1	5	11	317
기술학교	공립				
	사립	2	8	11	294
중학교	공립	3	48	65	2,868
	사립	3	34	64	2,257
고등학교	공립	3	39	73	1,572
	사립	3	19	55	1,071
대학	국립	1	34	64	1,110
	사립				
기타	공립				
	사립	1	6	6	136
계		26	389	557	23,055

〈표 4〉 1965년 학교 현황<sup>2</sup>

구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국민학교	공립	12	270	290	20,480
	사립	1	6	7	329
중학교	공립	3	48	65	2,906
	사립	4	48	70	2,973
고등학교	공립	3	37	64	2,107
	사립	3	32	64	1,992
대학	국립	1	43	90	1,212
	사립				
기타	공립				
	사립	10	31	38	901
계		37	515	688	32,900

1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2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수원농림고등학교 축산과 수업(1967년 수원농림고등학교 졸업앨범)

### 3. 1970년대 수원 교육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정세는 이전과 크게 변화하였다. 1950년대가 냉전체제로 미소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시기였다면, 1960년대는 비동맹운동과 미중 국교정상화 및 미소 간 제한적 화해를 통해 실리추구로 기울어 1970년대는 미·일·중·소 4강의 이해가 교차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정세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총화체제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모든 국정(國政)을 유신을 위한 행정체제로 급전환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문교정책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 국적 있는 교육의 추진, 새마을 교육의 추진, 고등학교 평준화, 방송통신교육체제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은 국적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지표가 되었다. 1973년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덕과 국사 과목이 독립교과로 격상되면서 국적 있는 교육이 태동되고, 한문교육이 부활되면서 민족문화 계승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실업교육이 강화되면서 기술인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과 충효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인교육이 강조되었다. 한

편 근면·자조·협동의 정신 아래 생활개선, 소득증대, 국민적 가치의 확립 등으로 새로운 향토를 건설하려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 운동을 학교 교육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72년 2월 4일에는 신능순(申能淳) 교육감이 취임하여, 안보교육의 철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교육내실의 충실, 새 교사상의 정립, 교육의 사회적 기능 제고, 인화단결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였다. 1973년 3

월 14일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면서, 교육감의 행정권한 중 그 일부가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교육청에서 관내 중학교의 장학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0년대 수원 지역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수원간호전문학교 신축교사 준공식(1974년)

<표 5> 1974년 학교 현황<sup>3)</sup>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비고
	국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유치원			4	4	6	5	25	15	40	
국민학교		15	1	16	428	469	15,181	14,016	29,197	
중학교		4	5	9	202	284	7,234	6,219	13,453	강사 8
고등학교			3	7	176	338	6,560	3,732	10,292	강사 11
대학(교)	1		1	2	79	191	2,310	106	2,416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3	3	28	33	588	766	1,354	
전문학교			2	2	6	30	100	139	239	
합계	1	22	23	46	925	1,350	31,988	24,993	56,991	

3)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사진으로 본 1970년대 수원 교육



수원시교육청 주최 반공단막극경연대회(1976년)



수성중학교 하기 새마을 대청소(1976년)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교교 교련대회(1977년)



국민교육헌장 선포 제7주년 기념식



수원 시내 고교배정 발표(1979년, 조형기 제공) 문교부는 5개 대도시에서만 실시하던 고교추첨입학제도를 1979학년도부터 수원을 비롯한 7개 도시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수원 지역은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실시하던 고교입시방식이 고교연합선발고사 실시 후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주대학교와 유신고등학교 개교식(1974년)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기공식(1976년)



동남보건전문대학(1979년) 동남보건전문대학은 1974년 정자동에 동남보건전문학교로 개교하여 1979년 동남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98년에 동남보건대학으로 학교명을 변경하였다.

## 4. 1980년대 수원 교육

1979년 10·26사태 이후인 12월 14일 문교부장관에 취임한 김옥길(金玉吉)은 학교의 자율화를 표방하여 인간교육의 중시, 국민정신교육의 충실이라는 2대 교육목표를 제시하였고, 1980년 5월에 취임한 이규호(李奎浩) 문교부장관은 민주적이고 애국적인 국민을 기르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노력 속에 1981년 3월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먼저 제5공화국은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고 입시과열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개혁조치는 과외수업의 근절, 고교내신제와 국가학력고사에 의한 대학입시제도,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4년제 승격, 졸업정원제 시행 등의 교육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어 1982년에는 민주정의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확충, 창조·개혁·발전을 위한 전인교육 확충을 문교시책으로 정하였다. 또한 1982년부터는 「교육세법」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교육의 양적 팽창이 활발해졌다. 이는 해방 이후 정부의 교육진흥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에 따른 것이었다. 즉 해방 이후 역점을 두었던 초등교육을 비롯하여, 중학교의 의무교육화가 도서벽지와 접적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로 중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1983년도부터는 유아



한일합성 부설 실업학교 입학식(1981년, 조형기 제공)

4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교복자율화 세대의 입학식(영복여자고등학교 소장)

교육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을 임용 배치하게 하였다. 이 중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1980년대 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1983년 3월 1일 수원시 송죽동에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신설되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84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방대학이 신설되었으며, 초·중등 교원의 종합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도 개교하였다. 이 시기 수원시 교육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1985년 학교 현황<sup>4</sup>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국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국민학교		26	1	27	914	996	27,698	25,384	53,082	
중학교		11	5	16	418	637	14,482	13,145	27,627	
고등학교	인문		2	4	6	191	340	5,638	5,863	11,501
	실업		2	4	6	174	501	8,762	7,066	15,828
대학(교)	전문		3		3	15	92	1,425	2,000	3,425
	단과	2		1	3	40	223	7,291	1,401	8,692
	일반			2	2	48	327	9,107	2,127	11,234
유치원		19	48	67	137	188	2,382	2,125	4,507	
대학원			1	1	10		137	4	141	
계	2	63	66	131	1,947	3,304	76,922	59,115	136,037	

## 5. 1990년대 수원 교육

1990년대 이후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 아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치들이 활발히 모색되었다. 제6공화국의 정책적 노력은 1990년대에도 이어져 1991년 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金永三)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학 설립의 준칙주의 도입,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초등학교 영어 교육 실시 등의 외국어교육 강화, 학생생활기록부 도입에 의한 학생 평가 및 학생 관리방식 변화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학점은행제도이다. 이는 학교 밖의 교육을 교육제도 안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1997년 61개 교육기관에서 274개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대학, 전문대 부설 평생교육원,

시설학원, 기능대학, 정부산하 직업교육기관, 언론 및 사회단체의 문화센터, 시군구교육기관 등이 교육개발원이나 시도교육청에 교습과정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학점취득 가능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이 140학점 이상이면 대학 졸업 학력을, 80학점 이상이면 전문대 졸업 학력을 인정받고 학위수여가 가능해졌다.

둘째, 1997년 12월 30일 확정 고시된 7차 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및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지역 및 학교의 자율재량과 학생 선택 확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성취수준과 흥미에 따라 단계형 심화, 보충형 과목선택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수원에는 1994년 12월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태안읍 일부, 그리고 용인군 기흥읍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1995년 4월에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망포리 일원이 편입되었다. 또한 1992년부터 수원 동부 지역인 영통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7년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 이에 주민이 입주하여 2만 6,000여 세대,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인구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

1991년 3월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발족하였고, 1991년 9월 2국 6과 14개의 직제가 1999년 1월 2국 6과로 개편하였다. 수원 지역도 영통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학교수와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수원시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1995년 학교 현황<sup>5)</sup>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국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유치원		27	78	105	311	409	5,272	5,040	10,312
국민학교		41	1	42	1,575	1,960	37,059	34,603	71,662
중학교		17	5	22	776	1,346	21,468	20,060	41,528
고등학교		7	13	20	574	1,418	15,991	13,051	29,042
전문대학			2	2	32	156	1,978	5,536	7,514
대학(교)	1		3	4	124	945	30,032	6,916	36,948
대학원			8	8	113	15	1,315	161	1,476
기타학교			2	2	30	49	225	117	342
계	1	92	112	205	3,535	6,621	113,340	85,484	198,824

5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표 8〉 1999년 학교 현황<sup>6)</sup>

구분	학교수				보통 교실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국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교직원수			사무직원수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유치원		43	93	136	387	401	6,174	5,801	11,975	10	458	468	73	143	216	684
초등학교		56	2	58	2,060	2,007	46,004	41,839	87,843	531	1,862	2,393	168	148	316	2,709
중학교		27	5	32	854	832	19,887	18,658	38,545	530	911	1,441	120	40	160	1,601
고등학교		14	13	27	886	801	21,278	18,654	39,932	1,218	509	1,727	163	56	219	1,946
전문대학	1		2	3		41	2,546	7,386	9,932	84	86	170	85	40	125	295
대학교	1		3	4		45	28,579	9,061	37,640	1,293	121	1,414	480	89	569	1,983
대학원			14	14		178	3,691	949	4,640	3	1	4	10	10	20	24
특수학교			2	2	42	41	292	151	443	23	40	63	19	21	40	103
계	2	140	134	276	4,229	4,348	128,451	102,499	230,950	3,692	3,988	7,680	1,118	547	1,665	9,345



경기대학교(www.kyonggi.ac.kr)

6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www.skku.edu](http://www.skku.edu))



아주대학교([www.ajou.ac.kr](http://www.ajou.ac.kr))

## 6. 2000년대 수원 교육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지향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 교육개혁 추진에서 관 주도의 하향식 개혁을 지양하고 교원, 시민단체, 교육 NGO 등이 중심이 된 범국민적인 공동체 운동으로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대선 공약에서도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사회시민단체 관련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교육개혁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하여 상향적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교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력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두뇌한국 21사업을 추진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국의 사립고 중에서 30여 개를 선발하여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학교도 지정 운영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의무교육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렸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교원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이 부과된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 3월부터 운영하였다.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도 “자율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교육”이라는 절충적 입장에서 공교육 강화와 교육민주화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교육개혁에서 교육민주화에 관련된 개혁은 교육의 정치적 민주화 측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획기능 확대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부의 독점현상이 가중되었으며 교사의 주체적 역량이 제한되고 학교현장의 의견이 창출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에 교육정책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08년 4·15조치를 통하여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학교자율화를 추진하였다.

수원교육청은 2010년 9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9월 제19대 김국희 교육감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2002년 수원시로 승격된 지 53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전국 23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로 기록되었다. 1980년대 접어들어 연평균 6.8%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급성장한 수원시는 1986~1990년에 연평균 8.4%, 1991년부터는 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1998~2000년에는 권선지구, 정자지구, 영통지구 등 수원 동부·북부에 대단위 택지가 개발됨으로써 무려 18.3%(14만 6,000여 명)이 늘어나 연평균 인구 증가율(5.9%)이

전국 일반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학교수와 학생수도 증가하였는데 2010년 수원시 학교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2010년 학교 현황<sup>7)</sup>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국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유치원		73	94	167	103	859	7,254	6,989	14,243
초등학교		86	2	88	2,575	3,719	41,902	38,250	80,152
중학교		45	6	51	1,332	2,525	26,151	23,724	49,875
고등학교		25	13	38	1,174	3,182	26,095	23,168	49,263
전문대학			2	2	74	239	2,717	8,886	11,603
대학(교)			4	4	157	1,721	31,131	14,796	45,927
대학원			23	23	139	130	3,973	2,212	6,185
기타학교		2	2	4		122			
계		231	146	377	5,554	12,497	139,223	118,025	257,248

수원시는 지난 2002년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방대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유치원 167개, 초등학교 88개교, 중학교 51개교, 고등학교 38개교, 전문대학 2개교, 대학교 4개교, 대학원 23개 등을 갖추고 25만 명의 학생을 육성하고 있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의국어고등학교 2006년에 개교한 수원의국어고등학교는 공립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

7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이목중학교 직업체험 활동 이목중학교는 2012년에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수원시 초등학교 영어 콘테스트



수원사랑장학재단 제1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수원사랑장학재단은 2006년에 설립된 시민장학회로, 수원시 출연 기금과 순수 민간 기탁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윤성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

## 수원시 학교 일람표(2013년)

## 초등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고색초등학교	권선구 매송고색로 681	http://gosaek.es.kr	1946. 9. 1. 안릉국민학교 오목천분교로 설립 인가 1950. 6. 1. 고색국민학교로 승격
고현초등학교	권선구 고현로 12	http://go-hyun.es.kr	2002. 1.13. 고현초등학교 설립 인가
곡반초등학교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	http://gokban.es.kr	2001. 1. 5. 곡반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1. 9.26. 곡반초등학교 개교
곡선초등학교	권선구 덕영대로 1217번길	http://gokseon.es.kr	1994. 5. 1. 곡선국민학교 개교 1996. 3. 1. 곡선초등학교로 개칭
광교초등학교	영통구 이의동 711	http://gwanggyo.es.kr	2011. 1.10. 광교초등학교 설립 인가
구운초등학교	권선구 여기산로 29	http://guun.es.kr	1988. 4.22. 구운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구운초등학교로 개칭
권선초등학교	권선구 세지로 126번길 27	http://kwonsun.es.kr	1982.12.24. 권선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권선초등학교 개칭
남수원초등학교	경수대로 235번길 24	http://namsuwon.es.kr	1983.11.30. 남수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남수원초등학교로 개칭
남창초등학교	팔달구 행궁로 44-9	http://namchangcho.es.kr	1954. 4.30. 남창국민학교 개교 1996. 3. 1. 남창초등학교로 개칭
능실초등학교	권선구 호매실동 1012	http://neungsil.es.kr	2012. 3. 1. 능실초등학교 개교
당수초등학교	권선구 당진로 6	http://dangsu.es.kr	1969. 3. 3. 당수국민학교 개교 1994.12.26. 화성군에서 수원시 편입 1996. 3. 1. 당수초등학교로 개칭
대선초등학교	영통구 봉영로 1432-19	http://daeseon.es.kr	2005.10. 4. 대선초등학교 개교
대평초등학교	장안구 정지3동 871-2	http://daepyong.es.kr	1999. 1.15. 대평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9.11. 1. 개교
동수원초등학교	영통구 인계로 189번길 83	http://dsw.es.kr	1984.12.28. 동수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동수원초등학교로 개칭
동신초등학교	장안구 만석로 68번길 46	http://dongsin-su.es.kr	1999. 1.15. 동신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9. 9. 1. 개교
매산초등학교	팔달구 향교로 93	http://maesan.es.kr	1906. 9.28. 수원거류민소학교 개교 1941. 4. 1. 수원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45. 4.26. 수원남수공립국민학교 개교 1945.12.12. 매산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매산초등학교로 개칭
매여울초등학교	팔달구 권광로 260번길 385	http://maeyeoul.es.kr	2009. 1. 2. 매여울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9. 9. 1. 개교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매원초등학교	영통구 월드컵로 42번길 5	http://mae-won.es.kr	1969. 3. 매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69. 3. 개교 1996. 3. 매원초등학교로 개칭
매탄초등학교	영통구 매탄로 139	http://maetan.es.kr	1982. 7.21. 매탄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매탄초등학교 개칭
매현초등학교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77	http://maehyun.es.kr	2001. 5. 8. 매현초등학교 공사 착공 2002. 3. 1. 매현초등학교 개교
명당초등학교	권선구 세권로 319	http://myeongdang.es.kr	2000. 1. 8. 명당초등학교 설립 인가
명인초등학교	장안구 대평로 52번길 21	http://myoungin.es.kr	1999. 9. 6. 명인초등학교 개교
산남초등학교	영통구 매탄2동 111-164	http://sannam.es.kr	1988. 2. 6. 산남국민학교 설립 인가 1989. 3. 1. 개교 1996. 3. 1. 산남초등학교로 개칭
산의초등학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번길 25	http://sanui.es.kr	1949. 9.23. 용인 수지국민학교 산의분교 개교 1959. 6. 1. 산의국민학교로 개칭 1983. 2.15. 수원시 편입 1996. 3. 1. 산의초등학교로 개칭 2007. 3. 1. 임시 휴교 5년(광고신도시 개발) 2012. 3. 1. 재개교
상률초등학교	장안구 덕영대로 417번길 98	http://sangryul.es.kr	1997. 1.14. 상률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8.11. 1. 개교
상춘초등학교	권선구 금곡로 31번길 92	http://sangchon.es.kr	1998.12. 1. 상춘초등학교 개교
서평초등학교	권선구 수인로 9번길 52	http://seopyung.es.kr	2005.12.26. 서평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6. 3. 1. 개교
서호초등학교	권선구 서호동로 14번길 47	http://seo-ho.es.kr	1954. 5.14. 서둔초등학교 설립 인가 1962. 3. 1. 서호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서호초등학교로 개칭
선행초등학교	권선구 권선동 1067-9	http://seonhaeng.es.kr	2011. 1.10. 선행초등학교 설립 인가 2011.10. 1. 개교
세곡초등학교	권선구 세권로 207번길 32	http://suwonsegok.es.kr	1987. 1.31. 세곡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세곡초등학교로 개칭
세류초등학교	권선구 세류로 78	http://seryu.es.kr	1937. 9.17. 세류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37.10. 8. 개교 1938. 4. 1. 세류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1. 세류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세류초등학교로 개칭
소화초등학교	영통구 동수원로 590	http://sohwa.es.kr	1934.10. 2. 소화강습회 설립 1946. 1.24. 소화국민학교로 개칭 인가 1983. 재단 명의 변경(학교법인 광암학원) 1996. 3. 1. 소화초등학교로 개칭 2002. 1.17. 학교 신축 이전
송림초등학교	장안구 대평로 51번길 65	http://songlim.es.kr	1999. 1.15. 송림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9. 9. 6. 개교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송원초등학교	장안구 수일로 185	http://songwon-su.es.kr	1999. 8.30. 송원초등학교 개교
송정초등학교	장안구 송정로 41	http://sw-songjeong.es.kr	1981.12.30. 송정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송정초등학교로 개칭
송죽초등학교	장안구 송원로 41번길	http://songjook.es.kr	1986. 2.14. 송죽국민학교 설립 인가 1987. 3. 1. 개교 1996. 3. 1. 송죽초등학교로 개칭
수성초등학교	장안구 금당로 19	http://sooseong.es.kr	2001. 1.15. 수성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2. 3. 2. 수성초등학교 개교
수원금곡초등학교	권선구 서수원으로 617-30	http://kumgok-1.es.kr	2002. 2.14. 수원금곡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2. 3. 5. 개교
수원매화초등학교	영통구 권광로 304번길 47-17	http://sw-maehwa.es.kr	2004. 1. 5. 수원매화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5. 3. 2. 개교
수원선일초등학교	권선구 권중로 120번길 17	http://suwon-sunil.es.kr	1996. 1.13. 수원선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개교
수원신곡초등학교	권선구 정조로 544번길 13-7	http://swsg.es.kr	1962.12.28. 수원신곡국민학교 설립 인가 1963. 3. 7. 개교 1996. 3. 1. 수원신곡초등학교로 개칭
수원중촌초등학교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30	http://swjc.es.kr	2011. 2.22. 수원중촌초등학교 설립 인가 2012. 3. 1. 개교
수원초등학교	팔달구 팔달로 110번길 26	http://suwoncho.es.kr	1980. 9. 1. 수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80.11.10. 개교 1996. 3.16. 수원초등학교로 개칭
수일초등학교	장안구 수일로 85	http://suit.es.kr	2004. 1. 5. 수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4. 3. 2. 개교
숙지초등학교	팔달구 덕영대로 77번길 23-1	http://sukji.es.kr	1997. 1.14. 숙지초등학교 설립 인가
신성초등학교	영통구 청명북로 42번길	http://shinsung.es.kr	1997.12. 1. 개교
신영초등학교	영통구 영통로 266	http://sinyoung.es.kr	1997. 1.14. 신영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개교
신평초등학교	팔달구 신평동 246	http://shinpoong.es.kr	1896. 2.10. 수원군공립소학교로 개교 1896. 9.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로 개칭 1907. 수원공립보통학교로 개칭 1938. 4. 1. 신평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1. 신평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신평초등학교로 개칭
안룡초등학교	곡반정로 33번길 21	http://anryoung.es.kr	1924. 4.23. 안룡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24. 9.11. 개교 1938. 4. 1. 안룡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1. 안룡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안룡초등학교로 개칭
연무초등학교	팔달구 포은대로 103번길 60	http://yonmu.es.kr	1966.12. 6. 연무국민학교 설립 인가 1967.10. 7. 개교 1996. 3. 1. 연무초등학교로 개칭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영덕초등학교	영통구 영동로 438	http://young-duk.es.kr	1997. 1.14. 영덕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개교
영동초등학교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40	http://young-dong.es.kr	1997. 1. 4. 영동초등학교 설립 인가(6학급) 1997.12. 1. 개교
영일초등학교	영통구 덕영대로 1673번길 17	http://youngil.es.kr	1997. 1.14. 영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8. 2. 5. 영일초등학교 개교
영통초등학교	영통구 영동로 328	http://youngtong.es.kr	1995. 1. 4. 영통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개교
영화초등학교	장안구 경수대로 838	http://young-hwa.es.kr	1954. 9.20. 영화국민학교 개교 1996. 3. 1. 영화초등학교로 개칭
오목초등학교	권선구 오목천로 24	http://omokk.es.kr	1998. 5.28. 오목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0. 3. 1. 개교
오현초등학교	권선구 서수원로 220	http://ohyun.es.kr	2005.12.26. 오현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6. 9. 1. 개교
우만초등학교	팔달구 포은대로 210번길 20	http://wooman.es.kr	1992. 3. 1. 개교
원일초등학교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84	http://wonil.es.kr	1999. 1.15. 원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9. 8.30. 개교
원천초등학교	영통구 매탄동 103	http://won-chon.es.kr	1993. 5. 1. 원천국민학교 개교 1996. 3. 1. 원천초등학교로 개칭
울전초등학교	장안구 울전동 113	http://yuljeon.es.kr	1982. 7.21. 울전국민학교 설립 인가 1983.10.15. 개교 1996. 3. 1. 울전초등학교로 개칭
울현초등학교	팔달구 화서동 32번길 55	http://yulhyun.es.kr	2001. 1. 5. 울현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1. 5.21. 개교
이의초등학교	영통구 하동 244-5	http://eui.es.kr	2010. 9.24. 이의초등학교 설립 인가 2011.10. 1. 개교
인계초등학교	팔달구 인계동 257-2	http://ingyue.es.kr	1964. 3.20. 개교
일월초등학교	권선구 일월천로 16번길 27	http://ilwol.es.kr	1999. 1. 5. 일월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0. 3. 1. 개교
입북초등학교	권선구 울전로 10	http://ipbuk.es.kr	2004. 1. 5. 입북초등학교 설립 인가
잠원초등학교	영통구 태장로 54번길 11	http://jam-won.es.kr	2001. 1. 5. 잠원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2. 3. 2. 개교
정자초등학교	장안구 정자3동 873	http://jungja.es.kr	1988.12.27. 정자국민학교 설립 승인 1990. 9.18. 개교 1996. 3. 1. 정자초등학교로 개칭
정천초등학교	팔달구 화서2동 720	http://jungchun.es.kr	1990. 2. 6. 수원정천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6. 3. 1. 정천초등학교로 개칭
조원초등학교	장안구 조원동 금당로 53	http://jowon.es.kr	1993. 9. 1. 조원국민학교로 개교 1996. 3. 1. 조원초등학교로 개칭
중앙기독교초등학교	영통구 원천동 산73-6	http://suwoncca.es.kr	1994. 5.14. 중앙국민학교 개교 1995. 7. 5. 중앙기독교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중앙기독교초등학교로 개칭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지동초등학교	팔달구 중부대로 67	http://jldong.es.kr	1954. 4. 7. 지동국민학교 개교 1996. 3. 1. 지동초등학교로 개칭
창용초등학교	장안구 광고산로 140번길 8	http://changyong.es.kr	1983. 8. 8. 창용국민학교 설립 인가 1985. 4.28. 개교 1996. 3. 1. 창용초등학교로 개칭
천일초등학교	장안구 정자로 19번길 13	http://cheonil.es.kr	1997. 1. 4. 천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천천초등학교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17	http://cheon.es.kr	2002. 1.14. 천천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2. 3. 1. 개교
청명초등학교	영통구 봉영로 1744번길 41	http://cmschool.es.kr	1997. 1. 4. 청명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개교
칠보초등학교	권선구 금호로 32번길 15	http://suwon-chilbo.es.kr	1947. 6.10. 화성군 매송국교 노림분교 개교 1949. 9.15. 칠보국민학교로 승격 1987. 3. 1. 수원시 편입 1996. 3. 1. 칠보초등학교로 개칭
탑동초등학교	권선구 탑동로 55	http://tapdong.es.kr	1999. 1.15. 탑동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9. 8.30. 개교
태장초등학교	영통구 태장로 71번길 30	http://swtj.es.kr	1919.11.24. 태장공립보통학교로 인가 1941. 4. 5. 태장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태장초등학교로 개칭
파장초등학교	장안구 경수대로 1081번길 32-9	http://pajang.es.kr	1937. 5. 4. 파장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41. 4. 1. 파장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50. 6.25. 파장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파장초등학교로 개칭
팔달초등학교	팔달구 우만동 165-2	http://paldal.or.kr	2004. 1. 5. 팔달초등학교 인가 2004. 9. 1. 개교
한일초등학교	장안구 수일로 150	http://han-il.es.kr	1999. 1.15. 한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9.10.15. 개교
호매실초등학교	권선구 호매실동 388-7	http://homaeshil.es.kr	1996. 1.13. 호매실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7. 3. 7. 개교
화서초등학교	팔달구 화서1동 104-2	http://swhwaseo.es.kr	1970. 3. 4. 화서국민학교 개교 1996. 3. 1. 화서초등학교로 개칭
화양초등학교	팔달구 덕영대로 735번길 65	http://suwon-hwayang.es.kr	1983.11.20. 화양국민학교 설립 인가 및 개교 1996. 3. 1. 화양초등학교로 개칭
화흥초등학교	팔달구 수성로 258번길 70	http://hwahong.es.kr	1976.11. 6. 화흥국민학교 설립 인가 1977. 3. 7. 개교 1996. 3. 1. 화흥초등학교로 개칭
황곡초등학교	영통구 영통로 518	http://hgok.es.kr	1997.10.29. 황곡초등학교 설치 준공 1997.12. 1. 개교
효동초등학교	영통구 매탄로 126번길 27	http://hyodong.es.kr	2002. 3. 1. 효동초등학교 준공 2002. 3. 2. 개교
효성초등학교	팔달구 월드컵로 256	http://hyoseong.es.kr	1993. 2.22. 효성국민학교로 인가 1994. 5. 2. 개교 1996. 3. 1. 효성초등학교로 개칭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효원초등학교	영통구 효원로 358번길	http://hyowon-es.kr	1990. 3. 6. 효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91. 3.14. 개교 1996. 3. 1. 효원초등학교로 개칭
효정초등학교	권선구 동수원로 285번길 5	http://hyojeong-es.kr	1996. 1.13. 효정초등학교 학급 인가 1996. 5. 6. 개교
효천초등학교	장안구 천천로 21번길 11	http://hyochun-es.kr	2001. 1. 5. 효천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7. 9. 1. 효천초등학교 개교
효탑초등학교	권선구 효탑로 16번길 17	http://hyotap-es.kr	2004.12.27. 효탑초등학교 설립 인가 2005. 3. 1. 개교

## 중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경기체육중학교	장안구 천천동 30-1	http://gg-ph.ms.kr	2011. 1.10. 경기체육중학교 설립 인가 2011. 3. 7. 개교
고색중학교	권선구 매송고색로 711번길 50	http://kosaek.ms.kr	1999. 1.26. 고색중학교 설립 인가 1999. 3. 3. 개교
곡반중학교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144-7	http://gokban.ms.kr	2003. 1.13. 곡반중학교 설립 인가 2003. 2. 5. 개교
곡선중학교	권선구 권선동 곡선로 3-8	http://kokson.ms.kr	1989. 1.26. 곡선중학교 설립 인가 1989. 3. 4. 개교
광교중학교	영통구 이의동 711	http://gwanggyo.ms.kr	2011. 3. 2. 광교중학교 설립 인가 2011. 9. 1. 광교중학교 개교
구운중학교	권선구 금호로 257	http://guwoon.ms.kr	1989. 2.22. 구운중학교 설립 인가 1990. 3. 1. 개교
권선중학교	권선구 경수대로 239	http://k-son.ms.kr	1985. 1.21. 권선중학교 설립 인가 1985. 3. 1. 개교
남수원중학교	권선구 권선동 1244	http://namsuwon.ms.kr	1996. 1.13. 남수원중학교 설립 인가 1996. 3. 5. 개교
대평중학교	장안구 만석로 68번길 7	http://daepyong.ms.kr	2000. 3. 1. 대평중학교 개교
동성중학교	팔달구 우만동 533	http://dongsung-one.ms.kr	1985.12. 5. 동성여자중학교 설립 인가 1986. 3. 5. 개교 2005. 3. 2. 동성중학교로 개칭
동수원중학교	영통구 동탄원천로 1109번길 92	http://dongsuwon.ms.kr	1993. 1.11. 동수원중학교 설립 인가 1993. 3. 3. 개교
망포중학교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15	http://mangpo.ms.kr	2003. 3. 5. 개교
매원중학교	영통구 매탄로 177	http://maewon.ms.kr	1989. 1.26. 매원중학교 설립 인가 1989. 3. 4. 개교
매탄중학교	영통구 매탄동 효원로 337	http://maetan.ms.kr	2009. 1. 2. 매탄중학교 설립 인가 2009. 3. 1. 개교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매향중학교	팔달구 수원천로 350	http://maehyang.ms.kr	1902. 6. 3. 삼일소학당 개교 1941. 5. 수원여자매향학교로 인가 1946. 4.24. 매향여자초급중학교 설립 1951. 8. 매향여자중학교(3년제) 인가 2010. 3. 1. 매향중학교로 개칭
매현중학교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20	http://maehyeon.ms.kr	2002. 1.14. 매현중학교 설립 인가 2002. 3. 1. 개교
명인중학교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7	http://myungin.ms.kr	2001. 1. 5. 명인중학교 설립 인가 2001. 3. 1. 개교
산남중학교	영통구 매영로 79	http://sannam.ms.kr	1992. 1. 8. 산남중학교 설립 인가 1992. 6. 5. 개교식
삼일중학교	팔달구 수원천로 342	http://sam-il.ms.kr	1903. 5. 7. 삼일학교 창립 1946.12. 삼일중학교로 개칭 1962. 3. 수원동중학교로 개칭 1968.11. 삼일중학교로 복원 개칭
상촌중학교	권선구 금곡로 73번길 60	http://sangchons.ms.kr	2007. 1. 8. 설립 인가 2007. 3. 3. 개교
서호중학교	권선구 서호로 71	http://seocho.ms.kr	2006. 3. 6. 개교
세류중학교	권선구 덕영대로 1031번길 6	http://seryu.ms.kr	2004.12.27. 세류중학교 설립 인가 2006. 3. 2. 개교
송원중학교	장안구 송정로 21번길 42	http://songwon.ms.kr	1984. 1.16. 송원여자중학교 설립 인가 1984. 3. 5. 개교
수성중학교	장안구 수성로 363번길 2	http://suseong.ms.kr	1954. 7. 7. 설립 인가 1954. 9.20. 개교
수원북중학교	장안구 영화동 광교로 37	http://suwonbuk.ms.kr	1936. 6. 8. 수원공립농업학교로 설립 인가 1951. 8.31. 수원북중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로 개편 인가 1951. 9. 1. 개교
수원원일중학교	영통구 삼성로 213번길 122	http://swwonil.ms.kr	2010. 1. 1. 수원원일중학교 설립 인가 2010. 3. 2. 개교
수원제일중학교	팔달구 수성로 244번길 37-52	http://suwonjeil.ms.kr	1936. 3.24. 수원공립가정여학교로 설립 인가 1941. 3.31. 수원공립고등여학교로 설립 인가 1946. 9. 1. 수원공립여자중학교로 개칭 1970. 3.10. 수원여자중학교와 수원여자고등학교로 분리 1980.11. 1. 현 위치로 학교 이전 2005. 3. 1. 수원제일중학교로 개칭
수원중학교	팔달구 정조로 666-10	http://suwon.ms.kr	1909. 2. 2. 수원상업강습소 창립(상업회의소 부속) 1941. 3.27. 수원상업학교로 승격 인가 1946. 8. 1. 수원상업학교 폐지 및 수원중학교 인가 1951. 8.31. 수원중학교 및 수원고등학교로 분리
수일여자중학교	장안구 수일로 145	http://suil-g.ms.kr	1974.12.27. 수일여자중학교 설립 인가 1975. 3. 5. 개교
수일중학교	장안구 수일로 103	http://suil.ms.kr	1983. 1. 2. 수일중학교 설립 인가 1983. 3. 5. 개교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숙지중학교	팔달구 화서2동 652	http://sukji.ms.kr	1997. 1.14. 숙지중학교 설립 인가 1997. 3. 5. 개교
연무중학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0번길 30	http://suwonym.ms.kr	1980. 1.24. 연무중학교 설립 인가 2008. 2.28. 연무중학교 휴교 2012. 3. 1. 재개교
영덕중학교	영통구 청명로 146	http://youngduk.ms.kr	1997. 1.14. 영덕중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영덕중학교 개교
영동중학교	영통구 영동로 225	http://yeongdong.ms.kr	2005. 3. 1. 영동중학교 개교
영복여자중학교	팔달구 장안로 7번길 49	http://youngbok.ms.kr	1969.11.18. 학교법인 영복학원 설립 인가 1970. 3. 5. 영복여자중학교 개교
영신중학교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30	http://youngshin.ms.kr	1956. 2.28. 화산중학교 설립 인가 1963. 1. 4. 수원남중학교로 개칭 1976. 4. 6. 영신중학교로 개칭
영일중학교	영통구 영동로 1004	http://youngil.ms.kr	1997. 1.14. 영일중학교 설립 인가
영통중학교	영통구 영동로 316	http://syt.ms.kr	1997. 1.14. 영통중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영통중학교 개교
원천중학교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38	http://woncheon.ms.kr	1991. 1.21. 원천중학교 설립 인가 1991.10. 2. 개교
울전중학교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http://yuljeon.ms.kr	1998.12.30. 울전중학교 설치조례 공포 1999. 3. 3. 개교
울현중학교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60	http://youthyoun.ms.kr	2002. 1.14. 울현중학교 설립 인가 2002. 3. 5. 개교
이목중학교	장안구 장안로 426	http://imok.ms.kr	1985.12.28. 이목중학교 설립 인가 1986. 3. 5. 개교
이의중학교	영통구 하동 215	http://iui.ms.kr	2011. 3. 2. 이의중학교 설립 인가 2011.10. 1. 개교
잠원중학교	영통구 태장로 25	http://jamwon.ms.kr	2007. 1. 18. 잠원중학교 설립 인가 2007. 3. 2. 개교
정천중학교	팔달구 정자천로 32번길 11	http://jung-chun.ms.kr	2003. 1.14. 정천중학교 설립 인가 2003. 3. 3. 개교
조원중학교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35	http://jowon.ms.kr	2004.12.27. 조원중학교 설립 인가 2005. 3. 4. 개교
중앙기독교중학교	영통구 원천동 산73-6	http://suwoncca.ms.kr	1992.11. 19. 학교법인 중앙학원 설립 승인 2006.12. 7. 중앙기독교중학교 설립 인가
창용중학교	장안구 연무로 8	http://changyong.ms.kr	1981. 1.17. 수성여자중학교 설립 인가 1981. 3. 4. 개교 2007. 3. 1. 창용중학교로 개칭
천천중학교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16	http://kscc.ms.kr	2002. 1.10. 천천중학교 설립 인가 2002. 3. 1. 개교
청명중학교	영통구 영동동 청명북로 118	http://chungmyung.ms.kr	1997. 1.14. 청명중학교 설립 인가 1997.11.17. 개교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칠보중학교	권선구 금곡로 126	http://suwonchilbo.ms.kr	2003. 1.13. 칠보중학교 설립 인가 2003. 3. 1. 개교
태장중학교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45	http://taejang.ms.kr	1997. 1.14. 태장중학교 설립 인가 1997.12. 1. 개교
호매실중학교	권선구 호매실동 395-27	http://homaesil.ms.kr	1997. 1.14. 호매실중학교 설립 인가 1997. 3. 7. 개교
화홍중학교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 25-11	http://hwahong.ms.kr	2001. 1. 5. 화홍중학교 설립 인가 2001. 3. 5. 개교

## 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경기과학교등학교	장안구 수일로 135	http://gs.hs.kr	1982. 4.19. 설립 계획 및 문교부 승인 1983. 3. 5. 개교
경기대명고등학교	권선구 수인로 598번길 3-24	http://daemyoung.hs.kr	2002. 1.14. 경기대명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2. 3.25. 개교
경기체육고등학교	장안구 상화로 106	http://gg-ph.hs.kr	1994.11. 1. 경기체육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5. 3.10. 개교
고색고등학교	권선구 서둔로 17번길 32	http://kosaek.hs.kr	2008. 9.25. 고색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9. 3. 1. 개교
권선고등학교	권선구 세권로 276	http://kwonsun.hs.kr	1996. 1.13. 권선고등학교 설립 승인 1996. 3. 1. 개교
대평고등학교	장안구 천천로 22번길 21	http://daepyeong.hs.kr	2001. 9.13. 대평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2. 3. 5. 개교
동우여자고등학교	장안구 장안로 426-1	http://dongwoo.hs.kr	1980.10. 2. 학교법인 동우학원 설립 인가 1987. 7. 1. 동우여자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8. 3. 4. 개교
동원고등학교	장안구 장안로 426-1	http://dongwon.hs.kr	1980.10.22. 학교법인 동우학원 설립 인가 1985.12.27. 동원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6. 3. 8. 개교
망포고등학교	수원시 동탄지성로 468	http://mangpo.hs.kr	2008. 2.28. 망포고등학교 준공 2008. 3. 7. 개교
매원고등학교	영통구 삼성로 213번길 120	http://maewon.hs.kr	2008. 1. 7.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공포 2008. 3. 4. 개교
매탄고등학교	영통구 매탄로 126번길 11	http://maetan.hs.kr	2005. 1.22. 매탄고등학교 설립 승인 인가 2005. 3. 3. 개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팔달구 수원천로 350	http://maehyang.hs.kr	1902. 6. 3. 삼일소학당 개교 1906. 삼일여학당과 삼일남학당으로 분리 1909. 4.28. 삼일여학교로 설립 인가 1926. 5.20. 삼일여자보통학교로 승격 1938. 4. 1. 매향여자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수원여자매향학교 개칭 1953. 1. 매향여자고등기술학교 인가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매항여자정보 고등학교	팔달구 수원천로 350	http://maehyang.hs.kr	1958. 2. 매항여자가정고등학교 인가 1963. 1. 매항여자실업고등학교로 학칙 인가 1972.12. 매항여자상업고등학교로 학칙 인가 2000. 3. 매항여자정보고등학교로 개칭
삼일공업고등학교	팔달구 수원천로 392	http://samil-th.or.kr	1903. 5. 7. 삼일학교 개교 1938. 4. 1. 팔달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1. 팔달국민학교로 개칭 1946. 9. 1. 삼일학교로 개칭 1946.12.12. 삼일초급중학교 승격 인가 1955. 3. 7. 삼일상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1962. 3.20. 수원상업고등학교로 개칭 1968.11.20. 삼일실업고등학교로 개칭 1988. 2.29.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삼일상업고등학교로 분리 개교
삼일상업고등학교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28	http://samil.hs.kr	1903. 5. 7. 삼일학교 개교 1938. 4. 1. 팔달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1. 팔달국민학교로 개칭 1946. 9. 1. 삼일학교로 개칭 1946.12.12. 삼일초급중학교 승격 인가 1955. 3. 7. 삼일상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1962. 3.20. 수원상업고등학교로 개칭 1968.11.20. 삼일실업고등학교로 개칭 1988. 1.16. 삼일상업고등학교와 삼일공업고등학교 분리 인가
수성고등학교	장안구 장안로 90번길 39	http://susung.hs.kr	1954. 7. 7. 수성고등학교 설립 인가 1955. 4.25. 개교
수원고등학교	팔달구 매교동 250	http://suwon.hs.kr	1909. 2. 2. 수원상업강습소 창립 1941. 3.27. 수원상업학교로 승격 인가 1946. 8. 1. 수원중학교로 개편 1951. 8.31. 수원중학교 및 수원고등학교 3년제로 분리
수원공업고등학교	팔달구 인계동 249-1	http://sugong.org	1970.12.26. 수원공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1. 3. 3. 개교
수원농생명과학 고등학교	장안구 영화동 45번지	http://sunong.hs.kr	1936. 6. 8. 수원공립농업학교 설립 인가 1936. 7. 1. 개교 1945. 12.21. 수원공립농림학교로 개칭 1947.10. 수원농림중학교로 개칭 1951. 8.31. 수원농림고등학교로 개칭 1955. 3. 2.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로 개칭
수원여자고등학교	팔달구 고등로 59번길 72	http://suwon-g.hs.kr	1936. 3.24. 수원공립가정여학교 설립 인가 1936. 4.15. 개교 1951. 9. 1. 수원여자중학교와 수원여자고등학교로 학제 개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영통구 이의동 1088-19	http://swfl.hs.kr	2006. 3. 6. 개교
수원정보과학 고등학교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16	http://swjb.hs.kr	1994.11. 1.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로 설립 인가 1995. 3. 3. 개교
수원하이텍 고등학교	영통구 영동동 청명북로 56	http://sht.hs.kr	2000. 1. 8. 팔달공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0. 3. 6. 개교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수원한일전산 여자고등학교	권선구 탑동 614	http://suwonhanil. hs.kr	1980. 3.30. 수원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개교 1989. 7.29. 수원한일여자고등학교로 개칭 1994. 4.30. 수원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개편 인가
수일고등학교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59	http://suil.hs.kr	2001. 1.15. 수일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1. 3. 1. 개교
숙지고등학교	팔달구 수성로 182번길 100	http://sukji.hs.kr	1997. 1.14. 숙지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7. 3. 5. 개교
영덕고등학교	영통구 매영로 334	http://yeongdeok. hs.kr	1998. 1.15. 영덕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8. 3. 4. 개교
영복여자고등학교	팔달구 화서2동 7-10	http://youngbok.or.kr	1972.12.29. 영복여자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3. 3. 5. 개교
영생고등학교	장안구 서부로 2198번길	http://myys.hs.kr	1990. 1.16. 영생고등학교 인가 1990. 3.15. 개교
영신여자고등학교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30	http://ysg.hs.kr	1974.11.29. 영신여자고등학교 인가 1975. 3. 7. 개교
유신고등학교	팔달구 월드컵로 216	http://yushin.or.kr	1973.12. 8. 유신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3. 3.12. 개교
율천고등학교	팔달구 화서2동 720	http://yulcheon.hs.kr	2011. 1.10. 율천고등학교 설립 인가 2011. 3. 3. 개교
장안고등학교	장안구 대평로 52번길 12	http://jangan.hs.kr	1999. 1.15. 장안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9. 3. 1. 개교
조원고등학교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15	http://jowon.hs.kr	2004. 1. 5. 조원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4. 3. 3. 개교
창현고등학교	팔달구 월드컵길 216-2	changhyun.org	1985.12.27. 창현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6. 3. 5. 개교
천천고등학교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31	cheoncheon.hs.kr	2004. 3. 3. 천천고등학교 개교
청명고등학교	영통구 영동로 466번길 31	cm-h.hs.kr	1998. 1.15. 청명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8. 3. 4. 개교
태장고등학교	영통구 영동로 250	taejang.hs.kr	1998. 1.15. 태장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8. 3. 1. 개교
호매실고등학교	권선구 칠보로 142-1	homaesil.hs.kr	2012. 3. 2. 호매실고등학교 개교
화홍고등학교	권선구 세권로 331	hwahong.hs.kr	1999. 1.15. 화홍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9. 3. 1. 개교
효원고등학교	영통구 동수원로 336	http://hyowon.hs.kr	1987. 1.16. 효원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8. 3. 1.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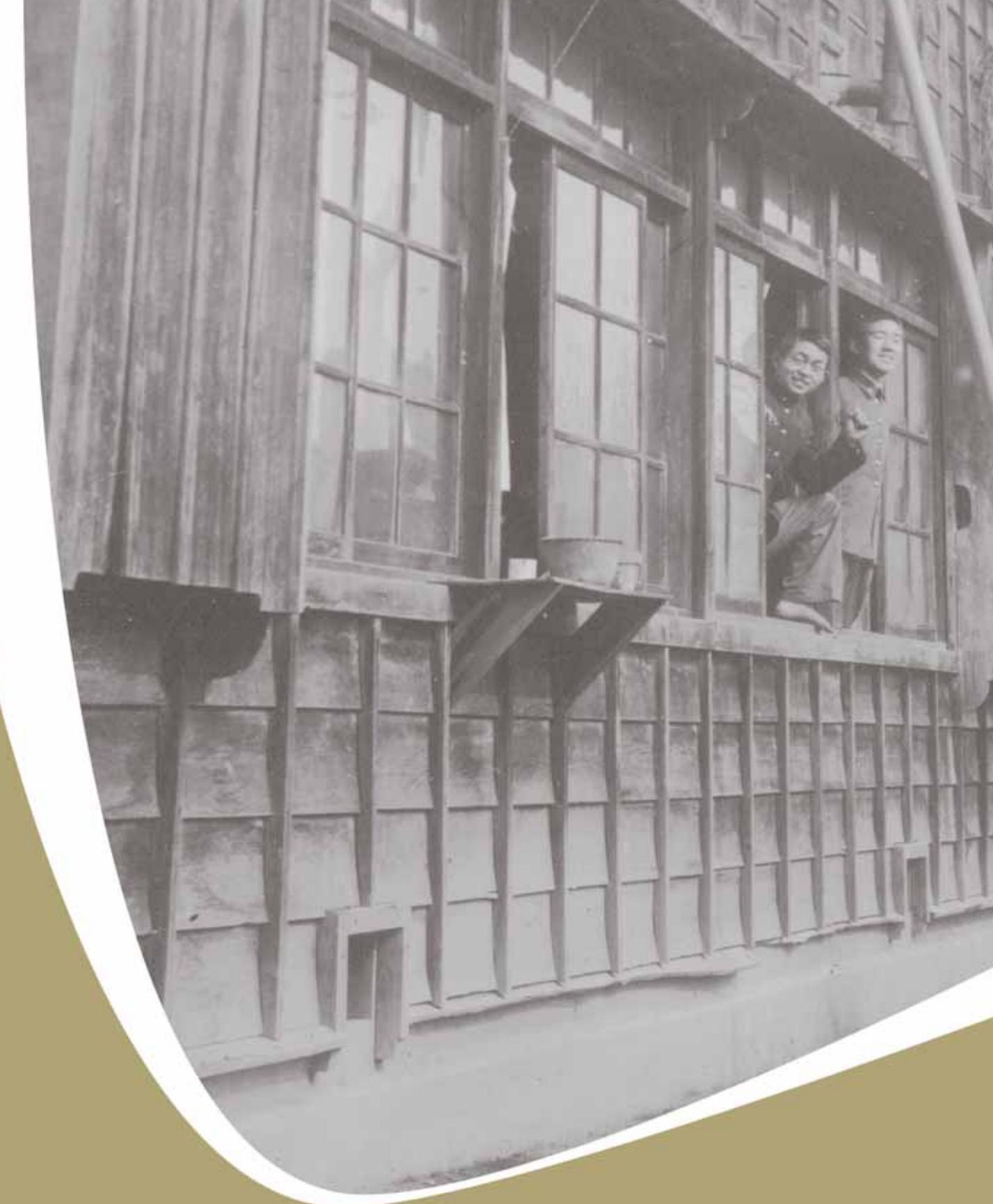
## 대학교 및 대학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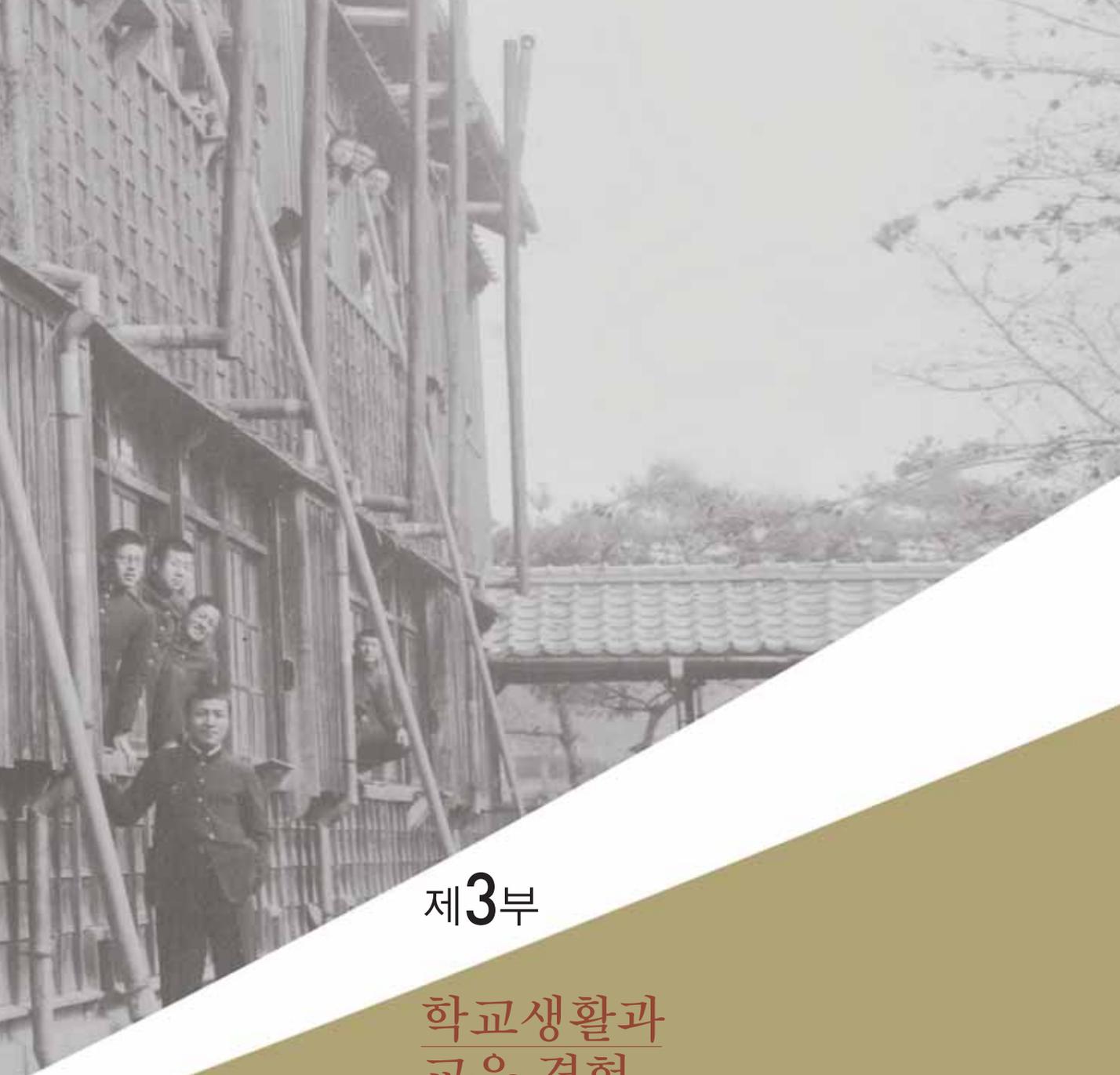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경기대학교(대학원) 수원캠퍼스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http://www.kyonggi.ac.kr	1947. 11.8. 조양보육사범대학 설립 1950. 4.15. 조양보육초급대학으로 승격 1955. 4.11. 경기여자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 1957.12.28. 경기초급대학으로 변경 1963.12.16. 경기대학 설립 인가 1979.12. 5. 대학원 설치 인가
국제사이버대학교	팔달구 인계동 950-12	http://www.gcu.ac	1950.10. 학교법인 광동학원 설립 1996. 7. 가상대학연구위원회 구성 2000.10. 가상대학연구위원회 원격교육원으로 변경 2003. 3. 국제디지털대학교 개교 2011. 9. 국제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동남보건대학교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http://www.dongnam.ac.kr	1973. 7.27. 학교법인 동남학원 설립 인가 1973.12.19. 동남보건전문학교 설립 인가 1979. 1. 1. 동남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 1998. 6. 1. 동남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 2012. 1. 1. 동남보건대학교로 교명 변경
아주대학교(대학원)	영통구 월드컴로 206	http://www.ajou.ac.kr	1977. 3.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 1981. 3. 아주대학교 종합대학 승격 및 설립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자연과학캠퍼스	장안구 서부로 2066	http://www.skku.edu	1979. 3. 수원캠퍼스 개교 1981. 8. 자연과학캠퍼스로 명명
수원여자대학교	권선구 수원여대길 62	http://www.swc.ac.kr	1969. 1. 6. 수원간호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1. 6.22. 간호학교 지정 1972.12.18. 수원간호전문학교 개편 인가 1973. 3. 3. 수원간호전문학교 개교 1979. 2.25. 수원간호전문대학 개편 인가 1998. 5. 1. 수원여자대학으로 교명 변경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영통구 광고중앙로 50	http://www.hapdong.ac.kr	1980.11.11. 합동신학원 개교 1982. 4.30. 신학교 설립 승인 1983. 9. 9. 학교법인 자유학원 인가 1996.12.11. 합동신학대학원대학 승격 인가 1997.11.10.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명 변경

## 기타 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수원서광학교	장안구 이목동 130	http://www.seokwang.sc.kr	1962. 3. 1. 한국농아공민학교 설립 1964.11. 7. 수원농아학교 인가 1987. 5. 7. 수원서광학교로 교명 변경 1996.11.14. 학교법인 서광학원 설립
자혜학교	권선구 수봉로 47	http://www.jh.sc.kr	1973. 3. 자혜학교 개교 1981.11. 중학교 개설 1986.11. 고등학교 개설 1997.12. 유치원 개설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연혁(내용)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통고등학교	장안구 장안로 90번길 39	<a href="http://www.cyber.hs.kr">http://www.cyber.hs.kr</a>	1974.12.31.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통고등학교 인가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통고등학교	팔달구 고등로 59번길 72		1975. 1. 6.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통고등학교 인가





## 제3부

# 학교생활과 교육 경험

제1장 수원의 근대 학교 풍경

제2장 일제하 '소국민(小國民)' 의 학교생활과 직업과(職業科) 교육

제3장 일제하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삶

제4장 '사건' 을 통해 본 일제하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의식세계



박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교실 풍경
2. 운동장 풍경
3. 교육행사
4.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5. 교가



## 제1장

# 수원의 근대 학교 풍경

## 1. 교실 풍경

### 1) 규율공간의 탄생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공간인 교실이다. 조선시대 서당은 개인 집의 사랑채 등을 주로 이용하여 운영되었다.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들어서기는 초창기에는 초가형태의 방 또는 교회의 예배당, 지방관아 소속의 객사 등지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학교 교사가 만들어지면서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원 지역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1896년부터 채용과 교원 확보에 착수하면서 지방의 주요 지역에 공립소학교를 새로 설립할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지방소학교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관립소학교와 달리, 지방관아와 지역 주민이 합심하여 설립하고 지방재정으로 운영되었다. 설립 대상지역은 한성부를 비롯한 관찰부가 소재한 23부 지역이었다.<sup>1</sup>

소학교를 새로 설립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일이었는



수원공립보통학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데,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해 학교 건립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군현 객사나 관아 집무실이었다가 폐쇄된 건물을 활용하였다.<sup>2</sup> 수원 지역에 설립된 수원군공립소학교는 1896년 향교 부근에서 개교하였다가 남군영 건물로 이전하였고 이후 우화관 건물을 차용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서울 4대 관립소학교처럼 남학생 10여 명이 경기관찰부의 공고문을 보고 지망하였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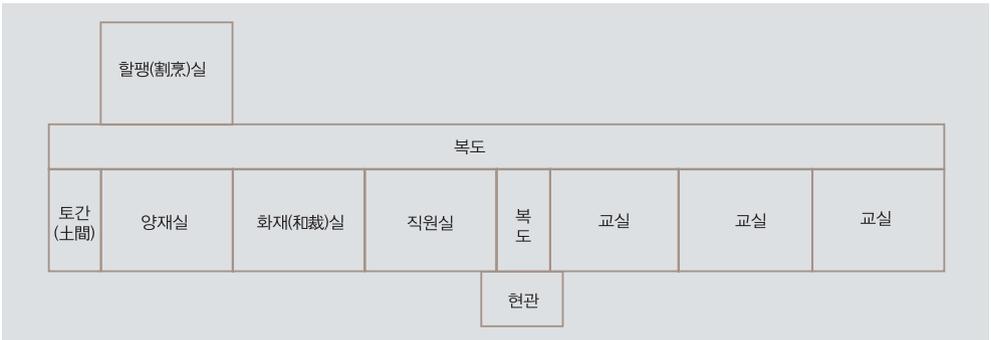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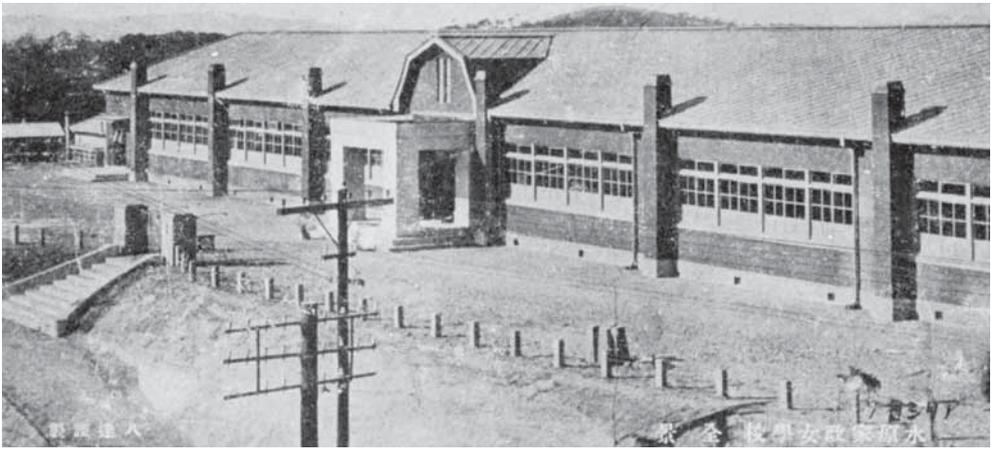
일제가 1906년 「보통학교령」을 공포하면서 학교 건물도 대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때 관립소학교 건물이 2층짜리 일본식 목조건물로 바뀌었다. 나날이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위생을 강화하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일제는 지식 전수보다 엄격한 규율과 생활환경을 중시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적합한 공간으로 개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은 여러 곳으로 나누어 배치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여 학생을 수용하는 건물로 지었다.<sup>4</sup> 그러나 수원 지역의 경우 2층짜리 일본식 목조건물을 짓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였다.

1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51쪽.

2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54쪽.

3 신흥백년사편찬위원회, 『신흥백년사』, 1996, 93쪽.

4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109-110쪽.



수원여자고등학교 건물배치도(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학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한 크기의 교실을 가지며 일렬 배치로 되어 있다. 중앙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형태로 매우 권위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고, 평면 배치를 보면 전형적인 일정한 모듈에 의해 교실이 구획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고딕풍의 서구의 고전방식을 따라 외관을 만들거나 전통방식과 절충하고 있음에도 내부를 보면 전형적인 학교의 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근대적인 학교는 서당과 다른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였다. 이전에 볼 수 없던 물건이 학교 교실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실에 있는 책상과 걸상이었다. 이제 학생들은 서당과 달리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공부하지 않고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의자에 앉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이전 방식에 익숙하여 의자에 앉아 공부하기가 힘들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점잖게 공부하였다.<sup>5</sup>

학생들은 보통 아침 8시에 등교하여 오후 3시 정도면 수업을 마쳤다. 수업시간은 40분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중간에 10분 또는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다. 수업이 시작할 때면, “땡땡땡” 소리가 학교에 울렸다. 한 책상에 두 사람씩 앉았는데 머리와 옷차림은 다양각색

5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이야기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57~58쪽.



수원상업학교 복도(1944년 수원상업학교 졸업앨범) 복도는 통로의 기능과 통제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데, 단위 규율공간인 교실과 연결되어 확장된 규율공간이다. 일직선의 복도와 그에 따른 교실의 배치로 복도에서 교실 내부를 바라보는 것이 유리하고,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일탈에 대한 시선적인 확보가 쉽다.



시간을 알리는 장치인 학교종(수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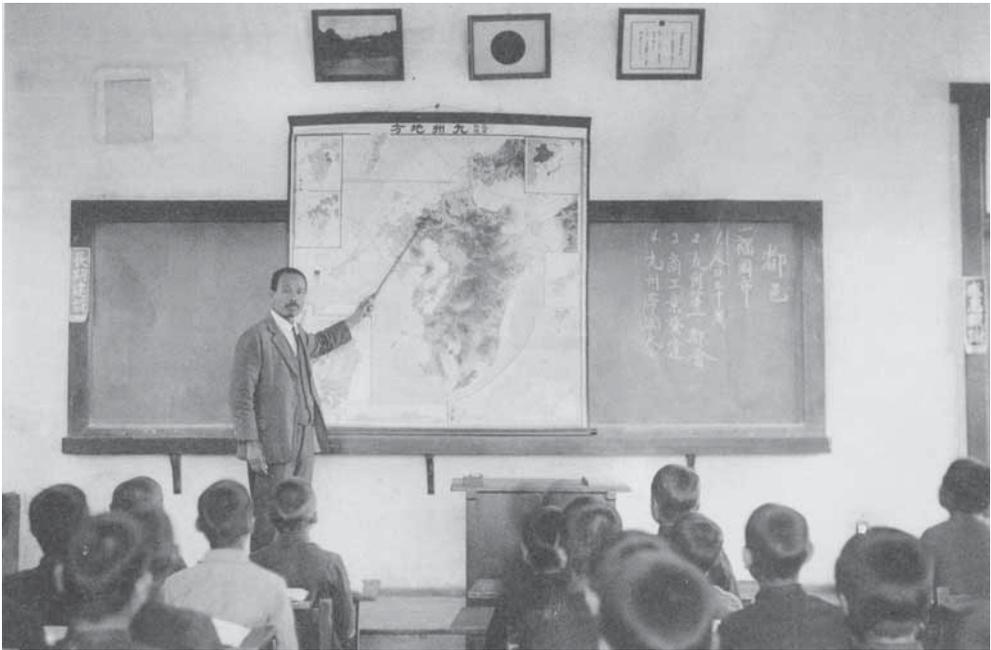
이었다. 어떤 이는 것과 초립을 쓴 채로 앉아 있고, 어떤 이는 머리를 뺏뺏 깎고 앉아 있다. 신식 소학교는 시계가 분초까지 알려 주는 시간과 더불어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해 뜨면 서당에 나와 공부하고 해 지면 쉬었으나 이제는 하루시간표와 주간시간표에 정해진 시각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수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입학부터 입학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반, 입학부터 추분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등이었다.<sup>6</sup>

일제시기 교실에는 일본기가 정면에 걸려 있었고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는 선생님들이 군도를 차고 수업을 진행하는 엄숙함을 보이고 있다. 1919년 이후 문화통치기에는 칼을 차고 수업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엄격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단발을 한 학생들이 교복 등 단정한 복장을 하고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당시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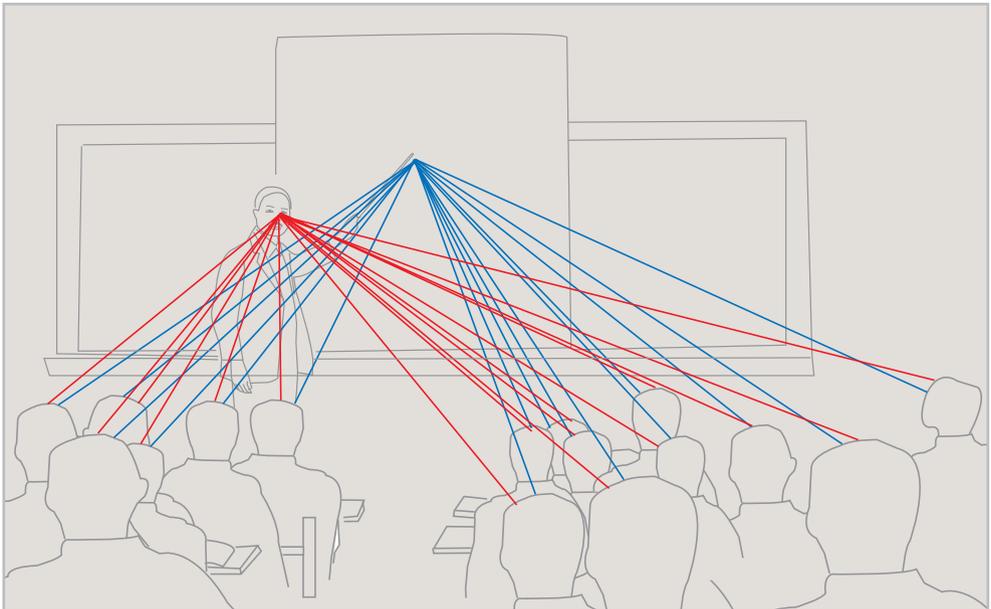
다만 사진들의 경우 교실에서 있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주지 못해 안타깝다. 이 점은 당시 식민지시기의 엄격했던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사진이 졸업 등 공적인 행사 사진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시기 교실의 풍경은 구술을 통해서 짐작이 가능할 것 같다. 신평초등학교 제21회 졸업생(1930년)인 김인기는 일제시기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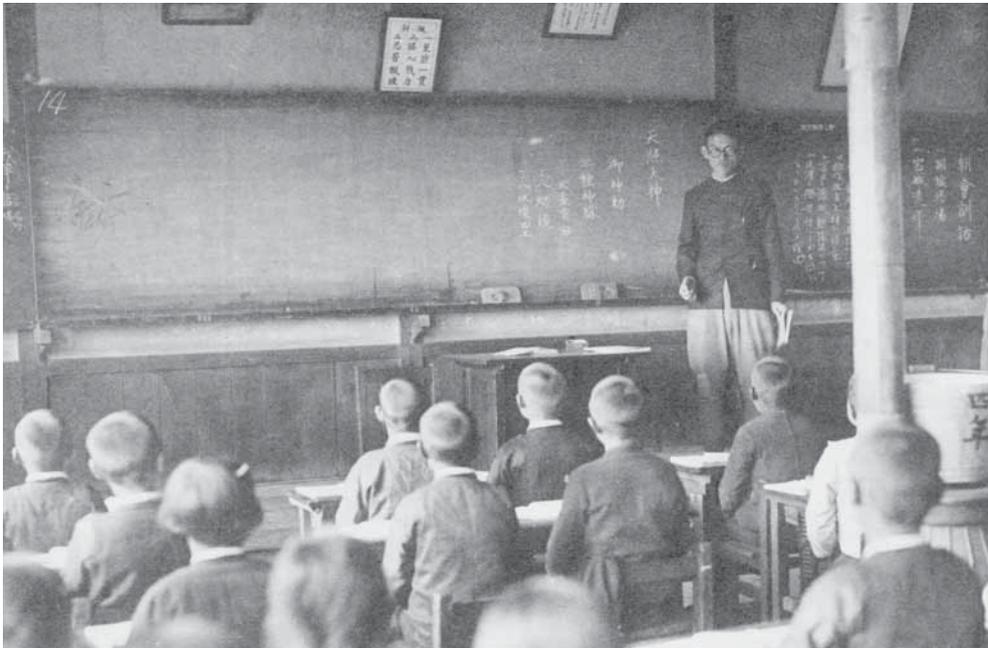
6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73-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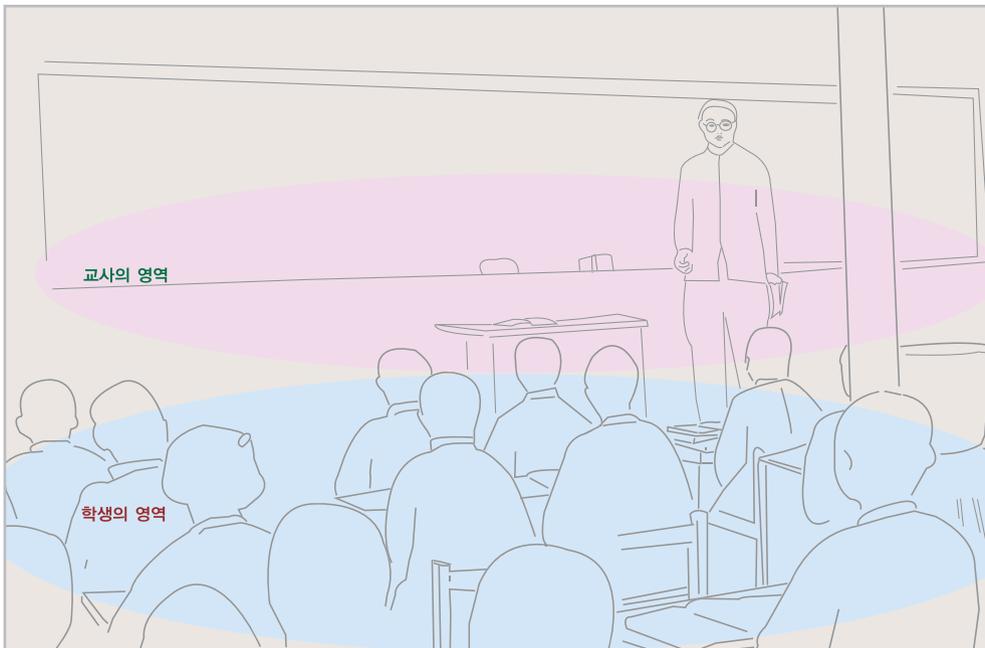
일제시기 삼일학교 수업(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시선 분리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시선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에서 보면 시선의 흐름이 학생은 칠판 위의 지휘봉을 보고 있으며, 교사의 시선은 학생들을 향하고 있다. 이는 근대 학교의 시선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시선은 근대 효율성의 방식으로 학생을 통제하며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교사는 각각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파악 가능하며 특히 공간적인 분할과 폐쇄성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1940년 양감공립심상소학교 수업 풍경(리제재 제공)



**교사와 학생의 영역 분리**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학생은 이동을 할 수 없기에 고정된 영역을 지니고 있다. 교사의 고유 영역은 학생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수업에 집중하게 한다.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높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교사의 시선을 확보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한 번의 시선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정렬된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남학생은 4학년부터는 장가든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 겨울이면 교실 한 쪽에 석탄난로가 한 대뿐이라 북쪽에 앉은 학생은 추워서 주 1회 자리를 교체해 주기도 하고, 점심은 교사·학생 모두 도 시락을 가지고 다녔다. 하학시간은 운동장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치는 정구, 말 타기, 제기차기, 줄 넘기, 공기, 끈지 두기, 자치기, 용마(줄긋고 한발로 돌 밀어내기), 술래잡기, 겨울에 눈 오면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등으로 즐겼다.<sup>7</sup>

한편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자원의 고갈로 수원군 내 30여 학교가 교실에서도 난로를 피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수원군 내 각 공사립 중소학교 30여 교가 일제히 연료절약을 위하여 이 엄동에도 내한주의(耐寒主義)로 아직도 난로를 피우지 않고 학업을 하는 중 금년 동기방학은 1개월간으로 연장하고 삼학기에는 수업 시간을 단축하여 아침 10시부터 하오 2시나 3시에 맞추기로 한다는바 그 대신 춘기 휴가도 주리고 여름휴가와 시간을 연장하여 학과의 충실을 도모하리라는 것이 군 학무과의 의견이다. 참으로 비상시에 처한 어린이들의 인고와 단련이 됨을 느낀다 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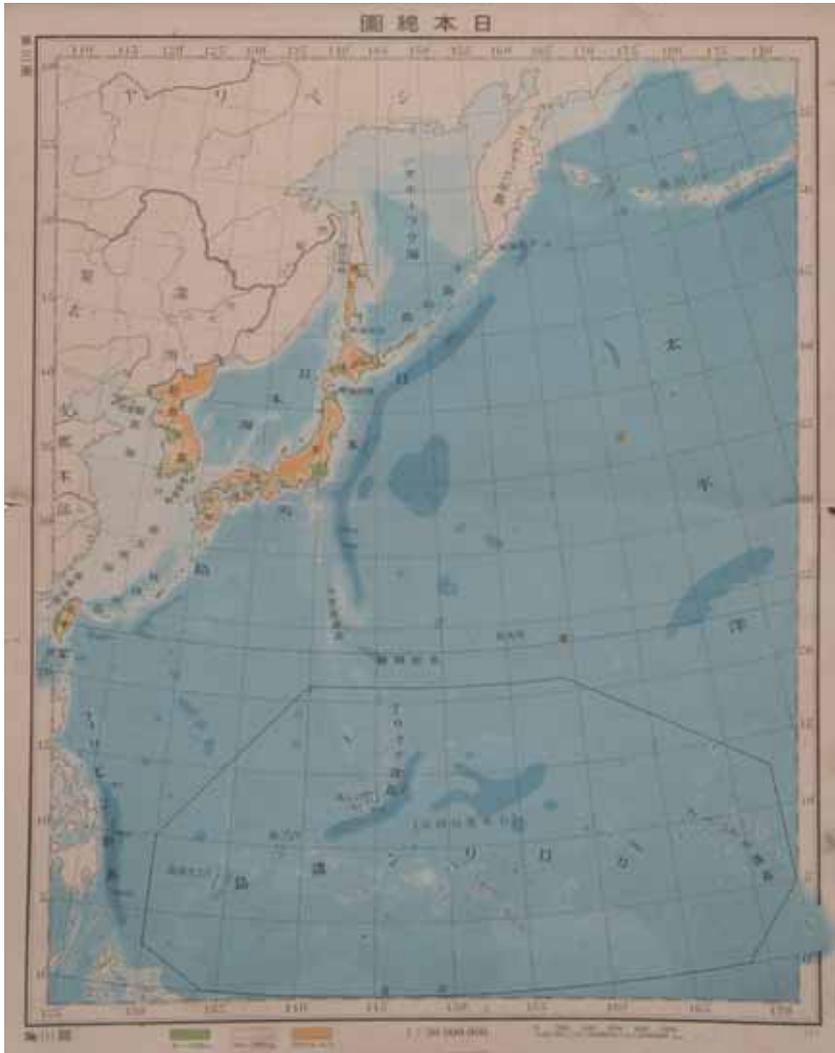
## 2) 수업 내용과 교과서

일본은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비롯하여 각종 학교령을 발표하면서 학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일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보통교육이었는데,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심상과와 고등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줄였다. 또한 소학교란 이름도 일본인 소학교와 달리 보통학교로 바꾸었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아 버렸다. 둘째, 소학교의 독서, 작문, 습자 등을 종합하여 조선어 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줄여 배정했고, 새로 일어 시간을 주당 6시간씩 배정하였다. 셋째, 교과서 편찬에 깊이 관여하여 친일적인 교과서 편찬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에 보통학교용 교과서의 일부가 일본에서 출판되어 같은 해 9월부터 보통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으며, 일본의 자본가를 자산가로 꾸며 가르쳤다.<sup>9</sup>

7 신풍백년사편찬위원회, 『신풍백년사』, 1996, 442~443쪽.

8 「水原各學校도 冬期休暇延長」, 『조선일보』, 1939년 12월 10일.

9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이야기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95~98쪽.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은 "심상소학지리서부도"(수원박물관 소장)

한말에 한국인들은 일제의 침략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한편,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구해보려는 교육구국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애국적 지식인들은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초등본국역사』, 『초등대한지지』, 『초등소학』, 『초등국어어전』 등을 편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당시 관공립학교가 일어를 필수로 하고 역사를 삭제한 데 반해, 사립학교에서는 일어 대신에 역사를 택하여 가르쳤다. 이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유년필독』은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 부교관을 지낸 현채(玄采)가 편찬한 교과서

로 대부분의 내용이 을지문덕과 양만춘 등 구국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sup>10</sup>

수원 삼일학교의 경우, 1910년 6월 25일 제2회 고등과 졸업식을 앞두고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일본 관헌들에게 교과서를 압수당하였다. 당시 압수된 교과서는 『중등수신교과서』(휘문의숙 편집부 발행), 『국문독본』(조원시 저), 『정선 일어대학』(박중화 저),



『조선어독본』(수원박물관 소장)

『속성 한문독본』(휘문관 발행), 『중등대한역사』(정인호 저), 『대동역사』(정교 저), 『대한지지』(현채 저), 『만국사기』(현채 저), 『실지응용작문법』(최재학 저) 등이었다.<sup>11</sup>

일제는 보통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였다. 수업 시수는 매주 18시간 이내로, 학사 운영은 3학기제로 하였다. 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한 학급의 학생수는 약 60명으로 하였다. 방학은 1년 동안 한여름과 한겨울을 합쳐 50일 이내로 하였다. 봄방학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방학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 겨울방학은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이다.<sup>12</sup>

1911년 8월 일제는 조선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학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교육에 관한 칙어를 통하여 조선인을 우민화하기 위해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었다.<sup>13</sup>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교육령」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학교규칙」이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0호로 공포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재봉 및 수예, 농업초보, 상업초보로 한다. 단 이과, 창가, 도화, 체조, 수공, 재봉 및 수예, 농업초보, 상업초보는 지역실정에 따라 당분간 이를 제외할 수 있다(제6

10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98-102쪽.

11 김세한, 『삼일학원 팔십년사』, 삼일학원, 1983, 113-114쪽.

12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153쪽.

13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112-113쪽.

조.)”고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역사’와 ‘지리’ 교과가 없어진 점이다. 물론 한국역사와 지리이다. “국어(일어)는 국민정신의 기본으로서 또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에 불가결함으로 어느 교과목에서도 국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여 그 응용을 자유재토록 하여야 한다(제7조 3항).”라고 하고 있다.<sup>14</sup>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를 증설하고 일본인 교원을 보통학교에 다수 배치하면서 조선인 아동을 일본 천황과 제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민으로 만드는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조선의 전통과 문화, 생활양식을 말살하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을 강요하여 조선 민족을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하였다.<sup>15</sup>

3·1운동 이후 1922년 2월 15일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8호 「보통학교규정」에 따르면, 교과목에 새로이 ‘일본역사’와 ‘지리’가 추가되었다(제7조). 일본역사는 “국체(國體)의 대요를 습득시켜, 국민(일본)된 지조를 기를 목적으로 한다(제13조).” 지리는 “일본 국세(國勢)의 대요를 습득시켜 애국심을 기르는 기초가 되게 함에 목적이 있다(제14조).”라고 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어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국어(일어)와 조선어의 매주 교수 시수표를 보면, 종전에 1~2학년은 일어 10시간, 조선어 6시간, 그리고 3~4학년은 일어(국어) 10시간, 조선어 5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학년 일어 10시간, 조선어 4시간, 2학년 일어 12시간, 조선어 4시간, 3~4학년 일어 12시간, 조선어 3시간, 5~6학년 일어 9시간, 조선어 3시간으로 되어 일어(국어)의 비중이 늘고 조선어의 교수 시수는 대폭 축소되었다.<sup>16</sup>

한편 일제는 1938년 3차 「조선교육령」<sup>17</sup> 시행 이후 조선어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격하하여 사실상 선택하지 못하게 하였다.<sup>18</sup> 1940년대 수원공립보통학교의 교과목은 국민과(수신·국어·국사·지리), 이수과(산술·이과), 체련과(체조·武道), 예능과(음악·습자·도화·공작) 등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명맥만 유지하여 오던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sup>19</sup>

수원 지역 수업 및 교과내용을 보여 주는 신문기사가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데 1938년 3

14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131~133쪽;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1년 10월 20일.

15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113~114쪽.

16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145~146쪽;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22년 2월 6일;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25일.

17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38년 3월 4일.

18 「소학교 규정」,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38년 3월 15일.

19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180~181쪽;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 3월 31일.



화성학원 여학생 기사과 실습(1937년 화성학원 졸업앨범)



화성학원 수신과 수업(1937년 화성학원 졸업앨범)

차 「조선교육령」 발표 이후의 것이다.

수원군 내 초등학교 26개소의 교장회의는 지난 30일 상오 9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수원농업실수학교(水原農業實修學校)와 가정여학교(家政女學校) 양 교장의 출석하에 수원 허 군수의 사회로 개최하였는데 군수의 훈시가 있는 후 아마시타(山下) 시학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9건의 지시사항을 제시하여 별로 수정 없이 통과한 후 특히 조선어 교수에 있어 일부 전폐하지는 의견과 아직 전폐할 수 없다는 양론으로 토의하다가 결국 1학년에는 아동들이 너무 어려워 하니 2학년부터 3학년 까지 교수하고 1학년부터 전폐하기로 가결된 후 기타 회계사무 취급상 주의사항을 토의한 후 동 일 3시 반에 많은 수확을 남기고 폐회하였다.

지시사항

일. 현하 교육상 특히 유의할 사항

이. 국민의식의 양양

삼. 교육정신의 양양

사. 교육능률 증진상 주의사항

오. 교과내용과 성적향상에 관한 사항

육. 아동체위(兒童體位) 향상에 관한 사항

칠. 가정사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팔. 전악과(戰樂科) 지도

구. 졸업생 지도

기타 주의사항<sup>20</sup>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어의 경우 2~3학년만 가르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정신 양양, 교육정신 양양, 전투 관련 음악의 지도 등을 통하여 전시에 들어선 일본에 충실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제 말기에는 강제인력 수탈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학생들을 모내기 등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수원 지방은 금번 나린 자우의 혜택으로 각처에 모내기가 바쁘나 인부의 부족으로 모를 두고도 못 내게 되는 형편에 이르자 수원 시내의 각 소학교(三一, 梅香, 新豊, 水原, 細柳, 華城)와 수원농업(水原農業), 수원가정여학교(水原家政女學校)의 어린 남녀 생도는 각 직원의 인솔하에 모를 심고

20 「小學校의 朝鮮語科 二 三學年만 教授 水原學校長會議 決定」, 『조선일보』, 1939년 6월 3일.



모내기에 동원된 수원공립농업학교 학생들(1942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는 어린 손은 참으로 귀여웠다.<sup>21</sup>

수원 지역은 수업 내용을 알 수 있는 회고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화성학원의 경우는 윤한흠(1938년 3월 졸업)의 구술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sup>22</sup>

면담자: 화성학원 시절에 일본어는 가르쳤나요?

윤한흠: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화성학원에서는 열심히 힘써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그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윤한흠: 난 들은 풍월로 공부를 한 게 다였고, 복습을 못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만한 주변 환경이 되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기억력만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우등생 끄트머리에요. 그 당시 과목은 국어독본 그리고 한문은 한글이고, 수신 역사 그렇게 있었어요.

면담자: 수신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윤리하고 같겠네요?

윤한흠: 그렇지 몸 닦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역사는 뭐냐 하면 담임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역사는 쉬쉬하면서 조그만 소리로 가르치셨어요.

면담자: 일본 역사도 배우셨나요?

윤한흠: 우리나라 역사도 안 가르쳐요. 교본에 그런 역사 내용이 없어요. 다 말로만 배웠지요. 물론 일본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있었어요.

21 「水原中, 小學生의 移秧部隊 總動員」, 『조선일보』, 1940년 7월 16일.

22 수원고등학교, 『수원』 제32호(개교 100주년 특집호), 2008, 77~78쪽.

윤환흠은 당시 배웠던 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sup>23</sup>

배웠던 과목은 뭐 일본 저 뭐냐면 『국어독본』이라고 하지. 일본책, 『국어독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선어독본』이 있었고, 그리고 수신 또 산술책, 수신이 뭐냐면 사람, 전인교육적으로 예의 가르키고, 인사법 가르키는 게 수신, 지금은 그걸 안 가르켜서 사람이 버렸어요. 건 교장이 가르켰던 말이에요. 그 외 도화, 한문을 배우는 습자, 체조, 역사 등이지요. 아주 조금 역사 시간에 “쉬” 하고 조용하라 하고선 조그만 소리로 약간은 양념적으로 가르킵니다. 뭐 3·1운동이 일어났다던가.

## 2. 운동장 풍경

운동장은 학교 건물 가운데서 가장 중시되었다.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동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회가 있거나 국가의례가 있는 날이면 모든 학생들을 빠짐없이 모아 일장 훈시하는 집합장소였고, 언제든지 군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연병장이었다. 이제 운동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욕망을 분출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가권력이 학생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공간이 되었다.<sup>24</sup>

### 1) 운동회

1896년 5월 2일 서울의 영어학교에서 운동회가 최초로 열렸고,<sup>25</sup> 1896년 5월 30일에는 훈련원에서 소학교 운동회가 열렸다. 운동회에는 각 관립학교와 소학교 학생들, 정부 관리와 교원들 말고도 서울 시민들이 대거 모여 자리를 채우며 한껏 분위기를 돋웠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운동회가 성황리에 열리면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 못지않게 이를 반겼다. 운동회 경기종목 중에서는 체조가 압권이었다. 그리고 각종 경기종목은 경쟁심리를 불러일으켰다. 1899년에는 운동회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다. 달리기, 체조 외에 높이뛰기, 2인 삼각달리기, 공 던지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축구, 타구(야구), 송구 등을 하였다. 이때 운동회는 태극기 게양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처럼 운동회는 학생들이 신체를 단련하는 마당이자,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참여 인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23 수원시,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2, 2002, 273~274쪽.

24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110~112쪽.

25 이승원, 『학교의 탄생 : 100년 전 학교의 풍경으로 본 근대의 일상』, 휴먼리스트, 2005, 187~188쪽.

국권수호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sup>26</sup>

사립학교를 세운 지식인들은 운동회를 자주 열었다. 1896년에서 1910년 가운데 열린 운동회 가운데 무려 94%에 해당되는 204회가 1905년 이후에 열렸다. 또 지역마다 사립학교를 묶어 연합운동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에 꺾이지 않는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다. 서울에서는 11개 소학교의 1,000여 명 학생이 훈련원 앞마당에 모여 각종 경기를 하였다. 이때 중앙에는 태극기를 높이 걸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애국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운동회에서는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온갖 체육행사가 진행되었으니, 마치 군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벌이는 전쟁놀이 같았다. 운동회를 시작할 때 학생들은 총을 메고 행진하며 운동장에 들어왔다. 물론 국권의식을 드높이고 항일정신을 북돋우는 운동가를 불렀다. 이런 모습은 운동회를 참관하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래서 일제는 각지에서 열리는 운동회를 경계하여 이를 점차 축소시켰고, 마침내 1910년에는 운동회를 일종의 무장시위로 여겨 교육의 본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중단시켰다.<sup>27</sup>

수원에서도 공립소학교와 삼일남·여학교, 그리고 수원농림학교에서 운동회를 가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진 운동회는 마침내 각 학교의 연합운동회로 발전하여 1905년부터 1909년 사이에는 운동회 전성시대를 이루게 되었다.

삼일학교는 보시동 시절에 체조과목이 없었다. 그러다가 학교를 종로교회로 옮긴 후 체조과를 신설했으며 1906년 2월 초대 체육교사로 참위(參尉) 강건식(姜建植)이 취임하였다. 넓은 운동장이 필요하자 수원 재산가 강석호(姜奭鎬)를 설득해서 삼일학교에 거액을 희사하게 한 나중석(羅重錫)은 매향동에 있는 과수원 900평을 삼일학교 운동장으로 쓰도록 1906년 5월에 기부하였다.<sup>28</sup> 지금까지 삼일중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아담스기념관 앞의 교정이 그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도 넓은 마당이라고 하였다.

삼일학교에서는 1908년 1월 제2대 체육교사로 한국군대 출신인 부위(副尉) 송세호(宋世鎬)를 채용하여 군대식 훈련을 한층 강화하였다. 초창기에 사용하던 목총이 해방 후까지 남아 있어서 체조시간이면 사용했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특히 교사 송세호의 구령은 넓은 마당에서도 그 목청이 짙짙 울려서 서울에서 연합운동회 때마다 구령교사로

26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84-88쪽; 김성학, 「근대 학교 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 57-94쪽.

27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거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103-105쪽; 김성학, 「근대 학교 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 57-94쪽.

28 김세한, 『삼일학교 팔십년사』, 삼일학원, 1983, 94쪽.



삼일여학교 학생들의 운동회(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화성학원 운동회(1938년 화성학원 졸업앨범) 하늘에는 만국기가 걸려 있고 흰 한복을 차려 입은 지역민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뽐혀 활약하였다. 송세호는 훗날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영복여자중·고등학교를 창설한 송영복(宋榮福)의 아버지이다.<sup>29</sup> 한말 수원군공립소학교의 운동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사화되어 있다.

수원군공립학교에서 작일(昨日)에 운동을 설행(設行)하였는데, 학부 시학관(視學官) 어선선(魚璫善) 씨가 해부 대표로 작일에 왕참(往參)하였다더라.<sup>30</sup>

1907년 삼일학교·화성여학교·공립소학교 등이 참여한 운동회는 대장관을 이루었고, 활발한 남녀 학생들의 기상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수원군 종로에 삼일학교를 설립하고 총준(聰俊)자제를 모집하여 시무에 긴요한 신학문을 교수한 지가 반년에 학원(學員)이 일증월가하여 90여 인에 달한지라. 부내 유지신사 나성규, 최익환, 차희균, 홍건섭, 차우순, 이성백, 양성관 제씨가 신화(新貨) 20원씩 각기 의연하여 이 학교에 보조하였으므로 이 학교에서 화성(華盛)여학교와 공립소학교를 연합하여 지난 6월 6일에 춘계운동회를 본군 연무대에서 설행하였는데, 남녀 학도의 활발한 기상과 내외빈객의 정제한 위의(威儀)는 영인 기경(令人起敬)이요 관광제인(觀光諸人)이 장외에 운집하여 500년래 창관(創觀)한 성황을 정(正)하였다더라.<sup>31</sup>

이듬해 4월 20일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되었다. 운동회 장소인 연무대에는 내외빈과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생과 상인들조차도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sup>32</sup>

수원군 관공사립 춘기연합운동을 본월 22일 상오 8시에 거행하는데, 처소(處所)는 동문 내 연무대로 정하고 경향사회 제씨를 청요(請邀)하였다더라.<sup>33</sup>

수원군 각 학교에서 명일에 연합 대운동회를 설행할 터인데 그 군내에 있는 기생들과 일반 주상들이 발기 협의하기를 운동회 때에 관람제씨와 각 학교 임원에게는 수일배주(雖一杯酒)라도 무대금으로 지공(支供)한다 하며 위생원들은 일반학도들에게 약품을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한다.<sup>34</sup>

29 김세한, 『삼일학교 팔십년사』, 삼일학원, 1983, 96쪽.

30 「수원학교운동」, 『황성신문』, 1907년 6월 7일.

31 「연합운동의 성황」,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3일 잡보.

32 「춘기운동」,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화성학교연합운동」,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 잡보; 「기생과 주상협의」, 『황성신문』, 1908년 4월 21일 잡보.

33 「화성학원 연합운동」,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 잡보.

기생들은 사회에서 홀대를 받는 계층이었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에 기생들이 벌인 사회사업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운동회는 폐쇄적인 신분질서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이 공개적인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기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옷과 쓰개치마를 벗어 던진 여성들이 학교와 운동회에 모여들었다. 운동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틀로 규정될 수 없는 다양한 욕망이 들끓는 축제적 도가니였다.<sup>35</sup>

수원 여학생들도 운동회에 적극 참여하였다.<sup>36</sup> 수원 지역 최초 사립학교인 삼일여학당은 이를 주도하였다. 여학교 연합운동회 개최는 주민들에게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남문에 거주하는 이선익(李善益)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양과 삼일여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운동회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sup>37</sup>

또한 성공회에서 설립한 진명학교도 1909년 5월 하류천에서 대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부재열 신부, 구르니 신부, 경성에서 온 부영사, 수녀 3명, 진명학교 학생들, 교사들, 학부형 등 다수가 참여하였다. 여러 종목의 경기와 당시로서는 보기 어려운 현대적인 운동경기가 펼쳐졌고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드는 큰 구경거리였다. 시상과 오찬은 학부모와 교우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sup>38</sup> 특히 진명학교는 영국인 신부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회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도들은 진명학교가 현대적인 운동회의 발상지로 여길 정도로 축구와 수영 등 현대적인 운동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sup>39</sup>

일제의 조선 강점 직후에는 한말과 달리 조선인 학교의 운동회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신문에는 일본인이 다녔던 학교 운동회 기사만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수원군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는 17일 오전부터 본교 운동장 내에서 추기운동회를 개최하고 40여 중에 운동을 활발히 거행한 후 오후 6시경 산회하였는데, 관람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더라.<sup>40</sup>

34 「기생과 酒商協議」, 『황성신문』, 1908년 4월 21일 잡보.

35 이수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5, 203쪽.

36 김형목, 「한말 수원 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37 기호흥학회, 「학계취문, 妙年壯志」, 『기호흥학회월보』 11, 49~50쪽.

38 전삼광, 「수원교회 선교100년사」, 『수원교회 선교 100년사(1904-2004)』,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2004, 31·99쪽. 이 책에는 1910년 대운동회 사진이 실려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전삼광, 「수원교회 선교100년사」, 『수원교회 선교 100년사(1904-2004)』,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2004, 175쪽).

39 수원시, 「임원순 외 3인 증언」,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2, 2002, 358~359쪽.

40 「수원 추기대운동회 개최」, 『매일신보』, 1917년 10월 19일.

이를 통하여 1910년대 운동회는 일본인 학교의 경우도 자주 열리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장소는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관람은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목은 40여 종으로 기록되고 있다. 수원 지역 조선인학교의 경우, 3·1운동 이후에 가서야 운동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 다음의 기사들이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동교 교정에서 창립 15주년 운동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더라.<sup>41</sup>

기보한 바와 같이,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 창립 15주년 기념 대운동회를 지난 9일 동 교정에서 개최한바, 63의 운동 종목으로써 희색이 만면한 700명의 학생은 용장(勇壯)한 기상과 쾌활한 경기로 2,000여 관중에게 무한한 쾌감을 주었는데, 동 운동회비는 1원 50전 이상, 5원 이하의 학부모 부담으로 출연한바, 그 총액 1,000원 중 600원은 동교의 운동기구 매입비로, 400원은 동운동회 비품비와 내빈 접대비에 충당하였다더라.<sup>42</sup>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 700여 명의 학생과 2,0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63종목의 운동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또한 수원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 기사를 통해 수원 읍내 주민들의 호응으로 대성황을 이룬 당시 운동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本月 15일에 추계대운동회를 해교(該校) 교정에서 개최하였는데 관람객에 다수(多數)하얏섯다더라.<sup>43</sup>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거(去) 15일에 해교(該校) 내에서 추계운동회를 개최한다함은 기보(既報)한 바어니와 예정(豫定)과 여(如)히 동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였는데 1,000여 명의 천진난만(天真爛漫)한 아동들은 장쾌한 개회식으로 순서에 의하여 음악반의 군호성리(軍號聲裡)에 착착(着着) 진행한바 사방으로 운집한 관중은 무려 수천에 달하여 대성황을 정하였더라.<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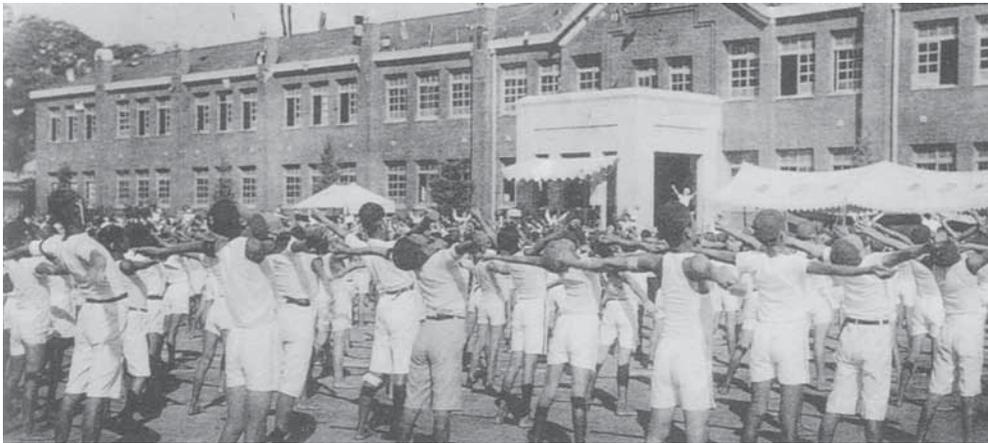
수원공립보통학교 운동회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운동회

41 「수원보교의 운동회」, 『동아일보』, 1921년 10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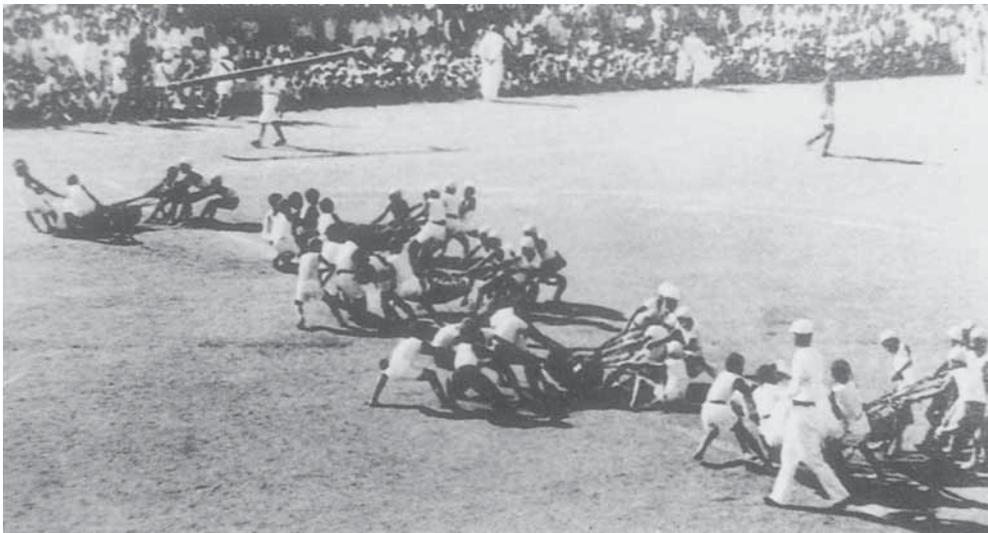
42 「수원공립운동속보」, 『동아일보』, 1921년 10월 15일.

43 『조선일보』, 1923년 10월 17일.

44 「수원공보교의 운동회 雲集한 觀衆裏에서 舉行」, 『조선일보』, 1923년 10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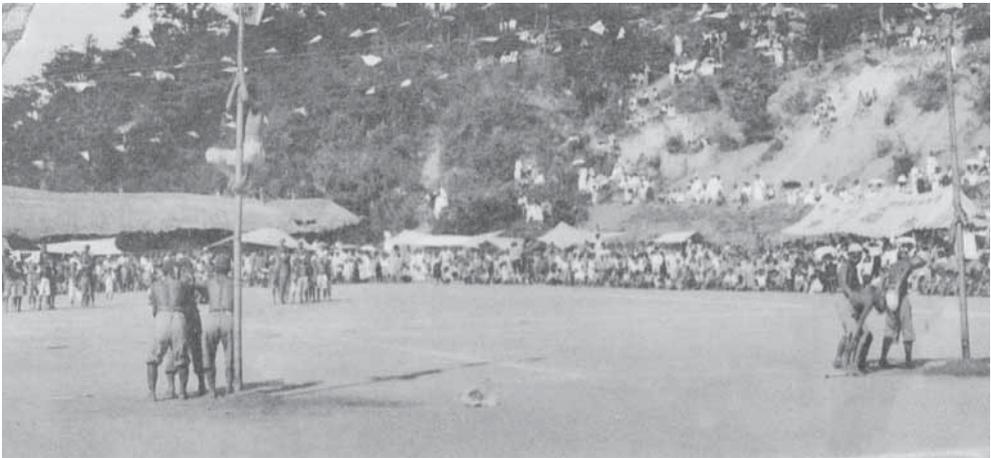
1937년 수원공립보통학교 운동회 당시 체조 장면(신흥초등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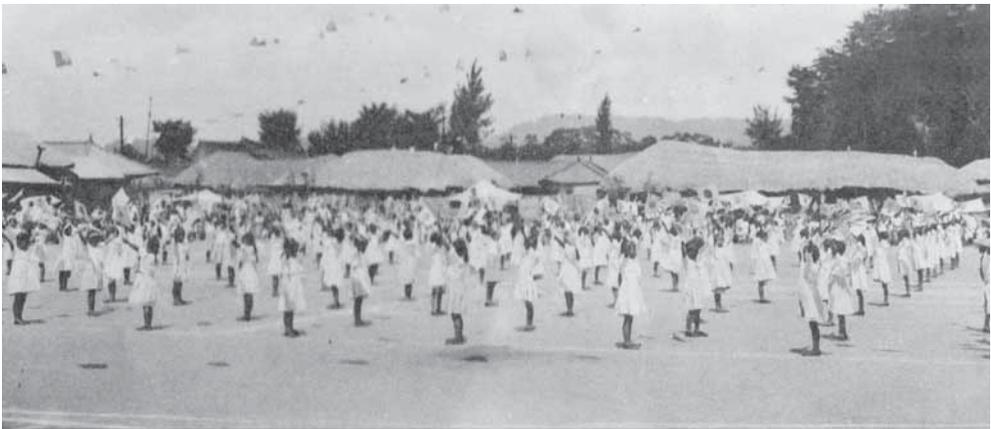
1938년 타이어 뺏기를 하는 수원공립보통학교 운동회 광경(신흥초등학교 소장)

는 1927년 10월 6일 오전 9시 동교 교정에서 수천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총 48종목이 거행되어 오후 4시 반에 폐막되었다. 아울러 1929년에도 10월 12일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기보(既報)한 바와 가티 수원공보 추기운동회는 거(去) 6일 오전 9시 동교 교정에서 88종목 근(近) 200회에 달하는 경쾌무비(輕快無比)한 경기유회(競技遊戱)가 전개되어 수천의 관중을 흥미진진케 한 후 동 오후 4시 반에 원만 폐회하였는 바 특히 용산사구대장(龍山使鳩隊長) 히라이(平井) 중위가 전서구(傳書鳩) 6수를 대동래수(帶同來水)하여 회장(會場)에서 일반에게 전서구에 대한 설



삼일남녀학교 연합운동회(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삼일남녀학교 연합운동회 여학생 마스크게임(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명을 한 후 오후 1시 10분 용산포병창(龍山砲兵廠)을 향하여 방송하였는데 일반은 다대한 흥미를 감하였다고.<sup>45</sup>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 12일에 동교 운동장에서 추기대운동회를 개최하였더라.<sup>46</sup>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이후 1923년 수원 지역의 수원공립보통학교, 화성

45 「수원공보 운동」, 『조선일보』, 1927년 10월 10일.  
46 「수원보교운동회」, 『조선일보』, 1929년 10월 16일.



운동회에서 일장기를 들고 마스게임을 하고 있는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수원여자고등학교 소장)

학원, 삼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에서도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체제기에 들어가면서 운동회는 점차 개인적인 경기보다 단체경기, 군사적 성격의 운동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경까지는 다이쇼(大正)시기 운동회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 후 군국주의가 강화되자 운동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프로그램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전시체제 아래 열린 운동회는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다.<sup>47</sup>

당시 수원공립보통학교 운동회는 1935년 마스게임, 1937년 체조, 1938년 타이어 뺏기, 1940년 단체경기 사진들이 남아 있어 운동회의 모습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

1940년대 전반기의 경우 운동회를 체육회로 변경하여 부르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황국신민 양성을 위한 체육회였던 것이다. 그 후 체련대회, 연성대회로 바뀐 곳이 크게 늘어났다.

47 요시미 순야 외 지음, 이태문 옮김, 『운동회: 근대의 신체』, 논형, 2007, 124-136쪽.

개회식은 정렬, 입장, 교기 입장, 개회사에 뒤이어, 신궁 궁성요배, 묵도, 국기 게양, 기미가요 봉창식으로 황국신민 양성을 위한 의식이 행해졌다. 계속해서 오전 22종목, 오후 18종목이 행해졌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체조종목이 많아졌고, 그냥 달리기식의 종목은 줄어들고, 돌파, 비행기놀이, 깃발 뺏기, 총력전, 장난감 전차, 군함행진곡 등 전시체제를 반영하는 종목이 많았다. 유도, 장검술, 검도 등 무도종목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1941년 3월 「국민학교령」 및 「국민학교령 시행규칙」에 따라 체조과는 체련과로 바뀌고, 교과목에 체련과 무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즉, 무도종목의 증가는 이들 체련과 무도를 반영한 셈이다. 폐회식은 애국행진곡, 국기 강하, 폐회사, 만세삼창, 교기 퇴장으로 막을 내린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1년 이후의 운동회는 전시색채로 물들어 있다.<sup>48</sup>



수원공립농업학교 체육대회(1941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 2) 조회와 국가의례

일제하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운동장에서 벌어졌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회이다. 조회는 훈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집단적인 의식행사의 대표적인 예로, 조회를 통해 집단주의를 훈련하고 수직적인 위계구조를 수용하게 하였다. 즉 통제하는 교사와의 관계, 상급생과 하급생의 관계 속에서 위치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규율공간에서 설정된 위계를 파악하게 한다. 개체화한 학생들은 학교의 질서로 편입되어 전체 속의 부분임을 파악하고, 이로써 위계를 내면화하게 하는 것이 운동장에서 하는 기능의 중요한 특징이다.

48 요시미 슌야 외 지음, 이태문 옮김, 『운동회: 근대의 신체』, 논형, 2007, 132~135쪽.

1929년 보통학교 조회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9</sup>

- ① 집합: 매일 아침 수업시각 15분 전에 조회 예령이 울리고 5분 후 본령이 울린다. 예령으로 이동은 전부 참석하여 본령이 울리든 아니든 아무 말 없이 정렬을 마친다. 6학년 급장의 호령으로 일제히 정돈한다.
- ② 주변선생에 경례: 주변 선생이 등단하고 6학년 급장의 “先生お早う御座います”(선생님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신호로 전 아동이 “先生お早う御座います”(선생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선생에게 경례한다.
- ③ 봉안소 경례 및 만세: 전 직원과 아동이 함께 본교에 있는 어영봉안소(御影奉安所)에 대해 사이케이레이(最敬禮)를 하고 성수만세(聖壽萬歲)를 축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정신의 수양, 충군의 지조를 새롭게 한다.
- ④ 감은봉사 노래 합창: 감은봉사의 노래를 합창한다.
- ⑤ 주변선생 훈시: 주변 선생이 등단하여 그 주에 특히 노력해야 할 방면에 관해 훈시를 하거나 학교 및 사회 국가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중요하여 아동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해 아동에게 알린다. 또 아동의 풍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전교 아동에게 계고해야 할 것을 훈유하기도 한다.
- ⑥ 체조: 간단한 체조를 한다.
- ⑦ 권학가 합창: 권학가를 합창한다.
- ⑧ 경례: 6학년 급장의 호령으로 일동 경례한다.
- ⑨ 퇴장: 직원 이하의 순서로 퇴장하면 각 학급 아동은 급장이 선도하여 교실로 들어간다.

일제시기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도 조회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몇몇 사진들을 통하여도 조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모습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수원공립보통학교를 다녔던 강석만은 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sup>50</sup>

강석만 : 1912년 당시에는 신평학교는 수원공립보통학교였다. 이 시기 학생들은 조회시간에 교육 칩어를 다 함께 읽었다. 선창과 후창으로 매일 읽었기 때문에 당시에 학생들은 그 내용을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조회가 끝나면, 한 반에서 학생을 2명씩 차출해서, 어깨에 띠를 두루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게 했다. 수원신사는 매산학교 위에 있었다.

49 京師附普訓育部, 「訓練の實際」, 『朝鮮の教育研究』, 1929년(소화 4) 12월, 77-78쪽.

50 수원문화원, 『수원 사람들의 삶과 문화』, 2008, 271쪽.



1937년 수원공립보통학교 조회(신평초등학교 소장)

한편 1941년 2월에 수원공립보통학교를 32회로 졸업한 이영재는 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영재 : 조회 시에는 반드시 동쪽을 향하였다. 동쪽에 천황 사진과 교육칙어를 넣어 둔 봉안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봉안전을 향하여 90도 각도로 최경례를 하였다. 매달 1일 교장은 연미복을 입고 봉안전에서 교육칙어를 들고 와서 읽었다. 조회 시 최경례 시 한 친구가 침을 흘려 교사가 천황을 모욕했다고 혹독하게 다루었다.

### 3) 군사훈련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철저한 일본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조선인의 의식, 언어, 역사를 말살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황국신민의 서사를 만들어 각급 학



수원공립농업학교 교련(1941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교 학생들에게 외우도록 강요하였으며, 나아가 학교를 군대의 보조기관으로 전락시켜 전체주의·군사주의·국가주의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운동장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3. 교육행사

#### 1) 소풍과 수학여행

소풍은 즐거운 행사였다. 예로부터 소풍은 갑갑한 마음을 풀기 위해 바람을 쏘이는 일로 선비들의 도락(道樂)이었고, 꽃놀이라고도 하였다. 특히 일본의 원족(遠足)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소학교에서도 정례 행사로 굳어져 갔다. 하루에 다녀오는 것이 보통이며, 걸어서 갔다 오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걸을 수 있는 범위에서 목적지를 정하였다. 주로 가는 곳은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산과 들이었다. 그래서 소풍은 맑은 물에 마음을 씻어 버리고 몸에 만물의 새로운 뜻을 받아 돌아온 후, 학문을 널리 배워 새사람이 되는 계기로 여겨졌다. 그리고 동문들 사이에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sup>51</sup>

수원 지역의 학교들도 일찍부터 소풍을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까이는 용주사와 화서문 등으로 갔으며, 약간 멀리는 관악산 등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부터 본격

51 김태웅, 『우리학생들이 나아가누나 - 소학교풍경 조선후기에서 3·1운동까지』, 서해문집, 2006, 88-89쪽.

적인 수학여행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은 수학여행의 봄으로 들끓었다. 경인선(1899년) 개통을 시발로 경부선(1905년), 경의선(1906년), 호남선(1914년), 경원선(1914년)이 연달아 기적을 올렸다.<sup>52</sup>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경성, 금강산, 평양, 개성, 인천, 대전 등 국내 각지는 물론 만주나 일본 등지로도 갔다. 1929년 당시 경성의 학생이 수학여행으로 금강산을 다녀오는데 드는 비용은 15원 정도였다. 수학여행의 일정은 여행지에 따라 달랐지만, 경성에서 부여, 강경, 대전을 다녀올 경우 보통 4박 5일의 일정이 소요되었다. 교통수단은 주로 기차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 운임을 할인받고 출발과 도착 시 야간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숙박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준비, 지도의 부족을 이유로 수학여행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각에서는 수학여행 대신에 소풍 쪽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sup>53</sup> 수원 지역의 학생들도 일찍부터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원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경복궁, 창덕궁 내 동식물원을 관람하였던 것이다.

공립수원보통학교 교감 이하 임원 제씨가 해교(該校) 생도 일동을 대동하고 수학여행차로 작일(昨日)에 상경하여 한성미술품공장과 창덕궁 내 동식물원과 박물관을 관람한 후, 경복궁을 배관(拜觀)하였다더라.<sup>54</sup>

1920년대에는 좀 더 멀리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다. 1929년 5월 3일 수원공립보통학교 인천수학여행 안내서를 통하여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안내서는 인천 지역의 지도 위에,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에서 환승하여, 인천에 이르는 여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즉 학생들은 수원에서 탑승하여 군포·안양·시흥을 거쳐 영등포에서 환승하였다. 다시 오류동·소사·부평·주안을 거쳐 상인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정류장별 거리를 리수로 적어 놓아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수학여행을 간 5월 3일은 금요일이었다. 소사는 과수원이 많은 곳으로 표시되어 있다(사과·복숭아·포도). 주안은 염전이 있으며, 면적은 약 500정보로 천일제염이다. 상인천과 인천 사이에는 관측소와 서공원이 그려져 있고, 인천부의 위치, 면적, 호수, 인구, 역사상 유명한 곳을 기록하였으며, 월미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의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다.<sup>55</sup>

52 이승원, 『학교의 탄생 : 100년 전 학교의 풍경으로 본 근대의 일상』, 휴먼니스트, 2005, 289쪽.

53 부산근대역사관,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민속원, 2010, 156쪽.

54 『매일신보』, 1911년 5월 11일.

55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161~162쪽.



1937년 인천 월미도로 원죽을 간 학생들(차기영 제공)



1936년 과천 관악산으로 원죽을 간 삼일학교 학생들(김문식 제공)



수학여행 중에 남산신사를 방문한 팔달소학교 학생들(이경재 제공)

한편 1927년 4월 28일 삼일여자보통학교 학생 90명과 삼일보통학교 학생 140명이 조선일보사 및 창경원, 장충단공원 등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수원 삼일학교 생도 150명과 동여학교 생도 59명은 박영식(朴榮植), 유부영(劉富榮) 외 수씨(數氏) 인솔하에 거 1일 오전 5시 열차로 시흥·과천 관악산에 명승을 탐험하고 동 오후 6시 41분 수원차 열차로 귀교하였다고.<sup>56</sup>

수원군(水原郡) 삼일여자보통학교 생도 90명과 삼일보통학교 생도 140명이 선생 박영식(朴泳植) 씨 외 5인의 인솔 하에 25일 오전 7시 40분 열차로 경성에 도착하여 먼저 조선일보사를 견학하고 창경원과 장충단공원을 구경한 후 동일 오후 4시 50분에 돌아갔다더라.<sup>57</sup>

한편 국내 장거리 수학여행은 중학생들에게 허락되었다. 수원공립농업학교의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으로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1939년 9월, 6일간, 1인당 12원, 대상학생 : 1회 졸업반(당시 3학년), 일정 : 수원-서울-경원선, 철원전기철도, 내금강, 장안사역, 비로봉, 외금강, 해금강, 안변, 세미, 일본인 이민촌 등<sup>58</sup>

56 『동아일보』, 1925년 5월 6일.

57 「수원 삼일교생 본사 견학 이십팔일에」, 『조선일보』, 1927년 4월 29일.

58 수원농업고등학교, 『수농50년사』, 1986, 47쪽.



수원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의 해외 수학여행(1942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1939년 10월, 2주일간, 1인당 38원, 1회 졸업반(당시 4학년), 2회 졸업반(당시 3학년), 일정 : 수원-부산, 시모노세키, 오사카, 도쿄, 닛코(日光)

1940년 5월, 8일간, 1인당 40원, 1회 졸업반(당시 5학년), 2회 졸업반(당시 4학년), 일정 : 수원, 여순, 장춘, 하얼빈<sup>59</sup>

## 2) 학예회

수원 지역의 각 학교에서도 2월 또는 3월경에 학예회를 개최하였다. 학예회는 개교 이후 일찍부터 개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문에는 『조선일보』 1923년 3월 24일자에 처음으로 보인다. 수원공립보통학교 자매회 풍경은 다음과 같다.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는 학년시험(學年試驗)이 종료(終了)하였음을 기회(機會) 삼월 거(去) 20일 자매회(姊妹會)를 개최하였는바 사방(四方)에서 연락회집(連絡會集)하는 부형(父兄)이며 자매(姊妹)는 정각(定刻)인 오전 열시 전부터 불의(不意)의 호기(好氣)를 띄운바 회장(會場)인 북향(北向)으로 신축(築)한 대강당(大講堂) 내에는 600여의 학부형 자매가 착석(着席)한 후 천진(天真) 난만(爛漫)한 어린 학생의 유량(囁)한 음성(音聲)을 토(吐)하며 30여 종의 자미(滋味)있고 귀여운 회

<sup>59</sup> 수원농업고등학교, 『수농50년사』, 1986, 47쪽.

화학설(會話學說)이며 기묘자태(奇妙姿態)를 가진 여학생의 천연특묘(天然特妙)한 고흠 목소래로 부르는 수회(數回)의 창가(唱歌)로 오후 1시경에 산회(散會)하였더라.<sup>60</sup>

학예회 내용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쟁기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도 점차 달라진 것 같다. 신흥소학교의 경우 학예회가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시국인식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세류소학교의 학예회 역시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신흥소학교(水原新豐小學校)에서는 예년과 같이 신춘학예회를 지난 25~26 이틀 동안 동교 강당에서 개최하였었다는바 순서는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대개가 시국인식에 전력을 하였다 하며 매일 1,000여 명 학부형과 내빈이 참석하여 대성황으로 마치었다.<sup>61</sup>

수원세류소학교(水原細柳小學校)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동교 대강당에 제2회 학예회를 개최하고 학부형과 일반 가정부인에게 보였다는바 동학예회는 대성황으로 오후 4시 반경에 폐회하였다고 한다.<sup>62</sup>



1937년 수원공립보통학교 학예회(신흥초등학교 소장)



1942년 수원고등여학교 연극부의 학예활동(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60 수원농업고등학교, 「水善校의 姊妹會」, 『조선일보』, 1923년 3월 24일.

61 「수원신흥소학 학예회성황」, 『조선일보』, 1939년 3월 3일.

62 「수원세류소학교 학예회(學藝會)대성황」, 『동아일보』, 1940년 3월 14일.



수원신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 3) 신사참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더욱 학생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수원 지역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상황을 신흥심상소학교를 32회로 1941년에 졸업한 이영재(1928년생)를 통하여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면담자 : 학교에서 신사참배 하러 가고 그랬나요?

이영재 : 그럼요. 신사참배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고. 그리고 학교마다 뭐가 있었냐면, 봉안전(奉安殿)이라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거기에다 뭘 뒀느냐하면, 임금의 사진, 임금의 칙어.

면담자 : 일본의 천황이겠네요?

이영재 : 그렇죠. 그거를 그래 가지고 월요일인가, 매월 1일인가 교원들이 전부 다 연미복 입고 의식하러 형짚장갑 끼고 그걸 다 받들어서 전부 다 고개 숙이고 …….

면담자 : 학생들도 다 참여하고요?

이영재 : 그럼요. 다 읽고, 그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교육칙어(教育勅語)<sup>63</sup> 그거였어. 졸업사

63 1890년 10월에 제정된 일본 교육칙어는 유교의 삼강오륜에 기대어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하는 한편 공익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여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를 교육면에서 뒷받침하였다. 일왕은 1911년 10월 23일 조선총독에게 교육칙어를 내려 주었다. 당시 교육칙어의 암송은 모든 학생의 의무였다. 이런 점에서 1968년 제정된 박정희 군사정권의 국민교육헌장도 교육칙어와 닮은 점이 많다.



봉안전(1941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졸업앨범)

진첩에 칩어를 흔히 다 넣고 …… 일본 사람들은 경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평경례는 30도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경례라고 하면은 90도. 거기 봉안전에 경례하는 거는 임금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경례로 90도로 하고<sup>64</sup>

수원 지역의 모든 학교들에서도 전국의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황국신민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4.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교복은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교복은 신분과 소속감·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며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 즉 정장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 의복재료, 색채를 통일시키며 각 학교에 맞는 상징성과 신분에 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디자인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적절하도록 체격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64 김세영, 「이영재의 삶과 수원교육」,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수원박물관, 2001, 251쪽.

하며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교복은 개화기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남학생 교복은 미국인 선교사 H.G.아펜젤러가 배재학당에서 1898년 당복(堂服)을 학생에게 입힌 것이 시초이다. 이 당복은 당시 일본의 학생복과 비슷한 밴드칼라(쓰메에리) 형태였는데 소매 끝, 바지의 슬기 부분, 모자에 청·홍선을 두른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학생복이라 하여 1879년(명치 12) 가쿠슈인(學習院)을 시초로 1886년 도쿄(東京)대학이 밴드칼라, 금단추를 제복으로 한 데서 지금에 이른다. 색은 주로 검은색, 짙은 감색, 짙은 쥐색 등이었다.

한편 1904년(광무 8) 개교한 한성중학교는 순한국식의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색 띠를 두른 것이 교복의 역할을 했고 여기에 모자를 써서 교표와 ‘한성’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여학생 교복의 효시는 1886년(고종 23) 제정된 이화학당의 교복으로 이것은 한국 최초의 교복이다. 일반 여성과 같은 한복의 치마 저고리였는데 1908년(융희 2)까지 등학교 할 때나 소풍 등을 갈 때는 쓰개치마를 썼다. 양장교복은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처음 입었으나 1910년경에는 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193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양장교복을 입기 시작하였는데 블라우스·스웨터·주름치마·세일러복·타이·모자 등을 주로 착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0년대에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전투대세를 갖춘 제복을 통일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여학생들은 ‘몸빼’라는 작업복 바지에 블라우스를, 남학생은 국방색 교복을 입었다.

그 후 8·15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상하 검은색 혹은 짙은 감색 중심의 교복이 착용되었다. 그리고 1969년 문교부의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실시되면서 시·도별로 획일화되었다. 학교의 특성을 없애기 위해 단추·모자를 포함하여 통일된 중·고등학생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진 교복 자율화는 두발·옷차림 등에 제한이 있어 완전 자유화는 아니었지만 찬반 의견 속에서 실시되었고, 1986년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 착용 여부가 결정되었다.

수원 지역의 남학교는 대체적으로 수원공립보통학교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규정된 교복은 없었으며, 처음에는 대부분 한복을 입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양복을 입었고, 일제 말기로 가면 대부분 양복을 입게 된다. 다만 4년제 지방학교에서 온 사람들은 보통 한복을 입었다.

수원공립보통학교의 경우, 1930년 사진을 보면 검정색 교복을 입은 학생이 눈에 띄고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은 학생들도 모자는 모두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936년의 사진을 보면 일부 학생을 제외한 모든 남학생이 긴 검정바지에 검정 옷의 교복차



1930년 제21회 수원공립보통학교 졸업생들의 교복과 교모(신흥초등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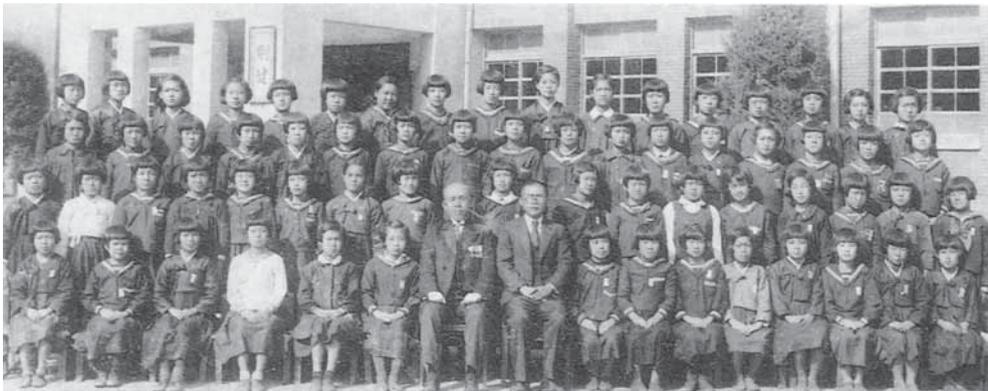
1938년 제29회 수원공립보통학교 여자 졸업생의 복장과 두발(신흥초등학교 소장)

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아직도 교복을 따로 입지 않고 한복에 긴 땡기머리를 하고 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 남학생들은 검정 옷옷에 반바지를 많이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녔



1940년 신흥심상소학교 학생들의 교복과 두발(리제계 제공)



1940년대 신흥국민학교 여학생들의 교복과 두발(신흥초등학교 소장)

다. 한편 여학생들은 단정한 세라복의 차림에 검정스타킹을 신고 머리도 대부분 단발을 하여 예전의 땡기머리 모양은 점차 사라져 갔다.<sup>65</sup>

1950년대 초에는 한국전쟁으로 교복이 없어졌다가 1956년 47회 졸업사진에 남학생은 다시 옛 교복으로 되돌아가 검정색 긴 바지에 검정색 상의를 입고 더러는 흰 깃을 덧달아 정결하고 단정한 차림도 보인다. 그러나 여학생은 자유복으로 대부분 긴 바지에 스웨터

65 신흥백년사편찬위원회, 『신흥백년사』, 1996, 322~323쪽.

차림을 하고 있다. 그 후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남·여 학생 모두 교복 자율화로 교복을 입지 않게 되었다.<sup>66</sup>

수원공립보통학교 제21회 졸업생(1930년)인 김인기는 수원공립보통학교의 교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의복은 남학생은 거의 한복에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학생은 거의 머리를 땀고 한복(흰 저고리에 검은 긴 통치마)이다.<sup>67</sup>

신평심상소학교를 1941년에 3월에 졸업한 이영재는 당시 교복과 교복 구입 상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흥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 주고 있다.<sup>68</sup>

면담자 : 선생님, 자라시면서 7살 때 아버님 여의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잘 성장하셨잖아요. 28년생 이니깐 일제시기 때 학교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몇 살 때 학교를 들어가셨는지.

이영재 : 8살 때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신평학교, 수원에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선발을 했어요. 들어가려면 시험을 봤는데 지능검사도 했는데, 바둑알 같은 걸로 놓고 몇 개를 빼고 얼마가 남았느냐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림 같은 것 두고 여기서 출발해서 막히지 않고 도달하는 거, 뭐 미로 찾기처럼 하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입학시험 치러갈 때는 이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도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얀 바지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혀서 삼년상 기간 동안에는 그래야 된다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어머니가 흰옷을 입혀 줬어요. 두루마기도 흰옷으로 그렇게 입고 가서 입학시험을 치고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는 흰옷을 못 입었어요. 지금 와서는 양복, 그 당시에 양복 입은 사람은 학급에 한 3분의 1 정도 양복을 입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지저고리 입고, 나는 양복 입고 다녔어. 그때는 살았으니깐.

면담자 : 양복은 어디 가서 맞추셨어요, 어디서 사 입으셨어요?

이영재 : 양복은 사 입었어요. 주로 어디 가서 사 입었냐 하면 수원에 보구산부인과라고 그 의사선생님 아직 살아계시고 용인서 등잔박물관 하시고, 그분 아버지가 '김영옥상점'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김영옥상점, 거기 가면 학생복, 학용품 일체를 다 팔았어요.

면담자 : 수원에 산다는 분들은 거기 가서 사는 거네요.

이영재 : 그렇지. 학용품 같은 거 살 만한 데가 그 집밖에 없어. 그 집에서 샀지. 다 거기 가서 샀는데 우리 조부님께서 돈은 안 줬어요. 돈은 안 주고 꼭 필요한 것만, 데리고 나가서 네가 필요한 연필, 네가 필요한 공책을 지적하면 그걸 사 주셨어요. 다 쓰고 내놓으면 새로 사 주시고 굉장히 검소하

66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324쪽.

67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443쪽.

68 김세영, 『이영재의 삶과 수원교육』,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수원박물관, 2001, 251쪽.



인천 밀러 교장 댁을 방문한 삼일여학교 학생들의 교복(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게 살았다고, 옛날 양반들은 검소하게 살았다고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면담자 : 김영옥상점에서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영재 : 네, 보구병원 자리가 어딘가 하면, 종로네거리에, 빌딩이 하나 섰던데, 대학당약방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옆엔데, 명인안과 못미쳐예요. 거기다가 김영옥상점을 차리고 나중에 김동휘산부인과 원장님이 거기에다 병원 차리셨죠.

한편 수원 지역 여학교의 교복 변천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삼일여학교의 사례이다. 삼일여학교의 경우는 서양식 근대 기독교학교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좀 더 근대적인 교복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의 교복은 하얀 윗도리와 검은 치마였지만, 1940년부터는 오늘날 교복과 별다른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1936년 4월 15일에 개교한 수원공립가정여학교의 경우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는 우리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던 여학생들에게 검정 세무 양복에 흰 칼라를 다는 제복을 강요하였다. 그 후 '몸빼'로 바꾸어 입도록 하였다고 한다.<sup>69</sup> 당시 학교생활의 과반 이상이 근로동원 및 반공훈련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방독모자(재봉시간에 검은 천으로 만들), 비상약품, 붕대, 삼각끈을 보조가방에 넣고 항상 메고 다녔으며, 종래 후에는

69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50년사』, 1986, 60쪽.



1930년대 삼일여학교 교복(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자기 의자에 걸어 놓고 귀가하였다.<sup>70</sup>

그리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고무신을 신었다. 좀 있는 학생은 운동화를 그리고 아주 넉넉한 학생들은 구두를 신었다. 일본인이 다닌 소학교의 경우는 구두와 가죽 가방을 메고 다녔다.<sup>71</sup> 수원공립농업학교의 경우, 고학년은 옆으로 메는 가방을 하였으며, 저학년은 어깨에 메는 가방을 하였다.<sup>72</sup> 화성학원의 모표에 대하여는 1938년 이 학교를 졸업한 윤한흠의 회고가 있다.



1940년대 매향여학교 교복(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윤한흠** : 우리 아버지가 이 모표를 안 사 줘. 한 번 사 쓰면 안 사 준다고. 모표를 안 사 줘서 맨날 쫓겨 댕졌다고. 모표가 없어 가지구. 어 조회시간에 또 모자 잊어버려 가지구, 모자두 안 사 줘서 맨날 모자 없다. 조회시간에 벌 받고 또 월사금 못 내 가지구 맨날 쫓겨 댕기구 뭐 그랬어요.<sup>73</sup>

70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50년사』, 1986, 70쪽.

71 2011년 2월 23일 이영재 구술.

72 2011년 2월 23일 이영재 구술.

73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2, 2002, 308-309쪽.



일제시기 수원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교복과 머리모양(김준배 제공)



일제 말기 수원고등여학교 학생들의 몸매 치림(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일제시기 수원 지역 학교의 모자와 배지 등은 수원상업전수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 직후 것은 삼일남학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발 제한은 개인의 머리 모양과 길이 등에 규정을 두어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군대, 학교, 교도소 등 특수한 집단에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풍습에 따라 머리를 깎지 않았으나, 1895년에 근대화를 위한 단발령이 선포되었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제복과 함께 짧은 머리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에 풍기단속을 위하여 남자의 장발을 제한했으나 1980년대에 와서 없어졌다. 1980년대 초반 청소년의 두발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나 점차 학교별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일제시기 수원 지역의 경우를 보면 모두 단발로 되어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처음에는 긴 머리를 하였으나 점차 단발형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보인다. 단발머리의 경우는 1930년대 삼일여학교 학생들의 머리모양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말과 1910년대 삼일여학교 학생들은 전통적인 머리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 5. 교가

교가는 하나의 학교를 노래하는 형식을 빌려 표상 또는 상징하는 것이다. 교가에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학교의 교육목표나 건학정신, 교풍, 지역의 정서 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가를 제정할 때 작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사는 학생·학부모·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곡은 4분의 4박자 또는 4분의 2박자가 대부분이고 가사는 대부분 2절까지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후렴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교가는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졸업식 등 학교행사나 의식 때 부른다. 학생들의 애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가치가 있고, 동시에 학생들의 장래에 마음의 양식이 될 긍지를 갖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교가는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수원공립보통학교 교가를 보면, 최초의 교가는 일본어로 제정되었다.

일제시기 수원공립보통학교 교가	해방 후 신풍국민학교 교가
一. 岩門を洗ふ 華虹川 流わ流わてゆく水の よどまぬ心 一すぢに 至誠の道をはげまん.	1. 바위틈을 정화하는 화홍천 흘러흘러 내려가는 물의 쉬지않은 마음 한결같이 지성의 옳은 길 배우리
二. みどり滴る 八達山 松のみさをを 仰ぎつつ 日毎月毎 新しき 知識 みがきて 世にたたん.	2. 푸르름이 싱그러운 팔달산 소나무의 지조 우러러 보며 날로 달로 새로운 지식을 익혀 세상을 살아가리. <sup>74</sup>

현재 불리고 있는 교가는 농학박사 유달영이 노랫말을 짓고 작곡가 이흥렬이 곡을 지은 것으로, 신평인의 꿈과 기상이 담백 담긴 노래이다.

#### 신평초등학교 교가

팔달산 기슭 아래 고요한 풍속  
화령전 유서 깊다 거룩한 터전  
빛나라 우리 신평 지녀온 자랑  
대한의 아들딸을 키워 주노라.

(후렴)  
무럭무럭 자라라 신평학우들  
만세만세 억만 년 높이 불려서  
온 세계에 이 민족 널리 알리자.<sup>75</sup>

화성학원과 그 후신인 수원고등학교 교가는 다음과 같다.

#### 화성학원 원가

1절  
금수강산 삼천리 무궁화 속에  
광교 팔달 거북내 솟아오르는  
우리 수원 복판에 화성학원은  
억천만년 긴 세월 하로 가거라.  
방방과 곡곡서 모이는 건아  
높음의 이상과 굳은 의지를  
긴 낮과 짧은 밤 쉬임이 없어  
늘 깊이 그 닦은 피 퍼지리도다.

2절  
행하는 일 모두 지성뿐이요,  
하는 맘은 참되게 거짓함 없이  
가르침과 배움을 진심으로써  
웃출웃출 걸어라 사람의 길로  
이 넓은 덕성과 지용으로써  
크고 작은 사업에 재목 되어라.  
이것이 모도 다 얻은 실기라.  
흘러서 좇차 나옴 또한 크리니.<sup>76</sup>

#### 수원고등학교 교가

압록강 맑은 물 흐르고 흘러  
끊임없이 모이는 우리 건아들

성실과 배움으로 한데 뭉치어  
발휘하자 우리 힘 배달의 영혼<sup>77</sup>

74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167~168쪽.

75 신평백년사편찬위원회, 『신평백년사』, 1996, 292~293쪽.

76 수원고등학교, 『수원고 95년사』, 2004, 14쪽.

77 수원고등학교, 『수원고 95년사』, 2004, 화보.

한편 삼일학교 교가는 해방 후 수원삼일초급중학교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제정되었다. 1947년 1월 17일 김병호 교장이 작사하였으며, 이흥이 작곡하였다. 제1절 첫 구에 “하나님 은혜 주사”로 출발시켰다. 삼일학교는 기독교의 진리, 곧 그리스도의 정신을 토대로 하여 설립 당초부터 출발한 학원이기 때문이다.

삼일학교 교가

<p>하나님 은혜 주사 이룩한 동산 반석 위 굳게 다져 세워진 학원 그 이름 삼일정신 물려 받으니 자랑도 유서 깊은 삼일학원</p>	<p>(후렴) 아아 삼일학원 삼일학원 하나님 은총 베풀 우리의 학원<sup>78</sup></p>
---	--

한편 삼일여학교의 경우는 1909년 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은 후 교가가 제정되었는데 작곡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해방 후 교가를 변경하였다.

일제시기 삼일여학교 교가

<p>산도 높고 물도 고운 반도강산에 우리 학교 우리 위치 널리 빛나니 활발한 기상으로 앞서 나가세. 삼일여학교 만세</p>	<p>만세만세 삼일여학교 백절불굴하여 용기 있게 나가세. 삼일여학교 만세</p>
<p>해방 후 매향여학교 교가</p> <p>광교산 줄기 받아 빛나는 우리 이 나라 등불 되려 여기 모였네.</p>	<p>그윽한 매화향기 널리 펼치어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 이루세.<sup>79</sup></p>

78 김세한, 『삼일학원 팔십년사』, 삼일학원, 1983, 175~176쪽.

79 매향학원, 『매향백년사』, 2006, 117~118쪽.



정혜정 원광대학교 HK연구교수

---

1. 삼일학교와 팔달심상소학교
2. 전시체제기 『삼일학교 학적부』 기록의 형식과 내용
3. ‘소국민’ 으로서의 학교생활과 직업도야
4. ‘순종적인 농업노동자’ 의 탄생



## 제2장

# 일제하 ‘소국민(小國民)’의 학교생활과 직업과(職業科) 교육 \_ 삼일학교를 중심으로

19~20세기는 국가주의 시대로 강대국들 간의 패권주의적 충돌과 시장 쟁탈전으로 약소국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한층 격화된 시대였다. 모든 국가는 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고무하고 국가에 이반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어해 나가면서 교육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교육정책을 폈다. 교육내용 역시 인문주의적 전통보다는 공민도덕이 주된 것이었다. 공민교과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과목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교육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 특히 보통학교 교육은 국가산업과 국방상 필수적인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세계 각국의 학교들은 다른 민족과 국가를 이해하여 친선을 도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맹목적 애국심만 조장하고 타국의 문화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국가주의적 국민교육은 규율과 강압적 통제를 통해 사람들을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집단으로 분산시켰다.

국가주의 교육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집단 의식과 동일한 태도를 주조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과 교육으로서 국어를 통일하고 역사와 지리 과목을 통해 자신과 동포를 동일시하며 자국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일제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자국민을 황국신민화 교육으로 통제해 나갔고 식민지 조선에 적용시켜 나갔다. 특히 조선에 적용한 황국신민화 교육은 서구 복선형 교육에서 하층민에게 적용했던 교육을 본떠 온 것이었다. 이는 온순, 근면, 근로정신의 고취, 복종 등의 덕목을 강화시켜 질 좋은 하층노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일제는 1920년대부터 전 교과를 직업교육과 연계시켜 본격적으로 실업교육을 강화시켰는데 1929년에는 실업과를 폐지하고 직업과로 변경했고 1941년에는 전 과목을 국민과, 이과, 예능과, 체조과, 직업과 등 5개 교과 18개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직업교과와 공민교육, 보통교육을 일체화하는 교육을 내세웠다.

일제시기 보통학교 학적부 기록을 보면 일본이 조선인 아동을 ‘소국민(小國民)’으로서 공민화하여 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했던 내용과 맥락이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1940년대 초반 수원 지역 『삼일학교 학적부』를 분석하여 당시 소국민으로서 교육된 조선 아동의 학교생활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원의 삼일학교는 개화기 때 애국 계몽운동으로 세워진 민족 사립학교로 일제하에서도 꺾이지 버텨 온 역사적인 학교였다. 삼일학교가 재정난과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감리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8년 2차 「조선교육령」 이후 일제의 간섭과 압력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삼일학교는 교명을 1940년 팔달심상고등소학교로 바꾸고 일제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야 팔달심상고등소학교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삼일중학교로 정비되어 삼일이라는 본래의 학교 이름을 되찾게 된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삼일학교 학적부』는 일제의 강압에 따라 일반 국민학교의 학적부와 다를 바 없던 시기의 것으로 1939년에서 1944년까지의 입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내용이다.<sup>1</sup> 이 기록부는 공립보통학교와 국민학교의 학적부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의 신상정보, 학업성적, 근로 동원일수, 출결 상황, 성행개평(性行概評), 신체 상황, 가정환경, 지망소견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각 교과개평(教科概評)과 성행개평 등의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 학생들의 생활이 어떠한 맥락으로 통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생들의 입학시기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천명한 제3차 교육령기 이후이며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의 발표로 학교 이름도 국민학교로 개칭되고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 1. 삼일학교와 팔달심상소학교

삼일학교는 애국계몽운동기 민족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민족사학이었다. 1902년 경에 이하영, 임면수,<sup>2</sup> 나중석, 차유순, 최익환, 홍건표, 이성의, 김제구 등이 사립삼일학교설립축성회를 만들고 1903년 5월 7일 보시동 북감리교회 안에 삼일학교를 개교하였다. 그러나 재정문제로 1908년 학교의 경영권을 북감리회 선교부로 이관하였다.<sup>3</sup> 이 경영권의 이양은 단순한 재정상의 곤란만이 아니라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따른 탄압 속에서 일제의 간섭을 받지 않던 외국인 선교사에게 학교의 경영권을 이양하여 학교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sup>4</sup>

1911년에는 1차 「조선교육령」의 지침에 따라 삼일학교 교과과정 역시 변경되었다. 1915년에 사립학교로서 정식 인가를 받은 동시에 기존의 17개 과목이 13개 과목으로 축소되었다. 17개 과목, 즉 성경·한문·영어·산술·지리·국문·체조 및 훈련·수신·역사·작문·국어·측량·도화·창가·생리·광물·물리 등의 교육과정 운영이 역사·지리·측량 등의 과목이 빠지면서 13개 과목으로 축소되고 도화·수공·농업초보·상업초보의 교과가 들어가 실업교육이 강화되었다. 1923년 11월에는 매향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1925년에는 6년으로 수업연한을 연장시켰다. 그리고 일본역사와 지리 교과가 첨가되고 이과, 도화, 체조가 필수교과가



이담스기념관과 삼일학교 학생들(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2 임면수는 개화기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유지이자 애국계몽운동가이다. 1912년 2월 만주의 삼원보(三源堡)로 망명하여 신민회가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후 경학사(耕學社), 부민회(扶民會) 등의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개척사업과 신흥무관학교 설립 및 군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하였고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냈다. 만주 지린(吉林)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21년 2월 지린영사관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평양감옥으로 압송, 옥고를 치렀다. 수감 중 혹독한 고문을 당해 반신불수가 되었으며 석방 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30년 11월에 병사하였다.

3 김세환, 『삼일학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34~37쪽.

4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민족교육의 성장과 실태」, 『수원문화사연구』 3, 1999년 12월, 214쪽.

되었다.<sup>5</sup>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가면 미북감리회의 지원마저도 중단되어 삼일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하였다. 『매일신보』 1931년 9월 22일자에는 삼일학교가 폐교의 위기에서 한국인 경영자들의 노력으로 구사일생으로 회생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진 수원 삼일학교는 야소교 선교회에서 경영하여 오던바 6~7년 전부터 선교회에서는 보조를 끊어 버리고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교원 제씨의 정성과 교장 김병호의 필사적 활동으로 근근이 유지하여 오던 중 근자에 하주운송점 해산총회(회장 洪思元)에서 1만 1,399원을 기부하여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35년 2월 6일자 『조선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원읍에 있는 삼일학교는 장구한 역사를 가졌으나 경영난으로 파란에 파란을 거듭하여 오다가 김병호(金炳浩) 씨가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로는 씨의 열정과 노력으로 근근히 유지하여 내려오다 수전노에 지나지 못하는 재산가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백전불굴하는 김병호 씨는 수원에 중등교육기관이 없어서 무산계급에 있는 불행한 아동들은 할 수 없이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즉 구급기관으로 급년 신학기부터 동교 내에 고등과를 신설하고 우선 신입생 50명을 모집하리라는데 교원은 고등소학교 정교원 면허를 갖고 실업보습학교 교유로 있던 모씨와 일본농야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오산고등보통학교 교유로 있던 고용성(高龍成)의 양씨를 초빙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삼일학교는 선교사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김병호 교장과 교사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맞서 기부금을 끌어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등교육기관이 없던 수원에 삼일학교 고등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신입생 50명을 모집하고 교사로 실업보습학교 교유 1인과 전주오산고등보통학교 교유였던 고용성(高龍成)을 초빙해 왔다. 이로부터 삼일학교는 보통과 10학급에 고등과 두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일학교가 2년제 고등과 부설 인가를 받은 것은 1934년이다.

그러나 점차 일제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삼일학교도 공립보통학교처럼 일제의 교육제도 아래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sup>6</sup> 일제는 민족주의사상이 농후한 인물들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일본인을 부교장이나 교두(敎頭)로 두어 한국인 학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삼

5 김세환, 『삼일학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111쪽.

6 1910년 이후 1931년까지 삼일학교는 한국인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교장을 선교사들의 이름으로 내세웠다. 이는 일제의 탄압을 다소라도 피해 보고자 한 의도였다. 그러나 1927년부터 선교부의 보조가 중단되면서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1938년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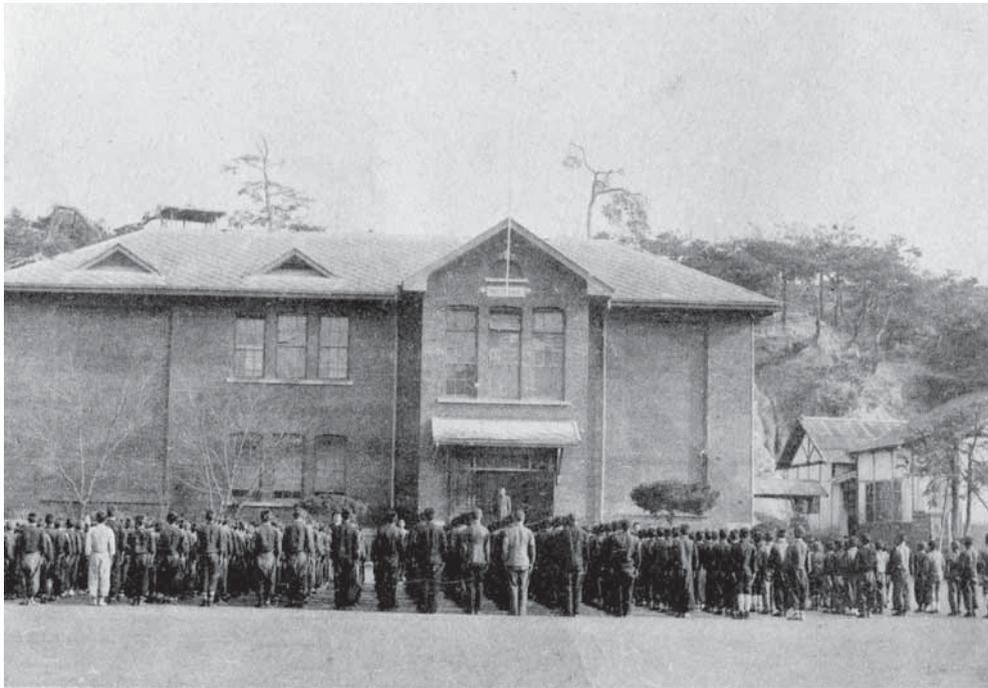
1935년 삼일학교 졸업기념(수원박물관 소장)

일학교를 강점하였다.<sup>7</sup> 특히 1938년 국체명칭,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3대 방침을 내건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교명을 심상소학교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다. 명칭 변경 명령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삼일이라는 명칭이 3·1운동의 정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sup>8</sup> 결국 삼일학교는 1938년 일제의 강압에 따라 팔달심상소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1941년부터는 국민학교로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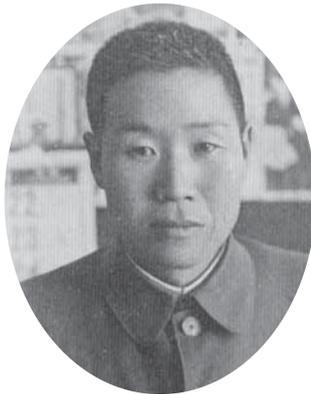
팔달심상소학교로 교명이 바뀌기까지는 삼일학교의 저항도 컸다. 당시 교무주임이었던 유부영(柳富榮) 선생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로서 일본 경찰의 요시찰인이었다. 그는 일본어 상용, 신사참배 및 궁성요배, 창씨개명이나 황국신민 서사 등을 거절하면서 정신적인 항거를 하였다. 이에 일제는 총독 정치에 대한 반동이라 하여 삼일학교에서 그를 끌어내 강제 징용을 보냈다. 그 후 그는 생사확인이 안 된 채 해방 후에도 들

7 김세한, 『삼일학교 육십오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129쪽.

8 삼일이라는 학교명은 기독교 교리인 '삼위일체'에서 나온 것이다.



팔달심상소학교 조회(1941년 팔달심상소학교 졸업앨범)



일제 말기 팔달심상소학교 교장이던 김병호와 교무주임인 유부영

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삼일학교는 1930년대 중반까지는 사립학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점차 일제의 통제를 받는 일반 공립소학교나 국민학교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었다.

## 2. 전시체제기 『삼일학교 학적부』 기록의 형식과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학적부는 1939년부터 1944년 사이에 입학한 삼일학교(팔달심상소학교) 학생들의 학적부 기록이다. 삼일학교는 1938년 3월 15일 「소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24호)에 제시된 소학교 학적부 형식을 따르면서도 직업과를 강화한다는 지침에 따라 1941년 이후는 기존의 것에 새로운 형식을 덧붙여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1939년 입학생의 경우 『삼일학교 학적부』 형식은 다음과 같다.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렸지만, 『삼일학교 학적부』 원본에는 창씨개명 전의 조선인 이름을 삭제한 흔적이 있고 해방 후는 창씨명을 다시 또 삭제하여 원래 이름을 다시 기록하는 등 이름이 세 번 적혀 있다. 또한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1938년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른 학적부 양식을 사용하다가 3학년(1941년)부터는 직업교육이 강화된 교과 편성에 따라 새로운 기록부 양식을 병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41년은 일제가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과과정을 국민과, 이수과, 체조과, 예능과, 직업과 등 5개의 교과로 편성한 해이다. 그리고 수신·국어·국사·지리, 산수·이과, 체조·무도, 음악·습자·도화·공작·가사·재봉, 농업·공업·상



『삼일학교 학적부』(1939년 입학생, 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업·수산 등 18개의 하위 교과목으로 개편했는데 위의 학적부 역시 이에 따른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sup>9</sup>

학적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록란이 만들어져 있지만 주로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공란이 많거나 아예 백지인 것도 있다. 기록자는 학년 담임으로서 모두가 담임 도장을 찍거나 일본인 혹은 창씨명을 쓰고 있다. 해방 후 학교를 다닌 5~6학년 학생의 경우는 조선인 이름의 담임명이 다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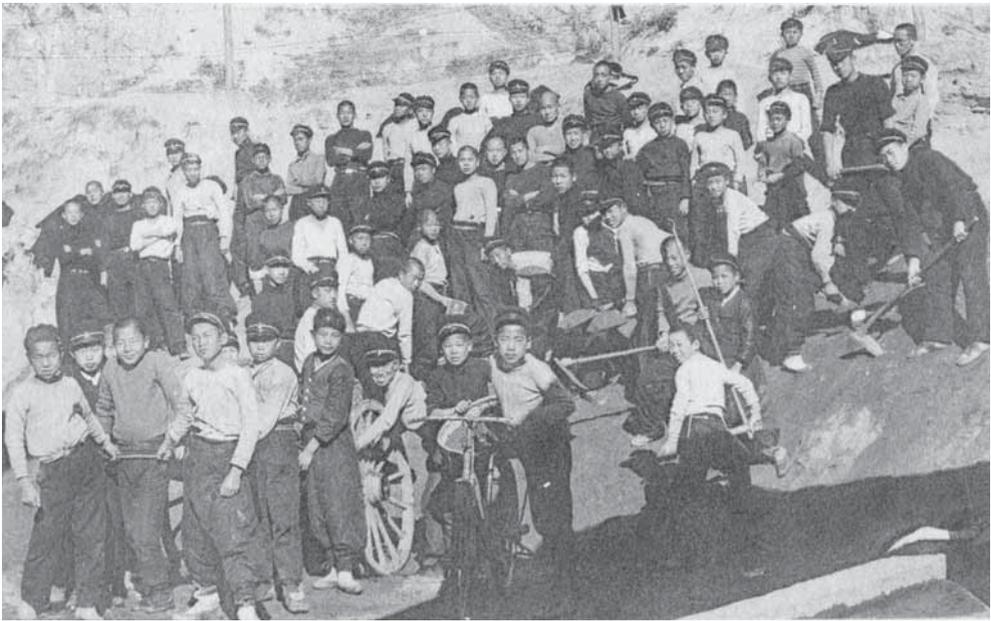
일제시기 학적부는 각 학교가 비치했던 법적 장부로서 모든 학생들을 빠짐없이 황국 국민으로 연성시키는 교육 틀이었다. 모든 학생은 조선총독부가 지시한 학적부 양식에 따라 그들의 학교생활이 기록되고 평가되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신상정보에는 생년월일, 주소, 본적, 졸업연월일, 학령 전 경력, 퇴학연월일, 퇴학사유, 보호자의 성명·주소·본적·직업·이동과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학령 전 경력으로는 서당을 다니거나 소화(小花)유치원 혹은 용인군 원삼(遠三)공립소학교를 다닌 학생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경력이 없다. 학업성과 관련해서는 각 교과 점수(10점 만점)와 총점, 통약(通約: 평균), 조행(操行: 품행), 석차, 수료 연월일, 개평(概評)을 기록했다. 그리고 출석 및 결석란에는 출석일수, 결석일수(病故와 事故), 그리고 기인(忌引: 喪中)과 대략의 평(概評)을 기입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작농 가정의 자제들이었고 간혹 상인들의 자제가 눈에 띈다. 특히 지망(志望) 소견란은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소견으로서 가정형편을 기술하거나 교사에 대한 태도, 교육열의 유무를 기술하고 있다.

〈표 1〉 학생들의 신상정보 사례와 교사의 지망 소견

보호자 직업	학령 전 경력	지망 및 소견
농업(소작)	없음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없음.
농업	경기도 용인군 원삼공립소학교	생활 정도 중 이하. 교사를 대함에 표리가 있음.
농업(소작)	없음	자녀 교육에 무관심함.
농업	서당	가정 빈곤. 교육에 열의 있음.
농업	없음	가정 아주 빈곤. 자녀 학자금 곤란함.
상업	없음	가정 빈곤해도 자녀 교육 열심임.
농업(소작)	없음	빈곤해도 학자금 있음.
상업(잡화점)	없음	학자금 곤란하지 않음.
농업(소작)	없음	생활이 곤궁해도 교육에 열의가 있음.
농업(자작)	없음	부모, 자제 모두 교육에 성의가 없음.
농업(소작)	소화유치원	부모 기대가 있고 호감을 줌. 가정형편은 보통임.

9 1941년 당시 『삼일학교 학적부』 기록에는 직업과의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가사와 재봉 교과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 동원된 팔달심상소학교 학생들(1939년 팔달심상소학교 졸업앨범)

또한 학적부 기록 양식 맨 위의 여백에는 근로 동원 출석일수가 표기되어 있다. 소화 19년과 20년의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19년만 기록되어 있다. 소화 20년은 일본 패망으로 기록하지 못한 듯하다. 학교에서 행하는 근로교육 외에 실시된 근로 동원일수는 60일이었다. 60일 근로 동원일수 가운데 평균 57일 정도는 학생들이 모두 동원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10</sup>

〈표 2〉 학생 근로 동원일수

근로 동원	1944년(소화 19)	1945년(소화 20)
출석일수	56	-
결석일수	4	-

또한 뒷면에는 성행개평(性行概評)과 신체 상황 및 소견, 그리고 가정환경을 표기하였는데 학생의 기록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sup>10</sup> 근로 동원일수가 기록된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입학생 15인의 경우 결석일수는 평균 3일로 거의가 출석일수를 채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사례 1

학년	사항	가정환경	신체 상황 및 소견	성행개평
제1학년		극소량의 소작을 경영하고 9인의 가족이 생계를 잇고 있음.	신체는 강건하나 용기가 없고 규율이 없음.	수업 중 주의가 산만함.
제2학년		상동	강건한 아동	학업이 부진하고 신용이 없음.
제3학년		형이 교육에 성의가 있고 가정은 빈곤하며 부모도 교육에는 이해가 있음.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지 않아 다소 불구가 됨. 그러나 근로에는 어려움이 없음.	3학년이 되어 학업에 힘쓰나 성적이 향상되지 못함.
제4학년		부모가 젊고 농업에 종사함. 자녀 교육에도 열심이지 않음. 지망 및 소견	일견 약해 보이니 보리 베고 종자 심는 일에는 신체도 좋은 편임.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음.
제5학년		부형이 자제 교육에 대하여 성의가 없다고 인정됨. 학교에 방문한 적이 없고 아동 성적에 관심이 없음.	성행 출석 상황은 좋지 않아도 신체는 강건함. 신체는 강건해도 일을 하지 않음.	나태성이 있음. 결석일수가 많은 것도 나태함에 있음. 성적은 학급 중에 꼴찌이며 면학에 성의가 없고 두뇌가 열등함.
제6학년		부형의 교육의 열성이 부족함.	출석 상황은 불량하나 신체는 매우 강건함.	나태하고 학업에 열심히 근면치 않음. 성적은 급중(級中) 하급으로 두뇌가 명석치 못함.

〈표 4〉 사례 2

학년	사항	가정환경	신체 상황 및 소견	성행개평
제1학년		작은 소작으로 다수의 가족이 겨우 생계를 이룸.	신체는 약한 편이지만 결석한 일은 없음.	온순하여 순종함. 두뇌도 보통 이상 되어 사물과 도화에 특히 우수함. 가정이 빈곤하므로 학습이 퇴보하는 감이 있음.
제2학년		상동	상동	상동
제3학년		부모는 열심이 없어 등교한 적이 없음.	상동	성품이 온순하나 지나치게 원기가 없음. 수업 중에도 발표력이 없고 성적은 보통임.
제4학년		어머니는 비율적으로 자식 교육에 열심임. 때때로 교유(敎諭)를 방문함. 지망 및 소견	건강하나 인내력이 없음. 그러나 결석은 없음. 개근상	동료 간에 신뢰를 받음. 말이 없고 특히 예의범절이 있음.
제5학년		상동	얼핏 신체허약으로 보이니 사물 특히 작업에는 인내력이 강함.	성품 온순함. 여자아이 같음. 성실함. 결석한 적이 없고 작업의 경우는 최고로 성실함.
제6학년			외견상 허약해 보이고 영양 부족함. 그러나 인내력이 강하여 결석이 없음. 개근상	성품이 온순하고 인내성이 많음.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과 기타 작업에 열심히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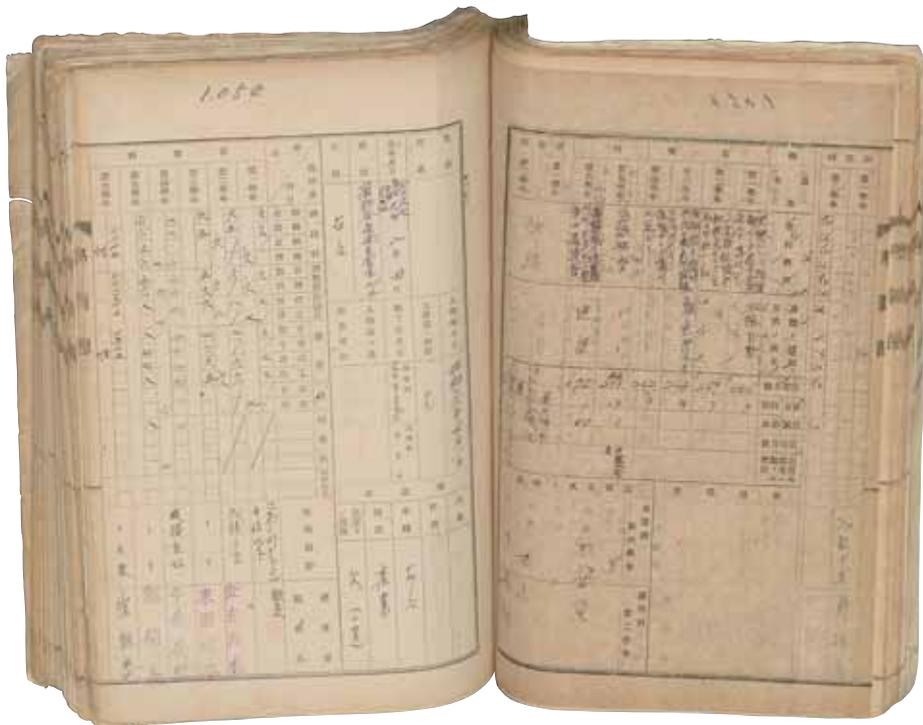
학적부 개인 기록의 앞면에는 6년간의 학업성적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성행개평과 신체상황 및 소견, 그리고 가정환경과 지망 및 소견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소작농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체상황은 허약과 강건으로 나뉘면서도 작업에 대한 인내력이 중시되어 평가되었다. 그리고 <표 4>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3학년 때에는 작업에 인내력이 없던 학생이 5·6학년에 올라가서는 작업에 인내력이 강하고 온순·성실하다는 평과 함께 결석이 없음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성행개평은 이항대립의 어느 한 쪽으로 기술되는데 성품이 침착 혹은 산만, 성실 혹은 나태, 온순 혹은 교만, 두뇌가 좋고 나쁨, 교사에의 절대 복종 유무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두뇌의 좋고 나쁨은 더 세분화되는데 우수함, 보통, 보통 이하, 우둔함, 나쁨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평가에서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데 두뇌의 급수는 성실, 온순한 성품과 비례함을 볼 수 있다. 즉 두뇌가 보통 이상이면 성품도 온순하고 성실함으로 기록되는 경향이 있다. 사례 ⑤를 보면 3학년 때는 두뇌가 보통 이상이 되었다가 5학년 때는 두뇌가 보통 이하로 기록됨을 볼 수 있는데 두뇌가 보통 이상일 때는 성품도 ‘온순’으로 기록되지만 두뇌가 보통 이하로 기록될 때는 노력 부족 등 부정적으로 기록된 것도 볼 수 있다. 1939년에서 1942년까지 입학한 학생 가운데 12명의 전체적인 성행개평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생들의 성행개평 사례

사례 ① 주의 산만, 학습 나태, 두뇌 우둔, 면학에 성의가 없음.	사례 ② 온순, 정직, 교사의 교시에 절대 순종, 두뇌도 우수	사례 ③ 윗사람에 복종, 온순, 두뇌 좋음.	사례 ④ 온순, 두뇌 우수, 개근상, 윗 사람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성실, 성적 최우수
사례 ⑤ 온순, 두뇌는 중(中) 이상, 노력 부족, 두뇌는 중 이하	사례 ⑥ 나태, 두뇌가 좋지 않음, 성실성 부족, 결석 많음, 교만	사례 ⑦ 침착, 온순, 두뇌도 좋고 성적도 좋음, 성실, 사심 없음, 교사에 절대 순종	사례 ⑧ 두뇌 보통, 주의 산만, 성적 좋지 않음, 성품 온순, 교사의 교시에 절대 복종
사례 ⑨ 두뇌 중 이하 온순, 불성실	사례 ⑩ 결석 많음, 온순	사례 ⑪ 교만, 불성실	사례 ⑫ 수업 중 주의 산만, 성품 온순, 학력 부진

학적부 기록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전 형식에 새로운 형식을 갖다가 종이로 풀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학적부 양식을 가져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주로 일제 말기 1941년 이후의 입학생의 사례인데 다음의 학적부는 1941년 「국민학교 시행령」에 따른 학적부 기록양식이다.



『삼일학교 학적부』(1941년 입학생, 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과의 교과목으로는 농업만을 표기하고 있다. 이 기록 양식에서는 석차를 매기지 않고 교과개평이라는 난을 만들어 성적 우수, 양호, 전 과목 중(中) 이상, 성적 중 이하, 열등, 불량, 향상되지 않음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난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다. 1944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 결과에 매우 만족하는 듯이 교과개평란에 “농경적 작업을 좋아함”이라는 문구 하나만 적혀 있는 것도 빈번하다.

### 3. ‘소국민’으로서의 학교생활과 직업도야

#### 1) 근로학교체제의 ‘소국민’ 생활과 복종의 품성도야

일제는 군국주의의 깃발 아래 전시체제로 돌진해 가면서 조선 식민지의 학교를 근

로교육체제로 강화하여 노동력을 보충하고 준비확장을 도모해 갔다. 1920년대 말 일제의 교육정책의 근간은 세 분야로 구분되는데 졸업생지도학교, 간이학교, 보통학교의 직업과 설치를 통한 근로교육체제의 확산이다.<sup>11</sup> 이 가운데 세 번째 정책인 보통학교의 직업과 설치에 공민교육과 일반 도야를 아울러서 직업교육을 개편해 갔던 것인데 이는 각 교과목의 취지와 교육지침을 통해 그 정책을 반영해 나갔던 특징이 있다. 이는 당시 학적부 기록의 배경과 당시 살았던 학생들의 생활을 탐색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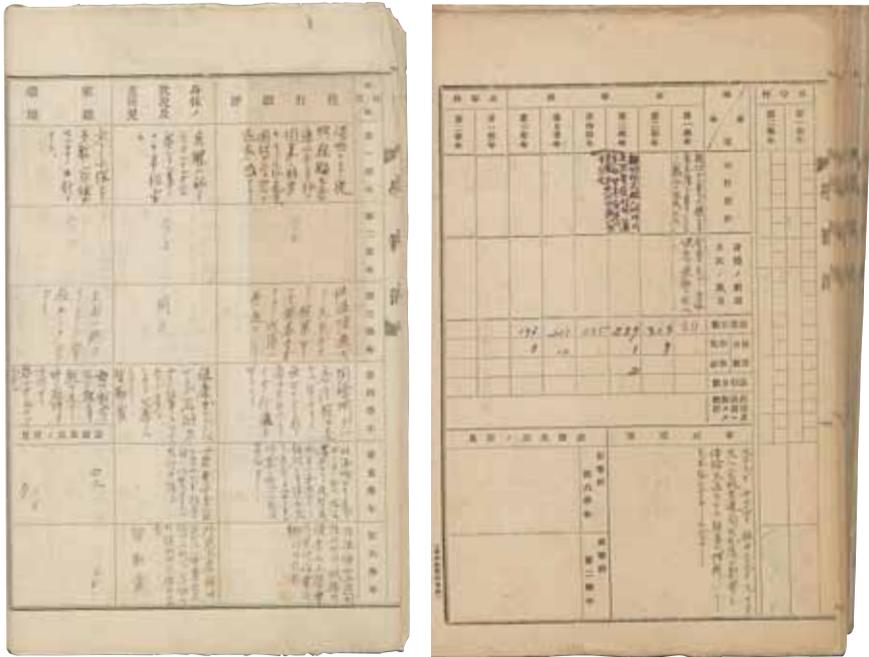
1920년대 후반에 계획된 졸업생 지도학교와 간이학교의 주된 교육 핵심은 근로교육이었다. 일제는 이들의 교육을 농촌 중견지도자 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고 농가생산지도라 하였지만 조선인들의 근로 동원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그 수익을 준비 확충에 보태고자 했던 의도가 컸다. 일제는 1929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보통학교에 직업과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시켜 갔지만 1941년에 가면 학교 교과가 5개 영역의 교과로 개편되고 가정·지역 경제와 맞물려 근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941년은 특히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해로 학생들은 모두 소국민-근로자로서 대상화되고 기록되는 학생들이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었고 황국신민 연성을 위한 국민, 이수, 예능, 체육, 직업 등 다섯 개의 교과를 편성해 학급 내 모든 학생들의 성적, 조행, 석차를 매겼다. 수원 삼일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일제 말기에 가서는 석차, 조행 기록을 폐지하고 조행을 포함하여 교과개평란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성적 순위 자체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 교과개평란에는 농업에 친화적인가 아닌가를 평하여 기록하였다.

한편 대구부 내 한 국민학교의 학적부 기록 사례에서 석차가 좋은 학생이 조행(操行 : 품행)<sup>12</sup>도 좋게 평가되었다는 분석을 볼 수 있는데<sup>13</sup> 삼일학교의 경우도 석차가 나쁘면 조행평가도 나쁘게 사례가 많았다. 물론 간혹 석차가 아주 낮는데 조행평가가 좋은 학생도 더러 눈에 띈다. 그러나 일제가 조행개평이나 교과개평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절대 복종이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복종하는가?” 아니면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가?” 아니면 “교만한가?”의 이분법으로 학생을 분류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교사는

11 세 부문 가운데 졸업생지도학교와 간이학교에 대한 연구로는 정혜정의 연구(정혜정, 「일제하 졸업생지도학교와 청년훈련단체의 조직화(1927~1943)」, 『한국교육사학』 32-1, 2010년 4월, 159-194쪽;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 『한국교육사학』 30-2, 2008년 10월, 119-145쪽)와 강명숙의 연구(강명숙, 「일제시대 보통학교 '직업' 교과의 도입과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 21-2, 2011년 12월, 1-33쪽)가 있다.

12 조행평가 결과는 우, 양, 가로 표기되었다.

13 이경숙,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 34-2, 2007 참고.



학적부의 변경 전후 체제(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국가가 구성원들을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고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복종하도록 교육할 때 가장 중시되는 대상이었다. 일제는 교사를 먼저 헌신적인 천황제 국가주의로 무장시킨 후 임무를 주입하고 사상검증을 한 뒤 일선에 내보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그 복종은 학생이 일제에 충성하는 국민이나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순종적 성품인가 아닌가?” “근로조건에 좋은 신체인가 아닌가?” “작업을 인내하는가?” 아니면 “참을성이 없는가?”를 골라 주는 감별사이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의 두뇌가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성향개평이 대부분 기록되었는데 두뇌의 우열도 결국은 “교사에 대해 복종하는가?” “저항하는가?”에 있었다. 두뇌의 좋고 나쁨은 학업 성적과도 관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종이나 저항 유무에 따라 평가되었고 학생 생활지도의 목표는 순종(은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생활태도에서 품행이 좋지 않고 불량학생이라 기록할 때는 교만함이나 교사에 대한 불복종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학교의 자율과 자유, 그리고 학생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일상의 파시즘이 횡행하는 것은 이러한 일제의 잔재가 해방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게으름, 침착하지 않음, 경솔함, 작업이

나 동작에 민첩하지 못함' 등의 기록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러한 생활태도 역시 후방 근로-소국민 주조를 목표로 학생들을 평가했던 맥락임을 알 수 있다.

## 2) 직업과 설치를 통한 '소국민'의 통합적 근로생활

### (1) 1920년대 중반 보통학교 실업과의 강화와 근로생활

일제는 1929년 실업과를 직업과로 개편하기 이전부터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펼쳤다. 먼저 1920년대 중반 보통학교에서 실업에 관한 기초를 도야하는 보통교육이란 실업에 관해 정신적 지식을 부여하여 내적 원동력을 양성하고 실험적 지도를 실시하여 근로노작하는 습관으로 순치하는 것이었다.<sup>14</sup> 당시의 교과교육이 어떻게 실업교과를 반영시켜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표 6〉 각 교과에 반영된 실업교육

교과	내용
국어과	실업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고 그 교재를 취급할 때 실물, 표본 실례에 의거하여 필요에 응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외교수를 하고 지방 상공업의 실재를 견학하고 실지 지도를 이룬다.
산술과	실제사회의 실정에서 도량형의 제도는 최근 미터법으로 변하였으므로 이를 준비하여 기계의 취급 및 실측에 숙달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일본 역사	과거 현재에 있어서 실업상황을 비교 이해시켜 산업 소장(消長)의 후(後)를 아는 것과 함께 산업 발흥시대의 국가의 진면목과 국가 흥망의 후를 알아 일본역사 전부를 수료할 때에는 실업사적 총괄 교수를 이루고 내가 아국 실업의 연혁에 관한 통일된 관념을 부여하는 것에 주의한다.
지리과	실업의 융성은 자연적 관계에 지배받는 것이 많아도 국민의 기질 풍습 및 인사회적 관계에 의함으로써 자연지리 방면에만 편중되지 않는 주의를 특히 그 지방의 산업 연혁과 창시자 등도 부설함과 함께 세계 각국과 아국 각 부군현 향토 등의 실업상황과 나란히 생산액의 비교 등에 주의하고 산업 소장과 그 토지의 성회, 국제의 흥망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과	기초적 지식을 부여하는 창조 발명의 능력을 양성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 공장·회사·농장 등에 인솔하여 실업의 상황 및 학리 응용의 실재를 알게 한다.
도화과	실물 실재와 관계하여 적절한 교수를 이룬다.
창가과	아국 우미한 풍토와 풍요로운 천산(天産)의 혜택을 노래하여 국민복(國民利福)의 관념을 고조시킨다.
가사 및 재봉과	가정에서 여자 책임의 중대함을 알아 가정적 근로를 숭상하고 공부를 중시 여기는 습관을 기른다.
실업적 교과	실습을 중시하여 토지의 실재에 적절한 교수를 이룬과 함께 실업에 대한 취미를 기르고 근로적 습관을 양성한다.

14 松野紋治, 「初等學校に於ける實業教育に就いて」, 『文教の朝鮮』 7, 1926년 3월, 57쪽.

15 松野紋治, 「初等學校に於ける實業教育に就いて」, 『文教の朝鮮』 7, 1926년 3월, 58쪽.



팔달심상소학교의 지리과 수업(1939년 팔달심상소학교 졸업앨범)

일제가 보통교육으로 실업교과를 강화한 정책하에서 각 교과교육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국어과는 실업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고 교수할 때 실물, 표본 실례에 의거하며 지방 상공업의 실재를 견학하고 실지지도를 이루는 것이었다. 산술과는 최근 변경된 도량형 제도인 미터법을 가르치고 기계의 취급 및 실측에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실업상황을 비교·이해시켜 산업의 성쇠와 이후 전개를 알게 하고 산업시대 국가의 진면목과 국가 흥망을 이해하여 실업의 연혁에 관한 통일된 관념을 부여하는 것에 있었다. 지리과는 자연지리에만 편중하지 않고 그 지방의 산업 연혁과 창시자, 세계 각국과 일본 각 부·군·현 등의 실업상황 및 생산액을 비교하는 것에 두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및

토지의 성쇠와 국세 흥망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과는 기초적 지식을 부여하는 창조 발명의 능력을 양성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공장·회사·농장 등을 방문하여 실업의 상황 및 학리 응용의 실재를 알게 하였다. 도화과는 실물·실제와 관계하여 적절하게 교수하도록 하였고, 창가과는 일본의 우미한 풍토와 풍요로운 천산(天産)의 혜택을 찬미케 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관념을 고조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가사 및 재봉과는 가정에서 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 근로를 숭상하고 공부를 중시 여기는 습관을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끝으로 실업교과는 실습을 중시하여 토지의 실재에 맞게 교육하고 실업에 대한 취미를 기르고 근로 습관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 (2) 1929년 보통학교 직업과의 신설과 통합적 도야생활

보통학교에 실업과가 폐지되고 직업과라는 명칭으로 교과목이 신설된 것은 1929년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서이다. 이 교육 개정은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근로·직업교육을 근간으로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공민다운 자질을 고취하며, 근로애호의 정신을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직업과 도입은 1920년대 후반 보통교육 확충정책에 따른

것으로 간이학교 도입, 졸업생 지도 실시와 함께 일제의 3대 교육정책 사업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 직업 근로교육은 곧 보통교육의 중심이자 공민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 농업, 상업, 실업, 가사, 재봉 등 실과교과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직업과 신설 이후에는 실과교과가 직업과에 포함되고 가사와 재봉만 별도로 예능과에 들어 교과교육을 했다.

또한 수신교과에 근로애호 정신이 강조되고 국어교과는 국민다운 자각을 견고히 하며 이과(理科)교과는 이용후생의 도를 알게 하는 등 근로애호의 정신과 흥업치산의 지조를 모든 교과에서 배양하도록 했다. 다음의 조선총독부훈령 제26호를 보면 조선총독부가 실업과목을 직업과로 변경시킨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초등보통교육에서 직업에 대한 의식을 계발하여 근로애호정신을 진작하여 산업에 관한 관념을 견실하게 하고 각 사람의 장래 직업적 의무에 대하여 적절한 지능을 교양하는 것은 모든 교과목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이다. …… 동 교과를 실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특별히 직업으로 개칭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취지에 따라 종래 실시하여 오던 실업과목에 비하여 보다 그 의의가 광범하기 때문이며 향후 본 교과목을 가르치는 방법에서는 깊이 이 요지를 체득하여 소위 직업지도의 본지를 기조로 하여 이를 취급하고 실제에 쓸모없는 개념적 소양을 제공하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자료를 지방의 실정과 가정의 실제 생활에서 구하여 본 교과목 수업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sup>16</sup>

조선총독부가 실업과를 직업과로 변경시킨 이유는 첫째, 근로애호정신과 각 사람의 장래 직업적 의무에 대하여 적절한 지능을 교양하는 것이고 이는 어떤 교과목에서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종래 실시하여 오던 실업과목에 비하여 보다 그 의의가 광범하기 때문이고 셋째, 직업지도의 자료를 “지방의 실정과 가정의 실제 생활”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경제와 가정경제의 생산활동을 밀접히 관련시키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당시 조선총독부 시학관으로 직업과 도입을 주도했던 다카하시 마키치(高橋濱吉)는 직업과를 도입해야 하는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규에서 “직업은 농업 공업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중에 토지의 상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가르친다.”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직업과는 그 교재가 분과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취급

16 『조선총독부관보』, 1929년 6월 20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취지도 종래의 실업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 종래 실업을 말하면 여러 가지 생산적 수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직업과의 지위는 단순히 생산수단만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직업기능 도야, 직업의식의 계배, 근로정신의 함양, 직업지도 등으로 나아가서 그 취지를 기초로 한 직업 만들기까지 나가야 한다.<sup>17</sup>

다카하시는 도야의 기초공사가 일반도야이고 그 위에 직업적 도야를 하는 것으로 일반도야와 직업도야의 통합을 말하고 있고 직업과는 분과로서가 아닌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모든 교과에서 직업과 관련시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또한 기존의 실과교육처럼 생산적 수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기능 도야, 직업의식의 계배, 근로정신의 함양, 직업지도 등으로서 궁극적으로 초등교육이 직업인 양성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양잠을 직업과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양잠은 농업이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등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상업에 해당하고, 양잠기술은 공업에 해당하며 합리적 유통을 개척하면 이 역시 상업에 해당하게 된다.<sup>19</sup> 또한 전 교과를 기존 방식대로 직업교육을 반영시켜 개편하면서도 보통교육, 공민교육, 직업교육을 일체화시켜 개편시켰다. 각 교과목의 목표를 1929년 6월 「보통학교규정」 개정안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 및 재봉 교과는 가사 및 재봉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얻어 이에서 취미를 기르고 겸하여 절약 이용, 질서, 청결 등의 재덕(才德)을 높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했다. 가사는 특히 이과 및 직업과의 연결에 주의하여 의식주, 간병, 기타 일가(一家)의 경제 등에 관한 쉬운 사항을 선택하여 이를 교수하고 실습하게 한다.<sup>20</sup>

수신과의 경우는 대표적인 공민교육 교과로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 도덕 완성을 목적으로 했다. 공민도야의 취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국민정신의 도야에 의해 국민의 국가적·사회적 자각을 완성시킬 것, 둘째, 단체적 정신의 도야에 의해 사회봉사의 정신을 함양할 것, 셋째, 산업적 도야로 경제적 능력을 부여받고 장래의 산업적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지덕기능을 함양할 것, 넷째, 국제적 정신을 기를 것<sup>21</sup>이었다. 공민교육은 곧 국민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국민교육이 공민교육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

17 高橋濱吉, 「初等學校に於ける職業科の要旨とその運用」, 『文教の朝鮮』 65, 1931년 1월.

18 市村秀志, 「職業科他教科關係交渉, 赤木萬二郎」, 『朝鮮の教育研究』, 1929년 10월; 강명숙, 「일제시대 보통학교 '직업' 교과의 도입과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 21-2, 2011년 12월, 1-33쪽 참고.

19 高橋濱吉, 「初等學校に於ける職業科の要旨とその運用」, 『文教の朝鮮』 65, 1931년 1월.

20 鄭啓元, 「普通學校に於ける裁縫教授に就て」, 『文教の朝鮮』 59, 1930년 7월, 116쪽.

21 後藤長治, 「公民的陶冶の提唱(一)」, 『文教の朝鮮』 63, 1930년 11월,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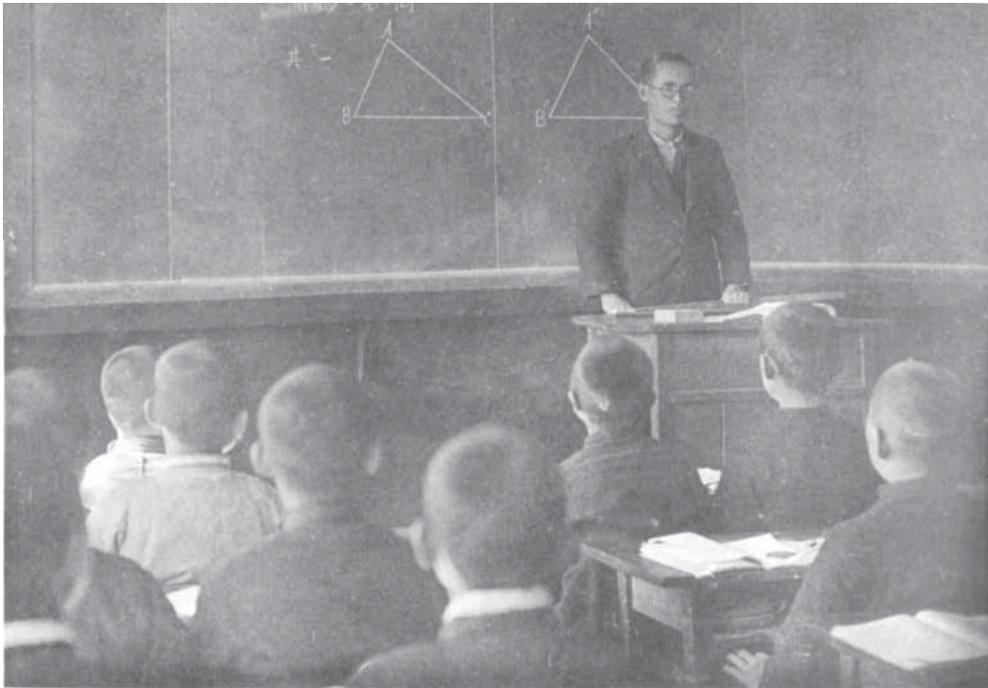
팔달심상소학교의 수업 장면(1941년 팔달심상소학교 졸업앨범)

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당시 일제는 국민교육이나 공민교육을 통해 아동을 국민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공민교육은 원래 국가정체(國家政體)와 관련한 공민적 품성 함양에 목적을 두었으며, 수신과도 공민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국어과도 공민도야의 일환으로 규정되었는데 국어과의 사명은 일본 민족의 언어, 문자, 문장을 학습시켜 국민정신을 발달시키고 함양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첫째, 국민성·민족정신이 일본 문학, 법제, 경제·정치·도덕·풍속에 나타난 곳을 밝힐 것, 둘째, 향토·국토를 이해시켜 애국심·애향심을 함양할 것, 셋째, 성현군자·위인·충신 의사·효자·절부(節婦), 특히 사회봉사자나 산업상·미술상의 공적자의 언행을 서술할 것, 넷째, 국체의 정화 국민의 양속을 노래할 것이었다. 국어교과도 철저한 공민 도야적 맥락에서 교수될 것이 강조되었고, 특히 유가적 도덕관념을 황국신민 함양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2</sup>

국사교육의 목적은 아동에게 국사를 발전적으로 계흥(繼興)해야 할 책임을 자각시키고 국가적 관념과 국민적 정조를 환기하는 것에 두었다. 이 역시 공민적 도야로서 1941년 교

22 後藤長治, 「公民的陶冶の提唱(一)」, 『文教の朝鮮』 63, 1930년 11월.



팔달심상소학교의 산술과 수업(1939년 팔달심상소학교 졸업앨범)

과 개정에서 국민과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교과<sup>23</sup>였다. 지리과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국세(國勢)의 개요를 이해시키고 일본의 세계적 지위를 밝혀 국민적 자각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지리과는 공민교육상 국사과와 서로 조응하는 것으로 횡적 차원에서 일본 향토와 일본의 현상을 이해시켜 정치, 경제, 재정, 군비, 교육 등의 국세·국정 및 국민성을 밝히는 데 교수 목표를 두었다.

산술교과도 공민적 도야의 목적을 부여한 것으로 공민적·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하여 조세제도를 이해시켜 납세의 의무를 자각시키고 부·군·읍·면과 같이 국가 공공단체 등의 재정적·경제적 관념을 주입하고자 했다.<sup>24</sup>

또한 이과(理科)는 과학적 지식과 훈련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역시 공민생활에 필요한 무기라 하였다. 자연의 물적 자원을 이용하는 과학적 근거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23 1941년 개정된 교과과목은 국민과, 이수과, 체조과, 예능과, 직업과 등 5개 교과로 크게 나누고 각 교과에 18개 세부 과목을 두었는데 그중 국민과 안에는 수신, 국어, 국사, 지리 과목이 들어 있다.

24 後藤長治, 「公民的陶冶の提唱(三)」, 『文教の朝鮮』 66, 1931년 2월, 66-67쪽.

생리위생의 지식을 교수하여 국민보건의 기초를 강고히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관념과 능률적 문제 해결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교과 목표를 두었다.

수공과 역시 공민적 도야를 목표로 규정되었는데 공민교육의 방법을 수공 중심에 두고 공동적 수공작업으로 공동일치의 정신과 근로적 정신과를 함양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수공·도화교육 역시 직업교육으로서 근로와 연관된 과목이었는데 특히 수공작업으로 공민적 훈련을 도모하고 국력을 증진하며 산업적 국민으로서의 지덕 함양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5</sup>

193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직업과 교수 내용이 각 도별로도 제정되었는데 경상남도 『직업과교수요목(職業科教授要目)』(1931)을 보면 농업노동의 거의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과종에서 재배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싹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 과수 재배, 축산, 심지어 농가 부업에 이르기까지 농업노동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sup>26</sup> 그리고 생산물은 대부분 판매하여 학교 당국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일제가 시행한 직업과 교육으로서 농업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나라의 대본(大本)으로 지육, 체육, 덕육의 학문으로 명명되었다. 농업은 이과적(理科的) 지식을 부여하여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지육이고, 또한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에 체육이며, 또한 근로협동, 인내의 정신, 국토 및 동물애호의 정신을 기르고 자연과 친하는 미적 정조를 함양하기에 덕육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직업교육이 아니라 인간필수의 보통교육이요 학문이었다.<sup>27</sup> 이렇게 볼 때 직업과의 근로교육을 통한 소국민 도야는 농업인·공업인·상업인 육성이자 지정의(知情意)의 전인적 통합교육이었다.

### 3) 직업교육으로서 농업 도야생활

일제는 루소, 페스탈로치, 케르센슈타이너, 심지어 프리벨까지 언급하면서 노작교육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노작을 통해 지육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전인적 도야를 시도하며 직업과 종교, 노동과 정신의 제휴를 역설하는 것이 직업교육이라 규정하였다. 서구에서

25 後藤長治, 「公民的陶冶の提唱(四)」, 『文教の朝鮮』 69, 1931년 3월.

26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303쪽.

27 横田俊郎, 「初等學校に於ける農業教育に就いて」, 『文教の朝鮮』 6, 1926년 2월, 56-59쪽.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직업훈련을 부여한 것은 곧 종교심을 굳건히 높이는 까닭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작업은 인간의 사명이라 하였다.<sup>28</sup> 일제는 보통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국민으로서의 필수적인 지덕의 교육으로 명명하였다.<sup>29</sup> 직업을 떠나서는 교육을 말할 수 없고 농촌의 직업은 농업이기에 학교가 농업으로 생활과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직업을 떠나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생활을 떠나 교육을 말할 수도 없다. 직업을 떠난 교육, 직업을 떠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농촌의 주된 직업은 농업이고 농촌은 이에 의해 성립된다. 농촌의 학교에 있어서는 농업에 의해 생활을 알고 향토를 알며 이에 의해 농촌의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sup>30</sup>

일제는 보통학교의 교육이 곧 초등 농업교육으로서, 이는 곧 농촌을 짊어질 반도문화의 대사명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혼은 농촌을 짊어질 반도문화의 대중심을 이루어 공헌하는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즉 초등 농업교육은 반도문화의 대사명과 시종하는 도화선을 이루는 것이다.<sup>31</sup>

또한 직업교육이란 단지 근로의 습관을 훈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로애호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보통학교의 농업과(農業科)는 농촌 구성의 중심인 농업을 중심으로 이를 길러 나가는 것이라 하였다.<sup>32</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통학교의 농업과는 곧 보통 학과목이자 일반도야의 학과목이었다.<sup>33</sup> 직업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목을 통해 직업교육을 고조시키는 것이 기본 요지로 직업을 통해 일반적 도야를 이루고 실업과를 직업과로 고쳐 기존의 실과 과목인 농·공·상·수산을 각 하나의 실업분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고 이를 총체적으로 가정직업과 연결시킨다는 취지였다. 일제의 직업은 생산의 본원에서 있고 청소년기에 그 기초가 배양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직업도야는 곧 일반도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sup>34</sup> 1929년 「소학교·보통학교규정」 개정의 근본정신은 첫째, 한층 더 국

28 石井正雄, 「勤勞愛好(實科教育)の思潮とフレーベルに於ける」, 『文教の朝鮮』 42, 1929년 2월, 27쪽.

29 井上改平, 「朝鮮に於ける農業補習學校の經營に就て」, 『文教の朝鮮』 42, 40쪽.

30 菊地良樹, 「朝鮮に於ける農業補習學校の經營に就て」, 『文教の朝鮮』 45, 1929년 5월, 34쪽.

31 佐藤謙三, 「農業初等教育に對する考察」, 『文教の朝鮮』 23, 1927년 7월, 22쪽.

32 菊地良樹, 「朝鮮に於ける農業補習學校の經營に就て」, 『文教の朝鮮』 45, 1929년 5월, 34쪽.

33 菊地良樹, 「朝鮮に於ける農業補習學校の經營に就て」, 『文教の朝鮮』 45, 1929년 5월, 35쪽.

34 大邱初等學校委員會, 「小學校普通學校職業科教授細目編成草案」, 『文教の朝鮮』 54, 1930년 2월, 70쪽.



근로 동원된 학생들(1941년 팔달신상소학교 졸업앨범)

가관념을 명징히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공고히 할 것, 둘째, 각자 직업에 대한 견실한 생각을 부여할 것, 셋째, 근로를 애호하고 흥업치산의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이었다.<sup>35</sup>

농업을 하는 가정직업을 예로 들면 밭을 갈고 화전을 일구는 것은 농업의 기본이지만 그 노역의 결과인 쌀을 시장에 보내고 뽕나무 잎을 따서 그 보수를 얻는 것은 상행위인 경제활동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화를 재배하여 실을 짜는 것은 기계적 공업이 되고 하천에 잉어를 놓아 이식(利殖)을 도모하는 것은 곧 수산업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가정의 농업과 학생의 근로를 연결시켜 가정경제를 학교에서 통어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sup>36</sup>

또한 일제는 직업교육에서 아동의 생활환경인 향토를 조사하여 토지의 생업과 관련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의 생업과 직업교과의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그 생산물의 처리를 합리적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강원도 원주공립보통학교의 경우도 향토 조사를 단행하고 가정경제와 연계를 시킨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물을 획득하고 이를 현 시가로 매각하여 학교 당국에 납입했음을 볼 수 있다.<sup>37</sup>

35 河野卓爾, 「小學校普通學校規程改正に伴ふ」, 『文教の朝鮮』 55, 1930년 3월, 19쪽.

36 河野卓爾, 「小學校普通學校規程改正に伴ふ」, 『文教の朝鮮』 55, 1930년 3월, 20~23쪽.

37 中村止才男, 「修身科及公民科指導原理(一)」, 『文教の朝鮮』 92, 1933년 4월.

#### 4. '순종적인 농업노동자'의 탄생

수원 삼일학교는 개화기 민족구국운동의 차원에서 수원 유지 이하영을 비롯한 애국지사들과 감리교회가 지원하여 설립한 민족 사립학교였다. 초대 교장인 김한목 선생을 비롯한 교사들은 어린 영혼에 희망을 걸고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했다. 그러나 한일 강제병합 후 일제의 교육령에 따라 삼일학교 역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삼일학교는 당시 감리교의 지원을 받아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지원이 끊기고 1938년에 선교사들이 철수함에 따라 삼일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체제로 개편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유부영 선생이 강제징용되어 끌려갔으며 삼일학교는 1938년 팔달심상소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일제의 교육정책을 따르게 된다.

당시 일제 말기 『삼일학교 학적부』에는 근로 동원일수, 학생 신상정보, 학업성적, 성행개평과 신체상황 그리고 가정환경과 지망 소견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소작농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체 상황은 허약과 강건으로 나누면서도 작업에 대한 인내력이 중시되어 평가되었다. 성행개평은 이항대립의 어느 한 쪽으로 기술되는데 성품이 침착 혹은 산만, 성실 혹은 나태, 온순 혹은 교만, 두뇌가 좋고 나쁨, 교사에의 절대복종 유무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두뇌의 좋고 나쁨은 거의 모든 학생들의 평가에서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 사항인데 두뇌의 급수는 온순, 순종의 성품과 비례함을 볼 수 있다. 즉 두뇌가 보통 이상이면 성품도 온순하고 성실함으로 기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제가 조행개평이나 교과개평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절대복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순종적 성품인가 아닌가?” “근로조건에 좋은 신체인가 아닌가?” “작업을 인내하는가 아니면 참을성이 없는가?”를 골라 주는 감별사이기도 했다.

일제는 1920년대부터 실업교육을 강조해 나갔고 1929년에는 실업과를 직업과로 변경하여 확장해 나갔으며 1941년에 가서는 직업교과를 농촌의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생산을 강화해 나가는 체제로 굳혀 갔다. 농업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나라의 대본으로 지육, 체육, 덕육의 학문으로 명명되었고 전인교육이 되었다. 직업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목을 통해 직업교육을 고조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의 기본 요지로서 농촌사회와 가정직업을 연계해 학교 소속의 근로자를 조직화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일제 말기 삼일학교 학생들의 생활 역시 어린 농업노동자 생활로 틀이 지워졌을 것이다. 교과개평란에 “농경적 작

업을 좋아함”이라는 문구가 빈번히 기록되었듯이 투철한 근로정신에 따라 성실, 복종의 성품으로 농업근로를 즐겨하고 생산해 내는 어린 삶을 일제는 교육을 통해 도야시켜 나갔다. 그 속에서 어린 학생들은 신체의 허약함, 작업에 참을성이 없음, 산만함, 불성실함, 교만함, 두뇌가 나뻘, 나태함, 복종하지 않음 등의 명명하에 자신들을 틈새로 내보내는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명숙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

1. 수원고녀의 설립
2. 수원고녀의 교육 내용
3. 수원고녀생의 구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4. 수원고녀생의 성적 및 성행평가
5. 수원고녀생의 학교생활
6. 해방, 수원여고 그리고 청포도와 눈(雪)



##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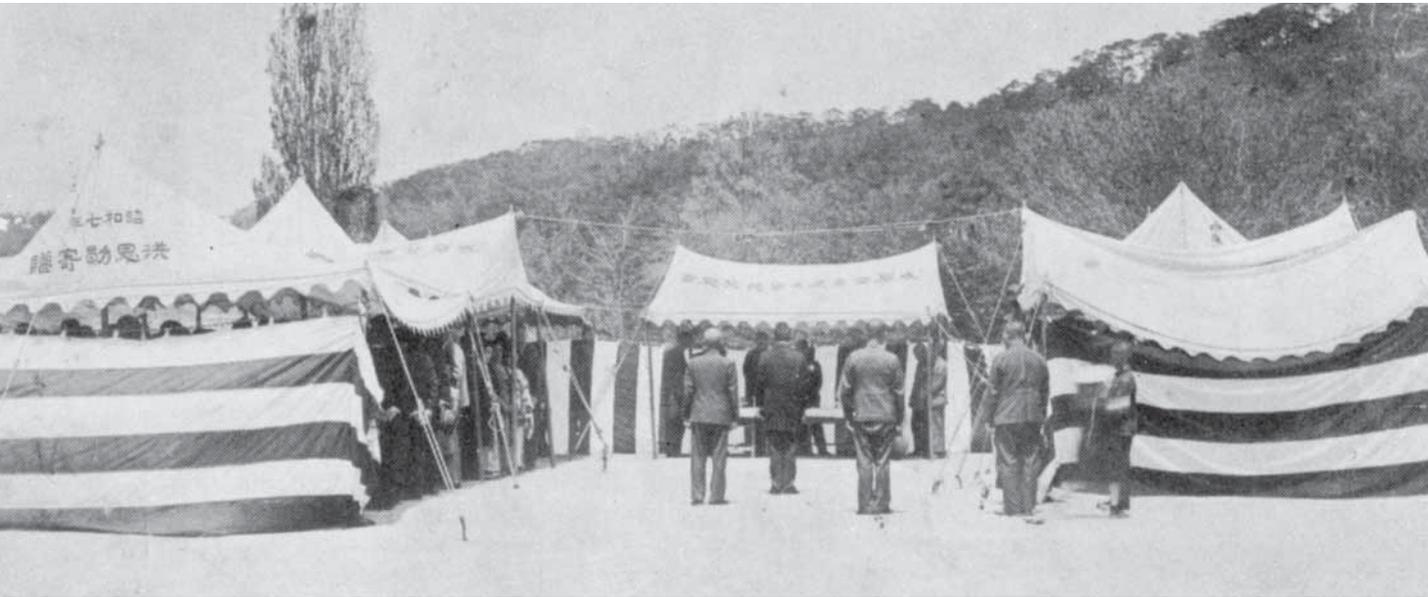
# 일제하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삶

### 1. 수원고녀의 설립

일본은 1876년 개항 이후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5년)에서 연달아 승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대와 더불어 상업적 이익을 좇는 상인 등 다양한 일본인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된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서울을 비롯한 부산·인천·원산 등 개항장 주변에 일본인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원의 경우 정조 대 이후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제에 의해 부설된 경부철도가 지나는 철도연변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더해져, 점차 경기 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일본인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 선교를 위해 조선에 온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 1863~1921)는 1900년 수원에 정착한 최초의 일본인이었다. 이후 1902년 노나카(野中末吉)가 수원에 이주하여 과자점을 경영하였고, 미와(三輪政一)는 화성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03년에는 이노하라(猪原), 오노(小野), 곤도(近藤), 호소카와(細川), 야마자키(山崎), 이마무



〈그림 1〉 1936년 수원공립가정여학교 개교식(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라(今村), 기타자와(北澤) 등의 상인과 관리들이 수원에 정착하였다. 이처럼 초창기 수원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1904년 러일전쟁 승리 이후 수원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갑자기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면서, 이후에 수원일본인회(水原日本人會)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당시 경기 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던 수원에 수원역·수원우편국·수원경찰서·수원군청 등 관공서가 생기면서 일본인들이 이곳의 관리로 오게 되고, 1906년 서둔동에 설치된 권업모범장과 1907년 이전한 수원농림학교(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직원으로 와 수원에 정착하면서 일본인 자녀의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수원 이주 일본인은 가족 단위의 이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수원 거주 일본인들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sup>1</sup>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일제는 1912년 「학교조합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재조선 일본인 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공공단체로서 학교조합을 설립하였다. 학교조합의 설립은 일제가 재조선 일본인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함으로

1 한동민,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수원학연구』 3, 2006.



〈그림 2〉 수원공립고등여학교 개교(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뒷줄은 가정여학교에서 2-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이다.

써 보다 많은 일본 이주민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안정되게 영구히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sup>2</sup>

수원에서도 1906년 10월 8일 일본인 자녀들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소학교로 수원거류민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1908년 1월 일본인 거류민들의 기부금과 통감부의 지원금으로 수원향교 옆 지금의 매산초등학교 자리에 새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sup>3</sup> 그러나 수원에는 1930년대까지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의 중등교육을 담당할 여학교가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원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되게 된 배경이다.<sup>4</sup>

오늘날의 수원여자고등학교(이하 수원여고)의 역사는 1936년 4월 15일 개교한 3년제 수원공립가정여학교(이하 가정여학교)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여학교는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주축이 된 학교조합이 주체가 되어 수원 지역 일본인 여학생의 중등교육을

2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 수원거류민소학교는 1910년 5월 31일 수원학교조합립 수원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2년 4월 1일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41년 수원공립국민학교로 바뀌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수원공립국민학교가 폐교되자, 그 자리에 1945년 4월 26일 개교한 수원남수공립국민학교가 같은 해 11월 이전하고 교명을 매산국민학교로 변경하였다.

4 수원 지역에서 1930~1940년대에 설립된 중등학교로는 수원공립가정여학교 이외에 수원삼일학교(1934), 수원공립농업학교(1936), 수원상업전수학교(현 수원중·고등학교, 1941) 등이 있었다.

〈표 1〉 일제하 수원고녀의 학제 변화와 학교 현황<sup>5</sup>

교명	학제 (학급)	입학일	졸업일	학제별 졸업횟수	졸업생수		시설확충	교장 재임 기간
					가정	고녀		
수원공립 가정 여학교	3년제 (3)	1936.4.15.	1939.3.15.	가정 1	43		수원공립심상소 학교 별관 사용	아카쓰 모토(赤津基) 1936.3.26.~1937.3.30.
		1937.4.15.	1940.3.15.	가정 2	27		1937.12.28. 교사 신축 이전	이케다 요시타비(池田義種) 1937.3.31.~1940.3.30.
		1938.4.15.	1941.3.15.	가정 3	43			시마다(嶋田清) 1940.3.31.~1941.3.30.
	계				113			
수원공립 고등 여학교	4년제 (4)	1941.4.21. 4년 편입	1943.3.21.	고녀 1		53	1943.12.13. 현 위치로 이전	이나즈 히데오(稻津英夫) 1941.4.4.~1943.3.30.
		1941.4.21. 3년 편입	1944.3.18.	고녀 2		49		
		1941.4.21. 2년 편입	1945.3.24.	고녀 3		49		하라다 다케오(原田武雄) 1943.3.31.~1945.8.15.
		1942.4. 6.	1946.6.22.	고녀 4		30		이덕상(李德象) 1945.9.29. 부임
	계					181		

목적으로 설립한 경기도 내의 유일한 여자 중등교육기관이었다. 〈표 1〉은 일제하 수원고녀의 학제 변화와 학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6년 개교 당시 가정여학교는 정식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한 채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현 매산초등학교) 별관을 임시 교사로 빌어 신입생 55명을 선발하여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37년 12월 28일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내에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는데, 신축 교사는 교실(3)과 직원실(1) 이외에 가사실(1), 양재실(1), 꽃꽂이 및 다도실(1)을 갖추고 가정여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가정여학교는 일본인·한국인 공학으로 운영되었지만, 설립 취지가 일본인 여학생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데 있었으므로 일본인에게 우선적으로 입학 기회를 주었다. 1936~1941년에 가정여학교를 졸업한 113명 중에서 한국인 28명(24.8%), 일본인 85명(75.2%)으로 일본인이 4분의 3이나 차지하였음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sup>6</sup>

1939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가정여학교는 1941년 3월 15일 3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5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98쪽 참조.

6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66쪽.

1941년 3월 31일 4년제 고등여학교로 승격되었고 교명도 수원공립고등여학교(이하 수원고녀)로 변경되었다. 이에 1941년 4월 21일 가정여학교 1·2·3학년 학생들은 수원고녀 2·3·4학년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때 4학년으로 편입되어 1943년 3월 21일 졸업한 학생들은 4년제 수원고녀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4년제 고등여학교로 승격된 수원고녀는 1941년 9월 8일 현재의 수원여고 자리인 수원시 고등동에 교지 1만 533평을 사들여 건평 469.3평의 교사를 새로 짓고 1943년 12월 13일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고등여학교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sup>7</sup>

일제하 수원고녀의 교장은 1936년 3월 26일 초대 교장으로 아카쓰(赤津基)가 부임한 이래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재직했던 교장 이케다(池田義種), 시마다(嶋田清), 이나즈(稻津英夫), 하라다(原田武雄)가 모두 일본인이었다.<sup>8</sup>



(그림 3) 외부 일본인 강사에게 꽃꽂이를 배우는 수원고녀생들(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그림 4) 가정여학교 수예전시회(김준배 제공)

## 2. 수원고녀의 교육 내용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규정」 제1조에 따르면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

7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65쪽.

8 해방 후 수원고녀에는 1945년 9월 29일 한국인 초대 교장으로 이덕상(李德象) 교장이 부임하였다.

교육을 하여 특히 국민 도덕의 함양, 부덕(婦德)의 양성에 유의해서 양처현모(良妻賢母)로서의 자격을 얻게 하고, 충량지순(忠良至醇)한 황국여성을 양성하도록 힘쓴다.”라고 하여, 일제는 황국여성의 양성을 고등여학교의 교육 목표로 삼았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령하여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요하였고,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발령하면서는 조선인을 전시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강조하고 강요하였다.

가정여학교와 수원고녀의 학생들은 일제가 모든 교육 내용을 일본식으로 강화하고 일본어로 수업하는 등 황국신민화를 교육 목표로 한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1938.3.~1943.3.)와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을 반포하여 학교가 전쟁인력의 수급과 지원처로 변모한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1943.3.~1945.8.)에 학교를 다닌 불행한 세대였다. 특히 수원고녀는 일본인 여학생에게 중등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라는 점에서, 당시 한국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충실한 대변자였던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로부터 민족적 차별과 함께 일제 말 전시동원체제에서 혹독한 근로 동원까지 감내해야 하였다.

여기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일제하 수원고녀 학생들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학적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학적부는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sup>9</sup> 이 중에서 수원고녀 1회와 3회 졸업생의 학적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sup>10</sup>

학적부는 동·서양 모두 1900년대 초반 근대학교의 출현과 함께 대두한 근대교육의 산물로, 학생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학교 호적부이다.<sup>11</sup> 3·1운동 이후 ‘배워야 산다.’는 구호 아래 조선인의 교육열이 급증하면서, 1930년대에는 학적부가 상급학교 진학과 취직을 위한 내신용 기록으로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하 학적부는 ‘황국민(皇國民) 연성(鍊成)’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교육 목적에 맞추어 기록되고 관리·검열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기록의 주체인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기록의 주체인 학교의 교

9 『학적부(수원공립고등여학교제1회)』(국가기록원 소장, CJA0028458); 『학적부(수원공립고등여학교제2회)』(국가기록원 소장, CJA0028459); 『학적부(수원공립고등여학교제3회)』(국가기록원 소장, CJA0028460).

10 1946년 6월 22일 졸업한 4회 졸업생의 경우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여 돌아간 뒤라서 일본 학생들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한국 학생 30명의 학적부만 남아 있다. 따라서 4회 졸업생의 경우 한·일 학생 비교가 곤란하기도 하고, 해방 이후의 기록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손준중, 「내신제 도입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3, 2006, 133-136쪽.

1 身 體 檢 査										生 徒		
姓名	年齢	身長	体重	胸囲	腕囲	足長	足幅	顔長	顔幅	頭圍	検査日期	検査場所
...	...	...	...	...	...	...	...	...	...	...	...	...
<p>検査結果: 身長 150cm, 体重 45kg, 胸囲 80cm, 腕囲 20cm, 足長 22cm, 足幅 9cm, 顔長 12cm, 顔幅 10cm, 頭圍 55cm.</p>										<p>検査者: 水戸 雄鎮</p>		

2 性 行										備 考		
姓名	年齢	身長	体重	胸囲	腕囲	足長	足幅	顔長	顔幅	頭圍	検査日期	検査場所
...	...	...	...	...	...	...	...	...	...	...	...	...
<p>検査結果: 身長 150cm, 体重 45kg, 胸囲 80cm, 腕囲 20cm, 足長 22cm, 足幅 9cm, 顔長 12cm, 顔幅 10cm, 頭圍 55cm.</p>										<p>検査者: 水戸 雄鎮</p>		

〈그림 5〉 수원고녀 학적부(국가기록원 소장)

풍(校風)이나 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수원고녀는 한·일 공학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본 여학생의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로서 모든 학제는 일본의 학제에 준하였다. 즉 수원고녀생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에 입학하여 3월에 졸업하였고, 1년을 3개 학기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학적부 역시 일어로 기록되었다.<sup>12</sup>

수원고녀의 학적부는 학년 담임이 기록하였고 2장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면에는 ① 생도 이력(씨명,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입학 전 경력,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전·퇴학 연월일 및 이유, 졸업증서 번호) ② 보증인(정·부보증인의 본적, 현주소, 씨명, 직업, 생도와의 관계, 변경 연월일) ③ 신체검사 기록이 기재되었다. 제2면에는 ① 학업(과목별 성적, 조행, 체위, 종합득점, 종합석차, 판정) ② 근태(勤怠: 출석 일수, 결과(缺課), 결석, 조퇴) ③ 성행(기질, 지조, 언어, 거동, 총괄, 취미·습벽) ④ 비고(노력상, 개·정근상, 선행상, 총대근로(總代勤勞) 등 참고사항) 등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1941년 입학하여 1945년 졸업한 3회 졸업생의 경우 제4차 「조선교육령」 체제로 접어든 3학년 2학기부터 제2면의 학업성적 기록 방식이 바뀌고 있다. 즉 100점 만점으로 기록되던 과목별 점수, 조행 평가가 수·우·양·가로 변경되었고,<sup>13</sup> 체위는 ‘작업가(作業可)’로, 최종 판정은 급(及)으로 기록되었다.

수원고녀의 교과목은 앞의 학적부에서 보듯이, 수신·공민·교육·국어(강독·작문·문법·습자)·역사·지리·외국어·수학(산술·대수·기하)·이과(박물·화학·물리)·실업·도화·가사·재봉·음악·체조·수예의 16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학과 점수 총점에 조행(操行)과 체위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포함시켜 종합 점수와 종합 석차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행이 어느 시점인가부터 수련(修鍊)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1943년 전시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 제4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 이후 전시동원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에 수련과 근로가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수련의 목적은 행동을 수련

12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적부 기록 언어는 그 학교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동덕고녀의 경우 학적부를 기록할 때 가족 구성원 여부나 종교 유무를 기록할 때 ‘アリ’ ‘ナシ’ 등으로 표시한 것 이외에는 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김명숙,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1945년 동덕고등여학교 학적부를 중심으로」, 『향토서술』 78, 2011, 230쪽). 반면 대구부 A국민학교의 경우 학적부를 기록하는 공식적인 언어가 일어였다(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 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31, 2007,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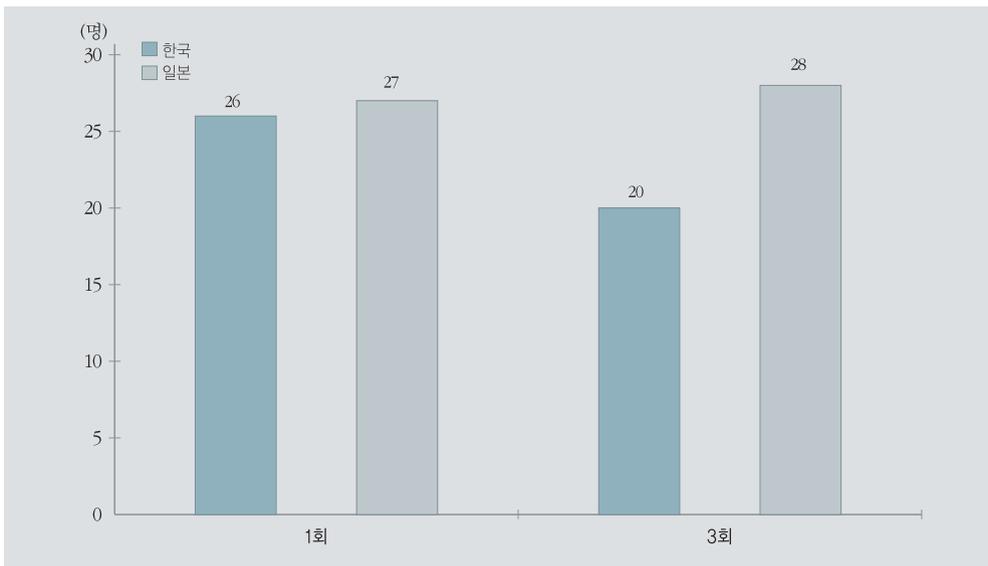
13 이는 동덕고녀 1945년 졸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김명숙,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1945년 동덕고등여학교 학적부를 중심으로」, 『향토서술』 78, 2011, 254-255쪽).

하여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발양하고 헌신봉공(獻身捧供)하는 실천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수련, 매주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는 수련, 학년 중 수시로 실시하는 수련 등이 있었다.<sup>14</sup> 수원고녀의 경우 근로가 정규과목은 아니었으나, 5절에서 후술할 바와 같이 당시 학생들은 학교 정규 과정의 수업시간보다도 더 많은 근로에 동원되었다.

### 3. 수원고녀생의 구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여기에서는 수원고녀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원고녀는 한·일 공학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먼저 1·3회 졸업생의 한·일 학생 구성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한·일 학생 구성비는 1회는 엇비슷하나, 3회의 경우는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8명이나 많았다. 1·3회 전체를 보면 총 101명 중 한국 학생이 46명(45.5%), 일본 학생이 55명(54.5%)으로 일본 학생이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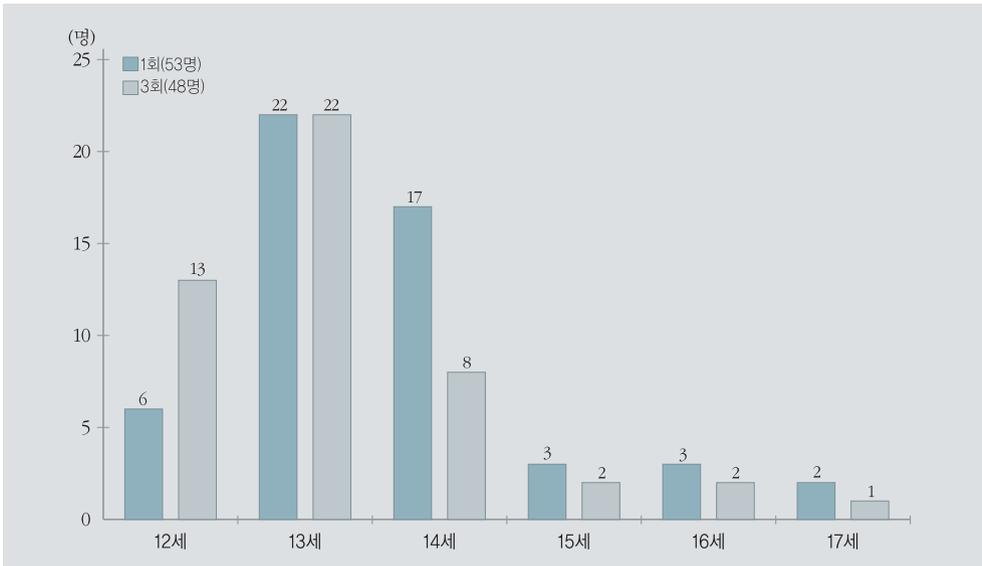


〈그림 6〉 1·3회 졸업생의 한·일 학생 구성비

14 조선총독부령 제59호, 「고등여학교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제10조 참조.

(9%) 더 많았다.

다음은 취학 연령을 보기로 하자. 일제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나 고등여학교(이하 고녀)의 입학 연령은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12세 이상<sup>15</sup>으로 규정하였다.<sup>16</sup> 이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고녀 입학 자격을 “수업 연한 6년의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그러면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입학 연령은 몇 세였는지 <그림 7>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7> 1·3회 졸업생의 입학 연령

<그림 7>에 따르면,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은 14세 입학이 44명(43.6%)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12~14세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학도라 할 수 있는 16~17세 입학자도 7명(6.9%)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교육령」에서 정한 입학 연령 12세보다 4~5세 정도 늦은 나이에 입학한 셈이다.<sup>18</sup> 이처럼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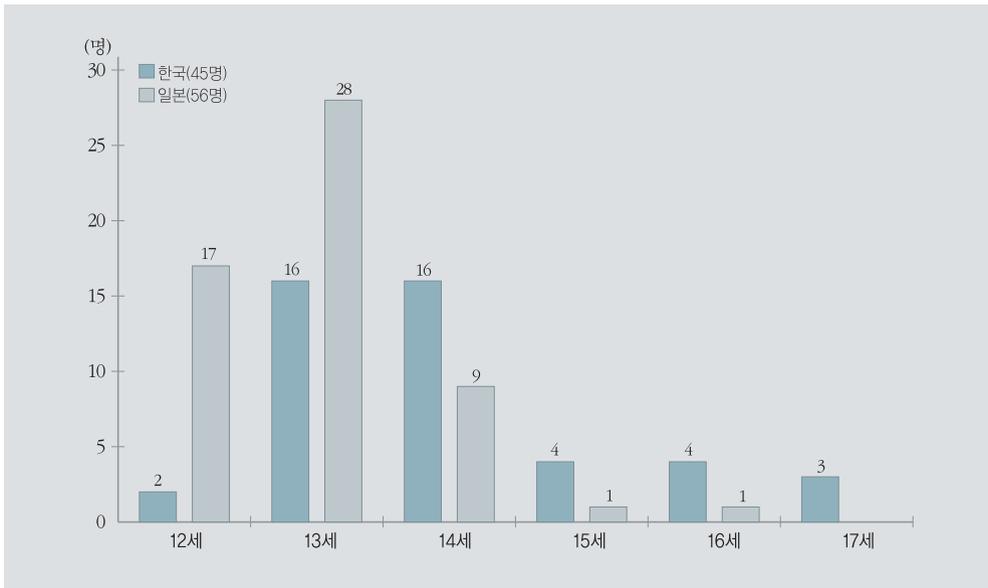
15 필자는 이를 만 12세로 파악하고 이 글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16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 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2004, 99쪽.

17 제3차 「조선교육령」, 제7장 제56조 참조.

18 12세보다 늦은 나이에 입학한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보통학교 학령기부터 입학이 늦었거나, 아니면 보통학교 학령기에 바로 입학했다더라도 졸업 후 고녀에 바로 입학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입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녀 신입생은 12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한·일 학생들로 학년과 학급이 구성되었다. 그러면 입학 연령에서 한·일 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었을까. 이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입학 연령을 한·일 학생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 <그림 8>이다.



<그림 8> 1·3회 졸업생의 한·일 학생 입학연령 비교

<그림 8>에서 보듯이, 한국 학생들은 전체 45명 중 32명(71.1%)이 13~14세에 입학한 반면, 일본 학생은 전체 56명 중 45명(80.4%)이 12~13세에 입학하여 일본 학생들이 약 1세 정도 적은 나이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 학생들은 「조선교육령」에서 정한 법적 입학 연령 12세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 비해 15명이나 더 많았다.

<표 2>는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진학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3회 졸업생 101명 중에서 출신학교가 기록된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입학 전 출신학교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겪으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배워야 산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구국(救國)을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여학생은 해마다 늘어났으나, 조선인 여학생의 중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다.<sup>19</sup> 특히 일제 말기로 갈수록 중등학교 입시

〈표 2〉 1·3회 졸업생의 입학 전 출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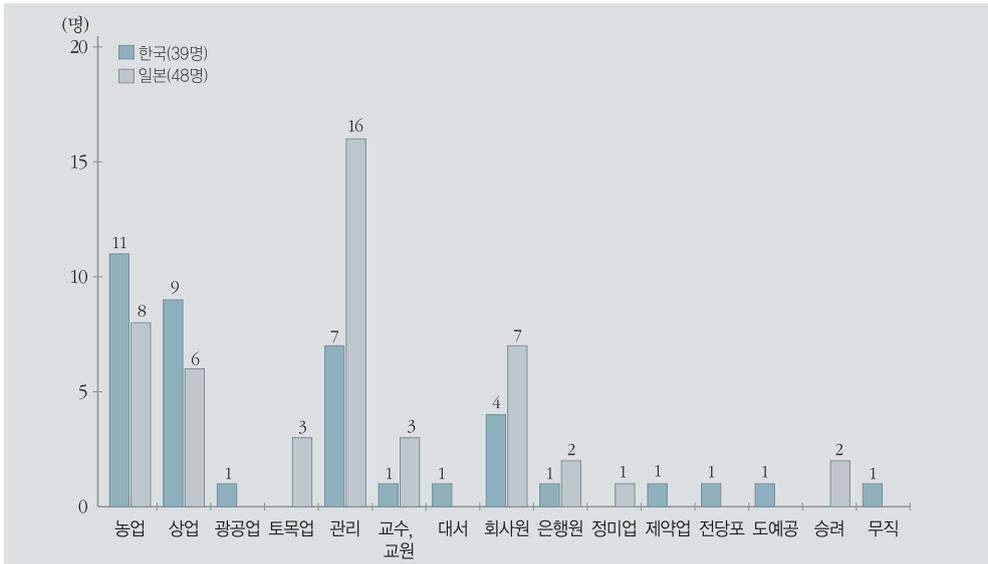
지역	출신학교(학생수)	계
서울	경성원정소교(3), 경성매동공소(1)	4
경기	수원공소(31), 신봉공소(16), 매향소교(1), 삼일여소(1)	78
	성호공소(2), 오산소교(1)	
	용인공소(1), 기흥공소(1), 송전공소(1), 원삼공소(1)	
	장호원공소(5), 이천공소(2), 안성공소(4)	
	평택공소(3), 평택서정리공소(1), 평택성동공소(3)	
	부천공소(1), 시흥보통소교(1)	
	양주공소(1)	
	개성만월공소(1)	
충남	천안명정공소(1), 천안심상소(1)	2
전남	임실소(1)	1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원고녀는 일본인 학교로 한·일 공학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여자 중등교육기관이었으므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경기도 일대(수원·오산·용인·이천·안성·평택·부천·시흥·양주·개성 등)에서 공부를 잘하는 한·일 여학생들이 진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는 1906년 수원 거주 일본인 자녀들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원거류민소학교로 출발한 일본인 소학교였다는 점에서, 이 학교 출신들이 대거 수원고녀에 진학한 데서도 수원고녀의 설립 목적을 짐작케 한다. 경기 지역 중에서도 수원·오산·용인 정도는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그 외의 지역은 통학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초창기부터 세워졌다. 당시 기숙사 시설은 다다미 5조, 생활실 5개였고, 사감 1명, 식모 1명, 당번 2명으로 운영되었다. 수원고녀 고등동 캠퍼스는 주위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어 교사 및 기숙사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옆 숲속에서 독서도 하고 산보도 하였다고 한다.<sup>20</sup>

〈표 2〉에서 제외된 학생 중에는 수원고녀로 전입·편입한 학생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전입·편입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경성 소재의 경성 제2고녀(1명), 무학여고(1명), 안동양화고고녀(1명), 용곡고녀(1명), 인천고녀(2명), 인천소화고녀(1명), 조치원고녀(1명), 진해고녀(1명), 철원고녀(2명), 태백대동고녀(1명), 함흥고녀(1명) 등 고녀 수준의 중등교육기관에서 1~3년을 수료한 후 수원고녀로 전입·편입한 경우였다.

19 박철휘, 「일제 강점기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육기회분배와 졸업생 진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8-2, 2006, 49-50쪽.  
20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72쪽.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1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호자(부모 및 기타 가족)의 직업이다.<sup>21</sup> <그림 9>는 보호자의 직업이 기록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87명의 한·일 학생 보호자의 직업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1·3회 졸업생의 한·일 보호자 직업 비교

<그림 9>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원고녀 1·3회 졸업생 보호자의 직업 중에서 1930~1940년대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직업인 농업이 19명(21.8%)으로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인 데 반해 관리 23명(26.4%), 상업 15명(17.2%), 회사원 11명(12.6%), 교수·교원 4명(4.6%), 토목업 3명(3.4%), 은행원 3명(3.4%), 기타 자유업(정미·계약·전당포·도예공·승려) 6명 등 농업 이외의 직업인이 전체의 5분의 4나 되었다. 특히 일본 학생 중에는 관리의 자녀가 16명(18.4%), 교수·교원 자녀가 3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수원의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수원은 경부철도가 지나는 철도연변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1930~1940년대 경기 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수원역·수원우편국·수원경찰서·수원군청 등 관공서의 관리로 왔고, 특히 1906년 서둔동에 설치

21 수원고녀 1·3회 졸업생 101명 중 보호자가 누구인지 표기되지 않은 학생 28명을 제외한 73명 중에 보호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64명(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어머니 4명(5.5%), 형 2명(2.7%), 숙부 2명(2.7%), 조부 1명(1.4%) 등이었다.

된 권업모범장과 고등농림학교(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림 9>의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930~1940년대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 분포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3>은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을 한·일 학생으로 구분하여 이들 부모의 직업 분포와 1930~1940년대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1·3회 졸업생 한·일 부모의 직업 분포 비교

분류	한국 학생 부모 직업		일본 학생 부모 직업		계		조선인 직업 <sup>22</sup>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농업	11	10.9	8	7.9	19	18.8	16,165,983	83.1
상업	9	8.9	6	5.9	15	14.8	1,253,895	6.4
광공업	1	1.0	3	3.0	4	4.0	2	2.3
공무·자유업	17	16.8	31	30.7	48	47.5	106	2.7
기타 <sup>23</sup>	8	7.9	7	7.0	15	14.9	8	6.6

<표 3>에서 보듯이 1930~1940년대 조선사회는 전체 인구의 8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상업·광공업 및 공무·자유업 종사자는 11.4%에 불과한 농업사회였다. 반면에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경우는 보호자 직업 중에서 공무업(관리·교수·교원·대서·사법서사·회사원·은행원)과 자유업(정미업·계약업·전당포·도예공·승려) 종사자 비율이 56.3%로, 이는 1930~1940년대 조선 전체 인구 중 공무자유업 종사자 2.7%보다 무려 21배나 높은 비율이다.<sup>24</sup> 물론 이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학생 보호자 중에서 공무·자유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나, 한국인 보호자도 17명(19.5%)이라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수원고녀생 학부모의 2분의 1 이상이 당시 여성교육에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에 섰던 공무·자유업 종사자로서 중류 이상의 부르주아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22 비교는 1930~1940년대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 분포도이다(박지향, 「일제하 여성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격」, 『사회비평』 1, 나남, 1988, 265쪽).

23 기타에는 무직 1명과 미상 14명 등 15명이 포함된 것이다.

24 이는 이화여전의 10배보다도 높은 비율이다(박지향, 「일제하 여성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격」, 『사회비평』 1, 나남, 1988, 266쪽).

25 이는 현경미와 김명숙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경성여고보와 동덕고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김명숙,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1945년 동덕고등여학교 학적부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78, 2011, 248~249쪽;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사레연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2~53쪽).

## 4. 수원고녀생의 성적 및 성행평가

여기에서는 일제하 수원고녀 학생들의 성적과 성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수원고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성적평가

수원고녀 학적부는 2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성적 및 성행평가는 제2면에 기록되었다. 16 과목의 과목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취득한 점수가 기록되고 이에 대한 합계·평균·석차가 기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학과목 총점에 조행과 체위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이를 종합 득점과 종합 석차로 한 것이다. 후술할 바와 같이 조행이란 태도와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평가자인 교사의 주관적인 입장이 가장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 점수화하여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체위 또한 개인마다 타고난 신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모두 체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점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4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된 1943년부터는 성적을 100점 만점이 아닌 수·우·양·가 4등급으로 평가하였는데, 1941년 입학한 3회 졸업생이 3학년 2학기가 되는 1943년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sup>26</sup> 이때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조행을 수련으로 바꾸고, 체위는 점수화하는 대신 학기 말에 작업, 즉 근로의 적합성 여부를 관정하여 ‘작업적(作業的)’으로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1943년부터 ‘조행선량상’과 ‘체위우수상’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가 제4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면서 전시동원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과 과정에 수련과 근로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련의 목적은 행동을 수련하여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발양하고 헌신봉공(獻身捧供)하는 실천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고, 근로는 후술할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이 치열해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막바지로 치달리던 시기에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수원고녀의 성적 평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1회 졸업생의 3학

<sup>26</sup> 이는 제4차 「조선교육령」 체제에서 성적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덕고녀의 경우도 동일하였다(김명숙,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1945년 동덕고등여학교 학적부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78, 2011, 254~255쪽).

년 1학기 성적을 샘플링하여 조행과 체위가 점수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석차와 점수로 포함되었을 경우의 종합 석차 사이의 등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표 4> 석차와 종합 석차의 등위 변화 비교<sup>27</sup>

등위 변화	-34	-16	-13	-9	-7	-6	-5	-4	-3	-2	-1	0	1	2	3	4	5	6	8	10	12	15	
한국 학생	·	2	1	·	2	·	3	2	1	3	2	1	3	1	1	1	·	·	·	2	1	·	
	16											1	9										
일본 학생	1	·	1	1	·	1	1	1	1	·	2	4	1	2	2	3	1	2	1	·	1	1	
	9											4	14										1

<표 4>에서 보듯이, 조행과 체위를 성적으로 포함하였을 때 1회 졸업생 53명 중 등수의 변화가 없는 학생은 5명(일본 학생 4명과 한국 학생 1명)뿐이었고, 나머지 48명은 많게는 34등이 떨어지거나 15등이 오르는 등 최종 성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등수가 올라간 학생은 한국 학생의 경우 9명인 반면 일본 학생은 14명이었고, 등수가 낮아진 경우는 한국 학생이 16명인 데 비하여 일본 학생은 9명이었다. 이는 학과목 성적 총점에 조행 및 체위를 성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일본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인 교사들은 교사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조행과 체위 부분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업성적과 조행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회 졸업생의 3학년 1학기 성적을 샘플링하여 10등 간격으로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 5>에 따르면 성적과 조행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업 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의 경우 조행 성적도 상위 점수를 받았으며, 성적이 하위그룹인 학생들은 조행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 학생들의 경우 조행의 상위 점수인 91~100점이 4명(14.8%), 81~90점이 13명(48.1%)으로 전체의 62.9%가 상위 점수를 받은 반면 한국 학생의 경우는 91~100점이 1명(3.8%), 81~90점이 10명(38.5%)으로 전체의 42.3%만이 상위 점수를 받았다. 즉 일본인 교사들은 조행평가를 통하여 일본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의 학업우수상과 급장·분

27 <표 3>에서 0은 등위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는 종합 석차의 등위가 향상된 것을, -는 종합 석차의 등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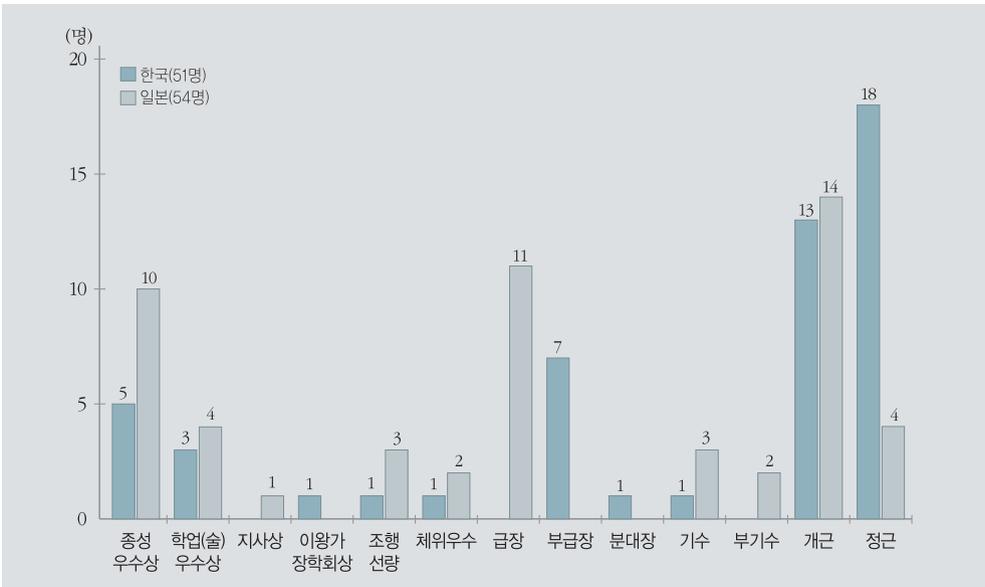
〈표 5〉 성적과 조행의 상관관계

(단위 : 명)

조행성적 석차	100~91점		90~81점		80~71점		70~61점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10	1	4	2	3				
11~20				3	3			
21~30			7	5	4	1		
31~40			1	2	2	4		
41~50					4	4	1	1
51~53							1	
계	1	4	10	13	13	9	2	1

대장·기수와 같은 학급 리더를 임명할 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그림 10〉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0〉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학 중 학업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종합성적우수상과 학업(술)우수상의 경우 일본 학생이 14명인 반면 한국 학생은 8명에 불과하였고, 새로 신설된 조행선량상과 체위우수상의 경우도 일본인은 5명인데 한국인은 2명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성적에 조행이 점수로 포함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급장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였으나, 급장은 일본인만 할 수



〈그림 10〉 1·3회 졸업생의 수상과 학급 리더의 한·일 학생 비교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인은 급장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부급장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28</sup> 이는 <그림 10>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급장 출신 11명이 모두 일본 학생이었고, 한국 학생의 경우는 7명이 모두 부급장만 하였다.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지사상과 이왕가장학회상 중에서 최고의 상인 지사상은 일본 학생에게 수여하고, 한국 학생의 경우는 이왕가에서 수여하는 장학회상을 수여하였다. 기수와 부기수의 경우도 한국 학생은 1명뿐이고 일본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개근과 정근의 경우, 개근은 한·일 학생이 엇비슷하였으나 정근의 경우는 한국 학생이 더 많았다.

## 2) 성행평가

학생의 성행(性行) 즉 성품과 행동에 대한 평가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일상생활을 총괄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각과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가령 기질 평가에서 동일 학생에게 3학년 담임 A교사는 ‘불평가’라고 평했는데, 4학년 담임 B교사는 ‘온순’하다고 평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수원고녀 1·3회 졸업생 학적부에는 학년마다 담임교사가 성행을 기질, 지조, 언어, 거동, 총괄, 취미·습벽, 기타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성행 중 기질에 대한 평가를 한·일 학생으로 구분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표 6>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기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표현에 비해 부정적 표현이 더 많은데, 긍정적 표현은 일본 학생이 더 많고, 부정적 표현은 한국 학생이 더 많았다. 특히 한국 학생에게는 강성·제멋대로·내성적·이기적·방종 등의 강한 의미의 부정적 표현을 많이 썼다.

<표 7>은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성행 중 지조에 대한 평가를 한·일 학생으로 구분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타낸 것이다. 지조와 관련된 평가를 보면 긍정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보다 훨씬 많은데, 지조에 대한 평가에서도 일본 학생은 긍정적 표현이 많고, 한국 학생은 부정적 표현이 많다. 특히 한국 학생의 경우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파렴치’ 하다가나 ‘소극적’, ‘우유부단’ 등은 한국 학생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표현이었다. 이는 수원고녀의 경우 일본인 여학생을 위한 학교였으

<sup>28</sup>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71쪽.

〈표 6〉 1·3회 졸업생의 기질에 대한 평가

구분		한국 학생	일본 학생
긍정적 표현	담박	1	
	질박		1
	진면목	2	5
	명량	3	2
	쾌활		4
	진취		3
	명쾌	2	
	열심		2
	온량	10	6
	온순	9	11
	온화	2	
	온후		2
	유화		1
	순종	4	2
	계	33	39
부정적 표현	강성	1	
	개인적, 제멋대로	3	1
	이기심	2	
	방종	2	
	허영심	1	1
	경솔	1	
	불평가		1
	고독		1
	내성적	3	
	소심		2
	둔완	2	
	지둔		4
	무애교		2
	무애상	2	
	박지(薄志)	2	
	비굴		1
	사기(邪氣)		1
	온사(溫邪)		1
	계	19	15

므로, 후술할 바와 같이 일본 학생에 비해 일본어에 유창하지 못했던 한국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평가라고 생각된다.

〈표 7〉 1·3회 졸업생의 지조에 대한 평가

구분		한국 학생	일본 학생
긍정적 표현	근면	2	
	근직	4	2
	독실		4
	질박	2	
	착실	1	2
	정숙	2	
	침착	2	
	진면목	6	8
	친절		1
	정직	2	4
	노력	4	2
	열심	8	14
	성의		2
	진취적		2
	확고한 의지		2
	냉철한 결단력	1	
	확실		1
계	34	44	
부정적 표현	경박	1	2
	진면목 없음	2	1
	조루(粗漏)	1	
	도량 좁음		2
	의지 약함		1
	소극적	4	
	우유	2	
	겉과 속이 다름	6	3
	파렴치	1	
계	17	9	

〈표 8〉은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거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거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보다 많았고, 한·일 학생을 비교해 보면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는 엇비슷하였다. 다만 학생의 거동을 상품(上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인데, 한국 학생 4명만이 상품으로 평가될 정도로 일본인 교사의 눈에도 한국 학생들의 거동이 최상의 모범생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성행평가 중에서 언어(일본어)에 대한 평가를 보기로 한다. 일제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령하여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의 전시동원을 위한 동화정책을 강화

〈표 8〉 1·3회 졸업생의 거동에 대한 평가

구분		한국 학생	일본 학생
긍정적 표현	경쾌	4	8
	쾌활	1	
	민첩		1
	활발	1	3
	단려(端麗) <sup>29</sup>	2	2
	단정	5	4
	온아	2	
	정숙	2	
	침착	6	8
	평정	2	2
	명료		1
	확실	1	
	상품(上品)	4	
	계	30	29
부정적 표현	경조(輕躁) <sup>30</sup>		3
	조급		1
	불손	2	
	조야(粗野) <sup>31</sup>	8	6
	조포(粗暴) <sup>32</sup>		1
	교언(巧言)		1
	다변	2	
	둔중	8	4
	불활발	2	9
	계	22	25

하면서,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었다. 이어 1943년부터 시행된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선택과목으로나마 남아 있던 조선어를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대신 일본어를 국어로 격상시켜 일상생활 전반에서 일어 상용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고등여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총 32시간의 수업 중에서 일본어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였다.<sup>33</sup>

수원고녀의 일본인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는 물론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끼리 한국어를

29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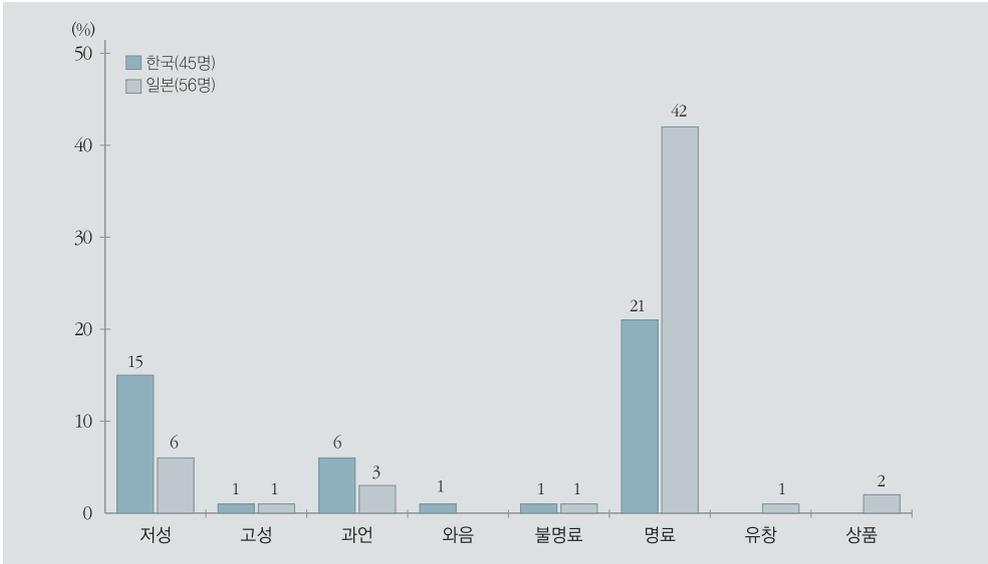
30 성미가 급하고 행동이 경솔하다.

31 거칠고 상스럽고 막돼먹었다.

32 행동이나 성격이 매우 거칠고 사납다.

33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17쪽.

사용하는 것을 보면 벌을 주기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sup>34</sup> 이런 가운데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언어 능력은 저성(低聲), 고성(高聲), 과언(寡言 : 말수 적음), 와음(訛音 : 표준 발음에서 벗어남), 불명료, 명료, 유창, 상품(上品)으로 구분하여 평가되었다.<sup>35</sup> <그림 11>은 수원고녀 1·3회 졸업생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한·일 학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1·3회 졸업생의 일본어 구사능력 비교

<그림 11>에서 보듯이 수원고녀 1·3회 졸업생 101명 중 명료·유창·상품으로 평가될 정도로 일본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총 68명으로 전체의 63.3%였다. 반면 일본어에 유창하지 못하여 목소리가 낮거나(低聲) 높은 것(高聲), 말수가 적은 것(寡言), 표준 발음이 아닌 것(訛音), 불명료 등으로 평가된 학생은 33명으로 전체의 32.7%였다. 일본어 구사 능력을 한·일 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일본 학생은 전체 56명 중 45명(80.4%)이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반면, 한국 학생은 45명 중 21명(46.7%)만이 일본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다. 당시 일본어 사용이 학업성과 직결되었음을 고려할 때 일본어가 모국어인 일

34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69쪽.

35 저성(低聲), 고성(高聲), 과언(寡言), 와음(訛音)은 일본어 구사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일본어에 유창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 학생들과 경쟁하였던 한국 학생들에게 한·일 공학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던 셈이다.

## 5. 수원고녀생의 학교생활<sup>36</sup>

수원고녀의 학생들은 제3·4차 「조선교육령」하에서 황국신민화 정책과 전시체제의 국민양성 교육으로 혹심한 수난을 당한 불행한 세대였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학생들에게 단발령을 내리고,<sup>37</sup> 각종 학교 단체에 사상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38년 모든 학교에 군가를 보급하도록 지시하여, 노래로써 숭무정신(崇武精神)을 고취시키 고자 하였다. 또한 민족말살책을 강행하던 일제는 1938년 4월부터 각종 사립학교의 교 기·교가·응원가 등을 모두 일본어로 고쳐서 부르게 하였다. 수원고녀는 수원 거주 일본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학교였던 만큼 가정여학교 시절부터 일본어로 된 교가를 사용하였다.<sup>38</sup>

한편 일제는 조선 강점 후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곳곳에 신사(神社)를 세우고 한국인들에게 강제로 참배하게 하였다.<sup>39</sup> 수원의 경우는 조선의 정신적 상징인 향교 위 팔달산 중턱(현 시민회관 자리)에 수원신사를 세워, 조선인의 신성성과 상징성을 파괴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당시 팔달산 남쪽에 있던 일본인 소학교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와 팔달산 중턱의 수원신사는 수원의 일본인사회를 지탱해 주는 정신적 구심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추도회를 수원신사에서 거행하거나,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운동회를 통하여 수원 지역 일본인들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하였다.<sup>40</sup> 당시 수원고녀 학생들은 매월 15일 전교생이 오전 수업을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였다고 한다.

1942년부터는 근로봉사대란 명목으로 학교를 전력 증강의 봉사자로 삼아 학생들을 모

36 일제강점기 수원고녀생의 학교생활은 학적부만으로는 재구성하기 곤란하여 주로 『수원여고 50년사』, 69~73쪽을 참조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를 달지 않았다.

37 「專門學生 斷髮令! 머리는 뽀뽀 깎고 사치관념을 소토록, 學務局 各道에 通牒」, 『동아일보』, 1937년 11월 6일; 「學園に描く 非常時風景 全學生に斷髮令, 同時に禁酒, 禁煙も 實行 生徒主事 會議で申合す」, 『大阪朝日新聞』(朝鮮板), 1937년 11월 7일.

38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부록, 1986, 506쪽.

39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부터 신사참배를 장려하여 패망 직전인 1945년 6월까지 신궁(神宮) 2곳, 신사(神社) 77곳, 면 단위에 건립된 보다 작은 규모의 신사 1,062곳을 세웠다. 당시 신사참배에 동원된 인원은 조선신궁 참배자만도 1940년에 약 215만 9,000명, 1942년에는 약 264만 8,000명에 이르렀다(국성하, 「일제 강점기 동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선신궁의 건립과 운영」, 『한국교육사학』 26-1, 2004).

40 한동민,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수원학연구』 3, 2006.

내기, 김매기, 타작 그리고 비행장 및 고사포 진지 구축 작업 등에 몇 개월씩 동원하였다. 근로는 태평양전쟁이 치열해지고 일제의 식민 지배가 막바지로 치달리던 시기에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44년부터는 모든 학교의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동원하여 전비 및 군비 지원에 노예화되었다.

당시 수원고녀 학생들은 학교 정규과정의 수업시간보다도 더 많이 근로에 동원되었다. 근로 동원은 분대 및 소대를 편성하여 소대장·분대장을 두고 그 규율은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1943년 고등동으로 이전한 수원고녀는 교정이 울타리도 없는 상태여서 운동장이 넓다 보니, 학교 당국은 운동장에 밭을 일구어 학생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 분단별로 대표학생을 선발하여 책임을 지고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분단별로 각종 야채를 길러 품평회를 하여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의 근로에 동원되었는데 수원고녀생들이 많이 동원된 근로를 보면, 농사 시험장에 가서 눈에 뿌린 법씨를 일정 간격으로 떼어 놓기, 고구마 밭 복돋우기, 과수원에서 사과·복숭아나무에 올라가 서로 붙은 열매 쏘아 내기, 과수원 마당 풀 뽑기, 잠사시험장 뽕잎 따기, 비행기에 쓰이던 군수품인 운모<sup>41</sup>를 갈로 저며 얇은 조각으로 떼어내기, 산에 가서 항공기 부속으로 필요한 관솔 따기 등이었다.

이 외에도 2차 세계대전이 임박해지자 일제는 전교생을 수원비행장에 동원하여 비행기를 적으로부터 은폐시키는 데 필요한 ‘새끼망’을 하루 종일 엮게 하였는데, 해당 일에 다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도 계속하였다. 그런가 하면 트럭이나 탱크가 흙탕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작을 반으로 쪼개 뗏목처럼 엮는 작업과 같이 여학생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근로 동원을 감내해야 하였다. 가미가제특공대(神風特攻隊) 출격 때는 전교생이 동원되어 환송행사를 하는 등 2차 세계대전 말기의 교육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일제는 국민총동원체제에서 근로 동원사업에 동원된 전국의 여고생들에게 전시체제에서 근로작업에 편리한 ‘여고생 국민복’<sup>42</sup>을 입도록 강요하였다. 수원고녀 학생들은 검정 세루(セル) 양복에 흰 칼라를 단 교복이 있었으나 평상시는 입지 못하고 기념일과 수요일 조퇴시간에만 교복을 착용하였다. 일제는 여학생들의 하루 학교생활의 과반 이상을 근로 작업 및 반공훈련에 동원하면서 평상시는 늘 일본식 몸빼(もんぺ) 차림으로 등·하교하

41 운모는 화강암에 많이 들어있는 규산염 광물의 하나로, 육각의 판(板) 모양을 띠며 얇은 조각으로 잘 갈라지는 성질이 있다. 특히 백운모는 유리 대용이나 전기 절연체로 널리 쓰였는데, 일제는 이를 비행기에 사용하였다.

42 여고생 국민복은 상의의 품을 풍성하게 하여 밴드를 매고 소매는 커프스에 단추를 꿸으며, 수세미형 옷깃에는 흰 천을 덧대고 폭이 넓은 치마를 입었는데, 교복치마는 나중에 바지로 바뀌었다.



〈그림 12〉 농사에 근로 동원된 수원고녀생들(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그림 13〉 운모공장에 근로 동원된 수원고녀생들(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규율은 무척 엄격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재봉시간에 검은 천으로 만든 보조가방에 방독모자와 비상약품, 붕대, 삼각 끈을 항상 넣어 메고 다녔으며, 종례 후에는 자기 의자에 걸어 놓고 귀가하였다.

이처럼 근로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체력을 강조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체력검정시험(현 체력검사)의 경우 여학생들이 4kg의 모래배낭을 지고 수원에서 군포까지 약 3km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녀오지 못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체육시간에는 팔달산 성벽단 오르기, 모래주머니 양쪽에 들고 달리기, ‘나기나라’ 체조<sup>43</sup> 등을 연마시켰다.

43 1.5m 정도의 박달나무로 만든 창칼 모양의 나무로 적을 찌르고 베는 모양의 체조이다.



〈그림 14〉 전시에 대비 응급법 익히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교정에는 18대의 자전거를 구입해 놓고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자전거를 타도록 권장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보로 통학하였으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가을 운동회에서는 무용·육상경기·궁도·자전거타기 등 다채로운 종목의 운동경기가 진행되어 학부모 등 관람객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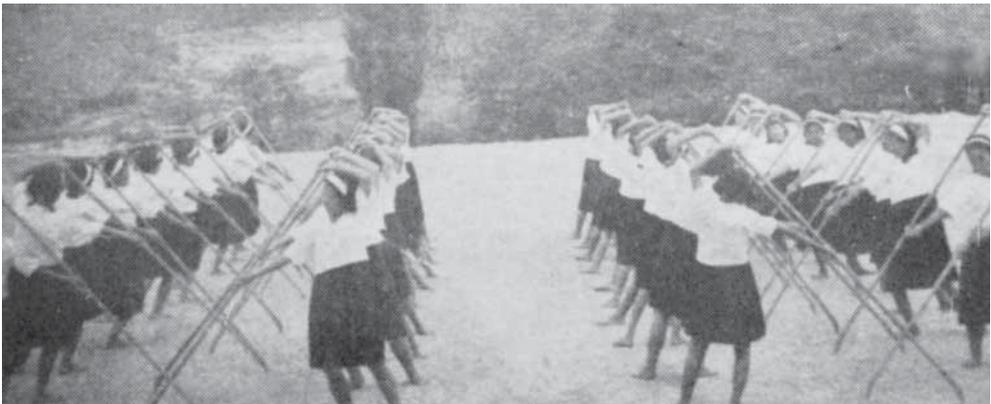
일제의 민족말살책의 완결편은 창씨개명정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황민화정책의 하나로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를 개정하여 조선인의 관습에 없던 일본민법의 핵심 제도인 ‘씨(氏) 제도’를 조선에도 도입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40년 3월 25일, 모든 학교를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입하게 하고, 각 학급에 애국반을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창씨개명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신고마감 기일인 1940년 8월 10일까지 ‘일본식 씨’를 만들어 창씨를 신고한 조선인 호주는 80.3%에 이르렀다.<sup>44</sup> 당시 창씨에 불응하면 취직이나 직장 이동 등 모든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학생들은 입학과 전학을 거부당하였으며, 교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도 질책과 구타를 당할 수 있었다.<sup>45</sup>

44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45-4, 2005, 32쪽.

45 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 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31, 2007, 54쪽.



〈그림 15〉 궁도(弓道) 교육(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그림 16〉 장도(長刀) 교육(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창씨개명 신고 마감일이 1940년 8월 10일이었으므로, 1941년 수원고녀 3학년으로 전입 학한 1회 졸업생과 1941년 수원고녀 1학년으로 입학한 3회 졸업생 중에서 한국 학생들의 경우 1941년 단계에서 이미 창씨개명을 한 상태였다. 1회 졸업생의 경우 1939년 입학할 당시에 창씨개명 이전이었기 때문인지 한국 학생의 경우 학적부에 일본식 이름을 쓰고 그 옆 괄호 안에 한국 이름을 기록하였다. 반면 1941년에 입학한 3회 졸업생의 경우는 1941년 입학 당시 이미 창씨개명이 완료된 시점이었으므로 일본 이름으로만 기록되었다. 수원고녀 1·3회 졸업생 중에서 창씨개명하지 않은 한국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는 일본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창씨개명한 경우에도 金→金本, 秋→秋本과 같이 자신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본관을 성으로 표기하는 '유사순응적 불응' 식으로 창씨 속에 우리 민족의 성씨제도를 담아,<sup>46</sup> 소극적 의미에서나마 일제에 저항의 뜻을 나타내는 정도였다.

## 6. 해방, 수원여고 그리고 청포도와 눈(雪)

해방 후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이 철수하자 일본인 학교였던 수원고녀의 학생들은 해방의 기쁨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혼란한 상황에서 방향에 빠지게 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제3·4차 「조선교육령」기에 여학교를 다녀야 했던 수원고녀생들에게 해방은 진정 한국인 학생들이 수원고녀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였으나, 해방 직전 수원고녀에는 일본군대가 진주하여 학생들은 수원공립심상소학교로 옮겨가 공부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당시 수원고녀 교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였고,<sup>47</sup> 아직 한국인 교장이나 교사도 정식으로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혼란기에 새 교장과 교사들이 부임하기 전까지 혼란과 방향에 빠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인물은 민병욱(閔丙昱)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민병욱의 지도하에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강당에서 책상 등을 일일이 어깨에 메고 들고 혹은 리어카에 싣고 운반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 후 초대 한국인 교

장으로 이덕상 교장이 부임하였고, 과목별 교사들이 부임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고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졸업 환송음악회가 성대히 개최되고, 학부모를 초청하여 재봉·수예·미술·붓글씨·시 등의 제1회 전시회도 가졌다. 학우회가 편성되어 문예부·과학부·미술부·음악부·체육부(농구·배구·정구·탁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화물열차와 덜렁대는 시골 버스를 타고 부여로



〈그림 17〉 1947년 학예회 후의 무용부 학생(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46 이경숙, 「학적부 분석 : 일제 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31, 2007, 54쪽; 구광모,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45-4, 2005, 46-49쪽.

47 1944년 입학생으로 2학년이 된 1945년에 해방을 맞았던 졸업생 이혜재의 학창시절 회고담에 의하면, 1943년 고등동으로 이전한 수원고녀의 교사는 마치 성냥갑같이 조그맣고 회색빛 시멘트벽으로 되었는데, 그나마도 경제난으로 반만 지은 채 이지러지게 붙어 있었다.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사방은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여 넓은 시냇 한 구석지에 선 외로운 의나무 위에 깃 드린 보금자리같이 풍취는 쓸쓸했으나 청초하고 소박한 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 1950, 27-28쪽).

수학여행도 가고, 간혹 만학도 중에는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재학생들이 모두 결혼식장에 몰려가기도 하였다. 당시 중년 부인들은 며느리감을 몰색하기 위하여 수원고녀 주변이나 교실 창 밖에서 서성대는 일이 허다하였는데, 여학교 2학년쯤 되면 며느리감 몰색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수원고녀는 경기 지역의 유일한 여학교였기 때문에 수원고녀생들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해방 후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수원고녀는 수원시 유일의 공립고등여학교로서 수원 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성장·발전하였다. 수원고녀는 1946년 6월 22일 4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학제 개정에 따라 6년제 수원공립여자중학교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1951년 9월 3년제 수원여자중학교와 수원여자고등학교로 분리·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수원고녀가 가장 먼저 부딪친 일은 일제의 잔재를 벗어 버리고 한국 여성을 위한 여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었으며, 이를 위해 수원여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1950년 창간된 수원여고의 교지명(校誌名)을 『청포도』로 정하고 “과이란 하늘을 향한, 싱싱한 젊음과 푸른 결실에의 푸른 꿈, 빛나는 모습”으로 의미를 부여한 점이나, 교표(校



〈그림 18〉 1955년 수원여자고등학교 제4회 졸업기념(정영순 제공)



〈그림 19〉 1950년대 수원비행장에서 개최된 지역 행사에 참여한 수원여고 합창단(정영순 제공)



〈그림 20〉 1950년에 발간된 수원여고의 교지 『청포도』 1호 (수원여자고등학교 소장)

標)를 순백의 ‘눈의 결정체’를 상징으로 한 점 등을 통하여,<sup>48</sup> 해방 후 수원여고의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해방과 함께 한국인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여학교도 점차 증가하면서, 수원여고는 이제 더 이상 수원 지역의 유일한 여자중등교육기관이 아니었다. 이에 수원여고는 해방 이후 지난한 자기 변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청포도와 순백의 눈을 상징으로 하면서 일본인 학교로서의 구태를 벗어던지는 데 성공한 경우였다. 해방 후 경기도 내에 많은 여자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수원여고는 일제강점기 수원고녀에 못지않

48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509-518쪽.

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수원여고 학생들은 청포도 동산에서 청포도와 같은 젊음의 푸른 꿈을 이상으로 삼고, 순백의 눈과 같이 순수한 여성의 자태를 배우며 자라나고 있다.



장용경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1. 1923년 동맹휴학 \_ 조선 민족의 의사 표시
2. 1928년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  
\_ 조선 농민혁명과 독립이라는 궁극적 목표
3. 1930년대 중반 독서회 \_ 무산혁명과 민족의식
4. 1930년대 말 ‘불온언동(不穩言動)’ \_ 동료정신과 조선 민족의 수호
5. 수원고농 학생들의 의식 변화



## 제4장

#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의식세계

이 글에서는 일제 식민지시기 수원고등농림학교에 다닌 조선인 학생들의 의식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의식세계는 어떤 물건처럼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 그들의 의식세계를 재구성해 볼 수밖에 없다.

개인 혹은 집단의 의식세계는 여러 차원에 걸쳐 있어서, 그에 접근하는 시선에 따라 포착되는 풍경도 달리 보일 수 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던 성(性) 문제나 연애, 중혼의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고, 취직이나 농업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와 근대라는 시대적 특질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시기에 대한 역사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민족-사회주의라는 일제시기 전형적인 문제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당시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그들 존재 자체를 규정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식민지시기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의식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1920~1940년대에 걸친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단순히 학생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에 대해 서술하기보다는, 무엇을 문제로 삼았는지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조선인 학생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실체화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작용하여 가능한 시기에는 언제나 운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운동과 의식이란 그것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의 구체성과 주체의 의식을 연결하여 서술함으로써 각 시대별 의식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의식을 독립이나 사회변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의 관련성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수원고농은 1918년부터 내선인(內鮮人) 공학(共學)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정책이나 선전, 일본인과의 접촉이 상시적이었다. 즉 식민지와 일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유대를 확인하였고, 일상화된 식민지를 극복할 적극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 1. 1923년 동맹휴학 \_ 조선 민족의 의사 표시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설립 및 교수진, 학생의 민족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이 글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25년 이후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 중 조선인은 조백현 단 한 사람만 있었을 뿐이며, 학생들의 비율도 일본인이 많고 조선인이 적었다는 점이다.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에는 조선인 학생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총독부와 학교 당국이 일본에서도 입학시험을 실시한 결과였는데, 이는 1918년까지 조선인 본위였던 학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교 성격의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다음 기사에 실린 조선인 학생들의 첫 운동이었다. 수원고농 조선인 학생의 집단맹휴사건은 19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자 기사에 의하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는 지난 삼일 정오에 조선인 학생 59명이 전부 동맹휴학을 하였다가 그 이튿날 충분한 양해로 원만이 해결되었다는데…… 그 학생층의 주장과 그 자세한 경과를 듣건대 조선인 학생 일동은 오래 학교에 대하여 적고 큰 불평과 일본인 학생에 대한 악감이 한두 가지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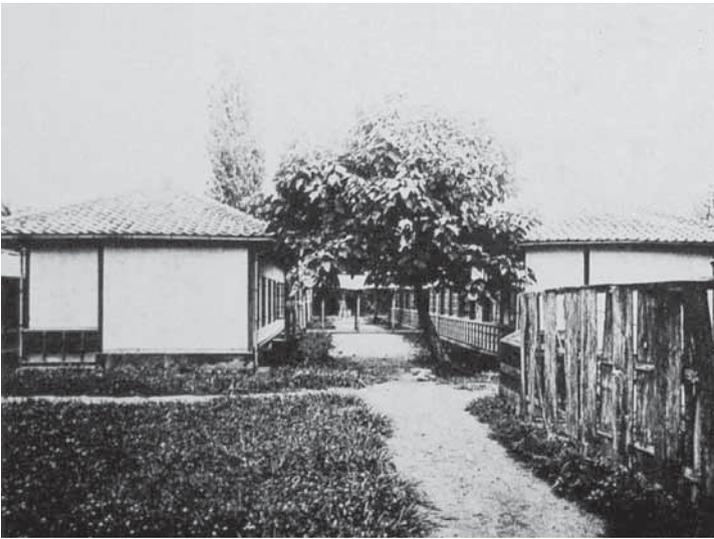
조선인 학생수가 많았던 초창기 수원농림학교(수원농림학교 교우회, 『교우회보』, 1918년)

나라는데 …… 데일 그 학교는 조선인을 본위 삼는 학교이건만은 지금 현상으로 보면 조선인 본위라는 것보다 **찰아리 일본인 본위라고 하겠으며**, 그 이유는 현급 재학하는 학생의 수가 일본인이 조선인의 사 배 이상이 된다 하며 목하 조선 사회에서 농림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수험자가 적은 또한 학교방침이 일본인을 본위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조선인에 태도가 냉정하면 그러하냐 함이요, 둘째로 기숙사 설비에 관한 것이니, 즉 현재 조선인 학생을 수용하는 소의 동료(東寮)라 하는 기숙사와 일본인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즉 서료와 비교하면 그 설비가 소양의 차가 있는지라 이것만 보아도 학교 당국자가 그 얼마나 조선인 학생을 차별하는지 …… 또는 **일본인 학생의 기숙사인 서료에 조선인 학생을 무리하게 강제로 입사케 함이니 ……** 내막의 이유는 일본인 학생 기숙사와 조선인 기숙사의 설비가 전기와 같이 한 번 보아도 얼는 알게 되었으므로 학교 당국자는 각 참관자에게 대하여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에 차별을 두지 안이 한다고 표방하는 구실을 삼고자 강제로 입사케 함이라더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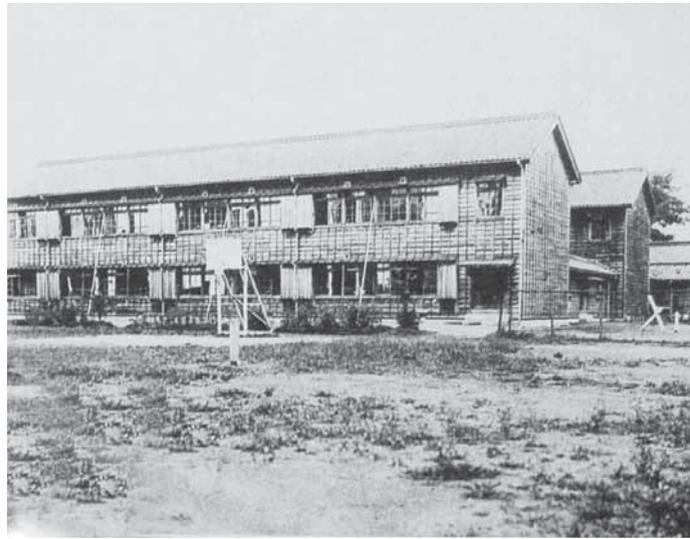
이 인용문에 나타난 조선인 학생의 집단맹휴사건의 원인은 첫째로 조선인 본위였음에

<sup>1</sup> 『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수원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수원 관련 기사 자료집』, 2011, 52쪽에서 재인용). 오타자로 보이는 인용문은 [로 수정하였다.





농림학교 구료(수원박물관 소장)



농림학교 신료(수원박물관 소장)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인 = 선(善)·정(正)’, ‘조선인 = 악(惡),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조선인은 일본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과 습관이 맞지 아니하는 일본 음식을 먹이는 동시에 조선 음식은 내음새가 나쁘니 더러우니 하여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태도는 바로 1910년대 일제의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작은 차원에서 모방한 것인데, 이는 조선에 대한 병합을 조선에 대한 구제로, 조선인의 민족적 동화정책을 은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선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습도 정당화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1923년 5월 조선인 학생 59명이 연명 날인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1923년 4월 28일 도쿄제국대학 교수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의 강연이었다. 이 강연 내용이 조선인 학생들에게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 것이다.

자기가 이왕 남양군도에 갔다 온 시찰담을 가지고 강연할 당시에 영국이 세이톤에 대한 식민정책은 즉 부력박탈주의(富力剝奪主義)를 써서 세이톤 사람은 모다 굴며 죽게 하며 화란이 자어파에

2 「조선 김치도 못 먹게」, 『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 석간(수원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수원 관련 기사 자료집』, 2011, 53쪽).



나카이 다케노신

대한 식민정책은 지식고맹주의(知識枯盲主義)를 써서 자어파 사람은 모다 지식이 없는 몽매한 인종을 만들나는 토인종 박멸책을 쓰나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책은 이와 달나 일시동인하에 산업이며 교육이며 모든 시설이 모다 문화정치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조선인은 반동을 일으키며 독립을 운동하느냐 하며 ……<sup>3</sup>

나카이 다케노신은 도쿄대 식물학자로, 조선 식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이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바도 있는 사람이다. 나카이 다케노신의 강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① 조선인은 남양군도의 세이톤이나 자어파와 같은 몽매한 토인종이고, ② 일본은 여타 식민지와는 달리 조선에 대해서는 산업과 교육에서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③ 일본인 학생들은 이에 대해 박수를 침으로써 그러한 인식에 동조한다는 뜻을 표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인 학생들은 무한히 흥분하여 박수갈채를 하며 미쳐 날뛰는 반면에 일반 조선인 학생들은 기운 없이 머리를 수그리고 나온 후 무한히 분하” 게 여기는 구조가 1920년대 초 수원고농 학생들의 의식세계의 분할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선인 학생 김재석이 탁구를 치다가 일본인 학생에게 난타당하는 것을 도화선으로 하여 동맹휴학이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설립한 취지를 본받아 조선인을 본위 삼아 조선인 학생을 다수히 모집하고 따라서 일본에서 거행하던 입학시험장을 폐지할 일
2. 조선인 학생의 기숙사는 조선인을 본위 삼아 지금히 새로 건축할 일
3. 서류에 일본인과 함께 있는 조선인 학생은 지금히 동료로 옮길 일
4. 만찬회를 폐지할 일
5. 교수 일반은 조선인 학생에게 대하여도 진실한 태도를 가질 일
6. 강연은 단순한 학술적 강연만 한하여 하고 정치적 강연은 하지 말 일<sup>4</sup>

3 「박사강연이 도화선, 조선사람에게 감복을 바드라다가 도리어 학생들의 악감만 일어나게」, 『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 석간(수원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수원 관련 기사 자료집』, 2011, 54쪽).

4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조선인학생 동맹휴학의 내막」, 『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 석간(수원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수원 관련 기사 자료집』, 2011, 53쪽).



탁구를 하고 있는 수원고농 학생들(제22회 수원고농 졸업기념 앨범, 1942, 서울대 농학도서관 소장)

이 진정서의 내용은 강제적인 동화 및 정서적 자극을 하지 말아 달라는 온건한 요구였다. 그래서인지 신문에서는 하루 만에 ‘원만히 해결’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서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담론구조에 대항하여 일어났다는 그 행위성에 있다. 조선인 학생들의 요구와 행동은 1910년대 일본의 일시동인이라는 식민정책의 본질을 여실히 폭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의 불만은 1918년까지 조선인 본위로 운영되던 학교에 일본인이 대거 입학하면서 빚어진 학교의 성격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성원의 변화는 말 그대로 조선의 병합 10년 만에 일본인 위주로 변한 조선이라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10년대는 일본인 위주로 된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조선인 관습이 총독부의 규칙 등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 관습을 박탈함으로써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조선인의 안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무단적인 것이었다. 조선인 학생을 서료에 살게 한다든지, 김치를 먹지 못하게 한 행위는 조선의 땅을 정복한 일본이 조선에서 조선인에게 행한 정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동맹휴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맹휴학에 불을 지른 것은

도쿄제국대학 교수 나카이 다케노신이 조선인을 야만시하고 일본인의 무단적 행위를 일시동인 및 문화정치로 정당화한 것이었다. 피정복의 처지이기 때문에 당하는 배제와 억압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복자들의 약탈행위에 대한 정당화와 조선인에 대한 무시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고농의 동맹휴학은 일제의 정당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실천적 담화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인 학생들의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수원고농에서 벌어지는 일본인 위주의 동화정책과 그에 대한 정당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식민지 지배에 묵종하지 않는다는 ‘민족적 의사의 정당한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1923년 동맹사건은 수원고농 안에서 일어난 3·1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흔히 1926년 동맹휴교사건을 조선인 학생들의 운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김찬도가 회상기에서 수원고농 내에서의 민족주의가 순종 인산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단기 4259년, 기억도 새로운 6·10만세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당시 동경을 거쳐 홍수처럼 밀려드는 좌익사조에 휩쓸린 고농학생 중엔 이미 열중된 4-5명이 일인의 공명학생과 더불어 독서구락부 같은 것을 조직하였고, 또 한편 대부분의 학생은 마비된 국가의식의 가면을 쓴 채 민족적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고농을 졸업하고 일제 관문에 취직하면 단번에 관입관을 얻는 형편이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민족정신과 실제적인 민족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인 단기 4259년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인산을 당하여 우리들은 조국을 그리는 마음 끝에 학교 당국에서도 슬그머니 휴학을 인정해 주었고, 6월 10일 인산무전에도 상경 참석하여 조국의 비운에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sup>5</sup>

이러한 김찬도의 기억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순종의 인산을 계기로 한 고농생들 간의 민족의식이 싹트고, 이를 통한 자기 생활의 반성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흔히 설명하듯이, 이러한 계기가 1926년 6월 말의 동맹휴학을 단행케 한 것은 아니었다. 1926년 동맹휴학은 민족운동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고, 조선인 학생만이 아닌 일본인 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학내 문제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926년 6월 25일자 기사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이백여 명은 오전 9시에 학교 당국과 총독부 학무국에까지 대표 두 명을 선정하여 세 가지 조건으로 진정서

5 김찬도, 「조국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0~171쪽.

를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고 하였다. 여기서 진정한 3가지 조건은 ① 다카기(高樹)·와다(和田)·사이토(齋藤) 등 3명의 교수를 배척할 것, ② 학교 교사를 신축할 것, ③ 3학기제를 2학기제로 개정할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교 당국은 6월 25일 전 교 학생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기숙사를 철폐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학교 당국자인 핫타(八田) 교수는 “시험제도 개정 요구와 교수 배척 등에 대하여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직히지 아니하고 방약무인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말하고는 형편에 의하여는 폐교를 하여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성명하였다. 학교 측의 기숙사 폐사와 학생 본분 운운으로 일반 사회의 여론은 비등하게 되었는데, 『조선일보』 6월 30일자 사설은 그 예이다.

근자 관립 제 학교는 거의 모다 일본인 본위로 되어 있다. 농림학교는 그중에도 가장 이 방침을 단행하여 매년 입학의 시기이면 교무 당국자가 일부러 일본에 도항하여 각지에서 지원자를 초모(招募) 권유할 썸이오, 그러치 않더라도 일본인의 입학자를 백방으로 증식케 하여 조선인에 대한 대다수를 제하게 함이 그 상태이오, 학교 내의 시설, 특히 기숙사의 설비 같은 것도 조선인과 일본인을 따라 매우 틀리는 바 있게 하니 조선인 학생의 거처가 비습협착(卑濕狹窄)함으로 보건에 불리함 같은 것은 일즉 정평이 있는 바이요, 조선 학생에게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 인하여서도 때로 분의의 거리가 되는 바이었으며, 졸업자의 취직에 관하여서도 우월권을 가지게 되는 일본인에 의하여 조선인은 스스로 낙후되는 사정이었으며, 기타 일반의 행사가 **모다 일본인 중심으로 되어 소수인 조선인 학생으로는 거의 내하(奈何)치 못할 경우에 잇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학교에서 일본인 학생을 다수로써 한 일대 소동을 보게 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sup>6</sup>

이 글에서 “모다 일본인 중심으로 되어 소수인 조선인 학생으로는 거의 내하(奈何)치 못할 경우에 잇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생이 동맹휴학을 주도한 것은 민족별 문제를 떠나 학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하튼 1926년의 수원고농 맹휴사건은 7월 3일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전부 들어주기로 하고, 교수 배척문제는 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한다.<sup>7</sup>

6 「사설」, 『조선일보』, 1926년 6월 30일.

7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水警高秘 제465호, 『水源高等農林學校盟休事件=關スル件』(1926년 6월 26일 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을 참조.

## 2. 1928년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

### — 조선 농민혁명과 독립이라는 궁극적 목표

물론 우리들로서는 비타협이 절대적 신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시적 생활방편으로써는 무엇이라도 할 방법이 없다. 선천적으로 '브로'의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호구의 책은 당분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오직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만약 이렇게 의식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는 어떠한 곳에 있다고 해도 우리들 대가(大家)에 다분한 이익을 줄 것이 사실이다. 만약 우리들로서 반동화된 정신으로 현 기관에 부식(付蝕)된다면 이는 얼마나 큰 문제일까? 만약 대가적(大家的) 의식으로서 자아를 망각하는 일 없이 현 기관에 부식된다면 오히려 발효작용을 하는 데서의 효모와 마찬가지로 현 기관을 파괴하는데 내외의 연락에 내적 정찰(偵察)에 …… 중요한 이익이 되는 기회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8</sup>

1928년 5월 21일, 수원고농 농과 3년생이던 우중휘는 그해 학교를 졸업하고 김해의 보통학교 훈도로 있던 김성원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의 편지 첫 구절에 편지 잘 받았다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김성원이 수원고등농림학교 후배들에게 자기의 근황과 사회에 나가서의 내면적 갈등을 적어 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 진출 후 김성원의 갈등이란 마음에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제의 기관에서 일해야 하는 고충이었을 것이다. 우중휘는 그러한 선배의 고민에 대해 “의식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는 어떠한 곳에 있다고 해도 우리들 대가(大家)에 다분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로 위로하면서, “김형(兄)과 제(弟)와의 교제가 1~2개월이 아니고, 또 고농 동지와 형과의 처분도 일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양해와 동지로서의 신(信)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는 회신을 보내고 있다.

우중휘는 이 인용문에 이어 기숙사 생활의 일단을 알려 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고 있다.

(관독 불능) 조기회(早起會)는 지금 신입생도 조선인이기만 하면 전체 의무로 입회시키고, 농사(農社)는 이사별(理事別)로 조직 변경 이래, 물론 전체 가입이고, 이사는 5인입니다.

야학도 종전, 아니 배(倍) 이상 대성황입니다. 담화회는 식회(食會) 근본정신을 □□□□ 신규 및 강령하에 료내(寮內) 최고 기관이 되었고, 건단(健團)도 물론 종전과 같이 탐승모험실

8 이 자료를 포함하여 앞으로 인용될 자료는, 1928년 9월 14일 수원경찰서가 경기도경찰부와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등에게 보고한 『水源高等農林學校鮮人學生朝鮮獨立運動其他=關スル件』(국사편찬위원회 소장)으로 편철된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습을 하고, 기타 정신적 수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왕년 '베삭(벼삭: 필자) 부활도 곧 가능하여 4-5면 간행하고(물론 등사로 비매품) 있어, 매사가 점점 발전하고 진술도 점점 묘(妙)하고, 처리도 점점 명묘(明妙)합니다. 실로 사회 진화의 원인에서 보면 여실한 과정을 지나 최단계까지 도달하기 시작해야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금은 기가(敍家) 출입이라던가 기타 방탕 기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식과자주의(非食菓子主義)도 전반화되어 …… 신입생도 우리들 자래(自來)의 기분을 조금도 어김이 없고 …… 지금은 1, 2, 3학년 각각 1명씩 합거(合居)합니다. 실향(室割)변경에 의한 학년 간의 갈등도 없어졌고, 반동세력도 드디어는 머리를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합은 일사천리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意思)가 어느 점에서 상(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9</sup>

우중회가 편지에서 언급한 수원고농의 상황은 앞의 김찬도의 회상과 비슷한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인 학생 전체 모임인 담화회가 있어서 조선인 료내의 최고기관이 되었고, 조기회에도 조선인 학생 전체가 가입되어 있다. '건단(健團)'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야학은 종전보다 더 번영하고 있다. 학생들 간의 알력도 없어졌고, 조선인 학생 중의 반동분자도 머리를 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수원고농 내에 조선인 학생들이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기강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김찬도, 우중회의 취조에 따르면 고농 선인 학생 일반이 품고 있는 사상은 대체로 판명되었지만, 그들은 학교 당국의 승인을 얻어 학생 간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 또는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하여 조기회를 조직하여 조선인 학생 전부를 가입케 하여 오던 중 ……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하여 학교 당국 몰래 …… 조선농민사 및 동경부의 전문학교 이상의 조선인 학생으로 조직되고 민족의식에 입각하여 조선 농촌의 개발은 조선인 스스로의 힘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선농우연맹에 조선인 학생 전부가맹시키고 그 지부를 고농 교내에 두고 ……<sup>10</sup>

즉 표면단체를 앞세워 조선인 학생을 조직하는 한편, 그 이면으로 조선농민사·조선농우연맹의 지부에 가입하여 조선 민족운동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거론된 단체 및 회합에 관련한 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중회의 편지에서 '건단'이라고 표현한 단체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인용문은 경찰자료에 들어있는 건아단 강령

9 수원경찰서, 『水源高等農林學校鮮人學生朝鮮獨立運動其他=關スル件』, 1928(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에 쪽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0 수원경찰서, 『水源高等農林學校鮮人學生朝鮮獨立運動其他=關スル件』, 1928(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다.

「건아단 강령」(4261년 6월 3일)

본회는 신조선(新朝鮮) 건설을 목표로 문약(文弱)의 폐풍(弊風)을 일소하고 상무적(尙武的)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

조직

위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함.

1. 유도부
1. 권투부
1. 탐험부
1. 매점과의 거래는 금지할 것(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 (중략)
4. 제일조를 위반한 자는 벌금 10전을 징수함. (중략)
6. 고재천(高在千) 씨에게 회계 임무를 겸임시킴.

이 강령을 보면 건아단은 조선인 학생으로 구성된 운동조직으로 유도부, 권투부, 탐험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운동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신조선 건설’이라는 민족주의를 목표로 한 단체임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점은 매점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10전을 징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왜 그러한 규정이 들어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한편, 4261년 4월 14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건아단 회의록이 경찰자료에 같이 실려 있는데, 이 회의록에는 “신입생 입단 권유의 방법을 결의, 단장, 각 부장이 담당하여 권유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매점과의 거래는 금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건아단 조직이 단순한 동호회 차원을 넘어 집단적 합의하에 조직되었으며, 그 가입도 개인 의사만은 아니었다는 정황을 추측케 한다.

한편 담화회 회칙에는 “회의 목적은 본회 회원의 상호 친선과 정신상 훈련을 꾀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회, 연구회, 신입생환영회, 졸업생송별회”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수원고농 조선인 학생의 총회 역할을 한 것으로 1930년대 료회의 전신으로 보이고, 우중회의 편지에 ‘식회□□’ 운운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26년 무렵 모여서 먹고 마시는 모임에서 성격을 탈바꿈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중에는 조선농민사 수원지부(高農社友會)가 경영한 고색리아동 야학강습소에 관한 보고서도 들어있는데, 이를 통해 야학 운영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는 4261년(1928) 2월 1일에 작성된 것으로 어디에 보고한 것인지는 정

확히 알 수 없다.

(갑반) 인수 14인(1부 8인, 2부 6인)

교원 : 김완(金玩), 남영희(南榮熙), 육동백(陸東伯), 김찬도(金燦道), 우중휘(禹鍾徽), 이종린(李鍾麟)

지리: 조선지리 우중휘

역사: 조선역사 김찬도

교실: 고색리 청년회장 댁

(을반) 인수 15인

교원 : (생략)

교재: 『노동야학』 첫째 권

(병반) 인수 26인

교원 : 김성원, 권영선, 조제하, 백세기, 김봉일

교재: 『노동야학』 첫째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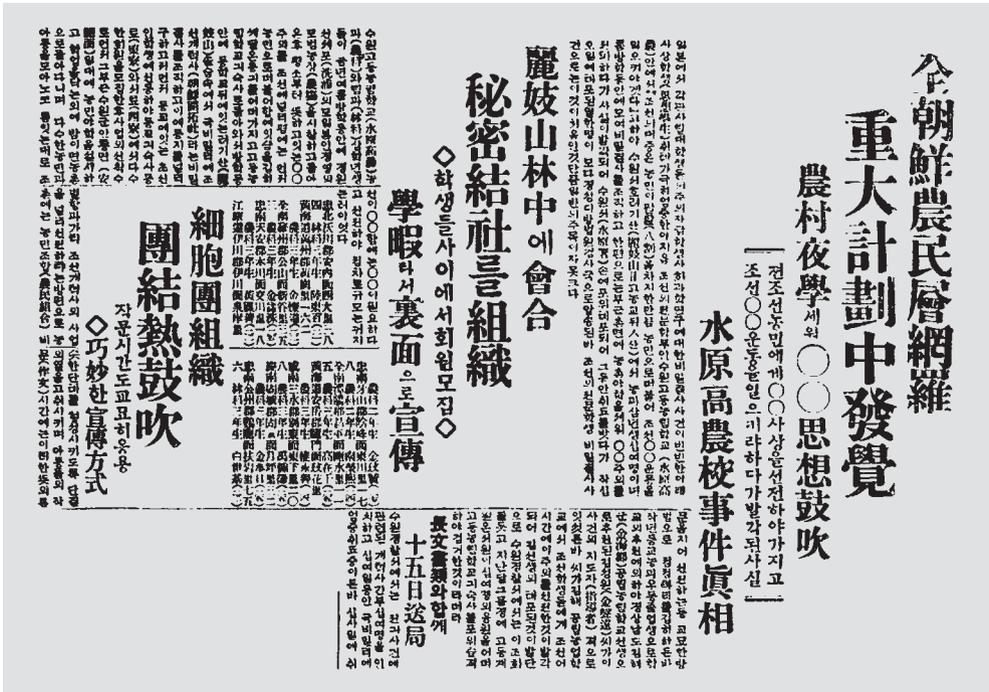
강습생 총수: 55인

교원총수: 15인

교수요일: 월, 화, 목, 금, 토

『노동야학』 등은 당시 조선농민사 등에서 야학 교재로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원 고농의 야학 활동이 조선농민사 소속의 야학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김찬도와 우중휘가 담당한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는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타 조선농민사 소속의 야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중휘, 김찬도의 취조를 종합한 경찰자료에도 비슷한 정황이 보고되어 있다.

그중 일형면 서호리, 안룡면 고색리 등에 야학을 열어 기숙사 내의 조선인 학생들이 운번 교대로 야학 교사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조선어를 국어라고 칭하거나 조선역사 등을 가르쳐 민족의식을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과 3년생인 김찬도는 명백하게 “조선은 일본에 빼앗겨 나라가 없다. 너희들은 이에 대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수한 적도 있었다. 또한 같은 해 고색리 야학의 학예전람회를 맞이하여 학생의作文 중에 “조선은 일본에게 빼앗겨 나라가 없다. 우리들 소년은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람회에 진열하게 하였다고 한다.



수원고농사건을 알리는 기사(『동아일보』, 1928년 9월 16일)

이 야학은 4260년(1927) 12월 23일에 발학식(發學式)을 열고, 1928년 2월 2일 개학하였는데, 이때 고색리청년회 주최로 농촌개발강연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강연회에서 김성원은 ‘농민 농촌에 대하여’라는 발표를, 우종희는 ‘인습타파에 대하여’라는 연제로, 권영선은 ‘생각나는 대로’, 김찬도는 ‘조선농민으로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 야학회가 경찰 탐문의 빌미가 된 것은 김이덕(金二德)이라는 학생의 작문 답안이었다. 경찰에서 증거로 수집된 작문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작문답안  
 특별반 김이덕  
 우리 소년이 해야 할 것  
 우리들은 지금은 소년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소년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국가도 없는 불행한 국민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우리들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소년들이 다시 국가를 세우기 위해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전쟁을 한다고 하면 비행기라든가 대포 등을 제조하여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소년 등은 잘 기억해서 잊지 않을 것을 바랍니다.

위 작문과 야학에서의 교수 내용을 통해, 조선이 지금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라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들 야학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원고농 학생들은 1920년대 중반 순종 인산을 계기로 조선인 학생 간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일반 민중에게(수원고농의 경우 농민에게) 민족적 자의식을 계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겠다.

한편 1928년 무렵에 이르면 수원고농 학생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학생운동과 일반적인 사회운동의 연계로서 해결될 수 없는, 수원고농생의 졸업 후 진로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를 단적으로 말하면, 앞의 우중휘 편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원고농을 졸업하고 “우리들로서 반동화된 정신으로 현 기관에 부식(付植)된다면 이는 얼마나 큰 문제”일까 하는 것이 핵심이었을 것이다. 우중휘의 편지에 대한 김성원의 답신에는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제(弟)는 지금 일개 공립교에서 소위 교원이라고 하는 일종 전직(典的)직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구속과 감시는 학생 시대의 배 이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제는 매일 이중적 심리와 표리(表裏) 양면(兩面)의 생활로 인해 금일까지 고식적 구안(苟安)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력하는 것은 양심이 명하는 그대로 돌진(突進)하는 것입니다.<sup>11</sup>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아마도 김성원으로 하여금 자중치 못하게 하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인용문은 김성원이 발각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 글이다.

1928년 필자가 경남 김해농업학교 재직 당시 그해 5월 1일에 김해읍에서 거행된 어린이날 축하대회에 초청되어 그 석상에서 축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이 좀 지나쳐서 일시 설화(舌禍)사건을 일으킨 것이 검찰의 주목을 끌게 되어, 그 후 저들의 미행과 내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동시에 가택 수색을 한 결과 수원에 있는 동창 중 우중휘 씨와 내왕한 서신 1매가 발각되어 이것이 도화선으로, 수원에 일대 검거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나…….<sup>12</sup>

11 「김성원이 수원농림 재학생에게 보낸 편지」, 4261년 6월 13일, 『水源高等農林學校鮮人學生朝鮮獨立運動其他=關スル件』, 1928(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아마도 김성원은 이중적 심리에 번민하다 어린이날 석상에서 ‘양심이 멩하는 그대로’ 돌진했을 것이고, 이것이 설화사건으로 번졌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중회가 김성원에 게 보낸 편지가 발각되었고, 여기에서 수원고농의 비밀결사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개혁사의 문제는 이른바 1980~1990년대 대학생들의 애국적 사회진출과 유사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에 실린 자료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와 임과 3학년생들이 금년 여름방학 동안에 경원선 세포의 모 일본인 경영의 모범농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평소부터 뜻하고 있는 □□주의를 조선에 널리 펴는 먼저 농민으로 더불어 함에 있음을 깊이 깨달은 동기를 얻어 가지고 고등농림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학 동안에 동 학교 뒤에 있는 여기산 숲속에서 극비밀리에 조선개혁사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이에 동지를 널리 구하고자 먼저 동 학교에 있는 조선인 학생에 선동하여 동교 기숙사 동료와 서류에서 다수한 회원을 모집한 후…….

한편, 경찰자료에는 「조선개혁사 사업계획안 및 규약」이라는 자료가 실려 있는데, 그 중요한 사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

- ㄱ. 조선의 □□(독립: 필자)과 문화 향상을 꾀한다.
- ㄴ. 조선 민중을 토대로 한 농림업을 계발한다.  
조선농민의 각성을 꾀한다.
- ㄷ. 조선에서부터 만(滿), 몽(蒙), 아(亞)에까지 조선 민중의 행복을 구한다.

#### 2. 실무

- ㄱ. 신간회의 강령을 준수함.
- ㄴ. 노력과 재력으로써 목적도달에 노력한다.
- ㄷ. 농림업에 대한 학술 및 기예를 학득(學得)한다.

그리고 말미에 ‘조선혁명수단’이라고 쓰인 궁극적 목적의 달성 방법에 대한 요약이 실려 있다.

---

12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8쪽.

조선 □□수단

결론: 최후적으로 조선 농민혁명에 있다.

혁명의 원인

내인(內因): 정치 압박, 경제의 파멸(진행 가속 중)

외인(外因): 국제관계를 최량수단으로써 이용하고 국제문제를 야기시키자.

내인은 이미 존재하고, 외인은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인 응책(應策)은 조선 농민의 각성과 농촌 계발에 노력하여, 기회를 만들어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유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용왕매진 성공에 노력하는 것.

외인은 외지에 있다. 내지와 연락을 취해 국제문제에의 이용 및 야기하도록 노력하여, 내인 응책의 □□수행을 도모함.

중국을 토대로 무력양성에 노력하고, 중국혁명 □□혁명 수단을 연구 연습하여, 그리하여 외인작 □(外人作□) 노력한다.<sup>13</sup>

이 계획을 경찰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조선 독립의 목적으로 결사의 조직을 기도하였고, 특히 김찬도는 자기의 복안(腹案)인 조선개척사라는 것을 기획하여 조선독립은 농민혁명에 있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 혁명의 원인을 내인·외인 두 가지로 하여, 내인은 정치의 압박 및 경제의 파멸에 있다고 하고, 외인은 국제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중국혁명을 원조하고 중국혁명에 의거하여 무력을 양성하고 혁명을 연구 연습하며, 유사시 내외 호응하여 일기(一氣)에 목적 달성을 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김찬도가 외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 중국혁명은 국공합작에 의한 중국 통일 및 외세의 배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공합작이 신간회의 성립배경이 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으로, 결국 신간회와 동일한 정세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대한 구상에서 조선개척사가 결성되었는데, 조선개척사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조선 독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밀결사이고, 그 실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표면 단체가 계림농흥사였다. 이 계획의 현실 가능성은 어떠하였을까? 당시 유행하던 협동조합운동에 조선의 독립이란 목적을 성급하게 기입해 넣은 느낌이 있다. 경찰문서에도 “사우(社友)의 의무로서 ① 나를 버려 공적 헌신생활을 하고, ② 물질적 궁핍을 견디는 등 절대적 요건”으로 한 것 등으로 보아 “성문상(成文上)으로보다도 불문(不文)의 목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조항에 불□합을 만들어 낸 것 같이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13 수원경찰서, 『水源高等農林學校鮮人學生朝鮮獨立運動其他=關スル件』, 1928(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조선농민사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조선농민사는 천도교 신파가 조선의 자치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천도교 안에 조선농민사를 조직한 것도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 특히 농민사의 조직 내용을 보면 …… 단순한 잡지 경영의 기관이 아니고 반드시 장래 자치제가 실시되었을 때에 다수 의원을 양성하여 두었다가 1개 정당으로서 의정단상의 세력을 장악하려는 기초 준비이다.”<sup>14</sup>라는 당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선개척사의 강령에 신간회의 강령을 준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성립과 계획도 신간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원고농 학생들의 야학 및 조선개척사 운동은 천도교 신파의 운동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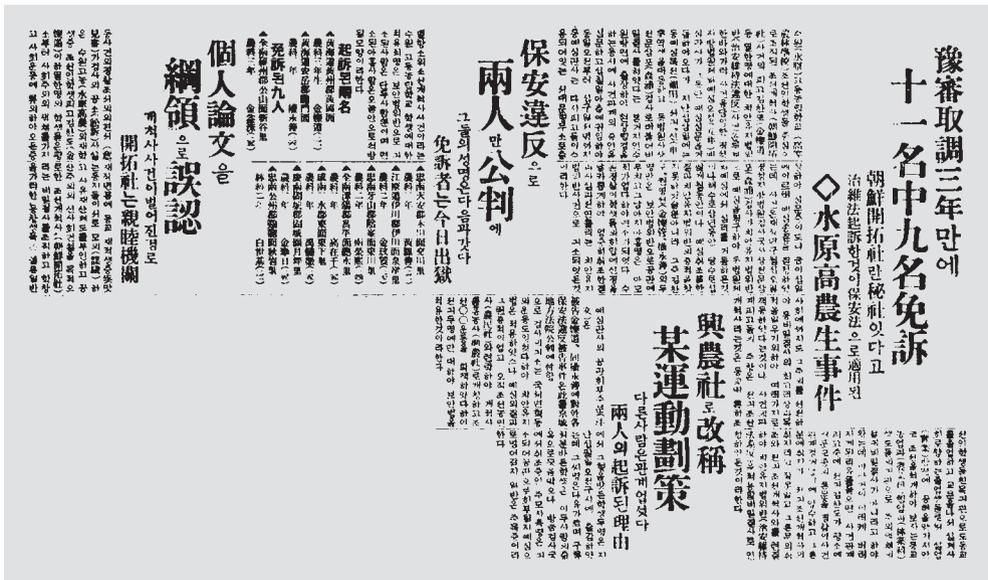
끝으로 1928년 조선개척사 운동의 주동인물은 다음과 같다.

〈표 1〉 1928년 조선개척사 운동 주동인물

학년	성명	본적
농과 3년	김찬도	황해도 황주
농과 3년	고재천	전라남도 담양
농과 3년	우중휘	함경남도 삼수
농과 3년	권영선	황해도 안악
농과 3년	김봉일	경상남도 고성
농과 3년	김익수	전라남도 니주
임과 3년	육등백	충청남도 옥천
임과 3년	백세기	충청남도 공주
농과 2년	황봉선	충청남도 천안
농과 2년	남영희	충청남도 아산
농과 2년	김문찬	강원도 이천

1923년에 있었던 수원고농생들의 동맹휴학이 조선인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3·1운동과 닮아 있다면, 1926~1928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궁극적 목적인 독립을 사회적·국제적 연계하에 추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간회와 그 정신적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14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455~456쪽.



수원고농 비밀결사사건인 조선개척사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

### 3. 1930년대 중반 독서회 \_ 무산혁명과 민족의식

1930년대 수원고농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한전중의 이력이 다. 한전중은 앞에서 서술한 1928년 비밀결사 검거 때 농우연맹(農友聯盟) 강연회에 수원고농 지부 대표로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조직이 탄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 책임을 지고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퇴학 후 그의 행적을 일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전중은 퇴학 후 취업을 목적으로 북간도에 가서 동흥중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9년 8월경부터 강문수, 윤자영, 김일수(金一洙) 등과 교류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준비할 목적으로 개최된 연길현 다도구 열성자대회에 참가하고, 이 대회가 구성한 동만지도부의 정치위원이 되었다. 국내공작에 관한 강습을 받고, 1931년 11월 하순부터 1932년 2월 말까지 재건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었다.

1930년 5월 간도 용정촌을 중심으로 일어난 간도 5·30사건을 계기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가 간도에 진출하고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중국공산당 가입이 종용되자, 그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투신하는 쪽에 서서 한때 함흥에 들어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에서의 재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 다시 간도 방면으로 간 한

전종은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동만특별위원회 간부(중국인)를 만나 “앞으로의 조선 운동은 종래의 특별부문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동만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원조를 하게 되었으니 각별한 활동을 바란다.”는 온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sup>15</sup>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한전종이 공산주의운동을 하면서 ‘특별부문’, 즉 조선의 혁명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한전종은 당시 용어로, ‘조선 연장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한전종이 동만특별위원회 간부로부터 국내공작에 관한 강습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운동할 때 이 조선 중심의 사회주의운동 문제가 조선공산당 재건 조직 반제부(反帝部)의 설치로 해소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수원고농 3차 사건은 한전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상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한전종의 행적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3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의식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자료는 신문자료와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이다. 일단 이 3차 독서회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수원고등농림학교 독서회사건 연루자

성명	본적 및 주소	직업
김종수(金鍾壽 : 29세)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442번지	무직
이용필(李容必 : 28세)	경상북도 울릉도 북면 천부동 470번지 (주소 : 대구부 봉산정)	
최홍기(崔弘基 : 28세)	경기도 이천군 이천면 관고리 1번지 (주소 : 전남 순천군 순천읍 가곡리)	무직
김광태(金光泰 : 25세)	경성부 동송정 2번지 (주소 :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 279번지)	농업
김준강(金浚綱 : 28세)	함경남도 영흥군 장흥면 연치리 221번지	무직
유재환(劉載煥 : 25세)	경기도 수원군 안릉면 고색리 98번지 (주소 : 수원읍 대평리)	무직
김재근(金在琨)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sup>16</sup> 여기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들의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원고농 독서회사건의 시발은 1931년 김종수의 오사카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15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 청계연구소, 1986.

16 박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와 학생운동」,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 8, 2014 참조.

종수는 1928년 개척사사건으로 퇴학처분을 받았다가 1929년 4월에 재입학하였다. 1931년 3학년이던 김종수는 오사카 부근에서 메이데이의 상황과 소련의 생산 분배 상황을 듣고 공산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명하게 되었다. 이에 재학 중인 이용필, 조만원 등에게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한편, 수원의 일형면 야학에서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강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원고농 내에 독서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러시아혁명사』, 『유물변증법교정』 등의 책을 돌려 읽었다고 한다.

이 독서회의 핵심 멤버인 김광태, 이용필, 최흥기 등이 졸업하자, 1934년 독서회를 해산하고 ‘공산주의자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는 “독서회는 미온적이어서 발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천적인 단계로 넘어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연계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중에 김천군 농업기수로 활동하던 이용필을 매개로 공산주의자동맹은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김천그룹과 연계되어 “수원고농을 연락본부로 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 조선 각지에서 공산당을 재건”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인적인 차원의 연결에 그친 것인지, 조직적 차원의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수원고농 3차 사건은 외형상 독서회를 통한 의식의 각성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여타 다른 운동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이들 판결문은 당시 학생들이 민족문제와 사회주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켜 사고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단서가 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 인용문은 수원고농사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 상황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세칭 수원고농사건(水原高農事件)이라는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동맹사건(共產主義者同盟事件)의 제1회 공판은 지난 10월 19일에 개정, 그 속행 공판은 지난 9일부터 금 11일까지 3일간 대구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에토(江藤) 재판장 주심과 센야(戰野) 검사 입회로 개정되어 김종수(金鍾壽) 외 여섯 명의 사실심리를 계속하여 왔든바 **김종수 외 수명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불경죄(不敬罪) 관계만은 방청을 금지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11일 오전 중에 사실심리를 마치고 오후 센야 검사로부터 다음과 가티 피고 7명 중 6명 전부에게 5년이라는 엄청난 구형이 잇섰다.** 그런데 판결언도는 오는 18일에 하기로 하였다.

김종수(金鍾壽)	징역 2년
이용필(李容必)	징역 5년
최흥기(崔弘基)	징역 5년
김광태(金光泰)	징역 5년
유재환(劉載煥)	징역 5년



수원고농사건 판결 상황을 보도한 신문기사(『조선일보』, 1936년 11월 14일)

김준강(金俊綱)                    징역 5년  
 김재곤(金在琨)                    징역 5년<sup>17</sup>

위 기사에서 이들이 부인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다음의 대구지방법복심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들에 대한 판결에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을 일본 제국의 기반(羈絆)에서 이탈시켜 국체를 변혁하고 또 조선 내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한편 동교 조선인 학생의 야유회, 료회, 취사부회 등의 석상에서 변갈아 민족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선동연설을 함으로써 주의의 고취 선전을 행하는 등…… 또 사회주의와 조선의 독립과는 일개 불가분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자공(自供), 당공정

(當公廷)에서 피고인 최흥기의 공산주의의 의의에는 약소민족의 해방도 포함되어,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조선의 독립도 당연히 초래될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동(同) 결사는 조선 내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조선의 독립은 직접의 목적이 아니지만 공산주의 중에는 약소민족의 해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당연히 조선도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지(旨) 및 동 결사 조직 후의 행동은 민족주의에 관한 연설을 제외하고는 판시와 같은 취지라는 취지의 자공<sup>18</sup>

위에서 복심법원 판사는 이들이 비록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뿐 조선의 독립을 결사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중에는 약소민족의 해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을 일본 제국의 기반(羈絆)에서 이탈시켜 국체를 변혁”하고자 한 「치안유지법」의 처벌대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로써 김중수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행위일 뿐,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법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정 논리 다

17 『조선일보』, 1936년 11월 14일.

18 대구지방법복심법원, 소화 11년 형공(刑控) 제489호, 「수원고농독서회사건판결문」, 5·6 · 11~12쪽.

틈은 아니다. 이 인용문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연설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에 관한 연설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연설이 민족주의에 찬동하는 연설이 아니었을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를 국제 변혁의 이유로 명확히 제시했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가 「치안유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 연설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을 것이고, 대략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조선에서 모든 사회문제의 기초는 민족적 연속이라고 하는 것에 귀결되며,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독립, 환연하면, 식민지로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나 독립민족국가로 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의 주장은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으나 사회문제가 생기는 기초를 민족의 연속이라고 하는 데 귀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사회적 모순은 보다 근본적인 곳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민족적 연속, 식민지 문제 등에도 필경 근본적 모순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근본적 모순의 제거·지양에 있다. 그것을 다른 것에 있다고 하는 민족주의의 소론(所論)은 뒤집어 보면 그들 민족부르조아지의 손에 의한 민족의 지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sup>19</sup>

물론 한전종과 같이 민족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1930~194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서의 민족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해서 처리하고자 한 편향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복심법원 공판정에서 한 주장은 단지 공판장에서 전술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수원고농사건의 공소 제1회 공판은 22일 오전 11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3호 법정에서 요네다(米田) 재판장 주심, 아키타(秋田)·나카가와(中川) 양 판사 배석, 사토(佐藤) 검사 관여 밑에 개정하였다. 피고 여섯 명은 제1심리에서 이용필(李容必 : 27), 최홍기(崔弘基 : 27), 김광태(金光泰 : 24) 등의 세 명은 징역 3년, 김준강(金俊綱 : 27), 유재환(劉載煥 : 24) 두 명은 징역 2년 6개월, 김종수(金鍾壽 : 26)는 징역 2년에 각각 미결 220일의 통산의 판결을 받고 불복 공소한 것이다 한다. 재판장으로부터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가족 등의 심리가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자가 된 동기에 대하여 심문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조금도 가림이 없시 무산 대 유산의 대립의 필연성을 공술하였는데 오후 3시에 폐정하였다. 속행공판은 4월 상순경이라 한다.<sup>20</sup>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용필이 1933년 7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19 최용달, 「감상록(感想錄)」, 『사상회보』 24호,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1940년 9월, 301~302쪽.

20 『조선일보』, 1937년 3월 24일.

후 작성한 감상문이나 편지에서 “유일인의 우상”, “유일한 1인”, “이종교의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등으로 천황을 묘사하였고, 1934년에는 “이종교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무위도식하여도 일본 제1의 자본가이고, 무산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해도 빈곤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이다.” 고 하여, 불경죄의 대상이 된 점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천황이 직접 조선 지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황을 자본가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점 역시 앞에서 말한 식민지 민족해방에 대한 차원의 탈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배의 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하여 생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의 근원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민테른의 민족개량주의에 대한 비판, 대공황과 만주사변 이후 조선 민족문제와 그 해결의 가능성을 세계혁명이라는 차원에 직접 연결시켜 사고하려는 경향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4. 1930년대 말 ‘불온언동(不穩言動)’ — 동료정신과 조선 민족의 수호

나의 형 김광태(金光泰), 개명 아오야마 요시오(青山芳雄 : 당 30세)는 소화 9년 3월 수원고농 농학과를 졸업했는데, 소화 7년 10월경 형이 수원고농 재학 중에 독서회라는 비밀결사에 관계하고 있던 것이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발각되어 결국 검거되었다.<sup>21</sup>

이 인용문은 제4차 수원고농사건 관련자인 김상태(靑山秀章) 심문조서의 일부로, 김상태는 1930년대 제3차 수원고농사건으로 구속된 김광태의 동생이다. 김상태는 1942년 정주영(鄭周泳 : 松島健), 민병준(閔丙駿 : 于川甫), 임봉호(林鳳鎬), 박도병(朴道秉) 등과 함께 불온언동사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 경찰심문조서의 보고서에는 이들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피의자 마쓰시마 겐(松島健 : 정주영)은 조선을 제국의 기반에서 이탈시켜 독립시키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화 14년(1939년) 4월 중순 날짜 미상의 오후 7시경 수원군 수원읍 서둔정 소재 수원고등농림학교 제5료 6호실에서 개최한 료회(寮會) 석상에서 3학년 우가와 호(宇川甫) 이하 약 55~56명의 조선인 학생에게 『장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원고(중 제1호)에 따라 조선어로 동료(東

21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163쪽.

寮)정신의 의의를 말하여 동료 정신을 살리는 것은 우리 조선을 살리는 것이라 말하였고 우리들의 과거를 살리기 위하여 동료정신을 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여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선동하였고, ……

피의자 마쓰시마 겐(松島健)과 우가와 호(宇川甫)는 함께 조선을 일본 제국의 기반에서 이탈시켜 독립시키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화 14년 10월 초순 날짜 미상의 오후 8시경 수원고등농림학교 제4료 6호실에서 비밀결사 **언문연구회(諺文研究會)의 조직을 모의**하여 동월 5일 오후 8시경 제5료 6호실 동료회(東寮會) 석상에서 그것을 발표하였고, 동월 11일 오후 7시경 제4료 6호실에서 같은 목표로 신청한 박도병(朴道秉)·아오야마 요시오(青山秀章)와 함께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언문연구회라는 결사를 조직하여 그 강령으로

### 1. 서로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 것

1. 서로 비밀을 지킬 것

#### 1. 서로 조선어를 사용할 것

1. 서로 시간을 엄수하고 연구는 두 시간을 한도로 할 것

1. 서로 언문철자법통일안(諺文綴字法統一案)과 중등조선어문법(中等朝鮮語文法)을 교재로 하여 연구할 것

을 구두 약속한 후 ……

피의자 박도병은 소화 15년(1940) 12월 중순부터 소화 16년 1월 하순까지 원산부 당상리 6번지 자택 운동에서 동리 거주 박림병 외 14명의 청소년들에게 “언문은 이조 이래 전해 오는 조선의 유일한 문화인데 근래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 폐지 등에 의해 점차 쇠퇴하고 있음은 조선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언제까지라도 조국의 문화인 **언문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하여 …… 소화 16년 12월 상순부터 소화 17년 2월 상순까지 …… 동리 거주 4~5명의 당우체육회원에게 “수원고등농림학교 축구부는 조선인 학생만으로 조직하고 일체 단결하여 일본인 학생에게 대항하고 민족의식의 양양에 노력하고 있다.” 고 하여 ……

피의자 임봉호는 …… (2) 소화 16년 8월 20일 오전 11시경 전기 자택에서 웬안 코이치(延安輝-)에게 “일본인 관공리에게는 가봉(加棒)과 숙사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조선인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가 곤궁한 자가 많다. **우리 조선인은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하여 …… 소화 17년 4월 초순 일자불상 오후 7시경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면 군상리 886번지 신석춘의 집에서 동인의 형 신석창이 피의자 임봉호 및 연안휘일에게 “소화 5·6년경 대만에서 아리무사(阿里霧社)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만인 순사와 교원이 부락인을 선동하여 차례차례 부근의 관공서를 습격한 사건이었지만 일본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지리적으로 많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비행기로 폭격하여 마침내 진정시켰다. 대만인조차도 그런 용기가 있는데 조선인에게 그런 용기와 단결이 없을 리 없다.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은 인도와 호주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북방에는 소련이 있다. **언제 일소간에 개전을 불런지도 모른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동아 공영권 확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최후에 일본은 패전할 것이다. **우리들은 그 시기에 조선독립을 위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하며 피의자 임봉호는 통렬히 그에 공명하고 찬동함. ……<sup>22</sup>

일제는 수원고농 안에서 일어난 것(언문연구회, 「장래를 위하여」라는 연설)과 관련자들의 고향에서 일어난 것(임봉호와 박도병의 발언 등)을 함께 조선독립운동으로, 즉 국체를 변혁하려는 것으로 묶어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193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독서회와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7년 이후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위 인용문에서 다루고 있는 피의자들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3〉 제4차 수원고농사건 관련자 이력

성명	입학연도	직업
정주영(松濤健)	1937	평북 영변군 전 강계군 산업기술
민병준(宇川甫)	1937	경남 진주부 전 식산은행 부산지점 행원
박도병(林道秉)	1937	원산부 당상리 과수재배업
김상태(靑山秀章)	1937	경성부 동송정 과수재배업
임봉호(林鳳鎬)	1937	전남 순창군 전 지방산업 기술

관련자들은 모두 1937년에 수원고농에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1937년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해인데, 국제정세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가 1938년 말 무렵 좌절을 겪으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대량 전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선일체라는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통해 조선인 사상을 회유 단속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내선일체란 조선인에게는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겠다는 일제의 공언(空言)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일본인과 동등한 의식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별을 생산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인임을 평가하는 것이 일본인 몸에 붙은 일본인성이어서 그것은 도달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평가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차별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일본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조선인은 언어생활, 사회생활, 의식에서조차 조선인(=조선어)을 다 버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일제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그것을 강요하였다. 즉 내선일체는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전제로 현실을 구속하는 이상한 논리였던 것이다. 조선의 민족정신 및 조선어 사용금지(교육령 개정)는 이러한 이상한 구조 위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여하튼 수원고농 제4차 사건의 맥락은 민족의식의 자각과 천명이라는 1920년대 초의 분위기, 민족 독립의 이론적·실제적 방략 구상과 실천이라는 1920년대 중후반~1930년

22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V』, 2007, 3-7쪽.

대 중반과는 다른, 민족의식과 민족어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문조서를 통하여 수원고농의 동료(東寮)정신, 언문연구회 상황, 시국인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동료(東寮)정신

정주영은 제1회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을 별개로 구별하여 수용하고 있었다. 일본인 학생은 제1료 내지 제3료와 제6료, 제7료에 수용하였고, 조선인 학생은 제4료, 제5료에 수용되어 있었다. …… 동료에 들어가고 나서 또는 부료장에게서 일본인 학생에게 뒤지지 않도록 공부하고, 운동경기에서도 일본인 학생에게 지지 않도록 기술을 연구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외에 동료정신을 양양하라고 말해 주었다. …… 선배 학생에게서 동료 정신이 무엇인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내 생각으로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조선인이 일치단결해서 기숙사 생활을 원만하게 해 나가자고 하는, 이른바 조선 민족정신 양양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sup>23</sup>

즉 동료와 동료정신이란 “수원고농의 학생 모두가 조선인인 동료(東寮)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일치단결하여 일본인 학생에게 대항하고,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조선인의 단결정신”인 것이고, 또한 “조선인 학생 전부는 축구부원이 되게 됨으로 동료의 생각도 축구부의 생각도 같기 때문에 축구부에서도 일치단결하여 일본인 학생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동료정신을 1928년의 시점과 비교해 보면 학생의 민족적 단결과 운동부예의 강제가입 등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면면히 계승되어 온 것일 터이다. 1939년에 3학년이 된 정주영(마쓰시마 겐)과 임봉호 등은 그해 4월 신입생이 들어오자 전 조선인 학생을 모아 놓고 료회를 열었다.

마쓰시마 겐이 신입생에 대한 인사를 한 후 료내의 규칙 등을 말하고, 다음에 마쓰시마 겐은 동료정신에 대하여 ‘장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다음으로 축구부 주장 임봉호가 일어나서 학교 내 조선인 학생은 전부 축구부에 가입해야 하고 축구를 하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자도 전부 축구부에 가입해 단체가 일치단결하여 일본인 학생에게 지지 않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다.

23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19쪽.



수원고등농림학교 기숙사와 조선인 학생(제22회 수원고농 졸업기념 앨범, 1942, 서울대 농학도서관 소장)

경찰문서에는 정주영이 했다고 하는 「장래를 위하여」라는 강연의 요지만 나와 있어 전 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그 대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다.

그 원고 내용에 “현재의 유대인을 보라. 세계적 부호, 학자, 예술가가 다수 있어도 국가가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 쫓겨나고 이탈리아에서도 쫓겨나 세계 각국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민족성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들이 그 실례로써 또 영국과 아일랜드 관계를 비취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동료정신을 살리는 방법은 또 하나 우리가 조선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도 한때는 타국에 지지 않을 정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이상 **우리들은 옛것을 살리는 한편 또 현재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 동료정신을 살리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하는 것이다.”<sup>24</sup>

조선인이라는 민족성은 내선일체라는 정책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인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선 민족정신을 양양해 조선혼을 연마하고 일치 단결해 수양하며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조선 농민을 지도하고 조선을 위하여 크게 활약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마쓰시마 겐은 심문에 답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조선을 위함이란 일본과 조선을 분리한다는 뜻으로써 조선만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직접 행동으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우리들은 옛것을 살리는 한편 또 현재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이것은 달라진 정세에서 다른 형태로 발양한 민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원고농 내에서의 민족정신에 대한 강조가 시급해진 이유는 1940년에 내선인 기숙사 혼숙문제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주영은 “선인 학생 사이가 나빠 융화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지금 갑자기 내선인 학생을 혼숙시키면 풍속·습관이 달라 도리어 내선인 간에 마찰이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어 시기상조임으로 잠시 유예하여 달라.”<sup>26</sup>고 청원하기도 하였지만, 이 같은 문제는 수원고농 같은 관립학교에서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임봉호는 1940년 “내선인 학생 하숙(혼숙)문제의 대책으로 …… 나는 축구부 주장으로서 조선인 학생 약 60명에게 조선어로 ‘제군은 금후 기숙사가 일본인 학생과 합병 혼숙하게 되어도 신입 조선인 학생은 전부 축구부에 가입시켜 축

24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45쪽.

25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21쪽.

26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42~43쪽.



수원고농 동료 제18회 졸업생 석별기념(제22회 수원고농 졸업기념 앨범, 1942, 서울대 농학도서관 소장)



수원고농 축구부 제20회 졸업 석별기념(제22회 수원고농 졸업기념 앨범, 1942, 서울대 농학도서관 소장)

구부 정신을 더욱더 양양해 목적 달성에 매진하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였다.”<sup>27</sup>

27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V』, 2007, 30쪽.



수원고농 축구부(제22회 수원고농 졸업기념 앨범, 1942, 서울대 농학도서관 소장)

## 2) 언문연구회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보통학교의 조선어 과목이 수외과목으로 바뀌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한편 학교에서의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에도 “소화 13년경인가, 소화 14년경 조선어 폐지 통첩이 시달되었고,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폐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위 동료정신에서 말한 바와 같은 위기의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어 폐지는 조선인으로서는 일대 타격이며…… 조선문화를 없애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조선국의 존재는 조선어의 존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민족정신 유지에 관계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언문연구회는 4료장이었던 정주영과 5료장이었던 민병준이 상의하여, 1939년 10월 동료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후 10월 중순경에 조직되었다. 이 제안에 박도병, 이연(李演), 김상태, 정창순, 송장현, 김중면(金重冕), 김윤하가 신청하였고, 조선어학회 발행의 『한글철저통일안』과 최현배가 저술한 『중등조선언문법』을 교재로 하여, “약 2개월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경까지 수원고등농림학교 제4료 6호실 또는 제5료 6호실, 3호실 등에서 약 7~8회 언문연구회를 개최하였다.”<sup>28</sup>

28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V』, 2007, 42쪽.

### 3) 시국(時局)인식

앞의 심문조서에는 조선어를 비롯한 민족의식의 양양 및 유지 관련 사항 외에, 내선일체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편린도 보인다. 가령 당시 조선인 사이에서 내선일체에 배치되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일본인 관리의 가봉(加俸)문제에 대해서 임봉호는 “일본인 관공리에게는 가봉, 숙사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조선인 관공리는 생활에 궁핍한 자가 많다.”고 하거나, “지금 내선일체를 강력히 부르짖고 있으나 그것은 소문뿐이고 **물질적·정신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다운 내선일체는 아니다.”고 인식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내선일체는 조선인이 일본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진정성 여부는 지금 가릴 수 없는 것이지만, 시급한 시국이라는 차원을 고려하여 혹시나 하는 심리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조선인을 미혹(迷惑)시키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구호에 대해 현실의 불평등을 이유로 내선일체가 헛소문에 불과하고, 아무리 내선일체라고 하더라도 민족적 차별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임봉호의 경우 결국 “우리 조선인은 어디에 가더라도 내선 동등한 대우는 바랄 수 없음으로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29</sup>고 하였던 것이다.

조선어와 조선 민족의 명맥을 걱정할 지경이었지만, 용기를 북돋는 소문과 실낱같은 기대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42년 4월 임봉호가 진안군 진안면 신창석의 집에서 전해 들은 말이 그러한 것이다.

신창석이 말하였다. “대만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일본 정부는 군대를 출동시켜 그 사건을 진정시켰기 때문에 결국 대만인은 실패하였지만 그 대만인들이 가진 **용기와 단결력**으로써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대동아전쟁은 인도 혹은 호주까지도 확대하고 있는데 북방에는 소련이 있다. 언제 **일소전이 발발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일본이 하고 있는 대동아공영권 확립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실패로 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그 시기에 조선은 일어나서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을 하였다.<sup>30</sup>

일제가 중국 및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과 조선인의 모든 것을 동원 압살하는 시절, 조선인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라도 용기와 단결이 필요하였다.

29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34쪽.

30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9-戰時期反日言動事件 V』, 2007, 35쪽.

## 5. 수원고농 학생들의 의식 변화

이 글에서는 1920~1940년대에 걸쳐 수원고농사건에서 드러난 조선인 학생들의 의식세계를 식민지-민족-사회주의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3년 초반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축소된 식민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조선인 본위였던 학교는 일본인 본위로 바뀌었고, 이러한 병합에 대한 '일시동인(一視同仁)'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였다. 일시동인적 이데올로기란 일제의 조선 병합은 조선 및 조선인에게 문화계발과 산업개발이라는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서 조선인도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1923년 학내의 상황과 정치 강연은 이러한 실재와 담론 틀을 두루 갖춘 것이었다. 1923년 5월 조선인 학생의 동맹휴학이라는 실천 행위는 이러한 일시동인이라는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의 조선개척사 및 독서회 사건은 민족적 자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방략 차원까지 사고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920년대 중후반은 중국의 국공합작 및 중국혁명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혁명을 통한 조선의 독립이라는 구상이 나름의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조선 안에서의 민족의식을 가진 농민혁명을 결합시켜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 내려고 한 것이 조선개척사의 지향점이었다. 이는 당시 신간회의 성립 조건 및 취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독서회 사건은 대공황과 만주사변이라는 정세 변동 속에서 '무산 대 유산'이라는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구상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연계되어 있어 단지 머릿속의 구상만은 아니었겠지만, 이들 학생들이 민족문제를 모두 계급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1930년대 후반에는 말 그대로 조선인 됄과 조선어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내선일체와 황민화정책이 바로 조선인과 조선문화의 완전 소멸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동료(東寮)정신'을 매개로 조선인의 단결을 꾀하고, 조선어를 연구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정신적 존속을 꾀하려 하였다. 조선인·조선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 제1부 종교와 신앙

## 제1장 수원 불교계의 동향과 변화

- 『고려사』; 『동문선』; 『비면사등록』; 『승정원일기』; 『李朝佛敎』; 『수원부읍지』.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3-경기도 I』, 사찰문화연구원출판국, 1993.  
 사찰문화연구원, 『용주사』, 1993.  
 李政, 『韓國佛敎人名事典』, 불교시대사, 1993.  
 민족사,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65, 1996.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중)』, 1997.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불적자료집』, 1999.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한국 근현대불교사 연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  
 경기문화재단,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2001.  
 용주사효행박물관, 『용주사효행박물관』, 200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편,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제』 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7.  
 수원박물관 편, 『수원박물관 상설도록』, 2008.  
 김순석, 『백년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2009.  
 동국대학교, 『역주 조선불교통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봉녕사, 『奉寧』 18호, 봉녕사승가대학, 2012.  
 수원화성박물관, 『사도세자 서거 250주기 추모 특별기획전 도록-사도세자』, 2012.  
 이호관, 「水原八達門上の銅鐘」, 『考古美術』 4-5, 고고미술사학회, 1963.  
 민현구, 「조인규와 그의 가문(상)」,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민현구, 「조인규와 그의 가문(하)」, 『진단학보』 43, 진단학회, 1977.  
 채상식, 「고려후기 천태종의 백련사 결사」, 『한국사론』 5, 서울대출판부, 1979.  
 최병현, 「고려중기 현화사의 창건과 법상종의 융성」,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박용운, 「고려시대 수주최씨가문 분석」, 『사총』 26, 1982.  
 한기두, 「려말선초의 천태법화사상」, 『한국천태사상연구』, 1983.

남도영, 「근대불교의 교육활동」, 『승산 박길진박사 고회기념 한국종교사상사』, 1984.  
 김남윤, 「고려중기불교와 법상종」, 『한국사론』 26, 서울대 국사학과, 1992.  
 유영숙, 「진각국사 천희의 생애와 신앙」, 『가산 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 1992.  
 김준혁, 「조선후기 정조의 불교정책」,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헌순, 「나말여초 수원지역 호족의 동향」, 『수원문화사연구』 창간호, 수원문화원, 1998.  
 황인규, 「조인규가문과 수원 만의사」,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1998.  
 김용기·조미혜, 「용주사의 능침사찰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1, 2000.  
 황인규, 「여말선초 화엄종승의 동향」, 『불교학연구』 1, 불교학연구회, 2000.  
 김정희, 「水原 靑蓮庵 佛畫考」, 『聖寶』 3,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1.  
 한동민, 「불교의 현황과 활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황인규, 「수원최씨·김씨 가문과 고려중기 불교계」, 『수원문화사연구』 제4호,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김광식, 「백용성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새 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용주사 주지 강대련」, 『경기사학』 제6호, 경기사학연구회, 2002.  
 한동민, 「한말·일제 강점기 용주사 주지 강대련의 친일행적」, 『수원문화사연구』 제5호, 수원문화사연구회, 2002.  
 임혜봉, 「일제 강점기 수원 용주사 주지 강대련의 친일행적」,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사연구회, 2004.  
 황인규, 「수원의 고승 진각국사 천희와 고려말 불교계」, 『수원학연구』, 수원학연구소, 2006.  
 이강근, 「용주사의 건축과 18세기의 創建役」, 『미술사학보』 제31집, 미술사학연구회, 2008.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이음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정해득, 「정조의 용주사 창건 연구」,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심효섭, 「불화로 보는 수원의 불교문화」, 『제3기 수원박물관대학 교재』, 수원박물관, 2010.

## 제2장 수원 유교계의 동향과 변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여지도서(輿地圖書)』.  
 『대학지(太學志)』.  
 『홍재전서(弘齋全書)』.  
 『관보(官報)』.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  
 『매일신보(每日申報)』.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동아일보(東亞日報)』.  
 『경학원잡지(經學院雜誌)』.  
 『퀵리지(關里誌)』(마이크로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 『향교 재산 처분관계철』(국가기록원), 1933.  
 조선총독부, 『시정 25년사』, 1935.  
 조선총독부, 『향교 재산 처분관계철』(국가기록원), 1937.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윤희면, 『조선 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0.  
 강대민,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600년사』, 성균관대출판부, 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 2000.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김호일, 『한국의 향교』, 대원사, 2004.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국역중보판』, 2005.  
 김명우, 「일제 식민지시기 향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오영섭, 「유교의 향일민족운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 제3장 수원의 천주교 수용과 확산

『후한서(後漢書)』; 『사학정의(邪學懲義)』; 『일성록(日省錄)』; 『벽위편(關衛篇)』, 이만채 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기해병오순교자 시복재판록』, 절두산순교자박물관 소장; 『병인치명사적』; 『좌포도청등록(左捕盜廳騰錄)』; 『우포도청등록(右捕盜廳騰錄)』; 『수원부유영장계등록(水原府留營狀啓騰錄)』; 『수원군읍지』, 규 10702.  
 『본당별 교세통계표(서울·경기지역)』.  
 명동천주교회, 『서울교구 연보(1)』, 1984.  
 「모방 신부가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36년 4월 4일자 서한」, A-MEP(파리의방전교회 고문서), vol.1260, f.83.  
 천주교 왕림교회, 『천주교 왕림(갓등이) 교회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집(1)』, 1990.  
 지석봉 구술(2001), 「지 타대오 순교자 가전자료」, 『교회사학』 제2집, 2005년 12월.  
 한국천주교구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2011.12.31. 현재)』, 2012년 4월 13일.  
 馮承鈞, 『中國南洋交通史』, 臺灣商務印書館, 1937.  
 샤를르 달레 원저, 최석우·안응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중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1986.  
 최소자, 『동서문화교류사연구』, 삼영사, 1987.  
 조광,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천주교 수원교구 복수동성당, 『복수동성당 70년사』, 1994.  
 하성래, 『무명 순교자의 뿌리를 찾아서 - 걸매리 밀양 박씨 순교자 연구』, 가톨릭출판사, 1995.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1, 2009.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창설지역의 천주신앙-창설지역의 순교와 그 평판』, 2010.  
 천주교 수원교구 고등동성당, 『고등동본당 50년사』, 2010.  
 천주교 수원교구 평택대리구 서신성당, 『서신본당 15년사』, 2011.  
 천주교 수원교구 평택대리구 남양본당, 『남양본당 50년사』, 2012.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이전의 한리교섭(1861년 이전)」, 『한로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협회의, 1984.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의 문제」, 『교회사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원재연, 「정조대 서학과 천주교 보급」,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원재연, 「조선 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원재연,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의 대외관과 천주교 조선전래사 인식」, 『교회사연구』 17집, 한국교회사 연구소, 2001.
- 박태근, 「중국에서 만난 조선문명과 제삼문명(러시아문명)」, 『국제한국학연구』,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 2003.
- 원재연, 「조선후기 천주교도에게 적용된 적도율(賊盜律)과 선참후계령(先斬後啓命)의 검토」, 『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 한들출판사, 2003.
- 조 광, 「천주교 신앙 전래 초기의 광주 구산」, 『구산천주교회의 역사』, 천주교 구산성당, 2004.
- 조현범, 「모방 신부의 구산 전교」, 『구산 천주교회의 역사』, 천주교 구산성당, 2004.
- 정종득, 「천주교」, 『화성시사』 III,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 차기진, 「박해기 수원 지역에서 활동한 성직자와 그 활동무대」, 『교회사학』 제2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05.
- 원재연, 「수원유수부내(水原留守府內) 천주교 박해(迫害)의 전개과정」, 『교회사학』 제2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05.
- 이석원, 「미리내본당의 변모와 역사적 의의-본당교세 및 관할 공소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5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 원재연, 「수원 화성의 천주교 사적지 재조명-형육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제7집, 수원학연구소, 2010.

### 제5장 수원의 개신교 수용과 성장

- 『조선그리스도인회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동아일보』; 『기독교타임즈』; 『미감리회 연회록』.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6.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 199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 김세한, 『삼일학원 65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 김수진, 『한일교회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1989.
-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이레서원, 2000.
- 농천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농천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농천교회, 2010.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단연국채보상발기 90주년기념 국채보상운동사』, 1997.
-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 100년사』, 2004.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0.
-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73.
- 서정민, 『한일기독교관계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수원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회 6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2008.
- 수원제일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제일교회 50년사(1953~2003)』,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제일교회, 2008.
-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 안수훈, 『한국성결교 성장사』, 기독교 미주성결교 출판부, 1981.
- 이광린, 『한국사강좌(V)』, 일조각, 1981.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 이명직, 『朝鮮耶蘇教東洋宣教會聖潔教會略史』,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출판부, 1929.
-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 이재정, 『대한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 출판부, 1990.
- 이진호, 『안양지방 감리교회 백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안양지방회, 1995.
- 이천영, 『성결교회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1970.
- 창훈대 40년사 편찬위원회, 『창훈대 40년사(1964-2004)』, 대한예수교장로회 창훈대학교, 2004.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 한국기독교 유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의 민족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한석희 저, 김승태 옮김,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 허호익, 『귀츨라프의 생애와 조선선교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홍석창, 『수원지방의 발자취』, 수원동지방회, 1978.
-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수원·화성지역감리사협의회, 1987.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10년대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 구분주, 『수원 지역의 6월항쟁』, 『6월항쟁을 기록하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2007.
- 김양선, 『한국개신교사(하)-개신교사』, 『한국문화사대계X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5.
- 김양선, 『3·1운동과 기독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 김권정, 『1970년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송실사학』 13, 송실사학회, 1999.
- 김권정, 『성공회·성결교의 전래와 활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 김권정, 『한국사회와 기독교 수용』, 『11명의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독교』, 겹보기, 2001.
- 한규무, 『감리교의 항일민족문화운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기독교민족운동』, 『송실사학』 18, 송실사학회, 2005.
-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 교육』 11, 역사와교육학회, 2010.
- 김승태,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김익진, 『동석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 김형목, 『한말수원 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경기사학』 2, 1998.
- 박명수, 『경성성서학원의 초기역사(1907~1921)』, 『한국기독교와 역사』 1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0.
- 박명철, 『목회현장을 찾아서-창훈대학교』, 『기독교사상』 통권605호, 기독교사상사, 2009.
- 서평일, 『4·19혁명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8. 4.
-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 활동』, 『경기사학』 4, 경기사학회, 2000.
- 윤상진, 『수원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 혁명』, 선인, 2010.
-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1997.
- 이제재, 『수원지방 독립운동 선구자 김노적 선생』, 『수원의 옛 문화』, 효원문화인쇄, 1995.
- 이진호, 『기독교신회, 승승, 조덕환, 김태희의 선교활동』, 『기전문화』 제10집,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92.
- 장석홍, 『대한독립애국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1987.
-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의 신간회운동』, 『실학사상연구』 15·16, 모악실학회, 2000.
- 홍석창, 『개신교』, 『수원시사』 하, 수원시, 1997.

## 제6장 수원의 민간신앙 전승

- 김지옥 외,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설성경 외, 『수원문화원 뿌리』, 수원문화원, 2000.  
 수원시,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 지명총람』, 1999.  
 이용범 외, 『수원의 마을굿』, 수원문화원·수원시, 2006.  
 하주성, 『경기도의 굿』, 경기문화재단, 1999.  
 최자운 외,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 수원문화원, 2008.

## 제2부 근대교육의 도입과 전개

### 제1장 한말 수원의 근대교육 도입과 학교 설립

- 『관보(官報)』;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황성신문(皇城新聞)』;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매일신보(每日申報)』; 『동아일보(東亞日報)』.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일람』, 1931.  
 김세한, 『삼일학원 65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홍석창, 『수원지방의 발자취』,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동지방회, 1978.  
 김세한, 『삼일학원 80년사』, 학교법인 삼일학원, 198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신풍초등학교, 『신풍 100년사』, 199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하, 1997.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2, 2002.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학교법인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 2009.  
 김상기, 「한말 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구국운동」, 『청계사학』 1, 청계사학회, 1984.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11, 역사교육학회, 1987.  
 전성현,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 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김명우, 「일제 식민지시기 향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제3부 학교생활과 교육 경험

### 제2장 일제하 ‘소국민(小國民)’의 학교생활과 직업과(職業科) 교육

- 『조선총독부관보』.  
 『文教の朝鮮』.  
 『朝鮮の教育研究』.  
 『삼일학교 학적부』.

강명숙, 「일제시대 보통학교 '직업' 교과와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 21-2, 2011.  
 김세한, 『삼일학교 65년사』, 수원 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梅根梧, 심입섭 옮김, 『근대교육사상비판』, 도서출판 남녘, 1988.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이경숙,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 34-2, 2007.  
 정혜정, 「일제하 졸업생지도학교와 청년훈련단체의 조직화(1927~1943)」, 『한국교육사학』 32-1, 2010.  
 정혜정,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 『한국교육사학』 30-2, 2008.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민족교육의 성장과 실태」, 『수원문화사연구』 3, 1999.  
 하여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大内裕和 編著, 『愛國心と教育』, 東京: 日本圖書センター, 2007.  
 森川直, 『近代教育學の成立』, 東京: 東信堂, 2010.  
 王家驊, 『日本の近代化と儒學』,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1998.  
 松野修, 『近代日本の公民教育』, 名古屋大學出版會, 1997.

### 제3장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삶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적부』.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송병기 외, 『한국근대법령자료집』, 국회도서관, 1970.  
 조선총독부 내무국 학무과, 『内地人教育の狀況』, 1920.  
 조선총독부 내무국 학무과, 『朝鮮教育要覽』, 1915-1919.  
 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諸學校一覽』, 1943.  
 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學事例規』, 1932.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45-4, 2005.  
 국성하, 「일제 강점기 동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선신궁의 건립과 운영」, 『한국교육사학』 26-1, 2004.  
 김명숙,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1945년 동덕고등여학교 학적부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78, 2011.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박지향, 「일제하 여성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격」, 『사회비평』 1, 나남, 1988.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19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2004.  
 박철희, 「일제강점기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육기회분배와 졸업생 진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8-2, 2006.  
 손중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교육의 식민지배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손중현, 「일제시대 학교시험제도의 정치학」, 『교육철학』 31, 2007.  
 손준중, 「'내신제' 도입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3, 2006.  
 이경숙,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 34, 2007.  
 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 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31, 2007.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동민,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수원학연구』 3, 2006.

| 찾아보기 |

- ㉠ 가와바타(川端豊太郎) 113, 149, 151
- 가정여학교 369, 371
- 가톨릭 신앙공동체 79
- 갈양사 26
- 감탕개 79, 83
- 갯등이 81, 95
- 갯등이공소 90
- 갯등이본당 93
- 강건식 143, 311
- 강대련 32, 33, 34, 38
- 강문수 417
- 강석만 320
- 강석호 143, 210
- 강습소 235
- 강인회 108
- 강필중 208
- 개신교 125, 133, 141, 145, 149, 157, 167
- 개심선원 35
- 개척사사건 419
- 거북산당 도당굿 175
- 건릉 32, 48
- 건의공소 90
- 건이 81
- 겉매리 82
- 경기과학고등학교 273
- 경기관찰부 298
-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202, 203, 204
- 경기교육 253, 263, 264
- 경기도교육위원회 263
- 경기도도당굿보존회 173
- 경당 45
- 경동철도주식회사 60
- 경부선 214
- 경성 성서학원 132
- 경학원 62
- 계림농흥사 415
- 계몽단체 196
- 고계원 107, 109
- 고등학교 262
- 고등학교 현황 289
-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호헌 철폐 경기지구 평화대행진준비위원회 165
- 고 박종철군 추모기도회 165
- 고색국민학교 254
- 고색동 171
- 고색리 아동야학강습소 410
- 고색리청년회 412
- 고성희 109
- 고용성 344
- 고재천 416
- 고종 32
- 고주리 152
- 고천공립보통학교 229
- 고천리 152
- 근도(近藤虎之助) 242, 367
- 공동체 의례 169
- 공립명륜실업보습학교 207
- 공립보통학교 230
- 공병태 107
- 공산주의자동맹 419
- 공서린 50, 51
- 공석정 120
- 공세리본당 96
- 공소 80, 81, 90, 93, 95
- 공의달 50
- 공자 51
- 공자교 62, 65
- 공재현 54
- 과거제도 45
- 곽금석 115, 118
- 곽수림 157
- 관오 17
- 관음종 35
- 광교사 18
- 광교산 21, 37
- 광명의숙 235
- 『광무5년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회계대장』 204
- 광성학원 235
- 광주민주화운동 164
- 교가 337
- 교과서 303
- 교복 329, 330
- 교사증축기성회 248
- 교세 91, 96
- 교세보고서 98
- 교실 297, 300
- 교우촌 76, 80, 81, 82, 83, 90, 93, 94

교육 223, 253, 262, 266, 272, 273, 277  
 교육구국운동 207  
 교육기관 224  
 교육자치제 263  
 교육정책 223  
 교육칙어 328  
 교종 16, 18, 23  
 구국민단 155  
 구낙서 107  
 구르니 314  
 구연필 63  
 구영서 109  
 구오산리 만세운동 111  
 구운동 상구운 산신제와 우물고사 178  
 구운동 하구운 우물고사 176  
 구정촌 51  
 구직회 237  
 구과 120, 121  
 국가의례 319  
 국권회복운동 195  
 국립보훈원 160  
 국민정신총동원연맹 392  
 국민총동원체제 390  
 국민학교 262  
 국민학당 234  
 국채보상기성회 143  
 국채보상운동 143, 144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200  
 「국채보상취지서」 144  
 군사훈련 321  
 권기창 109  
 권택용 118  
 권백옥 109  
 권봉옥 241  
 권상억 78  
 권업모범장 221, 368  
 권영선 411, 412, 416  
 권오은 160  
 권일신 78

권철신 78, 84  
 권동 51  
 켈리사 45, 51, 52  
 규율 298  
 규율공간 297  
 그리스도교 76  
 근대교육 195  
 근로 동원 349  
 근로 동원사업 390  
 금동향로 29  
 기독교 128, 145  
 기독교장로회 158  
 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159  
 기독교신회 141  
 기독교신회 동신교회 139  
 기묘명현 51  
 기무라(木村濬泊) 32  
 기봉규 109  
 기부금 250  
 기생 314  
 기타자와(北澤) 368  
 기해박해 82  
 기호흥학회 196, 197, 198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 142, 195, 199, 200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198  
 김가진 198  
 김갑희 157  
 김건영 123  
 김관현 203  
 김광식 147  
 김광제 143  
 김광태 418, 419, 422  
 김광하 238  
 김굉필 50  
 김교철 146, 151  
 김교필 122  
 김구 66  
 김국희 277  
 김규원 203

김기덕 115  
 김노적 120, 147, 148, 155, 156  
 김덕삼 151  
 김덕지 81  
 김동현 130, 135  
 김동현 사건 131  
 김동호 208  
 김두병 108  
 김명기 108  
 김명식 107  
 김명우 151  
 김명운 115  
 김메레 142  
 김문찬 416  
 김병갑 147, 155  
 김병제 147  
 김병천 203  
 김병호 120, 155, 156, 344  
 김봉일 411, 416  
 김봉진 196, 203  
 김봉희 122  
 김부대왕 170  
 김사라 133  
 김사원 234  
 김상근 108, 111, 115, 118, 122  
 김상배 134  
 김상준 132  
 김상태 422  
 김석우 199  
 김석호 147, 155  
 김성규 66  
 김성열 149  
 김성원 408, 411, 412, 413, 414  
 김성첨 81  
 김세환 146, 147, 148  
 김순묵 242  
 김순영 18  
 김시중 238  
 김안수 64  
 김언식 199  
 김여태 199

김열보 17, 18  
 김영규 109  
 김영근 115  
 김영보 17  
 김영서 199  
 김영선 109  
 김영식 64  
 김영희 109  
 김옥빈 116  
 김완 411  
 김용목 109, 235  
 김용진 196, 204  
 김용찬 238  
 김용천 109  
 김용호 199  
 김웅배 241  
 김원규 253  
 김원성 78  
 김유경 108, 109, 115, 116  
 김유식 109  
 김유원 17  
 김응식 151  
 김의배 118  
 김의영 240  
 김익수 416  
 김익희 135  
 김인봉 235, 239  
 김인선 123  
 김인순 162  
 김인식 109  
 김인태 108, 111, 115  
 김인환 109  
 김일수 417  
 김장복 82  
 김장환 160  
 김재곤 418  
 김재구 234  
 김재준사건 159  
 김재천 111, 152  
 김점봉 118  
 김정국 50

김정담 108, 111, 115  
 김정모 111  
 김정식 199  
 김정우 115  
 김정윤 111  
 김정익 234  
 김정인 81  
 김정해 34  
 김제구 144, 209, 343  
 김종수 418, 419  
 김종윤 122  
 김종철 64  
 김종학 151  
 김종한 199, 200  
 김종현 17  
 김종환 199  
 김준강 418  
 김중환 196  
 김지득 82  
 김진성 111  
 김진수 63  
 김찬기 117  
 김찬도 406, 411, 415, 416  
 김창숙 66, 67, 68  
 김춘경 108  
 김치공 81  
 김치근 123  
 김태정 140  
 김학교 108  
 김학순 123  
 김학습 108  
 김한목 211  
 김한중 199  
 김현주 64  
 김현목 149  
 김현조 120  
 김현태 134  
 김홍선 216  
 김희경 199

나성규 200  
 나중석 343  
 나중석 199, 209, 210, 311  
 나창세 118  
 나천강 107, 108, 111, 115, 118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403, 404, 406  
 나혜석 38, 216  
 남곡면 208  
 남군영 202, 298  
 남궁억 196  
 남사면 51  
 남수동 216, 235  
 남양계삭회 135  
 남양공립간이농업학교 230  
 남양공립보통학교 223, 228, 230  
 남양교구 149  
 남양교회 141, 147  
 남양구역 136, 146, 147  
 남양군 208  
 남양동맹 118  
 남양순교성지 102  
 남양향교 68  
 남연군 32  
 남영희 411, 416  
 남장로회 128  
 남창국민학교 262  
 내포 78, 79  
 노동학원 239  
 노동야학 239  
 『노동야학』 411  
 노동야학회 수원읍내지회 199  
 노리마츠 마사야스 139, 367  
 노블 152, 153  
 농민혁명 408  
 농천교회 159  
 느지지 81  
 능침사찰 30, 32

다나카(田中弘吉) 242

다블뤼 81  
 다카하시 마키치(高橋濱吉) 357  
 당수동 우물고사 177  
 대각 국사 42  
 대동사문회 65  
 대동학회 62  
 대법산 31  
 대설위 46  
 대성강습소 235  
 대성전 48, 49, 50  
 대승불교법화회 41  
 대학교 및 대학원 현황 292  
 대한독립애국단 154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163  
 데이비스 126  
 도성 출입금지 30  
 도성해금 조치 30, 31  
 도요다(豊田長智) 203  
 도총섭 23  
 도회소 23  
 독립만세시위 147  
 독립만세운동 149  
 독립문교회 132  
 독립선언서 147  
 독립축성회 163  
 독산성 15  
 독서회 417, 419  
 독완산 47  
 돌모루 81  
 동리 240  
 동리아학원 240  
 동리(東里)청년야학부 235  
 동리청년회 240  
 동맹휴학 400, 402, 404  
 동석기 147  
 동신교회 139  
 동양선교회 132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132  
 동양척식주식회사 224  
 동재 47, 48, 69  
 동청이 81

동탄공립보통학교 229  
 동탄면 19, 111  
 동탄면 전교실 114  
 동학 105, 106  
 동학농민혁명 106  
 동학사 37  
 동학혁명 105  
 동화사 33  
 두발 329

**ㄹ** 류기덕 60  
 류기면 241  
 르메르 100  
 리우빌 90

**ㅁ** 마도공립보통학교 229  
 마도야학부 235  
 마라난타 15  
 마을굿 169, 175  
 마장 81  
 마테오 리치 77  
 만봉 22  
 만세운동 111  
 만의사 18, 19, 20, 21  
 만의사 동중 16, 18, 19  
 매곡서원 68  
 매교동 131  
 매산리 223, 240  
 매산야학당 235, 240  
 매산초등학교 369  
 매송공립보통학교 229, 231  
 매일학교 134, 135  
 매향동 343  
 매향여학교 교가 339  
 메리 133, 134  
 명고서원 68  
 명도회 100  
 명동분당 97  
 명랑 법사 42

명륜당 47, 48, 49, 50  
 명륜대학 71  
 명륜실업보습학교 230  
 명륜전문학교 67  
 명륜학교 199  
 명립학교 32  
 명정학교 32  
 명진학교 32  
 명화학교 32, 34  
 모방 81, 82  
 모영철 111  
 묘련사 21  
 묘수사 41  
 묘엄 37  
 묘혜 20, 21  
 무당굿 169  
 무차대회 27  
 문명서당 234  
 문밖분당 97  
 문암바위 178  
 문정왕후 23  
 워텔 90, 91  
 미감리회 214  
 미감리회 한국선교부 214  
 미리내분당 95, 101  
 미 북감리회 126, 131  
 미 북장로회 126  
 민간신앙 169  
 민국학당 235  
 민병옥 394  
 민병준 422  
 민승호 87  
 민영휘 197  
 민족대표 48인 146  
 민주화운동 163, 164, 165  
 밀러 213, 215  
 밀머리 82

**ㅂ** 박건중 109  
 박경모 151

- 박광원 240
- 박규병 109
- 박규순 143
- 박규희 118
- 박기양 199
- 박달성 116
- 박대용 241
- 박덕여 82
- 박도병 422
- 박도양 237
- 박두병 111, 152
- 박래홍 116
- 박만근 118
- 박묘양 237
- 박문희 199
- 박병수 109
- 박부산 240
- 박상기 122
- 박상익 123
- 박상호 122
- 박상훈 122
- 박선태 147, 154, 155
- 박성근 203
- 박성행 32
- 박승극 237, 238
- 박영래 108, 115
- 박영시 118
- 박영찬 118
- 박영호 109
- 박용기 64
- 박용석 263
- 박용희 116
- 박원병 109
- 박원인 50
- 박윤구 164
- 박윤수 84
- 박일규 100
- 박재순 109
- 박재찬 109
- 박정동 196
- 박정오 240
- 박제윤 123
- 박종건 118
- 박지안 32
- 박창호 109
- 박철규 253
- 박춘식 109
- 박중애 216
- 박치상 196
- 박지훈 203
- 박하원 109, 113
- 박해 80, 82
- 박홍성 134
- 박희양 62, 63
- 박희도 147
- 반야사 35
- 반월공립보통학교 229
- 반천주교정책 84
- 발안 151
- 발안간이학교 231
- 발안공립심상소학교 223
- 발안리 112
- 방아리 130
- 배재무 122
- 백낙열 113, 149
- 백련사 31
- 백봉 130, 208
- 백세기 411, 416
- 백형기 159
- 백흥기 235, 239
- 버덕 129
- 벌말 도당 170
- 벌말 도당굿 169, 170
- 범어사 32
- 범성선원 35
- 법천사 17
- 『법화영험진』 19, 21
- 범화중 41
- 베르뇌 81
- 벽천서당 234
- 변기재 239
- 변영현 208
- 별나라사 양감지사 237
- 병오박해 78
- 병인대박해 84
- 병인박해 82, 86, 87, 90, 91
- 병인박해기 87
- 병인양요 89
- 병점 공소 100
- 보명학교 208
- 보시동 131, 209, 213
- 보신강습소 235, 238
- 보신강습소 교우회 238
- 보적사 15
- 보통학교 306
- 보해 20
- 보현사 33
- 보흥(普興)학교 208
- 복장 329
- 본당 95
- 봉녕사 35, 37
- 봉녕사 삼존석불 35
- 봉담공립보통학교 229
- 봉담읍 47
- 「봉불기복계」 25, 28
- 봉선사 23, 32, 33
- 봉은사 16, 23, 32, 33
- 『부모은중경』 24
- 부영골본당 96
- 부인야학부 240
- 부제열 314
- 북감리교회 209, 213, 343
- 북감리회 128
- 북감리회 선교구역 128
- 북수동 140, 215
- 북수동본당 100, 101
- 북수동성당 98
- 북수리 110, 111
- 북수리본당 100
- 북장로회 128
- 불교 15, 23, 28, 30
- 불교계 15, 16, 20
- 불교관 25

불교비밀결사 35  
 불교사상 24  
 불교연구회 32, 33  
 불교정책 24, 25, 31  
 불교정화운동 37  
 불교회관 42  
 불설부모은중경관 29  
 브라이들 131, 132, 144  
 블랑 90  
 비구니 37, 40  
 비구니 사원 37  
 비밀결사단체 154  
 비밀결사운동 416  
 비봉공립보통학교 229, 249  
 비봉국민학교 청룡분교장 254



사경회 137, 160  
 사노 켄레이(佐野前勵) 30  
 사도세자 32  
 사립교육기관 207  
 사립삼일학교설립추성회 142  
 사립학교 208  
 사미니계 37  
 사사관리서 31, 32  
 사용석 109  
 사이토(齋藤角治) 203  
 사적지 87  
 사직당 178  
 사찰 15, 35  
 「사찰령」 33, 34  
 사찰음식 대향연 37  
 사창리 238  
 산루리 241  
 산의국민학교 262  
 산척동 81  
 삼곡공립보통학교 229, 231  
 삼미국민학교 254  
 삼미국민학교 세교분교장 254  
 삼미의숙 235, 241  
 삼신의례 190

삼일 208  
 3·1만세시위 114  
 삼일보통학교 325  
 삼일상업고등학교 262  
 삼일여자보통학교 325  
 삼일여학교 147, 149, 154  
 삼일여학교 교가 339  
 삼일여학당 142, 210, 213, 214, 215, 314  
 3·1운동 110, 145, 146, 148  
 삼일중학교 311  
 삼일학교 142, 143, 146, 147, 155, 156, 209, 211, 305, 311, 313, 318, 341, 343, 344, 353, 364  
 삼일학교 교가 339  
 삼일학교 교장 211  
 『삼일학교 학적부』 342, 347  
 삼일학당 145, 209, 210  
 상동 208  
 상류천 131  
 상순 30  
 상용 38  
 새벗사 수납지사 237  
 새원여 82  
 샘골 81  
 서광선 134  
 서당 233, 297  
 서둔교회 159  
 서둔동 179  
 서둔동 산제 180  
 서둔동 서당제 180  
 서둔리 219, 238  
 서둔리(西屯里)야학부 235  
 서둔야학교 238  
 서둔(西屯)야학원 235  
 서병길 196  
 서병염 143  
 서상궁 208  
 서상덕 109  
 서상돈 143  
 서상천 208

서상춘 208  
 서상호 196  
 서선(西鮮) 시찰단 57  
 서성달 66  
 서신공립보통학교 229  
 서울농대 기독교학생회 159  
 서원 첼페정책 54  
 서장대 148  
 서재 47, 48, 69  
 서정리본당 101  
 서진하 208  
 서천(西天)야학원 235, 237  
 서행순 202  
 서호국민학교 262  
 석전제 50  
 석진형 196  
 선교사 88, 90, 91, 92, 93, 126  
 선교지역 분할협정 128, 131, 157  
 선암사 33  
 선원사 18  
 선종 16, 23  
 선학원 35, 40  
 설경동 69  
 성결교 131, 132  
 성공회 131, 132, 137, 156, 314  
 성공회 수원교회 144, 162, 164, 165  
 성균관 62, 66  
 성균관대학 67, 68  
 성균관대학 기성회 67  
 성 미카엘 성당 100  
 성보 19  
 성서강론소 140  
 성서학원 132  
 성스데반성당 139  
 「성적도」 54  
 성적평가 381  
 성창사 37  
 성철 스님 37  
 성피득보육원 162

성행개평 351  
 성행평가 381, 384  
 성호면 239, 241  
 세계기독교 통일선명협회 수원교  
 회 160  
 세교리 109  
 세례식 77, 78  
 세류동 131  
 소년동맹 양감지부 237  
 소설위 46  
 소풍 322  
 소학교 297  
 손경서 81  
 손병희 105, 106, 111  
 손재기 116  
 솔대소년야학부 235, 239  
 송곡서당 234  
 송광사 33  
 송라간이학교 231  
 송병선 54  
 송산공립보통학교 228  
 송산국민학교 관현분교장 254  
 송세호 143, 199, 311  
 송시열 19  
 송영빈 199  
 송영수 122  
 송인기 237  
 송인만 64  
 송인천 238  
 송인철 235  
 송재문 118  
 송재은 118  
 송죽리 239  
 수선사 18  
 수성고등학교 262  
 수성군 16  
 수성중학교 262  
 수성학교 208  
 수원가정여학교 308  
 수원가톨릭대학교 102  
 수원거류민립소학교 245

수원거류민소학교 369, 378  
 수원계삭회 135  
 수원고녀 367, 370, 374, 375,  
 378, 380, 381, 384, 389, 394  
 수원고농 406, 413, 417  
 수원고농 독서회사건 418  
 수원고농 맹휴사건 407  
 수원고농 3차 사건 419  
 수원고농사건 419  
 수원고등농림학교 318, 399,  
 400, 408  
 수원고등농림학교 독서회사건  
 418  
 수원고등학교 교가 338  
 수원공립가정여학교 245, 248,  
 369, 370  
 수원공립간이농업학교 230  
 수원공립고등여학교 247, 248,  
 367, 369, 370, 371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설립기성회  
 248  
 수원공립국민학교 245  
 수원공립농업학교 242, 244, 325  
 수원공립보통학교 203, 206,  
 223, 225, 228, 306, 315, 318,  
 320, 326, 333  
 수원공립보통학교 교가 337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230,  
 245, 378, 389  
 수원공립심상소학교 223  
 수원공회당 242  
 수원교구 91, 95, 96, 97, 101,  
 111, 123  
 수원교구 청년회 122  
 수원교육지원청 277  
 수원교육청 274  
 수원교회 132, 137, 139, 141, 158,  
 162, 164  
 수원 구세군교회 160  
 수원구역 129, 136  
 수원구제회 156

수원군 254  
 수원군 공립보통학교 229  
 수원군공립소학교 200, 201,  
 202, 203, 298  
 수원군공립심상고등소학교 314  
 수원군 교육기관 224, 225  
 수원군 서당 234  
 수원군수 60, 202, 242  
 수원군 종리원 117  
 수원군 학교비 251  
 수원권선교구 123  
 수원 김씨 16, 17, 18  
 수원남자매일학교 213  
 수원농림학교 219, 220, 221,  
 311, 368  
 수원농업실수학교 308  
 수원동맹 118  
 수원매향학교 213  
 수원면 223, 240, 244  
 수원면 만세시위 147  
 수원면장 242  
 수원명륜간이상업학교 230  
 수원명륜공립간이농업학교 230  
 수원명륜학교 217  
 수원본당 100  
 수원부 국채보상회 200  
 수원북중학교 262  
 『수원불교』 40  
 수원비행장 390  
 수원사 38  
 수원상업강습소 146, 147, 155,  
 216, 217  
 수원상업회의소 216, 217, 218,  
 235  
 수원세류소학교 327  
 수원소년군 156  
 수원소년동맹 송죽지부 239  
 수원순회구역 130  
 수원시 262  
 수원시교육위원회 255  
 수원시교육청 263

수원시기독교연합회 164  
 수원시 학교 일람표 281  
 수원신사 389  
 수원신평소학교 327  
 수원엠펙청년회 145  
 수원여고 394, 396  
 수원여자고등학교 369, 395  
 수원여자매일학교 213  
 수원여자중학교 395  
 수원 유림 61  
 수원유림단 65  
 수원유수 86, 130  
 수원유수부 80, 81, 82, 83, 84, 86, 87  
 수원읍 250  
 수원 읍내 공소 98  
 수원 읍내 본당 100  
 수원YMCA 164  
 수원EYC 164, 165  
 수원일본인회 368  
 수원제일교회 158, 167  
 수원종로교회 142, 146, 155, 156, 160, 162, 163, 209  
 수원중군 87  
 수원중등학교기성회 243  
 수원중앙침례교회 159, 167  
 수원중학기성회 242  
 수원청년동맹 119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239  
 수원관관 87  
 수원포교당 34, 38  
 수원 천주교회 98  
 수원 최씨 16, 17  
 수원포교당 수원사 35, 38  
 수원향교 45, 47, 49, 50, 54, 55, 58, 59, 62, 63, 64, 68, 69, 70, 71, 72, 202, 369  
 수원향교 장의 64  
 『수원향교지』 64  
 수원 혈복단 154  
 수주 16

수촌교회 146, 151  
 수촌리 113, 151  
 수표교 77, 78  
 수학여행 322, 323, 325  
 순교사적지 88  
 순교자 83  
 송유역불정책 23, 30, 31  
 스웨어리 129, 130, 131, 135, 214  
 스코필드 152  
 스크랜턴 133, 134, 213, 214, 215  
 스크랜턴 대부인 128, 133, 134  
 시마다(嶋田清) 247, 371  
 시월 상달교사 189  
 시장 변영희 175  
 시흥계삭회 135  
 시흥구역 136  
 시흥동맹 118  
 시흥청년동맹 118  
 신간회 119, 120, 416  
 신간회 수원지회 155, 156  
 신간회 오산분회 239  
 신경호 118  
 신능순 267  
 신달수 109  
 신리 19  
 신명옥 122  
 신미양요 89  
 신병균 203  
 신사잡배 328, 329  
 신상완 34, 35  
 신석희 87  
 신앙 88  
 신앙공동체 76, 78, 79, 88, 133  
 신앙생활 91  
 신온서당 234  
 신유박해 78  
 신인종 42  
 신재남 203  
 신좌균 204  
 신준희 216, 235  
 「신중탱화(神衆幀畫)」 37

신진갑 235  
 신축교난 92  
 신파 120, 121  
 신평국민학교 교가 337  
 신평심상소학교 230  
 신평초등학교 교가 338  
 신현구 154  
 신현정 203  
 실업교육 355  
 심낙서 37  
 심상소학교 230  
 심영진 109  
 심의성 196  
 심인경 118  
 쌍봉산 149

○ 아담스기념관 311  
 아리실 130, 135  
 아리실교회 134  
 아리타 도시오(有田後夫) 151  
 『아미타회상도』 37  
 아카쓰 모토(赤津基) 247, 371  
 아펜젤러 126, 145  
 안곡서원 68  
 안낙순 111  
 안녕공립심상소학교 223  
 안녕리야학 235, 239  
 안녕리(安寧里)야학회 235  
 안녕상우회 239  
 안덕승 64  
 안동순 118  
 안릉공립보통학교 225, 229  
 안릉면 223, 239  
 안상규 109  
 안성분당 96, 101  
 안영태 242  
 안재규 108  
 안정옥 107, 108, 111  
 안종린 108, 111  
 안중화 196

- 안중환 108, 109, 111  
 안중후 145, 149, 151  
 안창호 35  
 안홍순 109  
 안희순 109  
 알렌 126  
 알릭스 98, 100  
 압고지본당 101  
 앙드레 93, 94  
 애국계몽운동 142, 143, 195, 200  
 애국동지회 145  
 애국반 392  
 앵베르 81  
 야마자키(山崎三郎) 203, 367  
 야학 233, 235  
 「약사여래후불탱화」 37  
 약현본당 97  
 양간 81  
 양간공소 90  
 양감공립보통학교 229  
 양감국민학교 사창분교장 254  
 양감면 237  
 양감장학계 237  
 양근 78  
 양명익숙 235  
 양명학원 235  
 양부성 235, 240  
 양성관 216, 217, 242, 248  
 양지본당 101  
 양치현모 372  
 양평본당 101  
 『어우야담(於于野談)』 77  
 어용선 196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 29  
 어탄면 130  
 언더우드 126, 152  
 엄비 37  
 엄운보 115  
 여규형 196  
 여성교육 377  
 연담유일 25
- 연등회 16  
 연무대 148, 313  
 연무동 산신당과 기우제 177  
 연합운동회 314  
 염거 26  
 영국성공회 127  
 영국성서공회 135  
 영동 거북산당 도당굿 173  
 영동시장 175  
 「영산회상도」 37  
 영선 37  
 영소 17, 18  
 영신중학교 262  
 영친왕 37  
 영통 기우제와 단오제 183  
 영통사 18  
 영통(靈通)야학회 235  
 영화국민학교 262  
 영화리 109, 240  
 예수교장로회 158  
 예수성심신학교 91  
 오가작통제 83  
 오노(小野) 367  
 오덕영 199  
 오메트르 81  
 오명환 132  
 오목천동 곳집말 정제우물고사 176  
 오산공립간이농업학교 231  
 오산공립농업보습학교 225, 231  
 오산공립보통학교 228, 231  
 오산교회 147  
 오산국민학교 254  
 오산리 239  
 오산시 51  
 오산부인야학 235  
 오산야학당 239  
 오상근 109  
 오세창 196  
 오영구 122  
 오용삼 123
- 오인선 134  
 오진영 109  
 오철선 199  
 오테영 109  
 와우리 47  
 완장리 51  
 왕립 94, 95  
 왕립 교우촌 94  
 왕립본당 91, 92, 93, 95, 98, 100, 101  
 외삼미리 241  
 요당리 81  
 용광사 35, 42  
 용두각 147  
 용문본당 96, 101  
 용소의숙 235, 237  
 용수말 81  
 용영만 239  
 용윤희 199, 242  
 용인군 130  
 용인동맹 118  
 용인청년동맹 118  
 용정식 239  
 용주사 23, 24, 25, 26, 27, 28, 30, 31, 32, 33, 34, 35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29  
 용주사 목조감실 29  
 용주사 목조소대 29  
 용주사 목조원패 29  
 용주사 병풍 29  
 용주사 삼장보살도 29  
 용주사 효행박물관 28, 29  
 용화사 35  
 우정공립보통학교 229, 231  
 우정국민학교 석천분교장 254  
 우정면 149  
 우정면사무소 113  
 우종휘 408, 409, 411, 413, 416  
 우화관 202  
 「운대종사기념비」 41  
 운동장 310

- 운동회 313, 315, 318  
 원각 국사 35  
 원각사 19  
 원세정 87  
 원주본당 96  
 원찰 17, 26, 27, 30  
 원흥사 31  
 월혜 스님 37  
 윌리엄 스코트 159  
 유가심인당 35, 42  
 유가종 17, 18  
 유교 61, 66  
 유교계 45  
 유교식 제사 175  
 유근 196  
 유기덕 64  
 유기은 63  
 유길준 197  
 유도진흥회 65  
 유도천명회 65  
 유도회 66  
 유도회총본부 67  
 유림 59, 62  
 유림계 61  
 유림연합회 65  
 유림회관 69, 71  
 유무종 240  
 유물 28  
 유방제 82  
 유병필 196  
 유부영 345, 364  
 유성준 196  
 유승근 87  
 유영학 240  
 6월항쟁 165  
 유익옥 132  
 유일선 196  
 유재준 118  
 유재환 418, 419  
 유정 23  
 유정렬 235, 238  
 유진철 108, 118, 122  
 유진홍 111  
 유천준 238  
 유치겸 133  
 유택희 62  
 유헌검 78  
 유희준 115  
 육동백 411, 416  
 윤공회 101, 102  
 윤교충 115, 122  
 윤만영 241  
 윤보영 203  
 윤영흠 122  
 윤용희 236  
 윤원성 199  
 윤자영 417  
 윤주영 241  
 윤준구 109  
 윤준흠 122  
 윤치오 196  
 윤치호 197  
 윤태오 109  
 윤태은 199  
 윤태익 63, 109  
 윤태정 242  
 윤태중 62, 63  
 윤학영 235, 241  
 윤한흠 310  
 윤홍자 40  
 윤효정 196  
 윤홍섭 143  
 윤희수 86, 87  
 을전간이학교 231  
 융릉 32  
 은언군 32  
 의병승 23  
 의병전쟁 195  
 의선 20, 21  
 의천 16, 42  
 이가환 84  
 이강년 122, 123  
 이강렬 240  
 이경민 81  
 이경숙 135, 214  
 이경순 109  
 이경하 86, 87  
 이계환 199  
 이교달 108  
 이궁구 199  
 이규경 76  
 이규영 203  
 이근호 63  
 이근화 64  
 이궁래 63  
 이기동 235, 237  
 이기래 63  
 이기완 66  
 이기찬 196  
 이나즈 히데오(稻津英夫) 247, 371  
 이남희 108  
 이노하라(猪原) 367  
 이대순 143  
 이대현 241  
 이덕무 28  
 이덕봉 253  
 이덕상 394  
 이도재 197  
 이득수 154, 155  
 이마무라(今村) 367  
 이면우 196  
 이명숙 131, 135  
 이문원 26, 52  
 이민도 107, 119  
 이범창 211  
 이범행 41  
 이벽 78  
 이병구 63  
 이병수 118  
 이병운 63  
 이병찬 109, 118  
 이병철 63

- 이병헌 108, 109, 110, 111, 115, 116, 119, 120  
 이봉구 107, 113  
 이봉빈 159  
 이상우 118  
 이상재 196  
 이색 22  
 이석구 67  
 이선경 147, 154  
 이선익 208, 314  
 이선좌 115  
 이성구 108, 109, 111, 115  
 이성모 239  
 이성우 199  
 이성의 199, 209, 343  
 이성일 238  
 이수경 240  
 이수광 77  
 이순구 63  
 이순하 198  
 이순호 159  
 이승락 64  
 이승만 66  
 이승준 87  
 이승화 203  
 이승훈 78  
 이연숙 109, 115, 116, 117, 120, 122  
 이영산 238  
 이영서 108  
 이영재 321, 333  
 이완용 208  
 이용구 106  
 이용규 62, 63  
 이용묵 199  
 이용빈 79, 83, 84  
 이용직 196  
 이용필 118, 418, 419  
 이용현 118  
 이용화 240  
 이용훈 102
- 이용희 199  
 이우규 196  
 이우세 66  
 이우영 196  
 이운구 199  
 이원규 203  
 이원상 109  
 이원생 196  
 이원식 239  
 이원일 81  
 이은 37  
 이은승 134  
 이응중 196  
 이익 24, 77  
 이인수 122  
 이인숙 108, 115  
 이재우 115  
 이재원 87  
 이재익 196  
 이정서 107, 108, 109  
 이정우 115  
 이존창 78  
 이종렬 109  
 이종린 411  
 이종상 154  
 이종석 107, 108  
 이종수 115  
 이종약 199  
 이종우 64, 122  
 이종웅 238  
 이종익 63  
 이종일 196  
 이종환 108, 109, 115, 118, 122  
 이주현 109  
 이중찬 235  
 이지성 79, 211  
 이진학 82  
 이창근 62  
 이창복 64  
 이천본당 101  
 이철주 64
- 이철허 34  
 이총익 78  
 이춘원 134  
 이케다 요시다비(池田義種) 247, 371  
 이태현 157, 159  
 이필구 202, 203  
 이필상 62, 63  
 이필세 109  
 이필우 107, 109  
 이하라 가오루(渭原馨) 34  
 이하영 144, 199, 200, 209, 211, 213, 343  
 이화학당 214  
 이회신 108, 118  
 이휘래 63  
 이홍수 118  
 이흥회 199  
 이희경 147, 155  
 인광 81  
 일련종 30  
 1면 1교 정책 229  
 일본 메도디스트교회 141  
 일본인 367, 368  
 일본인 교육기관 244  
 일본인사회 389  
 일본 조합교회 141  
 일진회 106  
 일형면 219, 238, 239, 240  
 임덕래 109, 118  
 임면수 143, 144, 199, 200, 209, 343  
 임명규 234  
 임봉래 109  
 임봉호 422  
 임순남 147, 154  
 임승팔 122  
 임영환 109  
 임응순 147  
 임의준 255  
 임인수 118

입정식 109  
 임춘성 157  
 임치선 81  
 임학수 81  
 임형래 109, 118  
 임홍수 199  
 입학 연령 376, 377

**㉠** 자매회 326  
 장규한 234  
 장기준 118  
 장기환 108, 115  
 장덕수 115  
 장도 196  
 장로교 수원교회 157  
 장로교회 157  
 장명옥 241  
 장순덕 157  
 장안간이학교 231  
 장안강습소 235  
 장안동 210, 214, 215  
 장안면 149  
 장안면사무소 113, 149  
 장연궁 235  
 장연수 115  
 장용영 28  
 장윤광 237  
 장윤수 238  
 장의 64  
 장채건 109, 122  
 장제석 237  
 장조 32  
 장주문 237  
 장지내 133, 135  
 장지내교회 130, 133, 134  
 장지동 130  
 장지리 129, 131  
 장지리교회 128  
 장한수 122  
 장한순 118

장헌세자 32  
 장헌식 196  
 전광현 199  
 전국유림대회 66  
 전도관 132  
 전도부인 133  
 전등사 33  
 전범용 240  
 전사청 49  
 전선유림대회 65  
 전시동원체제 374  
 전통사찰 35  
 정광시 87  
 정교 196  
 정기명 86, 87  
 정기영 109  
 정기형 63  
 정길 19  
 정남공립보통학교 229  
 정남국민학교 망월분교장 254  
 정대성 113  
 정도영 107, 108  
 정도준 116  
 정등운 160  
 정문리 237  
 정문(正文)야학회 235  
 정빈 132  
 정순영 113  
 정승환 109  
 정신학술강습소 235  
 정약용 78, 84  
 정약전 78  
 정영택 196  
 정용진 199  
 정월중 42  
 정이섭 64  
 정조 23, 24, 25, 51  
 정주영 422  
 정태봉 122  
 정태홍 122  
 정토종 32

정하상 81  
 정형모 255  
 제관득 79, 83  
 제4차 수원고농사건 422  
 제3차 수원고농사건 422  
 제암리 145  
 제암리교회 145, 146, 149, 151, 152, 153  
 제암리사건 149, 153  
 제암리학살사건 151, 152, 154  
 조계종 35  
 조광조 50  
 조만원 419  
 조명오 81  
 조명재 239  
 조백현 400  
 조병식 54  
 조선감리회 136  
 조선개척사 408, 414, 416  
 「조선개척사 사업계획안 및 규약」 414  
 조선공산당 417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419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김천그룹 419  
 조선농민사 409  
 조선농민사 수원지부 410  
 조선농우연맹 409  
 조선불교중앙포교당 34  
 조선유교회 65  
 조선유도연합회 65  
 「조선유림대선언문(朝鮮儒林大宣言文)」 65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221  
 조선희중교회 141  
 조심태 28  
 조연교 199  
 조영호 199  
 조완구 196, 198  
 조인규 18, 20  
 조인행 235

- 조재승 64  
 조제하 411  
 조중목 204  
 조포사 26  
 조행평가 382  
 조현영 87  
 조희 319, 320  
 조희창 151, 152  
 존스 130  
 졸업생 지도학교 353  
 종로교회 135, 136, 142, 144, 214  
 주문모 84  
 주어사 78  
 중국공산당 민주성위원회 동만특  
 별위원회 418  
 중규면 51  
 중등교육기관 242, 344  
 중등학교 설립운동 242  
 중법산 31, 32  
 중설위 46  
 중앙학림 34  
 중학교 262  
 중학교 현황 286  
 지곶동 15  
 지눌 16  
 지동국민학교 262  
 『지봉유설』 77  
 지식영 196  
 지신밟기 188  
 지영태 122  
 지하영 199  
 직업교육 362  
 진각 22  
 진각 국사 21  
 진각종 35, 42  
 진구사 19, 20  
 진덕회 109  
 진명 국사 17, 18  
 진명구락부 155, 156  
 진명여야학원 241  
 진명여자야학 234  
 진명학교 139, 314  
 진병식 109  
 진보회 106  
 진시영 107, 108, 109, 199  
 진언종 42  
 진종구 115  
 집단맹휴사건 400
- ㉠** 차석우 143  
 차석호 199  
 차우르다 216  
 차유순 199, 200, 209, 242, 343  
 차용허 32  
 차인범 151  
 차인재 154  
 차재윤 242  
 차한규 199  
 차효순 199  
 창성사 21, 22  
 「창성사 진각국사원조담비」 16, 21  
 창씨개명 392, 393  
 창훈대교회 160, 165  
 채규학 234  
 채제공 28  
 천도교 105, 106, 108, 114, 149, 151  
 천도교구 149  
 천도교 사범교리강습소 109  
 천도교 수원교구 105, 107, 110,  
 113, 115, 118, 121, 122, 123  
 천도교수원군종리원 120  
 천도교 수원청년동맹 119  
 천도교 전교실 111  
 천도교종리원 121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 116  
 천도교청년당 117  
 천도교청년동맹 117, 120  
 천도교청년회 116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 120  
 천윤근 109  
 천주교 75, 76, 78, 83, 84, 87, 89, 90  
 천주교 박해 83, 87, 98  
 천주교 수원교구 75, 101  
 천주교회 76, 77, 93  
 『천주실의』 77  
 천진암 77, 78  
 천천동 느티나무교사 182  
 천태종 19, 20, 35, 42  
 천희 21, 22  
 청년회 수원지회 116  
 청담 스님 37  
 청동향로 29  
 청련 37  
 청련사 35, 37  
 청신사 40  
 『청포도』 395  
 초등교육기관 223, 225  
 초등학교 현황 281  
 초평 82  
 총지종 42  
 최계방 17  
 최기련 115, 122  
 최덕기 102  
 최덕환 108  
 최동필 199  
 최문순 147, 154  
 최민학 109  
 최사위 16, 17  
 최서천 16  
 최성대 198, 199  
 최성린 123  
 최성석 235, 237  
 최성업 159  
 최순화 109  
 최신복 120  
 최영순 122  
 최영희 108, 109  
 최완희 199  
 최유서 17  
 최의열 108, 115  
 최익환 199, 209, 343  
 최재순 115

최재원 118  
 최중순 199  
 최중철 66  
 최진성 122  
 최진협 115  
 최태균 109  
 최해택 237  
 최혁 116  
 최혁래 107, 109, 203  
 최형희 107  
 최홍기 418, 419  
 최희원 64  
 차동규 123  
 친일 유림단체 64  
 칠보국민학교 262  
 「칠성탱화」 37  
 7월 칠석 의례 190

ㄱ 코프 127, 131, 132

쿠퍼 162  
 크렘프 100  
 큰말 도당 170  
 큰말 도당굿 171  
 태보사 35  
 태장공립보통학교 225, 228  
 태학 45  
 터너 132

II 파리의방전교회 82

파장공립보통학교 231  
 파장동 장승제와 산신제 180  
 판사제도 23  
 팔관회 16  
 팔달문 동중 16, 18  
 팔달사 35, 40, 41  
 팔달선원 35  
 팔달심상소학교 343, 345, 364  
 팔부жат집 98  
 팔탄공립보통학교 228

팔탄교회 141  
 팔탄국민학교 월문분교장 254  
 평택교회 132  
 평택본당 101  
 포당동 237  
 포당야학원 235, 237  
 포승면 79  
 폴리 100  
 푸아넬 90, 91

ㅎ 하라다(原田武雄) 248, 371

하우현본당 95, 101  
 학교 195, 223, 297, 299  
 학교 설립운동 207  
 학교조합 368, 369  
 학교 현황 254, 262, 264, 267, 273, 274, 275, 278  
 학린사 67  
 학예회 326  
 학적부 342, 348, 351, 353, 372, 374, 381, 38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수  
 원지역인권위원회 165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163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수원지부  
 164  
 한국신학대학 164  
 한규설 200  
 한공수 237  
 한명수 64, 160, 165  
 한병희 237  
 한봉교 64  
 한불조약 91, 92  
 한상봉 64, 199  
 한성교 64  
 한용운 34  
 한운택 235  
 한이형 81  
 한일승려합동무차대법회 30  
 한전중 417, 418

한중석 237  
 한창수 235, 237, 238  
 해인사 32  
 향교 45, 46  
 향교 재산 55, 58, 61  
 「향교재산관리규정」 55  
 「향교재산관리규칙」 57  
 향교 직원 64, 66  
 향교정책 55  
 향남공립보통학교 229, 231  
 향남면 145, 223  
 향사 55  
 현기원 122  
 현릉원 25, 26, 28, 32, 51  
 현목 19  
 현신규 157  
 「현왕탱화」 37  
 현운환 109  
 현화사 16, 17  
 혈복단 154, 155  
 형관식 109  
 해각 국사 37  
 헤거 26  
 혜신 42  
 혜운 41  
 혜잠 22  
 호국불교 16  
 호매실동 자목마을 머루바위 치성  
 185  
 호소카와(細川) 367  
 호주 장로회 126  
 혼기 19, 20  
 혼원 17, 18  
 흥건섭 199, 216  
 흥건표 209, 343  
 흥기현 81  
 흥길유 64  
 흥낙선 263  
 흥달삼 64  
 흥민섭 216  
 흥보배 216

홍사훈 199  
 홍살문 49  
 홍성교회 147  
 홍수광 113  
 홍순경 64  
 홍승은 60, 64  
 홍원식 145, 151  
 홍원어 81  
 홍유영 199  
 홍익선 208  
 홍종각 108, 111, 115, 116, 117,  
 118, 120, 122  
 홍종국 109  
 홍종태 64  
 홍종후 64  
 홍태후 64  
 홍필주 196  
 홍형표 199  
 홍홍석 241

화계사 31  
 화령전 32, 130  
 화북야학강습원 235, 240  
 화산국민학교 254  
 화산용주사상량문 29  
 화산야학부 235  
 화서동 약사불 신앙 186  
 화성군교육구 255  
 화성궐리사 50, 51, 54, 68  
 화성여학교 313  
 화성학교 244, 367  
 화성학원 234, 235, 236, 309  
 화성학원 야학부 235  
 화성학원 원가 338  
 화수간이학교 231  
 화수리 151  
 화수리주재소 149  
 화양 208  
 화양동 81

화엄종 18, 22  
 화엄학 25  
 화홍어린이도서관 43  
 환도골 81  
 활초리교회 141  
 황경주 116  
 황경후 239  
 황국신민 328  
 황봉선 416  
 황태연 199  
 황한동 203  
 효순사상 24, 28  
 휴정 23  
 흥덕사 23  
 흥선대원군 54  
 흥왕사 18  
 흥천사 23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권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김명숙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김명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수현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원재연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윤성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장덕삼   전 원광대학교 교수  
장용경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정혜정   원광대학교 HK연구교수  
최자운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수원시사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keeg.com

---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0-3  
ISBN 978-89-87738-60-4(세트)

